

# 한중인문학연구

77

한중인문학회



## 한중인문학연구 제77집 목차

### ■ 기획 논문

기획 주제-한(韓)·중(中) 문학에 나타난 공간인식

유미란 · 〈사씨남정기〉에 나타난 중국 지리의 상징성 연구 .....	1
진저 · 진산화 · 1930년대 한·중 도시소설의 또 다른 저항 무드 .....	23
김윤정 · 심연수 문학에 나타난 장소 체험과 의식의 상관성 연구 .....	57

### ■ 일반 논문

안해숙 · 풍호 · 타자 시각으로 보는 ‘9.18’ 국난서사 .....	87
전진동 · 의암 유인석의 청렴사상 연구 .....	113
김효주 · 『해천추범』 여행기에 나타난 세계 인식과 근대성 고찰 .....	139
송향경 · 불가해한 아이와 계층론의 투영 .....	161
赵娜 · 赵新建 · 韩汉回溯性话语标记“하긴”与“话(又)说回来”的交互主观性研究 ..	193
王冬梅 · 郭长誉 · 刘人博 · 中国外交话语的隐喻类别及其韩译方法研究 .....	225
刘平 · 现代汉语流行词“丧”的认知语义演化机制研究 .....	249
邓欣 · 从『诗经』中看祭祀活动由商至周的政治化演变 .....	269
侯美灵 · 博物学视野下的宋代琼花诗研究 .....	293
郑冬梅 · 尹允镇 · 以史为鉴、以史为镜 .....	321



## 〈사씨남정기〉에 나타난 중국 지리의 상징성 연구\*

유미란\*\*

### 국문요약

본고는 문학지리학의 관점에 입각하여 주인공 사씨의 이동경로를 따라가 보는 것을 통하여 〈사씨남정기〉에 나타난 중국 지리 배경의 합리성과 비합리성을 따져보고 작품에 나타난 공간을 주인공 사씨의 자발성 여부에 따라 자발적 이동공간과, 자발적 지향 공간, 비자발적 이동공간으로 나누어 보았다. 본고에서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성도는 사씨가 유한림에 의해 첫 번째 비자발적 퇴출을 당한 뒤 선택한 자발적 이동공간이다. 사씨가 친정이 있는 신성현에 가지 않고 시부모의 선영이 있는 성도로 향하는 것은 자신은 여전히 유씨 집안 사람이라는 강한 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씨남정기〉에서 말하는 “성도 묘하”에서의 성도란 북경 도성을 의미한다. 장사는 사씨가 교씨와 동청, 냉진에 의해 시부모 선영에도 머무르지 못하게 되고 또 한 번의 비자발적 퇴출을 당하자 선택한 자발적 지향 공간이다. 사씨가 장사로 가고 싶어하는 원인은 무엇보다 그곳에는 유씨의 고모인 두부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즉 사씨의 지향공간은 첫 번째는 유씨의 선영이고, 두 번째는 유씨의 혈육이 있는 곳이다. 아울러 장사는 주자학의 집대성자인 주희를 배출한 유교문화의 산실역할을 하던 공간이므로 장사의 이러한 상징성은 유교지향적인 사씨의 인물성격과도 잘 어울린다. 그런데 장사로 향하던 사씨는 격랑에 의해 장사에 가지 못하고 동정호에 이르게 된다. 이에 사씨는 자살을 기도하는데 이는 동정호는 사씨의 지향공간이 아닌 비자발적 이동공간이기 때문이다. 동정호는 〈사씨남정기〉의 가장 핵심적인 지리공간으로 작품의 주제의식과 작가의식의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주제어** 사씨남정기, 김만중, 문학지리학, 중국지리, 상징공간

\* 이 논문은 제49회 한중인문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원고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 중국 중앙민족대학교 박사과정

## 〈목차〉

1. 서론
2. 본론
  - 1) 자발적 이동 공간: 성도
  - 2) 자발적 지향 공간: 장사
  - 3) 비자발적 이동 공간: 동정호
3. 결론

## 1. 서론

한국 고전소설은 한국의 내용을 담으면서도 대부분의 작품들이 중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sup>1)</sup> 따라서 작품 속의 이야기들도 모두 중국의 어떠한 공간들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공간들은 작품 속에서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일정한 기능을 하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문학지리학이 크게 각광을 받고 있다. 문학지리학은 지리학과 문학의 교집합에 입각하여 문학작품 속에 등장하는 지리 배경에 초점을 맞추어 그것이 작품 속에서 가지는 의미와 가치를 규명하는 작업이다. 지금까지 문학지리학 연구자들은 대체적으로 이푸 투안의 『공간과 장소』와 『토포필리아』, 에드워드 켈프의 『장소와 장소상실』 등 인문지리학 저서들을 그 이론적 근거로 삼고 있다. 하지만 문학지리학은 아직까지 명확히 확립이 되지 않은 개념이기에 연구자들마다 사용하는 용어들도 완전한 통일을 이루지 못한 부분들도 존재한다. 한국학계에서 가장 처음으로 문학지리학 영역을 개척한 연구자는 지리학자 이은숙<sup>2)</sup>이다. 이후 문학지리학의 관점은 여러 논문들에서 분석에

1) 중국 지리가 공간배경에 나오는 한국 고전소설작품들로는 본고에서 다룬 〈사씨남정기〉 이외에도 〈구운몽〉, 〈김영철전〉, 〈최척전〉, 〈주생전〉, 〈조웅전〉, 〈숙향전〉, 〈유충렬전〉 등 다수의 작품들이 있다. 한국 고전소설에서 중국을 무대로 하고 중국 사람을 등장시키는 이유는 이를 통해 작품의 격을 높이고 또 사건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조동일, 『한국문학통사3』, 지식산업사, 1984, p.99 참고.)

2) 이은숙, 「문학지리학 서설-문학과 지리학의 만남-」, 『문화역사지리』 제4집,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1992.

응용되어왔으며 현재까지 적지 않은 선행연구들이 있다.<sup>3)</sup> 가장 최근에 문학지리학의 이론 정립 및 연구를 시도한 연구자는 권혁래<sup>4)</sup>인 것으로 조사된다. 권혁래는 지금까지 문학지리학 영역에서 이루어져온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나는 각종 상이한 관점들과 연구방법론을 비교적 체계적으로 통합, 정리하였으며 문학지리학에 입각하여 새로운 텍스트 분석을 하였고 나아가 문학공간을 활용한 콘텐츠 전략까지 전망하였다. 이런 선행들의 연구는 문학 작품 속의 공간연구에 많은 시사성을 준다. 본고는 문학지리학의 관점에 입각하여 <사씨남정기>에 나타난 중국 지리 배경의 의미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사씨남정기>는 조선 숙종 때 문신이자 소설가였던 서포 김만중이 지은 고전소설이다. 이 작품에는 수많은 중국의 지리공간이 등장한다. <사씨남정기>에 나타난 중국 지리 연구에 대해서는 우쾌제의 선구적인 업적이 있었다. 우쾌제는 다수의 논문을 통하여 <사씨남정기>에 나타난 중국 지리 공간의 상징적 의미와 작품 속에서의 서사기능을 밝혔고 서포의 중국인식을 규명하였으며, 서포가 중국 현지에 대한 현장 체험이 없이 <삼국지연의> 혹은 두보, 이백과 같은 선인들의 문학작품들을 통한 상상적 체험의 한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지리적 오류들을 범하고 있다고 밝혔다.<sup>5)</sup> 권순궁은 <사씨남정기>를 <구운

- 
- 3) 권순궁, 「한국 고소설과 중국 호남지역」, 『한문학보』 제19집, 우리한문학회, 2008.  
권혁래, 「〈최척전〉에 그려진 ‘유랑’의 의미」, 『국어국문학』 제150집, 국어국문학회, 2008.  
\_\_\_\_\_, 「문학지리학 연구의 정체성과 연구방법론 고찰」, 『우리문학연구』 제51집, 우리문학회, 2016.  
김수연, 「남악 형산, 유불도 인문지리의 공간경계역」, 『고전문학연구』 제45집, 한국고전문학회, 2014.  
윤주필, 「한국 한문학에서 본 중국 강남의 문학지리학」, 『한국문학연구』 제49집, 한국학 문학회, 2012.  
\_\_\_\_\_, 「한국 고시가의 강남 문학지리학」, 『열상고전연구』 제41집, 열상고전연구회, 2014.  
\_\_\_\_\_, 「한국 고전문학에서 본 중국 산둥과 강남의 체형과 인식」, 『열상고전연구』 제44집, 열상고전연구회, 2015.  
이강엽, 「〈九雲夢〉의 문학지리학적 해석」, 『어문학』 제94집, 한국어문학회, 2006.
  - 4) 권혁래, 『문학지리학의 이론과 해석: 문학공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할 것인가?』, 서강대학교출판부, 2022.
  - 5) 우쾌제, 「〈남정기〉의 남정로에 나타난 서포의 중국 인식 고찰」, 『국어국문학』 제115집, 국어국문학회, 1995.

몽), 〈춘향전〉, 〈심청전〉을 비롯한 기타 한국고전소설들과 함께 비교 분석하면서 작품 속에 나타난 중국 호남지역의 상징의미를 연군의식이라고 보았다.<sup>6)</sup> 김창원은 한국 고전시가에 나타난 중국 강남의 상징적의미를 조선시대 서울 양반들의 중앙중심적인 지향성에서 비롯된 거주지 공간개념인 경저와 별서의 심상지리의 확장된 의미와 연관된다고 보았다.<sup>7)</sup>

본고는 주인공 사씨의 이동경로를 따라가 보면서 〈사씨남정기〉에 나타난 중국 지리 배경의 합리성과 비합리성을 따져보고 작품 속에서 가지는 지리공간의 의미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조동일 소장본 〈사씨남정기〉를 텍스트로 삼아 연구를 진행하며 필요에 따라 기타 이본도 참고한다.

## 2. 본론

〈사씨남정기〉에 나타난 주인공 사씨의 이동경로에 따라 남정기의 노정도를 정리해본다면 북경 순천부(北京 順天府) → 성도(城都) → 화용현(華容縣) → 동정호(洞庭湖) → 악양루(岳陽樓) → 황릉묘(黃陵廟) → 군산 수월암(君山 水月庵) → 백빈주(白蘋洲) → 군산 수월암(君山 水月庵) → 강서부(江西府) → 북경 순천부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노정도에는 많은 노정의 합리성과 비합리성이 내재되어 있다.

〈사씨남정기〉의 시간 배경은 명나라 가정 연간(1522-1566년)이고 사씨는 수로로 북경에서 장사까지 이동하려 한다. 명나라 시기 실제 중국 지리 상황에 비추어 본다면 사씨는 먼저 경항대운하(京杭大運河)를 따라 북경에서 장강까지

\_\_\_\_\_, 「서포 소설과 남해」, 『애산학보』 제19집, 애산학회, 1996.

\_\_\_\_\_, 「서포 소설에 나타난 중국 인식 고찰」, 『성곡농촌』 제28집, 성곡언론문화재단, 1997.

\_\_\_\_\_, 「〈사씨남정기〉에 나타난 작가의식 고찰」, 『우리문학연구』 제14집, 우리문화회, 2001, pp.3-29.

6) 권순근, 「한국 고소설과 중국 호남지역」, 『한문학보』 제19집, 우리한문화회, 2008.

7) 김창원, 「고전시가에서 강남이라는 공간의 상징성과 역사성에 대하여」, 『한구고전연구』 제28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13.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하고 다음 장강을 따라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여 장사까지 가는 것이 당시로서는 가장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노선일 것이다.

대운하의 가장 이른 구간은 춘추전국시기부터 개척되기 시작하여 수나라 시대에 본격적으로 개통되었으며 북경에서 항주(杭州)까지 직통으로 편리하게 이어주는 경향대운하의 노선은 원나라 시대에 이미 완성되었다. 명, 청 시대에 이르러 경향대운하는 남북을 이어주는 핵심교통으로 작용하였다. 조운의 핵심역할을 하였고 더불어 남북 물질문명의 교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명, 청 시대에는 조선을 비롯해 민선, 상선, 화물선까지 모두 운하를 통해 활발하게 이동하였다. 따라서 <사씨남정기>의 시간 배경이 되는 명나라 가정 연간에 경향대운하는 당연히 이용 가능한 노선이었고 또 당시에 가장 편리하고 일반적인 노선이었다.

따라서 북경 순천부에 살고 있던 사씨가 수로를 통해 남방에 있는 장사로 간다고 했을 때 합리적으로 가려면 북경에서 배를 타고 경향대운하를 따라 먼저 경향대운하와 장강이 만나는 양주까지 남쪽으로 이동해야 한다. 양주에 도착한 다음에는 장강을 거슬러 서쪽으로 이동하여 장사를 향해 가야 한다.

그런데 <사씨남정기>에서는 사씨가 북경에서 배를 타고 수로로 장사를 향해 갔다고만 하였을 뿐 당시에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이었던 운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다만 장사를 향해 가고 있다가 물에 잠깐 올라온 것이 화용현이었고, 이어 다시 출발하여 가다가 격랑을 만나 동정호에 도착하였다고만 서술된다. 즉 이 작품에는 중국의 지리공간들이 많이 등장하지만 선으로 연결되었다기보다는 개개의 점들로 설정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 이러한 사씨의 이동 특징들은 사씨의 노정은 실제적인 체험 또는 여행기적 성격이 아니라 관념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이 점은 최부의 <표해록>(1488년)과 비교하여 볼 때 더욱 명확하게 나타난다. 최부는 명나라 시기 대운하의 전 여정을 답사한 첫 번째 조선인으로 기록되고 있다. <표해록>에는 최부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13일간 표류하다가 중국 절강성 태주에 도착 후 운하를 따라 북상하여 다시 육지를 거쳐 조선으로 돌아갔다고 나온다.

최부의 노선 중, 북경-천진-덕주-서주-회안-양주의 노선 구간은 사씨가 이동하게 되는 노정과 완전히 일치하다. 그런데 <사씨남정기>에는 북경 외 기타

지점들은 아예 등장할 하지 않는다. 시기적으로 <표해록>이 <사씨남정기>보다 200년 정도 앞서 있으므로 추측하건대 서포는 아마도 <표해록>을 접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씨남정기>에는 경향대운하를 통한 북경에서 양주까지의 이동경로가 생략되어 있다. 물론 <표해록>은 수기이고 <사씨남정기>는 소설이므로, 지리명칭의 생략과 오용에 대한 소설적 허용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서포는 사씨를 동정호라는 소설의 주요 배경공간에 빨리 보내는 것이 훨씬 중요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사씨남정기>에서는 사씨가 거쳐 가는 장소들에 대해 세세히 묘사를 했다가보다 그 장소의 상징적 이미지만 따다가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한 편이다.

따라서 소설 속에서 이미지화되어 나타나는 중국 지리배경에 대해서 상징적 의미와 알레고리를 읽어내는 것이 <사씨남정기>의 본래의 의도에 더 부합되는 독해방식이라 생각된다. 본고는 <사씨남정기>에 나타난 장소들을 주인공 사씨의 자발성 여부에 따라 자발적 이동 공간과 자발적 지향공간, 비자발적 이동공간으로 나누어보았다. 또 <사씨남정기>에 나타난 주인공 사씨의 노정도의 특성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노정과 비합리적인 노정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서포는 왜 이런 장소들에 사씨를 보냈을까, 나아가 왜 서포는 지리적 오류를 범하면 서도 굳이 사씨를 특정 장소에 보내야만 했을까를 고민해보면서 그 장소들이 작품 속에서 가지는 상징적 의미와 서사적 기능을 밝혀보려 한다.

### 1) 자발적 이동 공간: 성도

<사씨남정기>의 본격적인 이야기는 사씨가 유부에서 쫓겨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쫓겨난 사씨는 본가가 있는 신성현(新城縣)<sup>8)</sup>으로 가는 것이 아

8) 우쾌제는 신성현에 대해 ‘윤세형의 <사씨남정기> 주해 (1955)를 보면 지금의 直隸省 保定府에 속한 지방이라 했으나 어느 지역인지 알기 어렵다. 북경 근처에 있는 시골이 아닌가 생각된다’ 고 하였다. (우쾌제, 앞의 논문) 덧붙이자면, 고대의 신성현의 지리적 위치는 현재의 하북성 중부 및 북경시 서남부이다. 신성현은 명나라시기에 이르러 북평부(北平府)에 속했다가 명나라 홍무 연간(1373)부터 청나라말기까지 줄곧 보정부(保定府)에 속하였다. 1993년에 이르러 신성현이라는 이름을 취소하고 고비점시(高碑店市)라고 불렀다. 1994년부터는 하북성 보정부(保定市)에 소속되었다. 따라서 <사씨남정기>의 시

나라 시부모의 선산이 있는 성도로 향한다.

이때 사씨 교부를 분부하여 신성현으로 가지 말고 성도 묘하로 향하라 하니 하리 청녕하고 유씨 묘하에 이르러 수간 초옥을 얻어 처하니, 한산은 새벽되고 시호로 벗 시되야 화조월석에 부모와 구고를 생각하매 잇을 날이 없더라. 차사 사공자 이 기별 을 듣고 유체 알 여자가 부에게 용납지 못한즉 마땅히 본가로 돌아와 형제 서로 의지 하십이 옮겨늘 이 무인 산중에 홀로 계시니 도로혀 불편하리로소이다. 사씨 추연할 내 어찌 동기지정과 모친 영전에 모시기를 알지 못하리오만은 내 한 번 돌아가면 유 씨로 아주 끝쳐지고 한림이 비록 급히 나를 버렸시나내 일즉 선소사 기득 죄함이 없 으니 구교 묘하에 여년을 마침이 나의 원이니 (밑줄 표시 필자) 현재는 고이히 알지 말라.<sup>9)</sup>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서 <사씨남정기>에 나타난 중국 지리의 오류로 가장 많이 거론되었던 것이 바로 성도의 위치였었다. 기존연구에서는 성도를 중국 사천성 성도로 보았으며 이와 같은 지리적 오류는 서포의 중국 지리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되어왔다.<sup>10)</sup>

그런데 위 예문에서도 나타나듯이 <사씨남정기>에서 성도의 위치는 북경<sup>11)</sup>에 있는 유한림의 집에서 비교적 가까운 곳으로 나타난다. 이 점은 북경에서 교

---

간 배경이 되는 명나라 가정연간(1522-1566)에는 보정부에 속해있는 한 개 현으로 지리적 위치로는 북경 도성과 멀지 않은 곳이었다.

- 9) 김만중, <사씨남정기>, 조동일 편, 『조동일 소장 국문학 연구자료』 제21권, 활자본소설 (2), 박이정, 1999, pp.33-34. 현대어 철자로 표기-필자, 이하 원문 인용 시 <사씨남정기>라고 표기하고 쪽수만 밝힌다. 유부에서 쫓겨난 사씨가 본가가 있는 신성현으로 가지 않고 시부모 선영이 있는 성도로 향했다는 구절은 위 본문에 인용한 조동일 소장본 활자본소설과 구활자본 고소설 전집, 제4권, 인천대학 민족문화연구소 소장본에서 동일하게 나온다. “이때 사씨 교부를 분부하여 신성현으로 가지 말고 성도 묘하로 향하라 하니 하리 청녕하고 유씨 묘하에 이르러 수간 초옥을 얻어 처하니”(〈사씨남정기〉, 구활자본 고소설 전집, 제4권, 인천대학 민족문화연구소, 1993, p.493. 현대어 철자로 표기-필자.)
- 10) 우쾌제, 앞의 논문.
- 11) 우쾌제는 국문본 <사씨남정기>에서는 금릉 순천부라고 나오나 한문본에서는 모두 북경 순천부라고 나오고, 또 명나라 가정연간에 명나라 수도는 북경이었던 점을 근거로 유한림의 집은 남경이 아닌 북경에 있다고 논증하였다.(우쾌제, 앞의 논문 참고.) 이하 논의 시 유한림의 집은 북경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두고 논의를 이어간다.

자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거리로 묘사된 점, 교부가 사씨를 시부모 묘하까지 태워다주고 곧이어 유부로 돌아와 교씨에게 사씨가 간 곳을 보고하는 장면, 사씨가 시부모 선영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 사공자가 사씨를 바로 보러 오고, 또 신성현에 돌아가서 다시 노복들을 사씨에게 보내주는 등 장면의 묘사들에서 모두 유씨의 선산은 북경 및 신성현에서 모두 멀지 않아 간단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가까운 곳으로 묘사되었음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런데 실제 중국 지리에서 북경에서 사천성 성도까지는 아주 멀다. 더욱이 고대였다면 북경에서 사천성 성도는 절대 당일로 간단히 다녀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다. 북경에서 볼 때 사천성 성도는 사씨의 최종 목적지인 호남성 장사보다도 오히려 더 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종 목적지가 장사이고 장사로 가는 것이 소설의 대부분 분량에 걸쳐서 묘사된 고난길인 것에 비해 사천성 성도에는 간단하게 도착한다는 것은 논리적인 오류가 생기게 된다.

이에 필자는 <사씨남정기>에서 말하는 성도란 중국 사천성 성도(成都)가 아니라, 도성(都城)을 뜻하는 성도(城都)일 것이라고 생각한다.<sup>12)</sup> 이때 한자 成이나 城은 모두 한글에서 ‘성’으로 읽는다. 즉 작품 속에서 말하는 “성도 묘하”라는 서술은 ‘북경 도성에 있는 묘하’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묘혜 스님에 의해 구조된 유한림이 사부인과 재회를 하고나서 다시 북경으로 복귀하려는 장면에는 아래와 같은 묘사가 있다.

12) 성도(城都)라는 표기는 다른 고전문학 작품에서도 발견된다. 『동국여지』 권1 「경도(京都) 「한성부(漢城府)에 “緣礬峴, 在都城西十里, 弘濟院西”(녹반현, 재도성서십리, 홍제원서)라는 구절이 있는데 여기서 [주-D009] 都城 : 底本에는 “城都”로 되어 있다. 文脈에 根據하여 修正하였다.”고 하였다.

또 다른 예로 조선 전기 문신 변계량의 『춘정집』 『춘정선생시집권지』 「차양곡운(次陽谷韻)에도 ‘城都’라는 표기가 있다.

珠翠城都百萬家(주취성도백만가) : 비취 빛 구슬 같은 도성의 온갖 집들  
春濃何處不開花(춘농허처부개화) : 봄이 무르익었으니 어느 곳인들 안 필까  
吟餘却想池塘草(음여각상지당초) : 읊조린 여가에 연못의 초목을 상각하니  
倍覺君居興轉賒(배각군거흥전사) : 그대 집안의 흥취가 낮은 것을 느꼈어라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 DB 참고, 밑줄 표시 필자) 이외에도 더 있지만 지면의 제한 상 이상 두 개만 예로 들기로 한다.

한림이 사씨 다려 왈 이제 호구를 버섯스나 의지할 곳이 업고 가업시 낭패하였는 지라 무창의가 약간 전량을 수습하고 가도를 정한 후 경사에 올라가 가묘를 뵈셔와 전죄를 사코져 하나니 부인이 바리지 아니실진대 동행하물 바라나이다. 사씨 피석대 왈 상공이 첩을 더럽다 아니 실진대 엇지 역명하리잇가 첩이 당초의 니가할제 친척을 모호고 가묘의 고축하였사오니 이제 첩이 도라가매 타연하물 어드리잇가 첩이 감히 석사를 개회하미아니라 사람을 대하미 붓그러온지라 출거지인이 다시 넘승하는 네절이 낫나니잇가 한님이 사례왈 생이 하마이질번한쾌라 이제 가묘를 뵈셔오고 일변 아해 소식을 못고 네를 갓조와 다러가리이다.<sup>13)</sup> (밑줄 필자 주)

여기서 유한림과 사씨의 대화에는 “서울로 올라가서 가묘를 모시고 전죄를 사코자 하며”, 사씨가 “선산을 떠날 적에 친척을 모아서 가묘를 개축하였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 서술은 사씨가 머무르던 시부모의 선산은 북경에 있었다고 보는 주장에 무게를 실어준다. 더불어 실제 중국 역사에서 명나라 개국공신 유기는 북경에서 세상을 떠났고 그의 묘는 북경에 있다. 따라서 <사씨남정기>에서 말하는 시부모의 선산이 북경 도성 안에 있다고 보는 것이 소설 안이나 소설 밖의 사실관계를 따져볼 때 모두 자연스럽다.<sup>14)</sup>

13) <사씨남정기>, pp.329-330.

14) 또 조동일 소장본에는 통주라는 장소가 나오지 않지만, 김춘택본, 장서각본, 연세대본에 서는 모두 사씨가 장사로 갈 때 통주에서 배를 얻어 타고 간다고 묘사된다.

還報曰, “通州人張三, 本杜鴻臚家奴, 近年往來南方, 以販薑爲業. 今將乘舟, 向廣西, 路由長沙耳.” 謝氏大喜曰, “杜鴻臚家奴, 無異吾家奴, 此亦神靈相之矣.” 卽具盤纏, 向通州, 而言于鄰里曰, “往新城.” 謝氏就舅姑墓前, 痛哭拜辭而行. (김춘택본, 교감본, 이래종 옮김, 『사씨남정기』, 태학사, 1999, p.282)

창뒤 즉시 회보하되 “통주의서 사난 장삼은 두홍녀 댁 하인이라. 요사이 생강 무역하려 이제 발선하야 관서로 가을새 길이 장사로 지난다 하더이다.” 사씨 크게 깃거 같오되 “과연 두홍녀 댁 하인이면 내 종이나 다라랴. 이 또한 신령이 도오시미로다” 하고 즉시 반전을 갖초야 통주로 갈새 니웃 사람의게 니라되 “신성을 가노라” 하다. 사씨 구고 분묘의 하직 할 새 일장통곡하니 일광이 잠담하고 금슈 또한 슬허하난 듯하더라. 샷시 겨유 묘축을 떠나며 (장서각본, 류준경 옮김, 『사씨남정기』, 문학동네, 2014, p.334.)

蒼頭回告曰, “通州居張三, 卽杜鴻臚宅家人, 近以貿易生薑事, 今方發船, 向于廣西, 路過長沙云矣.” 謝氏大喜曰, “若是杜鴻臚宅家人, 則與我家人何異? 此亦神靈之所助.” 卽備盤纏, 向往通州, 而鄰里人處卽曰, “我往新城, 非久當還.” 謝氏拜辭于舅姑墳墓, 舉聲痛哭, 雲煙慘愴, 鳥獸亦悲, 謝氏才離墓下, (연세대본, 류준경 옮김, 『사씨남정기』, 문학동네, 2014, p.199.)

요컨대 유한림으로부터 비자발적 퇴출을 당한 사씨가 본가로 가지 않고 시댁의 선산에 간다는 것은 자신은 여전히 유씨 집안 사람이라는 강한 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씨남정기〉에서 사씨는 유교적 윤리관에 충실하게 입각하여 부각한 인물형상으로 어질고 정숙하며 효심이 깊은 여성이다. 그러므로 사씨는 비록 남편으로부터 쫓겨났다 할지라도 시부모님의 선영에 가서 며느리로서의 효도와 도리를 다 하고 싶어 하는 행동은 소설 속 사씨의 인물성격에도 부합되며 유교적 이치에 잘 맞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교씨는 유씨의 선산으로 간 사씨를 절대 좌시하지 않고 냉진을 보내 사씨를 해하려 한다. 교씨의 이런 행위는 사씨가 유씨 집안의 며느리로 남고 싶어 하는 생각을 아예 근원적으로 차단해버리려는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성도라는 유씨의 선산이 있는 상징적인 장소를 두고 사씨와 교씨는 유씨 집안 며느리로서의 정통성을 두고 싸움을 벌이게 되는 것이다.

---

명나라 시기 통주는 하북성 통현으로 북경 인근 도시였으며 경향대운하의 본격적인 시작 접이었다.(현재 통주는 북경시의 한 행정구인 북경시 통주구이다. 명나라 시기 경향대운하는 북경 도심 안쪽인 적수담까지 연결되어 있었다. 그러나 소설의 맥락에서 이때 사씨는 교씨의 눈을 피해 탈출하고 있었으므로 통주에 가서 배를 구한다고 하여도 큰 무리는 없어 보인다.) 즉 사씨가 통주에서 출발한다는 것은 사씨가 장사를 향해 떠나기 전까지는 여전히 북경 또는 북경 근처에 머물고 있었음을 설명해준다. 그러므로 사씨가 배를 타고 떠나기 전까지 머물고 있던 시부모의 묘는 북경 도성 안에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또 조동일 소장본에는 사씨가 장사로 떠나기 전에 점을 보는 장면이 나오지 않지만, 김춘택본, 장서각본, 연세대본에는 모두 점괘를 보는 내용이 묘사된다.

“서남은 이롭고 동북은 불리하리라. 서남으로 가면 사람을 만날 것이니라.”(김춘택본 이래종 옮김, 『사씨남정기』, 태학사, 1999, p.89.)

“남은 길하고 동북은 불길하니 남서로 발행하면 고인을 만나리라”(장서각본, 류준경 옮김, 『사씨남정기』, 문학동네, 2014, p.333.)

“남쪽이 이로우며, 동북쪽이 불리하다. 서남쪽으로 가면 옛사람을 만나리라.”(연세대본, 류준경 옮김, 『사씨남정기』, 문학동네, 2014, p.199.)

이때 점괘의 내용은 남과 서남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동소이하게 “(서)남쪽은 길하고 동북은 불길하며 서남쪽으로 가면 옛사람을 만난다.”는 내용이다. 이 점괘에서 설명한 방향을 따져보면 장사와 동정호 모두 북경 기준으로 (서)남쪽 방향이 맞다. 그러나 이때 사씨가 사천성 성도에 있다고 가정한다면 장사와 동정호는 성도의 동남방향이 된다. 따라서 〈사씨남정기〉에서 말하는 “성도 묘하”에서의 성도란 북경 도성을 뜻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2) 자발적 지향 공간: 장사

성도에 있는 시부모 선영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게 된 사씨는 이번에는 장사로 떠나게 된다. 즉 사씨는 북경 순천부에서는 유연수에 의해 첫 번째 비자발적 퇴출을 당하였고 이때 자발적 지향 공간으로 성도를 선택했다면, 성도에서는 교씨와 동청에 의해 두 번째 비자발적 퇴출을 당하게 되며 다음 자발적 지향공간으로 장사를 선택하게 된 것이다.

(가) 현부 칠년 재역이 잇시니 당당이 남녘으로 멀리 피할지라 후회치 말고 급히 이곳을 떠나 남방으로 향하라.<sup>15)</sup>

(나) 준괴 명명이 남방으로 가라하시니 장사는 남방이라 두부인이 가실 때에 수로 수천여리라 하시니더니 이제 벽벽이 두부인을 찾아 장사로 가 의탁하라하시니 어찌 가지아니리오 하고 장삿배를 얻지 못하여 근심하더니....<sup>16)</sup>

사씨가 자발적 지향공간으로 장사를 택한 원인은 꿈에서 시부님이 “남쪽으로 가라”고 계시를 준 원인도 있지만 무엇보다 유씨의 혈육 즉 유연수의 고모인 두부인이 당시 장사에 있었기 때문이다. 즉 사씨의 입장에서 가장 선호하는 장소는 첫 번째는 유씨의 선산, 두 번째는 유씨의 혈육이 있는 곳이다. 즉 두 번의 비자발적 퇴출과 두 번의 자발적 지향공간의 선택에서 사씨는 각각 시댁의 선산과 시댁의 혈육이 있는 곳을 지향하였는데 이것은 사씨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발적 지향공간으로는 항상 유씨의 집안과 관련된 곳으로만 가려고 하는 지향성을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준다.

장사는 유교문화로 유명한 곳이다. 장사는 북송 시대부터 악록서원의 창건과 함께 주자학의 집대성가인 주희(朱熹)로 인해 유교문화의 성지로 각인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원, 명, 청 시대를 거치면서 수많은 유학자를 배출하였다. 장사의 이러한 상징성은 유교지향적인 사씨의 인물형상과도 잘 맞아떨어진다.

---

15) <사씨남정기>, p.303.

16) <사씨남정기>, p.304.

더불어 장사는 굴원(屈原)과 가의(賈誼)의 고사가 깃든 곳이다. 굴원은 중국 전국시대 초나라의 우국지사이다. 억울하게 참소를 당해 좌천된 굴원은 기원전 295년 장사에 이르게 된다. 장사의 상강(湘江) 근처에서 머무는 동안 굴원은 <어부사>(漁父詞) 등 명작을 남겼으며, 기원전 278년 마침내 울분을 참지 못하고 <회사부>(懷沙賦)를 지은 뒤 상강의 지류인 먹라수(汨羅水)에 투신하여 자살하였다. 사씨는 장사를 향해 가면서 굴원을 떠올리고 굴원의 충혼을 좇고자 하는데, 이것은 교씨로부터 참소를 당해 쫓겨난 자신의 처지와 굴원을 동일시함을 나타낸다.

요컨대 비자발적 퇴출-자발적 이동, 비자발적 퇴출-자발적 지향일 때는 위기는 있었어도 사씨는 자살을 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자발적 지향공간인 장사 즉 유씨의 혈육인 두부인이 있는 장사로 가야 하는데 가지 못하고 비자발적 지향 공간인 동정호로 가게 되면서 사씨는 투신자살을 시도하게 된다.

### 3) 비자발적 이동 공간: 동정호

자발적 이동공간인 성도에서 화를 피해 장사를 향해가던 사씨는 한 곳에 이르자 풍량이 크게 일고 토사병이 심하여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된다. 이에 어쩔 수 없이 잠시 물으로 올라오게 되는데 그곳은 호남성 화용현이라는 곳이었다.

(다) 배 점점 행하여 한 곳에 이르러 풍량이 대작하고 사씨 또한 토사에 병이 대단하여 신기불평하매 배를 물에 다히고 집을 얻어 치료할 새 주인 여자가 양순하야 대접함을 극진히 하니 사씨 감격함을 이기지 못하여 나이를 물으니 그 여자 대답하되 이십세라 하거늘<sup>17)</sup>

(라) 차시 차환 등이 황릉묘에 다녀 화용현립부에 이르니(말줄 표시 필자) 그 어미 변씨 죽고 그 여자 홀로 있어 시아를 보고 왈 어디로 좇아 환아에 이르뇨 차이 대왈 낭자 어찌 몰라보시나이까 나는 연전에 사부인을 뵈시고 장사에 가던 시비 차환이로다.<sup>18)</sup>

17) <사씨남정기>, pp.305-306.



위 인용문 (다)에서 우리는 사씨가 장사를 가는 도중에 토사병이 심하고 또 격량을 만나 물에 올라와 입소저의 도움을 받았음을 알 수 있고, 인용문 (라)를 통해 당시 입소저가 살고 있던 곳은 화용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만약 당시의 가장 일반적인 노선을 따라 사씨가 이동을 한다면, 사씨는 동정호의 동쪽을 지나 장사에 이르게 된다. 즉 일반적인 노선에 따라서 이동한다면 사씨는 장사에 가기 전에 먼저 동정호 북쪽 방향에 있는 화용현을 거칠 일이 없게 된다.

그렇다면 화용현은 어떤 곳이며 어떤 의미가 있기에 작가는 왜 위치적 오류를 범하면서까지도 화용현이라는 곳을 꼭 거쳐 가게 했을까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화용현이란 곳은 한나라 시기에 설립되었으며 규모가 별로 크지 않은 지방의 한 개 현이다. 그렇다면 서포는 이곳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기존연구에서는 서포가 중국지리를 접하게 된 경로로 <삼국지연의>와 이백, 두보의 등 문인들의 시를 통해서 일 것이라고 제기되어왔었고 필자도 이에 동의하는 바이다. 다만 화용이라는 곳에 대해서 필자는 아마도 서포는 <삼국지연의>를 통해 적벽대전의 화용도(華容道)를 알게 되었고 소동파의 <념노교 적벽회고>(念奴嬌 赤壁懷古)와 전, 후 <적벽부>(赤壁賦)를 통해서 악주의 화용현이라는 곳까지 알게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해본다. 여기에서 필자는 실제 적벽대전이 있었던 화용과 악주부의 화용은 서로 다른 곳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이다. 1082년, 소동파는 호북성 황주(湖北省 黃州, 현재의 호북성 황강시(黃岡市) 황주구(黃州區))에 유배를 가게 되는데, 유배 중에 우연히 황주의 적벽을 구경하게 된다. 즉 소동파는 적벽이라는 이름은 같지만 실제 적벽대전이 있었던 곳과는 다른 곳을 구경하게 된 셈이다. 이를 가리켜 소동파는 <적벽기>(赤壁記)에서 아래와 같이 말하였다.

“전설에 이르기를 여기는 조조가 패전한 곳으로, 이른바 적벽이라 하기도 하고 혹은 아니라고 하기도 한다. 관우는 조조를 풀어주고 조조는 패하고 돌아갈 적에 화용으로 갔었는데, 지금 적벽의 약간 서쪽 대안이 바로 화용진이니, 아마도 이곳인듯하다. 그러나 악주에도 화용현이 있으니, 마침내 어느 곳이 옳은 지 알 수 없다. (밑

18) <사씨남정기>, pp.336-337.

출 표시 필자)<sup>19)</sup>

황주에서 유배하는 동안 소동파는 적벽을 모두 세 번 유람하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불후의 명작인 <염노교 적벽회고>와 전, 후 <적벽부>를 남긴다. 요컨대 황주에 유배되어 있던 시기는 소동파에게 있어서 정치적으로는 기나긴 암흑기였으나 문학 창작에서는 최고봉을 맞은 셈이 된다. 이와 같은 모습은 서포에게서도 나타난다. 서포는 『서포만필』을 통해서 소동파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경향을 나타낸 바 있는데<sup>20)</sup> <사씨남정기>에서 노정도의 오류를 범하면서도 굳이 화용현이라는 곳을 등장시킨 것도 자신과 소동파를 동일시한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다.

화용현에서 한숨 돌린 사씨는 다시 배를 출발하여 장사로 향하게 된다. 그런데 큰 풍랑이 일어 장사에 가려던 사씨는 본인의 의지와는 달리 동정호에 도착하게 된다. 즉 동정호는 두 번째 비자발적 이동 공간인 것이다. 이는 사씨가 비자발적 지향공간에서 다시 비자발적 지향 공간으로 이동하였음을 의미한다.

노창두 나이 늙고 수토에 익지 못하여 병들어 죽으니 부인이 비상감창하고 불행함을 이기지 못하여 배를 머무르고 장삼을 강가 언덕에 안장하고 떠날 새 행중에 다만 유모와 차환 뿐이라 심분 낭패하여 앞길 원근을 물으니 수일만 행하면 장사를 득달하리라 하거날 사부인이 전되 갖가움을 깃거 배를 빨리 저어 행하더니 사씨의 운액이 점점 닥쳐오는 지라 홀연 풍랑이 대작하며 파도 흉용하여 비바람에 좃겨 동정 위수로 좃차 악양루 아래 이르니 ... (중략)... 차시 사씨 천신만고하야 겨우 배를 얻어 장사를 거의 왔다가 풍랑을 만나 표풍하야 이 곳에 이르니 바라미 끊어진지라 심당이 촌절하야 아무리 생각하나 죽을 밖에 할 일 없는지라. ... (중략)...

이제 우리 노뉘 아모리 헤아리나 의탁할 곳이 없고 날이 밝았으니 어디로 가리오 아모리 생각하야도 강수의 몸을 감초니만 갖지못하니 유모는 만류치 말라 하고 몸을 니러 강중에 뛰여

19) “傳云曹公敗處所謂赤壁者 或曰非也 曹公敗歸 由華容路 今赤壁少西對岸 卽華容鎮 庶幾是也 然岳州 復有華容縣 竟不知孰是。” (당송팔대기문조 소식(5), 동양고전종합 DB 참고.)

20) 박성재, 「서포소설 성립의 배경 연구 - 소동파 동일화 양상과 『서포만필』, 『서포집』, 소재·일화·사회를 중심으로-」, 『남명학연구』 제52집,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2016, pp.79-120.

들려하니<sup>21)</sup>

동정호 회사정(懷沙亭)에 올라 사씨는 아황과 여영, 굴원과 가의<sup>22)</sup>를 떠올린 뒤 투신자살을 하려고 한다. 아황과 여영은 부덕(婦德)과 열(烈)을 상징하는 대표인물이고 굴원과 가의는 억울하게 참소를 당한 대표인물이며 회사정은 “유가의 성소”<sup>23)</sup>이다. 따라서 동정호의 회사정에서 사씨가 아황과 여영, 굴원과 가의를 떠올리면서 죽음을 기도한 것은 사씨의 절의와 충<sup>24)</sup>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사씨남정기>에서 동정호는 가장 핵심적인 지리 배경으로 등장한다. 이것은 <사씨남정기>에서 이야기의 기승전결 중 기는 북경에 있는 유연수의 집, 승은 성도에 있는 시부모 묘하, 마지막 결도 북경에 있는 유연수의 집에서 이루어지는 반면 스토리의 전개 상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전 부분은 모두 동정호를 배경으로 설계된 것에서도 잘 나타난다. 나아가 동정호와 악양루는 작품의 주제 의식과 서포의 작가의식의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악양루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시를 꼽자면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에게 선우후락으로 꾸준히 회자되고 있는 범중엄(范仲淹)의 <악양루기>(岳陽樓記)이다. 따라서 서포는 동정호의 악양루에서 범중엄을 떠올렸을 것이고 범중엄의 선우후락 정신을 통해 사대부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되뇌었을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범중엄도 악양루를 직접 보고 이 시를 쓴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서포만필』에는 서포의 범중엄에 대한 남다른 관심이 잘 나타나있다. <사씨남정기>에서도 범

21) <사씨남정기>, pp.306-309.

22) 굴원이 먹라수에서 투신자살한지 100여년이 지난 뒤 한나라 가의 또한 참소를 당해 장사로 좌천되었다. 가의는 먹라수를 지나다가 「조굴원부」(弔屈原賦)를 지어 굴원을 기념하였다. 가의와 굴원의 일생은 아주 흡사한 모습을 보이는데 모두 악인의 참소를 당하였으며 호남성 장사로 좌천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23) 사씨는 굴원의 충절을 닮은 인물이다. 사씨는 동정호에서 아황과 여영, 먹라수에 빠져죽은 굴원과 역시 억울하게 참소를 당한 가의 등을 떠올리며 자신도 ‘유가의 성소인 회사정’에서 굴원의 뒤를 따라 자살함으로써 굴원의 반열에 오르려고 했다. (이금희, 『사씨남정기 연구』, 반도출판사, 1991, pp.205-206, 이금희, 「<사씨남정기>의 인물 재조명」, 『한중인문학연구』 제34집, 한중인문학회, 2011, pp.163-164 참고)

24) 이금희, 위의 논문.

중엄의 일화와 흡사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유한림이 행주(幸州)<sup>25)</sup>에 유배를 갔을 때 갑자기 뜰에서 샘이 솟아나온 일화이다. 유한림은 이 샘물로 행주 지방의 풍토병을 치료하였으며 이에 감격한 사람들은 유한림의 공을 기념하여 그 우물을 학사천(學士泉)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이는 범중엄이 유배를 갔을 때의 일화와 고도의 유사성을 보인다. 북송 황우(皇祐)2년에 범중엄이 산둥성(山東省) 청주(靑州) 지부사로 있을 때 양하(陽河) 근처에 갑자기 샘이 솟아났고 범중엄은 이 샘으로 그 지방의 풍토병을 다스렸다고 한다. 후세의 사람들은 범중엄의 역병에 대한 공을 기념하기 위해 이 우물을 “범공정(范公井)” 그리고 우물가의 정자를 “범공정(范公亭)”이라고 불렀다고 한다.<sup>26)</sup> 여기서 우리는 <사씨남정기>의 주요인물들에게는 서포가 흠모하였던 유명 문인들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정호에서 계속 죽음을 시도하는 사씨에게 꿈속에서 가장 이념적인 상징적 의미를 지닌 아황과 여영이 나타나 “그대는 선한 사람이니 기다리면 일시적인 액운이 지나가고 복 받을 것이다. 그러니 죽으려 하지 말라.”고 깨달음을 준다. 꿈에서 깬 사씨는 꿈속에서 본 대로 이비의 소장(二妃 塑像)이 있는 황릉묘를 찾아가며, 황릉묘 앞에서 관세음보살의 명을 받고 사씨를 구하러 온 묘혜스님을 만나 구조되어 묘혜스님과 함께 군산으로 향한다.

배를 저어 타고 갈새 일진 순풍을 만나 순식간에 군산에 다다르니 동정호의 외로이 있으니 사면에 다 물이오 여러봉에 대숲 뿐이니 자고로 인적이 희소하더라. 리괴 배의 내려사시를 붓드려 암자 이름을 수월암이라 가장 유벽정결하여 인세 같지 아니 터라.<sup>27)</sup>

25) 행주에 관해 <사씨남정기>에서는 “행주는 수도가 사나와 북방 사람이 살아오는 이 없으니 칼로 죽이나 어이 다르리오”(〈사씨남정기〉, p.320), “이름이 남방 귀신이 되었는가 하였더니 살아서 돌아오니”(〈사씨남정기〉, p.326)와 같은 서술에서 중국 남방의 어느 곳이라는 것과 당시 그곳은 수도병이 심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정확히 현재의 어느 곳 인지는 파악이 힘들다.

26) 풍국초 지음, 이원길 번역, 「범중엄이 신정을 실시하다」, 『인물과 사건으로 보는 중국상 하오천년사』 2, 신원문화사, 2008, pp.172-175.

27) <사씨남정기〉, p.313.

군산은 동정호 한가운데 있으며 마치 인간의 발자취가 닿지 않는 선경으로 묘사되는데 이것은 군산은 신성스러운 구원의 공간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위 인용문에서도 나타나듯이 묘혜와 사씨 일행이 군산으로 가려고 하자 한 줄 순풍이 황릉묘에서 일어 그들이 탄 배가 순식간에 군산 아래에 도착하게 도와준다. 이것은 묘혜스님이 관세음보살의 뜻을 받들어 사씨를 구원하기 때문이다.<sup>28)</sup> 수월암 안에는 마침 사씨가 관음찬을 지었던 백의관음 화상이 걸려있었다. 이는 다시 한 번 사씨와 묘혜스님 그리고 관세음보살의 깊은 인연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로써 수월암은 사씨를 구원해주는 구원의 공간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시간이 흘러 구고가 꿈속에서 부탁한대로 6년 뒤의 4월 15일이 되자 사씨는 백빈주에 가서 유한림을 구하게 된다. 백빈주는 <사씨남정기>에서 사씨와 유연수의 재회의 중요한 장소로 부각된다. 이점은 연세대본 <사씨남정기>의 다른 한 제목이 <백빈주중봉기>(白蘋洲重逢記)라는 점에서도 잘 알 수 있다.

현부 칠년 재역이 있으니 당당이 남녘으로 멀리 피할지라. 후회치 말고 급히 이곳을 떠나 남방으로 향하라. (중략) 이후 육년 사월 십오일에 배를 백빈주에 매었다가 급한 사람을 구하라. 차는 명심불망할지이다.<sup>29)</sup>(밀줄 표시 필자)

백빈주란 흰 마름꽃이 피어있는 물가라는 뜻이다. 「중국문학 속의 빈 이미지 연구」에서 장준봉은 백빈주의 이미지에 대하여 구체적, 체계적으로 고증하였는바 백빈주가 특정 지역을 가리킨다고 할 때 총 3곳이 있다고 한다. 그 첫 번째는 호주(湖州) 즉 현재의 절강성(浙江省)의 백빈주이며 이는 고전문학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백빈주이다. 두 번째는 사천성(四川省) 청성산(青城山)의 백빈주이고 세 번째는 현재의 호남성(湖南省) 영원현(寧遠縣) 일대라고 한다.<sup>30)</sup>

<사씨남정기>에서의 백빈주는 동정호와 멀지 않은 곳으로 묘사된다. 따라서 위의 세 가지 전형적인 백빈주에서 세 번째인 호남성 영원현에 있는 백빈주가

28) 경일남, 「고전소설에 나타난 여승의 인물 유형과문학적 기능」, 『어문연구』 제44집, 어문연구학회, 2004, p.210.

29) <사씨남정기>, p.303.

30) 张俊峰, 「中国古代文学蘋意象研究」, 南京师范大学, 硕士学位论文, 2008, p.33.

가장 유력하다. 영원현은 아황과 여영의 고사가 깃들여 있는 구의산(九疑山)이 있는 곳이며 동정호의 남쪽에 있다. 물론 영원현에서 동정호까지의 거리는 아주 가깝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작품에서는 중국의 면적을 실제 크기보다 몇 배로 축소시켜서 상상하고 있으므로 위 세 개의 전형적인 백빈주에서 영원현의 백빈주라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흰 마름꽃이 피어있는 다수의 지역을 모두 백빈주라고 통칭하는 관습이 있기 때문에<sup>31)</sup> <사씨남정기>에서 말하는 백빈주는 특정 백빈주일수도 있지만 동정호 인근의 어느 흰 마름꽃이 피어있는 곳을 가리킬 가능성도 크다.

백빈주는 중국고전문학에서 고대 수로에서의 송별을 의미하는 관용적 알레고리이다. 흥미로운 점은 중국문학에서 백빈주는 남녀의 송별 즉 “남을 떠나보내다” 혹은 나아가 “남을 떠나보내는 곳”을 의미하는데 특이하게도 <사씨남정기>에서는 사씨가 유한림을 구해주고 유한림과의 재회를 상징하는 장소로 나타난다. 따라서 백빈주의 상징적 이미지 사용에서 중국고전문학에서는 “송별”의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사씨남정기>에서는 “재회”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서로 상반된 이미지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나, 죽도록 슬퍼했다는 점에서 “애끊는 백빈주”(腸斷白蘋洲)라는 “슬프다 못해 애가 끊어지다”는 의미에서는 일치하다. 요컨대 <사씨남정기>에서는 사씨와 유한림의 재회라는 의미에 더 역점을 둔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백빈주의 고유한 의미에 대한 변용이라고 볼 수 있다.

### 3. 결론

본고는 <사씨남정기>에 나오는 주인공 사씨의 이동경로를 따라가보면서 당시의 중국 지리 배경에 비추어 비합리적인 노선과 합리적인 노선을 하나하나 따져보았다. 작품에 나타난 공간을 사씨의 자발성 여부에 따라 자발적 이동공간과, 자발적 지향 공간, 비자발적 이동공간으로 나누어 보았다. 나아가 서포는 왜 꼭 특정 장소에 사씨를 보냈을까, 서포는 중국의 지리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되었

31) 張俊峰, 앞의 논문 p.34.

을까 그리고 그 장소에는 어떤 고사들이 있으며 <사씨남정기>라는 작품에서는 어떤 서사적 기능을 하고 있을까에 대해 알아보았다.

<사씨남정기>에 나타난 지리공간은 대체적으로 당시의 중국 지리 상황에 부합되며 서포는 중국의 지리에 대해 꽤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장소 곳곳에 얽혀있는 고사들을 작품 속으로 끌어들이 주인공의 행적과 일치성을 가지도록 하였으며 이로써 작품 속에서 일정한 서사기능을 하게 하였다. 반면 중국의 실제 지리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엉뚱하게 설정된 것도 있다. 이는 서포가 실제 경험이 아닌 상상을 통해 관념상의 여행을 묘사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거기에는 서포의 중국 지리에 대해 무지함도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사씨남정기>에서 중국의 지리 배경을 얼마나 정확하게 사용하였는지를 따져보는 것보다는 합리적인 노선과 비합리적인 노선이 각자 이 작품에서 어떤 의미를 나타내며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문학적 상징과 알레고리를 통해 독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작품의 주제의식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 ◆ 참고문헌

### 1. 자료

김만중, <사씨남정기>, 조동일 편, 『조동일 소장 국문학 연구자료』 제21권, 활자본소설(2), 박이정, 1999.

김만중, 『서포만필』 상, 하, 심경호 옮김, 문학동네, 2010.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 DB.

동양고전종합 DB

### 2. 단행본

권혁래, 『문학지리학의 이론과 해석-문학공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할 것인가?』, 서강대학교출판부, 2022.

김만중, <사씨남정기>, 류준경, 옮김, 문학동네, 2014.

김만중, <사씨남정기>, 이래종 옮김, 태학사, 1999.

김만중, <사씨남정기>, 인천대민족문화연구소편, 『구활자본 고소설전집』 제4권, 인천대학민족문화연구소, 1983.

- 박원호, 『최부 표해록 역주』, 고려대학교출판부, 2006.  
 이금희, 『사씨남정기 연구』, 반도출판사, 1991.  
 이-푸 투안, 『토포필리아: 환경 지각, 태도, 가치의 연구』, 이옥진 옮김, 에크리브르, 2011.  
 \_\_\_\_\_, 『공간과 장소』, 윤영호, 김미선 역, 사이, 2020.  
 풍국초, 『인물과 사건으로 보는 중국 상하오천년사』, 이원길 역, 신원문화사, 2005.

### 3. 논문

- 경일남, 「고전소설에 나타난 여승의 인물 유형과문학적 기능」, 『어문연구』 제44집, 어문연구학회, 2004, pp.207-230.  
 권순균, 「한국 고소설과 중국 호남지역」, 『한문학보』 제19집, 우리한문학회, 2008, pp.283-299.  
 권혁래, 「〈최척전〉에 그려진 ‘유량’의 의미」, 『국어국문학』 제150집, 국어국문학회, 2008, pp.207-235.  
 \_\_\_\_\_, 「문학지리학 연구의 정체성과 연구방법론 고찰」, 『우리문학연구』 제51집, 우리문학회, 2016, pp.167-197.  
 김수연, 「남악 형산, 유불도 인문지리의 공간경계역」, 『고전문학연구』 제45집, 한국고전문학회, 2014, pp.31-57.  
 김창원, 「고전시가에서 강남이라는 공간의 상징성과 역사성에 대하여」, 『한고전연구』 제28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13, pp.55-76.  
 심승희, 「문학교육의 학제적 접근 : 지리학과 지리교육이 문학에 접근하는 방식」, 『문학교육학』 제37집, 한국문학교육학회, 2012, pp.87-124.  
 우쾌제, 「〈남정기〉의 남정로에 나타난 서포의 중국 인식 고찰」, 『국어국문학』 제115집, 국어국문학회, 1995, pp.59-82.  
 \_\_\_\_\_, 「서포 소설과 남해」, 『애산학보』 제19집, 애산학회, 1996, pp.67-107.  
 \_\_\_\_\_, 「서포 소설에 나타난 중국 인식 고찰」, 『성곡농촌』 제28집, 성곡언론문화재단, 1997, pp.103-152.  
 \_\_\_\_\_, 「〈사씨남정기〉에 나타난 작가의식 고찰」, 『우리문학연구』 제14집, 우리문학회, 2001, pp.3-29.  
 윤주필, 「한국 한문학에서 본 중국 강남의 문학지리학」, 『한국한문학연구』 제49집, 한국한문학회, 2012, pp.241-274.  
 \_\_\_\_\_, 「한국 고시가의 강남 문학지리학」, 『열상고전연구』 제41집, 열상고전연구회, 2014, pp.455-498.  
 \_\_\_\_\_, 「한국 고전문학에서 본 중국 산둥과 강남의 체험과 인식」, 『열상고전연구』 제44집, 열상고전연구회, 2015, pp.277-310.  
 이강엽, 「〈구운몽〉의 문학지리학해석」, 『어문학』 제94집, 한국어문학회, 2006,



pp.203-240.

이금희, <사씨남정기>의 인물 재조명, 『한중인문학연구』 제34집, 한중인문학회, 2011,

pp.153-174.

이은숙, 「문학지리학 서설-지리학과 문학의 만남-」, 『문화역사지리』 제4집,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1992, pp.147-166.

조동일, 「문학지리학을 위한 출발선상의 토론」, 『한국문학연구』 제27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4, pp.157-182.

张俊峰, 「中国古代文学蘋意象研究」, 南京: 南京师范大学, 硕士学位论文, 2008.

논문접수일	2022년 10월 15일
심사완료일	2022년 11월 27일
게재확정일	2022년 12월 08일

*Abstract*A Study on the Symbolism of Chinese Geography in *Sasi-Namjung-gi*

Yu, Meilan

This paper is based on the perspective of literary geography, examines the rationality and irrationality of the Chinese geographical background in *Sasi-Namjung-gi*, and divides the spaces shown in the work into voluntary movement spaces and voluntary orientation, and involuntary movement spaces. The results analyzed in this paper are summarized as follows.

Seongdo is a voluntary moving space that Ms Sa chose after being forced eviction by Yoo Yeonsoo for the first time. The fact that Ms Sa does not go to her parents home, but heads to Seongdo, where her parents-in-law's graves are located, shows that she still has a strong sense of being a member of the Yoo family. In *Sasi-Namjung-gi*, the word Seongdo in the phrase "Below the Cemetery in Seongdo" means inside the capital city of Beijing.

Changsha is a voluntary-oriented space that Ms Sa chose after Ms Kyo, Dongcheong, and Laengjin did not allow her to stay below the cemetery of her parents-in-law and expelled her again involuntarily. Ms Sa wants to go to Changsha because there lives Yoo's aunt Ms Du. In other words, the first voluntary-oriented space is the cemetery of her parents-in-law and the second place is where Yoo's close family lives. In addition, Changsha is a space that served as a cradle of Confucian culture and also where Zhu Xi created his teachings. Thus the place suits well the characteristics of Confucian-oriented Ms Sa. However, due to the storm, Ms Sa cannot reach her destination Changsha; instead, she reaches Dongting Lake. Thereupon, Ms Sa attempts suicide because Dongting Lake is an involuntary moving space, not her voluntary oriented space. Dongting Lake is the most critical geographical space of *Sasi-Namjung-gi*, and it plays a vital role in conveying the subject and the writer's consciousness of the work.

**Keyword** *Sasi-Namjung-gi*, Kim Man-jung, Literary geography, Chinese geography, Symbolic space

# 1930년대 한·중 도시소설의 또 다른 저항 무드

-이효석과 무스잉의 도시인식과 섹슈얼리티를 중심으로-

진저\* · 진산화\*\*

## 국문요약

본 논문은 1930년대 한국의 이효석과 중국의 무스잉 도시소설에 드러난 도시인식과 섹슈얼리티에 주목하여 호미 바바의 탈식민적 관점 중의 양가성(Ambivalence), 응시(Gaze), 모방(Mimicry)을 키워드로 작품들을 비교 고찰하면서 두 작가가 식민지 근대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고 저항했는지를 논의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두 작가가 도시소설을 통해서 보여준 것은 식민도시의 양가성인 바, 이효석은 ‘구라파문명의 진열장’을 활용한 ‘쭉정이의 복마전’ 글쓰기로, 무스잉은 ‘천당지옥론’과 ‘몰락된 사람’을 ‘슬픈 사람에게 즐거운 가면 씌우기(悲傷的臉上戴快樂的面具)’ 글쓰기로 각자 부동한 형태로 드러나 있다. 이와 같은 양가적이고 이중적인 서사는 식민 지배담론의 ‘내적 일관성’을 부정하는 식민 지배담론의 ‘내적 모순’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두 작가가 도시소설에서 보여준 여성의 섹슈얼리티 사건들은 식민주체 남성성에 대한 모방과 부정, 시선과 응시로 나타나 있다. 이효석은 여성 타자가 걸로로는 남성의 식민권력을 모방하는 것 같지만, 응시를 통해 남성 식민권력을 조롱하는 저항의식을 보여줬고, 무스잉은 응시되는 여성의 겁탈된 몸을 잃어버린 민족성이라는 메타포로 보여줌과 아울러 여성에게 내재된 고독의 이중적인 감정 표현을 통해 외세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조국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이들의 도시소설들은 각자의 특징을 유지하면서 도시소설의 현대적 감성과 은밀한 서사전략으로 탈식민적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주제어** 이효석, 무스잉, 도시소설, 탈식민주의, 저항, 양가성, 응시, 모방

\* 제1저자, 중국 산둥대학교 동북아대학 한국어학과 교수

\*\* 제2저자, 중국 산둥대학교 동북아대학 한국어학과 박사과정생

## 〈목차〉

1. 서론
2. ‘양가성’과 식민도시의 명암 드러내기
  - 1) ‘구라파문명의 진열장’을 활용한 ‘쪽정이의 북마전’ 글쓰기
  - 2) ‘천당지옥’론과 ‘몰락한 Pierrot’ 글쓰기
3. 시선과 응시, 모방과 부정의 섹슈얼리티
  - 1) 여성 타자의 응시와 정체성 회복
  - 2) 응시되는 여성과 알레고리의 몸
4. 결론

## 1. 서론

이효석(李孝石, 1907-1942)과 무스잉(穆時英, 1912-1940)은 각각 1930년대 한국과 중국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로서 비록 작품 활동을 한 시간은 짧았지만 다산(多産)작가라고 불릴 만큼 많은 작품들을 창작한데다가 보여준 작품 세계와 표현수법들이 독특해 줄곧 학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이중에 본 논문이 주목한 도시소설은 학계에서 종종 논의의 대상이 되어왔고 연구 성과도 적지 않다. 우선 한국의 작가 이효석의 경우, 이(異)문화에 매혹되어 현실을 인식하지 못한 ‘가면을 쓴 순응주의자’<sup>1)</sup>로 ‘서구문화에 대한 짝사랑’<sup>2)</sup>에 빠진 작가로 혹평하면서 그의 소설을 현실도피문학으로 논의하여왔다. 그리고 중국의 작가 무스잉의 경우, 1970년대 말까지는 신감각파(新感覺派) 계열의 도시소설을 자본주의 퇴폐문학 혹은 성애문학으로 혹평하면서 대부분 부정적인 시각에서 무스잉의 작품들을 ‘이단(異端)’으로 취급하여왔다. 그러다가 1980년대에 들어 중국문단에서는 무스잉 도시소설의 주제와 창작방법<sup>3)</sup> 면의 참신함을 인정하면서 그의

1) 정명환, 「위장된 순응주의 下」, 『창작과 비평』 제4권, 창비, 1969.

2) 김미영, 「〈벽공무한〉에 나타난 이효석의 이국취향」, 『우리말글』 제39집, 우리말글학회, 2007.

3) 嚴家炎, 『中國現代小說流派史』, 武漢: 長江文藝出版社, 2009.  
餘高鳳, 「穆時英的小說創作」, 『浙江學刊』 第3期, 1986.

작품을 기형적 도시 문화 속의 외로움과 고독<sup>4)</sup>을 표현한 작품으로 재평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적지 않은 연구자들은 여전히 무스잉의 도시소설을 ‘자산계급의식을 표출’<sup>5)</sup>한 문학으로 보는 경향이 우세했다. 상기한 인식으로 말미암아 위 두 작가는 문학창작에서 거둔 성과가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참여와 정치성이 결여된 현실 도피의 작가로 간주되어 각자 자국의 문학사에서 거의 배제되다시피 되어있다. 필자가 보건대 이 같이 냉대를 받게 된 주요한 원인은 우리 비평가(독자)들이 식민과 피식민 즉 지배와 피지배의 불합리한 관계 속에서 두 작가가 공 들여 창작한 작품들이 지니고 있는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한다. 실제 이러한 가능성을 전제로 위 두 작가의 작품들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이색적인 면들을 적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문학이란 탈을 씌워 재치 있는 감각적인 묘사와 은유로써 만화경과 같은 현대성과 식민성을 교묘하게 결합시킨 탈식민성인 것이다.

본 논문은 이에 주목하여 비교의 시각에서 그러한 탈식민성이 동시대를 경험한 작가 이효석과 무스잉의 도시소설 속에 어떻게 드러나 있으며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았다. 여기서 논의하고자 하는 도시소설이란 단순히 도시를 배경으로 한 작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더니티의 공간으로서 도시에 관한 인간의 인식과 감각을 결부시킨 새로운 서사 형식을 말한다. 이때 도시공간은 근대와 자본주의의 형성 및 발전의 근대화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도시적인 삶의 환경이 인간에게 안겨주는 희망과 환멸, 풍요와 소외라는 경험을 보여준다. 그러나 1930년대 후반 이효석과 1930년대 초반 무스잉 작품에 드러난 도시성은 그와 다른 면이 있다. 두 작가의 작품배경이 되는 근대도시이자 세계도시 하얼빈과 상하이에는 일본 제국과 서방열강에 의해 타율

郝瀚, 「敘事、節奏與表現: 輪電影蒙太奇對穆時英小說的形塑」, 『河北工業大學學報』第1期, 2022.

4) 楊義, 『中國現代小說史』,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86.

江維萍, 「霓虹燈下的孤獨—淺談穆時英都市小說的創作」, 『東南大學學報』第S1期, 2012.

5) 吳義勤, 「穆時英: 劃出兩條軌跡的流星」, 『貴州社會科學』第5期, 1993.

적으로 이루어진 식민도시다. 따라서 (반)식민지 지식인 이효석과 무스잉에게 있어 도시공간은 서구 지식인들의 근대도시체험과는 구별되는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를테면 하얼빈과 상하이는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식민지 자본주의의 기형적인 변화함을 표현하고 긴장감과 속도감 있는 근대도시의 모습을 드러내는 동시에 그 이면에 가려진 죽음과 상실, 음험하고 구슬픈 모습, 금전 지상주의와 매음, 범죄의 범람 등 타락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공간에서 식민지 삶을 체험한 두 작가의 식민지 도시소설은 서로 닮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찾을 수 있는데 첫째 이유는 이효석과 무스잉의 도시소설은 ‘동양의 파리’<sup>6)</sup>라는 동일한 이름을 가진 일본 제국의 괴뢰국인 하얼빈과 서방 열강들의 개항장인 반식민지 도시 상하이에 대한 독특한 시각으로 화려한 도시와 그 이면에 잠재한 식민성을 보여줬다는 점이다. 이효석은 대표적 소설 〈하얼빈(哈爾濱)〉과 〈벽공무한(碧空無限)〉에서 ‘하얼빈’이라는 근대 도시의 표상들인 현대식 호텔, 카바레, 키타이스타가야, 백화점, 경마장과 같은 것을 화려하게 묘사하고 있지만 심층적으로 보여준 것은 그러한 도시의 이면에 존재하는 납치, 마약, 매음을 묘사한 동시에 쪽정이 들에 대한 애수를 보여주고 있다. 총체적으로 이효석은 ‘구라과 문명의 진열장’에서 ‘쪽정이의 도회’로, ‘변화한 키타이스카야 거리’에서 ‘식민지로 전락한 하얼빈’으로의 변화양상을 그리고 있다. 이와 달리 무스잉이 인식하고 있는 근대 도시 상하이는 지옥과 천당으로 분리되어 있다. 무스잉은 〈상하이 폭스트롯(上海的狐步舞)〉과 〈나이트클럽의 다섯 사람(夜總會里的五個人)〉에서 세계적 도시 상하이를 화려한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거리, 기괴하게 명멸하는 광고판, 사람들로 붐비는 백화점과 외제차가 쉴 새 없이 드나드는 댄스홀 등으로 변화하게 묘사하고 있지만 그 화려함과 황홀함에 가려진 심층적인 문제들, 즉 반식민지사회에서 힘든 삶을 살아가는 하층민들의 빈곤과 ‘생활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괴로움을 눌러 둔 채 즐거운 얼굴의 가면을 쓴 그들의 비애와 절망과 권태도 곁들여

6) 「華事外論：“東方巴黎”之哈爾濱，複雜人種之生活形色：商業畸形發展道德淪亡」, 『外論通信稿』第639期, 1934, p.4.

그리고 있다. 위와 같이 양가성을 지닌 도시소설들은 식민 담론이 완전히 봉쇄된 것이 아니라 균열과 틈새 그리고 주름을 만듦으로써 확고한 이분법적 제국주의 지배담론을 전복하고 교란하는데 이바지하였다.

둘째 이유로는 이효석과 무스잉의 도시소설에 드러난 남성 주체의 식민권력 시선과 여성 타자의 피식민 응시, 모방과 부정의 섹슈얼리티 사건들에는 탈식민적 시각에서 이해하고 해석해야 할 사항들이 들어있다는 점이다. 오리엔탈리즘은 '이쪽/우리'와 '저쪽/그들'이라는 경계를 설정하고, 후자에 열등성을 부여함으로써 식민 지배의 정당성을 담론화하려 한다. 이 비대칭적인 이항대립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성적 지배와 식민지에 대한 정치적 지배의 유비 관계를 떠올리게 한다.<sup>7)</sup> 이효석은 소설 〈장미 병들다〉에서 남성 주체의 식민권력 시선과 여성 타자의 피식민 응시와의 충돌을 그리면서 타자인 여성이 남성의 식민권력을 모방한 것 같이 보여주었지만, 실제 여성의 응시를 통해 남성 식민권력을 조롱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회복하는 저항성을 보여주었다. 이에 반해, 무스잉은 소설 〈Craven 'A'〉에서 남성/여성, 바라보기/보여지기의 서술로부터 식민 지배자/피식민지배자의 서술로 전환해가면서 여성의 '몸'을 '민족'이라는 메타포로, 특히 여성의 겁탈된 몸을 잃어버린 민족성으로 은유함과 더불어 여성의 내면에 내재된 고립무원의 고독에 대한 표현을 통해 외세의 야만적 약탈과 압박을 받는 조국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이 두 작가의 작품은 전체적으로 '성의 이탈' 양상을 통해 제국주의의 동일화 기획에 반항하려는 탈식민주의 인식과 의지를 보여준다.

한·중 근대 도시소설에 대한 비교연구<sup>8)</sup>는 현재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진 편이

- 
- 7) 이해령, 「식민주의의 내면화와 내부 식민지」, 『상허학보』 제8집, 상허학회, 2022, p.276.
- 8) 노정은·홍혜원, 「1930년대 한·중 도시소설 비교연구 일 고찰」, 『중어중문학』 제36집, 한국중어중문학회, 2006.
- 장뢰, 「1930년대 경성과 상해의 도시공간과 도시인식 비교연구」, 『문예시학』 제27집, 문예시학회, 2012.
- 장뢰, 「1930년대 한·중 도시소설 비교연구」, 충남대학교 박사논문, 2014.
- 장운기, 「1930년대 한·중 모더니즘 소설 비교연구」, 충남대학교 석사논문, 2009.
- 김명학, 「朴泰遠과 穆時英 小說 比較 研究」,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2009.

아니다. 전체적으로 한국이 중국보다 훨씬 성과가 많다. 그 대표적 논문들 중에 이명학(2005)은 작가 이상, 박태원, 무스잉, 스저춘의 작품을 연구대상으로 1930년대 한·중 모더니즘 소설의 이념과 서술기법을 평행연구의 방법으로 양자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추출하였다. 하지만 서구 모더니즘의 영향을 중점적으로 소개한 까닭에, 한·중 양국에 관한 비교가 미흡한 점이 다소 아쉽다. 엄춘하(2007)는 박태원과 무스잉의 시대적 배경과 작가 생애를 소개하고 아울러 일련의 소설 창작 기법을 분석했다. 이 논문은 주로 작가들의 문단배경과 기법에 초점을 맞추면서 작품에 내포된 내용에는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다. 본고의 주제와 근접한 연구로는 한국의 김관현·박남용(2008)의 소논문 「1930년대 하얼빈과 상하이의 도시 풍경과 도시 인식」<sup>9)</sup>이 있다. 이 논문은 단편소설 〈하얼빈〉과 〈상하이 폭스트롯〉을 연구대상으로 두 작가의 도시 인식을 비교하면서 1930년대 식민지 근대가 한·중 양국에서 어떻게 경험되었는지, 그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새롭게 논의했으나 도시풍경과 인식에만 머물러 있는 한계가 있다.

총괄적으로 기존 연구들은 많은 경우 여러 작가들을 연구대상으로 큰 틀에서만 논의한 까닭에 특정 작가와 작품을 세밀하게 분석하지 못한 점, 소설 기법에 집착하여 형식이 내포하고 있는 근대성만을 분석한 점, 근대도시의 식민성 담론의 문제에 대한 밀도 있는 고찰이 미흡한 점, 방법론이 단일한 점 등 진일보로 논의되고 보완해야 할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본고는 탈식민주의 이론가인 호미 바바(Homi K. Bhabha, 1949-)의 양가성(Ambivalence), 응시(Gaze), 모방(Mimicry) 이론에 의지하여 비교의 시각에서 이효석과 무스잉의 도시소설을 대상으로 1930년대 식민적 지배담론에 대한 탈식민적 저항의 양상을 ‘도시인식’과 ‘섹슈얼리티’ 모

이명학, 「1930년대 한·중 모더니즘 소설 비교연구」, 부산대학교 박사논문, 2005.

엄춘하, 「박태원과 무스잉 소설기법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07.

李慧, 「20世紀30年代中韓現代主義小說的都市性比較研究」, 中國海洋大學 碩士論文, 2011.

9) 김관현·박남용, 「1930년대 하얼빈과 상하이의 도시 풍경과 도시 인식」, 『세계문학비교연구』 제25집, 세계문학비교연구학회, 2008.



티프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이효석과 무스잉 도시소설에서 제국주의 식민현실에 반응하는 다양한 양상과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어떻게 텍스트화 되었는지를 살펴보고 두 작가의 도시문학이 담지(擔持)하고 있는 전복의 가능성을 설명하는 데 보다 충분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2. '양가성'과 식민도시의 명암 드러내기

지금까지 식민지 시기 문학 작품을 해석하는 시각은 대부분 피지배자의 모습에만 주목하면서 지배와 저항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제국주의 국가와 식민지의 관계가 단순히 지배/피지배 혹은 억압/저항의 이항 대립적 구도로만 이해될 수 없다는 탈식민주의적 시각이 제기되면서 새로운 논의가 가능하게 되었다. 탈식민주의는 식민담론이 전제하는 우월과 열등이라는 이분법적 폭력을 해체해 피식민자들을 억압적 타자의 자리에서 해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서사다. 탈식민주의 주요 이론가 호미 바바는 피식민자가 식민 권력에 어떤 교란과 저항을 하고 있는지를 밝혀내는 데 관심을 둔다. 그의 이론은 양가성(Ambivalence), 모방(Mimicry), 혼종성(Hybridity) 등으로 압축되는데 이 중에서 '양가성' 이론만 요약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양가성이란 원래 정신분석학적 용어로 하나의 대상에 서로 상충하는 경향, 태도 혹은 감정, 특히 '사랑과 증오', '순종과 저항'의 공존을 의미한 것이다.<sup>10)</sup> 이러한 개념을 지배와 피지배의 관점 하에서 효율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호미 바바의 양가성 이론은 식민담론이 완전히 봉쇄된 것이 아니라 균열, 틈새와 주름을 통해 전복성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전통적 식민 담론은 본질적 우월성에 기초한 지배자의 '통일성'을 전제하고 지배자가 피지배자에게 행사하는 식민권력의 '의도성'과 '일방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호미 바바는 사이드와 파농의 주장에 깔린 이런 이분법적 주장을 반대하면서 '양가성'의 개념을 이용하여 피지배자가 식민 지배 권력의 일방성을 해체하고 저항할 수 있음을 역설하였

10) 박상기, 「탈식민주의의 양가성과 혼종성」, 고부웅 편, 『탈식민주의 이론과 쟁점』, 문학과 지성사, 2003, p.227.

다. 양가성은 식민 지배담론의 ‘내적 일관성’을 부정하는 식민 지배담론의 ‘내적 모순’을 드러낸다.<sup>11)</sup> 그런 까닭에 양가성은 확고한 이분법적 제국주의 지배담론을 전복할 수 있는 주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 1) ‘구라파문명의 진열장’을 활용한 ‘쪽정이의 복마전’ 글쓰기

〈메밀꽃 필 무렵〉으로 대표되는 가산 이효석은 서정적이고 향토적 색채가 짙은 작가로 범칭(汎稱)해 왔다. 그러나 실제로 그의 작품을 자세히 읽어보면 도시를 중심으로 쓴 작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sup>12)</sup> 우리는 〈산〉과 〈들〉의 작가가 〈하얼빈〉과 〈벽공무한〉의 작가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효석은 1939년과 1940년에 만주를 두 차례 방문하면서 하얼빈을 소재로 한 일군의 작품들을 발표하는데 그러한 작품들이 보여준 특유의 이국취향은 독자들로 하여금 사뭇 다른 감흥을 느끼게 한다. 일제 말기의 위만주(1932-1945)란 단순한 지리적 명칭이 아니라 정치적, 역사적 기호이자 실천이다.<sup>13)</sup> 일제의 손아귀에서 식민을 경험했던 괴뢰국가 하얼빈은 ‘오족협화’, ‘대동아공영론’이 관철되는 일본 제국주의의 실험장이라고 할 수 있다. 1940년 10월 『문장』에 발표한 〈하얼빈(哈爾濱)〉은 단편소설이지만, 하얼빈에 관한 이효석의 시대적 인식이 잘 드러나 있다. 작품의 첫머리에는 건물 삼층에 자리한 호텔방에서 거리를 지켜보는 주인공 ‘나’의 모습이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호텔이 키타이스카야의 중심지에 있자 방이 행길편인 까닭에 창 기슭에 의자를 가져가면 바로 눈 아래에 거리가 내려다 보인다. (중략) 이른 새벽 침대 속으로 들려오는 우유를 나르는 바퀴소리에서 시작되는 음향이 점점 우렁차게 커지면서 밤중 삼경을 넘어 다시 이른 새벽으로 이어질 때까지 파도소리같이 연속되는 것이다. (중략) 아침 비스듬히 헤가 드는 거리에 사람들의 왕래가 차츰차츰 늘어가려 할 때와 저녁

11) 위의 책, p.226.

12) 이영옥, 「이효석 소설의 도시성 고찰」, 조선대학교 석사논문, 1997.

13) 이경훈, 「하르빈의 푸른 하늘」, 『문학 속의 파시즘』, 삼인, 2001, p.195.

후 등불 켜진 거리에 막 밤이 시작되려 할 때가 가장 아름다운 때이다. 조각들을 깔아 놓은 두툼두툼한 길바닥을 지나는 마차와 자동차와 발소리의 뚜벅뚜벅 거칠은 속에 신선한 기운이 넘쳐 들리고 여자들의 화장한 용모가 선명하게 눈을 끄는 것도 이런 때이다.<sup>14)</sup>

위의 인용문 속 주인공 ‘나’는 모데른 호텔에 묵고 있는 대다수의 시간을 창가에서 지내며 키타이스카야 거리의 낮과 밤을 조용히 지켜본다. 주지하다시피 키타이스카야 거리는 하얼빈에서도 가장 변화하고 이국적인 정서가 잘 드러나는 공간이다. 이곳은 ‘저녁 후 등불 켜진 거리의 아름다움’, ‘조약들을 깔아놓은 두툼두툼한 길바닥’, 우유 나르는 바퀴소리, 마차, 자동차, 발걸음소리 등 설 새 없는 음향과 ‘여자들의 화장한 용모’가 풍경을 이루고 있다. 소리와 소음의 불협화음, 다양한 오락거리로 쌓여있는 하얼빈은 매혹적이고 정체되지 않는 기계의 속도감을 표상하는 자극적인 근대도시이다.<sup>15)</sup>

한편, 댄서인 유우라가 일하고 있는 하얼빈의 유흥 공간인 카바레 ‘판타지아’는 또 하나의 근대적 일상인 환락의 장임을 일정부분 반영하고 있다. 유우라는 댄서들이 무대 위에서 노래나 무용을 연기하고 밴드가 울리면 음악에 따라 댄서들끼리나 손님들과 춤을 추는 광경을 열심히 바라보고 있다. 카바레의 현란함을 내세우고 있는 듯 하지만 그 어두운 이면을 동시에 부각시킨 것이다. ‘판타지아’에서 으름가는 용모를 지닌 유우라는 실상 작년까지 만해도 명예롭지 못한 ‘니이씨’라는 몸 파는 곳에 있었던 것이다. ‘니이씨’에서 ‘판타지아’로 옮겨 온 유우라는 ‘판타지아’에서 일하는 ‘리이나’에게 ‘우정과 신분은 다른 것’<sup>16)</sup>이라는 논리로 차별당하는 처지에 놓인다. 심신에 상처를 받은 유우라는 강만 보면 죽고 싶다며 살아간다. 이는 근대화가 급박하게 진행되는 하얼빈 도시에서 성적 상품으로 타자화된 매춘부 댄서들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지 보여준다. 유우라는 조롱하듯이 “보세요. 저 잡동사니의 어수선한 꼴을. 키타이스카야는 이

14) 이효석, 「하얼빈」, 『이효석 전집』, 창미사, 2003, pp.108-109.

15) 이미림, 「〈하얼빈〉의 산보객 시선과 근대도시 풍경 고찰」, 『우리문학연구』 제61집, 우리문학회, 2019, p.247.

16) 이효석, 앞의 책, p.112.

제는 벌써 식민지예요.”<sup>17)</sup>라며 현실적 문제점을 꼬집고 있다. 또한 키타이스카야 거리에 ‘넓고 그윽한 것’들이 점점 물러서고 ‘새것이 부락스럽게 밀려드는 이 위대한 교대’는 백계 러시아인들을 중심으로 살아가던 하얼빈이 위만주국 건국 이후 일본인이 이주해오면서 식민지 도시로 전락한 사실을 환기시킨다. 이 공간에서 일본인이 지배층이 된 반면 주변으로 밀려난 러시아인과 조선인은 피지배 계층이 된다. 이러한 처지에서 무시로 자살충동을 느끼는 유우라와 회의주의자인 ‘나’가 시종일관 우울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이러한 식민지 현실에 대한 애수와 무관하지 않다. 또한 이 소설은 카바레 판타지아의 늙은 보이도 강렬한 인상으로 그려내고 있다.

하얼빈에는 왜 이다지도 도처에 늙은 보이가 많으며 그들의 얼굴이 또한 비슷비슷한 것인가. 불그스름한 바탕에 주름이 거미줄같이 잡히고 머리카락이 흰 것이 모두 두가 스테판 같고 이완 같고 안톤과 흡사하지 않은가. (중략) 취한 손님이 비틀비틀 변소에서 나와 수도 앞에 서면 스테판은 빙글빙글 웃으며 가까이와 껌에 준비해 두었던 물을 손에 끼얹어 주고 손에 들었던 수건을 내민다.<sup>18)</sup>

위 예문에 나온 스테판은 카바레 ‘판타지아’ 변소에서 손님의 손에 물을 부어 주고 수건을 내밀며 돈을 받고 살아가는 러시아인이다. 비굴한 웃음을 팔아 팁을 받는 ‘스테판’은 가장 천하고 가엾은 최하위 피지배 계층의 대명사이기도 하다. 주인공 ‘나’는 하얼빈 도처에 있는 ‘보이’의 얼굴이 모두 ‘스테판’과 비슷한 것 같다고 인식하는데, 이는 그만큼 하얼빈 거리에 스테판처럼 궁핍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하얼빈 자본주의가 배태하는 착취, 소외 경험의 축소와 같은 근대도시의 풍경을 읽어내게 한다. 작품의 공간인 하얼빈에 나타난 부정의 이미지는 위만주가 선전하는 ‘명랑함’과는 거리가 있다. 이와 같이 하얼빈이란 근대도시는 겉으로 서구의 문물을 누리는 유토피아처럼 그려졌지만 그 도시 속에서 고달픈 삶을 살고 있는 식민지 타자들의 복마전 같은 삶의 모습과 대조시켜 볼 때, 작가 이효석의 현대도시 하얼빈에 대한 서사는 식민지

17) 이효석, 앞의 책, p.110.

18) 이효석, 앞의 책, p.117.

체제에 대한 우회적인 부정임이 분명하다.

이효석이 이와 같은 저항의식을 전략적으로 잘 보여준 또 다른 작품으로는 1939년 9월에 만주여행을 마치고 쓴 장편소설 〈벽공무한(碧空無限)〉이 있다. 이 작품에서 주인공 천일마는 하얼빈을 두 차례 방문한다. 첫 번째 방문에서 천일마는 모데른과 같은 최진식 호텔에서 묵으며 백화점을 드나들고 경마장, 카바레, 극장을 오간다. 천일마가 동경했던 근대 도시 하얼빈은 말 그대로 ‘구라파문명의 조그마한 진열장’이었다. 뿐만 아니라 도박 관련된 두 가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데 그중 하나는 천일마가 채표를 구입해 만원을 당선한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경마장에서 마권을 사서 오천 원을 따낸 사건이다. 첫 번째 하얼빈 방문은 천일마로 하여금 하얼빈 교향악단 초청에 성공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돈을 벌게 했고 이국 미인 나아자와 결혼도 성공케 했다. 하지만 천일마의 두 번째 하얼빈 방문은 하얼빈이 마약의 온상이고 납치가 범람하는 무시무시한 도시임을 깨닫게 한다. 이러한 깨달음은 아래의 인용문에서 잘 나타나 있다.

하얼빈이란 곳이 지금까지와는 달라 또 하나의 생각지도 못했던 요소를 가지고 있음을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고, 이 새로운 요소의 발견으로 말미암아 도시의 인상이 지금까지와는 달라진 것을 신기하게 느끼고 있는 중이네. 하기는 그 어디인지 넓고 깊고, 그 깊은 속에 헤아리지 못할 그 무엇이 숨어 있으려니는 생각되었었으나, (중략) 하얼빈은 향수의 도시만이 아니라 공포의 도시임을 처음으로 깨달았네. 무시무시한 전술의 도시라네. 안심하고 즐거운 날만을 보낼 수 없는 위험하고 무서운 도시임을 깨달은 것이네.<sup>19)</sup>

천일마의 두 번째 하얼빈 방문은 이효석의 붓끝에 의해 네온등이 꺼진 저녁거리마냥 어둡게 부각되는데 한벽수의 숙부 한운산을 통해 드러난다. 소설에서 한운산은 ‘대륙당(大陸堂)’이라는 평범한 약방을 운영하면서 마약판매로 거부가 된 조선인이다. 천일마는 한운산처럼 하얼빈을 위시한 위만주국에서 성공한 조선 사람의 대부분이 마약장사를 통해 부자가 된다는 사실을 접하게 된다. 이렇게 부자로 살아가던 한운산은 어느 날 갱단에게 납치되고 만다. 천일마는 이 납

19) 이효석, 앞의 책, p.228.

치 사건을 계기로 하얼빈이 범죄가 범람하는 ‘공포의 도시’임을 깊이 깨닫게 된다. 주인공이 만주가 복잡한 구렁이라고 생각하는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쪽정이 의식’의 발견이다.

천일마는 “인간의 대부분은 그 쪽정이다. 어느 도회가 그렇지 않으랴만 하얼빈은 어디보다도 심한 쪽정이의 도회이다. 거리는 국제적 쪽정이의 진열장이다.”<sup>20)</sup>고 하면서 하얼빈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드러낸다. 이런 불만을 갖게 된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왜냐 하면 그의 시야에 들어오는 인간들은 대부분 매춘을 직업으로 삼고 마약에 중독되어 살이 썩어가는 댄서나 또는 한때는 사관이었으나 현재는 겨우 생활을 영위해 가는 무직업자, 머물 곳을 찾지 못한 채 여기저기 유령처럼 떠돌아다니는 거지, ‘썩은 누더기’ 같은 낡은 신발을 신고 꽃을 피는 여자, 전에는 장교였으나 전장에서 눈을 잃고 난후 손푹금 타는 것으로 세월을 보내는 장님 음악가, 채표에 열광하거나 경마장 도박에 몰두하는 인간들이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어찌 보면 다가 식민지 도시에서 소외된 채 어설피 삶을 사는 타자들이다. 소설은 바로 천일마라는 인물의 눈을 빌려 ‘쪽정이 진열장’으로 변해가는 하얼빈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쪽정이들의 각양각색의 삶을 보여줌으로써 모던하기만 했던 하얼빈의 부정적이고 음산한 이면을 부각시키고 있다. 여기에 등장한 소외된 쪽정이들은 전도된 오리엔탈리즘의 상징으로서 하얼빈이 표방했던 국제성에 가려진 암울한 이면을 고발하고 있어 나름의 시대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효석은 <벽공무한>과 <하얼빈>에서 하얼빈이라는 식민지 근대 도시의 화려함을 묘사했지만, 심층적으로 보여준 것은 마약, 범죄, 납치의 만연과 불행한 쪽정이들에 대한 애수의 정서다. 이는 하얼빈이라는 제국주의 식민화 공간에서 이효석 소설의 도시성이 매혹과 거부감, 긍정과 부정을 동시에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구라과 문명의 진열장’에서 ‘쪽정이의 도회’로 변화하는 양상, ‘변화한 키타이스카야 거리’에서 ‘식민지로 전락한 하얼빈’의 본질을 갈파한 두 작품에서 우리는 양가성의 틈새를 이용한 탈식민지의 저항을 읽어낼 수 있다.

20) 이효석, 앞의 책, pp.127-129.

## 2) '천당지옥'론과 '몰락한 Pierrot' 글쓰기

앞에서 논의한 한국의 작가 이효석과 비슷한 경력 및 창작스타일을 가진 중국의 현대작가 무스잉도 자신의 도시소설에서 나름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무스잉은 중국 현대문학사상 도시문학의 선봉자이자 최초로 현대주의 소설을 창작했던 류나어우, 스저춘 등과 더불어 신감각파의 대표 작가로 거론되며, 작품집 『공동묘지(公墓)』(1933)로 ‘중국 신감각파의 명수(聖手), 귀재(鬼才)’로 불렸다. 중국 신감각파의 대표적 소설가들 중에서 류나어우가 가장 처음으로 작품 속에 신선한 도시 모습을 그린 작가라고 한다면 무스잉은 그보다 더 원숙한 예술적 기법으로 도시소설의 폭과 깊이를 새롭게 확장해주고 발전시켜준 작가라고 말할 수 있다.<sup>21)</sup> 이에 당시 비평가 두형(杜衡)은 “중국에는 도시가 있으나 도시를 묘사한 문학이 없었다. 혹은 도시를 묘사했지만 이런 묘사에 적합한 기법을 택하지 못했다. 이 방면에서 류나어우가 하나의 시대를 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잘 유지해 나가지 못했고 아울러 그의 작품에는 ‘비(非)중국적’ 즉 ‘비(非)현실적’인 결함이 있다. 이런 결함을 극복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한 사람이 바로 스잉이다.”라고 무스잉의 창작을 호평(好評)한바 있다. 이는 조금도 지나친 평가가 아니다. 실제 무스잉은 자기만의 창작기법으로 1930년대 중국 도시 풍모를 작품 속에 적절히 묘사하는 한편 거기에서 당시 중국 특유의 시대성과 현실성을 가미함으로써 독자적인 창작 풍격을 형성하였다.

1930년대 상하이에는 ‘나라 속의 나라(國中之國)’인 조계지(租界地)를 매개로 세계 여러 나라의 자본은 물론 서양의 발달한 문화들이 끊임없이 유입되었으며 전통적 문화와의 마찰 속에서도 대부분 중국이라는 토양 속에 뿌리내리고 나름으로 꽃을 피우고 있었다. 이처럼 전통과 근대가 혼재된 식민지 공간에서 무스잉은 자신의 작품을 통해 상하이 현대 문명의 매혹적인 면과 서방 열강의 억압이라는 반식민지 근대의 양가성을 교묘하게 보여주었다.<sup>22)</sup> 그 구체적 표현을

21) 杜衡, 「關於穆時英的創作」, 『現代出版界』第9期, 1933.2.1. 嚴家炎·李今, 『穆時英全集』, 北京: 北京出版社出版集團 北京十月文藝出版社, 2008, p.424. 재인용.

22) 한영자, 「1930년대 중국의 신감각파 도시소설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논문, 2012, p.224.

1932년 『현대(現代)』에 발표한 대표작 〈상하이 폭스트롯〉에서 느껴볼 수 있다. 이 소설은 상하이라는 근대도시의 화면을 폭넓게 묘사하면서 그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들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상하이 부유층의 타락한 생활을 인상적으로 그려낸 댄스홀의 한 장면이다.

“질푸른 황혼이 댄스홀을 뒤덮자 saxophone이 목을 길게 빼고 입을 크게 벌리고 우우하며 그들을 향해 소리치고 있다. 그 가운데의 반들거리는 바닥 위에 훑날리는 치마, 훑날리는 치파오들, 날렵한 구두 굽, 구두 굽, 구두 굽, 구두 굽, 구두 굽. 흐트러진 머리카락과 남자의 얼굴, 그 남자 와이셔츠의 하얀 칼라와 여자의 미소 짓는 얼굴. 앞으로 내뻗은 팔에, 비취 귀걸이가 어깨 위에 늘어뜨려져 있다. 둥근 테이블의 대열은 정돈하지만 의자는 제멋대로이다. 어두운 구석에 백의 웨이터가 서 있다. 술 냄새, 향수 냄새, 영국식 햄 냄새, 담배 냄새…… 독신자는 구석에 앉아서 블랙커피를 들이키며 자신의 신경을 자극하고 있다.”<sup>23)</sup>

윗글에서 댄스홀에 관한 묘사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옮겨놓은 듯하다. 작가는 시각, 청각 그리고 후각까지 동원하여 이동하는 카메라 시선에 잡힌 색소폰과 음악, 그리고 반들거리는 댄스홀 바닥에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쌍쌍의 남녀, 또 그들을 둘러싼 테이블과 의자, 웨이터와 독신자, 거기에 후각을 자극하는 여러 가지 냄새까지 생동하게 그려냄으로써 댄스홀의 분위기를 더욱 감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댄스홀은 상하이 부유층의 사치한 생활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공간이다.

이러 소설에는 부자 류유더(劉有德)의 젊은 후처와 전처의 아들이 류유더에서 돈을 뜯어내어 함께 카바레로 달려가 방탕한 생활을 하는 장면도 나온다. 카바레에서 전처의 아들이 법적으로는 새어머니인 류유더 후처와 버젓이 사랑을 속삭이기도 하고, 영화 스타에게 사랑을 고백하기도 한다. 류유더 후처는 전처

23) 蔚藍的黃昏籠罩著全場，一只saxophone正伸長了脖子，張著大嘴，嗚嗚地衝著他們嚷。當中那片光滑的地板上，飄動的裙子，飄動的袍角，精緻的鞋跟，鞋跟，鞋跟，鞋跟，蓬鬆的頭髮和男子的臉。男子的襯衫的白領和女子的笑臉。伸著的胳膊，翡翠墜子拖到肩上。整齊的圓桌子的隊伍，椅子卻是零亂的，暗角上站著白衣侍者。酒味，香水味，英腿蛋的氣味，煙味……獨身者坐在角隅里拿黑咖啡刺激著自家兒的神經。嚴家炎·李今， 앞의 책, pp.334-335.



의 아들과 연인으로 지내기도 하고, 벨기에 사람인 보석 거간꾼에게 흘려 불륜을 저지르기도 한다. 류유더 일가의 이와 같은 형태에서 우리는 당시 상하이의 상류층 생활이 얼마나 방탕하고 타락한지를 알 수 있다. 이들과 대조적으로 작품에서는 또 공사장에서 목재를 운반하다가 그 목재에 깔려 죽는 노동자, 굶주림에 견디다 못해 머느리를 한 작가에게 애걸하며 성매매를 주선하는 노파, 힘들게 손님을 태우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인력거꾼 등 타자들을 그려 보이고 있다. 이처럼 무스잉은 빈부의 양극단에 위치한 인간들의 삶을 대비하여 그려냄으로써 참혹한 식민지 현실을 아이러니하게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작가가 묘사한 소위 최하층 타자들은 식민 권력의 일방적 시선에 포괄될 수 없는 이질적인 존재들로서 이들 자체가 바로 식민지배자의 권력을 분열시키고 내적 모순을 드러내는 잠재적 힘이다. 무스잉은 작품에서 자본의 힘으로 상징되는 근대 권력의 식민성을 거론하면서, 상하이는 ‘지옥 위에 세워진 천당(上海, 造在地獄上面的天堂!)’과 같은 도시라고 비판한 바 있는데 이는 식민성의 양가성을 지적한 것이기도 하다. 이로써 우리는 작가 무스잉이 작품 속에 그려낸 식민화된 국제도시 상하이는 부유층에게는 매혹적인 ‘천당’이지만 가난한 자에게는 굶주림과 상실의 ‘지옥’이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무스잉이 1932년에 발표한 또 다른 대표작 〈나이트클럽의 다섯 사람〉은 상하이를 무대로 도시의 삶에서 실패한 다섯 사람의 비극적인 경력을 나이트클럽이라는 공간에서 상호 고백하게 만든 의미 있는 소설이다. 이 소설은 서두에서 토요일 저녁 황후 나이트클럽의 매력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토요일 저녁의 세계는 재즈의 축 위에서 도는 ‘만화’의 지구이다. 얼마나 경쾌하고 광분하는지, 마치 지구의 중력이 없어, 모든 것들이 허공에 지어진듯하였다.

토요일 저녁은 이성이 없는 날이다.

토요일 저녁은 법관도 죄를 짓고 싶은 날이다.

토요일 저녁은 하느님이 지옥에 들어가는 날이다.

여인을 데리고 온 사람들은 민법상의 간통죄를 완전히 잊어버린다.<sup>24)</sup>

24) 星期六晚上的世界是在爵士的軸子上回轉著的“卡通”的地球，那麼輕快，那麼瘋狂地；沒有了地心吸力，一切都建築在空中。星期六的晚上是沒有理性的日子。星期六的晚上，

읽글에서 보여주었다시피 도시 풍경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토요일 저녁’의 거리는 매우 특별하다. 작가는 ‘토요일 저녁의 세계는 재즈의 축 위에서 도는 만화의 지구’처럼 허공에 지어져 있으며 ‘이성이 없고’, ‘법관도 범죄를 저지르고 싶어 하고’, ‘하느님도 지옥에 들어가는’ 광적인 세계라고 정의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금값이 폭락하는 바람에 증권거래소의 재산 전부를 일순간에 날려버린 후권이(胡均益)와 애인에게 버림받은 대학생 쟁평(鄭萍), 젊음이 시들어가는 것을 근심하는 여배우 황다이첸(黃黛茜), 별 이유 없이 해고된 시정부의 비서 마오중단(繆宗旦),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는 청년 학자 지제(季潔) 등 다섯 사람은 우연히 황후 나이트클럽을 찾아 광란의 분위기에 휩쓸려 미친 듯이 춤을 춘다. 이들은 모두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생활에서 미끄러진’ 인물들이다. 그럼에도 무스잉은 아이러니하게 이들에게 “즐거운 다섯 사람(五個快樂的人)”이라는 부제를 붙여 주었다. 이는 분명 무스잉이 의도적으로 취한 수법이다. 소설 속의 다섯 사람은 나이트클럽에서 모여 자신의 괴로움을 놀려둔 채 ‘웃는 얼굴의 가면’을 쓰고 현란한 조명과 음악소리에 맞춰 외치거나 춤을 추면서 도시 생활에서 자신들이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음을 느끼고 자포자기하는 허망한 모습들을 연출한다. 이들은 전부 반식민지 현대도시에서 철저히 소외된 사람들로서 겉으로 찰나의 즐거움을 누리는 인간들처럼 보이지만 내심세계는 상당한 갈등을 겪는다. 이와 같이 무스잉은 상하이로 무대로 하여 ‘생활에서 밀려난 사람들’의 ‘슬픈 얼굴에 즐겁게 보이는 가면을 씌워’ 등장시키고 있다. 마치 작품집 『공동묘지』의 자서에서 ‘단지 생활에서 나가떨어진, 일부 몰락한 Pierrot를 표현하려는 것’인 동시에 ‘반항하고 슬퍼하거나 원망하는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슬픈 얼굴에 즐거운 가면을 씌우기 위한다’<sup>25)</sup>고 말한 것처럼 이 소설에서 무스잉은 이들의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한 묘사를 통해 그들 마음속 깊은 곳에 억압되어 있는 비애와 분노, 현실에서 느끼는 권태와 환멸, 절망을 진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是法官也想犯罪的日子。星期六的晚上，是上帝進地獄的日子。帶著女人的人全忘了民法上的誘奸律。嚴家炎·李今，「夜總會裡的五個人」， 앞의 책， p.270.

25) 嚴家炎·李今， 앞의 책， pp.334-335.

또 이 소설에는 위 다섯 인물 외에 삶에 지친 악사 요한슨(約翰生)도 등장한다. 요한슨은 나이트클럽에서 구박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생계를 위해서 웃는 얼굴로 신나는 음악을 연주해야 하는 가궁한 인물이다. 그러다가 기구한 운명이라 할까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해산을 했는데 아이가 요절하고 아내마저 세상을 떠났다는 불행한 소식을 접하게 된다. 그러나 지배인의 허락을 받지 못해 요한슨은 끝내 집에 가지 못하고 갓난 아들과 아내의 죽음을 지켜주지 못한다. 이에 망연자실한 그는 자신의 원통함을 이렇게 하소연한다.

“내 아내가 지금 집에서 아이를 낳으려 한 대요. 방금 전화와서 나보고 들어오라고 했는데, …… 지배인한테 말을 했지만 가지 못하게 하는군요…… 남자 아이를 낳았는데, 죽었대요. 아내는 기절했구요. 날 보고 오라고 하지만, 난 갈 수가 없어요…… 아내도 죽었대요.”<sup>26)</sup>

“남자 아이를 낳았는데, 죽었대요. 아내는 기절했구요. 날 보고 오라고 하지만, 난 갈 수가 없어요.”이는 가족을 잃은 한 남편의 애절한 울부짖음이다. 작가는 이와 같은 기막힌 사연을 통해 당시 중국 사회 부유층의 쾌락은 빈곤층의 고통을 기반으로 해서 세워진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여기서 작가가 묘사한 사회는 바로 사람이 사람을 먹는 도시인 것이다. 이와 같이 무스잉은 화려해 보이는 도시의 이면에 가려진 하층민의 고통스러운 삶을 통해 자신의 ‘천당지옥론’을 잘 드러내고 있다.

요컨대 상기한 이효석과 무스잉의 도시소설들은 위만주국의 도시 하얼빈과 조계지 도시 상하이의 화려함과 그에 가려진 어두운 면을 동시에 그려냄으로써 이 두 근대도시가 지니고 있는 양가적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효석은 〈벽공무한〉과 〈하얼빈〉에서 1930년대 후기 ‘구라파문명의 진열장’과 같은 하얼빈을 배경으로 그 속에서 만연하는 납치, 마약, 매음현상을 리얼리하게 묘사하면서 최하층 쪽정이들에 대한 애수를 보여주는 ‘쪽정이의 복마전’ 글쓰기를 시도했다.

26) “我的妻子正在家生孩子，剛才打電話叫我回去……我跟經理說，經理不讓我回去……生出來一個男孩子，可是死了，我的妻子暈了過去，他們叫我回去，我卻不能回去……我的妻子也死了。”嚴家炎·李今， 앞의 책， pp.278-285.

이에 반해 무스잉은 〈상하이 폭스트롯〉과 〈나이트클럽의 다섯 사람〉에서 계층 간의 빈부차이가 심각한 근대도시 상하이를 천당과 지옥으로 분리하여 지칭하면서 비할 바 없이 화려하고 변화한 반식민지 근대도시에서 힘겨운 삶을 영위해 나가는 하층민들과 그들의 고통, 환멸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특히 무스잉은 근대도시 ‘생활에서 밀려난 사람’들에 주목하여 온갖 비애와 절망과 권태를 느끼는 그들에게 하나의 대응 장치로 볼 수 있는 ‘즐거움의 탈’을 씌워 괴로움과 고통을 교묘하게 보여주고 있다. 무스잉의 이러한 사회비판적인 ‘천당지옥론’의 글쓰기는 당시 반식민지현실에 대한 대응전략이었음이 틀림없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위에서 논의된 두 작가의 관련 작품들에 내장된 것은 바로 탈식민지적 의지와 의식이다.

### 3. 시선과 응시, 모방과 부정의 섹슈얼리티

오리엔탈리즘은 ‘이쪽/우리’와 ‘저쪽/그들’이라는 경계를 설정하고, 후자를 전자의 특권적인 장으로부터 분리해 일정한 담론 질서 속에 가두려 한다. 이 비대칭적인 이항대립 관계는 남성과 여성의 이미지를 떠올린다. 식민주의 담론 전략과 이데올로기가 식민지를 여성·야만·미몽·몸과 같은 담론을 구사함으로써 타자화해 온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여성을 몸과 유비시키고, 그것에 열등성의 자질을 부여함으로써 식민 지배의 정당성을 언설화하는 것 등은 식민주의가 구사해 온 낮은 전략이다. 이처럼 식민주의는 여성성과 남성성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거기에 모종의 의미를 부여하는 젠더 정치학을 구사한다.<sup>27)</sup> 하지만 그 의도와 효과는 다르다. 호미 바바에 따르면 식민지적 ‘모방(Mimicry)’은 ‘거의 동일하지만 똑같이 않은 차이’의 효과를 산출한다. 피식민 주체는 식민화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식민주의 담론이 사용했던 식민지의 여성화 전략을 모방하지만 그 의도는 민족국가의 정체성 탈환에 있으며, 그 결과는 여성성 속에서 식민주의 담론 질서를 전복하고 저항하는 가능성을 발견한다. 즉 피식민지는

27) 김양선, 「옥시덴탈리즘의 심상지리와 여성(성)의 발명」, 『민족문화사연구』 제23집, 민족문화사학회, 2003, p.93.

닭은 것인 동시에 위협이기도 한 모방의 전략을 통해 여성 타자는 남성 권력을 모방하면서 응시를 통해 남성 식민권력을 조롱하고 저항의 계기를 만들어낸다. 여기서 응시란 불길한 눈으로 식민자의 시선으로 동일화할 수 없는 타자(피식민자) 위치에서 식민자에게 되돌아오는 것으로 상상 속에서의 타자의 시선을 말한다.<sup>28)</sup> 지배주체의 감시하는 눈(the look of surveillance)은 ‘훈육된 자의 전치하는(the displacing gaze of the disciplined)시선’이 되어 돌아옴으로써 감시자가 오히려 감시를 받는 처지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 결과, 식민권위의 핵심적 지위가 무너지고 식민 권력의 본질을 상실하여 피지배자의 식민 담론에 대한 전복의 가능성이 있는 ‘대항응시’로 나타난다. 식민권력은 피식민자에게 오리엔탈리즘을 부여하려고 하지만, 피식민자는 치환적 자기응시를 통해 식민권력을 분열시킨다. 이러한 피식민자의 대항응시로 인해 식민주체는 피식민자인 타자를 동일화시키는데 실패하여 위협을 느낀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서 본 절에서는 식민지 치하 1930년대 이효석과 무스잉 도시소설에서 가장 지배적으로 나타난 획기적이고 충격적인 성 묘사를 고찰함으로써 이들 소설에 드러난 시선과 응시, 모방과 부정의 과정이 탈식민지적 해석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또 이러한 서사전략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 1) 여성 타자의 응시와 정체성 회복

이효석이 1938년 『삼천리문학』에 발표한 소설 <장미 병들다>는 주인공 남죽이 억압받는 주변인으로서의 여성 타자가 아닌 정체성 찾기와 새로운 인생행로의 모색을 담고 있는 텍스트다. 즉, 여성 타자는 이탈된 성의 양상 속에서 남성 중심의 식민권력을 전복함으로써 기존 성 위계를 허무는 저항의식을 보여준다. 이 작품의 여주인공 남죽은 학생시절부터 진보적 서적을 모조리 읽으며 학교에서 프롤레타리아 운동가로 활동했던 진취적인 여성이다. 남죽은 서점을 경영하는 언니인 세죽 밑에서 공부하며 건강하게 성장했고 그때 남성 주인공 현보의

28) 호미 바바, 『문화의 위치』, 나병철 역, 소명출판, 2012, p.130.

눈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꽤나 인상적이었다.

현보는 그 남다른 환경에서 자라가는 늑출한 처녀의 자태 속에 물론 시대적 열정과 성장도 보았으나 더 많이 아름다운 감상과 애끓는 꿈을 엿보았던 것이다. 단발한 머리를 부수수 헤트리고 미미하고 건강한 육체로 고운 멜로디를 읊조릴 때에는 그의 몸 그대로가 구석구석에서 아름다운 꿈을 함빡 머금은 호뜻한 꽃이었다. 건강한, 그러나 상하기 쉬운 꽃이었다. 참으로 아담한 꽃을 보는 심사로 현보는 남죽을 보아왔다.<sup>29)</sup>

‘시대적 열정’과 ‘아름다운 꿈’으로 비유된 남죽은 원래 진보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현보의 눈에는 학문에 대한 열정을 지닌 여성으로 ‘아담한 꽃’, ‘아름다운 꿈을 함빡 머금은 호뜻한 꽃’으로 비쳐져왔다. 현보가 남죽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애정까지 느끼는 것도 바로 이러한 매력에서 비롯된 것임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남죽은 학교에서 ‘사건’을 지도하다 실패한 끝에 학교에서 쫓겨나고 만다. 7년이 지난 후, 현보가 각본을 맡은 연극단의 여주인공으로 나타난 남죽은 더 이상 친취적인 모습이 아닌 타락한 여배우의 모습이었다. 게다가 첫 공연을 앞두고 지나치게 의식화되었다는 이유로 검열에 걸려 여배우 생활마저 포기하게 된다. 큰 허탈감과 빈곤에 빠진 그녀는 결국 도시를 떠나 고향에 돌아가기로 결심하게 된다. 하지만 남죽에게는 당장 고향에 돌아갈 여비조차도 없었다. 곤경에 처한 남죽은 현보에게 구원을 요청하고 현보는 친구에게 여비로는 부족한 돈을 얼마간 빌려준다. 실의에 빠져 밤거리를 헤매던 현보와 남죽은 그 빌린 돈으로 조출한 바에 들어가고 이곳에서 현보는 남죽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남죽은 사양하지 않고 몇 잔이고 거둬 마셨다. 어느결에 주량조차 그렇게 늘었나 하고 현보는 놀라고 탄복하였다. 재범 술자리를 잡고 얼굴을 붉게 물들이고 못 사내의 시선 속에서 어울려 나가는 솜씨는 상당한 것으로 보였다.

술이 어지간히 들었는지 체면불구하고 레코드에 맞추어 몸을 으쓱거리더니 나중에

29) 이효석, 「장미 병들다」, 『이효석 전집』, 창미사, 2003, pp.190-191.

는 자리를 일어서서 춤의 자세를 하고 발끝으로 달가라달가라 춤을 추는 것이었다.

현보 역시 취흥을 못 이겨 굳이 그를 말리지 않고 현혹한 눈으로 도리어 그의 신기한 재주를 바라볼 뿐이었다. 술은 요술쟁이인지 혹은 춤추는 세상의 도덕은 원래 허랑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맞은편 자리에 앉았던 아까 남죽의 귀에다 콧속말로 거리의 부랑자 백만장자의 아들이라고 가르쳐 주었던 그 사나이가 성큼 일어서서 남죽에게 춤을 청하는 것이었고, 더 이상한 것은 남죽이 즉시 응하여 팔을 거르고 스텝을 밟기 시작한 것이다.<sup>30)</sup>

위 인용문은 현보가 남죽과 바에 폭스트롯을 추러 갔을 때 생겨난 심리적 변화에 대한 서술부분이다. 바에서 현보는 남죽의 변화된 외모와 갑자기 늘어난 주량, 못 사내와 어울리는 솜씨, 청하는 춤에 즉시 응하는 재주 등 변화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그러다가 두 사람은 하룻밤을 같이 보내게 되고 현보는 이 하룻밤의 정에 보답하고자 부모님의 적금통장을 훔쳐 남죽의 여비를 마련해 가지고 남죽을 찾아갔으나 그때는 남죽이 이미 여관을 떠나간 뒤였다. 그런데 뜻밖에도 현보는 여관집 노파로부터 남죽이 여비를 구하기 위해 며칠 전 바에서 우연히 만난 돈 많은 농팽이에게 몸을 팔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충격에 빠진 현보는 동정을 베푼 남죽에게서 배신감을 느끼게 되고 그녀의 부도덕한 성의식에 실망과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된다. 그제야 비로소 현보는 과거 7년 동안의 생활도 현재와 같았을 것이라 추측하면서 남죽을 ‘병든 장미’라고 생각한다.

속인 것은 비단 마음뿐이 아니고 육체까지임을 알았을 때 현보는 참으로 미칠듯도 한 심정이었던 것이다. (중략) 처음에는 감격하고 고맙게 여겼던 애정이었으나 그렇게 된 결과로 보면 일종의 애욕의 사기로밖에는 생각되지 않았다. 칠팔 년 전 건강하고 아름다운 꿈으로 시작되었던 남죽의 생애가 그렇게 쉽게 병들고 상할 줄은 짐작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굳건한 꿈의 주인공이 칠년 후 한다하는 밤의 선수로 밀려 떨어질 줄은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다. 아담하던 꽃은 쯤이 먹었을 뿐이 아니라 함빡 병들어 상하기 시작하지 않았던가.<sup>31)</sup>

30) 이효석, 앞의 책, pp.193-194.

31) 이효석, 앞의 책, p.204.

지난 7, 8년 동안 그녀는 현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굳건한 꿈의 주인공’으로부터 ‘한다하는 밤의 선수’로 변화된 것이다. 애초에 ‘아담한 꽃’ 같던 남죽이 ‘좁이 먹어 함빡 병들어 상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게다가 남죽은 자신에게 성병까지 옮겨놓았다. 마음과 몸이 한꺼번에 속힌 불쾌감에 현보는 남죽을 알게 된 것조차 원망하며 남죽의 행위를 ‘일종의 애욕의 사기’라고까지 생각한다. 한때 감격하고 고맙게 여겼던 애정이지만 정조를 위반하자 남죽을 ‘한다하는 밤의 선수’로 취급하는 현보의 사상변화에서 남성 식민권력의 이데올로기를 읽어낼 수 있다.<sup>32)</sup>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닦으며 우울한 마음으로 바에 나갔던 현보는 그곳에서 우연하게 백만장자 김장로의 아들을 만난다. 그의 입을 통해 김장로의 아들도 남죽에게서 성병이 옮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현보는 과거를 후회하며 타락한 남죽을 원망한다. 그러나 남죽은 현보와 김장로 아들에 대해 증오나 불만을 느끼지 않는다. 그리고 타락한 그녀의 행위도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남죽의 시선에 의해 근대적 성의식을 지닌 현보가 부정적으로 비취진다. 이는 이효석의 잠재된 반항적 주체가 남죽을 통해 드러났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타자인 남죽은 현보와 김장로 아들을 대상으로 성병을 옮겨놓는 것을 통해 성적자기결정권을 드러냄으로써 남성 식민권력의 성을 조롱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한 여비를 마련해 새로운 삶을 모색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호미 바비는 식민 권력의 시선이 피지배자에게 부과될 때 생성되는 시선의 되돌리기(return of the eye of power)에 의해 파생되는 그 저항의 시선은 식민 담론의 의도와 실천 사이의 균열을 야기한다고 강조한다. 호미 바비는 라캉의 ‘타자의 응시(the gaze of the other)’를 적용하여, 어떻게 푸코의 ‘전방위적 감시체제(panoptic surveillance)’가 전복되며, 응시가 더 이상 식민지배자의 전유물이 아님을 보여준다. 이를 바탕으로, 호미바비는 지배주체의 감시하는 눈이 ‘훈육된 자의 전치하는 시선’으로 되어 돌아옴으로써 감시자가 오히려 감시를 받

32) 최경란, 「이효석 소설의 혼종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2016, p.51.



는 처지가 된다고 주장한다.<sup>33)</sup> 그 결과, 지배주체는 혼육된 자의 눈에 비춰진 자신과 매우 비슷하고 닮았지만 똑같지 않은 모습으로 인해 자기 동일성의 분열을 경험하게 된다고 지적한다. 그에 의하면, 균열은 주체와 타자 사이의 권력 관계의 그물망에 내재된 권력의 효과로, 이는 식민권위가 중심, 핵심, 식민 권력의 본질을 상실하고 피지배자의 식민 담론에 대한 전복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sup>34)</sup> 남죽은 한때 남성 주체인 현보가 사랑했던 여인이었으나 타락과 함께 그녀는 바로 ‘병든 장미’로 위치지어진다. 이러한 여성 타자인 남죽은 결국 남성 권력을 모방하면서 시선의 되돌리기를 통해 현보에게 성병을 옮긴 뒤 동경하던 고향에 내려간다. 이렇게 소설 속의 남죽은 식민지라는 절대적 억압 속에서도 ‘염소의 젖이 그리웠고 염소의 젖을 벌떡벌떡 마시고 기운차게 소생됨이 한가지의 원이었다’<sup>35)</sup>며 생명을 싹 틔우고 생명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고향과 합일된 주체로 그려져 있다. 남죽의 이와 같은 형상에서 우리는 남성 식민권력을 조롱하고 자신의 성을 능동화 시키면서 저항성을 드러낸 탈식민성을 읽을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이효석의 소설 〈장미 병들다〉는 얼핏 보건대 남성 주체의 식민권력 시선과 여성 타자의 피식민 응시 간의 충돌을 그리면서 타자인 여성이 남성의 식민권력을 모방한 것 같지만, 실제 여성의 응시를 통해 남성 식민권력을 조롱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회복하는 저항성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여성 타자는 이탈된 성의 양상 속에서 남성 중심의 식민권력을 전복함으로써 성 위계를 허무는 성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효석의 〈장미 병들다〉는 지배이데올로기에 희생당하는 여성 남죽의 정체성 찾기를 통해 1930년대 왜곡된 식민지 현실에 대한 역사적 자각을 유도하고 있다.

33) 巴巴的模擬則將殖民者的凝視回敬給了殖民者，模擬也即使對統治階層發動的戰略反攻，它將被歧視者的凝視轉回到權利之眼。生安峰，『霍米巴巴的後殖民理論研究』，北京：北京大學出版社，2011，p.44.

34) 霍米巴巴他在談到殖民者，被殖民者話語混雜滲透過程的時候，強調了被殖民者的接受中的抗拒及至反凝視，及至於殖民話語權威及真實性的變形和動搖。趙稀方，『後殖民理論』，北京：北京大學出版社，2009，p.118.

35) 이효석, 앞의 책, p.192.

## 2) 응시되는 여성과 알레고리의 몸

무스잉이 1933년 『문예월간(文藝月刊)』에 발표한 소설 〈Craven ‘A’〉는 응시되는 여성의 곱탈된 몸이 잃어버린 민족성이라는 메타포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댄스홀에서 남자 주인공 위안예춘(袁野邨)이 말없이 Craven ‘A’ 담배를 피우고 있는 위후이셴(余慧嫻)이라는 여인을 바라보는 것으로 소설은 시작된다. 주인공 ‘나’는 그녀의 몸과 얼굴을 보면서 엉뚱한 상상에 빠져든다. 순식간에 그녀의 신체는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 한 장의 국가 지도처럼 그려진다.

앞에 놓인 것은 아주 잘 그려진 국가의 지도이다.

북방의 경계는 까만 소나무 숲 지대이며, 그 경계선은 한 줄기 하얀 실크띠와 같아서 연탄가스도 가득 덮인 하늘의 하얀 구름처럼 보인다. 까만 소나무 숲 지대는 향료의 생산지이다. 남쪽으로 가면 드넓은 평원이 나오는데, 흰 대리석의 평원이다. …… 다음은 충수하고 높은 산맥이고, 꼭대기의 동서 양쪽은 두 줄기의 좁고 긴 초원 지대 이다. …… 초원 끝에는 두 개의 호수가 있다. …… 그 높은 산맥의 끝부분은 화산이고 화산입구가 조금씩 벌어져, CRAVEN “A” 냄새를 내뿜고 있다. …… 그 화산을 지나면 바로 해협이다.

…… 그 바다 해협을 지나면 내지이다. 그곳에는 비옥한 평원이 있고, …… 두 쌍둥이의 작은 산은 평원에서 굳건하게 서로 마주보고 있으며, 자주색의 봉우리는 슬며시 구름을 뚫고 막 나온 것 같다. 이곳은 그야말로 명승지라고 할 수 있다. …… 다시 남쪽을 바라보니, 그 평원이 비탈로 변하고 균등하게 깎여 내려간 것을 알 수 있으나, 지도의 아래쪽은 가로 방향으로 중간 탁자에 가려져 있다!

…… 탁자아래는 두 개의 방과제이다. …… 두 개 방과제 중간 지형을 추측하건데, 분명히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층적평원이고, 근해에는 틀림없이 중요한 항구와 큰 상업 부두가 있을 것이다. 왜 그렇게 정교한 방과제를 두 개나 만들었을까? 대도시의 밤풍경은 사랑스럽기만 하다. 그 방과제에 비추는 저녁노을, 부두의 파도소리, 큰 선박이 입항할 때의 그 위풍당당함, 갑판 위의 물보라, 해안가의 고층 건물을 생각해보시라!<sup>36)</sup>

36) 放在前面的是一張優秀的國家的地圖：北方的邊界上是一片黑松林地帶，那界石是一條白絹帶，像煤煙遮瞞著的天空中的一縷白雲。那黑松林地帶是香料的出產地，往南是一片平原，白大理石的平原，……下來便是一條蔥秀的高嶺，嶺的東西是兩條狹長的纖細的草原地帶。……草原的邊上是兩個湖泊。……那條高嶺的這一頭是一座火山，火山口微微地張著，噴著Craven“A”的鬱味……過了那火山便是海岬了。……走過那條海岬，已經是

위 인용문에서 볼 수 있다시피 머리카락(까만 소나무 숲)부터, 이마(흰 대리석의 평원), 코(한줄기 추수하고 높은 산맥), 눈(두 개의 호수), 입(화산), 인두(해협), 가슴(쌍둥이 같은 작은 산), 그리고 남쪽으로 살펴보면, 다리(두 개의 방파제), 음부(항구)에 이르기까지 전신을 살살이 훑어 내려가며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 한 폭의 특이한 ‘풍경’과도 같은 여성 신체의 ‘지구 표면 형태’에는 대량의 ‘리비도’가 축적되어 있는데, 그중 특히 ‘북방의 경계는 까만 소나무 숲 지대이며, 그 경계선은 한 줄기 하얀 실크띠’라든가 ‘두 개 방파제 중간 지형을 추측하건데, 분명히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층적평원’ 등과 같은 적나라한 묘사는 남성의 시선을 통해 드러낸 전형적인 섹슈얼리티다. 하지만 곧이어 대도시의 밤풍경과 해안가의 고층 건물에 대한 묘사도 병행되어 있어 이러한 여성 몸의 부위들은 그냥 신체가 아닌 식민지 도시 속의 여체(女體)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총괄적으로 무스잉이 <Craven ‘A’>에서 그려낸 여성의 신체는 피식민지 중국이라는 현실적 상황과 맞물리면서 우리에게 무한한 상상의 공간을 제공해 주고 있다. 마치 저명한 평론가 리어우판(李歐梵)이 지적한 것처럼, 무스잉의 여자 신체에 대한 묘사에서 현재를 사는 우리도 당시의 상하이를 연상해 볼 수 있다.<sup>37)</sup>

이상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무스잉의 대담하고 퇴폐적인 것으로 보이는 이 여성 신체지도는 일종의 문화적 알레고리의 색채가 깃들어있다. 중국의 지형과 민족적 기질을 비유해서 뚜렷하게 설명하고 있는 신체묘사에서 독자들은 민족과 국가를 연상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무스잉의 남성/여성, 바라보기/보여지기의 서사는 그 당시 민감한 사회정치적 상황 하에서, 식민 지배자/피식민지배

---

內地了。那兒是一片豐腴的平原，……兩座孿生的小山倔強地在平原上對峙著，紫色的峰在隱隱地，要冒出到云外來似地。這兒該是名勝了吧。……再往南看去，只見那片平原變了斜坡，均勻地削了下去——底下的地圖叫橫在中間的桌子給擋住了！……在桌子下面的是兩條海堤……在那兩條海堤的中間的，照地勢推測起來，應該是一個三角形的衝積平原，近海的地方一定是個重要的港口，一個大商埠。要不然，為什麼造了兩條那麼精緻的海堤呢？大都市的夜景是可愛的——想一想那堤上的晚霞，碼頭上的波聲，大汽船入港時的雄姿，船頭上的浪花，夾岸的高建築物吧！”嚴家炎·李今，「Craven ‘A」， 앞의 책， pp.288-290.

37) 李歐梵, 『上海摩登——一種新都市文化在中國, 1930-1945』, 杭州: 浙江大學出版社, 2017, p.267.

자의 서술로 이어지면서 주체성과 정체성이 훼손당한 피식민지배자의 민족 정서를 연상케 한다. 이와 같이 소설에서 여성의 ‘몸’은 ‘민족’이라는 메타포로 특히 여성의 겁탈된 몸은 잃어버린 민족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남자 주인공 위안 예춘의 친구 시선에서도 이러한 정서를 확인할 수 있다.

“나의 친구 거의 모두가 이 국가를 여행한 적이 있다.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대개 하루 이틀 만에 전국을 다 누비고 다녔다. 그들은 그 작은 쌍둥이 산봉우리 둘에 모두 시를 지어 새겨 놓았다. 노련한 사람은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그 항구로부터 상륙한 후에 다시 북방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어떤 사람은 하루 이틀 머물렀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 머물렀다. 그들은 돌아와서 나에게 그 국가의 맑고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면서 모두 그 지방을 단기간에 여행하기에 좋은 곳이라고 했다.”<sup>38)</sup>

위 인용문에서 묘사한 ‘쌍둥이 산봉우리’, ‘항구’ 등은 바로 여성 몸의 일부를 가리킨 것이고 ‘대개 하루 이틀 만에 전국을 다 누비고 다닐 수 있는 대상’이라고 지칭한 것은 여성의 신체가 마음대로 유린할 수 있는 대상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와 같이 아무 남자나 유린할 수 있는 존재, 쉽게 여행할 수 있는 ‘명소’와 같은 존재로 묘사된 여체는 짓밟힌 중국 또는 반식민지 도시 상하이의 상징이며 그 여체를 바라보는 남자들은 호시탐탐 중국을 침략하려는 제국주의 열강들을 은유한다.

무스잉이 위 소설을 출간할 당시, 애국 작가 샹오홍(蕭紅)도 소설 〈생사장(生死場)〉에서 일본군에게 짓밟힌 만주국을 여성의 몸으로 비유한 바 있다. 이런 독특한 여성 몸 서사는 당시에 루쉰(魯迅)을 필두로 한 상하이 문단의 찬사를 받았다.<sup>39)</sup> 샹오홍과 비슷한 수법으로 작품 속에 여성의 몸을 에로틱하게 부각

38) 差不多我的朋友全會到這國家去旅行過的，因為交通便利，差不多全只一兩天便走遍了全國，在那學生的小山的峰石上，他們全題過詩詞，老練的還是到了當地一去就從那港口登了岸，在倒溯到北方去的，有的勾留了一兩天，有的勾留了一禮拜，回來後便向我誇道著這國家的風景的明媚。大家都把那地方當一個短期旅行的佳地。嚴家炎·李今， 앞의 책， pp.290-291.

39) 王麗麗，「性別，民族與半殖民性：劉吶鷗，穆時英的都市風景線」，『黑龍江社會科學』第5期，2012，p.141.

시키는 것에서 우리는 무스잉의 민족주의와 반제국주의의 정서를 읽을 수 있다. 더욱이 무스잉은 여성 인물의 육체묘사 뿐만 아니라 돌아갈 곳 없는 방랑자의 숙명과 도시의 삶에서 강렬한 외로움도 밝히고 있어 더 심각한 인상을 준다.

“정말 외로워요. 또 여름이 왔어요, 그 기나긴 여름! 당신 보세요, 모두들 다 나가고 나 혼자만 집에서 이렇게 담배를 피우고 있잖아요. 아, 외로워요! 난 항상 이런 걸 느껴요. 당신도 이런 감정을 느끼시나요? 뼈에 사무치는 외로움, 깊고 넓은 바다와 같은 것이 척추에 스며들어오는 그런 느낌말이에요.”<sup>40)</sup>

위 인용문은 Craven ‘A’가 직설적으로 자신의 외로움을 표현한 부분이다. 여기서 볼 수 있다시피 그녀가 느낀 고독은 ‘뼈에 사무치는’, ‘척추에 스며들어올 정도’로의 강렬한 외로움이다. 이처럼 무스잉은 여성 인물의 육체와 함께 여성에게 내재된 고독도 함께 묘사했다. 이 같은 이중적인 감정 표현에서 작가 무스잉이 외세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조국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 소설에 묘사된 여성의 신체는 국가와 민족에 대한 상징하며 고독은 외세의 압박을 받는 조국에 대한 안타까움을 은유하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최근 리어우판은 〈Craven ‘A’〉의 색정적 신체지도는 ‘존경스러운 민족주의에 대한 모욕(是對可敬的民族主義的侮辱)’<sup>41)</sup>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의 시각으로 볼 때, 이 비판은 적절치 않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무스잉이 1936년에 창작한 소설 〈우리 세대(我們這一代)〉는 1932년 송호항전(淞滬抗戰)에서 중국 병사들이 제국 일본군과 싸우다가 죽는 것을 보고 자신도 전선에 나가겠다고 투지를 불태우는 쉬스제(許仕介)라는 인물형상을 통해 뜨거운 동포애와 애국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작품은 적어도 1936년 이전까지는 민족의 운명에 결코 무관심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즉 이와 같은 언설

40) “真是寂寞呢, 又是夏天, 那麼長的夏天! 你瞧, 全出去了, 我獨自個兒在家裡抽著煙, 寂寞啊! 我时常感到的, 你也有那種感覺嗎? 一種徹骨的寂寞, 海那樣深大的, 從脊椎那兒直透出來” 嚴家炎·李今, 앞의 책, p.300.

41) 李歐梵, 앞의 책, pp.230-231.

은 무스잉에게 있어서 ‘존경스러운 민족주의’의 감정이 부족하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사료들이 보여준 바와 같이 무스잉은 나라의 생사존망을 앞두고 자신의 문예관을 끊임없이 조절해 왔음을 인지할 수 있다. 특히 1935년에 발표한 〈영화예술방어전(電影藝術防禦戰)〉이라는 글에서 무스잉은 ‘지금의 중국에서 우리는 작품의 사회적 가치 평가 기준으로 민족 생존 투쟁을 대표하고 고취했다는 점을 내세우지 않을 수 없다’면서 ‘무쇠와 피로 우리 민족의 독립과 자존 그리고 자유발전을 옹호하자’<sup>42)</sup>고 주장한바 있는데 이러한 태도는 그의 문예관이 애국적인 문예관임을 입증해준다. 총괄적으로 무스잉은 신체-국가 묘사를 통해 국가와 민족의 운명에 대한 관심을 특유의 방식으로 표현했다. 그가 소설에서 감각적으로 섬세하게 그려낸 ‘몸지도’는 여성 신체의 미학에 빠진 ‘색정적 신체지도’가 아니라 정치적 메타포를 표현한 ‘민족지도’로 보는 편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상 본 장에서는 이효석과 무스잉의 도시소설에서 가장 지배적으로 나타난 일탈된 성의 양상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성에 대한 묘사는 현실을 비판하고 시대에 저항하는 은유적 메타포를 담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효석은 소설 〈장미 병들다〉에서 남성 주체의 식민권력 시선과 여성 타자의 피식민 응시와의 충돌을 그리면서 타자인 여성이 걸으로는 남성의 식민권력을 모방하는 것 같지만, 실제 여성의 응시를 통해 남성 식민권력을 조롱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저항성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무스잉은 소설 〈Craven ‘A’〉에서 남성/여성, 바라보기/보여지기의 서술을 식민 지배자/피식민지배자의 서술로 변화시켜가면서 응시되는 여성의 ‘몸’에 대한 메타포로 겁탈된 여성의 몸을 잃어버린 민족성으로 의미화하였다. 여성 인물의 육체와 함께 그녀에게 내재된 고독의 표현은 무스잉이 이중적인 감정 표현을 통해 외세의 압박을 받아야 하는 조국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낸 것이라 본다.

42) “在此時此地的中國，我們也不能不提出時代表現了並鼓吹了民族生存鬥爭這一點作為作品底社會價值低評價基準。”“拿鐵和血去擁護我們民族底獨立自尊與自由發展。”穆時英，「電影藝術防禦站：斥擯著“社會主義的現實主義”的招牌者」，《晨報》，1935.9.7.

#### 4. 결론

본고는 호미 바바의 양가성, 응시, 모방 이론에 의지하여 1930년대 이효석과 무스잉의 도시소설을 대상으로 두 작가가 식민적 근대 상황을 어떻게 대응하고 저항하였는지를 탈식민지적 관점에서 비교 고찰해 보았다.

호미 바바가 주장한 ‘양가성’은 식민담론의 완전 봉쇄가 아니라 균열과 틈새의 보여주기인바 이는 확고한 이원적 제국주의 지배담론을 전복할 수 있는 주요한 방법이라 볼 수 있다. 식민지 한국의 작가 이효석과 반식민지 중국의 현대작가 무스잉이 자신들의 도시소설을 통해서 보여준 것은 식민도시의 양가성이다. 이러한 양가성은 그들이 집착한 식민지의 산물이자 식민성과 현대성이 혼성되어 있는 도시 ‘하얼빈’과 ‘상하이’이라는 사회와 인간에 대한 묘사에서 잘 드러나 있다. 두 작가는 모두 도시의 식민성에 주목했던 것으로 본다. 여기서 이효석은 1930년대 후기 위만주국 하얼빈을 ‘키타이스카야 거리의 변화’에서 ‘식민지로 전락한 하얼빈’으로, ‘구라파문명의 진열장’에서 ‘쭉정이의 복마전’ 글쓰기로 보여줬고 무스잉은 반식민지 상하이의 사회의 빈부 차이를 ‘천당지옥론’으로, ‘생활에서 밀려난 사람’을 ‘슬픈 얼굴에 즐겁게 보이는 가면의 쓰기’로 그려 동공이곡(同工異曲)의 묘미를 보여주었다.

한편, 호미 바바가 지적인 ‘응시’이론으로 볼 때 이효석은 자신의 소설을 통해 남성 주체의 식민권력 시선과 여성 타자의 피식민 응시가 충돌하게 하고 타자인 여성이 남성의 식민권력을 모방하는 것 같이 그려낸 것은 사실상 여성의 응시를 통해 남성 식민권력을 조롱하는 저항성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무스잉은 소설에는 식민지 현대도시 상하이를 배경으로 그 속에서 우울한 삶을 살아가는 여성의 신체를 특별한 수법으로 그리면서 그 응시되는 여성의 ‘몸’을 ‘민족’이라는 메타포로, 여성의 곱탈된 몸을 잃어버린 민족성을 의미함과 함께 여성에게 내재된 고독을 통해 외세의 압박을 받아야 하는 조국에 대한 안타까움을 여성의 시선 되돌리기를 통해 표현하였다.

결론적으로 이효석과 무스잉이 1930년대 도시소설을 통해 보여준 도시인식과 섹슈얼리티 모티프는 그 표현 수법 상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다 식민지 근대

적 경험에 대한 문학적인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바로 두 작가의 식민지 도시소설이 가지는 또 다른 의미-식민지 저항의 무드가 아닐까 싶다.

본 연구는 두 작가의 도시소설들이 적지 않은 면에서 탈식민지적 전략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식민지 상황의 극복에 실패한 작가로 평가했던 기존의 문학사적 시각을 수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편견으로 가장 험악했던 식민시대에 자기만의 길을 고집했던 두 작가, 저항과 협력이 수없이 교차하는 험난한 세월을 살다간 그들에게 선부른 비판만 날리지 말고 보다 객관적이고 차분한 시선으로 그 시대작품들을 깊이 있게 들여다본다면 작품 속에 내장된 탈식민적 요소들을 적지 않게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 ◆ 참고문헌

##### 1. 자료

- 이효석, 『이효석 전집』, 창미사, 2003.  
 嚴家炎·李今, 『穆時英全集』, 北京: 北京出版社出版集團 北京十月文藝出版社, 2008.  
 杜衡, 「關於穆時英的創作」, 『現代出版界』 第9期, 1933.2.1.  
 穆時英, 「電影藝術防禦站: 斥搦著“社會主義的現代主義”的招牌者」, 『晨報』, 1935.9.7.

##### 2. 단행본

- 고부응 편, 『탈식민주의 이론과 쟁점』, 문학과 지성사, 2003.  
 호미 바바, 『문화의 위치』, 나병철 옮김, 소명출판, 2012.  
 生安峰, 『霍米巴巴的後殖民理論研究』,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11.  
 李歐梵, 『上海摩登——一種新都市文化在中國, 1930-1945』, 杭州: 浙江大學出版社, 2017.  
 嚴家炎, 『中國現代小說流派史』, 武漢: 長江文藝出版社, 2009.  
 楊義, 『中國現代小說史』,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86.  
 趙希方, 『後殖民理論』,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9.

##### 3. 논문

- 김관현·박남용, 「1930년대 하얼빈과 상하이의 도시 풍경과 도시 인식」, 『세계문학비교』



- 연구』 제25집, 세계문학비교연구학회, 2008, pp.29-48.
- 김명학, 「朴泰遠과 穆時英 小說 比較 研究」,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2009.
- 김미영, 「〈벽공무한〉에 나타난 이효석의 이국취향」, 『우리말글』 제39집, 우리말글학회, 2007, pp.239-267.
- 김양선, 「옥시덴탈리즘의 심상지리와 여성(성)의 발명」, 『민족문화사연구』 제23집, 민족문화사학회, 2003, pp.91-114.
- 노정은, 「무스잉 소설의 근대경험 양상고찰」, 『중국학연구』 제33집, 2005, pp.111-137.
- \_\_\_\_\_, 홍혜원, 「1930년대 한중 도시소설 비교연구 일 고찰」, 『중어중문학』 제38집, 2006, pp.329-359.
- 박상기, 「탈식민주의의 양가성과 혼중성」, 고부웅 편, 『탈식민주의 이론과 쟁점』, 문학과 지성사, 2003, p.227.
- 엄춘하, 「박태원과 무스잉 소설기법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07.
- 이경훈, 「하르빈의 푸른 하늘」, 『문학 속의 파시즘』, 삼인, 2001, p.195.
- 이명학, 「1930년대 한·중 모더니즘소설 비교연구」, 부산대학교 박사논문, 2005.
- 이미림, 「〈하얼빈〉의 산보객 시선과 근대도시 풍경 고찰」, 『우리문학연구』 제61집, 우리문학회, 2019, pp.241-266.
- 이영옥, 「이효석 소설의 도시성 고찰」, 조선대학교 석사논문, 1997.
- 이혜령, 「식민주의의 내면화와 내부 식민지」, 『상허학보』 제8집, 상허학회, 2022, pp.269-293.
- 장뢰, 「1930년대 경성과 상해의 도시공간과 도시인식 비교연구」, 『문예시학』 제27집, 문예시학회, 2012, pp.226-248.
- \_\_\_\_\_, 「1930년대 한·중 도시소설 비교연구」, 충남대학교 박사논문, 2014.
- 장운기, 「1930년대 한·중 모더니즘 소설 비교연구」, 충남대학교 석사논문, 2009.
- 정명환, 「위장된 순응주의의 下」, 『창작과 비평』 제4권, 창비, 1969, p.147.
- 최경란, 「이효석 소설의 혼중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2016.
- 한영자, 「1930년대 중국의 신감각과 도시소설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논문, 2012.
- 郝瀚, 「敘事, 節奏與表現: 輪電影蒙太奇對穆時英小說的形塑」, 『河北工業大學學報』 第1期, 2022, pp.39-46.
- 江維萍, 「霓虹燈下的孤獨—淺談穆時英都市小說的創作」, 『東南大學學報』 第S1期, 2012, pp.146-148.
- 李慧, 「20世紀30年代中韓現代主義小說的都市性比較研究」, 中國海洋大學 碩士論文, 2011.
- 王麗麗, 「性別, 民族與半殖民性: 劉訥鷗, 穆時英的都市風景線」, 『黑龍江社會科學』 第5期, 2012, pp.140-142.
- 吳義勤, 「穆時英: 劃出兩條軌跡的流星」, 『貴州社會科學』 第5期, 1993, pp.69-74.
- 餘高鳳, 「穆時英的小說創作」, 『浙江學刊』 第3期, 1986, pp.60-66.

논문접수일	2022년 11월 09일
심사완료일	2022년 11월 28일
게재확정일	2022년 12월 08일

*Abstract*

Another resistance mood of Korean and Chinese's Urban Novel  
in the 1930s  
-Focusing on Lee Hyo-seok and Mu Shiying's Urban Awareness  
and Sexuality-

Jin, Zhe · Jin, Shanhua

This paper aims to give new meaning to how the Lee Hyo-seok of Korea and Mu Shiying of China responded to and resisted the colonial modern situation during the period by comparing and examining related works with the keyword 'Ambivalence', 'Gaze', and 'Mimicry' from the perspective of Homi K. Bhabha's postcolonialism, paying attention to urban perception and sexuality in the 1930s.

The two writers expressed the ambivalence of the colonial city through urban novels, and Lee Hyo-seok was revealed as the writing from 'the showcase of the Gurapa civilization' to 'Jukjeong's pandemonium', while Mu Shiying is revealed in different form as 'The theory of Heaven and Hell' and 'people pushed out of life' as 'wearing a happy mask on a sad face'. Such ambivalent and dual narratives can be seen as revealing the 'internal contradiction' of colonial discourse that denies the 'internal consistency' of colonial discourse. In addition, in the events that show women's sexuality, the two writers in urban novels are shown as Mimicry and Disavowal, eye contact and Gaze of the men colonizers at the same time, Lee Hyo-seok reveals that female seem to mimicry male's colonial power on the outside, but through her gaze, she makes a mockery of male's colonial power, and Mu Shiying shows the violative body of the woman as a metaphor of lost ethnicity as well as the dual expression of loneliness inherent in women, revealing her regret for her country being pillaged by foreign powers. Their urban novels express their postcolonial will through modern sensibility and secret narrative strategy while maintaining their own characteristics.

**Keyword**

Lee Hyo-seok, Mu Shi-ying, Urban Novel, Postcolonialism, Resistance, Ambivalence, Gaze, Mimicry



# 심연수 문학에 나타난 장소 체험과 의식의 상관성 연구

김윤정\*

## 국문요약

2000년 육필 원고가 발굴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심연수는, 문학적 자료의 양적 성과 및 타국 살이에 따른 의식의 다양성에 의거하여 대체로 민족시인이자 항일시인으로서 중국 연변과 그의 고향인 강릉 지역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던 인물이다. 그가 살았던 시기와 장소는 운동주의 그것과 겹쳤고 그의 시에 표현된 이국인으로서의 정서는 그를 민족이라든가 디아스포라의 관점에서 고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의 연구들은 그의 문학에 적지 않은 비중으로 자리하고 있는 체제 순응의 흔적들을 고려할 때 보다 정치하고 섬세한 접근이 아쉬운 것이기도 하다. 습작기와 학습기에 집중적으로 쓰여졌던 만큼 내용적으로 체제 수용적인 관점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정서 및 표현 면에서도 다양할 갈피를 지니는 심연수의 작품들은 외적 요인에 앞서 텍스트 자체를 긍정하고 객관적으로 읽는 태도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얼마나 객관성을 띠느냐 하는 점 역시 쉽게 평가될 것은 아닐 테지만, 동일 시기에도 서로 상반되는 의식을 드러낸다는 표현의 기법 상으로도 암시와 상징으로 가득 차 있다는 특성은, 심연수 문학에 대해 더욱 철저한 고증과 면밀한 고찰을 요구하는 대목이다. 이러한 태도는 심연수 문학의 사료적 가치를 의미 있는 것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게 하는 방편이기도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고는 심연수 문학에 나타나 있는 현상적인 면에 주목하되 그것을 그가 거주하였던 장소를 중심으로 분류하여 읽음으로써 장소성에 따른 심연수의 의식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강릉에서 태어났지만 주로 타향에서 살았던 심연수는 만주에서의 의식과 조선 본토 방문 시의 의식, 그리고 일본 유학 시의 의식에 있어서 다층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심연수의 시는 각각의 장소에 지배되어 쓰여지는 가운데, 그곳에 내재되어 있는 상징 체계에 민감하게 반응하였음을 말해준다. 이는 그의 시적 내용의 다양성이자 정체성의 혼란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인바, 이러한 다기성에 대해서 내적이기도도 정밀한 고찰이 강제된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

\* 강릉원주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주제어** 심연수, 장소성, 의식, 만주국, 조선, 고향, 일본

〈목차〉

1. 서론
2. 심연수 문학에서의 장소성
3. 장소성에 따른 의식의 다층성
4. 결론

## 1. 서론

그의 동생에 의해 60년간 보관되었던 육필 원고가 2000년 〈20세기 중국조선족 문학사료집〉에 수록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심연수는 현재까지 운동주에 버금가는 민족시인이자 저항시인이라는 관점<sup>1)</sup>과 함께 친일 성향 논란이 공존한 채 평가되고 있다.

1918년 강릉에서 출생, 8세에 연해주로 이주했으며 1935년에 용정에 정착, 1941년 일본 유학을 하였던 점, 그리고 광복을 며칠 앞두고 피살된 심연수의 생애는 1917년 용정에서 태어나 비슷한 시기 일본 유학을 하였고 1945년 2월 후쿠시마 형무소에서 옥사했던 운동주의 그것과 병치되면서 심연수를 운동주와 유사한 시각에서 평가하려는 경향을 낳았다. 민족의 정신을 지키다가 광복을 몇 개월 남겨둔 채 순국한 운동주의 생애가 안타까웠던 만큼, 고학으로 일본 유학을 마치고 만주국의 한 공립국민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시작했던 심연수가 비명

1) 운동주와 심연수를 비교 고찰하는 연구로는 임현영, 「심연수의 생애와 문학」, 『민족시인 심연수』, 심연수선양사업위원회, 2007, pp.11-19, 유하, 「운동주와 심연수의 시의식 연구」,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2012, 홍윤기, 「심연수와 운동주의 비교연구」, 『한국시문학』 17집, 한국시문학회, 2006, pp.102-111 등, 심연수를 민족시인, 항일시인의 관점에서 고찰하는 연구로는 엄창섭의 『민족시인 심연수의 문학과 삶: 생명의 불꽃과 따뜻한 감성』 (홍익출판사, 2003), 홍문표, 「심연수의 문학세계-민족시인, 저항시인, 그리고 리얼리즘 시인」, 『민족시인 심연수』, 심연수선양사업위원회, 2007, pp.374-384 등.

황사한 사실 역시 불행한 민족사에서 비롯한 안타까운 비극이 아닐 수 없었고, 일제 말기 조선어로의 작품활동이 어렵던 시기 드물게 조선어 문필 활동을 행했던 점은 심연수에 대한 후대의 관심을 끌 만하였다. 여기에 최근 중국 연변에서 심연수를 중국의 조선족을 대표하는 시인으로 규정함에 따라 심연수는 일약 암흑기 우리 문학사를 이은 민족시인으로 부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심연수의 생애에 대한 안타까움과 일제 말기 조선어로 쓰여진 작품의 가치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평가는 좀더 면밀한 연구 후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게 들리고 있는 형편이다. 그것은 심연수의 「대지의 봄」이 『만선일보』에 처음으로 실리게 된 1940년의 시기, 『만선일보』가 재만 조선인들의 일반적인 작품 발표 통로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만선일보』는 당시 만주국의 국책 이데올로기를 선전하는 매체로서 그 기능을 뚜렷하게 이행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심연수의 312여 편의 시 가운데 다수의 시가 만주국의 이념을 적극 옹호하고 있으며 일본의 정책에 동조하는 내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성천은 심연수 문학의 민족의식과 반일사상을 강조하는 대다수의 논문들이 면밀한 작품 분석을 통해 이를 유추하기보다 추정에 의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시인의 내면을 다루는 작품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sup>2)</sup> 오무라 마스오는 심연수에 대한 민족시인으로서의 고정된 결론을 위해 그에 들어맞지 않는 작품을 배제하고 작품을 왜곡하는 문제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sup>3)</sup> 장세윤 역시 심연수의 시에는 항일 저항시로 분류될 수 있는 시도 많

2) 이성천, 「재만 시인 심연수 문학의 실증주의적 고찰」, 『심연수 논문집』, 심연수기념사업회, 2018, pp.405-419. 이외에도 이성천은 「재만 시인 심연수 일기문의 비판적 검토」(위의 책, pp.331-346) 등을 통해 심연수 문학에 대한 왜곡된 관점을 우려하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연구 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성천은 「재만 시인 심연수 시 연구에 나타난 몇 가지 문제」(『어문연구』 70집, 어문연구학회, 2011, pp.363-387), 「심연수의 〈일본문학보국회〉 참관기 고찰」(『어문연구』 105집, 어문연구학회, 2020, pp.211-232) 등을 통해 심연수에 관한 기존 연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심연수에 대한 연구를 이어오고 있다.

3) 오무라 마스오의 이러한 발언은 심연수에 대한 평가가 항일에서 친일에 이르는 궁, 부정의 평가가 존재하고 있음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특정 평가를 위해 의도적으로 작품을 배

이 있지만 지배논리에 포섭된 흔적이 상당 부분 발견된다고 지적하면서 일반적으로 저항시로 평가되는 시 역시 달리 해석의 여지를 안고 있어 심층적 논의가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sup>4)</sup> 이와 함께 우은진은 『만선일보』에 발표된 심연수의 시조들이 국책 이념에 동조하고 있는 까닭을 심연수의 문학적 욕망에 기인한다고 보면서 그의 문학을 민족의식 혹은 친일문학으로 편향되게 규정하는 대신 재만 조선 문학인들의 인식과 존재방식의 복합성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것을 제안하고 있다.<sup>5)</sup>

이들 논의들은 논점은 조금씩 상이하지만 심연수 문학 가운데 친일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작품이 존재한다는 데 일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으며, 따라서 심연수의 작품들을 기존의 통념에 따라 일률적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도 공정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외에 심연수 시의 민족적 성격에 주목하면서 그의 문학을 긍정적으로 보는 연구자들 가운데서도 심연수의 몇몇 시를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적인 작품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sup>6)</sup>

이러한 사정은 심연수 문학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를 반성적으로 고찰하면서 과장이나 심정적 태도를 배제하고 그것을 보다 냉철하고 분석적으로 연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심연수에 대한 평가가 실제로 ‘소문과 추정’, ‘구술과 기억’<sup>7)</sup>에 따른 주관주의에 기반한 것은 아닌가? 심연수 문학을 항일 문학으로 단정짓게 된 것이 중국 내 소수 민족으로서의 조선족들의 정치적 입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함에 따른 결과는 아닌가?<sup>8)</sup> 심연수 문학에 대한 옹호가 우리 문학사

---

제하는 일은 곤란하며 또한 그럴 필요도 없다고 말하고 있다. 심연수의 시에는 민족의식과 항일정신의 면 역시도 농후하며 김기진이나 윤동주 등의 다른 유학생들도 전면적으로 일본을 부정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심연수 문학의 사료성과 기록성 측면에서의 가치를 주장하는 오무라 마스오는 심연수 작품이 당시 재만 조선 청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생활을 보내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는 데 매우 좋은 재료라고 말하고 있다. 오무라 마스오, 「심연수의 일본관」, 『심연수 논문집』, 심연수기념사업회, 2018, pp.49-63.

- 4) 장세운, 「새 자료로 본 심연수의 생애와 민족의식」, 위의 책, pp.463-491.
- 5) 우은진, 「일제말기 만주 지역 시조 연구」, 위의 책, pp.223-246.
- 6) 남기택, 「심연수 시 연구」, 위의 책, pp.83-98.
- 7) 이성천, 「재만 시인 심연수 문학의 실증주의적 고찰」, 위의 책, p.407.



에서 일제 말기 저항 문학의 빈약함에 대한 보상심리에 기인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심연수 문학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이들 질문들은 지금까지 심연수 문학에 대한 평가가 일정 정도 편향되거나 왜곡된 것이 아닌지 되돌아보게 한다. 또한 그것들은 심연수 문학을 객관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방법론의 탐색을 유도하는 계기로도 작용할 것이다. 심연수 문학은 그 내용 여부를 떠나 보존 상태 및 작품의 양적 측면에서 사료적 가치를 지니는 것이 분명하다. 주로 1940년을 전후로 한 20대 초반부터 4,5년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심연수의 작품들은 습작의 성격이 강하고 예술적 형상성의 면에서 미숙함이 보이지만 당시 재만주 식민지 조선인의 의식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엔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심연수 문학에 대한 유의미한 연구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 2. 심연수 문학에서의 장소성

심연수 문학을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이 지닌 사료적 가치를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 본고에서 주목하는 것은 심연수 문학에 나타난 장소성이다. 심연수는 강릉에서 태어났지만 8세에 블라디보스톡에 이주하였고 본격적으로 가치관이 형성될 시기인 청소년기를 만주에서 보내게 된다. 또한 만주에서의 중등학교 시기를 마치고서는 일본 유학길에 오른다. 이러한 생애는 심연수의 삶이 장소의 변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말해준다.

심연수는 이들 삶의 장소를 이동해 가면서 결코 평화롭거나 편안한 삶을 살지 않았으며 저절로 강인하고 억척스러운 성격을 지니게 되었을 것이다. 특히 만주로 이주하여 늦은 나이에 중학교에 입학하였을 시절에는 문학에의 꿈을 키우면서 많은 습작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고, 심연수는 스스로 자신의 삶이 문학을 중

8) 조진기에 따르면 『중국 조선족 문학 통사』 등 오늘날의 조선족 문학 연구에서는 이 시기의 작품들을 조선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 창씨 개명을 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자주성과 민족성을 지닌 항일 문학으로 규정하곤 하는데, 이는 현재 중국 내 조선족 문학의 위상을 확립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 과정에서 작품의 실상이 왜곡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조진기, 『일제 말기 국책과 체제 순응의 문학』, 소명출판, 2010, p.36.

심으로 이루어지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작품들에는 문학을 향한 열정과 문학으로서 성공하겠다는 의지, 생활 속에서 얻게 되는 감정과 의식이 짙게 녹아들어 있는 것이다. 그에게 시는 단순한 관념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삶의 궤적을 고스란히 담아내면서 그의 생활 경험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매체에 해당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그의 문학적 성격에 있어서 그 중심에 놓이는 것이 장소성이다.

장소성은 구체성을 지닌다. 장소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지각하는 기반이 되며 그들이 체험하게 되는 환경을 대변하거나, 이점에서 하이데거는 “장소는 인간 실존이 외부와 맺는 유대를 드러낸”다고 하였다. 장소는 사람들이 그들이 살아가는 장소와 깊은 심리학적 연계를 지닌다는 측면에서 장소감으로 지각된다.<sup>9)</sup> 이를 고려하면 장소에서 뿌리 뽑힌 사람들에게 삶의 고통은 얼마나 큰 것이며 그것에 정착하며 살기 위한 그들의 노력 또한 형언하기 힘들 정도라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요컨대 장소는 사람들의 생활 세계의 전체이자 인생의 희망과 절망, 혼란과 질서를 나타내는 모든 것이라 할 수 있다.<sup>10)</sup> 심연수의 문학을 고찰할 때 장소성에 주목하는 일은 그의 시에 나타나 있는 생활 감정을 이해하는 매개가 된다. 심연수에게 장소성은 삶의 중심이며 그의 의식 현상의 토대가 되고 있는 것이다. 심연수에게 장소성이 이토록 중요하고도 강렬한 삶의 매개가 되는 요인은 심연수가 노정했던 장소의 변동성, 심연수가 겪어야 했던 이주의 척박한 삶에 기인하는 것임은 물론이다.

심연수가 어릴 때부터 뿌리뽑힌 자의 삶을 살았고 이주가 그의 삶의 핵심 요소가 되었던 점은 그로부터 야기된 그의 정서적 특질을 짐작하게 한다. 이주민으로서의 그의 삶은 서러움과 슬픔, 그리움으로 채워졌을 것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그의 시의 많은 경우 이들 정서가 지배하고 있거나,<sup>11)</sup> 심연수에게 그의

9) 에드워드 렐프, 『장소와 장소상실』, 김덕현 외 역, 논형, 2005, p.25.

10) 위의 책, pp.11-12.

11) 「이향의 夜雨」, 「기다림」, 「인생의 사막」, 「고독」, 「떠나는 설움」, 「넋가」, 「침송(寢頌)」, 「삼등차」 등 심연수의 시 가운데 타향민으로서의 쓸쓸함과 외로움을 노래하는 시들은 매우 많다.

삶의 특수한 장소적 성격은 그의 시적 정서를 형성하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sup>12)</sup>

그러나 장소가 정서적 특질에만 관여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장소 경험은 정서로 대변되는 공간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체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공간에 내재하고 있는 문화적이고도 상징적인 의미들에 노출되면서 이루어지게 된다. 전자가 지각을 통해 직면하게 되는 자아중심적 공간 체험으로서 주관적이고 감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후자는 한 문화집단의 구성원으로서 경험하게 되는 상호주관적이고 사회화된 공간 체험이라 할 수 있다. 환경에 대한 단순한 지각 공간을 넘어 문화적 요인의 총합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후자는 실존적 공간 체험이라고도 할 수 있다.<sup>13)</sup> 렐프에 의하면 대부분의 장소 체험의 경우 지각 공간과 실존 공간이 동시에 경험됨으로써 개인의 의도를 구현하고 의미의 패턴과 구조를 창조할 수 있게 된다.

용정의 동흥중학교에 입학한 직후부터 습작을 시작하여 4,5년여 간 집중적으로 창작활동을 하는 동안 심연수는 크게 보아 만주, 조선 본토, 고향 강릉, 일본의 장소를 경험하게 되며 각각의 장소 체험을 바탕으로 이를 반영하는 시를 쓰게 된다. 만주의 장소 체험이 거주를 통해 형성된 그의 가장 주된 생활의 기반이었다고 한다면 금강산과 경성, 개성 등을 중심으로 하는 조선 본토의 장소 체험은 졸업 전 수학여행을 통해 이루어진다. 비슷한 시기 고향인 강릉을 방문하게 되는데 이 역시 심연수에게 특별한 장소 체험이 된다. 아울러 심연수에게 일본

12) 심연수의 이러한 특징은 그의 문학을 디아스포라의 관점에서 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임종찬의 「심연수 시조에 나타난 디아스포라 의식」(『시조학논총』 31집, 한국시조학회, 2009, pp.125-145), 황규수의 「재만조선인 심연수 시의 디아스포라 문학 특성 연구」(『새국어교육』 86집, 한국국어교육학회, 2019, pp.539-560), 김낙현, 「디아스포라 심연수의 문학세계」(『어문논총』 40집, 전남대 한국어문학연구소, 2022, pp.249-270) 등이 그것이다.

13) 렐프는 인간의 장소 경험이 무의식적 행위의 공간인 원초적 공간으로부터 지각 공간, 실존 공간, 추상적 의식의 공간으로 심화되어 나아가는 의미화 현상을 겪게 된다고 말한다. 원초적 공간이 별 생각 없이 행동하고 움직이는 가운데 경험되는 무의식적 행위의 공간이라면 지각 공간은 일상적인 환경과의 접촉으로 경험되는 사적이고 자연스러운 경험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실존 공간은 공간 속에 작용하는 공통의 사회·문화적 기호·상징을 포괄한다. 나아가 추상적 의식의 공간은 세련되고 추상적인 의식을 통해 새로운 공간을 창조하는 공간 체험과 관련된다. 에드워드 렐프, 앞의 책, pp.40-42.

유학은 이전의 장소들과 또 다른 특수한 장소 체험의 계기로 작용한다. 일본에 도착하면서 겪었던 장소에 대한 감각적이고도 실존적인 공간 체험은 심연수의 의식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측면을 제공한다.

각각의 장소에 임하여 심연수는 직접적이면서도 상징화된 공간 체험을 동시에 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각의 장소에 처했을 때 심연수는 일차적으로는 감정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그는 그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각기의 장소에 내재된 문화적이고도 사회적인 의미 체계를 동시에 수용하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태도는 흥미롭게도 심연수의 의식을 때로는 체제순응적이거나 민족주의적이거나 혹은 친일지향적인 성격으로 중층적이고도 다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만주에서의 생활인으로서 만주의 국책 이념을 적극 수용하는 모습의 심연수는 조선 기행 중엔 국토 및 민족의 역사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통해 민족주의적인 모습을 보인다. 또한 일본에 이르러서는 일본을 '이상의 나라'라고 예찬하기까지 한다.

심연수가 보여주는 이러한 다변적인 모습은 심연수의 정체성을 매우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는 때로 민족 시인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일제의 국책에 동조하고 체제에 순응했던 친일 성향의 시인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의 분열적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의 확고한 세계관의 결여로도 볼 수 있으며 주어진 체제에 적응함으로써 개인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하였던 소시민적 생활인의 면모로도 이해할 수 있다. 결국 심연수의 이러한 특징, 즉 각각의 장소에 따라 차별적으로 현상했던 이념적 성향은 그의 장소 체험이 단순한 환경에 대한 지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그 장소에 내재된 상징적 문화 체계에 노출되고 그것을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이루어졌음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 3. 장소성에 따른 의식의 다층성

#### 1) 만주의 지역성과 의식

심연수가 만주 지역에서 살게 된 것은 1935년 그의 나이 18세 즈음이다. 그의 가정은 소작농으로서 그리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으나 장남이었던 심연수는

어렵사리 정규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동흥소학교를 거쳐 1937년 동흥중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어려운 가정 환경으로 20세에 이루어진 그의 중학교 입학은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상당히 늦은 것이어서 심연수는 23세에 비로소 중학교 졸업을 하게 된다. 한편 그가 입학한 동흥중학교는, 당시 만주가 1931년 만주사변에 의해 일제의 괴뢰국으로 전락하게 됨에 따라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민족주의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게 되었고, 대신 만주국의 국가 이념을 충실히 가르치는 학교가 되어가고 있었다. 만주국이 들어선 시기에 학교 교육을 받았던 심연수는 이러한 교육 체계에 그대로 노출되게 된다.<sup>14)</sup> 이것은 심연수의 세대 상의 특징을 말해주기도 하는 것이자 그의 교육의 내용을 선택할 여유가 없었던 계급 상의 처지를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같은 조건 속에서 심연수에게 국가의 공식 교육은 비판적 거리를 두지 못한 채 절대적으로 신봉해야 하는 것으로 수용된다.

동쪽은 태평양의 삭풍  
 서쪽은 흥안령을 넘어가는 몽고의 거친 바람  
 대지로 뛰어오르는 건아야말로  
 우리 용고의 대장부가 된다

14) 동흥중학교는 본래 천도교 종단 주도로 설립된 민족주의 학교였지만 1931년 만주국 수립 이후 일제 총독부 세력권에 편입되고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이후 만주국의 통제 아래 놓이면서 식민교육과 황민화 교육이 강요되었다. 심연수가 동흥소학교에 편입한 1935년부터 졸업한 1940년 경까지는 체제 교육이 성행하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장세운, 앞의 글, 467). 이와 비교하여 1932년부터 1935년까지 은진중학교에 다녔던 윤동주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승실중학교로 전학을 하게 된다. 은진중학교는 4년제 학교였기에 졸업 후 상급학교를 가려면 5년제였던 승실중학교에 다녀야 했던 것이다. 당시 용정에 5년제 광명중학교가 있었지만 친일파가 운영하는 학교였기에 교육비를 감수하더라도 평양의 지정학교로 전학을 해야 했다(조영환, 「윤동주의 평양 승실중학교 시절」, <http://m.blog.naver.com/>). 그러나 승실중학교가 신사참배 거부로 폐교당하게 되고 윤동주는 1년을 채 마치지 못하고 용정으로 돌아와 광명중학교를 다니게 된다. 이러한 사정은 부농이었던 윤동주가 만주국의 체제 이념 교육 대신 민족주의적 이념을 고수하던 학교를 다니려는 노력을 기울였던 데 비해 빈농 가정이었던 심연수의 교육적 환경은 그와 같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이는 심연수의 선택의 문제일 수도 있었지만 부유하지 못했던 그의 경제 기반을 환기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동아시아의 여명이 이제 곧 온다  
우리가 세울 동양의 평화  
몸에 짙어진 임무는 무겁고  
경래에 있는 나의 몸은 철과 같다

노력하고 배우자 나의 벗이여  
왕도낙토(王道樂土)의 젊은 신민이여  
오죽이 즐거움을 기원하는 장소  
용고의 역사에 빛나거라

「용고(龍高)」<sup>15)</sup> 전문

‘용고’는 용정국민고등학교로서 심연수가 다녔던 모교를 가리킨다. 용정국민고등학교는 1939년 동흥중학교가 만주 교육당국에 의해 대성중학교와 합병하여 얻은 명칭이다. 1940년 12월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였던 심연수는 제적 시기 「검은 교복」, 「흠어지는 무리1」, 「흠어지는 무리2」, 「졸업」, 「교문을 나선 다음」 등 모교와 관련한 시를 다수 쓰게 되는데 위 시도 그 중 하나로 보인다. 위 시는 동흥중학교가 ‘용고’라고 개칭된 이후 쓰여진 것이니, 1939년에서 1940년 사이에 창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는 심연수가 자신이 다녔던 학교에 강한 애정을 지니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그는 자신의 학교에 대하여 매우 큰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있었으며 졸업에 임하여 커다란 희망을 품고 있음을 표하고 있다.<sup>16)</sup>

한편 위 시는 학교 관련 여타의 시가 주로 학생 혹은 졸업생으로서 갖게 마련인 정서적인 면을 다루고 있는 것에 비해 만주라는 장소에 얽힌 이념을 제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위 시에는 만주국의 체제 이념이었던 오죽협화 및 왕도낙토라는 슬로건이 직접적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그것이 일본이 내세웠던 대동아공

15) 「용고(龍高)」는 원문이 일본어로 되어 있었다고 전하며 『심연수 시 정집』 가운데 “2부 기타 시고”에 수록되어 있다. 이후 심연수 시는 면수 기재 없이 『심연수 시 정집』(심연수, 심연수기념사업회, 2019)에서 인용함.

16) 심연수는 「졸업」에서 “오늘이 마지막 모이는 날/ 깃을 여미고 모이는 용사/ 이 마당 이 집에서 길러진 투사/ 마음에 어리던 오늘이건만/ 맞고서 보나니 험 험한 것/ 내일에 그려 질 새 희망에/ 흠어질 졸업생이 마지막 모임”이라고 적고 있다. 심연수, 위의 책, p.58.

영론에 닿아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 충격적이다.<sup>17)</sup> “우리가 세울 동양의 평화”에서 일컫는 “동양의 평화”가 막연한 추상어가 아니라 당시 일본의 전쟁 논리를 지지했던 동양주의 사상에 다름 아니라는 것은 물론이다. “왕도낙토의 젊은 신민”은 일제가 조선인과 재만주국민을 호명하던 칭호 그대로다. 심연수는 일제의 논리와 명칭을 한 치의 어긋남 없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노력하고 배우자 나의 벗이여”라고 하는 데서 알 수 있듯 그러한 이념적 내용들이 ‘용고’의 주된 교육 내용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이 시기 심연수가 국가 이념에 순응하고 있는 동시에 그러한 내용들이 당시 용정국민고등학교에서 중점적으로 선전되고 있었음을 암시한다. 이러한 이념적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건아”, “우리 용고의 대장부”, “벗”이라는 호칭을 두루 사용하면서 전해지고 있는 위 시의 답론은 마치 ‘신민’으로부터 동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체제의 이념을 미화하고 이를 정서적으로 전달해야 했던 제국의 지배자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여 씩씩함을 금치 못한다. 이는 결국 당시 성행했던 친일 문학의 범주에 포함되는 답론의 양상에 해당한다.

위 시 외에도 이 시기 심연수의 시 가운데에는 만주국의 이념을 연상시키거나 노골적으로 옹호하는 내용의 시들이 다수 눈에 띈다. 그 대표적인 시가 「신경(新京)」으로 이 역시 “오족의 웃음소리”라든가 “왕도낙토”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만주국의 수도 신경을 소재로 한 이 시에서 심연수는 “대만주 도읍터에 길상이 내리소서”라고 말하며 만주라는 자신이 거주하는 장소를 절대 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때 만주라는 장소는 단순한 지각의 대상임을 넘어서서 제국주의 국가에 의해 상징화되고 기호화된 공간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주의 제도적 이념을 적극 수용하면서 이에 동조하고 있는 심연수의 모습은 역설적으로 말해서 만주가 심연수에게 생활의 터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음을 의미한다. 낯선 그곳에서 생활의 터를 잡아야 했던 이주민 심연수에게 만주라는 장소는 당시 땅의 주인이었던 일제의 상징화된 기호들을 적극 수용하고 이

17) 이때의 충격은 「용고」가 교가 응모를 위해 쓰여진 시로 추정된다는 점을 감안해도 달라지지 않는다.

에 적응하도록 강요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기 위해서라도 심연수는 그들의 과장되고 미화된 이념이 그대로 실현되기를 염원하게 되지 않았을까. 이러한 심연수의 태도는 ‘대지’를 둘러싼 낭만주의적 관념을 표출하는 데 이르게 된다.

봄을 잊은 듯하던 이 땅에도  
소생의 봄이 찾아오고  
녹음을 버린 듯이 얼었던 강에도  
얼음장 내리는 봄이 왔대요

눈 위에 마른 풀 뜯던  
불쌍한 양의 무리  
새 풀 먹을 즐거운 날  
멀지 않았네

넓은 황무지에단  
신기루 궁을 짓고  
새로 오신 봄님맞이  
잔치놀이 한다옵네

「대지의 봄」 부분

‘1940.4.1. 용정에서’라고 기록되어 있는 위 시는 같은 해 4월 16일자로 『만선일보』에 발표되었다. 이는 심연수가 『만선일보』에 발표한 시들 가운데 최초의 것에 해당한다. 함께 투고한 세 편 가운데서 선정 수록된 이것은, 『만선일보』가 재만 한국인들을 상대로 만주국을 중심으로 한 일제의 정책을 선전하는 역할을 했던 만큼 체제 순응적이고 친일적인 관점에서 해석될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는 사정을 지닌다. 그것은 『만선일보』가 한국어로 쓰여졌다 해도 민족적 성격보다는 친일적 성격에 가까이 있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함의한다. 특히 이 시기 심연수는 「대지의 봄」, 「대지의 여름」, 「대지의 겨울」 등 모두 1940년에 쓰여진 것으로 보이는 ‘대지’ 연작시를 쓰게 되는데, 이들 시에서 등장하는 ‘대지’가 생활의 터전으로서의 땅이자 농토이며 생산의 기반으로 의미화되고 있다



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만주국의 이념으로서 대표되는 내용 가운데 ‘왕도낙토(王道樂土)’가 가로놓여 있다는 점은 만주국이 땅을 매개로 수립된 괴뢰국임을 내포한다. 왕도가 실현되는 이상 국가라는 의미의 이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일제는 만주의 비옥한 농지가 기다리고 있다면서 조선인들과 일본인들을 이주시키는 데 주력하였고, 조선인이 일본인 다음가는 지위에 놓인다고 유혹하면서 조선인들의 협력을 이끌어냈다. 세계 대공황과 농업 공황으로 극도로 피폐해져 있던 일본은 농업 대책으로 만주국 이주를 내걸었으며 조선총독부 역시 농촌 문제가 만주국 이민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선전해냈다. 이러한 일제 당국의 선전은 일본이나 조선에서의 생활이 곤궁했던 자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왔기에 실제 이주하는 사람들이 수천만에 이를 정도로 급증했다.

만주국에서 정책적으로 농업을 장려했던 이유는 분명하다. 만주를 발판으로 대륙점령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만주에서의 농업 생산량은 전쟁을 치르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에 해당하였다. 실제로 일제 말기 문학 가운데에는 농촌 부흥과 생산 확충을 홍보하는 생산 문학이 많이 쓰였고 일제는 대동아공영론, 신체제론의 하위 이데올로기로서 ‘생산의 문화’, ‘흙의 문화’ 등을 설정하였다.<sup>18)</sup> 만주국은 일제의 대륙 지배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식량 조달지이자 생산 기지로서의 역할을 띠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만주국의 이념적 측면에서 볼 때 위 시는 그러한 정책에 아주 잘 들어맞는 내용을 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 시에서 말하고 있는 바 “봄을 잊은 듯하던 이 땅”이 “소생의 봄이 찾아”올 정도의 드라마틱한 변화로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자연의 변화를 넘어서는 이념적 색채가 드리워져 있음을 암시한다. 이는 매우 과장되고 부자연스러우며 의도적인 것이라는 점이다. “눈 위에 마른 풀 뜯던 불쌍한 양의 무리”가 갑자기 “새 풀 먹을 즐거운 날”을 기다린다는 구절 역시 마찬가지로 자연스럽지 못하다. 이 또한 매우 질게 이데올로기의 외피가 덧씌워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넓은 황무지”에다 “신기루 궁을 짓”는

18) 조진기, 『일제 말기 국책과 체제 순응의 문학』, 소명출판, 2010, pp.24-25.

다고 하는 데 이르러서는 일제 당국이 펼쳤던 이상국가로서의 만주국 이미지를 환기시킨다. 즉 위 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생명에 차고 따듯하며 풍성한 '대지'의 모습은 실제 자연에서 비롯된 지각의 이미지라기보다 이념에 의해 꾸며진 기호화된 이미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위 시에서 심연수는 일제에 의해 전파되고 있는 만주국의 이데올로기를 이미 지화시켜 표현하고 있으며 이를 전달하는 분위기 역시 매우 밝고 희망차며 낙관적인 어조로 이루어져 있다 하겠다. 만주국과 관련하여 일제가 시행하는 선전의 내용 및 정서와 결이 결코 다르지 않은 위 시가 『만선일보』를 통해 발표될 수 있었던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심연수는 만주에서 거주하는 동안 그곳에 적용되고 있던 상징과 기호를 충분히 수용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정치 문화적 공간성에 입각하여 이 시기의 시들을 써 내려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심연수의 만주라는 장소에서의 시가 대지의 생명성<sup>19)</sup>이라든가 자연의 서정성이라는 측면이라기보다 이념적 성격에서 이해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sup>20)</sup>

## 2) 강릉 및 조선 기행과 의식

만주에 거주하는 동안 심연수는 두 차례에 걸쳐 조선을 방문하게 된다. 한 번은 1940년 5월에 있던 수학여행 차 금강산, 경성, 개성, 평양, 봉천, 하얼빈 등지를 기행했던 일이고, 또 한 번은 8월에 고향인 강릉을 방문했던 일이다. 수학

19) 남기택은 심연수의 시의식에 장소에 대한 사유 혹은 공간애가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그것이 대지모신적 상상력으로 발휘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남기택은 심연수 시를 지역애 및 공간성의 관점에서 보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한편 그는 심연수의 시가 범선론적 자연관을 벗어나 역사사회적 맥락에서 검토될 부분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남기택, 앞의 글, pp.83-98.

20) 심연수가 습작시를 쓰기 시작한 시점은 졸업 연도인 1940년 초부터이고, 그 중 최초의 발표작이 4월 16일의 「대지의 봄」, 4월 20일 「여창(旅窓)의 밤」이다. 같은 시기 동일한 매체인 『만선일보』에 발표하지만 「여창(旅窓)의 밤」은 실향민의 정서를 이념적 채색 없이 서정적으로 표현한 시로 분류할 수 있다. 습작시다운 소품이지만 1940년에 쓰여진 시들 가운데에는 순수 서정의 시들이 다수 있다. 「침송(寢頌)」, 「가을」, 「가을 아침」, 「들길」, 「개인 하늘」 등이 그것이다. 장소성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이들 시는 지각 대상으로서의 공간성의 표현이라 할 만하다.

여행은 5월 5일부터 22일까지 이루어지며 이때 심연수는 마치 국토순례에 임하듯 기행의 내용을 순차적으로 시로 표현한다. 이들 기행 시편들은 주로 시조의 형식으로 쓰여 시조집 『무적보無跡步』에 수록되어 있고, 강릉 방문을 계기로 쓴 시는 『빈사초濱砂草』로 엮고 있다. 짧은 시기이지만 시의 양적 비중 면에서는 작지 않은 이들 시에는 심연수가 경험한 장소의 또 다른 측면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만 이천 그 가운데 뻗어난 비로봉아  
 동해의 고래님 뿜는 물 보옵거든  
 안개 뿜어 그 자태 가려 주소 원하외다

비로봉 말만 듣고 그리던 이 봉 위에  
 이제 와 앉아 보니 그 아니 시원하나  
 높고도 고운 산령에 오래 있어 보고 지고

「비로봉」 전문

조선을 여행하면서 쓴 시들의 대부분은 위 시와 유사한 형태로 쓰였다. 기행의 장소가 전면화되면서 그곳의 서경을 묘사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위 시가 금강산에 이르렀을 때의 시인 것처럼 「원산부두에서」, 「외금강역」, 「온정리」, 「구 만물상」, 「신계사」, 「비봉폭」, 「옥류동」, 「남대문」, 「북악산」, 「경복궁」, 「경희루」, 「송도」, 「만월대」, 「모란봉」 등의 시들은 원산이며 경성 등지에 도착해서 마주한 장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더욱이 기행을 계기로 쓰여진 시들인 만큼 이들 시에는 특유의 장소성이 부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일차적으로 그것은 지각 대상으로서의 장소성과 관련된다. 이들 짙막한 시조 형식의 시를 통해 심연수는 여행을 하면서 보고 느낀 것을 중점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는, 즉 특정한 장소에 이르러 느꼈던 심회를 표현하는 중에는 민족적 의식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이 드러나 있어 관심을 끈다.

못 속에 누(樓)가 비쳐 물속에 잠겼으니

옛날의 경회루는 물속엿 것 참이랴오  
 땅 위에 남은 것은 오늘날 경회루외다

국민이 놀던 곳도 이곳이 그였지만  
 국민 없는 오늘엔 주인도 안 놀겠지  
 흙밭에 더러워진 석계(石階)는 누구의 소행인고

「경회루」 전문

경복궁의 경회루에 이르러 쓴 위 시에는 멸망한 조선 왕조의 역사에 대한 인식이 뚜렷이 드러나 있다. 조선 왕조인 “주인”과 그것을 “흙밭”로 깃잡은 “누구”를 언급하는 대목은 국권 침탈을 환기하는 관점이 아닐 수 없다. 위 시는 ‘경회루’를 통해 일제 침략으로 인한 아픔을 노래하고 있는 명백히 민족적 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물속”의 경회루와 “땅 위에 남은” 경회루를 대비시키면서 전자가 “참”이고 후자가 “오늘날 경회루”라고 말하는 것 또한 현재에 대한 심연수의 부정적 의식을 나타낸다. 이러한 의식은 「경복궁」의 “쇠 그물 없다 한들 오조(汚鳥)야 깃들일쏘냐”라든가 「남대문」의 “옛날의 남대문엔 빛이 있어 빛나 더니 오늘엔 고색초차 수줍어 서 있나니”에도 동일하게 표현되어 있다. 이들 시는 심연수가 조선의 수도에 이르러 민족의식이 선명하게 부각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다만 위 시를 비롯해 ‘한양’ 관련 장소를 묘사할 때 두드러졌던 민족의식은 타 장소에서는 그다지 뚜렷한 선을 나타내지 못한다. 가령 금강산은 서경적 아름다움이 강조되고 있는 데 비해 정서나 의식은 주요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다. 대신 「대동강」, 「기자릉(箕子陵)」, 「청천강」이나 「대련항시(大連港市)」, 「여순(旅順)」, 「요동반도의 하루」, 혹은 「봉천(奉天)」, 「북릉(北陵)」에는 장소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의 역사가 서술되고 있는 특징을 지닌다. 가령 「대동강」에서는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을 언급하고 있으며 「청천강」에 이르러서는 살수 대첩의 영웅인 을지문덕 장군을 노래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자릉」에서는 “중원의 풍란 미워 동방예국 찾아오서 이곳에 오셨다는 동사(東史)말 사실이요”하며 기자에 관한 언급을 하고 있거니와, 이 대목에 이르면 심연수가 위의 열거한 시들의 여러

장소를 통해 보여준 역사 지식이 일제의 교육 당국에 의해 이루어진 왜곡된 그것이 아닌가 의심하게 된다. 그의 역사 의식은 일제의 제도권 학교였던 동흥 중학교에서 습득한 것으로서 투철한 민족의식에 의해 형성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는 「봉천(奉天)」, 「북릉(北陵)」에서 다루고 있는 “청나라”의 역사가 단순히 그 지역의 과거로서의 기록일 뿐 조선의 정체성과는 무관한 채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짐작될 수 있다. 이와 달리 「대련항시(大連港市)」, 「여순(旅順)」, 「요동반도의 하루」에서는 “발해”가 소환되고 있어 조선의 고대사에 대한 주체적 인식 여부에 관해 관심을 끌지만, 이 역시 만주에서 일제가 간도를 중심으로 불러일으켰던 영토 분쟁<sup>21)</sup>을 상기시키는 대목이어서 큰 의미를 지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sup>22)</sup> 요컨대 심연수의 시에는 조선 국토 기행을 통해 단편적으로 민족적 의식이 드러나지만 그것이 본격적이고 투철한 민족주의적 의식이라고 하기엔 한계가 있지 않았나 판단된다.<sup>23)</sup>

21) 고대사의 관점에서 볼 때 간도는 발해의 영토였으므로 심연수가 간도 지역에서 발해를 떠올릴 수 있었던 것은 무리가 아니며 우리 민족의 근간을 상기하는 주체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심연수의 역사에 관한 민족적 의식은 이 이상 심화된 내용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어 그가 어떤 의미에서 발해를 언급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 다만 당시 일제가 중국과의 간도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간도 조선 귀속론’이라 하여 간도를 중국이나 만주로부터 분리하여 조선에 귀속시키려 하거나 ‘만주인에 의한 만주국’ 건설처럼 조선인 중심의 ‘의제(擬制) 국가’화 하려 함으로써 중국과 소련 등과의 갈등 속에서 동아시아에서의 유리한 통치권을 획책하려 했다는 점을 떠올릴 때(이성환, 「간도의 정치적 특수성과 일본의 ‘간도 분리론」, 『일본문화연구』 32집, 동아시아일본학회, 2009, pp.373-400) 심연수가 지니게 된 발해에 대한 역사 지식 역시 일제 제도권 교육 과정 내의 동양사 시간을 통해 습득한 정도가 아닐까 추측을 하게 된다.

22) 특히 장세운은 「하얼빈 역두에서」 시에서 보이는 바 심연수가 하얼빈에서 의당 떠올려야 했을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 사건을 언급하지 않은 점을 두고 심연수가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아예 몰랐거나 의식적으로 표현하지 않았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라 지적하고 있다. 이는 심연수의 민족적 역사 의식이 부족했거나 왜곡된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장세운, 앞의 글, p.487). 실제로 하얼빈에 도착했을 때 심연수는 민족의 역사적 현장으로서의 하얼빈의 모습을 확인하려 하는 대신 “러시아 사람의 활발한 걸음이 움직이고 있”던 “국제도시의 낮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으며 하얼빈을 흐르는 송화강을 두고 “대만주의 동맥”이자 “대산업교통”이라며 “우리의 삼천 만의 감사를 싣고 흐르는” “영원한 은혜”의 강이라고 예찬하고 있다. 심연수, 「날이 저물어」, 『심연수 산문 정집』, 심연수기념사업회, 2020, p.139.

심연수의 조선 관련 기행시는 수학 여행 이외에 한 차례 더 시도된다. 그것은 같은 해 8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있었던 강릉 방문을 계기로 이루어진다. 강릉은 그가 태어난 고향이었고 이때의 강릉 방문은 8세에 집안 전체가 블라디보스톡으로 이주한 후 처음이라는 점에서 그에게 큰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었다. 강릉을 방문하기 전에 심연수는 고향에 편지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곧 창씨개명을 하기 위한 목적에서였다.<sup>24)</sup> 1940년 7월 23일 그는 三本義雄으로 창씨개명을 하게 된다.<sup>25)</sup> 그후 8월에 실제 강릉을 방문하여 「솔밭 길을 걸으며」, 「옛터를 지나면서」, 「바닷가에서」, 「경포대」, 「경호정」, 「죽도(竹島)」 등의 시를 쓰게 된다.

그리도 좋았던 게 그닥지 앓고나  
할머니 자랑말도 옛날의 자랑이고  
할아배 고생 터전이 이제는 다 없어졌노

23) 심연수의 수학여행의 체험은 시 이외에도 산문으로도 기록되어 있어 당시의 여정이나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경성에 도착했을 때의 심연수의 묘사에 따르면 그가 큰 설레임으로 서울을 접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그는 서울 여정의 시작을 신사 참배로부터 시작했음을 전하고 있다. “와그그하는 사람 소리, 잉울루렁하는 전차 자동차 소리. ‘야 이것이 서울의 첫마중인 모양이로구나.’ 신사에 참배하고 종로여관을 찾았다”고 하는 대목이 그것인데, 조국 본토의 수도를 첫 방문하는 여정에서 행하는 이러한 일정을 아무런 자의식 없이 전혀 어색하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는 점은 그것이 교과 과정 내의 여행이었음을 감안하더라도 아쉽게 느껴지지 않을 수 없다.

24) 심연수, 『심연수 시 정집』, 심연수기념사업회, 2019, p.273, 「심연수 연보」 참조.

25) 당시의 창씨개명은 제도권 내에서 교육을 받거나 공식적인 활동을 할 때 필수불가결하게 거쳐야 하는 행위였다. 진로가 미정인기는 하였지만 1941년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야 했던 심연수였다면 창씨개명은 더욱 피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였을 것이다. 심연수가 창씨개명하는 과정은 윤동주를 떠올리는 대목이기도 하다. 윤동주도 유학을 위해 창씨개명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윤동주는 창씨개명을 몹시 괴로워하면서 「참회록」을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연수는 이 시점에 「빨래」를 쓴다. “빨래를 생명으로 아는/ 조선의 엄마 누나야/ 아들 오빠 땀 젖은 옷/ 깨끗하게 빨아 주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불의의 때가 묻거든/ 사정없는 빨래 방망이로/ 두르려 씻어 주소서”가 전문이다. 「빨래」는 심연수의 민족시인으로서의 대표적 근거로 제시되는 시이다. 윤동주와의 비교 논거로도 언급될 수 있는 시일 터이다.

어릴 적 놀던 시내 방축이 높아졌고  
 그 많던 물조차 이제는 말라졌으니  
 옛터에 남긴 기억이 더 희미할세라

「옛터를 지나면서」 전문

강릉을 여행하면서 쓴 시들에는 사적이고 정서적인 내용이 주가 되고 있다. 주로 강릉 경치의 아름다움이 노래되면서 시간의 대비를 통해 과거에 대한 추억이 서정적으로 서술되고 있는 것이다. 남아 있는 유년 시절에 대한 기억이 표현될 수 있는 것이야말로 강릉이 고향이라는 장소적 특수성에 기인하거니와, 그에게 강릉은 고향으로서의 정서를 온전히 갖게 하는 공간이었음을 알 수 있다. 심연수는 강릉을 소재로 하는 시에서 안정감과 행복감, 여유와 풍류의 정서마저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장소성의 측면에서 볼 때 관념이나 추상, 이념이 끼어들지 않는 순수 정서의 공간성이라 할 만하다. 고향 강릉에서 심연수는 사회문화적 공간성 이전의 원초적이고 근원적 공간성을 체험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심연수에게 강릉이라는 공간이 무의식적이고 지각적인 대상이었을 뿐 상징, 기호 등 제도적 요인과 무관한 순수 자연의 차원에 놓이는 공간이었음을 말해준다. 고향 강릉의 장소에서 심연수는 의식의 힘을 빼고 무경계의 상태에 놓일 수 있었다. 즉 심연수에게 고향은 대결이라든가 의무 등과 같은 외부적 요소의 개입 없이 무의식과 지각을 완전하게 무방비로 개방해둘 수 있는 장소였던 것이다. 이는 강릉이라는 장소가 식민지라는 제도성이 부재해서라 아니라 고향인 까닭에 경험할 수 있는 심리의 고유한 특질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강릉을 포함하여 조선 본토를 기행하는 동안의 장소성은 만주에서 경험하는 장소성과 일정 정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심연수가 보여주었던 장소성은 사회적 제도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있는 양상을 보인다. 그것은 그들 장소의 방문이 비록 신사참배라든가 창씨개명과 같은 제도적 틀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해도 적용되는 특성이다. 민족적 의식과 고향에 대한 근원적 의식을 지닐 수 있었던 것도 이와 관련된다. 그것은 무엇보다 그들 장소가 현재적인 생활의 터전인 대신 일시적 방문의 공간이라는 점에 기인할 것인데,

이 속에서 심연수는 의지적이거나 미래적인 태도보다는 감성적이고 과거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 일본 유학 체험과 의식

심연수의 시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장소는 일본이다. 1940년 12월에 용정국민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는 이듬해 2월에 일본 유학을 위해 현해탄을 건너게 된다. 그의 일본 유학은 1941년 2월부터 1943년 9월까지 이루어지며 심연수는 1943년 10월에 용정으로 귀환한다. 짐이 넉넉하지 않은 채 시도된 유학이었으므로 심연수는 일본에서 노동을 하며 학비를 벌어야 했고, 이러한 상황은 이 시기 심연수의 시에도 잘 나타나 있다. 그가 진학한 학교는 도쿄에 있는 일본 대학 예술학원 창작과였다. 유학 생활 이후 심연수의 창작 수준은 한층 세련되고 유려해졌으며 동시에 당시 일본의 어수선한 정세를 반영하듯 시국에 관한 내용의 시가 많이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유학 시절 심연수에게 가장 커다란 자장으로 작용했던 요인이 일본이라는 장소성임을 말해준다.

해 돋는 아침 바다  
 맑고 깨끗한 섬 땅  
 섬은 섬이나 섬 아닌 나라  
 맑은 내 흐른 곳에 대숲이 있고  
 논밭이 있는 곳에 사람이 산다  
 차 중의 사람 차 외의 자연  
 모두가 처음 보는 진경(珍景)  
 조애(朝靄)에 싸인 데는 마을이 있고  
 마을이 있는 데는 생기가 있다  
 뇌호해(瀬戸海) 고운 물에  
 송도(松島)가 띄어 있고  
 백범(白帆)이 움직이는 데는  
 하늘이 맑게 개었다  
 자연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다  
 인력이 빛나는 곳에 이상향 있나니



연선(沿線)에 일하는 모든 철사(哲士)는  
 이상향을 건설하는 투사들이니  
 나도 내려가 팔을 걷고 땅을 파고 싶다

「이상(理想)의 나라」

위 시는 일본 유학 길에 오른 심연수가 1941년 2월 9일 부산항을 출발, 일본에 도착한 순간의 상황을 다루고 있다. 일본에 도착하여 차를 타고 이동하는 중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바라보면서 느낀 심회를 가감없이 표현하고 있는 위 시는 심연수가 일본에서 받은 첫인상이 얼마나 황홀하고 벅찬 것이었는지 말해준다. 심연수는 일본을 “해 돋는 아침 바다”, “맑고 깨끗한 섬 땅”, “이상향”으로 규정하고 있다. 심연수의 일본에 대한 선망하는 마음이 최대치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위 시는 잘 보여준다.

일본인 학자 오무라 마스오는 심연수 연구의 대세가 심연수를 민족 시인, 항일 시인으로 보려는 경향으로 귀결된다고 하면서, 이러한 결론으로 도달하기 위해 연구자들이 그 결론에 들어 맞지 않는 작품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sup>26)</sup> 그는 그중 하나로 위 시를 제시하는데, 그러나 위 시는 결코 친일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고 힘주어 말한다. 위 시는 일본국가나 민족에 공명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생활 향상을 위해 일하는 대지의 사람들에게 동질적인 것을 느끼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sup>27)</sup>

친일 문학과 관련한 균형 있는 시각을 제공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무라 마스오의 관점은 다분히 편향적이다. 일제는 식민지 시대 전체에 걸쳐서 일본을 전범으로 하는 이상향 건설을 식민지 운영의 원리로 내세웠고 우리는 이에 대한 동조의 여부에 따라 친일 문학을 가르게 된다.<sup>28)</sup> 암흑기에 있었던 일본에 대한 적극적 동조의 문학이 모두 친일문학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임종국은 『친일문학론』에서 친일문학을 주체성을 몰각한 문학, 주체적 조건을 상실한 채 맹목적이고 사대주의적인 일본 예찬과 추종을 내용으로 하는

26) 오무라 마스오, 앞의 글, p.44. 각주3) 참조.

27) 위의 글, p.56.

28) 조진기, 앞의 책, p.21.

문학으로 규정하고 있다.<sup>29)</sup> 이와 함께 오무라 마스오가 말한 바 위 시에서 제시되고 있는 ‘대지의 사람들에 대한 동질감’이 생활 향상이라든가 생명성이라는 순수하고 추상적인 관점에서 전유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 수행을 위한 생산성 선전 정책에 의해 유도된 것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시는 오무라 마스오의 의견과 달리 체제에 동조하고 순응하는 친일문학적 양상을 띠다고 볼 수 있다. 송민호의 지적대로 1940년대에는 일제에 아첨하고 일제를 찬양하는 시들이 무수히 양산되었던 때이거니와, 위의 시 역시 그러한 범주로부터 크게 벗어나는 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정황은 심연수가 일본에서 일본이라는 장소를 단순히 감각적이고 정서적으로 받아들인 데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상징 체계를 동시에 전유했음을 말해준다. 이미 만주국에서의 제도 교육을 통해 학습하고 수용했던 일본 제국의 상징적 기호들은 그의 정서적 특질마저 규정할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거니와, 그러한 제도화된 의식들은 일본의 장소 체험이 이루어진 즉시 전면화되어 표출될 수 있었다. 1930년대 중후반 일제의 군국주의 전쟁이 시작된 시점에 제도권 교육을 받은 심연수에게 일제의 선전 정책은 매우 뿌리 깊고 강력하게 각인되어 있었고, 열악했던 심연수의 주변 조건은 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비판적 사고와 합리적 사유를 허용하지 않았던 것이다.<sup>30)</sup>

유학 시기 심연수가 쓴 시들엔 위 시와 같은 맹목적 일본 예찬의 시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중엔 노동자로서의 극한의 삶을 묘사한 시<sup>31)</sup>도 있으며 고국을 향한 향수를 노래하는 서정적인 시<sup>32)</sup>도 다수 있다. 또한 민족적 염원을 나타내는 예언자적인 그것으로 해석되는 시<sup>33)</sup>도 쓰이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29) 위의 책, p.19.

30) 황규수는 심연수가 통제된 현실 상황에서 제도 교육을 받을 수 밖에 없었기에 그에게 처음부터 역사 인식을 지니기를 기대한다는 것이 지나친 바람이라고 말하고 있다. 황규수, 「심연수 문학 연구의 성과와 과제」, 『심연수 논문집』, 심연수기념사업회, 2018, p.504.

31) 「검은 사람」, 「저녁의 부두」 등

32) 「고향」, 「송화강 저쪽」, 「나그네」, 「만주」, 「방랑」 등

시기 그의 시가 일본의 장소성에 지배되고 있으며 심연수는 이 속에서 여러 층위의 시를 산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그의 내부 의식은 고향을 향한 향수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노동 현장의 사실성을 강조하고도 하며 전쟁 후의 민족의 삶에 대해서도 염원하게도 하는 것인데, 이들 갈래의 시들이 발원하는 근거는 곧 격동에 처해있던 일본이었던 셈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시기 일본의 장소성이 가장 뚜렷하게 반영되어 있는 시를 꼽는다면 그것은 곧 전쟁 관련 시가 될 것이다. 당시 전쟁은 일본에서 가장 뜨거운 제도상, 정책상의 주제로서 대다수의 민중들이 그것에 관여하는 사건이었던 것이다. 이 시기 심연수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쟁시로 해석될 수 있는 시들을 다수 창작한다. 「인류의 노래」, 「지구의 노래」, 「초망부악(初望富嶽)」, 「귀로」, 「사(死)의 미(美)」, 「한야기(寒夜記)」, 「녹슨 풍경」 등이 그것인데, 이중 「인류의 노래」는 『만선일보』에 발표된 것으로 전쟁에서의 승리를 고취하는 의식이 뚜렷이 표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설 새 없이 밀려 치는 사나운 물결  
육지의 테갓을 깨물어 뜯는  
마지막 발악을 그대여 보는가

북극의 빙원에서 백웅이 울고  
극광이 휘황하는 설원에서  
북으로 북으로 피난 가는 에스키모를  
누구의 힘으로 만류할쏘냐

얼부푸는 지축에서 용가름 트는 소리에  
지혼(地魂)이 빠질 듯 진동하고  
식어 드는 양극에서 찬바람이 일어  
미온(微溫)의 잔존을 삼키려 함을  
그대여 참으로 알고 있는가

---

33) 「소년아 봄은 오리니」

그대여 최후의 승리가 승리라면  
 승리를 못 가질 것 그 무엇이나  
 지열이 식으면 달굴 수 있고  
 궤도와 지축이 파왜(破歪)되면 바꿀 수 있으리니  
 우리의 심열을 수열(輸熱)할 수 있고  
 인류의 역사를 살릴 수 있다

「인류의 노래」 전문

이 시기 심연수의 대부분의 시는 직설적이기보다 심미적이고 상징적인 표현법을 구사하고 있어 명확한 해석이 용이하지 않다는 특징을 보인다. 많은 경우 사적이고 신변적인 시를 쓰고 있지만 때로 정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시도 있는데 이들 시의 이념의 성격이 뚜렷이 판별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지구의 노래」라 할 수 있다. 예컨대 「지구의 노래」 가운데 “불의의 과오를 사죄하여라/ 새로이 죄악을 저지르는/ 세기의 독선자를 구축(驅逐)하자”는 일제의 군국주의를 겨냥하는 항일 저항의 관점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세기의 독선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친일적인 시로도 이해할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정에 올라서 사해를 보아야/ 전지의 신비를 다시 알려니/ 오! 절정에 설 히마리스트/ 피켓 끝으로 박힌 탄환을 돌굴 제/ 지맥의 혈관엔 새 피가 순환하고/ 넓은 상장(傷場)에는 새살이 돋을 것이다” 역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관점이 확보되지 않는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위 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위 시를 이해함으로써 이것을 연결고리로 하여 심연수의 다른 시들의 구절을 해석하는 데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태평양 전쟁이 한창이던 1941년 12월 『만선일보』에 수록된 만큼 비교적 선명한 의미의 방향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위 시는 이외의 암시적인 시들에 대한 이해의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때 위 시는 세계를 “북극의 빙원”으로 뒤덮여 온기가 사라진 상황으로 묘사함으로써 세계가 전쟁터가 되어 있음을 상징하고 있고 “그대”를 독려하여 “지열”을 “달”구고 “우리의 심열을 수열”하고자 의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시의 화자에 의하면 그러할 때 “인류의 역사를 살릴 수 있”으며 그것이야말로

“설 새 없이 밀려 치는 사나운” “마지막 발악”과 싸워 “최후의 승리”를 이룰 수 있다. 말하자면 위 시는 “우리”의 열기를 발휘하여 세계의 냉기와 대적하고 마침내 적을 이기고 승리를 쟁취하자는 내용의 전쟁 고취시로 이해될 수 있다.

위 시의 관점이 확정된 상황이라면 위 시의 구절과 여타 시의 유사 구절을 대비함으로써 그것의 의미를 판별할 수 있을 것인바, 위 시의 “육지의 테갓을 깨물어 뜯는/ 마지막 발악을 그대여 보는가”는 「지구의 노래」의 “새로이 죄악을 저지르는/ 세기의 독선자를 구축하자”에 대응하는 구절로 볼 수 있고, 이는 “세기의 독선자”가 일제 군국주의라기보다 서양 제국주의자들을 지시하는 것임을 유추할 수 있게 된다. 즉 그것은 서구 세력을 서양 제국주의자로 일컫고 그들의 식민치하에 있던 아시아 민족을 구축하겠다는 미명을 내걸어 전쟁을 일으켰던 일제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에 해당한다. 이로써 「지구의 노래」 역시 흔히 항일시로 해석되곤 하지만 오히려 일제의 전쟁을 미화하고 찬양하는 시에 가까운 시라는 혐의를 안게 된다. 또한 그러할 때 앞서 언급했던 「지구의 노래」의 마지막 구절인 “지맥의 혈관엔 새 피가 순환하고/ 낡은 상장(傷場)에는 새살이 돋을 것이다”는 일제가 일으킨 전쟁에 대한 저항과 극복의 함의로서 이해되기보다 오히려 전쟁을 독려하고 승리를 낙관하는 일반적인 친일시의 형태에 가깝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방법, 즉 의미가 확정된 시로부터 유사 구절을 대비시켜 유추하는 방법을 연쇄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심연수의 해석이 모호한 시들을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면 단순히 추운 밤의 서정을 노래하는 것으로 이해되기 쉬운 「한야기(寒夜記)」<sup>34)</sup> 역시 전쟁 관련시의 의미를 띠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일본에 머무는 동안 심연수는 도쿄의 히비야 공화당 건물에서 개최되었던 일본문학보국회 발회식에 참가하게 되고 이때의 상황을 기록한 보고서를 「문학의

34) “지구는 한 개의 싸느란 흙덩이로 변하고/ 누리는 삭막한 빙실(氷室) 안 같다 (중략) 회환(恢環)된 체열로 덥혀 보리니/ 식은 땅 누리의 밤도/ 이글이글하도록 달궈 보게/ 가슴속 불길을 뿜어 보자/ 타오르는 불길에 태워 보리라”는 순수 서정의 시로 이해되곤 하지만 사실상 전쟁 의지를 고취하는 내용의 시임을 짐작할 수 있다.

사명」<sup>35)</sup>이라는 제목으로 작성하여 1942년 7월 『매일신보』에 연재 발표하게 된다. 이 글에서 심연수는 “민족과 국가가 있는 곳에 문학이 있을 수 있으며, 그 민족과 그 국가의 국운강성하여야 그들이 가진 문학도 건전하고 빛날 것이다. 여기에 민(民)의 족(族) 위장(偉壯)한 힘을 보게 되고, 국가의 위대한 역사적 사명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민족과 국가를 떠난 문학이 없다는 것을 확연히 알게 되는 것이다”고 운을 떼면서 일본문학보국회 결성식의 진행 과정 및 의미, 참여했던 인사들을 일일이 소개하고 있다. 또한 마지막은 “만장의 문학도는 새로운 방향을 향하여 힘찬 호흡을 하고 있었다. 좌장 시모무라 히로시 씨의 발성으로 총독 만세를 봉창하고 산회하였다. 오늘부터 아니 삼천 년 이래의 일본민족이 걸어 오고 살려 오고, 살아 온 문학은 새로운 힘을 모아 하류를 따라 해양으로 지국의 표각을 덮은 해양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만원된 전차에서 손잡이를 찾아 쥐었다. 앞길! 문학자의 사명은 얼마나 큰가. 우리들이 나갈 길은 얼마나 어성긋은 길인가를 새삼스럽게 깊이 느꼈다”고 하면서 폐회선언의 모습을 묘사하고, 식을 마친 후의 자신의 소감으로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심연수가 작성한 이 보고서는 앞서 오무라 마스오에 따르면 아무런 이념의 지향성 없이 담담히 객관적으로 기술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지만<sup>36)</sup> 사실상 심연수의 일본에 대한 의식이 잘 드러나 있는 글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심연수는 참석한 일본의 고위급 인사들의 직책과 극존칭을 사용하여 이들을 소개하고 있으며 이들의 이념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심연수는 민족과 국가를 일본의 그것과 분리시키지 않은 채 일반화시켜 사용하고 있으며 문학의 정치성이라든가 민족과 국가를 위한 문학의 역할을 적극 옹호하는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관점들은 당시 황일하던 전형적인 친일문학의 논리에 해당한다.

일본에서 보여준 이러한 심연수의 행동과 의식들은 매우 당혹스러운 것이다. 이 시기 심연수가 행했던 활동들을 고려할 때, 난삽함과 모호함으로 뒤덮여 그

35) 심연수, 「문학의 사명」, 『심연수 산문 정집』, 심연수기념사업회, 2020, pp.105-112.

36) 오무라 마스오, 앞의 글, p.51.

의미가 불분명한 그의 시를 민족주의 시로 단정하여 그를 항일시인, 저항시인으로 규정하는 태도는 넌센스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민족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친일 행각을 벌였던 수많은 친일분자들이 준동하였던 이 시기 진정한 민족주의란 일제와의 철저한 분리로써 지지되어야 했던 점을 상기할 때 행동과 논리, 의식 면에서 일제와 공유하는 부분이 많았던 심연수의 태도를 가리켜 항일이라든가 저항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하는 일이라든가 운동주와 동일시하는 관점은 찢지 못할 커다란 오류에 해당할 것이다.

#### 4. 결론

지금까지 심연수가 거주하였던 장소를 중심으로 시를 분류하여 읽음으로써 그의 시에 나타나 있는 장소성의 특징을 살펴보고 나아가 그 속에서 구현되어 있는 심연수의 의식을 살펴보았다. 장소성을 통한 접근은 심연수가 살아 있는 동안의 이주의 궤적을 드러내고 그 속에서 표현된 생활 감정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닐 뿐만 아니라 각각의 장소에서 달리 보여주었던 심연주의 의식의 갈래들을 계보화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장소성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심연수는 만주에서의 의식과 조선 본토 방문 시의 의식, 그리고 일본 유학 시의 의식에 있어서 다층성을 나타내고 있다. 만주에서의 의식이 실향민의 정서를 포함한 채 만주국의 건국 이념을 적극 수용한 것으로 발현되어 있다고 한다면, 조선 방문 시의 의식은 조선 국토의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과 민족의 역사에 대한 기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소성과 관련하여 전자가 지각의 공간을 넘어서 상징기호의 공간성이 강조되어 있는 데 비해 조선의 장소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상징성이 약화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일본이라는 장소에 이르면 또다시 상징기호의 공간성이 극대화되는 모습을 확인하게 된다. 심연수는 일본에 이르러 정서적으로 한껏 고무될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전개되는 상징기호의 체계에 적극 진입해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일본의 정치와 정책에 관심을 두는 것이며 일본의 문학 정책에

도 관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일본에서 거주하는 동안 심연수는 노동하는 생활인으로서의 면모도 지니지만 보다 비중있게 전쟁을 옹호하고 그것을 미화하고 찬양하며 승리의 뜻을 고취하는 시를 쓰게 된다.

이는 심연수의 시가 각각의 장소에 따라 그에 지배되어 쓰여지는 가운데, 심연수가 각 장소에 내재되어 있는 상징 체계에 민감하게 반응하였음을 말해준다. 이때 심연수는 체제에 순응하고 체제의 상징 기호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양상을 나타내는바, 이를 고려한다면 그를 바라보는 기왕의 관점에 대해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심연수가 어린 시절부터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그의 문학을 민족 혹은 친일의 관점에서 규정하기보다는 식민지 시기 이러한 의식이 왜 형성되고 이같은 양상의 청년들이 어떻게 양산될 수 있었는지를 고찰한다면 아픈 우리의 역사를 돌이켜보는 계기가 됨으로써 한층 의미있는 연구의 방향이 되지 않을까 판단한다.

## ◆ 참고문헌

### 1. 자료

심연수, 『심연수 시 정집』, 심연수기념사업회, 2019.  
 \_\_\_\_\_, 『심연수 산문 정집』, 심연수기념사업회, 2020.  
 김낙현 외, 『심연수 논문집』, 심연수기념사업회, 2018.

### 2. 단행본

엄창섭, 『민족시인 심연수의 문학과 삶: 생명의 불꽃과 따뜻한 감성』, 홍익출판사, 2003.  
 조진기, 『일제 말기 국책과 체제 순응의 문학』, 소명출판, 2010.  
 에드워드 렐프, 『장소와 장소상실』, 김덕현 외 역, 논형, 2005.

### 3. 논문

김낙현, 「디아스포라 심연수의 문학세계」, 『어문논총』 40집, 전남대 한국어문학연구소, 2022, pp.249-270.  
 남기택, 「심연수 시 연구」, 『심연수 논문집』, 심연수기념사업회, 2018, pp.83-98.



- 유은진, 「일제말기 만주 지역 시조 연구」, 『심연수 논문집』, 심연수기념사업회, 2018, pp.223-246.
- 유하, 「운동주의 심연수의 시의식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이성천, 「재만 시인 심연수 문학의 실증주의적 고찰」, 『심연수 논문집』, 심연수기념사업회, 2018, pp.405-419.
- \_\_\_\_\_, 「재만 시인 심연수 일기문의 비판적 검토」, 『심연수 논문집』, 심연수기념사업회, 2018, pp.331-346.
- \_\_\_\_\_, 「재만 시인 심연수 시 연구에 나타난 몇 가지 문제」, 『어문연구』 70집, 어문연구학회, 2011, pp.363-387.
- \_\_\_\_\_, 「심연수의 <일본문화보국회> 참관기 고찰」, 『어문연구』 105집, 어문연구학회, 2020, pp.211-232.
- 이성환, 「간도의 정치적 특수성과 일본의 ‘간도 분리론」, 『일본문화연구』 32집, 동아시아 일본학회, 2009, pp.373-400.
- 임종찬, 「심연수 시조에 나타난 디아스포라 의식」, 『시조학논총』 31집, 한국시조학회, 2009, pp.125-145.
- 임현영, 「심연수의 생애와 문학」, 『민족시인 심연수』, 심연수선양사업위원회, 2007, pp.11-19.
- 장세윤, 「새 자료로 본 심연수의 생애와 민족의식」, 『심연수 논문집』, 심연수기념사업회, 2018, pp.463-491.
- 홍문표, 「심연수의 문학세계-민족시인, 저항시인, 그리고 리얼리즘 시인」, 『민족시인 심연수』, 심연수선양사업위원회, 2007, pp.374-384.
- 홍윤기, 「심연수와 운동주의 비교연구」, 『한국시문학』 17집, 한국시문학회, 2006, pp.102-111.
- 황규수, 「심연수 문학 연구의 성과와 과제」, 『심연수 논문집』, 심연수기념사업회, 2018, pp.493-514.
- \_\_\_\_\_, 「재만조선인 심연수 시의 디아스포라 문학 특성 연구」, 『새국어교육』 86집, 한국국어교육학회, 2019, pp.539-560.
- 오무라 마스오, 「심연수의 일본관」, 『심연수 문학 논문집』, 심연수기념사업회, 2018, pp.49-63.

논문접수일	2022년 10월 25일
심사완료일	2022년 11월 26일
게재확정일	2022년 12월 08일

*Abstract*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lace Experience  
and Consciousness in Sim Yeon-su Literature

Kim, Yunjeong

This paper is reading and classifying Sim Yeon-su's poems based on the place where Sim Yeon-su has lived. Sim Yeon-su who had lived in from Manchuria to Japan showed specific consciousness in accordance with his living place.

First, as a Manchurian Sim Yeon-su expressed active acceptance of Manchukuo's founding ideology, including the emotions of displaced people. And when he visited in Joseon and his home, Gangneung, he expressed national consciousness feeling pitiful at Joseon Dynasty's history. In relation to placeness, the former emphasized the spatiality of the symbol beyond the space of perception, while the symbolism of Joseon was relatively weakened.

However, in case of Japan Sim Yeon-su actively entered the symbolic system developed in Japan again. It means Sim Yeon-su paid attention to Japan's politics and policies and also engaged in Japan's literary policies.

This indicates that while Sim Yeon-su's poetry was dominated and written according to each place, Sim Yeon-su reacted sensitively to the symbolic system inherent in each place. Sim Yeon-su responded to the system and actively sympathized with the symbol of the system.

**Keyword** Sim Yeon-su, placeness, consciousness, Manchukuo, Joseon, hometown, Japan

# 타자 시각으로 보는 '9.18' 국난서사

- 「조국이 없는 아이」 세 가지 텍스트의 비교연구 -

안해숙\* · 풍호\*\*

## 국문요약

1936년 5월 수권의 소설 「조국이 없는 아이」는 발표 직후 센세이션을 일으켰으며 항전문학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이 작품은 1936년 9월과 1938년 6월 두 차례 동명의 연극으로 각색되었다. 「조국이 없는 아이」의 세 판본은 인물 설치, 플롯 설정 등에서 일정한 변화가 나타났으며 정치의식과 심미가치에서도 부동한 형태가 나타났다. 세 텍스트는 모두 조선인 아이 콜리라는 타자 형상을 보유했으며 조선인 타자라는 시각에서 진행되는 국난서사로 민족, 국가, 시대가 문학에 대한 요구를 진실하게 응답하였다. 한마디로 「조국이 없는 아이」 세 텍스트는 플롯의 설정과 심미 가치에서 차이가 존재하지만 전시문학이라는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타자라는 독특한 시각은 '조국이 없는 아이'의 날카로운 인지이며 민족, 국가, 시대가 문학에 대한 수요를 뚜렷하게 반향하였다. 문학이 보편적으로 전쟁의 잔혹함을 묘사하고 국민적 근심과 계급적 압박 등을 파헤칠 때 이 세 판본은 여러 가지 방식에서 남다른 형태를 보여 항전문학의 서사시각을 풍부히 하였다.

**주제어** 「조국이 없는 아이」, 국난서사, 조선인, 소설, 연극

## 〈목차〉

1. 서론
2. 「조국이 없는 아이」 세 판본의 형성 배경
3. 「조국이 없는 아이」 세 판본의 차이와 의미
4. 「조국이 없는 아이」 세 판본의 심미가치와 정치적 지향
5. 결론

\* 제1저자: 중국연변대학교 부교수

\*\* 교신저자: 중국강서사범대학교 교수

## 1. 서론

문학은 시대를 반영하기에 필연적으로 시대의 낙인이 찍히기 마련이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20세기 중국문학은 민족서사의 문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31년 9월 18일, 일본은 중국 동북을 식민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랜 음모를 거친 침략전쟁을 일으켰는데 바로 9.18 사변이다. 망하여 가는 나라, 뿔뿔이 흩어져가는 가족, 고난의 생활, 민족의식과 반항 정신을 선양한 작품을 9.18 국난 문학이라 일컫는다. 이는 중국이 세계 반파시즘전쟁의 전초전을 시작하였음을 증명하였다. 즉 9.18국난문학은 생사를 오가는 극한의 상황에서 울려 퍼지는 비명, 광야에서의 절규, 족쇄와 수감 하의 항쟁 등 부당한 각도에서 민족의 고난을 보여주었다. 또한 민족의 위기를 명시하고 중화민족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반침략 투쟁을 묘사하였다. 동북의 만족 작가 수첸(舒群)의 「조국이 없는 아이」는 가장 먼저 국난을 보여준 문학작품의 하나이다.

수첸의 「조국이 없는 아이」에 관해서는 몇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된 바 있다. 하목·고명철(2021)은 주인공 골리의 저항 양상에 대해 논하였고, 이강인(2021)은 소설에 나타난 ‘공간’을 푸코의 이론으로 해석하였다. 그리고 박정태(2021) 역시 골리의 인물 형상에 대해 고찰하였다.<sup>1)</sup> 기존의 연구성과를 검토해 본 결과 골리의 인물 형상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학과 예술 작품이 타 장르로 재창조되는 일은 문학예술사에서 그 역사가 유구하며 예술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한 민족의 고전으로 일컬어지는 작품은 다양한 장르로 재창조되었고 어떤 작품은 발표되자마자 엄청난 인기를 얻어 동시대에 여러 가지 판본으로 개작되기도 하였다. 수첸의 소설 「조국이 없는 아이」는 발표되자마자 동시대인들의 관심을 끌어 두 차례에 걸쳐 연극으로 각색

1) 하목·고명철, 「수첸(舒群)의 「조국이 없는 아이」의 주인공 골리(果里)의 저항 양상」, 『한민족문화연구』, 2021.  
 이강인, 「수첸(舒群)의 「조국 없는 아이(沒有祖國的孩子)」에 나타난 ‘공간’에 대한 푸코적 해석」, 『중국학』, 2021.  
 박정태, 「수첸(舒群) 초기 소설의 조선인 인물 형상 고찰 - 「조국이 없는 아이(沒有祖國的孩子)」, 「이웃(隣家)」을 중심으로」, 『한중언어문화연구』, 2021.

된 점에서 작품의 변형이라는 전형적 양상을 보여주었다. 본고는 이런 점에 착안하여 9.18 국난문학 서사의 각색이 가지는 의의와 내함을 분석하고자 한다.

9.18 사변이 발발하고 3년이 지난 1934년, 동북에서 항일활동을 지속하던 수천은 일제의 악랄한 탄압을 피해 청도로 피난하여 소설 「조국이 없는 아이」를 구상하였다. 같은 해 가을, 수천은 배신자의 밀고로 투옥되었는데 옥중에서 근 일 년의 시간을 이용하여 소설의 초고를 완성하였다. 1935년 봄에 출옥한 수천은 상해에서 초고를 수정하여 탈고하였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1936년 5월 푸둥화(傅东华)가 주편으로 있던 『문학』에 발표한다. 소설이 발표되자 문단에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켜 저우양(周扬), 저우리보(周立波) 등이 이 작품에 관한 평론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소설이 발표된 4개월 후, 쉬우토(徐韜)와 썬취(夏伯)가 이 소설을 3막극으로 각색하여 발표했고<sup>2)</sup> 2년 후에는 수천과 썬취(破锣)가 2막극으로 각색하여 발표하였다.<sup>3)</sup>

「조국이 없는 아이」 세 판본은 비슷한 이야기 내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핵심은 일본제국주의가 동북을 침략한 후 비극에 빠지게 되는 평범한 인물의 운명을 보여주는 데 있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조선인 소년 골리인데 그가 조국을 잃고 오갈 데 없는 비참한 운명에 처한 것을 통하여 중국 사람들에게 ‘조국’이라는 두 글자가 가지는 함의와 가치를 이해하고 각성시키고자 하였다. 나아가 조국을 빼앗김으로 하여 겪게 되는 위난 의식을 인식하고 중국 사람들로 하여금 민족과 국가를 멸망의 위기에서 구원하기 위해 투쟁할 것을 고무하였다. 세 판본 모두에 약소민족 형상이 등장하는데 이는 일종의 민족승인과 세계의식의 양양이라는 의의도 가지고 있다<sup>4)</sup>. 이런 뚜렷한 타자 의식은 동시대 기타 동북 국난문학 서사와 부동한 착안점을 갖고 있다. 더욱이 5.4 운동 이래 중국현대문학이 가지고 있는 ‘약소민족’의 운명으로 국가와 민족의 의식을 환기시키고 깨우는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5.4 운동 시기 마오둔(茅盾), 저우쥘런(周作人) 등은 ‘약소민족’

2) 徐韜·夏伯, 「没有祖国的孩子」(三幕话剧), 『现代文艺』第1卷第3期, 1936年 9月 20日.

3) 舒群·破锣, 「没有祖国的孩子」(两幕话剧), 『战时艺术』第2卷第1期, 1938年 6月 10日.

4) 黄万华, 「国家认同和世界意识: 东北抗日戏剧的新解读」, 『社会科学辑刊』, 2017年 第2期, p.62.

의 문학을 번역한 바 이는 중국과 사정이 비슷한 ‘약소민족’의 역사를 고려하여 피압박 민족의 문학을 사상무기 가지고 민족심리의 공명을 불러일으켰다. 이로써 특정한 문학 형식이 특수한 역사 상황에서 발휘하는 거대한 사회정치적 효능을 보여주었다.<sup>5)</sup>

중국 현대 민족의식의 각성은 억압과 능욕의 과정에서 부단히 자아를 각성함으로써 획득한 것이었다. 소설 「조국이 없는 아이」와 각색된 두 연극 작품은 모두 플롯과 인물 설정에서 일정한 변화를 보이지만 민족 타자의 형상은 그대로 보존하였다. 이러한 타민족과 자민족의 대비와 상호관계를 참조로 삼아 대상에 정감과 색채를 반영하는 서사 방식을 취하였는데 이는 국난문학의 흐름에서 특별한 의의를 가진다. 「조국이 없는 아이」의 세 텍스트를 분석, 대비하는 과정에서 그들 사이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는 소설, 연극의 예술적 차이이자 사회적 역사적 상황의 변화와 일정한 연관이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 2. 「조국이 없는 아이」 세 판본의 형성 배경

「조국이 없는 아이」 세 판본은 모두 1930년대 항일전쟁 시기에 창작되었다. 하지만 시간상으로 전면 항전 이전과 이후의 차이가 있으며 서로 다른 예술 장르가 항전에 대한 구체적 맥락에 대한 반향으로 뚜렷한 구별이 있다.

소설 「조국이 없는 아이」는 1934년부터 구상하고 준비하여 1936년 5월에 발표하였는데 시간상 2년이나 걸리었다. 이 2년은 일본제국주의가 동북을 병탄하고 화북을 호시탐탐 노리던 시기로 중국의 국토는 일본제국주의에게 조금씩 강점당하고 있었다. 이 시기 중국 동북 지역에서 생활하던 중국인들은 침략자에게 무자비하게 짓밟히고 조국을 잃는 비참한 운명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으로 중요한 고비에 국토의 함락, 도처에 헤매는 민중, 침략자들이 동포를 살해하는 잔인한 행위를 보면서 수천은 망국 생활의 절실함을 느끼게 된다. 또한 동북항일의용군에 참여하였던 수천은 민감한 관찰력으로 이 시대의 주요한

5) 罗罗, 「送一九二〇年」, 『东方杂志』第17卷第24号, 1920年 12月 25日.

흐름을 포착하였다.”<sup>6)</sup>

수천은 어린 시절 친구인 조선인 골리를 기념하고 침략자들의 만행을 폭로함과 동시에 중국 사람의 반항 정신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자신의 체험을 기초로 1934년 청도에서 「조국이 없는 아이」를 구상하였다. 이로 미루어 보면 수천이 소설 「조국이 없는 아이」를 창작한 동기는 일본이 중국 동북에서 일으킨 9.18 사변이다. 9.18사변은 일본제국주의가 중국을 침략하는 첫걸음이며 광활한 동북 사람들이 땅을 잃고 굴욕과 침해를 받는 비극의 시작이다. 이러한 비극을 기반으로 한 작품의 제재는 어린 시절 친구였던 조선인 소년 골리와 관련한 체험과 회억이다. 이 작품은 외적에게 침략당해 조국을 잃고 갈 길 없이 떠도는 조선인 소년 골리의 비극적 모습을 통하여 잔혹한 침략자들에게 날카로운 비판을 보냈다. 그리고 골리의 비극을 통해 독자들로 하여금 조국을 상실한 자들이 겪게 되는 현실을 인식하게 하고 침략자의 억압을 피해 선택하는 도피는 최종적으로 폐쇄된 길임을 일깨워준다. 즉 절체절명의 궁지에서 항전의 결심을 불러일으켜 저항하는 것이야말로 나라 잃은 사람들이 나아가야 할 유일한 길이며 민족의 생기를 획득할 수 있는 길임을 호소하고 있다.

쉬우토(徐韜)와 썬뵈(夏伯)가 각색한 3막 극은 원작소설보다 3개월 늦게 발표되었다. 하지만 두 텍스트 사이는 인물의 설정과 이야기 결말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두 텍스트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소설에 등장하는 소련 인물을 삭제하고 중국 학생을 등장시킨 점이다. 연극의 제3막 플롯은 원작을 각색할 때 보충된 것으로 소설의 비극적 결말을 중국학생과 조선 소년이 힘을 합쳐 항전하는 것으로 대체하여 일제와의 전투에서 한 차례 승리를 거두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 이러한 큰 편곡의 개작은 당시 사회 변화에 따른 독자들의 요구와 수요에 따른 것이었다. 1936년 중국과 소련은 상호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때문에 중국은 우선 자신의 힘으로 일제의 침략에 맞서야 했으며 연합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야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일제의 식민지가 되어 비슷한 처지에 처한 조선과 함께 항일 투쟁을 해야 하는 상황

6) 董兴泉, 「论舒群的文学创作」, 『绥化师专学报』1985年第2期, p35.

이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이 3막극 「조국을 잃은 아이」에서는 소련의 요소를 삭제하고 중국학생과 조선 소년이 연합하여 일제와 직접 투쟁하는 것으로 전개하였으며 다른 한 편으로 본토에서의 항일 투쟁의 중요성도 강조하였다. 이는 ‘조국이 없는’ 조선인 아이와 “같은 처지에 있는 현재 흑한의 땅 동북에서 영용하게 항전하는 ‘조국이 없는 아이들’”<sup>7)</sup>이 함께 전쟁의 시련을 겪는 모습을 통해 중국인들이 모든 ‘조국이 없는 아이’를 위해 함께 일어서고자 하는 열정과 투지를 불러일으켰다.

1938년 수춘과 퍼워튀(破锣)는 소설을 바탕으로 하여 다시 한 번 「조국이 없는 아이」를 각색하여 2막극으로 발표한 텍스트는 앞에서 살핀 3막극에 비해 원작에 더 충실하였다. 이 텍스트에서는 소설에 등장했던 소련인이 그대로 등장하고 있고 소련 인물과 중국 학생 ‘나’(과와레프) 그리고 조선인 아이 골리의 관계 또한 더 원만하고 운명적 긴밀함도 드러난다. 예를 들면 2막극에서 소련 여교사 소다와가 차지하는 비중과 등장 횟수는 원작소설보다 더 많으며 그녀의 입을 통하여 연합 항일의 논의가 제시되었다. 그리고 스토리 결말 부분에 변화가 있는데 바로 원작소설이 지닌 비극적 장면이 결론에서는 마지막 수업을 보는 것으로 변한다. 바로 마지막 수업에서 학생들은 격양된 정서를 보여주는데 연합 항일을 호소한다.

이러한 개편은 2막극이 탄생한 시기가 바로 7.7 사변이 발생한지 1년이 된 시점이라는 점과 깊은 연관을 가진다. 이시기 중국은 전면내전이 폭발하여 반파시즘 진영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과 아의 진영이 분명하게 나누어졌다. 이 시기에 들어와 소련은 중국의 항일 전쟁을 지원하는 중요한 국가로 등장하였다. 이런 정치적·사회적 상황의 변화와 맞물려 중국과 소련 사이의 우호적 관계를 강화하였으며 양자와 일본 침략자 사이의 대립 관계를 날을 세워 설명하였다. 동시에 항일 연합의 현실적 수요에 따라 중국인들의 애국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투쟁을 고무시킨다는 현실적 요구가 연극을 각색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그 결과 2막극 「조국이 없는 아이」의 마지막 수업에서 중국, 소련, 조선 등 세 국

7) 徐韜·夏伯, 「没有祖国的孩子(三幕话剧) 后记」, 『现代文艺』第1卷第3期, 1936年9月20日.



적을 가진 사생이 서로 격려하고 분발하여 구호를 외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이러한 격양된 장면으로 수많은 관중을 감화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조국이 없는 아이」 세 판본이 2년 정도의 짧은 시간 간격을 두고 발표되었으면서도 내용상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 이는 때 판본이 시대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두 개 연극은 수천 소설을 근거로 하면서도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인 것이다. 이렇듯 「조국이 없는 아이」 세 판본은 전면항전의 전과 후라는 특정한 시대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소설에서 연극으로 평면에서 입체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예술적 차이를 가지고 있다.

### 3. 「조국이 없는 아이」 세 판본의 차이와 의미

소설 「조국이 없는 아이」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두 번 각색되어 전시에 공연되었다. 이는 작품이 가지는 ‘일본침략에 저항하려는 중국 민중의 가장 필요한 정신적 역량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세심하게 작품을 살펴보았을 때 비록 비슷한 이야기 구성을 가지고 있지만 세 판본마다 인물 배치, 플롯 설정, 예술 수법 면에서 적지 않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

#### 1) 인물의 기능 차이와 장르적 성격

「조국이 없는 아이」 세 판본에 등장하는 인물의 역할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소설 「조국이 없는 아이」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총 4명으로 15살의 조선인 소년 폴리(果里), 17살의 중국인 소년 과와레프(果瓦列夫), 소련인 소년 폴리사(果里沙) 그리고 소련인 교사 소다와(苏多瓦) 등이다. 이 소설은 조선인 소년 폴리의 삶을 작중 화자인 중국인 소년 과와레프가 서술하는 일인칭관찰자 시점으로 되어 조국이 없는 소년 폴리의 삶이 중국 소년의 시각으로 초점화되고 서술되어 있다. 이러한 서사 전개는 작가 수천의 생애와 그에 의해 형성된 정서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수천은 하얼빈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집안 사정으로 상당 기간 유랑생활을 하였다. 훗날 중동철로소련자제 제11중학교(中东铁路苏联子弟第十一中学)에서 공부하였는데 작중 인물의 원형인 조선인 아이 폴리

의 도움 아래 담임선생님 소련인 여교사 주안샤크레(周云谢克列娃 / 소설 중 소다와의 원형)도 알게 되었다. 수천은 소설에서 ‘나’를 통하여 골리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바로 소설과 현실의 이중 대응인데 작품에서 ‘나’는 수천의 자아 화신으로 ‘나’의 정감은 작가 수천의 자아 정감의 발로이다. 이렇게 ‘나(과와레프)’와 골리의 우정은 수천의 삶의 이력이 지탱해 주는 것이기에 더욱더 진실하며 감동적이다. 과와레프의 몸에는 상호 방조하는 인도주의 정신이 진실하게 체현되며 거대한 내적 힘을 소유하고 있다.

소련 학생 골리사의 형상은 세 판본에서 보면 큰 전변을 가지고 있다. 처음 그는 강렬한 자아우월감을 가진 소련인으로 망국으로 고향을 떠난 골리를 정신적으로 멸시하고 말투에도 조롱으로 다분하였다. 훗날 그는 타국의 우호 역량으로 나오는데 일본에 반항하는 골리를 존중하고 도와준다. 골리사의 말과 행동은 사회적 관계에 존재하는 도리를 암시하는바 국제관계에서 힘이 없고 모욕당하는 자가 어떠한 상황에서든 동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대로 비천하고 연약함 때문에 경멸과 모욕을 당하는 자는 반드시 일어나 저항하여야만 존중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즉 타국의 침략에 저항하고 투쟁함으로써 스스로 민족의 자존감을 회복하여야 한다는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소다와는 소련 선생님이로서 골리의 처지를 동정하며 온 힘을 다해 골리를 도와준다. 예를 들어 골리가 학교에 다니고 싶어 하는 소망을 실현해 준다. 그는 국제적 우호 역량으로 존재하는데 골리에게 “고려의 땅에 조국의 국기를 꼽아야 하는 것인데 이것은 고려인으로서의 책임이며 또한 너의 책임이다”(614면)고 고무 격려하였다. 소다와의 행동은 투철한 국제주의 정신이 체현되었으며 동시에 골리의 민족국가 의식을 불러일으켰다.

쉬우토(徐韜)와 샤뵈(夏伯)이 개편한 3막극 「조국이 없는 아이」는 인물의 배치에서 원작과 아주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 첫째, 원작 소설에 등장하는 소련인 골리사, 소다와 등을 전부 삭제하였다. 연극에서 소련인을 완전하게 삭제할 뿐 아니라 조금도 언급하지 않았다. 둘째, 중국인 인물을 대량으로 첨가하였다. 원작 소설의 ‘나(과와레프)’는 소실되었으며 출현한 8명의 인물은 모두 중국 이름으로 칭하였다. 예하면 예란(叶兰), 고우주명(高祖萌), 우소우텐(吴晓天), 왕궈

이성(王桂生), 장뽕(張包) 등이다. 셋째, 극중 인물의 연령을 대부분 증가시켰다. 골리의 나이는 15살에서 17살로 바뀌었으며, 예란은 17살, 고주명은 19살, 우소우텐은 16살, 왕웨이성은 18세, 장뽕은 21살 등이다. 이 세 가지 변화는 여러 면을 고려한 것이다. 3막극 「조국이 없는 아이」가 소련 요소를 지운 것은 중국과 조선의 공통 운명을 돌출하기 위해서였다. '조국이 없는' 조선인 아이와 중국인 학생들이 연합하여 공동으로 '조국이 없는 아이'를 위해 투쟁하는 것이다. 특히 인물을 대량 증가하고 모든 학생의 이름은 중국 이름으로 하였는데 이는 중국 항일전쟁의 균중성과 보편성을 체현하기 위한다는 의의가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연극의 선전동원 효과가 극대화되었다. 그리고 인물의 나이를 증가한 것은 연극의 2막에서 자유에 대한 토론과 제3막의 연합투쟁을 위해 복무하는 것이다. 연극에서 인물의 나이를 대체적으로 성년으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자유와 민족, 국가의 운명에 대한 이해가 소년보다 더 깊기 때문으로 이는 서사적 꺾임성을 가하기 위한 시도라 하겠다.

수천과 퍼워뤄(破鑼) 개편한 2막극 「조국이 없는 아이」는 소설을 무대로 옮긴 것이라 할 수 있다. 플롯은 소설 그대로를 사용하며 지어 어떤 대사마저 소설의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작품의 주요 인물의 변화도 크지 않으며 과와레프의 나이가 소설의 17살로 부터 14살로 바뀌었는데 골리보다 1살 적게 설정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인물의 성격과 나이를 잘 맞게 하기 위해서이다. 연극 텍스트의 이야기로 말할 때 주인공 골리가 보여준 인내심과 침묵 속의 중후함은 과와레프와 골리사보다 더 성숙하게 느껴지게 한다. 따라서 이 판본의 연극에서는 인물의 나이의 설정에서 골리를 제일 연장자로 하였으며 이러한 나이의 변화는 연출시 관중들이 배역에 대한 인지에 부합된다.

「조국이 없는 아이」 원작소설의 인물은 골리, 과와레프, 골리사, 소다와이다. 특히 원작에서는 과와레프와 소다와가 골리에게 주는 정감적 도움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과와레프가 골리에게 보여주는 정감적 친절함, 소다와의 현실적 도움과 정신적지지 등은 소설의 중심을 이룬다. 반면 쉬우토후(徐韜)와 싸뵈(夏伯)의 3막극에 등장하는 인물은 골리와 예란, 고우주명을 중심으로 나라를 잃은 또 나라를 곧 잃을 조선인과 중국인의 연합을 위한 설정이라고 볼 수 있다.

3막극에 등장한 인물들은 모두 연극의 선전성을 위한 의도적 설정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3막극에서 골리의 형님에게 이홍이라는 이름을 부여한 것은 더 큰 의미를 갖는다. 골리와 형, 그리고 등장하는 중국인 학생들은 함께 침략자와 싸우도록 선전하기 위한 의도적 설정이다. 2막극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것은 소다와라 할 수 있다. 원작소설에서 소다와는 골리에게 조국 고려를 광복해야 해야 함을 계속해 강조해준다. 하지만 어떠한 방법도 제시해 주지 못하는 형상이다. 하지만 2막극에서 소다와는 일제에 대한 처절한 중요심을 드러낸다. “일본은 고려의 적이며 동시에 우리 소련의 적이며 중국의 적이다”라 하거나, 학생들에게 “누구나 조국을 사랑하지, 우리는 조국의 꽃봉오리. 누가 조국이 없다고 모욕하나, 우리는 조국위해 설욕하자. 우리는 친구, 우리는 연합하자. 일본은 우리의 공적, 우리는 끝까지 싸우자”<sup>8)</sup>라는 노래를 가르친다. 이렇게 세 판본에 등장하는 인물은 일정한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세 판본의 장르적 차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상 골리를 제외한 기타인물이 장르적 차이로 말미암아 보이는 차이에 대해 말하였다. 하지만 세 판본에서 보여주는 주인공 골리 형상은 조국이 없는 자의 운명을 비극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골리는 중국 소년들의 항일 의식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 점은 세 판본 모두에서 동일하게 보아졌으며 작품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조국이 없는 아이」의 인물들은 국경을 넘어서서 제국주의, 식민주의에 저항하는 것이다. 그중 조선인과 중국인의 연대가 중요한 쟁점이 되지만 그보다는 중국인들의 항일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계몽적 서사이기에 세 판본의 골리는 불행한 운명을 보여주기 위한 역사적 희생양으로서 소재적 차원에서 등장한 인물이다. 그중에서 골리와 중국인 친구들의 관계는 수천이 항일의 문제를 제국주의에 대한 보편적 비판의식을 지녔는지 아니면 내셔널리즘적 차원에서 일본에 대한 비판의식을 지녔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이다. 즉 세 판본에서 골리는 중국의 항일 의식 고취를 위해 설정된 인물이기에 기타 인물의 장르적 차이에 밀받침이 된다.

8) 舒群·破锣, 「没有祖国的孩子」(两幕话剧), 『战时艺术』第2卷第1期, 1938年6月10日.

## 2) 결말 구조의 차이와 작품의 지향점

「조국이 없는 아이」 세 판본의 결말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소설 「조국이 없는 아이」의 결말에서는 소련 사생들이 전부 자신의 나라로 되돌아가고 '나' 또한 귀국 일정을 잡고 있으나 콜리만은 어디로 갈지 몰랐다. 이에 '나'는 콜리에게 함께 가길 제안하는데 길을 떠나 얼마 되지 않아 콜리는 '마귀'<sup>9)</sup>의 그물에 걸려버렸다. 이 비극적 결말은 예상 밖이지만 또 실제와 맞물렸다. 독자들은 가여운 콜리가 억압을 떨치고 살길을 찾기 바라지만 그 당시 사회 환경으로 말미암아 이는 실현 불가능한 현실인 것이다. 동북에 대한 일본의 촘촘한 감시 아래 가여운 콜리가 탈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콜리가 일본병사를 '마귀'라 지칭하는 것은 아버지를 잃고 나라를 잃고 이국 타향에서 수모를 겪게 하는 장본인이 일본 침략자이기 때문이다. 생계를 찾아 떠난 타지에서까지 일제의 아귀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당시 조선인의 현실이었다. 이 비극적 결말은 소설의 분위기를 더욱더 침울하게 하였으며 독자들에게 심령의 진실과 정감의 충격을 가져다주었다. 이로써 사람들의 비통과 분개를 끌어올렸으며 소설의 주제인 조국이 없는 아이의 불행한 운명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쉬우토(徐韜)와 샤뱌(夏伯)가 개편한 3막극 「조국이 없는 아이」 중 9.18사변 후 동북에 거주하는 중국 학생들은 어디로 도망가는가 하는 것은 자신들의 자유라고 논쟁한다. 하지만 그들이 알지 못한 것은 일본 침략자들이 그들의 자유를 완전히 상실하게 하였다는 점이었다. 그들이 응당해야 될 선택은 다름 아닌 남아서 항일하는 것이다. 이 판본의 연극은 제3막을 증가하였는데 동철중학의 모든 학생이 항일의용군에 가입하였고 콜리는 전시 지휘자가 되었다. 그가 소몰이할 때 사용하였던 나팔은 “백만 대군을 불러올 수 있는 군호처럼 되었으며”, “줄지어 총을 메고 고창하는 용사”<sup>10)</sup>를 환기하는 무기가 되어 일제를 소멸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 작품은 일본의 식민지 통치를 받는 동북의 학생과 고려 소

9) 소설에서 일본 병사를 '마귀'라 지칭 함

10) 徐韜·夏伯, 「没有祖国的孩子(三幕话剧)·后记」, 『现代文艺』第1卷第3期, 1936年9月20日.

년의 공동한 각성을 부각시켰다. 이러한 각성된 의식과 전투의 정신은 현실에서의 투쟁으로 전화하였으며 함께 적을 무찌르는데 투입하여 최종적으로 승리를 이룩하였다. 또한 결말에서 적의 총에 맞은 골리의 형 이흥이 적을 무찌르러 나간 모든 이들을 바라보면서 끝끝내 아픈 상처를 버티고 일어나는 형상은 희생을 무릅쓰고 적과 맞서 싸우려는 굳은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 즉 조선인들의 굳은 의지에서 더 큰 공명을 얻어 끝까지 싸워나가자는 항절 결의를 보여준다. 바로 이 판본의 결말에서 항전의 고함은 직접적이며 절박하였는데 이는 강렬한 투쟁 정신과 항전승리의 신심을 체현하였다.

수천과 퍼워뤄(破鑼)가 개편한 2막극 「조국이 없는 아이」의 플롯은 원작소설과 비슷한데 결말 부분을 변경하였다. 이 판본의 결말은 소다와가 학생들에게 마지막 수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마지막 수업에서 소다와는 소설과 마찬가지로 골리에게 ‘고려 땅에 조국의 국기를 폼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골리는 솔직하게 ‘나는 조국이 없는 아이’라고 말해 주제와 맞물리고 있다. 그 후 과와 레프와 소다와는 연합 항일을 제기하며 조국의 치욕을 씻고자 하였으며 마지막에 학생들은 “우리 연합하자!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자!”<sup>11)</sup>라는 구호를 외치는 것으로 막을 내린다. 이 연극의 판본은 소설에서 골리가 ‘마귀’(일본인)의 손에 잡히는 비극의 결말을 삭제하여 비극적이고 음울한 기분을 지워버렸다. 바로 학생들이 마지막 수업에서 보여준 각성, 비분, 결기로 결말을 맺었으며 이는 관중들의 애국심과 구국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장치라 하겠다.

### 3) 예술 수법의 차이와 주제 형상화의 효과

「조국이 없는 아이」 세 판본의 스토리 전개에 사용된 예술 수법은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소설 「조국이 없는 아이」는 구조가 독창성을 띠고 있다. 소설은 골리가 조선에서 중국 동북으로 건너오게 된 전부 경위로 작품을 구성한 것이 아니라 ‘몽타주’ 수법으로 일부 부분을 선택하여 이야기 발전의 실마에 따라 자연적으로 잘라서 독자가 짐작하게 하였다. 각 부분 사이의 연계는 자연스럽게

11) 舒群·破鑼, 「没有祖国的孩子」(两幕话剧), 『战时艺术』第2卷第1期, 1938年6月10日.

긴밀하며 가운데에는 교묘하게 몇 단의 회억과 묘사를 삼입하여 전 작품의 구조가 엄밀하면서도 기복이 있게 만들었다.<sup>12)</sup> 예를 들면 소설의 중간 부분에서 골리 형님이 '나에게 "너희 중국 사람처럼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야..."'(608면) 이 한 단락의 의미 깊은 말은 '나'로 하여금 "이 말을 기억하게 하였다." 또한 "병영의 군호가 울릴 때 조국의 국기가 서서히 기발의 최고점에 오를 때 영광에 차 넘친 느낌을 받았다."(609면)고 서술한 후 작가는 필봉을 급히 돌려 시간을 9.18 이후로 전환하여 "하지만 불과 몇일 후 조국의 국기는 기발의 최고점에서 황급히 내려왔는데 다시 올려진 기발은 다른 것으로 변하였다."(609면)고 서술하였다. 기발의 교체라는 거대한 역사적 사건을 아주 짧은 몇 마디 문장으로 간략하게 표현한바, 이는 소설의 절주를 급속히 전개하여 9.18 사변 후의 플롯에 긴장감을 더해 주었다.

소설을 개편한 두 연극은 예술적 처리에서 그러난 공통점은 민요 요소를 넣은 것이다. 3막극의 개막은 골리가 민요를 부르는 것으로 시작하고, 2막극의 개막은 과와레프가 북방민요 「칙룩가」를 부르며 등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두 연극 모두 대중들이 좋아하는 예술형식을 선택하여 관중들과의 거리를 끌어당겼다.

민요의 형성과 전파는 특정한 사회역사적 조건이 부여되는데 본 민족의 역사 기억과 공통한 정감이 누적되어 형성된 것이다. 연극은 민요로 시작하는데 우선 관중들로 하여금 민족 정감 인지의 기초를 다지게 하는데 이로써 관중의 민족 정서를 환기시켰다. 동시에 민요를 넣음으로써 텍스트의 예술표현 형식을 풍부히 하였으며 극본이 연출 시에 민요의 음악적 색채로 말미암아 감화력이 풍부하게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민요의 내용은 극본의 취지에 도움이 된다. 3막 개막에서 부른 민요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소몰이/ 헐벗고 굶주리는 이 신세"라는 내용으로 직접적으로 골리의 비극적 처지를 보여주었으며 "언제면/ 내고향에 갈까/ 한스럽네 /소 떼를 전사마냥/ 채찍이 무기되고/ 나팔로 행진곡 불며/적을 몰아내고/

12) 董兴泉, 「论舒群的文学创作」, 『绥化师专学报』1985年 第2期, p.33.

내 고향 되찾아/목동이 떠돌아 다니지 않길.”<sup>13)</sup>이라는 내용은 골리의 내심을 진실하게 표현한 것이며 ‘조국이 없는 아이’의 투쟁 정신을 보여주었다. 또 2막극 개막에서 부른 민요 「척척가」는 웅장하고 풍요로운 조국 초원을 노래한 것이며 척척 사람들이 고향을 사랑하고 생활을 열애하는 깊은 감정을 보여주었다. 이는 각색자가 과와레프 마음 속의 민족 동질감과 조국에 대한 깊은 열애의 정을 보여주기 위해 특별히 신경을 썼음을 알게 해 준다.

#### 4) 장르적 차이와 시대 수요

세 판본의 차이가 생긴 것은 사회역사적 요인 외에 소설과 연극의 장르적 특성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항전이 전면적으로 시작될 때 정세가 긴박하였는데 문학은 무기로 등장하였고 선전 역할은 전례 없는 위치에 놓여졌다. 1938년 중화전국예술계항전협회의 성립은 문예 영역에 아래와 같은 요구를 제기하였다. “우리는 믿는다. 우리 문예의 힘이 총과 대포와 함께 적에게 향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전선에서 적을 무찌르는 소리는 전 세계의 의분과 흠앙을 일으킬 것이다.”<sup>14)</sup>고 라오서가 말한 것처럼 “정신적 식량은 반드시 모든 참호(塹壕)와 향촌에 전달하여야 한다. 우리는 총과 대포가 적더라도 전투의 정신이 결핍해서는 되지 않는다. 항일전쟁 문학은 전투 정신의 발동기이다.”<sup>15)</sup> 이는 급속하게 변화는 전쟁 시기에 문학은 반드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객관 사실을 반영하여야 하며 선전에 이롭고 투지를 고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항일전쟁의 수요에 의해 문예의 선전 기능과 정치 기능은 더욱이 중요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하지만 당시 중국의 “인구는 비록 많지만 대다수에 처해 있는 것은 농민인데 전인구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사억오천만 인구 중에서 삼억오천만 이상이 시골에서 경작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 “이른바 민중을 조직하고 훈련하여 그들이 주요한 대상이 되게 하는 것이다.”<sup>16)</sup> 이 시기 민중의 문화 수준은 높지 않았으며

13) 徐韜·夏伯, 「没有祖国的孩子」(三幕话剧), 『今代文艺』第1卷第3期, 1936年 9月 20日.

14) 「中华全国文艺界抗敌协会宣言」, 『文艺月刊』1938年 第9期.

15) 老舍, 「文章下乡, 文章入伍」, 『中苏文化月刊』第9卷第1期, 1941年 7月.

16) 磷石, 『怎样才能彻底动员民众』, 南京: 中山文化教育馆, 1938年, pp.1-2.



문맹이 상당수였다. 소설을 열독하고 이해하는 데에는 일정 수준의 문화적 조건이 필요하였는데 그 당시 민중의 수준은 소설을 이해하기에 일정한 거리가 있었다. 하지만 연극은 “현장의 직관성이 있으며 상호교류성과 복제 불가능한 일차 성적 예술을 가지고 있다.”<sup>17)</sup> 바로 이 점에서 연극의 우월성이 나타나는 것인데 바로 직관성과 접수 가능성이다. 사실상, 연극은 항일전쟁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전한이 말한 바와 같이 “항일전쟁 시기, 연극은 항일전쟁을 추동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항일전쟁 발로 후 연극은 항일전쟁을 고무하는 항전의 역할을 하였다.”<sup>18)</sup>

소설 「조국이 없는 아이」는 발표 후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는 수천 자신의 경력 덕분이었다. 특히 그가 ‘조국을 잃은 아이’라는 특정한 역사적 맥락을 착안점으로 잡은 점도 중요하였다. 소설은 독특한 이국 인물 형상을 설정하였는데 이는 보편적인 전시 정감 즉 망국의 설움, 갈 곳 없는 쓸쓸함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와 동시에 이 작품은 모욕 속의 수치감, 분발하여 반항하는 애국 감정을 보여주었는데 이러한 독특한 풍격의 소설구조로 말미암아 전시의 전형적인 단편소설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하지만 이 또한 소설 창작이 가지는 개인적 특성을 반영한다. 소설은 작가의 주관적 염원과 개인적 예술 추구가 창작 과정에서 거대한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소설의 비극적 결말은 당시 잔혹한 사회현실에 대한 진실한 반영이며 소설 플롯의 자연적 발전과 부합된다. 다른 한 방면으로 이는 수천 소설 창작의 개인 예술 선택이며 심미기호의 문학적 표달이다. 소설의 비극적 결말은 독자들로 하여금 골리의 비극적 운명을 통하여 본 민족의 굴욕적, 비극적 미래를 참조하게 하여 독자들을 각성시켜 조국이 없는 혹은 조국을 잃은 사람들의 애국 정감과 투쟁의식을 분발시켰던 것이다.

쉬우토(徐韜)와 샤뱌(夏伯)가 각색한 3막극과 수천과 퍼위뤄(破鏢)가 각색한 2막극은 모두 전시 연극예술의 전형적인 양식이다. 앞에서 이미 말하였다시피 개편한 두 연극 작품의 결말은 원작소설과 다르다. 원작소설의 결말은 비극적

17) 董健·马俊山, 『戏剧艺术十五讲』, 北京: 北京大学出版社, 2004年, pp.22-23.

18) 洪深, 『抗战十年来中国的戏剧运动与教育』, 北京: 中华书局, 1948年, pp.4-5.

의미가 다분하며 골리가 끝내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하지만 두 연극은 결말에서 모두 원작의 비극적 결말을 포기하고 항전의 납함으로 변화시켜 낙관적 색채가 다분한데 이는 전시 현실이 예술에 요구한 결과로 간주할 수 있다. “연극과 소설은 부동한 장르로서 부동한 예술 규정성과 기본 풍격이 있다.”<sup>19)</sup>는 지적대로 연극은 현실 요소를 고려해야 할 부분이 아주 많았고, 전시 연극은 민중을 동원하는 임무, 항일전쟁을 선전하는 중임을 맡고 있었다. 민중의 이해 능력, 연극을 감상하는 심리, 심미 취향 등은 모두 극본 창작 시에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이었다. 극작가 혹은 감독은 극본을 창작할 때 이미 연극이 상영한 후의 효과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관중의 심미취향과 접수정도를 창작의 고려범위에 넣어야 하였다.

하지만 전시 연극의 동원 대상은 장기간 향촌에서 살아온 평범한 농민들이었다. 이러한 농민들의 문화 수준은 보편적으로 낮았기에 전시 연극의 언어는 상대적으로 직설적이고 간단하고 많이는 구호식의 선언과 외침으로 처리해야만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다른 방면으로 볼 때 중국 민중 특히는 향촌의 관중들이 전에 관람했던 연극은 민간희곡인데 이러한 민간희곡은 대단원의 결말이라는 보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민간희곡을 향유한 민중들은 연극에 대한 고정적 심미 심리가 존재한바 그것은 대단원의 심리이다. 따라서 수천의 소설을 각색한 두 연극작품은 원작소설의 비극적 결말을 개변하여 승리를 부르짖거나 모두 함께 격양된 고향을 지르는 것이었다. 이는 관중의 관람 심리와 심미 취향에 부합되며 전시 연극을 통해 사회적 동원에 기여할 수 있으며 정치 선전을 통해 항전이 군중들 속에서의 영향을 확대할 수 있었다. 물론 극본이 격양된 외침으로 끝을 맺은 것은 관중들의 애국 열정과 저항 의지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이며 관중들이 연극을 볼 때 알게 모르게 정서의 감염을 받게 되는 것이다. “바로 극장내의 심리적 동화가 이루어지며 감상자로 하여금 거대하고 격렬한 정신적 자극을 산생하게 한다. 게다가 집단적으로 쉽게 그 속에 몰들게 하며 현실적 행동에 옮기게 할 수도 있다”<sup>20)</sup> 그렇기 때문에 연극예술은 독특한 감화력을

19) 陈军, 「论戏剧与小说的文体区别及沟通」, 『戏剧文学』2005年 第12期, pp.83-84.

가지고 있으며 거대한 정치적 고무의 작용을 일으킨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소설이 단일한 언어예술이라면 연극은 “여러 예술이 한데 종합된 형식”<sup>21)</sup>이라는 점도 소설 「조국이 없는 아이」와 각색된 연극 사이의 차이를 발생시켰다. 각색된 연극에 민요의 삽입은 한 방면으로는 연극예술이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 특점을 이용한 것이다. 다른 한 방면으로는 연출 시 배우가 직접 관중을 대면하여 무대에서 민족 정감과 역사적 기억이 다분한 노래를 함으로써 무대 아래 관중들이 즉각 정감 공명을 산생하여 정치적 선전과 사회동원의 작용을 발휘할 수 있게 해준다. 민요 등 민족 전통예술의 형식을 응용하여 항일전쟁의 선전사업을 강조하는 것은 문학의 대중화, 통속화를 이룰 수 있으며 훗날 항일전쟁 시기 보편적으로 사용된 문학창작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 4. 「조국이 없는 아이」 세 판본의 심미 가치와 정치적 지향

「조국이 없는 아이」세 판본은 전면항전을 시작하기 전과 후라는 시대적 배경의 차이를 갖고 있으며 나아가 인물설정, 작품의 지향점, 예술기법 등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로 말미암아 세 판본의 심미가치와 정치적 지향도 차이를 나타낸다. 바로 소설과 연극의 차이로 말미암아 생기는 심미가치의 차이와 항전 서사라는 문학의 정치적 지향도 나타낸다.

##### 1) 「조국이 없는 아이」 세 판본의 심미가치

미학의 관점으로 볼 때 소설 「조국이 없는 아이」는 동명의 극본과 비교했을 때 비극 정신을 내포하고 있다. 비극 정신은 “역사적 낙관주의와 역사적 비관주의의 통일체이다.” “그것이 역사적 낙관주의의 내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역사적 필연성의 제약 때문이다. 생명의 주체는 자신과 현실의 항거가 역사발전의 필연적 추세와 맞물린다고 믿고 있으며 역사적 정의성을 가진다고 본다. 또한 비극

20) 陈咏芹, 「论中国现代话剧作家的政治思维定势」, 『社会科学辑刊』 1998年第6期, pp.138-139.

21) 董健·马俊山, 『戏剧艺术十五讲』, pp.16-17.

정신을 선양해야만 생명을 피어나게 할 수 있으며 양양된 실천 활력을 가질 수 있다. 그것은 역사적 비관주의가 가지고 있는 것은 생명 주체가 필연 왕국으로부터 자유 왕국으로의 역사적 경과를 명확하게 의식하였기 때문이다. 인류의 어떠한 실천 활동도 모두 이 역사적 필연성의 한계를 돌파할 수 없다.”<sup>22)</sup> 이처럼 생명 주체는 한 방향으로 역사적 필연성의 제약을 피면할 수 없으며 다른 한 방면으로는 부단히 현실과 항쟁하여 자신의 역사 정의성을 확정한다. 동시에 생명 주체는 또 명확하게 역사적 필연성의 불가피성도 의식하게 된다. 이러한 포위 속에서 하는 항쟁은 실패를 동반할 수 있으며 실천 과정 중에서 비극 정신이 생기게 된다. 소설 「조국이 없는 아이」에서 가장 비극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조선인 소년 폴리이다. 폴리는 조국을 잃고 하늘 같은 아버지도 잃었다. 어머니와 고향을 등지고 타국에서 떠돌아다니는데 삶은 무고한 이 소년에게 끝나지 않는 고통을 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역경 속에서도 그는 생의 희망을 잃지 않고 세상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에 대해 “斯巴細”(Спасибо)<sup>23)</sup>라고 인사드렸다. 그는 감사한 마음을 항상 품고 있으며 소박하고 본분을 지키는데 “소의 주인이 소 발굽을 더럽히면 되지 않는다.”(605면)하니 소 발굽의 흙탕물을 닦아주었다. 그는 선량하고 재치가 충만한데 과와레프와 친구들에게 아름다운 야생화를 선물하였다. 이렇게 전쟁의 상처로 가득하고 생활의 아픔을 맞는 소년이지만 아픔을 참고 온화함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마귀’의 존재는 조선이나 동북에서 폴리가 안정한 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든다. 만약 그전에 천진함을 가지고 있던 폴리가 위축되고 참았다면 또다시 일본 침략자들에게 능욕당할 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폴리는 복수를 결심하였다. ‘마귀’의 가슴에 칼을 꽂 찢른 폴리는 자신의 생사를 도외시하였고 투쟁만이 유일한 출로라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개인의 미약한 힘으로 잔혹하고 커다란 침략자와 대항할 수 없었다. 폴리는 끝내 ‘마귀’의 손에 잡혀가고 말았다. 폴리의 생존 궤적은 일종의 침울하

22) 陈咏芹, 「政治思维定势与中国现代话剧的悲剧精神」, 『戏剧艺术』 1997年 第3期, pp.71-72.

23) 러시아어, 고맙다는 뜻

고 도망갈 곳 없는 비극적 상황이다. 그는 포위되고 온화한 대항을 하지만 곱절로 능욕을 당하자 격렬한 반항을 하지만 끝내 실패하고 만다. 더욱 감동을 주는 것은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겪지만 소년 골리는 시종 선량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소설 말미에 골리가 '마귀'에게 잡혔을 때 '나'를 보호하기 위해 주동적으로 "나는 고려인이고 저 아이는 아니다."(615면)라고 말하였다. 이는 '마귀'들이 '나'를 놓아주기 바라는 마음이었다. 이외에 그는 자신이 고려인이라는 것에 대한 강한 긍정 의식도 보인다. 이렇게 선량하고 온화한 인간이 침략자들에게 부서짐으로써 '조국이 없는 아이'의 운명에 내포한 비극적 역량을 알게 한다.

“역사적 낙관주의와 역사적 비관주의는 비극 정신을 구성하는 두 개 날개이다. 그들은 상호적으로 상대방의 존재를 자신 존재의 전제로 하는데 단독적으로 그중의 한 방면을 뽑아내고 다른 한 방면을 보류하는 것은 비극 정신의 기본적인 내함을 뽑아 버린 것과 같다.”<sup>24)</sup> 두 판본의 연극 「조국이 없는 아이」는 모두 원작 소설의 결말을 고쳤다. 2막극 연극에서는 소와다가 학생들에게 마지막 수업을 하는 것으로 끝냈는데 학생들의 입을 통해 “우리 연합합시다!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합시다!”<sup>25)</sup>라는 구호를 외치었다. 3막극 연극은 골리와 동철중학의 모든 학생들이 항일 의용군에 가입하여 함께 일본 침략자를 박멸하였다. 두 연극 작품에서 골리의 비극운명은 새롭게 각색되었는데 이는 항일전쟁의 길이 보기에 무탈해 보이지만 역사적 비관주의의 한 날개를 뽑아 버린 것이며 그 대신 역사적 낙관주의를 넣은 것인바 이로써 비극 정신이 해소되었다.

## 2) 「조국이 없는 아이」세 판본의 정치적 지향

중국은 자고로 '문이재도'를 주장하였는데 특히 지식분자들은 문학의 사회적 교화 작용을 중시한다. 이러한 문학창작 관념의 영향 하 근현대 중국의 내우외

24) 陈咏芹, 「政治思维定势与中国现代话剧的悲剧精神」, 『戏剧艺术』1997年第3期, pp.81-82.

25) 舒群、破锣, 「没有祖国的孩子」(两幕话剧), 『战时艺术』第2卷第1期, 1938年6月10日.

환의 현실로 말미암아 문학과 정치 사이에는 밀접한 연계를 가지게 되었다. 1938년 3월 27일 성립한 ‘중화전국문예항적협회(中华全国文艺界抗敌协会)’는 문학이 정치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한다. 전면 항전의 환경에서 “예술효과는 정치활동에 양위하고 정치적 기능을 더 한층 돌출하게 해야 한다.”<sup>26)</sup>는 점을 쉽게 보아낼 수 있다. 또한 전시 수요에 따라 연극을 포함한 문예의 선전교육 기능은 정치적 실용 지위에 올라갔다. 이는 잔혹한 전쟁이 문예에 대한 선택과 규정이며 문예의 심미 가치는 응당한 중시를 받지 못하였다. 연극은 직관적 표현으로 선동, 선전에 적합하기에 정치 상황과 매우 밀접한데 이 또한 항일전쟁 시기에 예술적으로 성숙된 연극작품이 적은 중요한 원인이었다.

두 판본의 연극 「조국이 없는 아이」는 모두 “문예는 항일전쟁을 위해 복무한다.”는 구호를 체현하였다. 3막극 연극에서 중국인 학생들이 자유에 대한 논쟁을 진행하는데 현실은 그들로 하여금 일본군의 침략 하 그들의 ‘자유는 완전히 잃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이에 그들은 항일의용군에 가입하여 함께 적을 무찌르고 승리하기에 이르렀다. 극본의 제3막은 각색자가 보충한 것인데 이는 당시 국난시기 민중들의 항일전쟁 의식을 고무하기 위한 것으로 명실상부한 항전 선전극이다. 2막 극의 플롯은 원작과 대체적으로 비슷한데 단지 결말에 차이가 있는데 바로 비극을 격양된 구호로 바꾸었다. 두 판본의 각색 의도는 아주 명확한데 바로 원작의 기초 상에서 정치적 고무와 항전의 선전을 위해 노력한 결과였다. 3막극의 결말은 직접 “우리는 모든 적을 살해하고야 말 것이다. …… 적의 가슴을 겨누고……무찌르자! 무찌르자!”<sup>27)</sup>로 2막극에서 중학생들은 “우리는 일본 침략자를 타도하자!”<sup>28)</sup>고 고했다. 소설은 인물의 운명으로 국민을 각성시켜 저항하게 했다면 2편의 연극은 인물의 입을 통해 항전의 구호를 외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연극에 등장하는 인물의 행동으로 직접 인민대중에게 행동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두 판본의 연극 「조국이 없는 아이」는 모두 간결한 스토리, 직설적인 언어,

26) 王廷军, 「戏剧与抗战时期的社会动员」, 『社会科学战线』2011年第10期, pp.263-264.

27) 徐韬·夏伯, 「没有祖国的孩子」(三幕话剧), 『今代文艺』第1卷第3期, 1936年9月20日.

28) 舒群·破锣, 「没有祖国的孩子」(两幕话剧), 『战时艺术』第2卷第1期, 1938年6月10日.

격양된 열정을 보유하고 있다. 연극은 무대 예술 언어를 통하여 애국정신, 항전의지를 동북 나아가 전국 각지에 전파했으며 잠들어 있는 민중들을 깨워 항전에 참가하게 하였다. 이러한 항전 현실에서 출발한 실용정신은 많은 작가의 창작 열정을 불러일으켰으며 이것은 훗날 항전연극이 계속 발전하여 성숙으로 나아가는 동력의 하나가 되었다. “30년대 연극 문학의 탁월한 성과는 이후 중국 현대연극 발전에 견실한 기초를 닦았으며 40년대 중국연극의 황금 년대를 예시하였다.”<sup>29)</sup> 이와 동시에 항전 초기 문예창작에서 특히 연극은 정치선전과 사상교육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추구하여 언어가 간결하고 거칠며 구호 식을 많이 사용하였다. 또한 천편일률의 스토리를 장착하였고 고착된 모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설교적 색채가 분명하였다. 일정한 정도에서 볼 때 문학의 심미성과 미학적 가치가 크게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볼 때 우리는 소설 「조국이 없는 아이」와 이것을 각색한 두 판본의 동명 연극이 인물 배치, 스토리 설정과 예술 처리에서 부동한 부분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전시의 기능성에 원인이 있으며 소설과 연극의 차이도 말할 수 있다. 이로 말미암아 세 판본의 심미 가치가 서로 부동한데 원작 소설이나 개편된 연극이나 할 것 없이 모두 조선인 유랑아동 골리를 주인공으로 설정하였고 골리는 ‘조국이 없는 아이’의 구체적 모습이다. 골리의 조국 조선은 일본제국주의에 강점당하였고 살길을 찾아 헤매다 중국에 오게 되었는데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방목하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한다. ‘조국이 없는 아이’ 골리는 망국노이기에 갈 곳이 없이 타국에서 유랑하고 다닐 학교가 없기에 방목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망국과 부모를 잃은 비극적인 운명 아래 타국인으로부터의 멸시와 조소를 받는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참고 구차하게 살아남지만 9.18 사변 후에 동북이 함락되면서 골리는 또 다시 ‘마귀’의 손에 들어가 모욕과 참혹한 매질은 당했다. 이에 골리는 ‘조국이 없는 아이’에게 미래는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다. 루선의 말처럼 “침묵 속에서 폭발하지 않으면 침묵 속에서 멸망한다.”<sup>30)</sup>고 최후의 반항이 비극이나 정극할 것 없이

29) 陈白尘·董健, 『中国现代戏剧史稿』, 北京: 中国戏剧出版社, 1989年, pp.314-315.

전시에 계시적 의의를 가진다. 때문에 세 개 텍스트는 결과가 다르지만 모두 골리의 최후의 반항을 충분히 긍정하였다.

## 5. 결론

이 논문은 수천의 「조국이 없는 아이」와 이를 각색한 극본 「조국이 없는 아이」(1936년)와 「조국이 없는 아이」(1938년) 두 편을 비교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이들 작품은 모두 골리라는 조선인 소년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조선 민족의 타자로서 중국 동북 내지 전체 중국의 미래를 비쳐 볼 수 있었다. 골리의 형상은 중국 민중들에게 ‘조국’을 인식하게 함에 있어서 추상적이고 허무한 개념이 아닌 일종의 구체적 생활과 정감의 귀속으로 인식하게 한다. 골리라는 ‘조국이 없는 아이’의 운명은 중국 민중들에게 ‘조국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동정과 ‘조국’의 의미를 깊이 새기고 이해하여 자신들로 하여금 외래 침략에 맞서 견결하게 항전할 결심을 북돋아 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조국이 없는 아이들」 세 판본의 시대적 배경을 볼 때 전면 항전 전후라는 차이를 가지고 있다. 또한 소설에서 연극으로 평면에서 입체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예술적 차이도 가지고 있다. 소설과 2막극은 전면 항전 이전에 발표된 작품이고 3막극은 전면 항전 이후에 발표된 작품이다. 세 예술형식 모두 전시문학이라는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예술이 항전에 대한 기여를 기반에 두고 있다.

하지만 세 판본은 인물 배치, 결말 구조, 예술 수법, 장르 등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인물 배치에서 3막극에 대거 등장된 중국인 인물, 골리 형에게 부여된 이름 이 모든 것은 항전 문학으로서의 선동성을 충분히 극대화하기 위한 장치이다. 또한 결말 부분에서 소설과 달리 2막극과 3막극은 모두 비극으로 끝맺은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각성, 비분, 결기로 결말을 맺었는데 이는 관중들의 애국 격정과 구국 열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소설에서 보여준 ‘몽타주’

30) 鲁迅, 「纪念刘和珍君」, 『鲁迅杂文选』, 武汉:长江文艺出版社, 2005年, p.165.



수법은 문자 예술로서의 매력을 보여주었다면 두 판본의 연극은 민요로서 관중들을 매료하였다. 소설과 연극이라는 장르적 차이로 말미암아 대단원 결말의 필요성도 나타났다. 세 판본의 심미적 가치를 살펴볼 때 소설은 예술의 비극 정신을 투철하게 보여준 반면 2막극과 3막극은 역사적 낙관주의로 결말을 맺었다. 세 판본은 결과가 다르지만 모두 골리가 보여준 최후의 저항을 충분히 긍정하였다.

세 판본 모두 타자라는 독특한 시각에서 골리라는 '조국이 없는 아이'를 내세워 민족, 국가, 시대가 문학에 대한 수요를 뚜렷하게 반향(反響)하였다. 문학이 보편적으로 전쟁의 잔혹함을 묘사하고 국민적 근심과 계급적 압박 등을 파헤칠 때 세 텍스트는 여러 가지 범식에서 남다른 형태를 보여 항전 문학의 서사 시각을 풍부히 하였다. 이러한 항전 문학 서사는 중국 국난서사의 한 단면을 보여주었으며 나아가 타자의 시각으로 국난이라는 항전서사를 풀어낸 것은 세계 반파시즘 문학의 역사에서 볼 때 세계적 의의를 가진다.

## ◆ 참고문헌

### 1. 자료

- 舒群, 「没有祖国的孩子」, 『文学』第6卷 第5期, 1936年 5月 1日.  
徐韬·夏伯, 「没有祖国的孩子」(三幕话剧), 『现代文艺』第1卷 第3期, 1936年 9月 20日.  
舒群·破锣, 「没有祖国的孩子」(两幕话剧), 『战时艺术』第2卷 第1期, 1938年 6月 10日.

### 2. 단행본

- 「中华全国文艺界抗敌协会宣言」, 『文艺月刊』1938年 第9期.  
磷石, 『怎样才能彻底动员民众』, 南京: 中山文化教育馆, 1938年.  
洪深, 『抗战十年来中国的戏剧运动与教育』, 北京: 中华书局, 1948年.  
董健·马俊山, 『戏剧艺术十五讲』, 北京: 北京大学出版社, 2004年.  
陈白尘·董健, 『中国现代戏剧史稿』, 北京: 中国戏剧出版社, 1989年.  
鲁迅, 「纪念刘和珍君」, 『鲁迅杂文选』, 武汉: 长江文艺出版社, 2005年.

### 3. 논문

하목·고명철, 「수련(舒群)의 「조국이 없는 아이」의 주인공 골리(果里)의 저항 양상」, 『한민족문화연구』, 2021, pp.81-110.

이강인, 「수련(舒群)의 「조국 없는 아이(沒有祖國的孩子)」에 나타난 ‘공간’에 대한 푸코적 해석」, 『중국학』, 2021, pp.507-522.

박정태, 「수련(舒群) 초기 소설의 조선인 인물 형상 고찰-『조국이 없는 아이(沒有祖國的孩子)』, 『이웃(隣家)』을 중심으로」, 『한중언어문화연구』, 2021, pp.303-325.

黄万华, 「国家认同和世界意识：东北抗日戏剧的新解读」, 『社会科学辑刊』, 2017年 第2期, p.162.

罗罗, 「送一九二〇年」, 『东方杂志』 第1卷 第24号, 1920年 12月 25日.

董兴泉, 「论舒群的文学创作」, 『绥化师专学报』 1985年 第2期, p.33, p.35.

老舍, 「文章下乡, 文章入伍」, 『中苏文化月刊』 第9卷 第1期, 1941年 7月.

陈军, 「论戏剧与小说的文体区别及沟通」, 『戏剧文学』 2005年 第12期, pp.83-84.

陈咏芹, 「论中国现代话剧作家的政治思维定势」, 『社会科学辑刊』 1998年 第6期, pp.138-139.

陈咏芹, 「政治思维定势与中国现代话剧的悲剧精神」, 『戏剧艺术』 1997年 第3期, pp.71-72, pp.81-82.

王廷军, 「戏剧与抗战时期的社会动员」, 『社会科学战线』 2011年 第10期, pp.263-264.

논문접수일	2022년 11월 09일
심사완료일	2022년 11월 27일
게재확정일	2022년 12월 08일

*Abstract*

---

Narration of the “September 18th” National Disaster  
from the Perspective of Others

- A Comparative Study on the Three Texts of “Children Without a Country” -

An, Haishu · Feng, hao

A Child Without Motherland is a story by Shu Qun. It attracted a lot of comments when it was first published in May 1936. Then, The novel was adapted two times as a play of the same name in September 1936 and June 1938. The three versions of A Children without Motherland have changed in the arrangement of characters and plot arrangement, and show different forms in political consciousness and aesthetic value. However, the three versions all keep the character of a Korean-Chinese child named Lili as an image of the other. The narration of national disaster from the perspective of the other members of a Korean ethnic child had really responded to the needs of the nation, state and times for literature. This kind of narration is unique among the many forms that generally describe the cruelty of war and fire, the worries of the citizens and the pressure of the class. It also riches the perspective of the resistance literature.

**Keyword** A Child Without Motherland, a narration of national disaster, Korea, story, drama



## 의암 유인석의 청렴사상 연구

전진동\*

### 국문요약

毅菴 柳麟錫은 조선 후기인 1842년 강원도 춘천에서 출생하였다. 일찍이 조선 후기 主理哲學 3대가의 한사람인 華西 李恒老의 문하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유학을 배웠다. 그리고 대혼란의 시기에 오직 백성과 나라를 구하겠다는 大義를 위해 자신의 몸을 바쳤다. 유학자로서 항일의병을 이끈 의병장이며,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가로 활동한 것이다. 서양의 침략에 맞서 위정척사 운동을 전개하고 일본이 침략해 들어오자 항일 의병운동과 독립운동에 헌신하느라 자신과 가족조차 제대로 돌볼 시간이 없었다. 스승과 마찬가지로 과거시험을 통해 벼슬길에 오르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공직자가 아님에도 공직자의 핵심 덕목인 청렴성만큼은 남달랐다. 그렇지만 그의 청렴사상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다. 그래서 그의 청렴사상을 구체적으로 조명해볼 가치가 있는 것이다.

청렴은 ‘성품이 고결하고 탐욕이 없음’을 뜻한다. 조선시대에는 ‘청렴결백한 관리’를 뜻하는 清白吏를 선발하였다. 청백리가 갖춰야 할 조건은 많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이 忠誠, 清白, 勤儉, 敬孝, 厚德, 仁義다. 유인석의 삶을 조명해보면 이 모든 것을 갖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그의 청렴사상은 효도[孝], 사람다움[仁], 충성[忠], 검소[儉]로 요약할 수 있다. 그의 청렴사상은 實谷 李弼熙, 己千 李鎭龍, 湖隱 全德元 등 그의 제자들이 독립운동의 주역으로 성장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는 비록 조선의 독립을 보지 못하고 1915년 서거하였지만, 우리 국민들의 정신 속에 살아숨쉬면서 춘천에 세워진 의암유인석기념관이라는 곳에서 지금도 공직자는 물론 학생, 군인 등 신분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청렴사상을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유인석의 청렴사상이 아직도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것이다. 그의 청렴사상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좀 더 공정해지고 깨끗해지고 있다.

**주제어** 柳麟錫, 청렴, 忠, 孝, 仁, 儉, 의병, 독립운동

\* 강원대학교 철학과 박사과정

## 〈목 차〉

1. 서론
2. 청렴사상의 현대적 해석
3. 효도[孝]의 청렴사상
4. 사람다움[仁]의 청렴사상
5. 충성[忠]의 청렴사상
6. 검소한 생활[儉]의 청렴사상
7. 전망과 의의

## 1. 서론

毅菴 柳麟錫(1842년-1915년)은 조선 후기 유학자이면서 항일의병을 이끈 의병장이며,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가로 활동하였다. 우리나라 유학사와 항일의병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겼다. 1842년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가정리에서 柳重坤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세도정치의 혼란기를 겪었으며 서양과 일본이 침략해 들어오는 구한말과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격변의 시기를 살았다. 일찍이 조선 후기 主理哲學 3대가의 한사람인 華西 李恒老(1792년-1868년)<sup>1)</sup>의 문하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유학을 배웠다. 체계적으로 유학을 익혔기 때문에 조정에서 주취하는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음에도 스승인 이항로와 마찬가지로 과거에 응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벼슬길에 나가지는 않았지만, 이항로가 형성한 화서학파의 대표인물로 부상하였고 을미사변<sup>2)</sup>과 단발령을 계기로 을미의병이 일어나자 여러 문인들의 추대로 의병장이 되었다. 그는 유학자로서 학문이나 명성이 退溪 李滉, 栗谷 李珥, 尤菴 宋時烈과 같은 조선을 대표하는 巨儒들에게 결코 뒤지지 않았고,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으로 활동

1) 이항로는 경기도 양평 출신으로 호남의 奇正鑑, 영남의 李震相과 함께 조선 후기 主理哲學의 3대 학자다. 그가 주장한 心專主理論은 조선 후기 위정척사론의 사상적 기초가 되고, 독립운동의 정신적 기반이 되었다. 『華西集』, 『華東史合編綱目』 등을 저술.

2) 1895년 8월 20일 명성황후가 조선 주재 일본 공사 미우라 고로[三浦梧樓]에 의해 시해되는 사건.

한 忘憂堂 郭再祐, 重峯 趙憲과 같은 유학자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유인석은 서양과 일본이 침략해 들어오는 격변의 시기에 항일 의병운동과 독립운동에 헌신하느라 벼슬을 할 여유가 없었고, 자신과 가족을 제대로 돌볼 시간조차 없었다. 조정의 신하나 관리는 아니었지만, 공직자의 핵심 요건인 청렴성만큼은 남달랐다. 이는 그의 여러 가지 저술과 평가, 남겨진 일화 등에 분명히 나타난다. 그는 평생 재물이나 뇌물 등 금전적인 것에서부터 벼슬, 여자, 술, 옷 등 외적인 것과 관계되는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지 않았다. 소문조차 없었다. 이는 어릴 때부터 조부를 거쳐 이항로 및 문우이자 스승인 重菴 金平默, 省齋 柳重教에게서 철저히 유학을 배우고, 그 자신도 올곧은 생활을 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형성된 그의 청림사상은 實谷 李弼熙(1857년-1900년)<sup>3)</sup>, 己千 李鎭龍(1879년-1918년)<sup>4)</sup>, 湖隱 全德元(1871년-1940년)<sup>5)</sup> 등 그가 길러낸 제자들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주었다. 그의 제자들은 자기 몸과 가족을 돌보지 않고 항일 독립운동과 의암의 유학사상 전파에 헌신하였다.

이렇게 그의 청림사상이 조선 후기 정치와 사회 전반에 많은 영향을 끼쳤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그가 중앙의 관리가 아니거나 주활동지역이 지방이라는 이유로 그것을 외면한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또한, 그가 강경한 위정척사 운동을 주도하여 근대화를 지연시켰다는 이유로 그의 청림사상을 외면하는 것은 민족의 위대한 유산을 사장시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조선 시대 청백리의 청림사상에 대한 연구는 많이 나와 있고, 지금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청백리는 ‘청렴결백한 관리’를 뜻한다. 『典故大方』<sup>6)</sup>이라는 문헌에

- 
- 3) 이필희는 유종교의 문하에 들어가 尊華攘夷의 정신을 배웠다. 1893년 유종교 사후에는 유인석을 스승으로 섬겼다. 을미의병 등 각종 의병운동에 참여하였다.
  - 4) 이진룡은 유인석의 문인이 된 뒤 1907년 황해도에서 의병을 일으켜 일본군과 여러 차례 교전하였다. 1909년 연해주로 망명하여 유인석과 합류한 후 연해주와 국내를 왕래하며 일본군을 상대로 게릴라전을 벌였다. 서간도에서 포수단을 조직하고 독립군 양성에 주력했다. 1917년 만주 寬甸縣에서 일본에 체포된 뒤 1918년 교수형에 처해졌다.
  - 5) 전덕원은 1905년 을사조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상소를 올렸고, 황주에서 의병활동을 벌였다. 이후 연해주로 망명한 뒤 유인석과 독립운동을 피하다 1919년 대한독립단을 결성하고 군사부장을 역임하였다. 1922년 만주에 있는 여러 독립운동단체를 통합하여 대한통군부를 조직하고 재무부장을 역임하였다. 1943년 옥사하였다.

의하면, 조선시대를 통틀어 청백리는 218명 정도 된다고 한다. 2-3년에 한명씩 나올 만큼 청백리가 되기는 어려웠다. 오죽했으면 정승이 되는 것보다 청백리가 되는 것이 더 어려웠다고 한다. 청백리의 조건은 까다로웠다. 이에 선발되기 위해서는 忠誠, 清白, 勤儉, 敬孝, 厚德, 仁義 등을 갖추어야 했다.

청백리들이 불문율로 삼았던 ‘四不三拒’라는 원칙이 있다. ‘四不’은 절대로 행하지 말아야 할 네 가지를 뜻한다. 부업을 하지 않을 것, 땅을 사지 않을 것, 집을 늘리지 않을 것, 부모의 명산물을 먹지 않을 것을 말한다. ‘三拒’는 꼭 거절해야 할 세 가지로 윗사람의 부당한 요구, 請을 들어준 것에 대한 답례, 자신의 경조사 부조다. 유인석의 평생의 삶을 고려해보면 四不三拒 원칙을 철저히 지켰음에 틀림없다. 이렇게 유학자이면서 의병장이었던 그의 삶을 조명해보는 것 자체가 의미가 크지만, 본 논문에서는 조선시대 공직자가 아니었음에도 청백리에 못지않은 삶을 살았던 유인석의 청렴사상에 초점을 맞춰 그것을 조명해보는 것이다.

## 2. 청렴사상의 현대적 해석

청렴은 현대의 공직자에게 있어 갖추어야 할 첫 번째 덕목이다. 실로 그런 만큼 청렴은 고대부터 중국의 여러 성현들이 중요하다고 역설하였다. 孟子는 “자기 것으로 취해도 될 것 같지만 실은 취해서는 안 되는 경우인데 취한다면 청렴을 해치게 된다.”<sup>7)</sup>라고 하였다. 이 발언을 한 계기나 상황이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맹자의 의도는 정당한 대가 없이 어떤 벼슬이나 물질적인 것을 얻으면 그것은 청렴을 해친다는 것이다. 또한, 管子(BC725년-BC645년)<sup>8)</sup>는 “백성이 작은 예

6) 일제강점기 강효석이라는 학자가 우리나라 역대 인물에 대한 전거를 밝혀 1924년에 간행한 전기.

7) “孟子曰, 可以取, 可以無取, 取傷廉.” 맹자 지음, 박경환 옮김, 『맹자』, 홍익출판사, 2012, pp.234-235.

8) 중국 춘추시대 齊나라의 정치가·사상가. 이름은 仲, 字는 夷吾이며 흔히 管子라고 불린다. 춘추시대의 춘추오패중 첫 패자인 齊桓公을 보필하였으며, 절정의 우정을 일컫는 사자성어 管鮑之交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절도 닦고, 작은 의리도 행하고, 작은 청렴도 갖추고, 작은 수치심도 지키고, 아주 작은 속임수도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이다.”<sup>9)</sup>라고 하였다.<sup>10)</sup> 이는 관자가 강조한 네 가지 근본인 禮義廉恥와 관계되는 말로 일반 백성이라도 청렴을 갖추야 함을 강조한 말이다. 그는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牧民者], 즉 茶山 丁若鏞이 말하는 목민관은 백성이 청렴하기를 바라는데 백성이 청렴하도록 하려면 아주 작은 청렴이라도 닦지 않으면 안 된다고도 주장하였다.<sup>11)</sup> 본인이 청렴하지 않다면 아예 백성을 다스릴 생각을 버리라는 이야기이다. 오늘날 공직자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정말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중국 성현들의 청렴에 대한 생각과 비교하여 『牧民心書』를 살펴보면 청렴에 대한 뜻이 더욱 명확해진다. 정약용은 목민관의 직무수행능력보다 ‘청렴’을 매우 부각하였다. 『목민심서』의 핵심이 청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孔子가 仁을 최상의 목표로 삼았다면, 정약용은 청렴을 최상의 목표로 삼았다. 그래서 『목민심서』에는 “주색을 멀리하고 풍악을 물리쳐서 단정하고 위엄 있기를 큰 제사 받들 듯할 것이요, 마구 향락에 빠져 방탕하게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sup>12)</sup>, “청렴이란 수령의 본래의 직무로서 모든 善의 원천이며 모든 德의 근본이다. 청렴하지 않고서 능히 수령 노릇을 잘할 수 있는 자는 없다.”<sup>13)</sup>, “청렴은 천하의 큰 장사이다. 욕심이 큰 사람은 반드시 청렴하려 한다. 사람이 청렴하지 못한 것은 그의 지혜가 짧기 때문이다.”<sup>14)</sup>, “예로부터 지혜가 깊은 선비는 청렴을 교훈으로 삼고, 탐욕을 경계했다.”<sup>15)</sup>, “수령이 청렴하지 않으면 백성들은 그를 도적으로 지목하여 마을을 지날 때에 더럽다고 욕하는 소리가 높을 것이니, 이 역

9) 김필수·고대혁·장승구·신창호 함께 옮김, 『관자』, 소나무, 2012, p.55.

10) 『관자』를 인용하는 이유는 유인석이 “만약 齊桓公·秦穆公에게 管仲·百里奚가 있었던 것처럼 훌륭한 사람을 얻어 전임시키면 일이 안정되어 이루어질 것이다.”라며 관자를 훌륭한 사람으로 평가하였기 때문이다.(저자註)

11) 김필수·고대혁·장승구·신창호 함께 옮김, 앞의 책, p.55.

12) 정약용 지음, 다산연구회 편역, 『정선 목민심서』, 창비, 2021, p.58.

13) 위의 책, p.61.

14) 위의 책, p.63.

15) 위의 책, p.64.

시 수치스러운 일이다.”<sup>16)</sup> 등 청렴에 대한 내용이 자주 등장한다. 이 모든 청렴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외면할 수 없다. 청렴이 모든 목민관에게 있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목민심서』로 미뤄 보건데 정약용은 당시 조선이 처한 매관매직과 부정부패 만연 등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공직자의 직무수행 능력보다 청렴을 우선시한 것이다.

청렴은 사전적인 의미도 ‘성품이 고결하고 탐욕이 없음’을 뜻한다. 이러한 단어의 뜻을 생각해볼 때 유인석은 정말 성품이 고결하고 재물에 욕심이 없는 청렴한 선비였다고 할 수 있다. 그의 평생의 삶을 통해 짐작해본다면 벼슬을 맡았다고 하더라도 그의 청렴한 삶의 방식과 청렴에 대한 가치관은 변함이 없었을 것이다. 그에게서 공직자의 핵심 요건인 청렴함을 찾는 명확한 이유가 있다. 그는 조선 후기와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어수선하고 힘든 시기에 태어났지만 평생 청렴사상을 실천했기 때문이다.

그가 태어나서 살았던 시대는 조선 후기로 세도정치가 60여년간 계속되어 나라가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제대로 된 정치가 실종되고 科擧·稅政·軍役 등 국가의 모든 시스템이 붕괴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1863년 흥선대원군은 집권하자마자 아들인 고종을 왕위에 앉혔다. 이로써 장기간 계속되었던 세도정치가 종식되었지만, 조선은 여전히 정치적으로 어수선한 상황이 계속되었다. 매관매직이 성행하였고, 벼슬아치들의 苛斂誅求로 인해 백성들은 도탄에 빠졌다. 게다가 서양과 일본의 침략까지 더해져 조선은 內憂外患에 시달리고 있었다. 조정의 위정자들부터가 백성들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朱子는 도둑질하는 신하를 들지언정 聚斂하는 신하를 기르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聚斂’이라는 말은 재물을 탐내어 마구 거두어들인다는 의미로 백성들에게 세금과 뇌물을 마구 쥐어짤다는 것이다. 조선 후기에는 죽은 사람에게도 세금을 거두는가 하면, 도망간 사람의 세금을 남아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였다. 당연히 백성들의 생활은 피폐해지고 전국을 떠도는 유랑민이 생겨났다. 이러한 조선 후기 상황을 보면 왜 주자가 도둑질하는 신하보다 취렴하는 신하가 더 나쁘다고 하였는지 확실히 이

---

16) 위의 책, p.65.

해가 갈 것이다. 그때는 신하나 관리들의 취함에 더해 국가재정을 축내는 이들의 도둑질마저 극성을 부렸으니 백성들의 삶은 죽음보다 더 힘들었다고 하겠다. 이런 시대에 유인석이 태어났다. 어릴 때부터 보고 들은 것은 백성들을 위협하는 관리들의 고성과 이에 힘겨워하는 백성들의 아우성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는 이러한 때 출세와 안정적인 삶을 보장해주는 벼슬길을 선택하지 않았다. 그는 평생 관리를 역임하거나 공직을 수행한 적이 없다.

그러나 그는 부모에 대한 효도[孝], 사람다움[仁]<sup>17)</sup>, 국가에 대한 충성[忠], 검소한 생활[儉]에서 특출함을 보였다. 우선 어릴 때부터 지극한 효성을 발휘하였다. 새벽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부모에 대한 효도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다. 그리고 이웃을 공경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았다. 또한, 누구보다도 나라를 사랑하는 충성스러운 애국자였다. 위정척사파로서 항일의 병운동과 독립운동을 주도하였다. 게다가 검소하고 절제된 생활을 하였다. 평생 재물·여자·벼슬과 같은 물질적이고 외적인 것을 멀리했다. 항상 몸가짐과 처신에 유의하였다. 이러한 모습 자체가 청렴사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데 유인석은 『의암집』에 청렴한 생활을 나타내는 자신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신지 않았다. “진정한 청렴함은 청렴하다는 이름조차 없으니, 청렴함을 내세우는 사람은 탐욕스럽기 때문이다.”라는 『채근담』의 말을 가슴에 새겼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의 청렴한 삶에 대해 알 수 있는 내용은 적지 않다. 『의암집』에 실린 그의 「墓表」를 보면 그의 청렴한 생활을 엿볼 수 있다. “나이가 더 들면서 덕이 더욱 높아져서 온전히 하늘과 통하는 것과 같았고, 도덕적인 육체를 볼 수 있으며, 가슴속에 물욕이 없어, 伯夷叔齊의信義와 程子の 과단성을 필요로 하지는 않고 오로지 義가 있는 것을 하는 것 같았다.”<sup>18)</sup>라고 나와 있다. 한편, 그는 『의암집』에 청렴함을 중시하는 글을 많이 실었다. 「金昌銓에게 답함」이라는 글에서 “인석이 서쪽으로 가서 처음일 때 친구들이 번갈아 그대를 칭찬하여 말하기를 청렴하고 굳은 뜻, 밝고 지혜로운 재주, 따뜻하고 삼가는 행동이

17) “仁者人也”, 주희 엮음, 김미영 옮김, 『중용』, 홍익출판사, 2015, pp.173-174.

18) 유인석, 「墓表」, 『국역의암집6』, 사단법인 의암학회, 2010, p.419.

남들보다 특별히 뛰어나다고 하는 말을 듣다가 한두 번 만나게 되자 그들의 말을 수긍하고 이미 그 실재를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sup>19)</sup>라고 金昌銓을 칭송하였다. 그리고 「國病說」에서는 “청렴을 숭상하고 부끄러움을 아는 선비로 하여금 부득불 나아가게 하고, 청렴을 잃고 부끄러움을 잃은 소인배는 부득불 물러나게 해야만 한다.”<sup>20)</sup>고 하였다. 또한, 「추운 날 등불 아래에서 생각나는 대로 쓰다」라는 글에서는 “周나라는 三物<sup>21)</sup>을 일으켰기 때문에 선하고 漢나라는 孝廉<sup>22)</sup>을 일으켰기 때문에 후에 가까웠다.”<sup>23)</sup>고 하였다. 여기에서 효성스러움과 청렴을 뜻하는 孝廉이라는 말을 썼다. 한편, 「都正竹堂金公 묘갈명」에서는 “재직하는 동안 한결같이 청렴과 근면을 신조로 삼았다.”<sup>24)</sup>고 하였다. 이로써 그가 얼마나 청렴을 중시하였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가 청렴을 중시한 만큼 청렴한 생활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기록도 풍부하다면 좋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를 유추해볼 수 있는 기록을 중심으로 그의 孝, 仁, 忠, 儉를 살펴볼 것이다.

### 3. 효도[孝]의 청렴사상

孝와 忠은 청렴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다.<sup>25)</sup> 충효가 부족한 사람이 재물,

19) 유인석, 『국역의암집3』, 사단법인 의암학회, 2010, p.339.

20) 유인석, 『국역의암집4』, 사단법인 의암학회, 2010, p.365.

21) 백성을 가르치는 세 가지 일로 六德·六行·六藝을 지칭한다.

22) 효성스럽고 청렴하다는 뜻. 漢나라에서는 효성스럽고 청렴한 이들을 관리로 뽑았다.

23) 유인석, 『국역의암집5』, 사단법인 의암학회, 2010, p.22.

24) 유인석, 『국역의암집6』, 사단법인 의암학회, 2010, p.13.

25) 『충경』에는 “효로서 임금을 섬기면 충이다.”라고 하고 『효경』에는 “언제나 효성스런 사람은 반드시 충에 대하여도 귀중히 여긴다.”라고 하듯이 『충경』과 『효경』에서는 충과 효의 관계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매우 밀접한 관계임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두 책에서는 충을 나라와 임금에 대한 충성, 효를 부모에 대한 효도로 제한하지 않았다. 즉 『충경』에서는 聖君·冢臣·百工·守宰·兆人 등 신분에 따른 충과 국방·민정·효도·윤리 등 상황에 따른 충을 설명하였다. 『효경』에서도 천자·제후·卿大夫·士·庶人 등 신분에 따른 효와 부모·임금을 섬기는 경우 등 상황에 따른 효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렇게 충과 효의 의미를 확장한 것이다. 효를 천하에 확장하면 인이 되고, 국가에 대한 인을 달리

여자에 관심을 두지 않거나 벼슬에 얽매이지 않거나 마음이 순수하다거나 해서 청렴하다고 할 수는 없다.<sup>26)</sup> 그래서 孝와 忠을 다루는 것이다. 이번 章에서는 우선 유인석의 孝를 다룬다.

‘孝’는 누구나 갖춰야 할 인간의 기본 품성이다. 당연히 공직자가 갖춰야 할 도리이고 청렴의 기본이다. 이러한 孝는 ‘부모를 섬기다’라는 뜻을 가진다. 자신을 낳아서 길러준 사람이 바로 부모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갚는 것은 인간의 기본 도리이고, 이를 孝라고 일컫는 것이다. 그가 살던 시대만 하더라도 대부분이 부모를 모시고 살거나 곁에서 살았다. 그만큼 자주 대하는 사람도 부모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孝를 실천할 기회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역으로 생각하면 不孝할 기회도 많은 것이다. 그래서 孝는 쉽지 않다. “공자께서 말씀하였다.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경우에는 자식의 속마음을 살펴보고,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에는 자식의 행동을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3년 동안 아버지께서 하시던 방법을 고치지 않아야 효도한다고 말할 수 있다.”<sup>27)</sup>라는 말이 있다. 『논어』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孝에 대한 이야기다. 1년도 아니고 3년 동안 아버지 하던 방식을 고치지 말라고 하니 孝의 실천이 쉽지 않음이 절실히 느껴진다.

한편, “舜임금은 아버지를 섬기는 도리를 극진하게 해서 아버지인 高叟가 진심으로 기뻐하게 되었는데, 고수가 진심으로 기뻐하게 되자 천하가 교화되었고 고수가 진심으로 기뻐하게 되자 천하의 아버지와 자식들의 관계가 안정되었으니, 이런 것을 일러 크나큰 효도라고 한다.”<sup>28)</sup>라는 말도 있다. 이는 『맹자』에서 맹자가 효도에 관해 한 말이다. 부모에게 孝를 극진하게 실천해야만 인정받을

---

표현하면 충이 된다. 따라서 충과 효를 진정으로 실천하는 삶은 모르는 타인까지 아끼고 챙기며 배려하는 삶으로 그것이 바로 사람다운 삶[仁]이라고 할 수 있다.(저자註)

26) “그러므로 비록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충을 통하여야만 공을 이룩하게 되는 것이다. 仁하면서도 충성스럽지 않다면 곧 그의 은덕을 개인적인 것으로 돌릴 것이며, 지혜로우면서도 충성스럽지 않다면 곧 거짓된 짓을 하고 그것을 꾸미게 될 것이며, 용기가 있으면서도 충성스럽지 않다면 곧 반란을 일으키기 쉬운 것이다. 그래서 비록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충성스럽지 않다면 일을 망치게 되는 것이다.”, 김학주 역서, 『충경』, 명문당, 2006, pp.100-103.

27) 공자 지음, 김형찬 옮김, 『논어』, 홍익출판사, 2013, p.32.

28) 맹자 지음, 박경환 옮김, 앞의 책, 2012, p.217.

수 있다는 말인데, 자신의 부모에게 인정받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이렇게 어려운 일이다. 효가 쉬었다면 조선시대에 효자들로 넘쳐났을 것이고, 오히려 不孝한 사람의 기록이 더 많이 남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공자와 맹자가 효의 실천이 어렵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효의 실천이 이토록 어려웠지만, 유인석은 어릴 때부터 효성이 지극하였다. 어렸음에도 조부상을 당하자 상여를 따라가려고 했던 일이 있었다. 부친이 병을 앓다가 물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자 강가에서 고기를 잡으려 하였으나 잡지 못하였는데, 마침 어부가 지나가다가 그 사연을 물어보고 기특하게 여겨 메기 한 마리를 주었다.<sup>29)</sup> 이와 같이 그는 부모를 잘 섬겼고, 조부모는 물론 증조부모도 잘 섬겼다. 그리고 족속인 柳重善과 德水 李氏의 양자로 가셔도 양부모를 잘 섬겼다. 그는 양부모에게도 『小學』이 가르치는 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안부를 살폈다.

그는 효에 대해 “모든 행동은 효도에서 시작되고 끝맺는다.”<sup>30)</sup>고 하였다. 효를 모든 행동의 기본으로 파악하였고, 효를 실천하지 않으면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의암집』에 있는 그의 효에 대한 평가를 보더라도 효의 실천이 각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선생은 가정에서는 孝友를 다하셨고 사람을 대접할 때는 忠敬을 다하셨습니다. 그 가슴의 회포는 光風霽月이었고 그 기상은 泰山北斗였습니다. 義를 옮기는데 과감하여 마치 큰물이 골짜기를 달려가듯 하였고, 극기에 엄격하여 마치 날카로운 칼로 뱀을 자르듯 하였습니다. 어느 때는 봄바람처럼 온화하여 가까이할 수 있을 때가 있었고 어느 때는 우레처럼 위엄이 있어 무서울 때가 있었습니다. 敬을 유지하는데 구애되지 않았지만 거동은 저절로 成法이 있었습니다. 예에 맞추려 애쓰지 않았지만 儀節은 상규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원숙하여 두루두루 흘렀고 용기는 커서 용감할 수 있었습니다. 선을 취하여 조금도 버림이 없었으며 악을 미워하여 되돌아보는 숨김이 없었습니다.<sup>31)</sup>

29) 유인석, 「行狀」, 『국역의암집6』, 사단법인 의암학회, 2010, p.376.

30) “百行由孝孝終始.”, 유인석, 「示華人劉汝則」, 『국역의암집1』, 사단법인 의암학회, 2010, p.219.

31) 유인석, 「제문」, 『국역의암집6』, 사단법인 의암학회, 2010, p.445.

#### 4. 사람다움[仁]의 청렴사상

인간으로서 갖추지 않으면 안 되는 덕목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孝’ 다음으로 ‘仁’이 떠오르는 것은 그것이 바로 ‘사람다움’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공자는 仁을 인간의 기본적인 덕목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논어』 여러 곳에서 仁에 대해 다양하게 설명하였지만, “仁者 愛人”<sup>32)</sup>, 즉 ‘仁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한 말이 가장 이해하기 쉽다. 仁이 善의 근원이자 行의 기본이라고 하면서 “진실로 仁에 뜻을 두면 악한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sup>33)</sup>고 이야기하였다. 타인을 사랑하는 사람이 타인에게 악한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한편, 맹자는 ‘仁義’라고 하여 공자의 仁에 대한 생각을 더욱 발전시켜 이를 부각하였다. 그는 인간이 인간답기 위해서는 仁義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공자와 맹자는 인간이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仁을 이렇게 인간이 갖추어야 할 기본 덕목으로 내세운 것이다. 요컨대 ‘사람다움’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본성으로 주변 사람을 아끼고 챙기는 따뜻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다. 주변 사람을 아끼고 챙기는 마음은 곧 공직자와 위정자의 기본이다. 유인석도 유학자로서 당연히 이와 같이 생각했을 것이다.

그는 부모님과 조부모를 극진하게 모셨고 양부모에게도 효성이 지극하였다고 이미 언급하였다. 이러한 孝를 이웃, 백성과 나라, 천하에까지 확장하면 그것이 바로 ‘仁’이 된다. 仁이란 원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뜻하는 것으로 사람인[人]이 두 개 합쳐진 한자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친해야 하고 상대를 존중해야 한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또래 친구는 물론 이웃과도 인간관계가 원만하였다. 그의 마음은 언제나 이웃을 위하여고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보호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백성들의 고충을 걱정하고 해결에 솔선수범한 것이다. 마을 사람들이 근처에 산도적이 출몰하였다고 걱정하자 자신이 직접 마을 사람들의 걱정을 덜어주려고 산도적의 소굴로 찾아갔는데 결국 그들이 화전민임을

32) “번지가 仁에 대하여 여쭙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공자 지음, 김형찬 옮김, 앞의 책, p.140.

33) 위의 책, p.58.

알아낸 일화가 있다.<sup>34)</sup> 어린 나이지만, 자신의 목숨이 걸렸어도 타인을 위하고 그것이 의라면 밭벗고 나선 것이다.

仁에 대해 그는 맹자와 같이 仁義라는 개념으로 확장하여 생각하였다. 「宇宙問答」을 통해 “道の 요체를 말하면 仁義이니 仁義가 아니면 道가 아니다. 사람은 道가 있고 없음에 따라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며, 나라는 道가 있고 없음에 따라 존속하기도 하고 멸망하기도 한다.”<sup>35)</sup>라고 하였다. 사람의 생사와 나라의 존망이 仁義에 좌우된다고 파악한 것이다. 또한, 인간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仁義라는 의견도 피력하였다. 이 때문인지 그는 어릴 때부터 仁을 매우 중시하였다. 어린 시절 이항로로부터 “仁을 이루 다 사용할 수 없겠다.”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仁하고 仁한’ 사람이었다. 그는 「行狀」에서 “동쪽으로 뛰며 서쪽으로 달릴 때에도 가는 곳에 따라 향음주례를 베풀고, 강독회를 열었고 거처하는 곳을 따라 성현의 사당을 세워서 쇠잔한 사기를 떨치게 하여 오랑캐의 세상에 휩쓸리지 않게 한 것은 선생의 仁이다.”<sup>36)</sup>라고 평가받았다.

그가 仁을 이렇게 잘 실천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릴 때부터 『논어』 「里仁」<sup>37)</sup>편을 즐겨 읽은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스승인 이항로와의 첫만남에서 스승이 갑작스럽게 「里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을 던졌다. 그러자 그는 “里仁은 사랑공동체를 말합니다. 이웃이 서로 보듬어 주고 아파하며 함께 하는 언행이 있을 때 진실로 里仁은 이루어집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어서 “내가 가진 것을 이웃에 주는 마음과 행동이야말로 참된 里仁입니다. 길을 가다가 배고픈 아이를 보고 그냥 지나친다면 里仁이라 할 수 없습니다. 물에 빠진 아이와 노인을 보면 내가 익사할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건져야 里仁입니다. 四端七情이 이웃과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sup>38)</sup>라고 덧붙였다. 이것이

34) 이학주 글, 조영길 그림, 『조선 13도의군 도총재 유인석』, 사단법인 의암학회, 2017, pp.28-29.

35) “道舉其要則仁義也, 外仁義則非道也. 人以有無道而生滅, 國以有無道而存亡.”, 유인석, 「우주문답」, 『국역의암집6』, 사단법인 의암학회, 2010, p.194.

36) 유인석, 「行狀」, 앞의 책, p.413.

37) 『논어』에 나오는 4章의 제목.

38) 이학주 글, 조영길 그림, 앞의 책, p.43.



바로 앞에서 언급한 ‘주변 사람을 아끼고 챙기는 따뜻한 마음’이다. 그는 이렇게 『논어』를 통해 仁을 기르면서 백성을 어떤 식으로 보살펴야 할지 고민하였다. 그래서 스승의 갑작스러운 물음에도 거침없이 대답을 쏟아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인석아, 차돌같이 강한 의지와 대쪽 같은 성품이 보통사람과 다르구나. 언젠가는 나라를 위하여 큰일을 할 인물이다. 평생 仁을 다 사용할 수 없겠구나. 仁을 넓혀 더욱 충실하게 해다오.”<sup>39)</sup>라는 스승의 말씀을 가슴에 새겼다.

그의 백성에 대한 仁은 「國病說」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國病說」에서 政의 1차 목표를 足食·足兵·足信이라고 하였다. 이는 공자가 子貢의 물음에 대답한 말이다.<sup>40)</sup> 김형도에 의하면, 공자는 足食하는 길은 제도를 정하여 백성을 모두 족하게 하는 것이고, 足兵하는 길은 백성들로 하여금 孝弟忠信을 알게 하여 임금을 부모같이 지키며, 모든 집에서 兵을 내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었으며, 또 이것은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므로 保國在保民이라는 입장에서 禮義兼耻를 알게 하여 풍속을 이루고 省刑薄斂<sup>41)</sup>하여 忠孝를 권하는 것으로도 달성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足食·足兵과 더불어 足信을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만약 백성이 믿는 바가 없으면 부국강병하였다고 하더라도 백성을 믿을 수 없다고 인식하였다.<sup>42)</sup> 여기에서 足食은 단순히 백성들을 배불리 먹인다는 것만 뜻하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을 여러 가지 면에서 만족시킨다는 것이다. 그런데 백성을 이런 식으로 만족시킨다고 해서 仁을 완전히 실천한 것이 아니다.

仁을 완전히 실천하려면 백성의 아픔까지 잘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유인석은 백성에 대해 “미세한 피부에 미세한 아픔이라도 있으면 마음에 아픔이 있게 된다.”<sup>43)</sup>라고 인식하였다. 이는 원래 임금의 백성에 대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지

39) 위의 책, p.43.

40) “자공이 정치에 대해서 여쭙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식량을 풍족하게 하는 것, 군비를 넉넉히 하는 것, 백성들이 믿도록 하는 것이다.”, 공자 지음, 김형찬 옮김, 앞의 책, p.135.

41) 형을 가볍게 하고 수취를 적게 함.

42) 김형도, 「의암 유인석의 정치사상연구」, 『의암유인석연구논문선집 I』, 춘천문화원, 사단법인 의암학회, 2002, pp.69-70.

43) 유인석, 「道冒編」, 『국역의암집6』, 사단법인 의암학회, 2010, p.291.

만, 유인석 자신도 임금이 백성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신도 백성을 사랑하고 있고 하찮은 아픔이라도 해결할 것을 부각한 것이다. 백성이 조금이라도 아프면 그는 견딜 수 없는 동정심을 느끼고 해결에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 때문에 「行狀」에는 “사람의 물결 속에 작은 아이가 굶어서 쓰러졌는데 사람들의 발에 밟혔다. 급히 구원하여 음식점으로 가서 미음과 국을 먹여 살렸다.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물어서 주인이 없는 거지임을 알고 그대로 서울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길렀다.”<sup>44)</sup>는 일화가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는 청렴의 기본 덕목인 사람다움 [仁]을 어릴 때부터 완벽하게 발휘하였다.

## 5. 충성[忠]의 청렴사상

앞장에서 孝와 仁을 다룬데 이어서 이번 章에서는 忠에 대해 다룬다. 忠도 청렴에서 빠질 수 없는 요건이다. 국가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 청렴하지 않은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다.<sup>45)</sup> 이런 사람이 공직자가 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 忠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위해 『忠經』을 참고로 하면, 忠을 크게 네 가지 방향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 中正의 뜻으로 지극히 공평하고 사사로움이 없다는 말이다.<sup>46)</sup> 두 번째 그 마음을 하나로 하는 것이다.<sup>47)</sup> 세 번째 자신에게 생겨나 집안을 통해서 정착되고 나라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다.<sup>48)</sup> 네 번째 각자의 위치에서 해야 할 忠의 도리가 있는데 聖君, 冢臣, 百工, 守宰, 兆人 등 다섯 가지가 있다.<sup>49)</sup> 『충경』이 쓰여지기 이전 공자는 성실의 개념으로 忠을 설명하였다. 한편, 주자는 진심으로 자기의 최선을 다하는 것을 忠이라고 하였다. 근래에 島山 安昌浩는 “나라를 위하는 일인 忠에 대해 장사꾼, 농군, 나무꾼 등이 자기의 직업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고 하였다. 종합해보면 忠이란 공평하고

44) 유인석, 「行狀」, 앞의 책, p.377.

45) 각주 26) 참조.

46) 김학주 역저, 앞의 책, p.39.

47) 위의 책, p.39.

48) 위의 책, p.39.

49) 위의 책, pp.46-67.

사사로움이 없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과 가정, 사회, 나라에 최선을 다하고 자신의 직분을 다하는 것이다.

『충경』에서 강조하는 忠과 유인석이 생각하는 忠을 비교해보는 것도 의미심장하다. 이 둘은 큰틀에서 서로 같은 것이다. 그는 忠에 대해 자신을 다하는 것이라고 하였다.<sup>50)</sup> 그의 입장에서 자신에게 자신을 다하고 가정에 자신을 다하고 사회<sup>51)</sup>에 자신을 다하고 국가에 자신을 다하는 것이 忠을 완벽하게 실천하는 것이다. 즉 그의 忠은 궁극적으로 국가에 대한 仁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다. 그의 삶을 조명해보면 『충경』에서 언급한 모든 忠을 실천하였다. 자기 자신부터 가정, 사회, 국가에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였다. 물론 그가 임금, 신하, 관료, 지방관 등 위정자나 관리는 아니었지만, 유학자와 의병장으로 활동하면서 마음을 하나로 하여 최선을 다해 忠을 실천한 것이다.

한편, 『충경』에는 “언제나 효성스런 사람은 반드시 忠에 대하여도 귀중히 여긴다...〈중략〉...군자는 그의 효도를 행함에 있어 반드시 먼저 忠을 앞세우는 것이니, 그의 忠을 다하게 되면 福祿이 다 찾아오게 되기 때문이다.”<sup>52)</sup>라는 구절도 있다. 忠과 孝의 밀접한 관계를 알 수 있는 말이다. 효성이 지극한 사람은 반드시 충성도 지극하다는 뜻이다. 여기에서 복록이란 흔히 복이나 벼슬아치의 녹봉을 뜻하는 말로 복되고 영화로운 삶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충효가 힘들더라도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고 보람된 것이기 때문에 실천에 힘써야 함을 나타낸다. 유인석은 『충경』에서 이야기하는 복록에 이를 자격이 있었지만, 결코 편안한 삶을 선택하지 않았다. 忠을 실천하기 위해 복록의 삶이 아닌 고난의 삶을 선택하였다.

그가 이렇게 특별한 忠孝를 갖게 된 데는 집안 전통도 무시할 수 없다. 그가 태어나고 성장하였던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가정리는 문풍과 학풍이 남다른 마을이다. 그의 조상인 醉吃 柳瀟이 벼슬을 그만두고 가정리에 들어오면서 高興

50) 유인석, 「도모편」, 앞의 책, p.261.

51) 본 논문에서는 仁에 대해 ‘사회에 대한 忠’이라는 측면에 집중한다.(저자註)

52) “夫惟孝者 必貴於忠. 忠苟不行 所率猶非其道. 是以 忠不及之 而失其守. 匪惟危身 辱及親也. 故君子行其孝, 必先以忠, 竭其忠 則福祿至矣.”, 김학주 역저, 앞의 책, p.82.

柳氏의 집성촌이 되었다고 한다. 유숙은 “글은 짧이고 소금이니라.”라고 하면서 글을 가르치고 굶주린 사람들의 구휼에 힘썼다. 이러한 그의 활동에 힘입어 가정리가 문풍과 학풍이 남다른 마을이 되었고, 유인석도 유숙과 같은 자신의 선조들의 전통을 이어받았다. 그의 학문에 대한 열정과 정의감, 인정은 이러한 기풍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청년 시절 靜菴 趙光祖를 흠모하여 19세 때 미원서원<sup>53)</sup> 제례에 참가하였다. 이때 그는 암울한 나라의 상황과 백성들의 궁핍한 모습을 생각하며 「장석서원을 찾아 조정암을 추모하노라」라는 詩<sup>54)</sup>를 지었다. 이 詩에는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인생관이 묻어나온다. 특히, 그의 강한 우국충정이 이 詩에 새겨져 있다.

이후 그는 25세 혈기왕성한 때인 1866년 병인양요가 일어나자 스승의 斥和上疏 주창 현장 수행을 통해 위정척사 운동을 경험하였다. 스승 사후인 1876년 조선정부가 일본의 위협에 굴복하여 인천·부산·원산을 개항하는 병자수호조약 [강화도조약]을 맺자 遜志 洪在龜 등과 함께 倭와의 화친을 배척하는 斥和上疏를 직접 올렸다. 또한, 명성황후가 시해되는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일본이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을사조약에 이어서 일본이 설치한 통감부가 조선의 내정을 간섭하겠다는 정미칠조약[한일신협약]이 체결되자 의병을 일으켰다.

특히, 을미사변으로 인해 일어난 을미의병 때에는 여러 문인들의 추대로 의병장이 되었다. 이때 그는 국가를 지키는 세 가지 방법[處變三事]을 제시하였다. 이는 조선을 지키는 세 가지 방법으로 첫째 의병을 일으켜 적을 쓸어내는 것[擧義掃淸], 둘째 세상과 인연을 끊고 옛것을 지켜내는 것[去之守舊], 셋째 자진하여 바른 뜻을 이루는 것[致命遂志]이다.<sup>55)</sup> 그는 유학의 道를 실천하기

53)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에 있는 서원. 靜菴 趙光祖와 沙西 金湜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

54) “尋拜丈石書院追感趙靜庵(장석서원을 찾아 배알하고 조정암을 추모하노라) 先生院宇幾回尋(선생님의 서원을 찾은 지 몇 번이던가) 老栢垂庭氣翠森(늙은 잣나무 정원에 우뚝 서 푸르게 우거졌다) 白日過牆花轉影(밝은 해 담장 넘어가니 꽃 그림자 바뀌고) 春風滿樹鳥懷音(봄바람 나무에 가득 부니 새들 사방에서 운다) 公明開得千人眼(공명한 처신은 못 사람 눈 띄우고) 精一傳來萬古心(순수한 마음은 만고에 전해진다) 欲致熙雍時不遇(태평성대 이루려 했으나 때 만나지 못해) 後生涕淚尚沾襟(후생 눈물 흘려 옷깃만 적신다).”, 유인석, 「尋拜丈石書院追感趙靜庵」, 『국역의암집1』, 사단법인 의암학회, 2010, p.38.

위해서는 세 가지 방법이 모두 타당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양모의 상중이었지만, 擧義掃淸을 선택하여 의병장으로 추대되었다. 군인이라는 공직자는 아니었지만, 일본에 의해 을미사변이 발생하자 이에 대항하여 을미의병을 이끌었던 것이다. 이때 조선의 친일관리와 일본군을 차단하였다. 특히, 충주관찰사 金奎軾이 단발령 등 개화정책을 추진하자 이를 잘못된 것이라고 여겨 처형하였다. 또한, 단양군수 權瀟과 청풍군수 徐相耆도 같은 죄목으로 처형하였다. 화서학과 전통인 강한 실천성을 발휘한 것이다.

이어서 1909년 연해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향약 형태의 조직체체인 ‘貫一約’<sup>56)</sup>을 만들어 농민들이 중심인 향촌사회의 안정과 최종적으로는 국권회복을 도모하였다. 관일약의 실천강령에도 애국심을 집어넣어 나라에 대한 충성을 제고한 것이다. 관일약을 통해 향촌사회를 이끄는 지도자의 역할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향촌사회 지도자로서 간도 지방의 한인사회를 통합하고 십삼도의군을 조직하였다. 그는 무관이 아닌 단지 유학자임에도 문우들의 추대로 십삼도의군도총재가 되었다. 이는 간도 지방의 통합의병을 이끄는 명실상부한 의병장이 된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부정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35개의 의병규칙<sup>57)</sup>도 만들었다. 이로써 위정자의 충과 조정에 최선을 다하는 신하의 충, 조선의 독립을 위해 직분을 다하고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는 지방관의 충을 발휘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그는 어렸을 때부터 효성이

55) “乙未十一月，弘集諸賊，行勅削，麟錫亟會士友，議處變三事，曰擧義掃淸，曰去之守舊，曰自靖遠志。”，유인석, 『雜錄』, 『昭義新編』 卷之二.

56) 1909년에 유인석이 연해주에서 만든 모임으로 매월 초하루에 소모임을 갖고 봄가을에 큰 모임을 가졌다. 10조로 된 규약이 있다. 기본사상은 愛道, 愛國, 愛人, 愛己다.

57) “의병규칙 주요내용 : 1. 군중에서는 신의로서 그 근본으로 삼는다. 2. 기밀을 신중히 다루어라. 3. 오늘날 관찰사와 군수는 모두 예적의 앞잡이니 일체 배척하여 그 명령을 받지 마라. 4. 군사를 징발할 때는 반드시 閑遊한 자를 취하고 농민은 보류해 두어 실농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포수와 출전을 자원하는 자는 반드시 형제중 한 사람을 취하고 독신을 보류한다. 5. 각 도에서 충의와 역량과 덕망과 좌지가 십삼도의 인심이 복종하고 항응할 만한 자를 추대하여 십삼도 도총재를 삼아 都統領과 각 도의 총재를 담당하게 하며 都統領과 각 도총재는 그 절제를 받아 감히 어기지 못한다.”，하윤서·정춘후 지음, 『의암 유인석의 교육철학』, 한국학술정보, 2021, pp.122-123.

지극하였다고 누누이 언급하였다. 이웃에 대한 사랑도 특출났다. 또한, 화서학파의 일원으로서 문우들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래서 孝友에 충실한 백성의 忠을 발휘하였다고 하는 것이다.

## 6. 검소한 생활[儉]의 청렴사상

유인석의 항일 의병활동만큼이나 검소한 삶에 대해서도 비중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 그가 이야기한 검소한 단순하게 절약하는 생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올곧고 절제된 생활을 모두 포함한다. 그는 “검소함을 하찮게 여기고 사치를 일삼으면 백성이 떠나가고 결국 나라가 망한다.”<sup>58)</sup>고 지적하였다.

조선 후기는 정치·사회·문화 등 모든 면에서 극도로 혼란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검소한 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그는 凡人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검소한 생활을 하였다. 금전·재물과 같은 물질적인 것이나 벼슬과 명예에 구애받지 않고 초연한 삶을 살았다. 그리고 음주나 여자에 얽힌 불미스러운 일로 곤혹을 치른 적도 없었다. 불미스럽거나 불명예스러운 것에 관계되었다는 소문조차 없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청렴함을 내세우지 않았다. 겸손했기 때문이다. 앞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청렴함을 내세우는 사람치고 청렴한 사람은 없다. 요즘 청렴이라고 하면 주로 뇌물을 거부하고 국가의 재정을 부정하게 쓰지 않는 것을 떠올린다. 그리고 검소한 생활도 청렴의 중요한 일부분이지만, 요즘은 이에 대해 조선시대만큼 큰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다. 그래서 이번 章을 통해 유인석의 검소한 생활을 부각하는 것이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사치스럽고 화사한 복장을 하지 말고 검소하고 보잘 것 없는 의복을 입고 생활해야 백성들이 목민관에 대해 존경하는 마음을 가진다고 하였다. 그리고 술과 여자를 가까이하면 안 된다고도 하였다. 권력이 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일거수 일투족이 온 천하에 드러나고 영향력이 엄청

58) 유인석, 「도모편」, 앞의 책, p.299.

나기 때문이다. 『목민심서』의 내용과 비교하여 유인석의 삶을 조명해보면, 우선 그는 주색이나 음주와 같은 외적인 것을 멀리하고 생활에 위엄이 있었다. 또한, 수령은 아니었지만 의병장으로서 군수품을 조달할 때도 엄격하였다. 그리고 지혜가 깊어 탐욕스럽지 않았으며, 백성들은 그의 검소함과 깨끗함에 대해 칭송하였다. 그가 『목민심서』를 읽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실로 그의 생활은 『목민심서』에서 이야기하는 목민관의 실제 사례가 될 만하다고 하겠다.

그가 이렇게 외적인 것을 경계한 이유는 이항로의 영향이 가장 크다. 이항로는 理를 中華, 陽, 上, 尊, 高, 正 등의 속성을 지닌 요소로 보고, 氣를 夷狄, 陰, 下, 卑, 底, 邪 등의 속성을 지닌 요소로 보았다.<sup>59)</sup> 그리고 동·서양의 문명의 성질을 氣로써 설명하였다. 조선이 처한 동북의 氣는 陽과 義를 위주로 하고 서남의 氣는 陰과 利를 위주로 하는데, 동북에 처한 동양문명은 陽과 義를 위주로 하는 정신적인 문명이요, 서남에 처한 서양문명은 陰과 利를 위주로 하는 물질문명이라고 하였다.<sup>60)</sup> 그리고 그의 시각은 그대로 유인석에게 계승되었다.

유인석은 「우주문답」에서 上達과 下達로 구분하여 세상을 바라보았다. 상달은 중국이 추구하는 바이고 하달은 외국과 일본이 추구하는 바다. 또한, 상달은 위로 뻗는 것이고 하달은 아래로 뻗치는 것이다.<sup>61)</sup> 상달과 하달은 공자에서 유래한 것으로 『논어』에는 “君子는 고상한 데로 나아가고, 小人은 세속적인 데로 나아간다.”<sup>62)</sup>라는 구절이 있다. 군자가 고상한 데로 나아간다는 말은 덕을 추구하는 것인 반면, 소인이 세속적인 데로 나아간다는 말은 맛있는 음식, 사치스러운 옷, 웅장한 집과 같은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유인석과 같은 유학자가 소인이 추구하는 바인 물질적인 것에 얽매일 이유가 없는 것이다.

59) 오영섭, 「유인석의 對西洋認識」, 『의암유인석연구논문선집 I』, 춘천문화원, 사단법인 의암학회, 2002, p.274.

60) 위의 논문, p.274.

61) “..中華道理上達達(중화의 도리는 위로 뻗치어)..夷狄形氣下達達(오랑캐의 형기는 아래로 뻗치어)..”, 유인석, 「중화가의 노래」, 『국역의암집1』, 사단법인 의암학회, 2010, p.247.

62) “子曰, 君子上達, 小人下達.”, 해석: “君子는 天理와 道義를 추구하기 때문에 높은 데로 나아가고, 小人은 사사로운 이익과 욕구를 추구하기 때문에, 낮은 데로 나아간다는 말이다.”, 공자 지음, 김형찬 옮김, 앞의 책, p.161.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재물, 여자 등 외적인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매우 의미심장하다. 그는 재물에 대해 나라와 백성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sup>63)</sup>이라고 밝혔지만, 재물을 흥청망청 쓰는 것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였다. 「도모편」에서 인용한 禹임금과 桀임금의 고사<sup>64)</sup>를 보면 그의 재물에 대한 생각을 확실히 알 수 있다. 禹임금과 桀임금은 사치의 폐해를 매우 경계하였다. 그들은 검소하면 나라가 흥하고 사치하면 망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그의 여자에 대한 시각은 자신이 지은 詩 「有戒 2首」에 압축적으로 잘 나타나 있다.<sup>65)</sup> 그는 여색은 투기가 심하기 때문에 끊으라고 하였고, 여자 생각을 해서는 대인이 되기 어렵다고 경계하였다. 그래서 그는 화서학과 문우인 檄菴 尹秉義가 혈기가 왕성함에도 흠아비로 지내면서 젊고 예쁜 여자를 철저히 물리쳤다는 것을 칭송하였다.<sup>66)</sup> 이렇게 그는 사치 물의를 야기할 수 있는 여색에 평생 거리를 두면서 학문에 힘쓰고 항일 의병운동과 독립운동을 하였다.

한편, 그는 윗사람이 몸소 검소함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실천에 힘썼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랫사람이 따라 해서 국가의 재정이 넉넉해진다는 것이다. 개인이 재물을 탐내어 축적해서는 안 되고 아껴서 국가의 재정이 넉넉해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도모편」<sup>67)</sup>에 잘 나와 있다.

궁궐은 화려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중략〉... 이와 같이 하면 재물이 낭비되고

63) “재물은 백성과 나라의 목숨이다. 백성에게 재물이 없으면 살 수 없고 나라에 재물이 없으면 유지될 수 없으니 느슨하게 할 수 없다.”, 유인석, 「도모편」, 앞의 책, p.298.

64) “나라가 사치스러우냐 검소하냐에 따라 흥망이 있게 된다. 옛날 禹임금은 궁실을 낮게 짓고 옷을 검소하게 입고 음식을 박하게 하였으니 비록 임금의 몸이라도 어찌 소박한 음식과 거친 옷이 편하였겠는가...〈중략〉... 사치의 폐해여!”, 위의 책, p.299.

65) “色言違疾戒之絶(여색은 투기가 심하니 삼가며 단절하리) 有此寧云老夫人(여자 생각 지니고는 대인이 되기 어려우리) 體失所關極非細(자칫하면 몸 버리니 작은 일로 간주 말고) 淵深山重警常身(산은 중첩하고 못은 깊으니 항상 몸을 경계하라).”, 유인석, 「有戒 2首」, 『국역의암집1』, 사단법인 의암학회, 2010, p.212.

66) 유인석, 「檄菴處士 尹公 묘지명」, 『국역의암집6』, 사단법인 의암학회, 2010, p.94.

67) 유인석, 「도모편」, 앞의 책, p.299.



국가가 허약하게 될 것이다. 국가가 허약해져 유지되지 못하면 어찌 외침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겠는가. 높은 지위에 있으며 사치하면 어느 누가 우러러보겠는가. 높은 지위에 있으며 검소하면 어느 누가 사모하지 않겠는가...〈중략〉... 옛말에, “흉년이 들면 세금을 삭감하고 나라가 사치스러우면 검소함을 보이라.”라고 했다.

## 7. 전망과 의의

유인석의 청렴한 삶은 당시 조선 사회와 간도 지방의 한인사회에 훌륭한 본보기가 되었다. 그는 관직을 수행하는 관리나 조정의 신하를 한 번도 역임한 적이 없었고, 과거시험조차 보지 않았다. 요즘으로 말한다면 그는 일반직이든 특정직이든 정무직이든 어쨌든 공직자는 아니다. 그는 나라가 어수선한 때 세상을 등지고 재야에 묻혀 경전이나 읽으면서 제자를 기르는 평범한 유학자로 남을 수도 있었지만, 편안한 삶을 선택하지 않았다. 한평생 大義를 위해 싸웠다. 청렴사상을 바탕으로 나라와 백성을 구하기 위해 실천하는 유학자로서 모범적인 삶을 산 것이다.

청렴한 사람은 시대나 신분을 뛰어넘어 그 자체로 존경받아 마땅하지만, 국가가 안정되었던 조선 초기 세종 시대의 龐村 黃喜나 古佛 孟思誠의 청렴한 삶과 극심한 혼란기인 조선 후기 청렴한 삶은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조선 후기에는 매관매직, 부정부패, 苛斂誅求가 독버섯처럼 퍼진 반면, 조선 초기에는 국가의 시스템이 잘 정비되어 부정을 저지르기가 그만큼 어려웠기 때문이다. 특히, 세종은 몸소 청렴을 실천하였다. 당시 경회루 동편에 남는 재목으로 별실을 지었는데 그는 돌층대를 쓰지 않고 짚으로 지붕을 올려 되도록 검소하게 하여 늘 여기에서 거처하였다. 문밖에 짚자리가 깔려있음을 보고 “이건 누가 한 짓인가. 비록 작은 물건이라도 내 명령이 내리기 전에는 안에 들이지 말라.”고 하였다. 이렇게 조선이 출범한 직후에는 임금부터가 청렴을 실천하였기 때문에 신하는 물론 일반 백성까지 청렴을 실천하지 않을 수 없는 사회적인 분위기였다.

그러나 유인석이 태어난 조선 후기에는 그렇지 않았다. 당시에는 세도정치가 절정으로 치닫고 국가의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으며, 탐관오리들이 발호하여 백성들은 도탄에 빠졌다. 게다가 서양과 일본의 침략으로 나라 안팎이

어수선하였다. 매관매직과 부정부패가 일상화된 때에 재물, 옷, 음식, 여자 등과 같은 외적인 것에 구애받지 않고 화서학파를 이끄는 유학자, 항일의병을 이끄는 의병장, 가정을 이끄는 가장, 나라의 한 구성원인 백성으로서 청렴한 삶을 살았다. 그래서 조선 초기의 청렴한 삶과 조선 후기 유인석으로 대표되는 청렴한 삶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그의 청렴한 삶은 孝·仁·忠·儉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는 삶을 마칠 때까지 이러한 덕목들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래서 그의 삶은 지행합일의 삶이기도 하다.

그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기 위해 의암유인석기념관이라는 곳이 춘천에 세워졌다. 비록 그는 세상을 떠났지만 지금도 이곳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자신의 청렴사상을 가르치고 있다. 이곳에서는 청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청렴이라는 덕목은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모든 공직자가 갖춰야 한다. 비단 공직자 뿐만 아니라 기업, 금융기관, 종교시설, 복지시설 등에서 금전을 다루거나 국민 접촉을 많이 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들도 청렴사상은 필수적이다. 오히려 전 국민이 유인석의 청렴사상을 배운다면 우리 사회가 보다 건전해질 것이고 공정과 정의가 일상화된 국가가 될 것이다. 그래서 누구나 이곳을 한 번쯤은 방문해야 한다.

요즘에는 조선시대보다 더 청렴을 강조하는 분위기다. 공정거래위원회, 인천 국제공항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청렴에 관한 여러 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강원도청에서는 2021년 道內 청렴·반부패 활동과 지역사회 저변의 청렴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청정강원 청렴 한마당’이라는 행사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정하는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에 청렴에 관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공직자 행동강령 우수제도 사례집』에는 청렴에 관련된 사례가 자주 등장한다. 청렴의 정신으로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을 표창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에 청백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여 승진에 혜택을 주고 있다. 게다가 공직자의 청렴에 대한 의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2016년 9월 28일 시행하였다. 이는 유인석과 같은 사람들의 훌륭한 청렴의 전통이 있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이 현재 공공기관에서 공직을 수행하거나 공직자를 희망하는 사람들

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유인석의 청렴사상이 전 국민에게 확산되고 이에 대한 연구가 좀 더 활성화될 것임을 기대해본다.

◆ 참고문헌

1. 자료

유인석, 『의암집』, 경인문화사, 1973.  
 \_\_\_\_\_, 『국역의암집1』, 사단법인 의암학회, 2010.  
 \_\_\_\_\_, 『국역의암집2』, 사단법인 의암학회, 2010.  
 \_\_\_\_\_, 『국역의암집3』, 사단법인 의암학회, 2010.  
 \_\_\_\_\_, 『국역의암집4』, 사단법인 의암학회, 2010.  
 \_\_\_\_\_, 『국역의암집5』, 사단법인 의암학회, 2010.  
 \_\_\_\_\_, 『국역의암집6』, 사단법인 의암학회, 2010.  
 \_\_\_\_\_, 『국역소의신편』, 사단법인 의암학회, 2006.  
 이항로, 『국역화서선생문집1』, 사단법인 의암학회, 2017.

2. 단행본

공자 지음, 김형찬 옮김, 『논어』, 홍익출판사, 2013.  
 국민권익위원회 지음, 『공직자 행동강령 우수제도 사례집』, 진한엠앤비, 2016.  
 김필수·고대혁·장승구·신창호 함께 옮김, 『관자』, 소나무, 2012.  
 김학주 역저, 『충경』, 명문당, 2006.  
 증자 찬, 임동석 역주, 『효경』, 동서문화사, 2013.  
 맹자 지음, 박경환 옮김, 『맹자』, 홍익출판사, 2012.  
 유성선 지음, 『율곡철학의 이해』, 강원대학교 출판부, 2008.  
 윤대식 지음, 『유인석 평전』, 신서원, 2020  
 이학주 글, 조영길 그림, 『조선 13도의군 도총재 유인석』, 사단법인 의암학회, 2017.  
 정약용 지음, 다산연구회 편역, 『정선 목민심서』, 창비, 2021.  
 주희 엮음, 김미영 옮김, 『중용』, 홍익출판사, 2015.  
 증자 찬, 임동석 역주, 『효경』, 동서문화사, 2013.  
 하운서·정춘후 지음, 『의암 유인석의 교육철학』, 한국학술정보, 2021.  
 홍자성 지음, 김성중 옮김, 『채근담』, 홍익출판사, 2013.

### 3. 논문

김형도, 「의암 유인석의 정치사상연구」, 『의암유인석연구논문선집 I』, 춘천문화원, 사단법인 의암학회, 2002, pp.69-70.

오영섭, 「유인석의 對西洋認識」, 『의암유인석연구논문선집 I』, 춘천문화원, 사단법인 의암학회, 2002, p.274.

### 4. 인터넷 자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논문 접수 일	2022년 10월 27일
심사 완료 일	2022년 11월 27일
게재 확정 일	2022년 12월 08일

*Abstract*

## A Study on the Thought of Integrity of Uiam Ryu In Seok

Jun, Jin-dong

Uiam Ryu In Seok was born in Chuncheon, Gangwon-do in 1842, in the late Joseon Dynasty. He went through a period of chaos in reign of potentates, and lived a period of upheaval called Japanese colonial era. In the late Joseon Dynasty, he early went under the leadership of Hwaseo Lee Hang-ro(華西 李恒老), one of the three great philosopher of Juri(主理) philosophy, and studied hard. And during the period of mayhem, he dedicated himself to saving the people and the country. As an Confucian scholar, he was the head of the righteous army who led the anti-Japanese army, and during Japanese colonial era, he worked as an independence activist. He left a great mark on the history of Confucius in Korea and the history of anti-Japanese righteous army. He did the movement of Wijeongcheoksa(衛正斥邪) against Western aggression and devoted himself to the anti-Japanese righteous army movement and the independence movement, so he did not have time to take proper care of himself and his families. Naturally, he could not afford to accept a position as a public official. Like his teacher, he did not go to the public office through Gwageo tests(科擧). He was not a public official like this, but his integrity, a key virtue of public officials, was extraordinary. Nevertheless, there is not much research on his thought of integrity. That is why it is worth studying his thought of integrity. There is a clear reason to study his integrity, a key requirement for public officials. He was born and lived in the late Joseon Dynasty and the most chaotic and difficult times in Korean history, but he practiced the thought of integrity all his life.

Integrity means 'nobility and lack of greed'. There are many conditions for integrity. But the most important of them are loyalty, sincerity, filial duty, innocence, frugality, benevolence, justice, virtue etc.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Ryu In Seok's life has all these things. These thoughts of his integrity can be summarized as loyalty, filial piety, benevolence, and frugality. He has been very filial since he was a child. He loved his neighbor and gave love to people he didn't know very well. It extended this filial piety to the country. That is loyalty. Finally, he lived a frugal and restrained

life all his life, avoiding material and external things such as wealth, women, and alcohol. His thoughts of integrity greatly influenced the independence movement. Although he died in 1915 without seeing the independence of Joseon, he still lives and breathes in the spirit of the Korean people, and still teaches integrity. In this way, the thought of Ryu In Seok's integrity is still shining brilliantly. His thought of integrity is making our society fairer and cleaner. We hope that research on the integrity of Ryu In Seok will be more active in the future.

**Keyword** Ryu In Seok, loyalty, filial piety, benevolence, frugality, righteous army, independence movement

# 『해천추범』 여행기에 나타난 세계 인식과 근대성 고찰

김효주\*

## 국문요약

본고는 『해천추범』에 나타난 세계 체험과 민영환의 인식 변화 양상을 고찰하여 『해천추범』의 근대성과 문학사적 의의를 해명하고자 한다. 『해천추범』에는 서구의 다양한 근대 과학 기술과 산업 시설 공간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선이 나아갈 근대화 방향에 대한 대안이 담겨 있다. 뿐만 아니라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 위기에 놓인 조선 현실에 대한 자각과 근대 군사 제도의 확립 및 근대 교육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본고에서는 『해천추범』이 단순히 사행 업무만을 기록한 공적 기록물이 아니라 개인의 감정 노출이 빈번하게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한다. 나아가 여행이 근대 조선인의 타자 인식과 개인의 정체성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해천추범』이 연군 문학과 기행가사 문학 등 사행기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근대적 시공간에 대한 인식, 서구 근대 문물 소개, 음력과 양력 및 러시아력에 대한 이해, 개인의 감정 표출, 자기 인식 변화, 타자의 발견, 근대적 자각으로 나아가는 근대 여행기로서의 특징을 지닌다는 점에 대해 살펴본다.

특히나 본고에서는 여행 중 타자와의 만남이 민영환이라는 한 개인의 세계관과 정체성 변화에 기여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점은 귀국길에서 만난 유민들과의 소통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유민들을 만난 당시 민영환은 유민들의 삶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위정자로서 임무에 충실할 뿐이었다. 그러나 유민들과 직접적 소통을 하고 그들의 삶을 목도하면서 인식의 변화를 보인다. 민영환은 러시아 사행 업무 수행 과정을 통해서 애국심을, 귀국길 조선 유민들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서 동포애를 경험한다. 이렇듯 『해천추범』은 민영환의 인식 변화와 위정자로서 태도 확립의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그 가치를 갖는다고 본다.

**주제어** 『해천추범』, 민영환, 사절단, 러시아, 근대 여행기

---

\* 국립안동대학교 국어교육과 부교수

## 〈목차〉

1. 서론
2. 국제적 정세 인식과 견문을 통한 조선 근대화의 구상
3. 사적 정감의 표출과 민중에 대한 인식 변화
4. 『해천추범』의 특징과 문학사적 의의
5. 결론

## 1. 서론

본고는 『해천추범』(海天秋帆)에 나타난 세계 체험과 민영환의 인식 변화 양상을 고찰하여 『해천추범』의 근대성과 문학사적 의의를 해명하고자 한다. 1896년 고종은 러시아 니콜라이 2세 황제 대관식에 참석할 사절단을 구성한다. 대관식 참석은 사실상 명분일 뿐 실제로는 러시아로부터 조선에 대한 군사 보호 요청과 차관 마련 등의 도움을 받아 제국주의 열강의 위협에 놓인 조선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고종은 종1품 민영환을 러시아 특명전권공사로 임명하고, 김득련, 윤치호, 김도일, 슈테인, 손희영을 수행원으로 한 사절단을 구성했다. 사절단은 아관파천 후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긴 고종으로부터 친서를 전달하라는 특명을 받고, 1896년 4월 제물포항을 출발하여 204일 동안 여행한다. 유럽 행 배를 놓쳐 계획한 일정과 반대로 태평양을 건너 캐나다, 미국, 런던, 베를린 등을 경유하여 러시아에 도착한다.<sup>1)</sup> 뜻밖의 세계 일주가 된 이 여행을 통해 민영환은 국제 정세를 파악하고 세계 여러 나라의 정치, 역사, 경제, 지리, 문화, 교육, 군사 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근대적 감각을 기르고 견문을 확장한다. 나아가 서구의 다양한 근대 과학 기술과 산업 시설 공간을 경험하면서 조선의 근대화 방향과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고민한다.

『해천추범』에 대한 연구는 김지연, 김진영, 이효정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김지연은 『해천추범』의 여정과 견문을 기록하는 방식의 특징과 의미에 대해 살펴

1) 11개국을 거쳤고 여행의 총 거리는 17,000Km가 넘었다. 귀국길은 시베리아를 경유하여 서울에 도착하였으니 조선 최초 세계 일주 여행이었다.



보았다. 『해천추범』이 개인의 내밀한 서술이 아니라 공식적 상황에 대한 간결한 기록임에 주목하여, 여정을 분석하였다.<sup>2)</sup> 이효정은 『해천추범』을 통해 19세기 조선인의 세계 관찰과 인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사절단은 폭력적인 제국들의 침략 행위에 대해 묵인하고 동조하며 그 행위가 개화를 위한 정책이라고 하는 등 제국주의 시각을 그대로 보여주었다고 비판하기도 하였다.<sup>3)</sup> 김진영은 옥시덴탈리즘적 시각에서 살펴보았다. 『해천추범』이 개인의 목소리로 쓰여진 현대적 여행기와 거리가 멀고, 서술 체제나 형식이 연행기(燕行記) 전통에 속한 공적 집단 인상기에 가깝다고 보았다.<sup>4)</sup> 선행연구들은 『해천추범』이 개인의 목소리와 감정이 배제된 공적 여행 기록이며, 서구 근대 문명에 대한 찬탄이라는 점에 중점을 두고 『해천추범』을 분석하였다. 『해천추범』이 러시아 서구 근대 문명에 무비판적으로 압도되어 주체적인 시각을 갖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적하기도 하였다. 본고는 이런 선행연구의 성과를 수용하면서도 『해천추범』이 단순히 사행 업무만을 기록한 공적 기록물이 아니라 개인의 감정 노출이 빈번하게 나타난다는 점에도 주목한다. 객관적 기록 뿐 아니라 개인의 주관과 감정이 빈번하게 표출되는 지점에 대해 함께 살펴봄으로써, 『해천추범』이 전통적인 연행록과 차별화된 지점을 밝힐 것이다. 나아가 『해천추범』이 개인의 감정 표출, 자기 인식 변화, 타자의 발견, 근대적 자각으로 나아가는 근대 여행기의 특징이 일부 나타나고 있음을 밝힐 것이다. 본고에서는 여행 중 타자와의 만남이 민영환이라는 한 개인의 세계관과 정체성 변화에 기여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를 위해 러시아로 가는 여행길 뿐 아니라 선행 연구에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은 귀국길 연해주 일대에서 만난 조선 유민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부분에 대해 세밀하게 다룰 것이다.

김득련은 민영환의 수행비서이자 제술관(기록관)으로 여행에 참여하였다. 사행 기록은 공유할 수 있다는 사행록의 전통 속에서<sup>5)</sup> 『해천추범』과 『환구일록』

2) 김지연, 「『해천추범』의 여정과 견문 기록 방식의 특징과 의미」, 『한민족문화연구』 제60집, 한민족문화학회, 2017.

3) 이효정, 「1896년 러시아 사절단의 기록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4) 김진영, 『시베리아의 향수』, 이숲, 2017, p.36.

은 따로 저술되었다. 민영환은 자기 견문을 기술하되 김득련이 한문으로 기록한 『환구일록』을 참조하여 『해천추법』을 새로 저술하였다.<sup>6)</sup> 본고는 공적 기록물 속에 담긴 개인의 주관적 감정 표출에 주목하여, 여행이 근대 조선인의 타자 인식과 개인의 정체성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나아가 이 여행기가 근대 조선인의 개인적 자각이 담긴 기록물로서도 그 가치가 있음을 밝혀내고자 한다. 이를 위해 1896년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 위기에 놓인 조선의 현실에 대한 자각, 근대 군사 제도 및 근대 교육 도입의 필요성 제기, 견문을 통한 세계관의 변화 등에도 주목하여 논의를 구체화할 것이다.

## 2. 국제적 정세 인식과 견문을 통한 조선 근대화의 구상

### 1) 당대 국제 정세에 대한 사전 이해 결여

개항 이후 조선은 국제 정세를 파악하기 위해 청과 일본, 미국 등지에 여러 차례 사절단을 파견한다. 영선사 일행을 보내 청나라의 근대 무기 제조법을 익히고, 일본에 두 차례 수신사를 보내고, 조사 시찰단을 파견하여 근대 문물과 산업 시설을 시찰한다. 조·미수호통상 후에는 보병 사절단을 보내, 미국과 유럽을 시찰하기도 한다. 조선은 서구 근대 문물 시찰을 통해 중화주의적 시각에서 벗어나 청나라를 하나의 타자로 인식하기에 이른다. 나아가 청나라, 일본, 러시아, 미국 등 서구 열강들 사이에서 자구책을 모색한다.

조선과 러시아의 관계는 세계 국제 정세에 따라 여러 차례 변화되었다. 1860년 러시아가 베이징 조약으로 연해주를 획득한 이후, 부동항을 찾으려 남하 정책을 강화하자 조선은 러시아에 대해 강한 위기의식을 갖는다. 2차 수신사로 일본에 다녀온 김홍집은 조선에 황준선의 『조선책략』을 소개하면서 러시아 세력 확장을 견제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유길준 역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한반도 중립화론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러시아에 대해 대립각을 세워오던 조

5) 이효정, 앞의 논문, 2008, p.8.

6)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허경진, 『조선의 중인들』, 알에이치코리아, 2015, p.335 참조.

선은 갑신정변 후 청의 내정 간섭이 심해지자 러시아에 도움을 청한다. 이후 일본의 세력 확장이 가속화되자 1886년에는 조·러 비밀 협정을 체결한다. 민씨 일가는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의 세력이 강함을 인지하고 친러파와 결탁하여 친러 내각을 성립한다.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일본은 미우라를 주한 공사로 임명하여 1895년 8월 을미사변을 일으킨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은 1896년 2월 11일 아관파천을 단행하였고, 친러 내각이 수립된다. 고종은 각종 이권을 러시아에 넘겨주는 대신 러시아로부터 자신의 신변 보호를 약속받는다.

조선이 러시아 황제 대관식에 초대받은 것은 이같이 제국주의 열강들이 조선에 대한 이권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던 상황에서였다. 러시아 사절단으로 동행했던 윤치호가 쓴 글<sup>7)</sup>에는 당시 조선의 정세와 이에 대한 윤치호의 인식이 자세히 나타난다. 윤치호는 회고록의 형식으로 러시아 황제 대관식에 참석하게 된 경위와 서구 열강들과의 교섭, 조선의 복잡한 정치적 상황이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다. 또 윤치호는 외교계의 ‘第一花形의 인물’이라고도 할 만한 일본의 야마가타(山縣有朋)와 중국(支那)의 리홍장이 러시아 공사로서 황제 대관식에 참석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리홍장은 철도 부설권과 조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야마가타는 조선의 분할 문제와 이에 대한 의정서를 체결하기 위해 대관식을 방문한 것이었다.<sup>8)</sup> 이러한 복잡한 열강들의 제국주의적 욕망이 얽혀 있고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이 비밀리에 작동하는 곳이 러시아였다는 사실을 고종과 민영환은 알지 못했다. 그렇기에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외교적 준비조차 충분하지 못했다.<sup>9)</sup> 그러므로 『해천추범』에 담긴 각국 사절단과의 공식적 만남과 행

7) 서력 1896년 (중략) 露西亞는 帝政 極盛의 時代로서 新皇의 世력이 蹁蹁하고 南하의 政 策이 노골화하여 (중략) 日本과 支那의 우려도 또한 심상치 아니하였고 (중략) 외교계의 第一花形의 인물이라고도 할 만한 일본의 山縣有朋과 支那의 李鴻章이 엇었다. 그리자 그 해 5월에는 맞침 露西亞 황제 니코라이 2세의 대관식이 잇으므로 그를 축하키 위하여 (하략) 윤치호, 「只 今으로 三十一年前 露西亞에 大使갓든이악이, 솔님상투에 갓든 大使 一行 그러나 國賓의 待遇는 隆盛」, 『별건곤』 6, 1927.4.1.

8) 이를 통해 청나라는 러시아와 러·청 비밀 협정을 맺었고, 일본은 로마노프-야마가타 의정서를 체결하였다.

9) 심지어 민영환은 러시아 황제 대관식에도 참석하지 못했다. 러시아 예배당에 들어가려면 관을 벗어야 했는데, 민영환이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민영환 저, 이민수 역, 민홍기

사, 그와 관련된 외교 담론은 피상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공식적인 객관적 기록과 함께 『해천추범』에 나타난 사적 경험과 주관의 표출이 담긴 대목을 정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이 여행의 달성 유무와 근대 여행기로서의 가치를 입증하는 데에 더 필요한 과업이라 본다.

## 2) 서구적 근대화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 강조

『해천추범』에는 군사시설과 학교, 근대 문물 시찰 등 공적 영역에 대한 관찰 기술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병조판서를 지낸 민영환은 군사력이 부국강병의 수단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해천추범』에는 러시아의 군사 제도와 병역, 근대 무기 제조법, 군사 학교 운영 등에 대해 자세히 소개한다. 특히 군사력의 증강은 서구 열강의 위협 아래 놓인 조선의 수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소개는 구체적이고 빈번하게 나타난다.

부국강병책의 또다른 일환으로 주목하는 것은 학교이다. 조선에서는 갑오개혁으로 학무아문이 설치되고, 1895년에는 근대 문명화된 교육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교육입국조서>를 발표한다. 교육을 ‘국가를 보전하는 근본’이라 칭하며, 지덕체(智德體)를 강조하였다. 특히나 신학문과 과학적 지식을 중요하게 여겨 일본과 미국 등지에 유학생을 파견하기도 하였다. 조선인의 서양 여행은 시찰과 학습의 과정이었고, 수용과 모방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sup>10)</sup>

상고하건대 각 서양 나라의 백성 가르치는 법은 남녀가 8세면 모두 학당에 들어 가는데 만일 들어가지 않으면 그 부모를 죄 주고 병어리나 귀머거리·소경도 모두 학당이 있으며 빈궁한 자 및 고아도 역시 거두어 의숙에 넣는다. 그러므로 한 나라 안에 학당과 의숙이 숲같이 서서 대·중·소가 있어 재주에 따라 과(科)를 나누고 문(文)·무(武)·상(商)·농(農)·공(工)에는 전문의 학당이 있어서 온 나라 사람이 각각 한 가지 재주를 갖고 또한 글자를 알아 글을 통하지 못하는 자가 없으니 가위 장하고 아름답도다.<sup>11)</sup>

편, 『민충정공 유고(전)』 권3, 일조각, 2000, p.32 참조.

10) 김진영, 앞의 책, 2017, p.25.

11) 민영환 저, 이민수 역, 민홍기 편, 『민충정공 유고(전)』 권3, 일조각, 2000, p.168. 다음

인용문에서는 서구 국가들이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과 각자 자신이 지닌 재능과 소질에 따라 공부한다는 점에 대해 소개한다. 이를 두고 “가위 장하고 아름답도다.”라며 『해천추범』 통틀어 최고의 칭찬을 하고 있다. 이 밖에 도서관을 방문하여 ‘참으로 학문을 권하는 큰 일이다.’(p.169.)라거나 ‘빈궁한 사람이나 고아도 모두 학원을 설치하고 교육’(p.189.)하는 것에 대해 자세히 소개한다. 교육을 통해 근대 서구 학문을 익히는 것이 부국강병(富國強兵)을 위한 길이며, ‘조선을 구하는 큰 일’임을 민영환이 분명하게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서구 학문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그는 러시아와 경유국들의 군사학교와 대학교를 자주 방문하였는데, 이점은 그가 교육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컸는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다음과 같은 부분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우 서기가 말하기를, 경응의숙(필자:게이오의숙)에 있는 우리 학도 1백50여 명이 학비가 부족해서 고초를 면치 못하여 폐단이 많이 생기니 창피함을 견딜 수 없는데, 숙주 북택유길이 우리 나라 학부와 약조가 있다고 하여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지 않는다고 한다. 서울에 있을 때 이미 이 일을 들었지만 학부에서는 마땅히 이 조약을 새로 고쳐서 새 공사가 올 때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p.118.)

요코하마에 도착한 민영환은 경응의숙 유학생들이 학비와 생활비 부족으로 고초를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다.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가 근대화된 서유럽으로 시찰단을 보낸 것처럼, 메이지 유신 후 일본은 일찍이 근대화를 이룬 미국과 유럽으로 이와쿠라 사절단을 파견하는데, 이때 관비 유학생도 함께 보낸다. 일본을 근대 교육의 표본으로 삼은 조선은 일본으로 조사 시찰단을 보내고 조선의 근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관비 유학생을 모집한다. 갑오개혁 이후 김홍집 내각이 집권 중이던 1895년 4월 7일 박영효의 주도로 관비 유학생 백여 명을 북택유길(후쿠자와 유키치)이 세운 경응의숙으로 보내지만,<sup>12)</sup> 이후 집권한 새 내각의 보

---

인용부터는 쪽수만 표기.

- 12) 박찬승은 “박영효의 주도 아래 일본에 대규모의 관비 유학생을 파견하였고, 유학생은 모두 3차례에 걸쳐 151명에 달했다”고 밝힌다. “이들은 개항 이후 최대 규모의 유학생 파견

수성과 조선 정부의 재정 부족으로 학비가 유학생에게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 을미사변 후에는 일본과의 적대적 관계를 이유로 유학생 소환 조치까지 내리지만 후쿠자와 유키치가 학부와의 약조를 거론하며 유학생들을 귀국시키지 않았다.<sup>13)</sup> 이 약조에 대한 내용은 학부편집국장으로 일본 유학생을 감독했던 신해영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학무대신 훈시에 덧붙여 몇 가지 조항을 부연하고 있는데, 글에 따르면 일본 유학생의 학자금과 각종 잡비 등은 관비로 정하고, 그와 관련된 권한을 후쿠자와유키치(복택유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다.<sup>14)</sup> 인용문에서는 경응의숙 폐단에 대해 언급하며, ‘폐단이 많이 생기니 창피함을 견딜 수 없다’라는 유서기의 말을 직접 인용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유서기는 폐단의 원인을 조선 유학생들로부터 찾고 있는 반면, 민영환은 그 원인을 조약의 불합리성에서 찾고 있다는 점이다. 민씨 세력의 중심이자 정부 핵심 관료인 민영환은 을미사변에서 보여준 일본의 잔혹성과 제국주의적 야심을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조선 유학생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정적 감정 표출을 하지 않은 채 객관적인 문제 상황에 대한 대책 방안만을 강구한 것이다.

### 3) 국제 정세를 통한 조선 현실의 반영과 투사

민영환은 러시아 황제 대관식에 참석한 일본의 야마가타와 중국 리홍장의 야심과 외교전략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지만, 여행 중 견문을 통해 국제 정세를 이해하고 조선의 현실에 대해 깊이 우려했음을 알 수 있다.

서양 사람의 말을 들으니 파사국왕이 요새 자객에게 시해당했는데 이는 나라 안 이 당이 나뉘어서 영국과 아라사에 붙어 서로 사이가 나빠져서 도무지 개명하고 새

---

이였으며, 유학생은 게이오 기주쿠(慶應義塾)에 입학하여 6개월 내지 1년 반에 걸쳐 보통과 교육을 받았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박찬승, 「1890년대 후반 도일(渡日) 유학생들의 현실인식」, 『역사와 현실』 제31권, 한국역사연구회, 1999, pp.118-119 참조.

13) 복택유길(福澤諭吉, 후쿠자와 유키치)은 경응의숙 설립자이다. 그는 일본의 사절단으로 미국과 유럽을 방문한 뒤, <서양사정>을 저술하여 일본 근대화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다.

14) 신해영, 「無神經契約의 結果 不善變」, 『친목회회보』, 1898.4.9.

로워질 방책이 없어 심지어 이러한 변이 일어났다. 장자가 병이 있으니 차자가 마땅히 서서 임금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 이 나라는 마치 제나라와 초나라 사이에 끼여 능히 스스로 자기 나라를 닦지 못하고 내란이 끊이지 않아서 형세가 장차 범이 노리는 속에 돌아가 합병될 것이니 참으로 탄식스럽고 애석한 일이다.(p.122.)

인용문에서는 파사국왕이 자객으로부터 시해당한 사건을 두고, 그 원인을 다양하게 찾고 있다. 나라 안에 당이 나누어져 있는 것, 왕위 다툼, 자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태도, 계속된 내란 등을 언급하면서, 파사국이 장차 서구 열강에게 합병될 것까지 걱정한다. 파사국의 상황은 임오군관과 동학 농민 운동, 을미사변 전후의 조선의 상황을 연상시킨다. 이는 파사국의 상황을 통해 조선의 현실태와 미래를 암시적으로 투사해본 것이다. ‘장차 범이 노리는 속에 돌아가 합병될 것’이라는 구절은 조선의 암담한 미래를 예감하게 한다. 여기서는 ‘국가 위기의 원인 분석—그 결과 제시—위정자로서의 소회 제시’의 서술 제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4월 18일에 도착한 폴란드의 현실을 언급할 때도 사용된다.

들으니 이곳은 옛날에 가장 개화한 자주의 나라였는데 백여 년에 정치가 점점 쇠약해져서 사족이 백성을 업신여기고 사납게 하여 내란이 여러 번 일어나도 능히 진정하지 못하다가 끝내는 아라사·오지리·불란서 세 나라가 그 땅을 쪼개 가졌으니 이것은 가히 나라를 도모하는 자가 거울삼아 경계할 일이다.(p.127.)

인용문에서는 폴란드 내란의 원인을 사족이 백성을 업신여긴 데에서 찾았다. 그 결과 서구 열강 세 나라(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필자-불란서라 표기한 것은 민영환의 오기임)가 폴란드를 분할 통치한다. 이를 두고 ‘가히 나라를 도모하는 자가 거울삼아 경계할 일’이라 언급하며 위정자로서 당부를 덧붙였다. 이 부분 역시 당시 러시아와 일본의 회담에서 일본이 조선의 남북 분할 통치를 제안하였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조선의 불안한 현실이 투사된 부분이다. 실제로 이 무렵 《친목회회보》 논설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글이 실렸는데, 이는 당시 조선의 현실을 짐작하게 한다. 글에서는 ‘동서양의 정세를 살펴볼 때 조선

국토가 서양 제국주의의 피해지가 될 것'이라 예측하면서 '조선 인민된 자가 오늘에 발분하여 자신의 문호를 지킬 각오가 없으면 분열되어 끝내 폴란드의 전철을 밟'게 되리라고 경고하고, '선각자들은 수수방관하지 말고 국가의 위태함을 돌아보라'고 조언한다.<sup>15)</sup>

나아가 민영환은 조선의 불안한 현실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1) 일꾸쓰크 도착 후 12일. 두루 거리와 시가지를 보니 정제하고 정밀하고 사치스러운 것이 모두 피득도의 제도를 모방했고 인물도 수려하며 거리 위의 수레바퀴 소리가 시끄럽게 끊이지 않으니 참으로 변화한 도시이다. 어찌 몇 천 리 황막한 물가에 이렇게 개안(開眼)할 곳이 있으리라 뜻했던가? 이는 위아래가 정치를 잘하여 날로 문명으로 나간 까닭이 아니겠는가? 사람으로 하여금 부러워하고 탄식하기를 마지않게 한다.(pp.181-182.)

(2) 전등과 가스의 연락된 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안계(眼界)가 갑자기 밝아지게 하더니 동경에 들어와 보니 모든 배치한 것이 못하지 않은 것이 없어 정밀한 중에 더욱 정밀하기를 구하고 날로 새롭고 또 날로 새로우니 이는 모두 이 나라 사람들이 부지런히 서양의 법을 배워서 개명한 데서 나온 것이요 남의 손은 빌리지 않은 것이다.(p.118.)

(1)은 조선 위정자들이 통치 자세를 달리해야 함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먼저 일꾸쓰크의 시가지가 피득도(페테르부르크)를 모방했음을 지적한다. 포르트르대제가 근대화를 추진하기 전까지 러시아는 유럽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 있었다. 포르트르대제가 페테르부르크를 근대적 도시로 완전히 새롭게 건설하자 그런 페테르부르크를 표준으로 삼아, 러시아 전역이 단시간에 서구 유럽의 근대화된 모습으로 변모한다. (1)에서 민영환은 페테르부르크가 번성한 이유에 대해 '위 아래가 정치를 잘하여 날로 문명으로 나갔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관점을 갖춘 민영환은 포르트르대제의 생각을 방문하고 그를 '검약한 제도로서 계책을 남긴 참으로 중흥의 현주(賢主)'라고 높게 평가한다. 이렇게 포르트르

15) 「국민적 대문제」, 『친목회회보』 제3호, 1896.10.23.



대제의 생애와 가치관을 빈번하게 언급하는 것은 그가 단기간에 러시아를 근대화로 이끈 근주였기 때문이다. 민영환은 포트리 대제의 사례를 통해 서구 문명에 대한 예찬과 조선의 근대화 필요성을 주장하려 한 것이다. 또 그를 통해 위정자가 갖춰야 할 태도와 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제시하고 있다. (2)를 통해서 는 조선인이 근대 문명에 대한 태도를 달리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부지런히 근대 문명을 습득하되, 서구 열강들의 위협 속에서도 자주적이고 주체적 개화의 태도를 갖추어야 함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민영환은 서구 열강들의 약육강식과 군비경쟁의 실정을 목격하고 러시아와 서구 제국주의 열강들이 계속해서 무기를 생산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 무기를 녹여 농기로 만드는(p.158.) 이상주의적 바람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나 평화에 대한 소망은 민영환의 바람일 뿐이었다. 러시아는 조선이 제안한 조항 중 극소수만 수용하였으며, 일본과 몇 차례 비밀 회담을 통해 로마노프-야마가타 의정서(1896.6.9.)를 체결하여 조선에 대한 공동 간섭을 용인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이다.

### 3. 사적 정감의 표출과 민중에 대한 인식 변화

#### 1) 공적 기록 속에 삽입된 사적 감정 표출

『해천추범』은 공적 사행록이지만 민영환 개인의 사적 기록도 빈번하게 드러나 있다. 먼저 가족과 지인들과의 만남과 이별의 정한을 드러낼 때 나타난다. 사행 출발 전 어머니께 작별인사를 고하고 동생 영찬에게 집안일을 부탁한 뒤 아내와 작별하는 장면, 동생 영찬이 돈의문 밖까지 나와 배웅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진술한다. 사행의 과정에서 만남과 이별은 흔히 나타나는 소재지만 가족에 대해 정밀하게 기술한다는 점은 특징적이다. 재당질 민경식과 주석면과 이별하는 대목에서도, ‘두 사람에 대한 정 때문에 차마 떨어지기 어려워 서로 헤어지기가 너무 섭섭하다.’라며 아쉬움을 표현한다. 특히 사절단 일행인 윤치호와의 헤어짐에 대해서는 매우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윤치호가 프랑스어를 배우기 위해 그곳에 남아 있기로 하자, “4만 리를 배와 수레로 고생했고 5개월 동안이나

밤낮으로 서로 만나다 이제 작별해야 하니 슬프고 섭섭함이 과연 참을 수 없다.”라고 언급하고 배웅길에는 “악수하고 서로 환송하며 기차의 연기가 아득할 때까지 바라보니 암연함을 이길 수 없어 뉘이 나간 것 같다.”(p.171.)라고 밝히며 이별의 아쉬움을 여과 없이 표현한다.

『해천추범』에서 사적 감정을 표출할 때 주로 사용하는 서술전략은 ‘편지’의 활용이다. 『해천추범』에는 ‘편지’(혹은‘글’이라고 칭하기도 함)가 15번 등장한다. 편지를 송수신할 때에는 민영환의 개인적 정서가 빈번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6월 1일 기록에 따르면 스테인이 페테르부르크에 계신 늙은 어머니를 만나고 오자 민영환은 ‘사친(私親)에 대한 그리운 정이 간절하다. 지금 스테인이 다녀오는 것을 보니 더욱 부러워 견딜 수 없다.’고 밝힌다. 이에 편지를 쓰는데 편지가 50일쯤 뒤에 서울 집에 도착할 것이라 예상하며 편지를 받고 기뻐할 가족들의 얼굴을 떠올린다.

이국에서 목격하는 명절 풍경과 자연환경을 보면서도 주관적 감정이 표출된다. 청명일에 중국 사람들이 조상의 묘소에 올라가 돈을 태우는 모습을 보고, 조선의 청명 풍속을 생각한다. 단오에는 ‘바람과 빛이 우리나라와 다르지 않으니 더욱 가정과 나라에 대한 그리움을 막을 수 없다.’(p.144.)라고 기록한다. 독일의 지나면서는 근대화가 진행된 독일의 모습에 감동하면서도 순박한 옛 풍치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음을 가상하게 여긴다. 마을과 들에 밀이 익어가고 밭에는 나물 꽃이 가득하니, 그 풍경에서 이 계절의 고향 동산을 떠올려 향수에 젖는다.(p.127.) 이처럼 『해천추범』에는 사행의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하면서도, 민영환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 빈번하게 노출되어 있다. 이를 통해 그의 다정다감한 성격을 예측해 볼 수 있다. 그 예로 4월 24일에 배 안을 돌아다니며 수행하는 사람들을 세세히 격려하고, 윤치호의 무릎 통증이 나아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뻐한다.(p.120.) 이런 민영환의 심성은 이민족(異民族)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되어 나타난다. 얼음 위에 집을 만들고 눈으로 문을 만들어 살면서 얼음이나 눈으로 갈증을 풀고 물고기와 짐승을 잡아 배고픔을 채우며, 사슴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고 그 가죽을 깔고 자야 하는 에스키모인에게서 몽골 유목민의 삶을 떠올린 뒤 그 궁하고 황량한 삶을 걱정하는 것이다.(p.161.)

## 2) 귀국길의 전근대적 풍경과 정감의 표출

사행을 수행하러 가는 여정에서는 대체로 공적 행로나 견문에 대해 기술하지만, 공적 임무 수행을 마친 귀국길은 개인의 주관적 감정 표출이 자주 나타난다. 여행기에는 임무 수행을 마친 자의 여유가 발견되지 않는다. 그것은 임무가 제대로 완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러시아는 고종이 제안한 5개 조항에 대해 극히 일부만 수용했다. 6월 5일 『윤치호 일기』에 따르면 조선이 러시아에 요구한 것은 크게 5개 조항으로, 고종 신변 보호, 조선의 군대와 경찰 훈련을 위한 다수의 교관 파견, 궁내부와 내각, 광산과 철도 분야를 지도할 고문 파견, 조선과 러시아 간의 직통 전신 가설, 일본에 빌린 차관 상환을 위한 300만 원의 차관 제공 등이었다.<sup>16)</sup> 일본과 비밀리에 조선 공동 간섭을 논의하고 있던 러시아는 고종 신변 보호, 군사 교관과 재정 고문 파견 두 항목에만 승낙했을 뿐 나머지 부분은 지극히 소극적인 차원에서의 지원만 약속했다.

개인의 복잡한 심리 때문인지 공적 임무 수행자로서 개인적 감정을 표출을 가능한 자제하려 했던 여행 초·중반부외는 달리 임무 수행을 마치고 귀국하는 귀국길인 9월부터는 유난히 감정의 주관적 표출이 많다. 당시 시베리아 횡단 열차가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배와 마차를 주로 이용한다. 그래서 이 무렵 기록에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은 귀국길 여행의 피로감 표출이다. ‘며칠 동안 밤낮으로 피로하니 병이 나지 않을 수가 없다.’(p.182.) ‘길이 험하고 질어서 차가 더욱 몹시 흔들리니 사람도 피곤하고 말도 기운이 빠졌다.’(p.183.) ‘날마다 지나온 것이 혹은 산이요 들인데 역사와 촌집이 한결같이 나무를 겹쳐서 만들었는데 추하고 비루해서 잠시도 머물기 어렵다.’<sup>17)</sup>(p.183.) 등 거의 날마

16) 윤치호 저, 윤경남 역, 『민영환과 윤치호 러시아에 가다』, 신양과지성사, 2014, p.128; 윤치호 저, 『윤치호 일기』 6월 5일 참조.

17) 이밖에도 여러 차례 귀국길의 고단함에 대해 언급한다. “한데서 먹고 자기를 수십일 가까이 하니 독감과 찬 기침으로 온 마디가 모두 아프니 한 길의 피로움이 이보다 심한 것이 없다. 마차가 아직도 7백여 리를 더 가야 하는데 3일이면 갈 수 있다고 하나 또한 어찌 견딜 수 있으랴”(p.181.) “온종일 강을 끼고 가는데 산길이 비좁고 봉우리는 돌고 물굽이가 구부러졌다. 찬 바람은 쓸쓸하고 누른 잎은 어지러이 날리니 더욱 나그네 회포의 쓸쓸함을 금치 못한다.”(p.184.) “밤이 되어 달은 밝은데 지나가는 길이 또 강을 낀 산길이어

다 노독의 괴로움을 여과 없이 토로하며, ‘슬프고 애석하다’라고 밝히고 있다. 요코하마를 거쳐 러시아로 향하는 여정은 근대 서구 문명의 번성과 편리를 경험하는 길이었다. 운송 수단도 기차나 증기선 등의 근대적 과학기술의 발전을 상징하는 것들이었다. 반면 조선으로의 귀국길은 불편한 마차를 타야 했고, 끊임 없이 펼쳐지는 산과 들과 추하고 비문명화된 전근대적 시설들을 재확인하는 길이었다. “페테르부르크로 가는 길이 문명 세계로의 점층 진입이었다면, 돌아오는 길은 비문명 세계로의 점층적 귀속”<sup>18)</sup>이었던 것이다. 귀국길에 목도한 풍경과 비문명화된 시설 경험은 단순히 불편함과 우울함의 정서를 유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런 비문명화된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으로 나아간다. 블라디보스토크에 이르러 만나게 된 조선 유민들의 존재가 그런 정서를 더욱 증폭시킨다.

### 3) 조선 유민과의 만남과 민중에 대한 인식 변화

『해천추범』에서 민영환은 윤치호의 건강을 염려하고, 윤치호의 어학 능력을 칭송하며 그와의 작별을 애석해하는 등 윤치호를 높이 평가한다. 반면 윤치호는 『윤치호 일기』에서 민영환을 ‘쓸데없는 일에 돈을 쓰며 국가 재정을 낭비하고, 비위 맞추기 어려운 사람이며,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떠넘기는 책임감 없는 사람’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윤치호의 판단에 의하면, 민영환은 민씨 세력의 대표격으로 왕실 세력과 가까이하며 민중을 등한시한 인물이다. 윤치호는 ‘민영환이 너그럽고 허심탄회한 사람이었지만 너무 오랫동안 아첨하는 무리들의 대접을 받아왔기 때문에 조선의 타락한 관료 생활로 인해 이기적인 사람이 되었다고 판단한다. 그는 민영환이 외국에서 교육을 받았다면 진실 되고 용기 있는 조선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보았다.’<sup>19)</sup> 윤치호는 그 계기를 교육이라고 보

---

서 진흙이 바다와 같아 말이 가지를 못하고 수레가 흔들려 견딜 수가 없다. (중략) 행역(行役)의 괴로움을 돌이켜보니 갈수록 더욱 심해서 자는 것도 있고 먹는 것도 폐하게 되니 괴로워 탄식할들 어찌하라?”(p.184.)

18) 김진영, 앞의 책, 2017, p.61.

19) 윤치호, 『국역 윤치호 영문 일기3』, 국사편찬위원회, 2014, p.206.

았지만, 후대에 민영환이 애국지사로 평가되고 그의 최후가 진실되고 용감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민영환의 인식에 전환점이 된 것은 여행이었다.

사행 초반에 민영환은 흑룡강 총독 두흠피이와 만나 조선 유민을 소환할 일에 대해 상의한다. 총독 두흠피이는 조선 유민 중에 ‘잡된 무리’가 있어 잘 조치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이는 블라디보스토크 조선 유민 문제는 조선 조정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연해주 일대 조선 유민 관련 내용은 『해천추범』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며 자세하게 소개된다. 민영환은 먼저 연해주의 역사와 조선 유민의 실태에 대해 요약해서 제시한다.<sup>20)</sup>

역사적으로 볼 때 조선인들이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주한 것은 조·러수호통상 조약이 체결되면서 시작되었다. 1863년 조선인 13가구가 국경을 넘어 포시에트 지역으로 이주한 것으로부터 블라디보스토크 정착형 이주가 본격화되었다. 이 주 동기는 조선 지배 세력의 폭정과 인구 과밀, 좁고 토박한 농토로 인한 궁핍, 과중한 군역 등을 들 수 있다.<sup>21)</sup> 조선인이 버려진 척박한 토지를 개간하자 처음에 러시아 정부는 정착에 필요한 식료품을 지급하는 등 매우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다 1869년 기사년 대흥년으로 조선 유민이 급증하자, 러시아 정부는 조선 유민들을 우수리스크, 파르티잔스크, 수찬 등지로 흩어지게 하여 흑시 일어날지도 모르는 분란에 대비했다.<sup>22)</sup> 이렇게 볼 때, 조선 유민이 이곳으로 이주한 일차적 이유는 민씨 세력의 폭정과 과중한 세금 착취 등이었다고 볼 수 있다. 윤치호가 앞에서 지적했듯이 민영환은 왕실 측근이자 오랜 관료 생활로 인해 조선 유민들의 이러한 사정에 대한 사전 이해가 전혀 없었다. 그래서 처음에

20) “들으니 이곳은 본래 청나라 땅이었는데 무라비움이 새로 개척하고 항구를 연 지 30여 년이 된다. 인구가 2만 6천인데 또 우리나라 사람이 2천 여명이고 청국 사람이 만여 명이며 일본 사람이 4·5백 명이다. (중략) 이곳에 사는 우리 유민이 수백 호이며 두루 근처에 사는 자도 만여 호나 되니 대개 기사(1869년)의 대흥년으로 인해서 북쪽 백성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러서는 팔도 사람들이 계속 끊이지 않고 들어와서는 돌아가지 않아서 이렇게 많아진 것이다.”(p.191.)

21) 이윤기, 『잊혀진 땅 간도와 연해주』, 화산문화, 2005, p.173.

22) 위의 책, p.174.

는 조선 정부를 대변하는 공무 수행자로서 유민들을 만날 때마다 조선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는 자세를 보인다.<sup>23)</sup>

그러나 유민들과 여러 차례 만남을 통해 인식의 변화를 보인다. 조선 유민들은 정성을 다해 민영환을 대접한다. 이에 민영환은 타국에서 조선 음식을 대접 받고 감동하여 긴장을 내려두고,<sup>24)</sup> 그들과 대화하면서 유민의 실정에 대해 점차 알아가게 된다. 민영환은 유민들이 여전히 고국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과<sup>25)</sup> 유민들이 여전히 군주에 대한 충성심을 간직하고 있음을 가상하게 여긴다.<sup>26)</sup> 조선 유민들은 조선의 왕을 보듯 민영환을 섬겼고, 국기를 걸고 고국에 대한 예를 갖추기도 한다. 이러한 유민들이 보여준 진심 어린 온정과 고국에 대한 충정을 직접 목도하고 체험한 민영환은 ‘그 온정이 너무 고마워 취하고 배가 부를 때까지 맥’기도 한다. 민중과 직접 소통하고, 그들의 진심 어린 호의를 받는 과정에서 동포애가 생겨난다. 유민들로부터 요구사항을 듣고는 그들을 교화하고, 위정자로서 무한한 책임감과 대책 방안에 대해서도 강구한다.

마땅히 급히 영사(領事)를 설치하여 맡아 다스리게 하고 자세히 약장(約章)을 정하여 고향에 가고자 하는 자는 모두 불러들이고 상업을 하려는 자는 조계(租界)를 정하여 살게 하면 가히 유산(流散)하고 시끄러운 폐단을 면할 것이니 이는 시무(時務)의 가장 급한 것이요 또 유민들이 바라는 바이다.(p.194.)

- 
- 23) 아무쪼록 일을 수습하고 속히 고국에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더니 그들의 말이 다소 이익을 얻었으니 이것으로 자분을 삼아 장차 돌아가겠다고 한다.(p.187.)
- 24)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 식으로 성대하게 저녁을 차렸다. 김복길이 여러 사람을 데리고 와서 권하니 그 온정이 너무 고마워 취하고 배가 부를 때까지 먹었다.(p.189.)
- 25) 원산의 박기순은 일찍이 우두머리의 백성으로서 아직도 상투를 틀고 있다. (중략) 그들의 말로는 오늘날 다행히 본국의 위의(威儀)를 볼 줄 몰랐다면 기쁨과 감격이 교차하는 것을 이기지 못한다. 만일 조정에서 부르는 명령이 있으면 떠도는 백성들은 마땅히 모두 귀국하겠다고 한다.(186쪽); 우두머리 김복길이 수십여 인을 데리고 와서 보고 고국을 잊지 않는다는 뜻을 자세히 말한다. 고국을 잊지 말라는 뜻을 상세히 설명했다.(p.188.)
- 26) 우리나라 사람의 도소(都所)에 갔다. 우리나라 안세정 등 몇 사람이 와서 기다리며 맞는다. 도소에는 우리나라 국기 하나를 만들었고 매년 대군주폐하의 만수성절(萬壽聖節)에 이를 걸어 송축(頌祝)하니 조국을 향한 그 정성이 가상하다.(p.192.)

민영환은 유민들의 요구사항을 듣고 위정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대책 방안을 모색한다. 처음 민영환은 유민들의 삶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귀국 지시만 내리는 등 위정자로서 임무에 충실할 뿐이었다. 그러나 유민들과 직접적 소통을 하고 그들의 삶을 목도하면서 점차 인식의 변화를 보인다. 조선으로 귀국하려는 유민은 처벌 없이 수용하고, 연해주에 살고자 하는 유민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실제로 민영환은 귀국 후 이점을 고종에게 건의하였고, 1900년에는 해삼위 통상사무관이 파견되어 유민들을 보호하기에 이른다.

《독립신문》은 귀국 후 돌아온 러시아 사절단에 대해 여러 차례 보도하는데,<sup>27)</sup> 여행의 성과는 물론 여행 후 민영환의 인식이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독립 신문사 사름이 일전에 아라샤 공스 다녀 온 민영환씨를 만나 삼십분 동안을 이야기를 하여 본즉 민찬경이 이왕 민판서와 온통 다른 사름이 된거시 미국과 구라파를 류람 하고 남의 나라 인민들 사느거슬 보고 와서 마음이 감동이 된거시 더라 (중략) 데일 부러운 일이 (중략) 독립과 주주 하는 마음들이 다 잇고 돌지는 상하 귀천이 다 지기 남군과 지기 동포 형대를 스랑 하는 마음들이 잇서 (중략) 셋지는 다 넓고 쓸줄을 알며 (중략) 이번에 도라 온 후에 조선도 차차 기혁을 아니 하여서는 나라히 부지 못 흘줄을 아조 밋고 외국에 가서 남의 나라 관원들과 인민들 사느거슬 본즉 분한 마음이 것 잠을슈가 업노라<sup>28)</sup>

민영환을 인터뷰한 독립신문 기자는 민영환이 여행을 통해 ‘남의 나라 인민들 사는 것을 보고 오니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고 언급한다. 한편 민영환은 자기가 배운 것을 이렇게 요약한다. 첫째는 자주 독립에 대한 의지, 둘째는 동포애, 셋째는 조선 개혁의 필요성이다. ‘남의 나라 사람들 사는 것을 보니 분한 마음이 견잡을 수 없다’고 말하며 조선의 독립과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다.

27) 1896.10.20, 1896.10.24, 1896.11.10. 등 《독립신문》은 귀국한 러시아 사절단에 대해 여러 차례 보도한다.

28) 「독립 신문사 사름이 일전에 아라샤 공스 다녀 온 민영환씨를 만나」, 《독립신문》, 1896.11.10.

요약하자면, 민영환은 귀국길에 들린 연해주 지역 조선 유이민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인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민씨 세력의 중심으로 왕실 및 집권층과 교류하며 안이한 관료 생활을 한 민영환이었기에 민중의 삶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지하였지만 조선 유민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민중을 발견하고 동포애를 실현하게 된 것이다.

#### 4. 『해천추범』의 특징과 문학사적 의의

『해천추범』은 형식적으로는 홍대용, 박지원 등의 기행 가사나 사행 기행문의 전통을 잇고 있다. 다양한 지명이 등장하고, 추보식 구성으로 여행지에서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며, 견문을 확장하고 위정자로서의 면모를 보이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러면서도 임금에 대한 충정을 드러내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점 등에서는 연군 문학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29)</sup> 특히나 민비에 대한 안타까움의 정서를 표출한 대목은 충절을 공적으로 드러내면서도 혈족에 대한 사감을 투영한 것이기도 하여 강한 호소력을 지닌다.<sup>30)</sup> 민영환이 민비의 친정 조카로서 민비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던 점을 고려할 때, 민비에 대한 그리움은 위정자로서 공적인 ‘충’의 표출이면서도 사적 감정의 영역이기도 하다. 또한 한시가 삽입되어 있다는 점도 중요한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다. 김득륜이 지은 한시는 산문 부분과 공존하면서 장르 확대에 기여하고, 대상에 대한 구체적 정보와 정서를 분담하여 독자들에게 대상을 현실감 있게 전달하고 있다.

29) 폐하를 하직하고 친서 한 통과 국서 한 통, 위임장 한 통, 훈유(訓諭) 한 통을 받들고 물러 나왔다. 이내 부르심을 받아 뵈고 잘 갔다 오라는 분부를 받으니 신(臣)등은 엎드려 영화로운 사랑의 지극함을 이기지 못했다.(p.111.) 곧 우리 대군주 폐하의 만수성결(萬壽聖節)이다. 신등(臣等)은 서백리(西伯里)에 있어 동쪽을 향하여 엎드려 대궐을 바라보니 슬프고 사모하는 정성을 이기지 못하겠다.(p.178.)

30) 오늘이 음력 8월 19일이니 내일이 곧 대행왕후의 기신(忌辰)이다. 신등은 서백리에 들어온 뒤로 밤낮으로 달려가도 아직도 노중(路中)에 있어 오늘 새벽 곡하는 반열에 참례하지 못하는데 정리(情理)가 가슴 아파서 실로 견디기 어렵다. 이에 선방(船房) 안에 국기를 걸고 탁자를 놓고서 향불을 피우고 촛불을 밝히고는 공복(公服)을 입고서 동쪽을 바라보고 네 번 절하고 서로 향하여 눈물을 흘렸다.(p.186.)



한편 『해천추범』이 근대적 시간과 공간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근대적 여행 기로서 가치를 지닌 부분이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행 시작 부분에서는 ‘인천에서 상하이까지는 1,500리이다.’라고 표현하여 공간의 확장을 거리감으로 표현하다가 후반부에서는 ‘시간표를 비교해보니 피득의 정오는 모스크바의 미시 초가 된다.’(p.173.)라며 근대적 시간 개념을 작동시켜 서로 다른 공간을 비교해 연결시킨다. 나아가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에 입각하여 ‘서양 사람의 말을 들으니 지구가 3백 60도인데 낮과 밤이 서로 반대’(p.119.)라고 표현한다. 백야와 극야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곳은 북극에 가까워서 도수가 북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이다.’(p.141.)라든가, ‘이번에 구주에서는 일식을 하지 않고 다만 아세아 동쪽에서만 보이니 이것은 지구가 둥글어서 가리고 격해 있기 때문이다.’(p.168.)라고 표현하여 근대 자연 과학의 이치를 수용하여 기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구 근대 문물 소개, 음력과 양력 및 러시아력에 대한 이해, 타자와의 만남을 통해 주체의 인식 변화를 보인다는 점에서 근대 여행기로서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나아가 민영환이 연해주 일대 조선 유민들과 교류하고 소통하며 인식 변화를 보인다는 점, 유민들의 삶을 사실 그대로 기록하고 그 문제점을 개선하였다는 점 등은 오늘날 디아스포라 문학의 한 선례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고 본다.

러시아 사절단 업무 수행을 통해 민영환은 단순히 왕실에 충성하는 민씨 정권의 관료가 아니라, 조국에 대한 애정과 조선 민중에 대한 동포애를 가진 위정자가 된다. 이후 그는 조선의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변화를 이끄는 데에 앞장선다. 『해천추범』은 민영환의 인식 변화와 위정자로서 태도를 확립하는 과정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도 그 가치를 갖는다고 본다.

## 5. 결론

본고는 『해천추범』에 나타난 세계 체험과 민영환의 인식 변화 양상을 고찰하여 그 근대성과 문학사적 의의를 해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해천추범』이 단순히 사행 업무만을 기록한 공적 기록물이 아니라 개인의 감정 노출이 빈번하

게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나아가 여행이 근대 조선인의 타자 인식과 개인의 정체성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당대 조선의 현실과 근대 군사 제도 확립과 근대 교육 도입의 필요성, 견문을 통한 세계관의 변화 등에 주목하였다. 다음으로 『해천추범』이 개인의 감정 표출, 자기 인식 변화, 타자의 발견, 근대적 자각으로 나아가는 근대 여행기로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살폈다. 마지막으로 『해천추범』의 특징과 문학사적 의의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해천추범』은 연군 문학과 기행가사 문학의 계승, 한시 삽입 등 사행기의 전통을 계승하였다. 그러면서도 근대적 시공간에 대한 인식, 서구 근대 문물 소개, 음력과 양력 및 러시아력에 대한 이해, 타자와의 만남을 통한 인식 변화 등 근대 여행기로서의 특징 또한 지니고 있다. 특히 연해주 일대의 유이민들의 만남은 디아스포라 문학의 한 선례로도 문학사적 가치가 있다. 사행의 경험은 민영환 개인에게 인식의 변화를 제공해주었다. 민영환은 여행 중 러시아 사행 업무 수행 과정을 통해서 애국심을, 귀국길 조선 유민들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서 동포애를 경험하였다. 이렇듯 『해천추범』은 민영환의 인식 변화와 위정자로서 태도 확립의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그 가치를 갖는다고 본다.

## ◆ 참고문헌

### 1. 자료

『독립신문』

『별건곤』

『친목회회보』

윤치호, 『윤치호 일기』, 국사편찬위원회회복간본, 1896.

윤치호, 『국역 윤치호 영문 일기3』, 국사편찬위원회, 2014.

민영환 저, 이민수 역, 민흥기 편, 『민충정공 유고(전)』 권3, 일조각, 2000.

민영환 저, 조재곤 역, 『해천추범』, 책과함께, 2007.

### 2. 단행본

김진영, 『시베리아의 향수』, 이숲, 2017.

윤치호 저, 윤경남 역, 『민영환과 윤치호 러시아에 가다』, 신양과지성사, 2014.  
이윤기, 『잊혀진 땅 간도와 연해주』, 화산문화, 2005.

### 3. 논문

- 김지연, 「『해천추범』의 여정과 견문 기록 방식의 특징과 의미」, 『한민족문화연구』 제 60집, 한민족문화학회, 2017, pp.7-50.  
김효주, 「1920년대 여행기에 나타난 미국 인식과 표상」, 『한국민족문화』 제49집,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3, pp.33-57.  
\_\_\_\_\_, 「1920년대 여행기의 존재 양상」, 『국어교육학회』 제48집, 국어교육학회, 2011, pp.317-354.  
박찬승, 「1890년대 후반 도일(渡日) 유학생들의 현실인식」, 『역사와 현실』 제31권, 한국 역사연구회, 1999, pp.118-119.  
이효정, 「1896년 러시아 사절단의 기록 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8, pp.1-109.

논문접수일	2022년 11월 09일
심사완료일	2022년 11월 27일
게재확정일	2022년 12월 08일

*Abstract*

A Study on the World Experience and Modernity  
in the Travel of 『Haecheon Chubum』

Kim, Hyojoo

This paper intends to elucidate the modernity and historical significance of Min Young-hwan's 『Haecheon Chubeom』 by examining the changes in perception of the world and self-awareness. To this end, we pay attention to the fact that 『Haecheon Chubeom』 is not simply a public record, but frequently reveals personal emotions. 『Haecheon Chubeom』 expresses loyalty to the king and inherits the tradition of traditional travel literature. On the one hand, we pay attention to the fact that it also has the characteristics of modern travelogues that lead to the expression of individual emotions, change in self-awareness, discovery of others, and modern awareness.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the fact that meeting with others while traveling contributes to the change of the world view and identity of Min Young-hwan. This is concretely revealed in the process of communication with the compatriots I met on the way back from the trip. Min Young-hwan feels patriotism through the process of performing tasks while traveling. And on the way home, he experiences comradeship through direct encounters with Korean compatriots. As such, 『Haecheon Chubeom』 is considered to have value in that it shows the change of perception of Min Young-hwan and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ttitude as a politician.

**Keyword** 『Haecheon Chubeom』, Min Young-hwan, Mission, Russia, Modern Travelogues

# 불가해한 아이와 계층론의 투영

- 2010년대 다문화 청소년의 재현 방식 -

송향경\*

## 국문요약

이 논문은 그동안 소설 및 관련 연구에서 잘 다루지 않았던 다문화가정 2세 청소년에 대한 재현을 살펴보기 위해서 썼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등장하는 한국 작가에 의해 발표된 세 편의 단편 소설, 김경옥의 「경마학 개론」, 강화길의 「손」, 김애란의 「가리는 손」은 모두 추리소설 방식을 차용하여 일인칭 한국인 서술자의 탐정적 눈으로 다문화가정 아이를 포착하고 있다. 이 아이들은 모두 미스테리한 인물로 그려진다. 그 과정에 서술자가 '신뢰할 수 없는 서술자'라는 서사 전략을 동원하여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둘러싼 편견을 무효화시키고 읽는 과정에 서술자와 함께 기뻐했던 독자의 고정적인 관념을 배반하기에 이른다. 이는 독자에게 충격을 주고 반성의 순간으로 이어지면서 오늘날 다문화 청소년들이 마주하는 사회적 곤경의 본질을 보여준다. 아이들이 언어와 외형에서 바로 포착 가능할 경우 쉽게 혐오적인 존재로 간주되고 의도적인 무관심한 태도와 조우하게 된다. 한국어도 잘하고 외형도 보통 한국 아이 같은 경우, 가해지는 폭력의 형태는 더욱 은밀해지고 익명성을 띄면서 현실세계와 인터넷세계를 오가는 공간을 초월하는 새로운 양상을 지닌다. 사실, 이 청소년들이 마주한 각종 폭력과 혐오는 한국사회의 갈등과 구조에 근원을 두고 있다.

**주제어** 다문화 소설, 다문화가정 청소년, 추리소설, 신뢰할 수 없는 서술자, 혐오, 계층, 온라인 폭력

---

\* 성신여자대학교 교양학부 조교수

## 〈목차〉

1. '다문화 2세'라는 새로운 대상
2. 불가해한 사춘기 경계의 아이들
3. 서술자의 실패와 다시 쓰는 '조사 스토리'
4. 계층론의 프레임과 답습되는 혐오
5. 나가며

## 1. '다문화 2세'라는 새로운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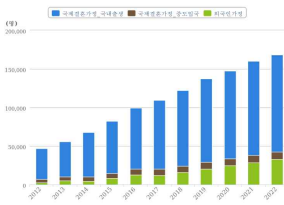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의 정의에 따르면 한국의 다문화가족이란 출생과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의미한다. 2023년은 한국 다문화가족 형태가 전환을 맞이한 지 30년이 되는 해이다. 1993년을 변곡점으로<sup>1)</sup> 2000년대에 오면 국제결혼에서 외국인 여성의 국적이 중국뿐만 아니라 태국, 베트남 등으로 다양해졌으며 외국인과의 혼인 비율이 가장 높았던 2005년에는 13.5%에 이르렀다. 매년 증가하는 국제결혼과 그 결과로 증가한 다문화가정으로 인하여 2000년대부터 한국사회는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다문화가족 관련 논의는 한동안 급속도로 증가하는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 및 정착과 연관됐고 지원정책의 방점은 결혼이주여성을 노동력 착취, 성적 유린 등에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보호장치에 치중되어 있었다.<sup>2)</sup>

1) 1992년까지만 해도 외국인과의 혼인에서 한국인 여성이 외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사례가 한국인 남성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사례보다 소폭 많았다. 이때까지 한국사회의 국제결혼은 주로 한국 여성들이 미국이나 일본 남성과 결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1993년까지 6000건 대를 유지하던 외국인과의 혼인 수가 1994년에는 13493건으로 2배 증가하였고 그중 한국 남성이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 건수가 만건으로 경총 뛰었다. 이는 1992년 한·중 수교와 함께 중국과의 관계가 정상화 되자 중국 국적 여성과의 국제결혼 알선이 조직적이고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통계청, 「보도자료-2020년 혼인 이혼 통계」, p.44, 2022년 3월 18일. [https://www.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88686](https://www.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88686).

2) 그 예로는, 2007년에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이 제정되고 2008년 9월부터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정 숫자만큼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은 꾸준히 증가하는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이다. 학생의 범주에서 보면, <그림 1>과 같이 다문화가정 재학생 수의 비율은 최근 10년 동안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었다. 2022년 초·중등학교의 다문화학생 수는 전년 대비 8,587명 5.4% 증가<sup>3)</sup>하였고 2021년 기준으로 볼 때, 다문화학생 수는 전체 학생 수<sup>4)</sup>의 3%로 매 100명 중 3명이 다문화 학생인 셈이다. 2022년에 발표한 여성가족부의 최신 조사 ‘2021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다문화가정 자녀의 43.9%가 청소년이고 이는 2018년 조사 때보다도 8.3%포인트 증가하였는바 오늘날 다문화가정 2세들의 연령대 비중에서 청소년이 큰 집단을 이루고 있다. 같은 분기 기준 출산율 역대 최저로 떨어졌다는 최근의 뉴스<sup>5)</sup>와 함께 놓고 보면, 꾸준히 증가하는 다문화가정만큼 그 가정의 청소년 구성원들도 한국사회가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이다.

그러나 성장 중인 이 새로운 집단이 마주하게 될 사안들에 대해 한국사회가 충분히 예측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다문화가족 지원법만 놓고 보더라도 초창기 적용대상은 결혼이민자이었다. 국제결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이더라도 일차적인 지원대상에서 비껴져 있다.<sup>6)</sup>



<그림 1> 2012-2021년  
2021년 초, 중, 고,  
각종학교 다문화 학생 수

지원법이 시행되고 나서 2010년에 제1차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된다.

- 3)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사이트, 연도별 다문화 학생수, 2022년 4월 1일 [https://kess.kedi.re.kr/kessTheme/zipyo?itemCode=03&menuId=m\\_02\\_03\\_01](https://kess.kedi.re.kr/kessTheme/zipyo?itemCode=03&menuId=m_02_03_01).
- 4)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통계표 검색란에 ‘학생’으로 검색하여 도출. <https://www.kostat.go.kr/wnsearch/search.jsp>.
- 5) 박원희, 「2분기 함께 출산율 0.75명 역대 최저」, 『연합뉴스』, 2022년 08월 24일자.
- 6) 지성우, 「다문화가족 관련 법률의 현황과 입법과제」, 『유럽헌법연구』 제22호, 유럽헌법학회, 2016, p.269.

이 부류 청소년들은 제도권의 일차적인 지원에서 빠져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차별을 경험한다고 직접 밝히고 있다.<sup>7)</sup>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둘러싼 부정적인 프레임, 이를테면 상업 이익추구 수단으로 악용된 결과인 여성의 상품화 및 여성의 타자화<sup>8)</sup>의 그들은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구체적인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조우한 현실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은 2000년대부터 발표되기 시작하였다. 김재영의 「코끼리」(2005)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 ‘아카스’의 시점에서 일상의 다양한 폭력을 보여준다. 전성태의 「이미테이션」(2008)에서는 혼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양인 같은 외모로 주위로부터 ‘배려’ 받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국민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케리’의 이야기를 펼쳐낸다.

이 부류 작품들에 대한 연구작업은 아직 시작단계에 있다. 초창기 연구에서는 개별작품의 분석이 주<sup>9)</sup>를 이루다가 2010년에 오면 연구의 깊이와 폭이 넓어진다. 이미림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이라는 인물형상을 새로 부상한 소설적 대상으로 간주하고 작품의 서사구조와 내러티브 전개양상을 고찰<sup>10)</sup>하여 후속 연구자들에게 진입통로를 마련해 주었다. 이 시기 연구들은 모두 교훈적 내용을 제시하고 사회적인 메시지를 던지거나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정체성 규정으로 귀결된다.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겪는 부조리를 사회현상으로 간주하고 이를

7) 한양대학교 에리카산업협력단, 「다문화가정 자녀의 공교육 진입 방안」, 교육부정책연구 개발비지원, 2016, p.102.

8) 문경희,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계기로 살펴보는 다문화주의와 한국의 다문화 현상」, 『21세기정치학회』 16, 21세기 정치학회보, 2006, p.78, p.80.

9) 김화선, 「청소년문학에 나타난 성장의 문제: 김려령의 <완득이>를 중심으로」, 『아동청소년문학연구』 제12권,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08; 송현호, 「〈코끼리〉에 나타난 이주 담론의 인문학적 연구」, 『현대소설연구』 제42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9; 김지형, 「순진함으로서의 학생 표상 고찰: <완득이>, <일열곱 살의 털>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문학연구』 제16호, 한국아동문학학회, 2009; 이덕화, 「〈완득이〉에 나타난 타자윤리학」, 『소설시대』 제19호, 한국작가교수회, 2011; 황영미, 「〈완득이〉의 서술전략과 영화화 연구」, 『돈암어문학』 제24권, 돈암어문학회, 2011.

10) 이미림, 「다문화성장소설연구」, 『현대소설연구』 51, 한국현대소설학회, 2012; 이미림, 「다문화 서사구조와 문학적 특징」, 『현대소설연구』 61, 한국현대소설학회, 2016.



제도와 현실 차원에서 분석하고 교육 자원으로 활용하는 접근인 홍순애와 이규일의 연구<sup>11)</sup>가 전자에 속한다. 네 편의 소설을 통하여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정체성 문제를 처음으로 자세히 분석한 손혜숙<sup>12)</sup>의 연구와 해외 거주 한인 청소년이 주인공인 소설을 분석하여 다문화가정 청소년 정체성 파악에 접근한 김명수<sup>13)</sup>의 연구가 후자에 속한다.

이 와중에 김지혜<sup>14)</sup>는 박사학위 논문에서 한국의 다문화 소설이 지닌 특수성을 짚어주었다. 그것은 바로 최근에 한국에서 발표된 다문화가정을 다룬 소설의 저자는 서구에서 활동하는 이주민 출신이 아니라 한국 작가라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인 작가에 의해 쓰여진 소설을 읽을 때 전적으로 한국인 서술자에 의존하여 작품 중의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이해하는 단선적인 접근 방식은 분명한 한계를 지니게 된다. 이때 더욱 중요한 것은 소설에 등장한 다문화 배경의 인물들이 아니라 소설이 그들을 재현하는 양상이다.

2010년대 중반 한국 작가에 의해 발표된 세 편의 단편 소설, 김경옥의 「경마학 개론」(2016), 강화길의 「손」(2017), 김애란의 「가리는 손」(2017)에는 모두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등장한다. 이 소설들은 모두 제3자의 시선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그리고 있다. 소설의 서술자는 모두 ‘나’라는 등장인물이고 1인칭 형식으로 서사를 끌고 가지만 전지적 시점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관찰자 시점이다. 그들의 관찰 대상인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모두 미스테리한 존재로 불가해한 사건들과 연관되어 있다. 베일에 가려진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게 접근하고 비밀을 밝히고자 하는 관찰자의 모습은 진실에 접근하고자 하는 추리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전형인 서사를 이끌어가는 ‘탐정’의 모습을 지닌다. 흥미로운 것은 위

11) 홍순애, 「다문화사회의 문학적 상상력과 교육방안 연구」, 『한중미래연구』 6, 동덕여자대학교 한중미래연구소, 2016; 이규일, 「동시대 현상 읽기를 활용한 소설교육의 가능성」, 『現代文學理論研究』 71, 현대문학이론학회, 2017.

12) 손혜숙, 「다문화 소설에 재현된 다문화가정2세의 정체성 양상」, 『다문화콘텐츠연구』 34,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20.

13) 김명수, 고진호, 「Finding My Voice에 나타난 ‘제3의 공간’의 행위자의 주체성」, 『인문사회』 21』 12, 인문사회 21, 2021.

14) 김지혜, 「다문화 소설을 통한 상호문화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p.5.

의 소설들은 추리소설에서 탐정이 사건 조사 과정을 통해서 관찰자의 비밀들이 밝혀내는 것과 다르다.<sup>15)</sup> 탐정의 눈을 장착한 서술자는 일련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결말에 이르지만 그 결말은 열린 결말로 끝나면서 결국 다문화 아이들에 대한 정확한 파악에 성공하지 못한다. 소설을 이끌어 가던 서술자가 '신뢰할 수 없는 서술자'로 전환되는 사이에 독자들은 서술자를 의심 없이 따라 읽던 자신을 발견하고 소설적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 편견에서 출발한 자신의 읽기를 반성하기에 이른다.

이 논문은 세 소설에서 다문화가정 아이를 등장인물로 설정하고 '신뢰할 수 없는 서술자'를 내세운 서사 전략을 공통분모로 하였다. 2010년대 한국 소설에서 다문화 가정 아이에 대한 재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서술자의 실패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나 하는 것을 세 편의 소설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다가가고자 한다.

## 2. 불가해한 시춘기 경계의 아이들

2000년대에 발표된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등장하는 소설을 보면 청소년들이 겪는 상처는 전면에 드러나 있다. 김재영의 「코끼리」, 김려령의 「완득이」의 아이들은 모두 사회로부터 오는 다양한 상처를 받고 있으며 빈민가와 다름없는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 뒤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창작된 「경마학 개론」<sup>16)</sup>에 등장하는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소년은 비록 거주공간은 허름하지만 앞 전 소설에서 보여준 소년을 향한 전면에 드러나는 폭력은 찾아보기 힘들다. 강화길의 「손」<sup>17)</sup>에 등장하는 용우는 지어 '킹카'이고 「가리는 손」<sup>18)</sup>의 재이도 어

15) 송예슬은 위와 같은 추리소설의 변용을 패러디된 추리소설로 보고 있다. 구체적인 논문은 아래 논문을 참고. 송예슬, 「추리소설 서사를 경유한 메타테스트적 욕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2.

16) 김경옥, 「경마학 개론」(『문학동네』 2016년 여름호), 『내 여자친구의 아버지들』, 문학동네, 2019. 이하에서는 면수만 밝힌다.

17) 강화길, 「손」(『문장』 웹진, 2017년 8월), 『화이트 호스』, 문학동네, 2020. 이하에서는 면수만 밝힌다.

릴 때부터 한국인 엄마와 함께 자란 만큼 지극히 ‘평범한’ 아이로 등장한다. 이 세 소설에서 설정한 사춘기라는 나이는 어른과 아이의 경계에 있는 시기로 등장 인물들은 모두 아이와 어른의 특징을 모두 지니고 있다. 이 나이 때의 아이들을 보여주는 것은 곧 어른이 되는, 사회에 맡을 들여놓게 될 때 마주할 세상을 선제적으로 보여주는 전략이기도 하다. 평범해 보이는 이 아이들은 소설을 이끌어가는 서술자에게 미스터리한 존재로 그려진다.

먼저 「경마학 개론」을 보면, 한 쌍의 젊은 커플이 지하철에서 우연히 만난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보이는 낯선 중국인 소년을 집까지 데려다주면서 일어난 이야기이다. 서울 4호선 지하철 안에서 ‘나’는 여자친구 세라와의 뻘한 동선의 데이트가 식상하게 생각되어 색다른 코스로 경마장에 가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지하철에서 중국인으로 보이는 이상한 소년<sup>19)</sup>을 만난 순간부터 틀어지기 시작했다. 등장부터 서술자 ‘나’의 호기심을 유발한 소년은 “大林驛, 4, 中央市場”라고 적힌 쪽지를 승객들에게 보여주며 다녔는데 승객들은 다들 못 본 척했고 심지어 자리를 옮기기도 하였다.

세라는 다른 승객들과 달리 소년에게 응대를 했고 쪽지에 써어진 대립역으로 가는 방법을 알려줬다. 이때 주인공이 느끼는 이 아이의 부자연스러움은 행색뿐만 아니라 행동에서도 나타난다. 세라가 친절하게 영어로 설명하자 아이는 예상외로 탄성을 부렸고 갑자기 생긴 빈 자리에 뛰어가 앉는다. 그러나 얼마 지

18) 김애란, 「가리는 손」(『창작과 비평』 2017년 봄호), 『바깥은 여름』, 문학동네, 2017. 이하에서는 면수만 밝힌다.

19) 소설에서의 이 중국인 소년의 신분에 관한 정보는 한국어를 못하는 점, 행색이 일반적이지 않은 점, 캐리어를 끌고 엄마 집을 찾아가는 아이라는 것이 전부이다. 이와 같은 정보로 한국 장기 거주 다문화가정 아이인지는 불분명하다. 아이 아버지에 관한 정보 역시 일체 언급되지 않는다. ‘다문화 학생’을 계산할 때 국제결혼 가정 자녀(국내출생 자녀 + 중도입국 자녀) + 외국인 가정 자녀라는 공식(각주 2의 출처 참고)에 따라서 본고는 이 아이 역시 다문화가정 아이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아이가 찾아가던 곳이 대립동이라는 한국 안의 중국인 집결구라는 점으로부터 단순한 관광객 차원의 중국인 아이가 아니라 한국과의 연관을 강조하고 있는 작가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가정이나 난민가정 등도 폭넓은 의미에서 ‘다문화가정’으로 볼 수 있다는 점으로 출발하여 이 소설도 본 논문의 텍스트로 간주하였다.

나지 않아 또 다가와서 쪽지를 내밀고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였다. 세라는 여전히 자세히 알려준다. 하지만 소년은 또 잘 듣지 않고 주위만 살폈다. ‘내’가 녀석을 자리에 돌려보내기 위해서 그의 팔을 툭툭 치니 비명까지 지르기 시작하였다.

세라는 경마공원 역을 눈앞에 두고 소년이 사당에서 환승하지 않았음을 발견했다. 세라는 급기야 소년을 데리고 지하철에서 내렸고 대림역까지 데려다주기로 한다. ‘나’는 계속 소년을 떼어놓을 생각만 했지만 세라가 집까지 데려다주려고 하는 바람에 억울하고 화가 났다. 그러다가 ‘나’는 급기야 ‘갈데까지 가보자’라는 오기가 생겨 반 시간 동안 헤메면서 겨우 소년의 궁핍한 집에 도착하였다.

집에 도착한 아이의 태도는 지하철에서 보여준 겁에 질린 모습과는 매우 달랐다. “어디 모자란 녀석”(p.68.)이라고 생각했던 소년은 엄마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다른 애들처럼 바닥에 “퍼질러”(p.82.) 앉아 엄마의 핸드폰을 한다. 기존에 했던 돌발적이고 이상하게 한 행동들이 마치 연기인 듯이 집에 와서는 엄마와 눈을 맞추면서 이야기를 했고 여느 이 나이 또래 남자아이들의 행동을 하고 있는 등 “떨쩍해”(p.82.) 보인다. ‘나’는 소년의 집까지 들어갔지만 궁금증은 하나도 해소되지 않았다.

앞서 지하철에서 소년이 승객들에게 집 위치가 적혀있는 종이장을 내밀면서 도움을 청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투명 인간” 취급하면서 격렬하게 모른 척한다. 승객들은 ‘내’가 그랬던 것처럼 “똥을 치우”(p.69)는 일이 본인에게 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듯 소년을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전략적인 무관심을 택했다. 이 무관심은 공용공간에서 자신을 지키는 사회적 태도이기도 하다.<sup>20)</sup> 하지만 소년의 강렬한 존재감이 ‘나의 주의를 불러일으켰듯이 소년이 다가오자 아예 자리를 옮겨버리는 등 지하철의 다른 승객들도 실제로는 소년을 의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소년 역시 이와 같은 “무관심에 이끌리 난 듯”(p.65) 포기도 재빨랐다. 이처럼 소년이 승객들이 취할 태도를 예상하고 있었다는 것은 어른 세계의 생리에 대해서 이미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년은 여성에게만 접근해서 길을

20) 현실 청년들의 특정한 사회 태도이기도 한 무관심에 관한 논의는 박하림의 논문을 참고. (『공멸의 상상, 공동(共動)의 미래』, 『안과밖』 44권, 영미문학연구회, 2018, p.143.)

물어보는 데 이는 어른들 심리에 대한 파악을 넘어서는 지점들을 보여준다. ‘나’는 소년의 외형, 옷차림, 언어를 통해서 소년을 파악하고 있지만 소년은 이미 승객들의 심리를 파악했고 ‘우리’더러 자신을 집까지 데려다 주는데 성공시킨다.

그럼 다문화가정 소년이 길에서 우연히 만난 낯선 아이가 아니라 ‘내’ 직장생활의 범위에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것은 ‘고딕 미스터리 스틸러와 친연성’<sup>21)</sup>을 지닌다고 평가받는 강화길의 「손」<sup>22)</sup>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 주인공 김미영은 남편이 인도네시아에 장기 파견근무를 가자 딸 민아를 봐줄 수 있다는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한 시골 마을의 초등학교 담임으로 전근 온다. 마을은 끝없이 펼쳐진 논밭과 낡은 읍내를 지나 대나무가 뻗뻗한 어두운 도로를 지나야 비로소 닿을 수 있는 편벽한 시골이다. 초등학교 담임인 김미영은 직장인 학교에서 골치 아픈 일 하나 있었다.

김미영이 맡은 반은 아이가 일곱 명뿐인 5학년 반이다. 이 반에 용우라는 아이가 있는데 할아버지는 마을의 이장이고 어머니는 베트남<sup>23)</sup> 출신이다. 김미영은 용우의 주도로 반 아이들이 대진이라는 아이를 괴롭힌다고 생각한다. 늘 누군가가 대진의 허리춤에 눈을 집어넣어 옷이 젖는 데 김미영은 증거는 없지만 본능적으로 용우의 주도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한다. 용우의 현장을 목격한 것은 단 한 번, 용우가 대진이를 밀어 넘어뜨리는 것을 보고 용우를 방과후까지 남겼고 반성문을 쓰게 하였다. 며칠 뒤 여자 화장실 거울에 ‘김미영 미친년’이라고 낙서가 적혀있었다. 장본인을 찾아내기 위하여 김미영은 아이들을 매일 방과 후에 남겼더니 어느날 대진이가 찾아와서 본인이 낙서했다고 고백한다. 하지만 김미영은 믿어주지 않고 이것 역시 용우가 시킨 것이라고 생각한다.

21) 신셋별, 「그런 여자, 쓰(이)는 여자, 선택하는 여자」, 강화길, 『화이트 호스』, 문학동네, 2020, p.262.

22) 강화길, 「손」(『문장』 웹진, 2017년 8월), 『화이트 호스』, 문학동네, 2020. 이하에서는 면수만 밝힌다.

23) 이 소설들은 각각 다문화 아이 부모의 출신 국가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두 나라 중국과 베트남을 언급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초중고 다문화 학생 168,645명 중 54,722명으로 32%, 중국은 52,923명으로 31%(그중 한국계 0.07%)이다. 연도별 부모 국적별 다문화 학생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2022년 4월 1일.

결정적인 사건은 마을에서 손 없는 날 메주 행사가 열리는 날에 일어난다. 이 행사에서 갑자기 김미영의 딸 민아가 없어진 것이다. 김미영은 용우가 민아를 데려간 것이라고 단정 짓고 용우에게 달려들어 민아를 내놓으라고 소동을 벌여 메주 행사를 망치기 직전에 이르게 한다. 용우는 자기가 데려간 것이 아니라고 한다. 소설은 끝까지 대진이 사건의 진실과 누가 민아는 누가 데려갔는지 밝혀 지지 않는다.

김애란의 「가리는 손」<sup>24)</sup>에 오면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경마학 개론」의 낯선 타인이거나 「손」의 가까운 타인을 넘어서 가장 친밀한 관계인 ‘우리 아이’로 등장한다. 소설 주인공 엄마인 ‘나’는 베트남인 남편과 이혼한 뒤 아들 재이와 함께 살고 있다. 최근에 와서 엄마는 큰 고민이 하나 생겼는데 그것은 며칠 전 동네에 청소년들이 노인 한 명을 구타 및 치사 사건 현장을 찍은 동영상에 재이도 찍혔던 것이다. 엄마는 재이가 피해자일까봐 걱정에 휩싸인다.

이 사건을 놓고 동네 사람들은 재이가 다문화가정 아이임으로 사건의 ‘주동자’일 것이라고 수군거린다. 뒷담화를 하는 사람들의 유일한 근거는 ‘이 부류의 아이들이 울분’이 많을 거라는 짐작 때문이다. 마침 우연히 이 대화를 엿들은 엄마 ‘나’는 소문의 진위에 파악하기 위해서 몇 번을 망설이다가 재이에게 확인하니 재이는 가해자 아이들과는 아예 모르는 사이이고 사건 당시 우연히 근처에 있었을 뿐이라고 했다. 아니라는 대답을 들은 ‘나’는 이번에는 재이가 사건 현장을 목격하면서 폭력의 충격을 받은 피해자일까봐 전전긍긍한다.

특히 눈을 뜬 채 한 손으로 입을 가린 동영상의 재이 표정이 엄마의 짐작에 무게를 실어주었다. 하지만 단순한 피해자라고 생각하기에는 미스터리한 부분이 있었다. 동영상에는 자리를 떠났던 재이가 다시 돌아와 뽑기 기계에서 뽑은 라이언 인형을 집어가는 모습이 찍혔다. 경찰관이 왜 신고를 안 했냐고 묻는 말에 재이는 그날 학원 수업을 빼먹은 사실이 엄마에게 들통날까 봐 걱정돼서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나’는 재이가 그날 학원 수업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재이는 아들이지만 왜 거짓말을 하고 왜 사건 현장의 동영상에 찍혔는지 알 수 없

24) 김애란, 「가리는 손」(『창작과 비평』 2017년 봄호), 『바깥은 여름』, 문학동네, 2017. 이하에서는 면수만 밝힌다.

다. 그 비밀은 소설 마지막에야 제시된다.

세 소설에서 등장한 다문화 2세 아이들은 ‘아이와 어른의 경계’<sup>25)</sup>에 있는 사춘기 전후이다. 아이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 이들은 어른들의 색안경을 별다른 반항을 하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소년들은 아버지가 등장하지 않는다. 시기적으로 작품 발표 시기인 2010년대 중반 한국 사회는 ‘아버지 부재’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국가적 재난인 세월호 사건을 겪고 또 촛불시위까지 오는 과정에 ‘국가 부재’의 상황을 연상하게 하는 한편 일면에서는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아버지상에 대한 여러 층위의 상상을 담은 영화들— 이를테면 〈허삼관〉, 〈국제시장〉, 〈강남 1970〉 등이 2015년 초에 한꺼번에 상영되기도 하였다.<sup>26)</sup> 이와 같은 현실을 고려할 때, 이 소설들이 보여준 아버지 부재의 다문화가정 청소년 형상들은 사회적인 것들에 직접 노출되고 사회로부터오는 영향들을 여과없이 마주하는 그들의 현실을 보여준다.

또한 그들은 모두 엄마가 등장한다. 「경마학 개론」 중국인 소년의 엄마는 자신을 찾아온 아이가 의외라는 표정을 짓는다. 「손」의 용우의 엄마는 김미영이 민아가 보이지 않자 용우에게 소리를 지를 때 나서서 막아준다. 하지만 기타 경우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가리는 손」의 엄마는 지극정성으로 재이를 키우지만 재이가 마음을 붙이기에 역부족이다. 엄마들도 아이의 모든 면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아이들은 엄마의 곁에서 아들의 역할을 하지만 점차 엄마와 공유하지 않는 비밀들이 생긴다. 그들은 결코 단순하거나 순진하지 않다. 지하철에서 만난 중국인 소년은 어른들의 무관심에 재빨리 다른 목표물, 그것도 여성만 상대로 물어보는 계산적인 행동을 한다. 용우는 선생님의 오해를 받고 있지만 선생님 면전에서 반항하지 않고 대진이를 밀어뜨린 장면을 들켰을 때 바로 사과한다. 재이 역시 엄마에게 비밀들을 애써 숨기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어른 세계의 욕망을 체험하고 어른으로서의 성숙을 일부 지니게 되면서 자신을 어른들의 세계에 위치한다. 반면 어른들은 손쉽게 고유한 프레임으로 아이들을

25) 박홍매, 「김향숙 소설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2, p.71.

26) 세 영화에서 보여준 아버지 이미지에 대한 분석은 김지미의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아버지의 탄생, 부재 그리고 죽음」, 『황해문화』 제86호, 새얼문화재단, 2015.

포착하지만 바로 이와 같은 인식의 출발점으로 하여 아이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 3. 서술자의 실패와 다시 쓰는 ‘조사 스토리’

추리소설 형식을 차용한 이 소설들은 이중적인 구조<sup>27)</sup>를 가진다. 두 개의 스토리가 병행되는데 하나는 주인공의 ‘조사의 스토리’에 해당하는 소년의 실체와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려는 관찰자의 서사이고 다른 하나는 ‘범죄의 스토리’<sup>28)</sup> 발생한 사건에 대한 서사이다. 추리소설에는 탐정의 해결을 기다리는, 사건의 시작이 되는 단초가 있다. 추리소설의 양식을 따온 이 세 소설에서 주인공들이 평범한 아이들과 만나는 단초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그애의 얼굴보다 캐리어가 먼저 떠오른다. 가방으로 유명한 명품 브랜드 로고가 한복판에 돌을새김된 핑크색 캐리어. 색상이 튀기도 했지만 비닐포장을 막 벗겨낸 듯 흠집 하나 없이 매끈해서 더욱 눈길을 끌었다. 결정적으로 그 물건이 기억 깊숙이 자리잡게 된 것은 주인의 행색 때문이었다. 초등학교 고학년쯤으로 보이는 사내 아이가 아저씨들이나 걸칠 법한 국방색점퍼에 밑단을 줄인 듯한 기지 바지 차림을 하고 있었다. 번지레한 짐과 어울리는 구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 부조화가 아이의 존재를 더 도드라지게 만들었지만, 이상하게도 주변의 승객들은 본체만체하거나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하려는 태도가 역력했다. 녀석이 내미는 쪽지 탓인 듯했다. (p.65)

「경마학 개론」에서 주인공은 우선 소년의 외형에 대해 자세한 소개를 하면서 자신이 호기심이 발동한 원인을 밝힌다. 촌스러운 짝퉁을 입은 소년은 조화롭지 못한 행색을 하고 있다. 소년을 집까지 데려다 줬을 때, 소년의 집에서 ‘나’는 ‘궁핍’과 더러움을 경험한다. “들통의 그을음만큼 썩어 놀러 붙은 궁핍의 기운”, “차라리 숨을 멈추고 싶게 만드는 고약한 냄새”로부터 한시라도 빨리 도망쳐 나오고 싶어진다. 지어 ‘나’는 그 애의 엄마가 주는 정체 모를 비위생적인 음료수

27) 이브 뢰테르, 『추리소설』, 문학과지성사, 1993, p.17.

28) 토도로프, 『산문의 시학』, 문예출판사, 2003, pp.84-85.



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나와서는 바로 게워버리기까지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여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다.

아이를 집까지 데려다주는 의로운 일을 했지만 경마장행은 무산되었고 그 뒤 세라와 헤어지기까지 하였다. ‘나’는 그 애만 아니었다더라면 세라와 멀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애는 왜 하필 세라에게 접근했을가를 계속 생각한다. ‘나’는 학원에 석달치 학비를 꼬박 때려 넣고 경마학 개론 수업을 들은 뒤, 그 원인을 깨닫게 된다.

당연한 소리지만 경마로 재미를 보자면 경주마 선택이 관건이다. 몸의 균형이 예쁘게 잡힌 놈일수록 시원스레 달리기 마련. 체고(體高)와 체장(體長)의 이상적 비율은 1대 1. 털에 윤기가 자르르 흐른다면 더 볼 것도 없고, 앞다리가 발달된 놈은 장거리에, 뒷다리가 실한 놈은단거리에 능하다. 걸음걸이가 경쾌하면 기대해도 좋다. 그러니까 뒷발굽이 앞발굽 자국을 살포시 지르밟는 식으로 걷는 놈에게는 돌아갈 차비까지 없어도 후회하는 일은 없으리라. (p.63)

‘경마학 개론’. 초보를 위한 강의는 진짜 있었다. 인터넷을 기웃거리기만 해도 주위들을 수 있는 내용이 다였지만, 몸의 균형? 걸음걸이? 말짱 헛소리. 혈통 좋은 놈이 이긴다. 석 달 치 학원비를 꼬라박고서야 깨우친 진리. 모두가 알지만 써발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p.85)

주인공은 경마의 비결이 혈통 좋은 말을 사는 것에 있다는 것이 수업을 통해서 얻은 정보였다. 여기까지 읽은 독자들은 사실 경마장에 가본 적 있다면 서술자가 주장하는 혈통론이 믿을 바가 못 됨을 알 수 있다. 지하철 4호선 경마공원역에 내리면 입구에서부터 출전 말의 혈통, 경기력 등 정보들이 단돈 천원에 판매되고 있다. 출전한 말의 혈통과 승부를 대조해보면 승부는 혈통만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만약 주인공이 석달치 학원비를 때려박고 들었던 ‘경마학개론’ 강의에서 알려준 것처럼 경마 도박의 승패가 혈통으로 결정된다면 천원을 지불하고 정보를 산 사람들은 모두 도박에서 이겨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결말에서 혈통론을 주장하는 관점에 독자들은 동의하기 어렵다. 소설은 서술자 ‘나’의 생각으로 직조된 소설 세계를 아이러니 세계로 만

들어버린다. 따라서 소설을 이끌어 가던 ‘나’는 신뢰할 수 없는 서술자가 된다.

웨이인 부스는 ‘신뢰할 수 없는 서술자’라는 개념을 설명하면서 이 서사 방식의 장점은 “편견·맹목에 의하여 오염되기 쉬”운 어려운 주제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서술방식이라고 한다.<sup>29)</sup> 소설을 읽는 독자들은 처음에는 서술자의 안내에 따라 중국인 소년에 대한 호기심이 작동하여 소설을 읽다가 소설 말미에 가면 서술자의 입장과 거리를 유지하게 된다. 독자들은 서술자와 달리 ‘경마학 개론’이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고 ‘경마학 개론’에서 파생된 ‘혈통론’을 부정하기에 이른다. 결국 주인공의 조사 스토리는 실패로 끝나고 이 실패는 독자의 현실 비판인식을 깨우치는 계기로 작동된다.

강화길의 「손」의 서사를 이끌어가는 서술자 김미영은 ‘비협조적인 서술자’를 넘어 ‘신뢰할 수 없는 서술자’이다. 마을에는 이장의 주도로 ‘손 없는 날’ 농한기 사업의 일환으로 메주를 빚는 풍습이 있다. ‘손’이 뒹냐고 묻는 말에 시어머니는 “악귀다, 악귀. 마을에 들어와 사람들을 해코지하고 방해하는 년. 그년이 없는 날 귀한 해콩을 삶는 거다.”(p.81)라고 말한다.

김미영은 소설 말미에 메주 행사를 망치다시피 소동을 벌이고 나서 딸의 행방을 찾아 연자네 집에 이르렀을 때 익숙한 냄새를 맡게 되고 자문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이 썩은 내는 어디서 흘러나오는 것일까. 이 방구석의 냄새일까. 집안 전체에 스며든 냄새일까. 마을 전체에 가라앉은 냄새일까. 아니면, 내 몸에서 풍겨나오는 냄새일까. 나는 양손에 얼굴을 천천히 묻었다.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p.110)

‘툭’ 어디선가 돌멩이가 날아와서 부딪치는 소리에 느끼는 위협과 이해할 수 없는 마을의 분위기로부터 자신과 딸을 지키고자 ‘손’을 피하기 바빴던 김미영은 결국 부지불식간 자신이 그 손이 되고 만 셈이다. 여기까지 오면 독자들은 지금까지 따라가면서 읽은 서술자 김미영 시점의 서사를 믿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김미영이 진술하던 용우에 대한 평가도 다시 의심을 하게 된다.

결말에서 김미영은 마을 사람들의 비상식과 폭력을 고발하던 자신 역시 그만

29) H. 포터 애벗, 『서사학 강의』, 문학과지성사, 2010, pp.150-151.

큼이나 폭력적이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관찰자의 성찰을 확인하고 나서 소설을 다시 읽으면 시어머니의 몰상식함보다 김미영의 까칠함이 더 돋보인다. 소설 시작에서 퇴근하고 집에 온 김미영은 온 하루 아이를 돌본 시어머니가 다녀왔냐는 물음에 대답도 안 한다. 며느리가 퇴근하자 시어머니는 드디어 대화 상대를 만난 듯 낮에 있었던 일들을 김미영에게 말하지만 그녀는 계속 못 들은 척한다. 그러다가 빨은 첫마디가 “어머님, 믿어요?”(p.80)라고 하면서 자기 딸만 챙기는 모습을 보여준다.

김미영의 서술을 의심하면서 용우의 입장이 되어보면 반전이 생긴다. 담임인 김미영이 용우가 혼혈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실에서는 따돌림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하고 교실 밖에서는 비하 발언을 하는가 하면 마을 행사에서는 자신이 딸이 없어졌다고 폭력을 가하고 지어 노력의 결과인 공부까지도 인정해 주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를테면, 김미영은 딸 민아와 산책 중 마을 어구에서 염소를 보게 된다. 염소를 본 민아는 “저 염소 튀기다.”라는 놀라운 말을 한다. 김미영은 민아에게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했지만 결국 언제부터 그 자리에 있었는지 모르는 용우와 눈이 마주쳤다. 용우의 입장에서 담임 선생님이 5세인 아이에게 ‘튀기’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매주행사가 있던 날 민아가 없어진 것을 발견한 담임이 자신에게 달려들어 “어깨를 잡고 흔들며 소리지”른다. 김미영은 기억 못하지만 “용우는 특히 국어를 잘 못하는구나? 한국어 공부를 좀 따로 많이 해야겠어.”(p.98)라는 말을 담임 선생님이 교실에서 했다고 용우의 부모가 학교 교감에게 전화해서 알리는 과정에 마을 전체에 이미 소문이 났다. 결말에서 김미영은 딸을 찾으러 쫓아갔던 연자네 집에서 ‘썩은 내’가 ‘내 몸’에서 풍겨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성찰로 마감을 한다.

독자들은 소설이 전개됨에 따라 용우가 김미영이 생각했던 가해자가 아니라 어쩌면 담임인 김미영의 오해로 억울하게 의심받은 피해자였을지도 모른다는 인식으로 바뀐다. 용우의 가해자 모습은 사실 마을 공동체를 이해하지 못한 외부자 시선이 그려낸 오해가 아닐까 하는 추측에 이르게 한다. 눈덩이를 넣어 대진이를 괴롭힌 사건, 화장실 낙서 사건들이 모두 용우의 주도로 벌어진 일이라는 근거는 없지만 용우의 소행으로 생각하는 주관적이고 독단적인 김미영이 마

을의 평화를 깬 ‘주모자’<sup>30)</sup>일 수 있다는 것으로 소설을 끝낸다. 김미영은 결국 교육자이고 선생님이지만 마을의 생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웃이자 제자인 용우를 파악하는 데 실패한다.

이렇게 ‘신뢰할 수 없는 서술자’를 내세워 미결로 마감하는 소설은 김미영을 고발자에서 주모자로 치환하는 과정에 용우에 대한 배치도 바뀐다. 다문화 2세를 다룬 식상한 내러티브라면 아이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대진의 자리에 용우가 있겠지만 이 소설에서 용우는 학교에서 덩치가 가장 크고 잘생긴 데다가 공부도 잘하고 인기까지 많은, 흔히 말하는 ‘킹카’이다. 시작에서 용우라는 다문화 가정 2세 소년을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자리에 위치시킨 것은 기존 ‘통념’에서 대한 한 번의 자리 옮김이었다. 이런 용우는 김미영에 의해서 왕따 주모자로 몰리지만 소설 말미에 가면 독자들은 김미영의 서술을 믿을 수 없게 되면서 용우라는 인물에 대해 독자들이 지니고 있던 정보가 다시 한번 흔들린다. 용우를 가해자로 그려가던 서사를 결말에서 반전시킨 것은 또 한번의 위치 바뀐다. 이 두 번의 옮김 과정에서 용우를 교차적으로 관통하던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분법이 깨지고 사회적으로 굳어진 다문화 청소년에 입혀져 있던 프레임들의 효력이 상실된다. 김미영이 지니고 있던 용우에 대한 평가는 근거 없음과 주관적이라는 것에서 출발한 것임으로 독자들이 김미영에 감정 이입되어 읽는 동안 보냈던 공감과 기대지평이 반전 결말 앞에서 가지게 될 충격 효과는 다문화 청소년들을 바라보는 관습을 해체한다.

김애란의 소설 「가리는 손」은 위의 경우와 반대로 다문화가정 아이가 피해자가 아닐까 걱정하는 엄마의 시선으로 그려진다. 사건 당일 동영상에 찍힌 재이 표정의 비밀은 생일날 촛불 앞에서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재이의 얼굴에서 답을 찾게 된다. 생일상에 재이와 마주 앉은 엄마의 눈앞에 소원 비느라 웃음을 머금은 재이의 얼굴과 사건 당일 재이가 막은 손 뒤에 가려졌던 표정이 겹쳐진다. 결국 재이가 손으로 가린 것은 공포에 질린 경악이 아니라 폭력을 당하는 노인을 향한 조롱의 웃음이었다. 소설은 여기서 끝난다. 결국 재이는 동네

30) 신선훈, 앞의 글, p.267.

사람들이 운운했던 주동자는 아니었지만 엄마가 상상했던 피해자도 아니었다. 그는 우연히 조우한 노인 죽음의 방관자이자 범죄의 동조자였다. 엄마의 서사를 따라 읽던 독자는 위의 소설들과 마찬가지로 결말에서 반전을 겪는다.

재이가 노인 구타 장면을 보던 표정의 진실을 알게 된 ‘나’는 드디어 심각한 반성을 한다.

그렇다면 그동안 내가 재이에게 준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윽고 눈뜬 아이가 맑은 눈망울로 나를 바라본다. 그러곤 가슴팍을 크게 부풀려 숨을 모은 뒤 초를 향해 흑 입김을 분다. 초가 꺼지자 주위가 순식간에 어두워진다. 그 어둠 속에서 잘 보이지도 않는 재이 얼굴을 찾으려 나는 꿈쩍 않는다.(pp.220-221)

재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온갖 정성을 다해서 귀하게 키운 아들의 얼굴이 성의껏 차린 생일상의 촛불이 꺼지는 순간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소설은 재이의 비밀을 마지막에 알아내는 ‘나’로 하여 소설 내내 노심초사 안쓰러워 엄마만의 방식으로 보호하고자 했던 재이의 정체는 살인사건 방관자로 그려진다. 소설은 결말에서 노인의 죽음 앞에서 입을 막고 웃는 재이의 괴물성을 그려내면서 이전까지 서술자의 서술에 의지하여 따라 읽던 독자의 독법을 무효화시킨다. 이와 같은 추리소설 방식을 동원한 회의적 읽기는 독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끌어 올리고 소설 “안과 밖에서 이중으로 해석 행위의 적법성”<sup>31)</sup>을 문제시하면서 능동적인 생산의 일환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내포한다.

이 세 소설의 독자들은 결말에 오면 서술자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의심하고 소설을 이끌어 오던 서술자의 서술을 더는 신뢰할 수 없게 된다. ‘신뢰할 수 없는 서술자’는 결국 독자가 관찰자의 서술에 따라 읽으면서 가졌던 기대 지평을 배반해 버린다. 이처럼 불가해한 아이를 내세워 독자의 참여를 이끌어내면서 도달하고자 한 지점이 어디인지 아래에 서술하겠다.

---

31) 송예슬, 앞의 논문, p.78.

#### 4. 계층론의 프레임과 답습되는 혐오

「경마학 개론」에서 ‘나’는 말의 혈통론을 주장하는데 이것을 사람으로 치면 출신이나 계층이 성공을 지배한다는 결론으로 치닫는다. 오기가 발동하여 집까지 바래다준 소년의 허름한 집에서 소년의 엄마가 무릎을 꿇고 앉아 컵에 정체 불명의 음료수를 감사의 뜻으로 건네주었다. ‘나’는 억지로 한 모금 마시자마자 밖으로 나와서는 액체를 남김없이 게워냈다. ‘나’는 소년의 집에서 ‘궁핍’을 경험했고 여인의 모습에서 비굴함을 읽어낸다. 이때 경험한 굴욕감은 “모두가 기피하던 애를 안방까지 데려다주고 느낄 법한 감정은 절대 아니었다.”라고 스스로 언급할 만큼 이상한 감정이다.

‘내가 이상하게 굴욕감을 느낀 것은 바로 ‘내가 아래로 봤던 그들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나’ 자신은 ‘내가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다만 몸이 먼저 반응을 한 것이다. 소년과 소년의 엄마를 하위 계층으로 봤던 주인공의 태도는 외형묘사와 집 환경 이외에도 냄새를 강조하는 부분에서 두드러진다. 소년과 일정한 거리가 있을 때 ‘나’는 시각을 동원하여 소년을 포착한다. 소년의 행색에 대해 상세하게 ‘부조화’를 설명하는 내내 소년은 관찰당하는 위치이고 주인공은 시선의 권력을 가지고 관찰하는 위치이다. 그러다가 소년과 거리가 가까워지자 소년의 몸에서 나는 정체불명의 역겨운 냄새가 ‘나’를 괴롭게 한다.

정작 핑크색 트렁크가 눈앞에 섰을 때 내 주의를 끈 것은 녀석의 손에 들린 쪽지가 아니라 야릇한 냄새였다. 나프탈렌 냄새인가 하면 고약 냄새 같기도 하고, 두엄 냄새인가 하면 목은 빨랫감에서 나는 냄새 같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도 지워지지 않는 것은 녀석이 쪽지를 내민 순간 코를 찔러온 어떤 냄새였다. 노란내와 독한 향신료가 어우러진 듯한 고약한 체취. (p.66)

‘이상한 체취’, ‘냄새’ 등 2019년 칸영화제 황금종려상과 2020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개 부문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의 계층표현에서 활용한 요소들이 이 작품에서 선제적으로 등장한다. <기생충>에서는 ‘나’를 비롯

한 등장인물들이 머무르던 공간인 ‘지하철’ 역시 불쾌한 냄새의 근원지의 하나이다. 사실, 계층을 표상하는 냄새는 중국인 모자에서 날 뿐만 아니라 세라에게서도 났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세라는 파스를 가지고 다녔다. 그녀는 편의점에서 일할 때 가끔 종아리에 부친다고 말했다. ‘나’는 그날 소년이 세라를 선택한 것은 그 애가 자신과 같은 계층인 세라를 알아봤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것은 ‘내’가 세라와 헤어진 원인이기도 하였다. 경주마로 치면 혈통이, 사람으로 치면 계층이 선형적으로 성공을 결정한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는 ‘내’가 봤을 때 중국인 모녀와 세라는 사회 하단부에 속하는 사람들이었다. ‘내’가 세라를 자신보다 낮은 계층으로 봤다는 것은 지하철에서 세라가 소년에게 영어로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을 보고 비웃는 장면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넥스트 스테이션 아웃, 백 투 사당 스테이션.” 세라는 다시 손짓을 곁들여 녀석에게 설명했다. 전동차 안이 조용해서였는지 세라의 말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역시나 승객들의 시선이 하나둘 이쪽으로 향했다. 나는 속으로 ‘아웃이 뭐야, 아웃이’ 하고 혀를 차며 ‘내리다’라는 뜻에 딱 들어맞는 표현을 떠올리려 애썼다.(p.73)

세라의 영어를 속으로 비웃고 있었지만 ‘나’ 역시 정확한 표현이 떠오르지 않는 것을 보면 ‘내’ 영어도 세라보다 나은 수준은 아니었다. 이외에 ‘나’와 세라의 유사성은 냄새의 공유에서도 드러난다. 소년의 가방을 들어주다가 손목을 빼격한 ‘나’는 세라가 주는 파스를 붙이게 된다. 따라서 주인공도 결국 세라의 파스 냄새를 몸 장착하게 된다. 물론 소년을 집에 바래다주지 않았더라면 손목이 빼격할 일이 없고 파스도 붙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세라의 자취방에 드나들면서 놀던 ‘나’에게 세라의 냄새가 배지 않을 수 없다. ‘나’는 “한주 내내 고시촌과 학원가를 췌바퀴 돌듯 오가”(p.74)는 청년이고 세라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인물이다. ‘내’가 사는 고시촌이 세라의 자취방보다도 데이트에 적합하지 않기에 ‘내’가 세라의 자취방에 드나든다. 소년의 엄마가 거주하는 반지하나 ‘내’가 사는 고시촌이나 결국 모두 도시빈민층을 끌어들이는 대표적인 계층 공간이다.<sup>32)</sup>

소설에서 ‘나’는 세라가 소년에게 대응을 하면서부터 불쾌감이 생겼다. 세라

의 설명이 자세해지자 ‘불길한 예감’에 빠지기도 한다. 이 불쾌감과 불안은 아이와 소통이 시작되면 드러날 자신의 어떤 “불안정한 상태와 지위”<sup>33)</sup>와 같은 약점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예로 세라의 유창하지 못한 영어가 길을 알려주는 과정에 노출되었다고 ‘나’는 세라를 비웃었지만 본인의 영어실력도 세라와 비슷함을 알아버린다.

소년의 엄마 집에서 ‘굴욕감’을 느끼고 나오자마자 먹었던 것을 게워내는 행동은 이 사실을 알아낸 주인공의 무의식이 몸 차원에서 일으킨 정동적인 반응이다. 결국 ‘특유의 냄새’가 나는 여인이 주는 ‘시큼하고 짝조름한’ 정체불명의 액체를 먹은 ‘나’는 자신이 하위층으로 봤던 중국인 모자와 같아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극도의 공포와 충격에 빠진다. 그러나 소설 끝까지 서술자인 ‘나’는 자신이 이미 알아차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혈통론을 주장한다. 대립역을 통과하는 2호선은 순환철도<sup>34)</sup>이고, 경마장의 경주 코스가 원형이라는 점은 ‘내’가 처한 ‘챗바퀴 도는 일상’과 그 속에서 느끼는 ‘출구 없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출구 없음’의 상징인 순환철도 2호선 지하철은 평균 2분마다 정차역이 있어 하차 가능하다. 또한 원형 코스의 경마장을 보면 경주마가 원형코스에서 달리는 시간 역시 2분 정도이다. 따라서 각자가 처한 공간을 외부로 조금만 확장해 보면 출구는 도처에 있고 정해진 궤도는 교통수단이나 경주마로서의 무대로 작용하는 것이지 그것이 삶의 현장은 아니었다.

강화길의 「손」에서 도시/시골 이분법으로 그려지는 마을은 ‘지방성’과 ‘낙후된 지역’이라는 한국 사회가 근대 이후부터 거처온 ‘차별의 원인이자 결과’라는 한국적 맥락이 고스란히 녹여있다.<sup>35)</sup> 이 맥락 안에 들어오게 된 김미영은 이와 같은 구분법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체화한다.

32) 박하림, 앞의 논문, p.143.

33) 박하림, 앞의 논문, p.148.

34) 2020년 12월, 한국문학번역원 번역아카데미 특별과정 중어권 수강생들과 함께 진행한 작가와의 대담에서 김경욱 작가가 언급한 독자의 해석 중 하나.

35) 신셋별, 앞의 글, p.263.



마을 사람들은 ‘나’ 김미영만 보면 ‘우리 아이들이 착하다’라는 말을 자주 한다. 서사가 진행되는 동안 김미영은 마을 사람들이 전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고 가해자인 용우를 애워싸고 도는 것으로 인식한다. 마을 사람들의 이와 같은 반복되는 행동은 서술자의 불안을 증폭시킨다.

그일 이후, 마을 사람들은 나를 볼 때마다 사과했다. 그러나 이런 식이었다. “요즘 애들이 문제가 많아요. 그래도 우리 마을 애들이 아주 착해요. 아시죠?”(pp.97-98)

“용우이는 오늘도 공부 잘했나? 애가 참 착하지?”(p.81)

미자네가 말했다. “그래도 용우가 참 착해요. 그렇지요?”(p.99)

하지만 결말에서 진실이 밝혀진다. 낙서 사건이 있은 뒤 김미영은 화가 나서 매일 아이들을 남겼고 교실에서 아무 말을 하지 않으면서도 아이들에게 아무 것도 못하게 하였다. 이런 날이 지속되던 어느 날, 학부모의 전화를 받게 되는데, 그 전화에서 김미영은 “요즘 애들이 문제가 많아요. 그래도 우리 마을 애들이 아주 착해요. 아시죠?”(p.110)라고 말한다. 사실 한 아이를 괴롭히고 선생님을 욕하는 아이들을 두둔하는 것으로 인식되던 그 말은 김미영이 아이들에게 가한 은폐된 폭력을 숨기기 위해서 학부모에게 먼저 했었다. 도시에서 온 김미영은 학부모에게 ‘우리 마을 애들’을 ‘요즘 애들’로부터 구분 짓고 ‘우리 마을 애들’ 편인 척하면서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비틀어 말했던 것이다.<sup>36)</sup>

서술자 김미영의 서사에 따르면, 용우의 주도로 대진이를 괴롭히는 것은 담임이어서 사건 현장을 본 적 없어도 당연히 알 수 있는 것으로 그려진다. 그 과정에 용우의 할아버지가 이장이라는 설명이 부과된다. 이장은 농한기 사업을 개발하여 발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마을의 대소사를 책임진 노인이다. 마을에서 이장은 ‘평판 좋고 풍채 좋은’ 사람으로 주민들의 신뢰가 두터웠으며 시어머니와 연자네가 흠모하는 대상으로 그려진다. 김미영은 이장의 권력을 그의 손주인 용우에게도 은연중에 투사함으로써 다문화가정 출신 소년이 집단 따돌림의 주도

36) 천서윤, 「상징계를 가로지르는 비체(들)의 여성승고적 글쓰기」,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95호,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22, p.99.

자 되는데 필요한 서사를 완성시킨다. 서술자는 용우를 할아버지의 힘과 마을 사람들이 할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등에 업고 동학을 따돌리면서 민아까지 ‘유괴’하는 음침한 아이로 그린다. 또한 그 반대항으로 따돌림을 당하는 대진이가 할머니 연자네와 단둘이 사는 조손가정이라는 점이 부각된다.

「손」에서도 「경마학개론」과 마찬가지로 냄새가 등장한다. 메주 행사에서 민아가 사라진 일로 소란을 피운 뒤 미자네 집으로 쫓아간 김미영은 여러 번 맡은 적 있는 썩은 내음을 그곳에서 맡게 된다. 그 순간, 주인공은 이 특유한 내음이 마을의 냄새라고 생각했었는데 결국 본인에게서 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성찰로 나아간다.

베트남에서 온 어머니를 둔 「손」의 용우는 중국인 어머니를 둔 「경마학 개론」의 남자아이보다 한국에 잘 적응된 모습을 보여준다. 「경마학 개론」의 남자아이는 언어소통도 잘 안되고 소설 마지막까지 이름이 밝혀지지 않으면서 소설 내내 제대로 된 소통을 진행하지 못한다. ‘있지만 없는 존재’로 부각되는 중국인 소년과 달리 「손」의 용우는 소위 ‘킹카’로 오히려 도시에서 온 김미영보다 마을에서는 주인의 자리에 가깝다. 결국 ‘손’은 용우나 용우 어머니가 아니라 김미영으로 설정된다. 따라서 한국 사회의 다문화가정을 대표할 수 있는 두 나라더라도 출신 국가에 따라 아이들에게 입혀지는 이미지는 다르고<sup>37)</sup> 출신과 관련된 국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을 공동체 안에서 무탈하게 생활하던 용우는 도시에서 온 김미영의 시선에 포착되고 나서 교묘한 형태로 의심받고 자신에게 책임을 따지는 상황에 놓인다. 이처럼 은폐된 방식으로 입는 상처의 경험은 김애란의 「가리는 손」에서도 잘 보여준다.

「가리는 손」을 보면 엄마는 지극정성으로 재이를 키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이는 성장과정에 몇 개의 사건을 겪게 된다. 순서대로 보면, 교회 성가대 투표

37) 2022년 2월 4일에 있는 제20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 참석한 청년위원은 한 국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은연중에 그 국가 출신 부모를 둔 아이에게 상처가 되었을 것 같다는 발언을 한다.

여성가족부 블로그 <https://blog.naver.com/mogefkorea/222682794124>,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다!」, 2022년 3월 25일.

사건, 성가대 그만하고 싶다고 털어놓은 사건, 아빠에 대한 질문, 썬크림 과하게 바르기 등 사건들이 있었다. 차례로 보면,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의 성가대에 들어간 재이는 크리스마스 공연을 앞두고 재이가 대표 선출 선거에 나갔다가 사회자가 실수로 누군가 투표용지에 적은 모욕적인 문구를 읽어버리자 동학들의 웃는 소리에 재이는 상처를 받게 된다. 이는 앞에서 다룬 「손」에서 김미영과 민아가 고의는 아니지만 용우가 듣게 된 모욕적인 말과 겹친다.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용우와 재이는 언어나 생활습관 등 모든 면에서 ‘한국인 보통 아이’들과 다를바 없지만 오로지 다문화가정 아이라는 이유로 모욕적인 말을 예상치 못한 순간에 듣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가리는 손」에서 재이가 상처를 입은 곳은 엄마가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해서 보낸 교회의 성가대이다. 따라서 그들에게 다문화가정이라는 배경이 놀림거리로 건드려지는 경우는 피할 수 없는 ‘통과제 의’ 같은 것이다. 하지만 이때의 폭력은 직접 면전에서 대놓고 아이들을 향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쪽지로, 수근거림으로, 뒷담화 형식으로 펼쳐진다. 주인공들과 다문화 아이와의 소통은 직접적인 소통 보다는 매개를 거치는 양상을 종종 볼 수 있다. 「경마학 개론」에서 중국인 소년은 길을 물어보는 쪽지를 건네주었고, 「손」에서 김미영이 화가 난 것은 화장실의 낙서였다. 아이들은 상대방에게 직접 말을 거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말을 거는 것은 주인공과의 거리성을 보여준다. 재이의 경우는 반대로 쪽지와 댓글로 인해 상처를 받는다. 상처받은 재이를 엄마인 ‘나’는 아래와 같이 위로한다.

너의 아빠 여기 일하러 온 거 아니야. 공부하러 온 사람이었어. 고향 집에 하인도 있었대.(p.204)

다문화가정에 대한 고유한 사회적인 편견을 엄마인 ‘나’도 마찬가지로 공유하면서 그 편견의 대척점인 ‘부유하고 학식 있음’으로 대처하였다. 엄마는 재이 아빠의 학력과 재력을 내세워 기타 다문화 부모를 둔 아이들과 재이를 구분하였고 자신의 가정과 기타 다문화가정을 구분한다. 뿐만아니라 성가대 사건 이후 ‘나’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 안 되는 소득 대부분을 교육에 쏟았다. 하지만

정작 재이는 그날 가장 힘들었던 것은 ‘모욕적인 문구’보다 그 것을 듣고 애들이 냈던 ‘웃음소리’였다고 하였다. 재이가 받은 상처는 3표 차이로 진 선거 결과에 무관한 것이고 이겼어도 힘든 것은 마찬가지였다. 오히려 더 힘들었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재이의 마음은 성공이나 승패의 결과와는 관계없었지만 ‘나’는 번지수를 잘못 짚으면서 능력 있는 아빠로 인해 자괴심을 가지라고 위로한다. 그리고는 ‘무시 받지 않는’(p.204.) 아이로 키워내기 위해서 재이의 학업에 신경 쓴다.

크리스마스 공연이 끝난 뒤 재이는 노래를 하고 싶지 않다고 하였고 그 이유는 친구들이 자기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이 싫다고 했다. 하지만 엄마는 대뜸 그게 ‘칭찬’이라고 대답했다. 여기서도 엄마는 우열을 가리고 있다. 그러자 재이는 “엄만 한국인이라 몰라.”(p.196.)라고 하면서 재이가 사회생활에서 느끼는 ‘특별’한 대우를 불편하게 느끼는 마음을 엄마로부터 인정과 위로받지 못하는 것에 서운함을 표현한다. ‘나’는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하는 그 순간마저도 “너도 한국인이야”라는 사실에만 기반한 말로 재이의 감정을 공감하지 못하고 대화를 넘겨버린다. 이는 재이와 엄마의 소통이 어긋나기 시작한 상징적인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아빠와 헤어진 진짜 이유를 묻는 아들의 질문에 ‘나’는 교과서에서나 나올 법한 대화로 진행하면서 아들의 지속적인 정체성 질문을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는다.

결국, 재이는 주변에서 자신이 특별하게 느끼는 점을 ‘약점’으로 인식하고 썩 크림을 과하게 바르면서 정체성의 표현이기도 한 피부의 특징을 감추려고 했다. 재이가 찍힌 동영상은 소리가 없는데 엄마가 구타하던 아이들이 중간에 뭐라고 얘기하면서 떠들었는지를 물어보자 “틀딱?(p.220)”이라고 말하면서 친진한 흥미어린 표정을 짓다가 소중한 비밀이 들킨 것처럼 미소를 재빨리 거두는 행동은 엄마와 그것을 읽는 독자의 간담이 서늘하게 한다. 사춘기에 들어선 재이는 어느새 약자와 약점을 포착하는 우생학적인 시선을 바탕으로 하는 혐오를 배웠다.

소설을 보면 차별과 상대에 대한 혐오 표출은 다문화가정과 그 가정의 청소년들만 마주하는 것은 아니다. 소설에는 한국 사회 다양한 층위의 혐오 발언들이 언급된다. 엄마인 ‘나’도 한때는 ‘내’ 엄마의 공감 결핍의 언행으로부터 ‘상스러

움'까지 느끼던 사람이었다. '나'의 엄마가 아이를 두 명을 한 달 사이에 나란히 잃은 사촌 언니 앞에서 "우리 집안 죄받았다 할까봐 부끄러워서 어디가서 말도 못꺼낸다"(p.202)라는 무례한 발언을 한다. '나'는 '나'의 엄마 역시 군인이었던 '내' 아빠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날카로운 말들은 윤회하듯 사촌 언니를 말로 아프게 했던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는 "딸을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급히 떠났다"는 친척들의 말들이 쏟아진다. 사실 이와 같은 망언들은 할머니 세대 가족들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내'가 요양병원에서 일할 때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 중에도 예의가 부족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장유유서'의 순서처럼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다시 위로 오가면서 혐오의 세대 간 악순환은 지속된다. 혐오는 세대를 넘나들면서 횡적으로 전가될 뿐만 아니라 처지가 다른 사람들을 향하면서 종적으로도 오간다. 식당 영양사인 '내'가 꼼꼼하게 업무를 대하려고 하지만 '이혼한 여자'라는 이유로 아주머니들의 비난을 받는다.

- 어휴, 피곤해. 왜 저렇게 예민하대?
- 놔둬, 여자 혼자 살아서 그래.
- 저래서 이혼했나봐.(p.199)

사실 이런 '나'는 누구보다도 재이의 입장을 잘 이해할 수 있었다. 재이가 느끼는 미묘하고 불편한 감정들은 '나'는 동남아인을 남편으로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재이보다 먼저 의식해 왔었다. 이혼 전 남편과 팔짱을 끼고 다니면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다. 그때마다 남편은 영민함과 재치를 동원해서 그 사람들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관정해버렸는데 '나'는 묘한 반발심을 느끼면서 '한 개인의 역사와 무게, 맥락과 분투를 생략하는 과정'이라고 반발한다. 이혼 뒤 지금도 남편의 그림자는 항상 따라다닌다. 영상에 찍힌 재이의 소문을 수군대는 동네 사람들은 동남아인이 엄마인 '내'가 아니라 아빠라는 사실이 언급되자 '뭐가 아쉬워서'라는 말을 한다. 하지만 재이가 같은 상황에 놓일 때, 그 전에 차가운 말들 속에서 상처를 받았던 '나'는 남편이 '나'에게 했던 것처럼, 친척 어른들이 '내' 엄마의 장례식에서 했던 도움이 안 된 위로처럼 재이에게도 '내'가 보기에 '합리적'인 답을 한다.

재이가 처한 오늘날의 사회생활 공간은 전보다도 더 복잡한 환경이다. 재이가 어릴때에는 다만 ‘성가대’와 같은 특정한 공간에 제한된 것이었다면, 현재는 조희시간에도 스마트폰만 하느라 교실은 오히려 조용할 정도로 재이 또래 학생들은 항상 지니고 다니는 핸드폰을 통해서 세상과 늘 이어져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인터넷 댓글 창을 통해서 손쉽게 ‘급식충’, ‘노인네’(p.205.)와 같은 비난과 욕설을 매우 쉽게 또 많이 항상 접한다. 노인 구타 사건 동영상 아래에는 사건을 진위를 알지도 못하는 네티즌들의 ‘익숙한 비난과 욕설이 쏟아졌다.’(p.205.)

모유 수유를 하면서 엄마의 ‘뽀 국물’도 주었고 ‘내’가 먹고 자란 ‘우리 엄마’가 만들어 준 뽀를 고아 만든 국물로 피덩이었던 재이를 지금까지 키워냈다. 앞 전 세대가 헌신적으로 키워낸 엄마 세대는 몸만 자란 것이 아니라 정서적 보살핌의 결핍 속에서 공감을 해주지 못하는 대처 방식까지 이어받은 것이다. ‘나’ 또한 재이를 그런 사람으로 키워와 버렸음을 깨달았다. 이 ‘양육의 실패’는 ‘손’에서 책임인 ‘나의 성찰로 끝나던 ‘교육의 실패’와 한 쌍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경마학 개론」에서 낯선 중국인 아이를 포착한 ‘나’의 인식의 실패와도 맞닿아 있다. 「경마학 개론」에서 주인공은 특정 국가에 대한 편협적인 인식과 현실에 대한 자신만의 인식인 계층론을 바탕으로 중국인 소년을 이해하려 하였다. 「손」의 책임인 김미영은 농촌과 도시의 이분법의 틀 안에서 도시인으로서의 예민한 촉을 근거로 용우를 재단했지만 역시 실패하였다. 「가리는 손」에서 엄마는 재이에게 끊임없이 자신의 욕망을 투사하면서 자신의 가정을 기타 다문화가정과 구분 짓고자 했다. 이 과정에 엄마는 혐오를 배워가는 재이의 변화를 놓치고 말았다.

## 5. 나가며

이 글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등장하는 소설에서 미스터리한 소년에 대한 형상화가 이 시대의 계층문제와 혐오의 작동방식을 드러내고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주요 작품들을 분석하였다. 위 소설들은 말미에 1인칭 서술자가 전지적 서술자가 아니라 ‘신뢰할 수 없는 서술자’임을 드러내면서 “경험적 주체의 한계”<sup>38)</sup>를 다시 복원시킨다. 소설에서 차용한 추리소설의 방식은 서술자를 따라 고정관

념으로 읽었던 독자의 독법을 무효화하고 성찰하는 서술자와 함께 독자 자신의 해석 행위를 반성하게 한다. 「경마학 개론」은 독자가 서술자의 진술과 결론을 거부하는 것을 통하여 서술자를 부정함으로써 자기 성찰로 나아가게 한다. 「손」과 「가리는 손」은 결말에서 성찰하는 서술자를 보여주면서 소설 읽는 과정에 서술자에 감정이입을 하였던 독자들에게 실패의 경험을 안겨주고 독법을 반성하게 한다. 소설 속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서술자와 공모한 독자의 규정짓기로부터 끊임없이 비껴가면서 예측에서 벗어나는 것을 통하여 오해와 편견들을 부수고 있다. 이 과정에 다문화 청소년들이 마주하는 사회적 곤경의 본질을 보여준다. 그들은 언어와 외형이 다를 경우 쉽게 혐오적인 존재로 간주되고 의도적으로 무관심한 태도와 조우하게 된다. 이 아이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의 형태는 더 은밀해지고 익명성을 지닌 채 현실세계와 인터넷세계를 오가면서 시공간을 초월한다. 그 속에서 그들도 서서히 물들어 지고 있다. ‘괴물’이 된 재이는 장차 무력한 고시준비생이 되어 「경마학 개론」에서처럼 지하철에서 도움을 청하는 소년의 요구를 무시할 것이다. 이 연쇄 고리를 끊어버릴 일말의 희망은 소년의 도움 요청을 간과하지 않은 세라에게서 찾을 수 있다.

2023년은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이 나오는 해이다.<sup>39)</sup> 다문화 가구원은 2020년 기준 전체 인구(5,183만명)의 2.1%(109만명)이고, 다문화 출생은 전체 출생(27.2만명)의 6.0%(1.6만명)로 향후 한국 사회에 다문화가족 청소년들도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sup>40)</sup> 다문화 청소년들의 의무교육과정 완료와 본

38) 김태환, 「전지성과 서술 형식의 역사」, 『카프카연구』 제35집, 한국카프카학회, 2016, p.72.

39) 적절한 지원을 주려는 정부의 노력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도움이 필요한 다문화가정에 적절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전국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 통계자료를 구축하는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여성가족부 브리핑, 「보도자료-2021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 최종배포본」, 2022년 6월 24일.)를 2009년부터 3년마다 실시한다. 하지만 세 편을 소설을 통하여 2000년대 정부의 다문화정책 실시 속에서 자란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 대한 양육과 교육은 현실에서 한계에 부딪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0)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 제20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2022년 2월 4일

격적인 사회진출을 앞두고 한국 사회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이 도입기와 성장기를 거쳐 정착기에 들어선 오늘날, 다문화가족 정책의 정착기에 유년시절을 보낸 이 아이들은 그 전시대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하였다. 하지만 그들이 조우한 문제는 세 작품이 보여준 것처럼 공개적인 차별보다는 일상 차원에서 부딪치는 문제가 점점 더 두드러지고 있다. 그들이 마주하는 현실의 폭력이 더 은폐되고 교묘해진 점, 이는 사회적 구조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정부 지원이 현재와 같은 한국어 교육, 부모교육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시혜를 특징으로 하는 다문화 담론 논리”<sup>41)</sup>부터 전환하여 사회의 전반적인 포용력을 높이는 것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청소년들이 마주한 각종 폭력과 혐오는 다문화가정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닌 한국사회의 갈등과 구조에 근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 ◆ 참고문헌

### 1. 단행본

- 강화길, 『화이트 호스』, 문학동네, 2020.  
 김경욱, 『내 여자친구의 아버지들』, 문학동네, 2016.  
 김애란, 『바깥은 여름』, 문학동네, 2017.  
 대중문학연구회, 『추리소설이란 무엇인가?』, 국학자료원, 1997.  
 H. 포터 애벗, 『서사학 강의』, 우찬제 등 옮김, 문학과지성사, 2010.  
 이브 피테르, 『추리소설』, 김경현 역, 문학과지성사, 1993  
 토도로프, 『산문의 시학』, 유제호 역, 문예출판사, 2003.

### 2. 논문

- 김성환, 「산업화시대의 윤리와 아동의 재발견」, 『한국문학논총』 제81집 한국문학회, 2019, pp.149-192.  
 김지혜, 「다문화 소설을 통한 상호문화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김지미, 「아버지의 탄생, 부재 그리고 죽음」, 『황해문화』 제86호, 새얼문화재단, 2015.

41) 정용인 기자, 「다문화 20대, 어디서 무엇을 할까」, 2018년 10월 01일자, 주간경향 1295호



- pp.377-390.
- 김태환, 「전지성과 서술 형식의 역사」, 『카프카연구』 제35집, 한국카프카학회, 2016, pp.55-75.
- 문경희,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계기로 살펴보는 다문화주의와 한국의 다문화 현상」, 『21세기 정치학회보』 16, 21세기정치학회, 2006, pp.67-93.
- 박하림, 「공멸의 상상, 공동(共動)의 미래」, 『안과밖』 44권, 영미문학연구회, 2018, pp.141-180.
- 박홍매, 「김향숙 소설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2
- 손혜숙, 「다문화 소설에 재현된 다문화가정2세의 정체성 상상」, 『다문화콘텐츠연구』 34,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20, pp.87-118.
- 신새별, 「그런 여자, 쓰(이)는 여자, 선택하는 여자」, 강화길, 『화이트 호스』, 문학동네, 2020, pp.262-267.
- 이미림, 「다문화성장소설연구」, 『현대소설연구』 51, 한국현대소설학회, 2012, pp.373-401.
- 송예슬, 「추리소설 서사를 경유한 메타테스트적 욕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 지성우, 「다문화가족 관련 법률의 현황과 입법과제」, 『유럽헌법연구』 제22호, 유럽헌법학회, 2016, pp.245-274.
- 천서윤, 「상징계를 가로지르는 비체(들)의 여성송고적 글쓰기」,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95호,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22, pp.89-112.

### 3. 인터넷 자료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제20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2022년 2월 4일.
- 통계청, 「보도자료-2020년 혼인 이혼 통계」, 2022년 3월 18일.
- [https://www.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88686](https://www.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88686)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사이트, 연도별 다문화 학생수, 2022년 4월 1일  
[https://kess.kedi.re.kr/kessTheme/zipyo?itemCode=03&menuId=m\\_02\\_03\\_01](https://kess.kedi.re.kr/kessTheme/zipyo?itemCode=03&menuId=m_02_03_01)
- 박원희, 「2분기 합계출산율 0.75명 역대 최저」, 『연합뉴스』, 2022년 08월 24일.
- 한양대학교 에리카산업협력단, 「다문화가정 자녀의 공교육 진입 방안」, 교육부정책연구개발비 지원, 2016.
- 여성가족부 브리핑, 「보도자료-2021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 최종배포본」, 2022년 6월 24일.
- 여성가족부 블로그 <https://blog.naver.com/mogefkorea/222682794124>,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다!」, 2022년 3월 25일.

정용인, 「다문화 20대, 어디서 무엇을 할까」, 『주간경향』 1295호, 2018년 10월 01일자.

논 문 접 수 일	2022년 11월 10일
심 사 완 료 일	2022년 11월 28일
게 재 확 정 일	2022년 12월 08일

*Abstract*

A study on the Social Frames Surrounding Youth  
from Multicultural Families

Song, Xiangqing

This thesis was written to investigate second-generation youth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who have not been well covered in novels and related studies. There are three short stories by Korean writers that feature teenager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Kim Ae-ran's "Covering Hands," Kang Hwa-gil "Son(손)," and Kim Kyung-wook's "Introduction to Horse Racing." All three authors used the same method of a detective fiction to write with a third-person Korean speaker narrative. These teenagers are all portrayed as mysterious characters. They used the strategy of "the narrator who cannot be trusted" to dispel the prejudice against youth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to betray the reader's stereotyped notions, who leans toward the narrator during the reading process. This reveal shocks the reader and leads to a moment of self-reflection. Through the process, the essence of the social plight that multicultural youths face today is highlighted. When the teenagers are faithfully depicted in language and appearance, they are easily regarded as disgusting beings and encounter deliberately indifferent attitudes. When a Korean child speaks fluent Korean and looks like a typical Korean child, the form of violence inflicted becomes more secretive and anonymous. In addition, violence transcends time and space, moving back and forth between the real and virtual worlds. In fact, the violence and hatred faced by these teenagers are rooted in the conflicts and structures of Korean society.

**Keyword** Multicultural novels, Youth from multicultural families, Detective fictions, Untrustworthy authors, Hate, Class, Online violence.



# 韩汉回溯性话语标记“하긴”与“话（又）说回来”的交互 主观性研究\*

赵娜\*\* · 赵新建\*\*\*

## 국문요약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한국과 중국 언어학계에서 ‘하긴’에 대한 논의가 많지 않고 대조언어학적 관점에서 다룬 연구가 더욱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하긴’에 대한 사전적 해석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도 발견할 수 있다. 본고의 관점은 한국어 ‘하긴’과 중국어 ‘話（又）說回來’는 모두 전형적인 회고적 담화표지로서 화자/저자 인식의 전환을 나타내고 발화 발전 방향의 변화를 암시하며 이들은 좋은 대응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본고는 ‘하긴’과 ‘話（又）說回來’의 회고성의 구체적인 표현에 대해 세밀하게 묘사하고 이들이 나타나는 상호주관성의 하위 유형에 대해 중점적으로 고찰하며 회고적 담화표지 ‘하긴’과 ‘話（又）說回來’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주제어** 한국어, ‘하긴’, 중국어, ‘話（又）說回來’, 회고적 담화표지, 상호주관성

\* 本文为教育部2021年度哲学社会科学研究重大课题攻关项目(子课题负责人) ‘20世纪以来海外中国文学评论中的中国话语与形象研究’ (编号:21JZD051), 上海外国语大学校级重大科研项目‘建国70年来中国文学海外译介数据库建设与研究’(编号:2019114027), 上海高校市级重点课程“高级朝鲜语 I” (编号:157) 的阶段性成果。

\*\* 第一作者 上海外国语大学 博士研究生

\*\*\* 第二作者 上海外国语大学 教授

## 〈目次〉

1. 问题的提出
2. 交互主观性理论
3. 韩国语回溯性话语标记“하긴”的交互主观性研究
4. 汉语回溯性话语标记“话又说回来”的交互主观性研究
5. 小结

## 1. 问题的提出

韩国学界关于“하긴”的研究主要集中在以下几个方面：一是，以“-기는 (-긴)”为分析目标，在对其句法、语义、语用特征（包娟，2016）及其多元语法化路径（구현정，2012）进行考察时，旁及到了“하기는 (하긴)”。其中，包娟（2016）未涉及独白语境，只考虑了对话语篇中的用法，认为“하긴”是对对方话语命题确实性的判断，表示认同对方观点并对自己原有观点持保留态度。구현정（2012）则更侧重于对“하긴”多功能多用法的分析，认为根据功能的不同可以将“하긴”分为理由标记、让步标记、消极话轮开启标记三大类，但未提取其本质意义。二是，专题讨论“하긴”的文献。최운지（2021）引入预期的概念，对独白和对话语境下“하기는”所在语篇的语义结构进行了较为详细的分析，认为其核心语义为“接受与话者原始想法对立的想法”，并指出这一本质语义特征与“话者自己原想法的保留”较为接近，其研究思路和研究视角都值得我们借鉴。我们的观点是，“하기는”所在语篇是一个解反预期语篇，可以用解反预期性统括其所有用法，后文有详细介绍，这里不再赘述。此外，还有关于“하긴 (하기는)”来源（구현정，2012；이후인，2015等）及语法范畴界定（손남익，1995；김선영，2003；이후인，2015等）方面的探讨。

从前贤相关研究的文献梳理中，我们可以发现，学界关于“하긴”的专题研究关注度不够，更是缺乏基于对比视角的探讨。另外，词典中对于“하긴”的释义不够到位，根据《标准国语大词典》、《高丽大韩国语词典》、《韩国语学习辞典》等词典的标注，“하긴”是副词“하기는”的缩写，对前面内容表示肯

定,对后面小句起衔接作用,相当于“만은,실상은,실은,사실 말하자면”,可翻译为“是啊、是的、的确、没错、说实在的”。如“웬웬은 나를 잘 모르는 모양이군. 하긴 서로 만난 일이 없었으니 그럴 수도 있지.媛媛好像不太认识我,是啊,相互也没见过面所以这样”。我们认为,三部词典中关于“하긴”本质属性的把握较为笼统,对应的汉语翻译也不够到位。<sup>1)</sup>

我们的初步观点是,韩国语“하긴”与汉语“话(又)说回来”均彰显了话者/作者思维的回溯,都是典型的回溯性话语标记,两者表现出良好的对应性。在前人相关研究的基础上,本文拟对韩汉回溯性话语标记“하긴”与“话(又)说回来”回溯性的具体表现进行较为细致的描写,重点考察其所体现出的交互主观性特征,并试图分析回溯性话语标记存在的根本原因。

## 2. 交互主观性理论

关于交互主观性的讨论,认知语言学和功能语言学代表着主要的研究视角,下面我们将重点介绍功能-认知视阈下的交互主观性观点。

吴福祥(2004/2019)、张兴(2009/2019)、完权(2017)等都对Traugott(1999/2003)的交互主观性观点进行了归纳,所谓的交互主观性是指发话人用明确的语言形式表达对受话人的关注:认识意义上,关注受话人对命题内容的态度,但更多的是体现在社会意义上,即关注受话人的“面子”或“形象需要”。

Verhagen(2005)则基于Langacker的认知语法,提出了认知视角的交互主观性概念。两者的区别在于,Langacker的关注点在于概念化主体对概念

---

1) 评审专家指出,文中关于“词典释义对本质属性的把握较为笼统,其对应的汉语翻译也不够到位。”这部分没有进行说明。根据评审专家的意见,我们这里进行补充,即:通过对“하긴”不同用法的考察,我们发现可以将其看做是一个典型的回溯性话语标记,它所在的语篇结构为解自反预期结构,说话者或作者通常是基于“回溯”视角,即站在已经确知结果的位置上回溯有关条件的知识。这与汉语回溯性话语标记“话(又)说回来”的条件(致因、根据)式回溯用法对应。因此,我们认为,比起词典中“是啊、是的、的确、没错、说实在的”的译法,将“하긴”译为“话(又)说回来”更确切。

化客体的识解（如图1），而Verhagen则更加侧重于概念化主体之间的认知协作（如图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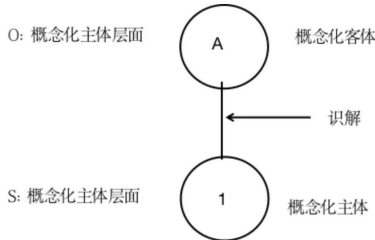


图1 主观性意义识解构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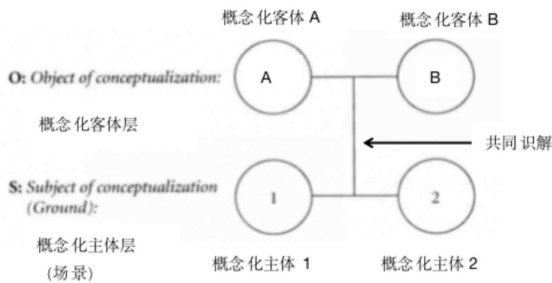


图2交互主观性意义识解构型及其基本要素 (Verhagen, 2005)

上述两大理论框架的关注或侧重点不同，其交互主观性概念内涵也不同，因此不能相互替换。我们基本认同上述定义具有可分类不可调和性的观点，即为了解决现有概念混淆，一种可能做法是区分不同类型的交互主观性。Ghesquière (2014 : 69-71) 和Ghesquière等 (2014) 对交互主观性的分类具有开拓性的意义，他们认为可以将其分为三个不同的下位子类：一是态度型，关注听话人/读者对话语内容的态度，二是回应型，关注听话人/读者对话语内容的回应。两者都是Traugott交互主观性概念的反映，分别体现了交互主观性的礼貌功能和人际元话语功能。三是篇章（语篇）型，与Verhagen认知协调观点的本质是一致的（丁健，2019），都关注听话人/读者对话语内容



的理解,说话人通过特定的语言结构或形式来标记说话人的主观视角、认识等,引导或影响听话人/读者朝着自己发话意图的方向进行推理和诠释,最终达成共识。

基于交互主观性理论框架,本文将重点探讨回溯性话语标记“하긴”与“话(又)说回来”彰显了哪些不同类型的交互主观性。

### 3. 韩国语回溯性话语标记“하긴”的交互主观性

孙廷廷(2012)对回溯性话语标记的特点、分类、功能、存在的原因等做了较为详细的介绍,她指出,回溯性话语标记是回溯性思维的语言表现,反映话者交际时的心理活动、思维模式,其中包括对所表达事件的组织和思考过程、表述视角的转换、语气情感的转换等。回溯性话语标记的核心语义特征是说话者把思路中断,限制话语信息继续向前流动,回到说话的起始点,这里的“起始点”是一个抽象的概念,包括前项内容、文章中心、事件的前提条件、读者的心态等。

本文认为,韩国语回溯性话语标记“하긴”的回溯性集中表现在条件(包括使因、依据等)式回溯上,通过“하긴”将按照常规逻辑顺序排列的先条件(理由、根据)后结果的语义块打乱。另外,前项与后项的对立关系主要体现在:后项不是直接与前项对立,而是与前项所蕴含或推导出的反预期信息相反、对立,从而得出正预期信息,彰显了一个解自反预期的过程。下面我们将重点分析条件式回溯性话语标记“하긴”的解反预期性,以及其彰显的交互主观性类型。

#### 1) 条件式回溯性话语标记“하긴”的解反预期性

吴福祥(2004)指出,反预期信息(Heine et al., 1991; Traugott, 1999; Traugott&Dasher, 2002)指的是与某个特定预期相反的话语信息,言谈事件中当说话人针对语境中谈及的某一事物或事态提出一种与他自己或受话人的预期相反或相背离的断言、信念或观点时,那么该说话人就表达了一

种反预期信息。很多语言常常用一些专门的语法手段来标记反预期信息，语言学家常常把这些语法手段叫做反预期标记，最常见的反预期标记是像副词、连词这样的语法词。吴文还指出，“语句U2非给定的语句U1所预期（Traugott, 1999 : 179）”中的U2在理论上可表达“与说话人相反的预期”、“与听话人相反的预期”、“与包括听说双方在内的特定言语社会共享的预期相反”三种反预期类型。也有学者（陈振宇、姜毅宁，2019）将其称之为自反预期、他反预期、常规反预期。

除了（正）预期和反预期外，还出现了解反预期（袁毓琳，2008）概念。陈振宇（2019）提到，解反预期存在两个立场事件，一个是意外之事，即某件事造成预期不同或相反，让人意外；另一个是解惑之事，即找到某种因素，说明这件事是合规的或合理的，因此不应该意外。根据解反预期概念，本文的初步观点是回溯性话语标记“하긴”彰显了一个解反预期过程，下面我们将分别对同一话轮内和跨话轮中“하긴”所具有的了解反预期性进行分析。

### （1）同一话轮内“하긴”的解反预期性

如下面例句所示，“하긴”前件命题通常可以推导出反预期意义，后件命题则提出新的理由或条件，表示正预期，即前件命题有其存在的原因或合理性，我们可以将其看做是一个解反预期的过程。也就是说，说话人最初觉得前件命题是反预期信息，而后来又觉得是和谐的，从而把之前的反预期语义消除。“하긴”所在的语篇是一个解反预期语篇，可以表示为“反预期信息+하긴+正预期信息”。

（1）웬웬은 나를 잘 모르는 모양이군. 하긴 서로 만난 일이 없었으니 그럴 수도 있지.

（2）피곤한 모양이군요. 하긴 그렇게 힘든 일을 했으니 많이 지쳤을 거예요.

（『韩国外国语大学韩语学习词典』）

（3）이 수업은 과제가 너무 많아. 하긴, (그럴 만도 한게,) 시험이 없지. (최운지, 2021 : 96)

首先, 我们来对“하긴”前件小句的反预期意义进行推导。陈振宇(2017)指出, 根据预期的语义内容可以将反预期的基本功能分为两大类: 真实性否定和合理性否定, 其中合理性否定更为本源, 即每个自反预期的背后都是对事件的合理性的否定, 这是基于“我总是对的”这样一个说话者中心主义的观念的语用倾向。不过说话者面对的事件的情况不同, 如果很明显他已经无法否定事件的真实性, 则只能是纯粹的合理性否定; 但如果事件有可能不为真的, 则说话者倾向于认为事件为假, 这就得到真实性否定。并给出了自反预期中合理性与真实性的关系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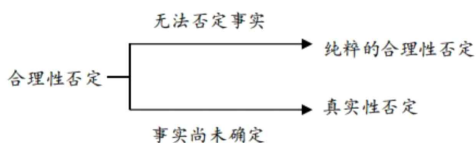


图4 自反预期中合理性与真实性的关系

图3 自反预期中合理性与真实性的关系 (陈振宇, 2017)

上面例句(1-2)中, 前件命题后面都与“-군(으)” (对新知事实表示惊讶、感叹)共现, 带有一定程度的意外性<sup>2)</sup>, 它对预期性有表达或提示作用。从(1-2)中我们可以看出, 当前事实即语句命题意义的焦点部分是“她不太认识我啊”、“你好像很累啊”, 多多少少带有话者的意外, “-군(으)”使得自反预期(不在自己的预料或常理中)显性化。此时, 反预期的基本功能是纯粹的合理性否定, 说话人已经无法否认事实的真实性。例(3)中“这门课作业非常多”, 话者预期意义的焦点部分P为“这门课的作业量应该与其他课程相当, 即小于等于其他科目”, 但通过副词“너무”我们可以得知, 在话者的认知中, 这门课的课业量偏离了正常值, 超出了话者预期, 属于主观大量, 从而得出反预期意义。我们可以用反预期与事实性的关系推导图来进行表示:

2) 陈振宇、杜克华(2015)主张, 意外是语言中关于“出乎意料”(反预期)的信息以及表达说话人对有关信息感到“惊讶”的语气系统。也就是说, 意外句必有反预期的信息。(陈振宇、王梦颖, 2021: 59)

强调事件P是合理的  $\longrightarrow$  言者的预期是P, 事实是~P (反事实句)  
 (P: 作业量小于等于其他课)      ( $\neg$ P: 作业量偏离正常值, 大于其他课程)

陈振宇、姜毅宁(2019:303)指出, 语义和谐(如果条件事件YP为真, 则说话者或一个正常的社会人会认为结果事件XP很有可能为真或会为真)<sup>3)</sup> 对语篇具有重要的影响, 语义和谐与说话者当前所处的认知位置与所选择的主观性视角有关, 主要存在以下两种:



图2 语义和谐与说话者的位置和视角

图4 语义和谐与说话者的位置和视角 (陈振宇, 姜毅宁, 2019)

“하긴”所在的语篇结构可表示为:“结果事件XP+하긴+条件事件YP(包括使因、依据等)”。因此, 我们可以基于“回溯”视角, 即说话者站在已经确知结果的位置上回溯有关条件的知识, 对“하긴”进行考察。根据陈文观点, 回溯通常会按照不和谐方向进行自反预期解读, 因为既然已经知道了结果事件XP, 如果说话者再进一步说YP, 回溯到前面的条件, 那信息价值就会很低, 这时必须要有特殊的语篇允准, 才能使说话者的话语成立, 那就是“双重反预期(自反预期+他反预期)”, 即先意外, 后强调。双重反预期有时又可以表现为“解反预期”(袁毓林2008), 即第一个意外是说话者自己的意外, 而后面的反对是反对对自己最初的预期。后来陈振宇(2021)又将解反预期分为解他人反预期与解自己反预期两大类, 其中, 解自己反预期与“하긴”所出现的语篇环境相符。下面我们将试图基于“解自己反预期(解自反预期)”来挖掘“하긴”的本

3) 陈振宇、李双剑(2020)认为, 语义和谐指的是在单位相互之间的配置上不存在矛盾与冲突, 或者说它们本来就是同一功能场或使用域中无标记匹配的项目。从概率论讲, 对说话者或一个正常的社会人而言, 条件概率P(Y|X)相当大, 即如果说X, 则可以由此推出Y是恰当的。

质。

(4) 요즘은 일곱 시에도 날이 어두워. 하긴 겨울이니까. (『韩国外语大学韩语学习词典』)

“하긴”带有解自反预期的意味。前件命题内容即当前的事实，与话者原本的预期相反或不同，如上面例(4)，在话者的认知或预期中，“7点天黑，有点早了”，而后面内容却又是对前件命题的肯定，“7点天黑也属正常，因为毕竟现在是冬天嘛”。其意义层次可以表示为：

① 说话人发现最近天7点就黑了。

② 【第一层预期结构】说话人对此感到意外。

条件 O<sup>4)</sup> 就在临近的前些天 7点天是亮的，或天还没那么冷（在语篇中隐含）

预期 P (M|O) （所以）7点应该不是天黑的时候——认识情态（语篇中隐含）

当前信息 P (M) 7点天黑了（语篇中显性表达）

预期性：反预期信息

③ 【第二层预期结构】说话人发现新的条件，从而构成新的预期。

条件 O 现在是冬天（在语篇中显性表达）

预期 P (M|O) （所以）7点钟应该天黑了——认识情态（语篇中隐含）

当前信息 P (M) 7点天黑了（语篇中显性表达）

预期性：正预期信息

④上面结构中两个反预期：自反预期和他反预期（把先前的自己当成他人反对）。

在整个言语过程中，说话人的知识立场（结果事件XP具有了确定性）未曾发生变化，变化了的是评价立场，最初觉得天不应该黑的这么早，而后来认为因为是冬天，7点天黑也属正常。最初觉得是不和谐的，而后来觉得是和谐

4) 陈振宇(2021)给出了预期的认知模型，其中包括四个部分：条件（先有的知识状态）O、预期P (M|O)、当前信息P (M)和预期性（预期与当前信息的比较值）。

的。最初产生自反预期，而后来是把这一预期否定掉。根据陈文的观点，这类结构无法在语篇中分解为前后相继的两个结构，而是交织在一起构成一个整体性的结构，核心部分包括两个小句或小句丛，几乎与领悟范畴<sup>5)</sup>重合，因此基于此观点，我们也可以将“하긴”所在的结构看成是：“意外小句+하긴+领悟小句”。

再回到上文例(1-3)，前件命题多多少少带有说话人的意外，而在后件命题开头通过使用“하긴”来反对自己最初的预期，试图将意外的影响消除，是“解反预期”的体现。如例(3)中的前件命题“这门课作业非常多”是话者之前未料想到的，涉及意外的情绪情感意味，而话者后面又试图通过“하긴”来将意外的影响消除。话者虽然承认反预期成立，但是认为消除它的影响，不足以产生强烈的情绪情感，从而将意外轻描淡写化。其意义层次可以表示为：

① 说话人发现这门课作业非常多。

② 【第一层预期结构】说话人对此感到意外。

条件 O 每门课的作业量相当，都适中（在语篇中隐含）

预期 P (M|O) (所以) 这门课的作业量不会偏离正常值——认识情态（语篇中隐含）

当前信息 P (M) 作业非常多（语篇中显性表达）

预期性：反预期信息

③ 【第二层预期结构】说话人发现新的条件，从而构成新的预期。

条件 O 这门课没有考试（在语篇中显性表达）

预期 P (M|O) (所以) 作业量可以偏离正常值——认识情态（语篇中隐含）

当前信息 P (M) 作业非常多（语篇中显性表达）

预期性：正预期信息

④ 上面结构中，有两个反预期：自反预期和他反预期（把先前的自己当成他人来反对：说话人反对自己先前的意见，认为作业多也是有情可原的，因为毕竟没有

5) “领悟”的语义结构可以表示为(陈振宇, 2021)：

① 说话者接触到事件XP，并感到与常理或自己的预期不符。

② 说话者通过探索，或者是有别的信息传来，认识到新的条件YP；YP是XP的理由。

③ 因此认识到XP是合理的。

考试。而最初觉得“作业量不该这么多的，应该与其他课程相当，即小于等于其他科目”的预期是错的，“作业多”实际上是和谐的。)

因此，我们也可以进一步将回溯性话语标记“하긴”具体看做是解反预期标记。此类解除反预期<sup>6)</sup>影响的方法，是说话者找到了新的条件或理由，如例(1)“因为互相没有见过面”、例(2)“因为最近做了很辛苦的活”、例(3)“因为没有考试”，从而说明当前信息是正预期的，进而否定前面反预期的恰当性。

## (2) 跨话轮中“하긴”的解反预期性

基于解反预期框架，我们同样可以对回应行为中的“하긴”进行解读。但与前面不同的是，这里解自反预期意义的解读是跨话轮的，不是在同一个话轮内完成的。在“第二层预期结构”中，正预期信息的获得受到了听话人话语内容的影响。<sup>7)</sup>具体用例如下：

(5) 민숙 : 저녁에 비 온다는 얘기 없었는데요.

말자 : 야 일기 예보보다 내가 더 잘 알아. 내가 걸어 다니는 일기 예보 아니냐. 무릎이 짹짹 쭈시는 거 본 게 곧 비든 눈이든, 뭐든 한바탕 쏟아지게 생겼어.

민숙 : 하긴요. 어머니 일기예보 맞을 때가 많아요. <별난 여자 별난 남자, 131회>

(6) 서연 : 어머? 이 집은 코스 요리가 맛있는데...? 특선 코스 요리 드세요.

수현 : (여전히 미소 잊지 않고) 아, 아닙니다... 제가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

서연 : 하긴... 중국요리가 칼로리가 높긴 하죠. <아빠 셋 엄마 하나, 9회>

例(5)中，“민숙”可能看到天空突然转阴，觉得有点意外，因为天气预报没有说下雨，所以在话者的预期中，下雨的概率应该不大。事实与自预期不

6) “解反预期”和“反意外”二者有很大相通的地方，“解反预期”中的反预期都同时是意外，所以也都是“反意外”(陈振宇, 2021: 104)。

7) 当然，跨话轮中的“하긴”除了具有解反预期性外，还具有同盟关系构建功能，明示自己与对方趋同的认知立场。本小节我们将重点介绍其解反预期性，其趋同的立场标记(正同盟关系构建标记)用法将在下一小节介绍。

符, 产生了自反预期意义。但妈妈“말자”却提出了反对观点, 首先用“我比天气预报都准。我可是行走的天气预报”来表明自己的对立立场, 然后又给出了自己的判断依据, 即“根据自己的经验(阴雨天, 会膝盖疼)来看, 一会肯定会下雨(雪)”。“민숙”听了妈妈的立场后, 觉得有一定的合理性, 认为自己之前的预期“不会下雨”有待保留, 因此通过“하긴”来解自反预期。其意义层次可以表示为:

① 说话人发现马上要下雨了。

② 【第一层预期结构】说话人对此感到意外。

条件 O 天气预报没有说下雨(在语篇中显性表达)

预期 P (M|O) (所以) 不应该下雨, 或下雨的概率非常小——认识情态(语篇中隐含)

当前信息 P (M) 马上要下雨了(语篇中隐含)

预期性: 反预期信息

③ 【第二层预期结构】说话人发现新的条件, 从而构成新的预期。

条件 O “말자”膝盖疼(听话人) + “말자”以前经常猜中(说话人)(语篇中显性表达)

预期 P (M|O) (所以) 很可能会下雨——认识情态(语篇中隐含)

当前信息 P (M) 马上要下雨了(语篇中隐含)

预期性: 正预期信息

④ 上面结构中有一个反预期: 自反预期和他反预期(把先前的自己当成他人来反对)

例(6)“서연”首先给出了自己的评价立场, 认为这家中国料理店的精选套餐很好吃, 因此向“수현”推荐精选套餐, 邀请对方与自己站在同一立场。但是“수현”正处于减肥期, 觉得中国料理比较油腻, 不太想吃, 因此委婉地拒绝了对方的邀请, 并给出了与对方趋异的立场, 即“我最近在减肥”。“서연”听了对方的观点后, 可能刚开始有点意外, 本以为对方可以接受自己的推荐, 但事实相反, 可以推导出隐含的反预期意义。但是话者一想对方处于减肥期, 确实不太适合吃中国料理。说话者找到了新的条件或理由即“中国料理卡路里比较高”来反对或取消之前隐含的反预期意义。其意义层次可以表示为:



① 说话人发现“수현”拒绝了自己的邀请或推荐。

② 【第一层预期结构】说话人对此感到意外。

条件 O 这家的套餐料理很好吃 (在语篇中显性表达)

预期 P (M|O) (所以) “수현”应该会喜欢——认识情态 (语篇中隐含)

当前信息 P (M) “수현”拒绝了 (语篇中显性表达)

预期性: 反预期信息

③ 【第二层预期结构】说话人发现新的条件, 从而构成新的预期。

条件 O “수현”在减肥期 (听话人) + 中国料理卡路里高 (说话人) (语篇中显性表达)

预期 P (M|O) (所以) 应该会拒绝——认识情态 (语篇中隐含)

当前信息 P (M) 拒绝了 (语篇中显性表达)

预期性: 正预期信息

④ 上面结构中两个反预期: 自反预期和他反预期 (把先前的自己当成他人来反对)

## 2) 回溯性话语标记“하긴”的交互主观性类型

### (1) 语篇型交互主观性

如前所述, 回溯性话语标记“하긴”所在的语篇结构为解自反预期结构, 说话者或作者通常是基于“回溯”视角, 即站在已经确知结果的位置上回溯有关条件的知识。因此, 我们也可以将其视为回溯性篇章指示语, 用以标示话者或作者思维、认识的转变, 预示话语发展方向的改变。另一方面, 从听者或读者的角度来看, 听者(读者)也可以通过“하긴”按图索骥直接回溯到有关条件的知识上, 避免耗费更多的努力去建立前后语句之间的语义关联, 顺利解码话者(作者)的话语内容, 以最小的努力获得最佳关联, 具有明显的语篇型交互主观性特征。如:

(7) 딸: "아빠, 이젠 제가 따라도 되죠?" 그녀가 일어섰다.

엄마: "여자가 술을 따르는 법이 어디 있지. 하긴 아빠니깐 상관없긴 하지. <출처: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Verhagen交互主观性概念的提出借鉴了Anscomber和Ducrot的“论辩理

论”，即说话人或作者参与交流归根结底是想要影响别人的思想、态度或引起对方一个即刻行为反应，试图对别人的认知状态产生影响（李强，2021）。交际中话语意义的建构和理解在很大程度上体现为交际双方在心理空间层面的交互认知协作，“하긴”展现了这一交互主观性的本质特征。说话人或作者在包含“하긴”的小句前，通常会交代一些背景性的信息，这些信息能够引导听话人或读者做出特定的预期和推测，为听话人或读者埋下一个心理预期。前件小句交代的背景信息“女生哪有倒酒的道理”，给听话人女儿一个明确的心理预期“我不用主动站出来给男人倒酒”。但是“하긴”的出现，激活了一个与听话人原先预期结果相反的认知心理空间，“因为爸爸是自己人，所以我是可以倒酒的”，继而对其女儿的行为产生影响。再如：

(8) (인하가 둘러보지만..아는 사람이라곤 아무도 없다.)

인하 : (혼잣말로) 하긴.. 나도 몰랐던 가석방인데.. 나왔을 리가 없지.. <올인, 1-24회>

(9) 이 수업은 과제가 너무 많아. 하긴, (그럴 만도 한게,) 시험이 없지. (최운지, 2021 : 96)

我们可以把例(8)隐含在语篇中的结果事件XP补出来，即“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 하긴 나도 몰랐던 가석방인데... 나왔을 리가 없지。”。按照常理，或者作为一个正常的社会人都会默认，出狱的话肯定会有家人或朋友来迎接自己，但是“인하”环视了四周发现连一个认识的人都没有，显然当前事实与其预期相违，从而产生反预期意义。但是话者转念一想“这次假释我也没有得到提前通知，那家人肯定更不可能知道了”，用这一新找到的理由或条件，来反对自己之前的预期。于东兴(2018)指出，所有的语言表达都存在潜在的接受者，包括在场的、不在场的、以及内心构拟的听话人。例(8-9)看似是说话人在自言自语，但本质上来说，它也是在会话或“伪会话”(想象的、内心构拟的对话者或与自我对话)，存在潜在的对话者，涉及至少有两个主体的话语，所以也可以认为是互动的。例(8)“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会引导“潜在的听话人”(自我对话中的自己)朝着否定、消极、抱怨的情感立场去解

读,“怎么没一个家人来接我,他们都抛弃我了吗”。但“하긴”则会帮助潜在听话人构建一个肯定的、积极的心理空间,“因为家人都不知道今天是我假释的日子,所以才没来”,起到一定自我安慰的效果。例(9)中的“이 수업은 과제가 너무 많아”,为潜在的听话人或读者提供一个预期的结果,根据共享的认知文化模型,大家都知道,“这门课作业非常多”,会引导听话人或读者朝着负面的方向解读或做出推测,如“好想退课或早知道不选这门课了”。而“하긴”的出现,可以引导听话人或读者重新构建一个与原先预期相反的、对立的认知心理空间,当听话人听到“하긴”时,他就会被引导取消之前的预期结果,放弃原有的推断性认识。

也就是说,空间构建词语“하긴”具有标记交互主观性的功能,其作用是帮助听话人或读者取消原先的心理预期和推断,构建另外一个心理认知空间。彰显了说话人或作者是如何通过“하긴”引导听话人或读者做出推理性的认识,从而确保自己接下来的话语内容能够被听话人或读者识解,并最终实现与话者认知上的平衡与协调。Verhagen的交互主观性理论可以很好地描写和概括“하긴”所体现的交互主观性特征,其识解构型图可以表示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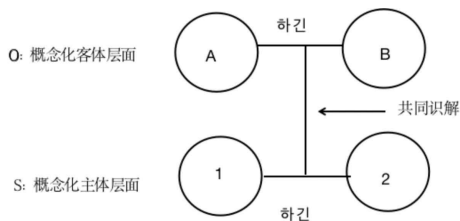


图5 “하긴”的识解构型图

## (2) 态度型交互主观性

前面我们对“하긴”在同一话轮内和跨话轮中的解反预期性进行了考察。跨话轮中的“하긴”在表示解反预期性的同时,还具有同盟关系构建或趋同立场标记功能。本小节将重点探讨其同盟关系构建或趋同立场标记功能所体现的交互主观性特征。

回溯性话语标记“하긴”标示思维或认识的转换,体现了立场的重新定义或

转换,即说话者对先前某一事件或行为的重新认识或转换。也就是基于先前的话语,通过使用“하긴”来展示或修正自身先前的话语立场。从话语立场功能角度来看,其交互主观性主要体现在:一方面,说话人/作者通过“하긴”来调控听话人/读者的认知状态,让听话人/读者知悉自己的认识立场,由此体现出语篇型交互主观性特征。另一方面,话者通过“하긴”表达与对方趋同的立场,宣告自己与对方是站在一起的,从而与对方构建起正同盟关系,维护了听话人的积极面子需求,具有较明显的态度型交互主观性特征。这也进一步说明,不同下位类型的交互主观性之间的区分不是那么严格,界限相对模糊,相互交叉渗透,相同的语言形式或结构可以同时表达不同下位子类的交互主观性。

下面我们将简要介绍该部分的分析工具:立场三角模型(John W. Du Bois, 2007),如图6。他认为,立场表达包括两个立场主体(话者和听者)和一个立场客体(谈论的焦点),立场表达行为可分为评价、定位和同盟三个子行为。其中,评价是指立场主体对立场客体的情感、评价、认识、道义要求、价值判断等;定位指言说主体通过立场表达定位自己,立场客体唤起言说主体的社会立场;同盟是指两个立场主体之间的关系,一个对当前立场和原先立场不断协商的实时交互的动态过程,趋同或趋异,同盟反映了交互主观性。(孙佳莹、陈振宇,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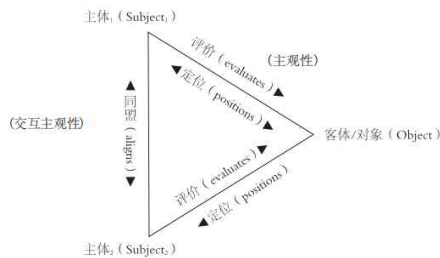


图6 立场三角模型

基于上述立场三角模型,下面我们将重点考察回应话语行为中“하긴”的趋同立场标记用法及其交互主观性体现。

- (10) 재영: 가서 데리고 올까? 와서 짹 짹 빌라고.  
 선희: 니 오빠 몰라서 그래, 누가 빌란다고 빌 너석이야.  
 재영: 하긴... 오빠가 누구한테 뭘 빌면 그게 더 이상하지. <1%의 어떤 것, 7회>  
 (11) 선정 : 찬호씨, 호주는 어땠어요? 좋았어요?  
 찬호 : 어휴, 일하러 갔는데 좋을 게 뭐가 있었겠어요.  
 선정 : 하긴... 찬호씨야 워낙에 성실하시니까... 일하러 가면 일 밖에 모르시는구나. <년 어느 별에서 왔니, 09회>

为节约篇幅, 我们这里仅讨论例(10), 主体1是“선희”, 主体2是“재영”, 共同评价的客体是事件“哥哥求情”, “선희”首先通过“누가 빌란다고 빌 너석이야”来评价言说客体“哥哥求情”, 同时基于认识量度选择位置, 即对自我认知进行定位, 把自己的认知定位为否认、对立的立场, 即“你哥哥不是给人求情的类型”。主体2“재영”听了“선희”的评价后, 认为其观点有道理, 表示认可对方的观点并放弃或保留了自己原有的观点或认识“带哥哥来, 让他求饶”。也就是说, 在此过程中, “재영”选择了趋同立场, 通过“하긴”对客体作出了相同的评价, 表达了与“선희”趋同或一致的立场, 进而与主体1“선희”的立场形成回应和互动。说话人试图通过“하긴”来构建与听话人的(正)同盟关系, 让听话人明确感知到双方是站在一起的, 说话人与自己拥有趋同的认知立场, 实现了自我与他人一致的最大化, 分歧的最小化。

根据陈文的观点, 构建(正)同盟关系的方法或遵循的语用原则可以总结为了5大类16小类, 主要包括: “等同、方向与加减量”、“内容和色彩的等同”、“礼貌原则的复杂性”、“会话的关联性”、“社会地位”、“对话用规则的小节”6大类。例(10)中“하긴+追加说明”结构彰显了(正)同盟关系构建的哪几种类型的语用原则呢?

首先, “하긴”标识了两个主体位置的同向性, “하긴”的出现, 使交际双方的位置重合。但整体来看, 此时两个主体的位置也并不是完全重合的, 因为主体2“재영”通过“加量原则”, 即后面补充小句“오빠가 누구한테 뭘 빌면 그게 더 이상하지.”, 使自己的位置等于或大于对方的位置, 从而与对方建立起(正)同盟关系, 让听话人感知到双方是站在一起的, 拥有同一认知立场(对对方话

语命题的确定性评价)。其次,为了构建与另一主体的(正)同盟关系,必须尽快、尽可能关联地回应对方,话者先用“하긴”来对对方观点进行肯定,后面又对自己观点进行了补充说明,体现了会话的关联性。此外,对对方话语内容的认可也维护了另一主体的积极面子需求,是交互主观性礼貌功能的体现,具有较明显的态度型交互主观性特征。综上所述,我们认为,可以将与另一主体构建同盟关系的“하긴”视为一个交互主观性位置。

另一方面,分析上面对话,我们还可以使用“立场三角”分析的有效工具“话语立场尺度图”(John W. Du Bois, 2009),它可以用于标注各种隐含的立场匹配行为的分析。通过话语立场尺度图<sup>8)</sup>解析出立场交换的各种行为和实体,在理论上就可以投射为立场三角。(郑友阶、罗耀华, 2013)如下所示:

话语者	立场主体	定位评价	立场客体	匹配
선희	선희	누가 빌란다고 빌 녀석이야.	오빠가 빈다.	
재영	재영	오빠가 누구한테 빌 빌면 그게 더 이상하지.		하긴

如前文例句分析中指出的,例(11)中,“누가 빌란다고 빌 녀석이야”明确了主体1“선희”对客体的评价和主体的定位(即自我认知的定位),因此将“评价和定位”链接成一类参数的操作是可行的。主体2“재영”使用的“하긴”是个匹配索引,解释了“재영”的话语立场跟随“선희”先前的立场。第一行参数是标记“하긴”的匹配功能。

此外,在“꼬꼬마 세종 말뭉치”中,我们还发现了如下用例:

(12) 가. 어두운 밤에 당신 같은 사람과 단둘이 마주치면 꽤 무서울 거야. 그런 말 많이 듣지 않았어요?

나. 아니요, 처음 듣는 말입니다.

가. 하긴, 세상에는 눈먼 사람들이 꽤 많으니까, 그리고, 눈멀지 않은 사람들은 대

8) 郑友阶、罗耀华(2013)指出,立场三角模型非常直观,适合话语立场研究,而且无需添加任何先决的限制条件。

제로 자신이 보는 것들을 얘기하지 않는 버릇이 있죠. <출처: 그대의 차가운 손>

在回应行为中, 一般情况下, “하긴”除了是一个跨话轮的解自反预期标记外, 还是一个正同盟关系构建标记, 明示自己与对方趋同的认知立场。因此, 在例(12)中, 如果单看“하긴”这个词的话, 很容易让人误解为说话人与听话人拥有趋同的立场。但实际上, 说话人“ㄱ”与另一主体构建了反同盟关系, 真正的话语意图表达了与对方趋异的立场。说话人在形式表达上使用“하긴”, 而没有用直接了当的否定形式来对对方的认知进行否定, 在表面上与对方建立起(正)同盟关系(假同盟)。正是通过“委婉”这一言语策略的使用, 多多少少维护了听话人的面子需求(比直接否定稍带委婉效果), 与Leech礼貌原则中的同情原则一致, 即尽量缩小交际双方的反感与分歧, 使同情与一致达到最大限度。彰显了交互主观性的礼貌原则, 是交互主观性社会层面意义的体现。

#### 4. 汉语回溯性话语标记“话(又)说回来”的交互主观性

##### 1) “话(又)说回来”回溯性的具体表现

与韩国语“하긴”不同的是, “话(又)说回来”<sup>9)</sup>回溯性思维的具体表现更为多样, 除了条件(包括使因、依据等)式回溯外, 还表现在对立面补救式回溯、中心思想拉回式回溯、对立立场或态度委婉式回溯上。<sup>10)</sup>

9) 基于CCL语料库, 我们对“话说回来”相关变体的使用频率进行了检索(检索时间为2022年10月30日), 结果显示: 话又说回来(308) > 话说回来(279) > 话说回来(37) > 话还得说回来(6) / 话再说回来(6)。本文仅考察使用频率最高的“话又说回来”和“话说回来”, 并将其标记为“话(又)说回来”。

10) 评审专家指出, 第四章开头没有具体解释“하긴”为何与“话(又)说回来”形成对应关系。这里, 我们进行一个简单的说明。即: 通过对“하긴”不同用法的考察, 我们发现可以将其看做是一个典型的回溯性话语标记, 它所在的语篇结构为解自反预期结构, 说话者或作者通常是基于“回溯”视角, 即站在已经确知结果的位置上回溯有关条件的知识。这与汉语回溯性话语标记“话(又)说回来”的条件(致因、根据)式回溯用法对应。

## (1) 条件(使因、根据)式回溯

如前所述,条件式回溯性是指,从结果事件回溯到条件事件,寻找致使这一结果发生的原因或依据,给所述事件换一个前提来讨论事件如何发展。与韩国语“하긴”一样,回溯性话语标记“话(又)说回来”出现的语篇环境同样可以表示为“反预期信息+“话(又)说回来”+正预期信息”,同样也是彰显了一个解反预期的过程。

(13) 不但不表露,还尽量引起你的反感与厌恶?话又说回来,这个鱼贩子灰元,街上的人都知道他是一个孤儿,他总是独自背着渔...

(14) 没想到昔日意气风发的事务长马利涅斯克,如今竟然会说出这样的话来,真是令人太意外了。不过话又说回来,高尼夫也是在不得已的情况下才同意这样做的。因为...

(15) 我在想,或许是传统的观念让人觉得,凡事白纸黑字的写下来代表着不信任,情意的互动在眼神与表情之间早该已心意相通,怎么还需白纸黑字的写下来。但话说回来,如果你爱对方,又为何吝于给与更多一层,看得见的“承诺”。

限于篇幅,这里我们仅对例(13)进行解读。例(13)当前事实即语句命题意义的焦点部分是“他不但不表露情感,反而引起你的反感?”,表达了话者的意外,递进句式“不但不.....还”使反预期意义显性化。而话者后面又试图通过“话又说回来”来将意外的影响消除,其意义层次可以表示为:

① 说话人发现鱼贩子灰元不但不表露自己的情感,还对他人表现出反感。

② 【第一层预期结构】说话人对此感到意外。

条件 O 我们可以适当对他人表露自己的情感或对他人表示好感(在语篇中隐含)

预期 P (M|O) (所以)鱼贩子灰元应该适当对他人表露自己的情感或至少不要引起他人的反感——认识情态(语篇中隐含)

当前信息 P (M) 不但不表露自己的情感,还对他人表现出反感(语篇中显性表达)

预期性:反预期信息

③ 【第二层预期结构】说话人发现新的条件,从而构成新的预期。

条件 O 他是孤儿(在语篇中显性表达)



预期 P (M|O) (所以) 他可能不懂得情感沟通以及与他人交流与相处——认识情态 (语篇中隐含)

当前信息 P (M) 不但不表露自己的情感, 还对他人表现出反感 (语篇中显性表达)

预期性: 正预期信息

④ 上面结构中, 有两个反预期: 自反预期和他反预期 (把先前的自己当成他人来反对)

## (2) 对立面补救式回溯

我们知道任何事物都有积极肯定、消极否定的两个方面, 矛盾着的对立面相互依存, 互为前提, 共处于一个统一体中。“话又说回来”所在语篇结构是唯物辩证法思维在语言上的重要体现, 其前后连接相反或对立的两个方面, 但更加注重两者“合”的关系。如例(16)前项是积极肯定的评价, 即我们相信他, 但话者转念一想, 世事难料, 也不能把话说得太绝对, 因此通过使用“话又说回来”阻止前项思维继续向前涌动, 换一个角度展开论述, 避免过于主观和片面, 保证话语表达的客观性与全面性。

(16) 许多村民兴奋地说:“我们自己选的当家人, 我们信得过。话又说回来, 万一他不称职, 我们还可以撤掉他!”

(17) “过去我还以为她同我们在一块很幸福, 可现在看来, 她并不觉得是这样。依我看, 她应该自个儿去见一见世面才好。”“不过话又说回来, 我们可不能把她想得太糟糕了……”

## (3) 对立态度、立场委婉式回溯

对立态度、立场委婉式回溯是指, 先同意对方观点, 后通过“话又说回来”标识思维或认识的转变, 对对方观点进行修正补充。如(18)话者先通过正同盟标记“可不是”标示与对方趋同的立场, 后用“话又说回来了”对对方观点进行修正补充。

(18) 记者:“这样您就大赚了吧!”

孙:“可不是!话又说回来了, 赚是赚, 就是麻烦。”

(19) “...可不是来玩的。伯父就要我认真地把它学好。”“哦，当然，当然。这个我也明白，”迪拉特回答说，“我叔叔对我也是这样的意思，他要我在这里好好干，不要光想着玩。您知道，他在斯塔克公司是专管采买的。不过话又说回来，一个人也不能老是干活呀。有时也还得乐一乐呗。”

#### (4) 中心思想拉回式回溯

中心思想拉回式回溯是指，在步入正题前人们往往会讲一些寒暄的话，亦或是讲述了过多细节或扩展内容，需要回溯到话语或文章的中心，这时，通常会通过“话又说回来”回溯到话语中心思想。如例(20)话者步入真题前先讲述了些问候、寒暄类的应酬话，后通过“话又说回来”回溯到正题，即找王二虎来的真正目的并不是唠家常，而是想劝诱其叛变。

(20) “今天咱不谈中国人日本人，兄弟请你出来，是想咱兄弟在一起拉拉家常。”杨百顺叹了一口气，装做惋惜地说：“话又说回来啦，我这个人就是心肠子软，见老兄受这个罪，实在不忍。我对你说句知心话，何必在八路军受那份洋罪呢？只要你肯过来，我保证抬举你个大队付……”

(21) “咱们整特务，也得靠群众，你把群众发动好，群众的阶级觉悟普遍提高了，暗胡子就站不了空子。不过话又说回来，你看这屯子里，谁能代替李大个子的职务？”

(22) 他高声说道：“同学们！刚才学生会的一位同学讲的话倒是对了一点点——这就是：我们北大是该觉醒了，是该不怕一切牺牲起来战斗了。可是话又说回来，我们向谁战斗呢，我们战斗的对象是什么人呢？我要警告大家，我们……”。

## 2) 回溯性话语标记“话(又)说回来”的交互主观性类型

### (1) 语篇型交互主观性

与“하긴”一样，我们也可以将“话(又)说回来”视为回溯性篇章指示语。从听者或读者的角度来看，听者(读者)也可以通过“话(又)说回来”按图索骥直接回溯到有关条件(例23)、对立面(例24)、对立立场(例25)、中心思想(例26)的知识上，避免耗费更多的努力去建立前后语句之间的语义关联，以最小的努力获得最佳关联，具有明显的语篇型交互主观性特征。

(23) 你发现没有, 谢处长虽然有时候爱开开玩笑, 其实人很正统。那她还有什么不满足的。话说回来, 人是最贪婪的动物, 在这个世上人是永远不会满足的。

(24) 要是做得太显眼, 弄得大家都知道我们在营救他, 特务机关, 没准就会把他干掉。”他说, “可是话又说回来, 要是我们不去动员群众关心他的事, 要救他就更没有指望了。所以必须十分谨慎小心。”

(25) “你知道, 我上这儿来, 就是为了要学会做领子这门手艺。可不是来玩的。伯父就要我认真地把它学好。”“哦, 当然, 当然。这个我也明白, ”迪拉特回答说, “我叔叔对我也是这样的意思, 他要我在这里好好干, 不要光想着玩。您知道, 他在斯塔克公司是专管采买的。不过话又说回来, 一个人也不能老是干活呀。有时也还得乐一乐呗。”

(26) 他高声说道: “同学们! 刚才学生会的一位同学讲的话倒是对了一点——这就是: 我们北大是该觉醒了, 是该不怕一切牺牲起来战斗了。可是话又说回来, 我们向谁战斗呢, 我们战斗的对象是什么人呢? 我要警告大家, 我们……”。

限于篇幅这里仅对前两个例句进行分析, 例(23)前项交代的背景信息会为听话人或读者埋下一个心理预期“处长是个不错的男人, 她应该知足”, 但是“话说回来”的出现, 激活了一个与听话人原先预期结果相反的认知心理空间“因为人是贪婪的, 所以她不知足也是情有可原的”。再例(24)前项交代了发动群众这一举动的消极否定一面, 后又通过“可是话又说回来”引导听话人注意后项补充修正的内容, 促成听话人对前后项语义“合”的关系的理解, 即“要注意发动群众可能带来的利弊, 综合考虑, 见机行事, 不能太莽撞了”。

## (2) 态度型交互主观性

“话(又)说回来”的态度型交互主观性不仅体现在话者/作者关注读者/听者的形象或面子需求, 同时还关注听者/读者对话语内容的态度, 提前预设听者/读者对话语内容可能产生的态度。我们还是依次对上文提出的四种回溯性用法的交互主观性特征进行一一分析。

(27) ....虽然说任何景区都需要投入资金去开发, 但是随着时间的推移, 收费越来越多, 折旧越来越少, 甚至产生纯利。当然, 话说回来, 景区涨价到底不可, 那得看是否物有所值。(宋晖, 2018: 45)

(28) “过去我还以为她同我们在一块很幸福，可现在看来，她并不觉得是这样。依我看，她应该自个儿去见一见世面才好。”“不过话又说回来，我们可能把她想得太糟糕了...”

(29) 记者：“这样您就大赚了吧！”

孙：“可不是！话又说回来了，赚是赚，就是麻烦。”

(30) a. “...兄弟请你出来，是想咱兄弟在一起拉拉家常。”杨百顺叹了一口气，装做惋惜地说：“话又说回来啦，我这个人就是心肠子软，见老兄受这个罪，实在不忍。我对你说句知心话，何必在八路里受那份洋罪呢？只要你肯过来...”

b. “咱们整特务，也得靠群众，你把群众发动好，群众的阶级觉悟普遍提高了，暗胡子就钻不了空子。不过话又说回来，你看这屯子里，谁能代替李大个子的职务？”

例 (27-28) 更加关注听者/读者对话语内容的态度，提前预设听者/读者对话语内容可能产生的排斥心理或反对意见，因此使用回溯性标记“当然，话说回来”、“不过话又说回来”标示思维、认识的转变，限制话语信息流继续往下流动，换一个条件（致因、根据等）、视角进行阐述或对前项进行补充发展式说明和修正，从而避免了主观、片面性，使表述更具客观性和全面性，从而提高听者/读者对话语内容的接受度。<sup>11)</sup>另外，与显性重转折连词“但是”单用相比，隐性转折“话又说回来”单用和“显性轻/重转折连词+话又说回来”复用更具有缓和语气、委婉表达的效果。

对立态度、立场委婉式回溯性用法的态度型交互主观性程度更高，即关注听者的形象或面子需求，同时还关注其对话语内容的态度。如例 (29)，话者认为听者的观点虽有一定的道理但不够全面，没有直接对听者的观点进行修正性补充，而是先使用“可不是！”试图构建与听者的正同盟关系，标示自己与对方趋同的立场，表明自己与对方是站在一起的，维护了听者的积极面子需求；后接着用隐性转折标记“话又说回来了”委婉地对前面听者的话语内容进行了修正补充。例 (30a) 没有开门见山直接表达自己的建议，而是使用“话又

11) 正如孙廷廷 (2012) 所指出的，这如同计算机运算时所得出的结果与限定规则相矛盾，便将之标定为错误的答案和解决思路，然后回溯到问题上级重新选择另一思路进行运算。

说回来+语气助词”复用形式，寒暄式委婉地引出自己的观点。例(30b)则是使用复用形式“轻转折连词+话又说回来”预示听者后面要步入正题，留给听者缓冲的时间，体现了对听者的关照。

## 5. 小结

本文对韩汉语回溯性话语标记“하긴”与“话(又)说回来”回溯性的具体表现进行了较为细致的描写，重点对其所体现的不同交互主观性下位类型进行了考察。通过上文的讨论，我们可以初步得出以下结论：

(1) 韩国语“하긴”与汉语“话(又)说回来”均彰显了话者/作者思维的回溯，都是典型的回溯性话语标记，用以标示话者/作者思维、认识的转变，预示话语发展方向的改变。

(2) 汉语“话(又)说回来”所彰显的思维、认识的变化是通过表示空间位移的“回来”隐喻投射来的，其形式、语义透明度高。而韩国语“하긴”形式、语义透明度则较低，但语法化程度更高。

(3) 基于上述讨论，我们发现回溯性话语标记“하긴”的回溯性集中表现在条件(包括使因、依据等)式回溯上，说话者或作者通常是基于“回溯”视角，即站在已经确知结果的位置上回溯有关条件的知识。“하긴”所在的语篇结构为解反预期结构，可以将“하긴”统筹到解反预期的框架之中，用解反预期来统摄并解释“하긴”在不同语境中的不同用法。因此我们认为也可以将回溯性话语标记“하긴”进一步细化为解自反预期标记，其核心语义是解反预期性。而汉语“话(又)说回来”回溯性思维的具体表现更为多样，除了条件(包括使因、依据等)式回溯外，还表现在对立面补救式回溯、中心思想拉回式回溯、对立立场或态度委婉式回溯上。

(4) 从交互主观性角度来看，一方面，听者/读者也可以通过回溯性篇章指示语“하긴”与“话(又)说回来”按图索骥直接回溯到有关条件、对立面、对立立场或态度、中心思想等的知识上，避免耗费更多的努力去建立前后语句之间语义关联，顺利解码话者/作者的话语内容，以最小的努力获得最佳关

联, 具有明显的语篇型交互主观性特征。另外, “하긴”与“话(又)说回来”作为空间构建语, 其作用是帮助听话人/读者取消原先的预期结论或心理空间M, 构建另外一个新的心理认知空间M', 彰显了说话人/作者是如何通过“하긴”与“话(又)说回来”引导听话人或读者做出推理性的认识, 从而确保自己接下来的话语内容能够被听话人或读者识解, 并最终实现与话者或作者认知上的平衡与协调。Verhagen的交互主观性理论可以很好地描写和概括“하긴”与“话(又)说回来”所体现的交互主观性特征。

另一方面, “하긴”与“话(又)说回来”的态度型交互主观性不仅体现在话者/作者关注读者/听者的形象或面子需求, 同时还关注听者/读者对话语内容的态度。不同的是: 第一, 对话语境中, “하긴”本身具有同盟关系构建或趋同立场标记功能。而“话(又)说回来”则不具有该功能, 话者通常是先用其他话语标示与对方趋同的立场或进行同盟关系构建, 然后再用“话(又)说回来”委婉地引出对听者观点的修正性补充内容, 没有直接对听者观点进行修正补充, 维护了听者的积极面子需求, 彰显了态度型交互主观性特征。第二, 与“하긴”相比, “话(又)说回来”态度型交互主观性的具体表现更为多样。“하긴”主要表现为同盟关系构建或趋同立场标记功能, 而“话(又)说回来”则相对多样, 包括寒暄式委婉引出自己观点、步入正题前留给听者缓冲的时间、提前预设听者的话语接受度等。

(5) 韩汉回溯性话语标记“하긴”与“话(又)说回来”存在的根本原因有, 第一, 元认知监控与元认知交互的产物。施仁娟(2014)提到, 在言语交际中需要不断运用元认知来组织、监控、调整自己的话语, 这便是所谓的元认知调控(监控)。它包括针对说话人的元认知和针对受话人的元认知, 前者是指意识到自己话语不够精确, 修正前面话语, 这是元认知监控在起作用; 后者是指引导受话人花费更少的时间和精力了解发话人的发话意图。话者对自己话语组织监控调节并用元话语的形式表达出来, 目的是让听者了解自己的认知结果, 与受话人实现认知交互。第二, 是唯物辩证思维的体现。回溯性话语标记阻止前项思维继续向前涌动, 换一个角度展开论述, 避免过于主观和片面, 保证话语表达的客观性与全面性。第三, 语言符号的线条性体现。说话者

需要通过回溯性话语标记把思路中断,回到说话的起始点,换一条思路或视角进行阐述。第四,受委婉含蓄传统文化的影响。

我们可以将以上内容概括为如下表格:

表1 韩汉语回溯性话语标记“하긴”与“话(又)说回来”的异同点分析			
		하긴	话(又)说回来
性质		回溯性话语标记/回溯性篇章指示语	
形式、语义透明度		低	高
语法化程度		高	低
回溯性表现	相同点	条件(致因、根据)式回溯 【所在的语篇结构为解自反预期结构,说话者或作者通常是基于“回溯视角,即站在已经确知结果的位置上回溯有关条件的知识。】	
	不同点	-	对立面补救式回溯
			对立立场或态度委婉式回溯
交互主观性类型	相同点	态度型、语篇型	
	不同点	在态度型交互主观性方面存在一定的差异。首先,对话语境中,韩国语“하긴”本身具有构建同盟关系或趋同立场标记功能,而汉语则是先通过其他话语与对方构建同盟关系或标示趋同立场,后再使用“话(又)说回来”委婉地引出对听者观点的修正性补充内容。其次,与“하긴”相比,“话(又)说回来”态度型交互主观性的具体表现更为多样。	
回溯性话语标记“하긴”与“话(又)说回来”存在的根本原因		元认知监控与元认知交互的产物	
		唯物辩证思维的本体	
		语言符号的线性性	
		委婉含蓄传统文化因素	

## ◆ 参考文献

### 1. 单行本

손남익, 『국어부사연구』, 서울: 박이정, 1995.

허웅, 『우리 옛말본』, 서울: 정음사, 1975.

陈振宇, 『汉语的指称与命题—语法中的语义学原理』,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17.

周明强, 『现代汉语话语标记系统与认知研究』, 北京: 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22.

何自然主编, 『认知语用学: 言语交际的认知研究』, 上海: 上海外语教育出版社, 2006.

Ghesquière, Lobke, *The Directionality of (Inter) Subjectification in the English Noun Phrase: Pathways of Change*. Berlin: De Gruyter Mouton. 2014.

Verhagen, A. 2005 *Constructions of Intersubjectivity: Discourse, Syntax, and Cogn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交互主观性的构建: 话语、句法与交际》, 文旭、高莉导读, 世界图书出版公司, 2014.

## 2. 论文

- 구현정, 「-기는' 구문의 문법화」, 『담화와 인지』 제3호, 2012, pp.1-28.
- 김건희, 「-기는' 용언 반복 구문의 정보 분할과 분열문」, 『언어학』 제83권, 2019, pp.3-25.
- 김건희, 「-기는' 용언 반복 구문에 대한 초점 분석」, 『언어』 제1호, 2020, pp.1-19.
- 김선영, 「현대 국어의 접속 부사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권재일, 「강조법과 그 실현 방법」, 『인문과학논총』 제19권, 1987, pp.57-73.
- 박소영, 김석진, 「-기는' 그리고 '-것은' 분열문과 한국어의 외곽구조」, 『2019년여름학술대회』 제69권, 2019, pp.82-87.
- 이수연, 「“동일 어간 반복 구문의 의미 특성 - ‘V-기는 V, V-기만 V’ 구문을 중심으로”」, 『한국어 의미학』 제46권, 2014, pp.141-161.
- 이후인, 「한국어 양태접속부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 최윤지, 「양태접속부사 ‘하기는’의 의미」, 『한국어 의미학』 제73권, 2021, pp.83-116.
- 포연, 「한국어의 구어 문말 형식 ‘-긴’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 陈振宇、杜克华, 「意外范畴: 关于感叹、疑问、否定之间的语用迁移的研究」, 『当代修辞学』第5期, 2015, pp.71-79.
- 陈振宇, 「预期与意外」, 『第十届现代汉语语法国际研讨会论文集』, 2019, pp.26-27.
- 陈振宇、姜毅宁, 「反预期与事实性-以“合理性”语句为例-」, 『中国语文』第3期, 2019, pp.296-310.
- 陈振宇、李双剑, 「论语义和谐的定义和类型」, 『云南师范大学学报』第2期, 2020, pp.22-34.
- 陈振宇、王梦颖, 「预期的认知模型及有关类型-兼论与“竟然”“偏偏”有关的一系列现象-」, 『语言教学与研究』第5期, 2021, pp.48-63.
- 陈振宇, 「预期」范畴研究」, 『2021年复旦大学暑期FIST课程』, 2021.
- 丁健, 「语言的“交互主观性”-内涵、类型与假说-」, 『当代语言学』第3期, 2019, pp.333-349.
- 李强, 「从论辩理论和交互主观性看“差点儿没 VP”的语义识解」, 『当代修辞学』第3期, 2021, pp.70-83.
- 李治平, 「话语组织标记“话又说回来”」, 『湖北理工学院学报』第1期, 2015, pp.62-69.
- 李胜梅, 「话又说回来”的语用分析」, 『修辞学习』第3期, 2004, pp.29-32.



- 祁阳, 「心理空间理论视角下的“这 /那”的回指功能研究」, 『黑龙江教师发展学院学报』第9期, 2021, pp.130-132.
- 孙佳莹、陈振宇, 「“同盟”范畴研究成果与问题」, 『语言研究集刊』第1期, 2021, pp.63-84.
- 孙廷廷, 「现代汉语回溯性话语标记考察」, 『华中师范大学硕士研究生学位论文』, 2012.
- 施仁娟, 「基于元话语能力的汉语话语标记研究」, 『华东师范大学 博士学位论文』, 2014.
- 吴福祥, 「近年来语法化研究的进展」, 『外语教学与研究』第1期, 2004, pp.18-24.
- 吴福祥, 「语义演变与主观化」, 『民族语文』第5期, 2019, pp.3-13.
- 完权, 「汉语(交互)主观性表达的句法位置」, 『汉语学习』第3期, 2017, pp.3-12.
- 袁毓林, 「反预期、递进关系和语用尺度的类型-“甚至”和“反而”的语义功能比较-」, 『当代语言学』第2期, 2008, pp.109-121.
- 于东兴, 「汉语的交互主观性研究」, 『华东师范博士论文』, 2018.
- 郑友阶、罗耀华, 「自然口语中“这 /那”的话语立场表达研究」, 『语言教学与研究』第1期, 2013, pp.96-104.
- 张兴, 「(交互)主观性、(交互)主观化及其在日语中的研究」, 『解放军外国语学院学报』第3期, 2019, pp.101-108.
- 张兴, 「语言的交互主观性与交互主观化-以日语中的“だろう”为例-」, 『解放军外国语学院学报』第4期, 2019, pp.21-25.
- 靳开宇、吕金月, 「交互主观性的构建: 话语、句法与交际」评介」, 『绥化学院学报』第11期, 2019, pp.158-160.
- Ghesquière, Lobke, Lieselotte Brems, and Freek van de Velde, “2014. Intersubjectivity and intersubjectification: Typology and operationalization”, In Lieselotte Brems, Lobke Ghesquière, and Freek van de Velde, eds., *Intersubjectivity and Intersubjectification in Grammar and Discourse*,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129-153.
- John W. Du Bois, “The Stance Triangle”, In R. Englebretson (Ed.), *Stancetaking in discourse: Subjective, Evaluation, Interaction*, 2007.
- Traugott, Elizabeth Closs, “From subjectification to intersubjectification”, *Paper presented at the Workshop on Historical Pragmatics, 1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istorical Linguistics, Vancouver, Canada, July 1999.*
- Traugott, Elizabeth, “From Subjectification to Intersubjectification”, In *Motives for Language Change*, Raymond Hickey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Traugott, Elizabeth Closs, “Where subjectification, intersubjectification, and grammaticalization meet”, *北京大学中国语言学研究中心演讲稿*, 2006.

Traugott, E. C, “(Inter) subjectivity and (inter) subjectification: A reassessment”, K. Davidse, L. Vandelanotte & H. Cuyckens. *Subjectification, Intersubjectification and Grammaticalization*. Berlin & New York: Mouton de Gruyter, 2010: 29–71.

논문 접수일	2022년 11월 10일
심사 완료일	2022년 11월 28일
게재 확정일	2022년 12월 08일

*Abstract*

---

A study on the intersubjectivity of backtracking discourse markers  
"하긴" and "话(又)说回来" in Korean and Chinese

Zhao, Na · Zhao, Xinjian

From the literature review of the relevant studies of former scholars, we can find that the special research on "하긴" in the Korean and Chinese academic circles has not paid enough attention, and even less to the discussion based on the comparative perspective. In addition, the dictionary explanation of "하긴" is not in place. Our preliminary view is that "하긴" and "话(又)说回来" both highlight the backtracking thinking of the speaker/author in Korean and Chinese. They are typical backtracking discourse markers, which are used to mark the change of the speaker/author's thinking and understanding, and to indicate the change of the direction of discourse development. The two show a good correspondence. This paper gives a more detailed description of the specific manifestations of the backtracking discourse markers "하긴" and "话(又)说回来" in Korean and Chinese, focusing on the different types of intersubjectivity embodied in them, and tries to analyze the fundamental reasons for the existence of the backtracking discourse markers "하긴" and "话(又)说回来" in Korean and Chinese .

**Keyword** Korean, "하긴", Chinese, "话(又)说回来", backtracking discourse markers, intersubjectivity



# 中国外交话语的隐喻类别及其韩译方法研究

王冬梅\* · 郭长誉\*\* · 刘人博\*\*\*

## 국문요약

정치 언어의 하위 부류인 외교 언어는 은유와 긴밀한 관계가 있으며 완곡하고 함축적이며 모호하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중국 외교 언어 은유에 대한 한국어 번역의 정확성을 높이고 한중 양국 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개념적 은유 분류와 관련 세밀한 분석과 정확한 파악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선행논의를 검토한 결과 언어 자료의 부족, 분석 도구의 제한, 연구 인력의 한계로 인하여 중국 외교 언어 은유의 한국어 번역 연구와 관련된 학술적 담론은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개념적 은유 이론을 바탕으로 한중 병렬 코퍼스를 구축함으로써 중국 외교 언어 은유의 분류 및 번역 방법을 연구하는 데 목적을 둔다. 구체적으로 먼저 2022년 중국 외교부 공식적으로 발표한 외교부 정례 브리핑 기록 텍스트 자료 176편과 인민망 한국어판에 탑재된 한국어 번역문 자료를 수집 및 정제하여 한중 병렬 코퍼스를 구축하였다. 그 후, 은유 식별 프로그램인 MIPVU로 은유 키워드를 추출하여 코퍼스 분석 도구인 AntConc를 활용하여 계량화 한 후 1급 개념 은유 카테고리를 바탕으로 20개의 하위 카테고리를 도출하였다. 은유 분류를 세분화한 후 외교 언어 은유 한국어 번역 방법을 '매핑 이미지 유지', '매핑 이미지 전환', '매핑 이미지 해석' 등 세 가지로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 외교 언어 은유의 한국어 번역 방법을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실용적인 가치가 있다.

**주제어** 외교 언어, 개념적 은유, 은유 분류, 이미지 매핑, 한국어 번역 방법

\* 第一作者: 北京外国语大学 亚非语言文学专业(韩语翻译学) 博士生

제1저자: 베이징외국어대학교 중한중번역학과 박사과정

\*\* 通讯作者: 北京外国语大学 亚非语言文学专业(韩语翻译学) 博士生

교신저자: 베이징외국어대학교 중한중번역학과 박사과정

\*\*\* 共同作者: 延世大学 韩国语言文学系(韩语教育专业) 博士生

공동저자: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한국어교육전공) 박사과정

## 〈目次〉

1. 序论
2. 理论背景:概念隐喻
3. 研究对象与研究方法
4. 中国外交话语的隐喻类别
5. 中国外交话语隐喻的韩译方法
6. 结论

## 1. 序论

2016年至2017年,“一带一路”倡议和“构建人类命运共同体”理念相继被写入联合国大会决议,标志中国开始在国际舆论场上积极发声。中国学界关注到这一动向,对中国外交话语的研究逐年攀升。以“中国外交话语”为关键词在“中文社会科学引文索引(CSSCI)+核心期刊”范围内检索,共有期刊文献157篇<sup>1)</sup>,据数据可视化分析<sup>2)</sup>显示,研究主要聚焦“国际话语权”、“国家形象”和“外交话语翻译”等三个关键词。其中,在“外交话语翻译”的12篇文献中,仅有3篇文章研究中英语对的隐喻翻译,暂未检索到韩译文献。

然而,隐喻是中国外交话语重要的语言表征,是解读“中国特色大国外交”的重要载体。外交部发言人“露中有蓄,蓄中有露”,常用高超的语言技巧阐明中国的政治立场,传递中国的外交思想。隐喻在中国外交话语中之所以扮演重要角色并频繁亮相,不仅在于“隐喻可以将不可感知的转化为可感知的,将陌生的转化为熟悉的,将抽象的转化为具体的,使人们更好地理解政治,是政治家言说政治问题的最佳方式”<sup>3)</sup>,也在于中国传统思维“取类比象”的逻辑基底和讲求婉约

1) 检索条件: (主题%='中国外交话语' or 题名%='中国外交话语') AND ((来源标识码='P0209') OR (来源标识码='P01')).

检索范围:期刊。检索时间:2005.08.08.~2022.09.14.

检索网址:<https://kns.cnki.net/kns8/defaultresult/index>

2) 本文数据可视化分析结果由知网提供。

3) 文旭,「政治话语与政治隐喻」,『当代外语研究』第9期, 2014, p.13.

含蓄的表达方式。美国语言学家莱考夫和哲学家约翰逊亦指出隐喻在构建社会现实和政治现实中常具有重要作用。

本研究依托中国外交部例行记者会问答交互式语料文本建立中韩双语语料库,在语言学概念隐喻理论的指导下细划中国外交话语的隐喻类别,最终回归翻译学来考察其韩译方法,以期从学理层面增进对中国外交话语隐喻翻译的本质把握,从而避免国家间产生战略误判,推动中韩全面迈进“崭新的三十年”。

## 2. 理论背景:概念隐喻

隐喻是一个普遍的语言现象,对隐喻的探索遍及古今中外。中国宋代以前,古代文论并未单就隐喻展开研究,而是将其视为比喻的下位概念。直至宋代,陈骙撰写了中国最早的修辞学专著——《文则》<sup>4)</sup>,并提出了十大取喻之法,首次使用“隐喻”这一概念。近现代以来,中国学界对隐喻的认识更为深入。20世纪30年代,陈望道先生提出“明喻、隐喻、借喻”等概念;80年代,袁晖先生提出了“完全式隐喻”和“省略式隐喻”;90年代,随着西方认知语言学概念隐喻理论的传入,中国学者开始从认知视角探寻隐喻认知机制及隐喻与思维的关系。

反观西方,隐喻研究的历史可谓源远流长。早在公元前300年,古希腊哲学家亚里士多德就注意到隐喻对话语的修饰作用,把隐喻当作一种语言现象进行分析,并将其纳入到修辞学的范畴之内进行系统分析,具体包括:构成方式、功能及分类。总体来看,西方隐喻研究经历了三个时期(见<图1>)。纵观西方隐喻研究历程,研究逐渐呈现从单一学科到多学科融合发展的研究态势,视角不断多样,外延持续扩大,内涵不断丰富,理论纵深发展。

---

4) 南宋陈骙著,言“为文之法”,作为中国古代第一部修辞学论著,奠定了中国古代修辞学的理论基础。



〈图 1〉西方隐喻研究发展历程

其中,最具代表性的学者当属莱考夫与约翰逊。20世纪80年代,莱考夫和约翰逊在著作——《我们赖以生存的隐喻》<sup>5)</sup>中将隐喻定义为:“隐喻的实质就是通过另一类事物来理解和经历某一类事物。提出不论是在语言上还是在思想和行动中,日常生活中隐喻无所不在,我们思想和行为所依据的概念系统本身是以隐喻为基础”。“该著作使隐喻研究从此摆脱以文学和修辞学为本的传统隐喻理论的束缚,正式纳入认知科学的新领域”<sup>6)</sup>。而概念隐喻乃是其主要内容。

概念隐喻由源域(喻体/始源域)和目标域(本体/靶域)两部分组成。源域具体,目标域抽象,人们常使用具体概念来表达抽象概念。在“抗击疫情是各国的共同责任”这句话中“共同责任”是喻体,我们将之称为“源域”,“抗击疫情”是本体,我们将之称为“目标域”。源域和目标域之间存在映射关系,且一个目标域可对应多个源域。同时,莱考夫和约翰逊将概念隐喻分为结构隐喻、本体隐喻、方位隐喻等三类。其后,诸多学者直接或间接以此为理论指导,与翻译学相结合展开跨学科研究。

概念隐喻属于认知语言学的研究范畴,韩译方法则属于翻译学的研究范畴,将语言学与翻译学结合展开交叉学科研究的学者虽有增多,但多集中于中韩

5) 《我们赖以生存的隐喻(Metaphors we live by)》于1980年首次出版,该书从认知角度对隐喻的本质、产生、结构、特点、种类等进行了分析,探讨了隐喻的认知本质,分析了隐喻的内在结构,指出了隐喻的系统性及系统内部和系统间的协调一致关系,并对隐喻加以归类,批评了隐喻分析的客观主义哲学基础的不足,指出了建立在经验主义基础的隐喻分析的必要性和合理性,在学界引起广泛关注。

6) 胡壮麟,《认知隐喻学第二版》,北京:北京大学出版社,2020,p.85.



词汇、饮食、情感、诗歌隐喻等方面。目前,外交话语概念隐喻的韩译研究之所以存在空白,主要有三个原因。第一,语料不足。中韩政治类翻译研究虽有《习近平谈治国理政》和《中国关键词》等书面语可供研究,但鲜有整理成“库”的问答交互式的口语语料。因此,需要研究者投入大量时间收集文本并自建双语对照语料库。第二,工具受限。虽然英语文本可借助语义标注工具Wmatrix<sup>7)</sup>自动提取语义项,节省人力,但该工具无法用来识别中韩文本,故无法为本研究提供支持。第三,精力有限。Steen隐喻实验室课题组研发的隐喻识别程序MIPVU<sup>8)</sup>需要人工标记提取隐喻关键词,需要研究者投入大量时间。

为解决上述问题,首先,自行建立中国外交话语中韩平行语料库和中韩文两个子集语料库。其次,按照隐喻识别程序MIPVU的具体步骤在中国外交话语中文子集语料库中人工标记隐喻关键词,并图示化标记结果。借鉴莱考夫、约翰逊“概念隐喻理论”中结构隐喻、本体隐喻、方位隐喻的一级分类标准和对中国外交话语隐喻关键词占比情况对隐喻类别进行二级细分,呈现中国外交话语的隐喻认知机制。最后,依据英国翻译理论家纽马克提出的七种隐喻翻译策略:(1)直译-保留隐喻意;(2)借用-目的语意象替代源语意象;(3)明喻;(4)明喻+释义;(5)隐喻转换成意义;(6)省略不译;(7)直译+释义在韩译文本语料库中进行标记,同时结合概念隐喻源域及靶域映射理论,归纳导出外交话语隐喻韩译方法。

### 3. 研究对象及研究方法

对话是外交活动中采用的基本手段,在全球互联的时代,相较于书面文字,

---

7) Wmatrix是一款由英国兰卡斯特(Lancaster)大学语料库研究中心Paul Rayson等研究人员开发的语料分析工具,内嵌有USAS(UCREL Semantic Annotation System)工具,不仅还有其他语料分析工具所具备的索引生成、搭配、词表生成、主题词表生成等功能,还可自动对文本进行语义域(semantic domain/field)赋码(Rayson, 2008:519-549)。

8) Steen, G., Dorst, A., Herrmann, J., Kaal, A., Krennmayr, T., Pasma, T. *A Method for Linguistic Metaphor Identification: From MIP to MIPVU*.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 Company, 2010.

对话更具有时效强,传播迅速,影响广等特点。本文以2022年1月4日至2022年10月8日期间中国外交部例行记者会发布的176篇<sup>9)</sup>记录文本和对应的韩语译文稿<sup>10)</sup>为研究对象,首先将语料存为docx格式,通过Tmxmall<sup>11)</sup>双语语料对齐平台搭建中韩双语语料总库,其次将收集到的语料存为txt格式,导入AntConc语料库分析研究工具搭建中文、韩文两个子集语料库,最后对双语语料总库及两个子集语库进行检索、分析和研究。同时,采用定量分析与定性分析相结合的研究方法,量化隐喻关键词频数(见<图2>语料检索页面),导出占比,统计二级子隐喻类别。通过对比分析中韩文本归纳中国外交话语概念隐喻的韩译方法。

Rank	Type	Rank	Freq	Range
1	不断冲击道德底线	1	1	1
2	不断切香肠	1	1	1
3	不断制造新的分歧	1	1	1
4	不断加大军费军力军费投入	1	1	1
5	不断加嘴	1	1	1
6	不断加强单边主义	1	1	1
7	不断加强单边主义	1	1	1
8	不断升级制裁只会使少数人受益	1	1	1
9	不断升级的单边制裁	1	1	1
10	不断加强中韩全面战略合作伙伴关系	1	1	1
11	不断发展全过程人民民主	1	1	1
12	不断发展壮大数字经济和民生改善的作用	1	1	1
13	不断加强中韩全面战略合作伙伴关系	1	1	1
14	不断突破	1	1	1
15	不断向全球输出武器	1	1	1
16	不断在台湾问题上挑战中国的底线	1	1	1
17	不断阐述中国和世界的相互理解	1	1	1
18	不断制造相互理解	1	1	1
19	不断加强双边合作机制	1	1	1
20	不断对中方进行无端指责和抹黑攻击	1	1	1
21	不断巩固互信	1	1	1
22	不断加强中韩全面战略合作伙伴关系	1	1	1
23	不断强化不合理的贸易壁垒	1	1	1

〈图 2〉语料检索页面

在语料收集与识别中,因研究语料需要基于内省法进行提取,隐喻类别繁多,研究者主观臆断等原因,基于概念隐喻理论展开的既有研究经常受到质疑。莱考夫和约翰逊提出概念隐喻理论时并未提及语料获取相关问题,为给概念隐喻理论提供数据支撑,中西方学者近几年致力于将语料与隐喻结合,提取隐喻各

9) 出处: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官网

[https://www.mfa.gov.cn/fyrbt\\_673021/jzhsl\\_673025/index\\_5.shtml](https://www.mfa.gov.cn/fyrbt_673021/jzhsl_673025/index_5.shtml)

10) 出处:人民网韩语版官网 <http://kr.people.com.cn/204066/index5.html>

11) 语料对齐方便用户迅速地调整对齐结果,其自主研发的智能对齐算法可以自动对齐原文,用自动化程序替代人工介入,真正提高效率。

下属分类关键词及语义项进而展开相关研究,这在一定程度上提高了隐喻相关研究的信度与效度。然而,提取数据就必须涉及隐喻关键词的识别问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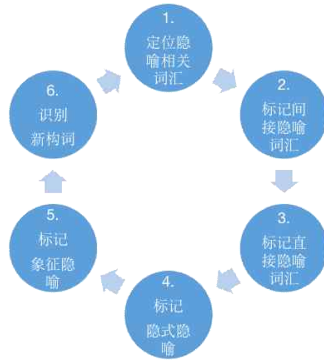
Pragglejaz Group研制开发了隐喻识别程序MIP<sup>12)</sup>,研究者可利用该程序对词汇基本义与语境义进行比较分析,但分析仅局限于语言表层形式,未能涉及深层概念结构。鉴于此,Steen隐喻实验室课题组开发出隐喻识别程序MIPVU,扩大了隐喻识别范围,可进一步识别出间接隐喻,直接隐喻和隐式隐喻。本研究隐喻识别及标注工作采用完全人工识别的方法,在通读语料的基础上,借鉴MIPVU隐喻识别程序,人工筛选甄别隐喻关键词。

Steen隐喻实验室课题组提出遵循以下指导原则可在话语系统中详尽提取各隐喻<sup>13)</sup>:

1. 逐字阅读文本,定位隐喻相关词汇(MRWs:Metaphor-Related Words)。
2. 在文本中间接使用某一词汇,若该词汇可通过跨域映射来解释其内涵,那么该词汇则可能被标记为间接隐喻词汇(MRW)。
3. 在文本中直接使用某一词汇,若该词汇可通过跨域映射反应其最基本的指代意义,那么该词汇则可能被标记为直接隐喻词汇(MRW,direct)。
4. 当某一词汇在语法中可用代词进行替代,例如第三人称人代词,或某一词汇在文本中可被省略,例如在某些并列句中,当直接或间接的含义由这些替代或省略词汇来传达,通过跨域映射从更基本的含义、所指对象或主题来解释替代或省略词汇,那么该词汇则可能被标记为隐式隐喻(MRW,implicit)。
5. 当某一词汇具备象征意义,可通过跨域映射进行解释,那么该词汇则可能被标记为象征隐喻(MFlag)。
6. 当某一词汇由新构词法构成时,需根据步骤2到步骤5检查该词汇各独立构成部分。简要流程图如<图3>所示。

12) Pragglejaz Group由10位专门长期从事隐喻与话语研究的学者组成,立足于为大规模语料以及话语事实中隐喻的穷尽性识别提供一套普适性的规则和简便易行的法则,称为隐喻甄别程序(Metaphor Identification Procedure,简称MIP)。

13) Steen, G., Dorst, A., Herrmann, J., Kaal, A., Krenmayr, T. & Pasma, T., *A Method for Linguistic Metaphor Identification: From MIP to MIPVU*,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 Company, 2010.



〈图 3〉MIPVU隐喻识别步骤

#### 4. 中国外交话语的隐喻类别

概念隐喻理论总体上分为三类:结构隐喻、本体隐喻、方位隐喻。基准不同,分类方法亦有所不同,具体划分如下:1.以源域为基准进行分类;2.以目标域为基准进行分类;3.以源域向目标域的映射为基准进行分类。源域向目标域映射需要考虑词语基本义与语境义的指称对象之间是否存在相似性关系,本文以第3条为基准对隐喻进行分类,并通过概念隐喻分布情况探析外交话语中隐喻的丰富性。需注意的是,概念隐喻理论三大分类具有交叉重叠的特征。“在根据概念隐喻理论对某一隐喻进行分类的时候,会出现种类两两重合或者三者重合的情况。以‘旗帜鲜明’这一隐喻表达为例,其中体现的隐喻既属于结构隐喻(战争隐喻),又属于本体隐喻”<sup>14)</sup>。搭建好语料库后与团队成员人工识别判定中国外交话语隐喻关键词,利用AntConc统计各关键词频数及占比,将中国外交话语中内含的隐喻类型划分如下:基于“意象图式”的隐喻,基于“有形经验”的隐喻,基于“结构模型”的隐喻。

14) 黄进财,罗兹深,『概念隐喻视角下『习近平谈治国理政』中隐喻的韩译方法研究』,『外国语文』第5期,2021,p.18.

### 1) 基于“意象图式”的隐喻

中国外交话语中基于“意象图式”的隐喻包括“上下图式”、“前后图式”、“深浅图式”、“中心边缘图式”。这与概念隐喻理论的“方位隐喻”相对应,“方位隐喻”别名“定向隐喻”、“空间隐喻”,指以方位感为中心展开的隐喻,把具体方位概念投射到抽象事物概念上,即通过意象图式将方位概念结构映射出来,逐步完善概念体系。经过隐喻关键词识别,提取基于“意象图式”隐喻1054个,各类型占比数据如〈表1〉所示。

〈表 1〉基于“意象图式”的隐喻类型及占比

隐喻类型	隐喻关键词	频数	百分比
深浅图式	深化(214)、深入(114)、深刻(54)、深切(18)、深度(14)、走深(14)、深层(9)、深远(5)	442	41.90%
中心边缘图式	中心(176)、核心(120)、边缘(10)、周围(4)、边际(2)	312	29.60%
前后图式	后果(58)、前景(52)、前往(20)、前进(14)、提前(13)、倒退(7)、退让(5)、后盾(1)	170	16.10%
上下图式	犯下(44)、上升(34)、迈上(26)、留下(13)、下场(5)、创下(4)、上缴(3)、上山(1)	130	12.30%
总计		1054	100.00%

(1)“我们希望意大利新政府继续坚持积极务实的对华政策,同中方一道努力,秉持互尊互信、互利共赢精神,持续深化双边各领域合作和人文交流,造福两国和两国人民。”  
—汪文斌(2022, 09, 26)

(2)“两国在涉及彼此核心利益问题上相互支持,携手推动构建人类命运共同体,共同维护国际公平正义。”  
—赵立坚(2022, 04, 06)

〈表1〉图式源于人类对空间方位的体验,将方位体验映射到外交话语可增加外交话语方位隐喻表达。根据比值可知,外交话语中深浅图式出现频率最高,占比41.90%。深的本义是指水从水面到水底的距离,“深浅”图式中,“图式-深”表从上到下、从内到外的程度之大,其占比高于“图式-浅”。外交话语多强调与他国深化合作/关系,与他国深入交换意见、与他国合作持续走深走实,其中关

关键词“深化”出现次数最多,使用频率最高。例句(1)中通过“深化”表达出我国对意大利新政府的期许。所建语料范围内并未检索出“图式-浅”相关发言,这从侧面表明外交话语秉承与世界各国不断加深关系、深化条约执行理念。例句(2)中“核心”属于“图式-中心”范畴,源域“中心”映射靶域“核心”,特此强调在主要、重中之重的利益问题上两国相互支持,表明重点关切,引起对象国重视。

(3)“中方愿秉持相互尊重、互利共赢原则,同澳方共同努力,推动两国关系沿着全面战略伙伴关系的轨道稳步前进,造福两国人民。”  
—毛宁(2022.09.07)

(4)“不是中方曲解美方政策,而是美方从自身承诺上不断倒退。”

—汪文斌(2022.05.23)

“前后图式”依旧遵循方位体感,表层意义中前指代前进,后指代后退,深层意义中前可以指代前景、前往,后可以指代后果、后盾。例句(3)中推动-两国关系-全面战略伙伴关系的轨道-前进,使用了前的表层积极含义,传达出中方期待同澳方携手前进的美好愿景。例句(4)中出现了“图式-后”的引申意倒退,指责美方不信守承诺,倒退本义是“向”后退,退回,退到从前。后退本义是撤退,从固定的、确定的前方、举高点退下来。倒退和后退语用义有所区别,在语料库检索中可以发现,外交部发言人方位隐喻使用频率中,倒退占比要高于后退,且多在表明立场问题上使用本图式。

(5)“此访也将推动中国和太平洋岛国的交流合作迈上新台阶。”

—赵立坚(2022.06.01)

(6)“日遗化武是日本军国主义在侵华战争期间犯下的严重罪行之一,长期以来严重威胁中国有关地区人民生命财产和生态环境安全。”

—毛宁(2022.10.08)

“图式-上”一般代表积极概念,如例句(5)两国交流合作“迈上”新台阶;中国的全球创新指数排名连续10年稳步“上升”。“图式-下”一般代表消极概念,如例句(6)通过“犯下”二字批判日本侵略中国的罪行。但需注意的是,并非所有“图式

一下”都带有消极意义,如“创下”:本届博览会参会嘉宾规格之高、国别之多、成果之丰硕,创下历届博览会之最。所有图式需根据搭配及语境判断其所指,即其内在本质。

## 2) 基于“有形经验”的隐喻

与基于“意向图式”的隐喻不同,基于“有形经验”的隐喻对应概念隐喻理论的“实体隐喻”(又名:本体隐喻)。基于“有形经验”的隐喻根据人类体验及经验进行概念转换,将无形转化为有形,将抽象转化为具体,后续进行归类、统计、量化。经过隐喻关键词识别,提取基于“有形经验”隐喻1194个,各类型占比数据如〈表2〉所示。

〈表 2〉基于“有形经验”的隐喻类型及占比

隐喻类型	隐喻关键词	频数	百分比
容器	组织(471)、命运共同体(137)、地球(17)、民族(83)、文明(47)、家庭(39)	794	66.50%
拟人	携手(135)、建设者(22)、维护者(20)、贡献者(17)、见证(13)、骨肉(5)、推动者(3)、肌肉(2)、骨髓(1)、斡旋者(1)	219	18.30%
圆圈	围绕(40)、凝聚(32)、朋友圈(6)、同心圆(2)、小圈子(1)	81	6.80%
艺术	故事(23)、舞台(21)、擘画(12)、剧本(2)、底色(2)	60	5.00%
自然	风雨(5)、蓝天(3)、阳光(3)、大海(2)、彩虹(1)、风浪(1)	15	1.30%
植物	收获(8)、培育(2)、开花结果(2)、花朵(1)	13	1.10%
饮食	蛋糕(6)、旧酒(3)、好酒(1)	10	0.80%
动物	替罪羊(1)、纸老虎(1)	2	0.20%
总计		1194	100.00%

(7)“中方将采取一切必要措施,坚决捍卫国家主权和领土完整,由此产生的一切后果由美方和“台独”分裂势力负责。”  
—华春莹(2022,08,03)

由于篇幅有限,将按占比排序对排名前三的隐喻进行具体分析。容器隐喻

占比高达66.50%,容器本义指用来包装或装载物品的贮存器,如箱、罐、坛。基于容器内外之分,内部空间特点延伸出容器隐喻,即,容器隐喻来源于对容器内部空间的认知,进而构建群体身份,国家、地区、组织都可以概念化统称为容器。“容器意象映射国家(中国/各国),容器内部映射本国内政、主权、安全、发展利益等,容器外部映射其他国家内政、主权、安全、发展利益等,容器均衡映射相互尊重、和平共处”<sup>15)</sup>。例句(7)中运用源域-整体容器,映射靶域-国家及领土,运用源域-容器内部,映射靶域-国家主权及领土完整,对美方及台独分裂势力做出警告。

(8)“个别域外大国为维护自身霸权,不远万里,不断加大对南海军事力量投入,在南海周围建立多个部署进攻性武备的军事基地,派航母、战略轰炸机等军舰、军机频繁进入南海,并伙同域外盟友到南海‘秀肌肉’。” 一赵立坚(2022.07.27)

外交话语最大特点是将复杂概念简单化,把最核心、最本质内容传递给海外受众,拟人隐喻贴近形体与日常。例句(8)“秀肌肉”属于拟人隐喻,通过“秀肌肉”一词讽刺“个别”域外大国的霸凌行为与强权政治。

(9)“摒弃意识形态划线,团结起来为促进世界和平与发展事业凝聚最大公约数,画出最大同心圆。” 一汪文斌(2022.09.26)

例句(9)中“凝聚”,“同心圆”与基于意象图式表方位的“中心边缘图式”不同,属于圆圈隐喻,圆圈在中国象征太阳,含有统一、整体之义,是中国特有的概念隐喻之一,外交话语中常用圆圈意象映射团结统一的整体。例句(9)中源域“凝聚”映射靶域“团结”,源域“同心圆”映射靶域“世界和平”。像围绕、朋友圈、包围圈等都是外交话语中常用的圆圈隐喻关键词。

15) 马倩,「中国“和合”外交话语中的容器隐喻研究」,『北京化工大学学报(社会科学版)』第1期,2022, p.76.



### 3) 基于“结构模型”的隐喻

基于“结构模型”的外交话语隐喻与概念隐喻理论的“结构隐喻”相对应。即“用一个概念结构隐喻性地建构另一个概念”<sup>16)</sup>。使具体概念与抽象概念相结合,产生一词多用现象。结构隐喻使用频度最高,因为当一种概念结构固定时可以衍生出更多隐喻搭配。比如,“我们可以说国家是家庭、国家是船、国家是人、国家是身体、国家是机器、国家是建筑物”<sup>17)</sup>。经过隐喻关键词识别,提取基于“结构模型”隐喻2199个,各类型占比数据如〈表3〉所示。

〈表 3〉基于“结构模型”的隐喻类型及占比

隐喻类型	隐喻关键词	频数	百分比
建筑	建设(420)、构建(195)、平台(81)、构成(80)、台阶(27)、桥梁(21)、护栏(6)	830	37.70%
战争	战略(409)、捍卫(104)、阵营(42)、博弈(42)、霸凌(39)、掠夺(13)、假想敌(11)、战乱(8)、排头兵(3)	671	30.50%
旅程	行径(155)、道路(118)、抵达(37)、落地(24)、正轨(22)、通道(20)、起点(13)、出发点(8)、目的地(8)	405	18.40%
家庭	朋友(91)、家园(37)、同胞(32)、兄弟(31)、邻居(17)	208	9.50%
体育	加速(25)、冲刺(3)、擂台(2)、踏步(1)	31	1.40%
机器	引擎(11)、稳定器(6)、火车头(3)、加速阀(2)、车轮(1)、快车(1)、火车(1)、大船(1)、鼓风机(1)	27	1.20%
疾病	症结(12)、治疗(9)、恐惧症(6)、毒瘤(3)、妄想症(2)、药方(1)	23	1.00%
音乐	主旋律(1)、交响乐(1)、老歌(1)、节奏(1)	4	0.20%
总计		2199	100.00%

(10)“本届论坛聚焦全球安全倡议,主题为‘推动构建中东安全新架构,实现地区共同安全’。”  
——赵立坚(2022.09.22)

16) George Lakoff, Mark Johnson,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0, p.14.

17) 文旭,「政治话语与政治隐喻」,『当代外语研究』第9期,2014, p.14.

建筑隐喻占比37.70%,位居第一。建筑首先需要选址,其次需要打好地基,一砖一瓦共同努力,竣工才能指日可待。建筑建造周期虽长,但竣工后可带来巨大价值。建筑由于本身特性,带有积极意义,将建筑映射到靶域可调动受众积极性。外交话语中发言人灵活运用建筑隐喻,将建筑相关意象映射到国家建设及国与国交流合作中,使抽象外交理念通过建筑实体具象化,便于受众理解。外交话语中源域建筑映射靶域,可生成合作意向、构建双边/多边关系、营造和平环境。例句(10)中源域“构建”映射靶域“安全架构”,一是暗指从无到有,二是暗指并非一方出力即可完成,隐性地传达需要中东共同付出长久且艰辛的努力才能实现地区共同安全这一深层含义。

(11)“我们希望美方能够真心实意为岛国应对气候变化、实现发展振兴提供支持,而不是以合作为名搞地缘政治博弈,更不应该把“阵营对抗”复制到太平洋岛国地区。”  
—毛宁(2022.09.30)

莱考夫、约翰逊提出的第一个概念隐喻例子就是战争隐喻:争论是战争(Argument is war),通过源域战争映射靶域争论,战争隐喻的普遍性在后续研究中纷纷得到证实,譬如比赛是战争,商业竞争是战争,比赛、商业竞争虽不涉及炮火,但都与战争有着相同目的,即战胜敌人,赢取胜利。当今时代,受众对战争的理解不再单纯的停留在真枪实弹的战场,而是上升到意识形态,将战争的各种意象映射到靶域事件上。战争隐喻占比30.50%,位居第二,使用频率较高。在外交话语中,发言人通过战争隐喻引导受众联想战争的残酷、血腥,以此唤起受众的危机意识,引发其对靶域的思考。例句(11)中通过源域“博弈”、“阵营对抗”激发受众反对战争的意识,引导受众意识到问题的严重性,同时呼吁美方积极为岛国气候变化提供支持。

(12)“站在新的历史起点,中国将以中国式现代化实现中华民族伟大复兴,并同世界各国一道,为和平发展尽力,为团结进步担当,携手构建人类命运共同体,共同开创更加美好的世界。”  
—汪文斌(2022.09.26)

以莱考夫“事件结构”隐喻概念下下属分类之一:“长期且带有目的性的活动是

旅程(Long term purposeful activities are journeys)”为依据,我们可以说“外交活动是旅程”,旅程实体包括主体,路程,起点,交通工具,终点。外交活动的最终目的是将国家利益最大化,国家利益包括领土完整、政治独立、军事安全、经济发展和社会稳定。例行记者会上外交部发言人常用旅程源域映射其要表达的靶域,即政治立场、外交理念、意识形态。例句(12)中将“起点”与“一道”这种基于人类认知体验的具体概念映射到政治发展的抽象概念上,实现呼吁世界各国携手前进到达终点的美好展望。

## 5. 中国外交话语隐喻的韩译方法

翻译的可译性与不可译性是学界一直集中关注的问题,隐喻翻译亦是如此。多数学者持中立观点,即部分可译,部分不可译。中国外交话语隐喻韩译方法导出步骤如下:1)研读中国外交话语双语平行文本。2)对源域靶域映射进行对比分析。3)依据纽马克提出的七种隐喻翻译策略标出译文中采用的隐喻翻译方法。4)归纳整理出三种高频率隐喻韩译方法:保留映射意象,转换映射意象,阐释映射意象。在本文研究中并未提及映射意象舍弃方法,究其原因是因为研究者认为在外交话语中丢弃意象属于译者失职。译者完全可以根据语境,保留喻体,增补释义,即遵循本章第三个方法“阐释映射意象”。

### 1) 保留映射意象

保留映射意象是指将中文外交记录文本中的源域和靶域直接映射到韩文译文稿中,力求源域到靶域完全对等,与直译有本质上的区别。该方法强调从认知角度出发,调动译者隐喻思维,思考源语中施喻者使用的源域靶域所涉及的形象与目的语是否对等,受喻者是否能即刻理解后采取的概念隐喻翻译方法。

(13)“外交部发言人汪文斌21日表示,全球发展倡议提出一年来,有效地推动国际社会重新重视发展问题,为加快落实联合国2030年可持续发展议程提出了可行路径,搭建了合作平台,汇聚了发展资源,应对了最紧迫的发展挑战。”

—汪文斌(2022.09.21)

“지난 21일 왕원빈(汪文斌) 외교부 대변인은 제안한 지 1년 동안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GDI)는 국제사회가 발전 문제를 다시 중시하도록 효과적으로 추진했으며, 유엔의 2030 지속가능 개발 어젠다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실행 가능한 경로를 제안했고 협력 플랫폼을 구축했으며 발전 자원을 모았고 가장 시급한 발전 도전에 대처했다고 밝혔다.”

〈表 4〉 例句(13) 源域-意象-靶域

源域	意象	靶域
方位隐喻-前后	推动	呼吁国际社会重视发展问题
结构隐喻-旅程	路径	提出可行方法
结构隐喻-建筑	搭建	方法实施条件
结构隐喻-建筑	平台	方法实施媒介
实体隐喻-圆圈	汇聚	方法实施过程
结构隐喻-战争	挑战	解决发展问题

例句(13)中文97字,韩文139字,在不到一分钟的发言中使用了6个隐喻,且囊括了概念隐喻理论提出的三大隐喻,这再次印证了一句话:“隐喻在我们日常生活中无处不在(Metaphor is pervasive in everyday life)”<sup>18)</sup>。源域意象在靶域中都有予以保留,一一进行了对应,具体分析于〈表4〉呈现,在此不多加赘述。

(14)“中方绝不允许美方继续以“切香肠”方式步步蚕食、虚化、掏空一个中国原则,绝不允许美方以任何理由和借口寻求逐渐改变台海现状。”

—华春莹(2022.08.04)

“중국은 미국이 계속 ‘살라미 전술’로 점차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잠식, 허구화, 무력화하려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고, 또 어떤 구실과 핑계를 불문하고 미국이 타이완 해협 현황을 바꾸려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例句(14)中“切香肠”指的是萨拉米香肠战术,亦称渐进战术或车轮战术,属于饮食隐喻,是一种以结盟、威胁来分化、征服的政治和军事手段。如果译者

18) George Lakoff, Mark Johnson,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0, p.4.

不理解外交话语,单纯的为保留意象将其误译为‘소시지 썰기’的话便是译者的严重失职。保留映射意象等于保留隐喻内涵,也就是说在力争保留隐喻内涵的同时,要准确找到目的语对应用语,使受众即刻理解外交话语所要传达的内容。例句(14)中蚕食、虚化、掏空涉及修辞学层递用法,不属于隐喻范畴,特此标注。

## 2) 转换映射意象

转换映射意象是翻译隐喻喻体的核心,译者在翻译发言人使用的部分隐喻(如:典故、俗语、成语、诗歌)时需对目的语对应映射意象进行定位。当表达同一概念而喻体不同时,译者需要将映射意象转换成目的语读者熟悉的意象,力求达到神似,进而使韩国受众更准确地理解中国外交话语的内涵。

(15)“所谓涉疆报告完全是美国及一些西方国家一手策划、制造的闹剧。”

—赵立坚(2022.07.28)

“신장 관련 보고는 완전히 미국 및 일부 서방국가들이 일방적으로 획책하고 저지른 해프닝이다.”

“隐喻翻译是转换文化意象的过程,但不等于要把原文的喻体特征抹杀掉”<sup>19)</sup>。例句(15)中“闹剧”在汉语中指具有讽刺或幽默倾向的戏剧作品,属于实体隐喻下属范畴,源域“闹剧”映射“靶域”批判佩洛西窜台事件。源语闹剧对应目的语为익살극, 골계극, 황당극, 但译者巧妙的转换意象将其译为外来语“해프닝”(happening:即兴艺术表演),这是因为各国外交话语均呈现各自表达特色,在例句(15)这类语境中,韩国外交话语常用“해프닝”表明讽刺批判的态度<sup>20)</sup>。也就是说,译者需要依据具体语境判断是保留意象还是转换意象。当保留映射意象达不到话语传达目的或不符合当下语境时,需要译者调动认知思维保留隐喻喻体特征,进行意象转换。

19) 刘法公,『隐喻汉英翻译原则研究』,北京:国防工业出版社,2008,p.201.

20) 例:더불어민주당은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만찬 초청 해프닝은 외교적 결례이자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평하였다.

뉴스 출처: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345206615864960>

(16)“有助于各方面全球发展力量形成合力,提高发展资源利用效率,更好同发展中国家自身发展战略相向而行。” —汪文斌(2022.09.21)

“각측이 글로벌 개발 역량을 위해 시너지를 형성하고 발전 자원의 이용 효율을 높이며 개도국의 발전 전략과 더 잘 마주보고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

例句(16)中“合力”属于结构隐喻,是动词“合”与名词“力”组成的复合词,根据具体语境可以用作名词亦可以用作动词,指同心协力,共同出力。本义对应韩语名词합력(物理学), 动词힘을 합치다。在此译者将意象“合力”转为外来词시너지-Synergy可带来以下效果:1. 准确定位韩国外交话语常用词,시너지在韩国外交话语中使用频度较高<sup>21)</sup>,代指互动、互助、协同。2. 将源域意象转换成名词시너지,调整语序,使其作宾语更符合韩文句法系统。即,각측(主语)이 글로벌 개발 역량을 위해(插入语) 시너지(宾语)를 형성하고(谓语)。也就是说,在跨文化交际中,译者要想准确传达外交话语信息,首先需要调动认知思维定位目的语意象,其次斟酌的语义调整语序,进而成功转换映射意象,完成隐喻翻译。

### 3) 阐释映射意象

在翻译过程中,考虑到原文与译文中隐喻的“跨域”关系,为了将映射意象亏损程度降到最低,需要译者充分动用隐喻思维再现源语隐喻意象,丢弃意象,歪曲意象均不可取。译者需要对目的语中没有的映射意象进行增补释义,力求形神兼备。这样做既能高度传达中国外交立场、思想与理念,又能帮助受众理解,丰富韩国本土隐喻表达方式。

(17)“中哈、中乌建交30年来,始终秉持相互尊重、睦邻友好、同舟共济、互利共赢的原则,不断推动彼此关系取得新成就,迈上新台阶。” —毛宁(2022.09.14)

“중국과 카자흐, 중국과 우즈베크는 수교 이후 30년 동안 상호존중, 선린우호, 동주공제(同舟共济: 한 배를 타고 함께 물을 건넌다), 상생호혜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상호 관계가 새로운 성과를 거두고 새로운 단계에 오르도록 부단히 촉진하고 있다.”

21) 例:“이창양 산업통상자원 부장관 도체코와 폴란드를 방문 중으로 대통령과 장관의 시너지 역시 기대된다.” 뉴스 출처: <https://www.etnews.com/20220629000003>

例句(17)中“同舟共济”出自《孙子兵法·九地篇》<sup>22)</sup>,比喻在艰险的处境中团结互助,共同战胜困难。在此发言人引用典故的同时使用了三个四字短语与其搭配,力求押韵。结构隐喻同舟共济多次在习近平政治话语及外交话语中登场。在韩国国语辞典中对“同舟共济”这一成语标注了出处,且《世祖实录》中也有具体用例<sup>23)</sup>,但考虑到受众文化知识水平不一,不可能达到每个人都了解该成语的所指及出处,译者在翻译时为帮助受众理解源语语义,需对意象进一步做出解释。“没有喻体就谈不上是隐喻,是隐喻就应该有喻体”<sup>24)</sup>,万不可将意象丢弃或音译放置。

(18)“民主不过是美方惯用的廉价工具和幌子,哗众取宠的是佩洛西个人,但遭殃受害的是中美关系及台海和平稳定。”  
—华春莹(2022.08.04)

민주주의는 미국이 애용하는 저가의 도구이자 핑계일 뿐이고, 인기를 사는 쪽은 펠로시 개인이지만, 불변을 당하는 쪽은 중·미 관계와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다.

例句(18)中“幌子”别名望子,旧时挂在店铺门外高处,用来表明店铺性质的标志。中韩词典中,对应韩文간판,即招牌。但在本句中“幌子”指为了掩盖真实意图而假借的名义,与廉价工具是同位语关系,译为핑계可最大程度再现源域,即刻让受众透过表面看到本质,感受美式民主的本真图景。译者在翻译时,需要考虑中韩双语隐喻意象是否对应,无法对应时,译者需对映射印象进行补充说明,最大程度再现隐喻靶域。“哗众取宠”及“遭殃受害”在源语中做定语成分,译者在目的语中将定语转换为主语,且选词巧妙,值得借鉴,特此标注。

## 6. 结论

本文以带有动态交互式特征的中国外交部例行记者会记录文本为语料,自

22) “夫吴人与越人相恶也,当其同舟而济,遇风,其相救也如左右手。”

23) 세조실록권제2, 7장 뒤쪽, 세조 원년 8월 13일(병진)

24) 刘法公,『隐喻汉英翻译原则研究』,北京:国防工业出版社,2008,p.201.

建中韩双语语料库及中文韩文两大子集语料库,解决了现有研究语料不足问题,并借鉴MIPVU隐喻识别程序,从中文子集语料库人工提取隐喻关键词4447个。基于概念隐喻理论分类标准,即基于“意象图式”的隐喻,基于“有形经验”的隐喻,基于“结构模型”的隐喻对外交话语进行二级细分,导出20个二级隐喻。采用定量分析与定性分析结合方法量化隐喻关键词频数,计算占比,进一步用数据说明外交话语隐喻研究的必要性。在中韩双语语料库中标注外交话语隐喻翻译方法,站在施喻者与受喻者双重立场上归纳整理出三大隐喻韩译方法:保留映射意象,转换映射意象,阐释映射意象。力求使韩国受众在接收到译入语时能即刻领会到中国外交话语的内涵与外延。概念隐喻翻译离不开译者的认知思维,在后续研究中将进一步探析隐喻的认知构建及译者的认知思维,借用计算机编程语言Python纵向扩展语料,对外交话语隐喻翻译方法进行历时性考察。

## ◆ 参考文献

### 1. 资料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官网:

[https://www.mfa.gov.cn/fyrbt\\_673021/jzhsl\\_673025/index\\_5.shtml](https://www.mfa.gov.cn/fyrbt_673021/jzhsl_673025/index_5.shtml)

人民网韩语版官网:<http://kr.people.com.cn/204066/index5.html>

이데일리:<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345206615864960>

전자신문:<https://www.etnews.com/20220629000003>

### 2. 单行本

胡壮麟,『认知隐喻学第二版』,北京:北京大学出版社,2020.

刘法公,『隐喻汉英翻译原则研究』,北京:国防工业出版社,2008.

乔治·莱考夫,马克·约翰逊 著,何文忠 译,『我们赖以生存的隐喻』,浙江:浙江大学出版社,2015.

张立新,『外交话语隐喻认知叙事研究』,南京:东南大学出版社,2018.

George Lakoff, Mark Johnson,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0.

Steen, G., Dorst, A., Herrmann, J., Kaal, A., Krennmayr, T. & Pasma, T., *A Method for Linguistic Metaphor Identification: From MIP to MIPVU*,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 Company, 2010.

### 3. 论文

- 陈朗, 「从MIP到MIPVU:隐喻识别的方法、应用与问题」, 『外语学刊』第5期, 2022, pp.30-39.
- 胡开宝, 李婵, 「中国特色大国外交话语的翻译与传播研究:内涵、方法与意义」, 『中国翻译』, 2018, pp.5-12.
- 黄进财, 罗兹深, 「概念隐喻视角下『习近平谈治国理政』中隐喻的韩译方法研究」, 『外国语文』第5期, 2021, pp.17-26.
- 黄鹂鸣, 「语料库辅助下中国外交话语中的隐喻及其英译研究」, 『西南科技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第6期, 2019, pp.19-24.
- 梁娜, 陈大亮, 「认知语言学视角下的十九大报告政治隐喻翻译研究」, 『北京第二外国语学院学报』第3期, 2020, pp.48-57.
- 柳超健, 曹灵美, 「国外基于语料库的隐喻研究:方法、问题与展望」, 『外语教学理论与实践』第1期, 2017, pp.36-40.
- 柳超健, 王军, 「基于语义标注工具Wmatrix的隐喻识别研究」, 『外语电化教学』第2期, 2017, pp.15-21.
- 马倩, 「中国“和合”外交话语中的容器隐喻研究」, 『北京化工大学学报(社会科学版)』第1期, 2022, pp.76-82.
- 任东升, 季秀妹, 「基于“政治等效”的外交话语隐喻英译策略:以2019年外交部例行记者会发言为例」, 『当代外语研究』第3期, 2021, pp.84-95.
- 施燕华, 「外交翻译60年」, 『中国翻译』第5期, 2009, pp.9-12.
- 孙丽冰, 「政治语篇隐喻的英译策略」, 『中国科技翻译』第3期, 2018, pp.43-46.
- 孙毅, 李全, 「政治隐喻与隐喻政治:基于特朗普总统就职演讲的隐喻图景分析」, 『山东外语教学』第5期, 2019, pp.35-47.
- 王明树, 「概念隐喻视角下翻译原则、翻译策略或方法选取背后的认知机制」, 『外国语文』第2期, 2017, pp.99-103.
- 文旭, 「政治话语与政治隐喻」, 『当代外语研究』第9期, 2014, pp.11-16.
- 徐亚男, 「外交翻译的特点以及对外交翻译的要求」, 『中国翻译』第3期, 2000, pp.36-39.
- 杨海英, 周密, 「政治语篇中的概念隐喻及英译研究」, 『湖北经济学院学报(人文社会科学版)』第2期, 2021, pp.117-120.
- 杨明星, 赵玉倩, 「“政治等效+”框架下中国特色外交隐喻翻译策略研究」, 『中国翻译』第1期, 2020, pp.151-159.
- 张广林, 薛亚红, 「隐喻的认知观与隐喻翻译策略」, 『东北师大学报(哲学社会科学版)』第4期, 2009, pp.185-188.

- 赵晶, 何中清, 「跨语认知映射视角下新时代中国特色政治隐喻的英译研究」, 『北京科技大学学报(社会科学版)』第5期, 2021, pp.518-525.
- 朱炜, 「语料库语言学和语篇中隐喻的识别」, 『外语电化教学』第6期, 2010, pp.48-52.
- 朱晓敏, 曾国秀, 「现代汉语政治文本的隐喻模式及其翻译策略:一项基于汉英政治文本平行语料库的研究」, 『解放军外国语学院学报』第5期, 2013, pp.82-86.
- 邹煜, 卫西祯, 「记忆与国家身份建构:电视媒介抗击疫情报道中的概念隐喻分析」, 『当代电视』第2期, 2022, pp.74-79.

논문접수일	2022년 11월 01일
심사완료일	2022년 11월 26일
게재확정일	2022년 12월 08일

*Abstract*A Study on the Classification of Chinese Diplomatic Language  
Metaphors and Korean Translation Methods

Wang, Dongmei · Guo, Changyu · Liu, Renbo

As a subcategory of political language, diplomatic language is closely related to metaphor, which is characterized by euphemism, implication and vagueness.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the accuracy of Korean translation of Chinese diplomatic language metaphors and enhance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Korea and China, it is necessary to make a detailed analysis and an accurate grasp of the classification of conceptual metaphors. However, after preliminary discussion, due to the lack of language materials, limited analytical tools and limited researchers' energy, it is difficult to find academic discourse on Korean translation studies of Chinese diplomatic language metaphors. Based on the conceptual metaphor theory,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classification and translation methods of Chinese diplomatic language metaphors by constructing a Korean Chinese parallel corpus. Specifically, first of all, this study collected and refined 176 text materials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regular press conference records officially released by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n 2022 and Korean translation materials carried by the Korean version of People's Daily Online, and built a Korean Chinese parallel corpus. Then, use the metaphor recognition program MIPVU to extract metaphor keywords, use the corpus analysis tool AntConc to quantify, and obtain 20 subcategories based on the first level conceptual metaphor categories. After refining the classification of metaphors, and three Korean translation methods are derived: maintaining the mapping image, transforming the mapping image, and interpreting the mapping image. This study explores the Korean translation of Chinese diplomatic language metaphors, which is of practical value.

**Keyword** Diplomatic Language, Conceptual Metaphor, Metaphor Classification, Image Mapping, Korean Translation Methods



# 现代汉语流行词“丧”的认知语义演化机制研究

刘平\*

## 국문요약

언어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발전하는 시스템으로, Langacker는 어휘의 어법화가 어휘의 한가지 용법의 사용 빈도가 너무 높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의 단위로 굳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10년 동안 ‘틱톡(抖音)’ 및 ‘퀵핸드(快手)’와 같은 중국 뉴미디어 소프트웨어가 많은 젊은 사용자 그룹을 빠르게 유치하면서 인터넷 유행어, 신홍 어휘 및 신홍 어의 생성 및 발전이 크게 가속화되었다. 그 중 ‘상(喪)’이라는 단어의 어의, 어용, 어법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고, 청년층도 ‘상(喪)’을 하나의 문화로 개념화해 ‘상 문화(喪文化)’라는 가치지향을 형성했다. 유행어 ‘상(喪)’에 대한 선행 연구는 주로 단어의 의미 생성 분석에 중점을 두었으며, ‘상 문화’ 유행의 심층 요인, ‘상문화’가 젊은 층에서 전파되고 성행하는 이유 등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어의와 어용에서 ‘상(喪)’이라는 단어의 변형 메커니즘과 동인에 대한 심층 연구와 분석은 아직 많은 학자에 의해 수행되지 않았다. 특히 소극적이고 비관적인 표현을 뜻하는 ‘沮喪’, ‘頹喪’ 등의 단어가 대세 유행어가 아닌 ‘상(喪)’의 홀로서기가 퇴폐적이고 부정적인 의미 부각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가운데 단음절인 ‘상(喪)’과 쌍음절인 ‘沮喪’, ‘頹喪’ 등의 내부 의미 차이는 연구해볼 만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출발해, 인지언어학의 프로토타입 이론(prototype theory), 이미지 패턴(image schema), 개념적 은유 이론(conceptual theory of metaphor) 등을 이론적 근거로 하여 동사 ‘상(喪)’을 중심으로 의미 진화 경로를 조사 및 분석하고, 그래프를 사용하여 새로운 단어의 원인을 심층적으로 해석하려고 한다.

**주제어** 신홍 유행어‘상(喪)’ 원형 어의 범주, 은유, 문화적 연관성, 인지언어학

\*연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박사과정

## 〈目象〉

1. 序论
2. 形容词“丧”的原型语义范畴
3. 新兴形容词“丧”的认知域转换模型分析
4. 从隐喻与文化连贯性角度分析“丧文化”的盛行
5. 结语

## 1. 序论

语言是随着环境的变化而不断发展的体系, Langacker认为辞汇的语法化指的是辞汇的一种用法因使用的频率过高, 随着时间的推移而固化为一个单位。近十几年来, 随着新媒体软体如“抖音”、“快手”等迅速吸引大量年轻用户群, 极大加速了网路流行语与新兴辞汇及新兴词义的产生与发展。近些年出现的如“小康”、“双减”、“元宇宙”、“鸡娃”、“躺平”<sup>1)</sup>等等, 这些流行语还存在大量变体, 并通过谐音化、语义的映射、和词义新解以及名词、动词的形容词化等方式, 展现出极强的新兴词语的创造及传播能力。其中“丧”一词的语义、语用和语法上也产生了巨大的变化, 青年群体甚至将“丧”概念化为一种文化, 形成“丧文化”这种价值取向。由于“丧”的意义被不断赋予新的含义, 并逐步被广泛接受甚至成为一种表现价值观念的文化概念。比如, “丧”一词, 读去声时为动词<sup>2)</sup>, 常与其他语素共同构成词语, 常见的有“丧失”、“丧生”、“丧气”等动词, 其词内意义为“丢掉、失去”; 或者构成“沮丧”、“颓丧”、“懊丧”等形容词, 表示情绪低落, 精神萎靡的意义。然而, 在这个网路流行语盛行的时代之下, “丧”一词所指的已经扩大, 词性也逐渐向形容词义靠近, 并发展出新的语法机制。请看下面例句:

1) ‘咬文嚼字2021年十大流行语’ <http://hmcc.hhhtnews.com/p/225173.html>

2) 『汉语大词典』丧, 读阴平时, 为名词词性, 表示跟死了人有关的事。本文主要研究“丧”的去声词性和语义变化机制, 因此阴平读音不列入本文研究范围。

(1)A: 2017有些丧。

B: 2018你会有点小确幸。

(2)A: 不懂自己为什么这么丧。

B: 一切都会好起来的。

(3)A: 我是一个活得很悲观的人, 每天的生活都很丧。

B: 别丧了, 加油吧!

(例句转引自BCC语料库对话)

从上面的对话中, 我们可以看出, 对话中的“丧”已经转化为表示心理状态的形容词语义, 具有情绪消极、低落、悲观, 甚至有些自嘲的状态, 而且此种语义还在随着外部环境的发展而不断延伸, 尤其在青年层网络对话用语中屡见不鲜, 同时, 我们可以看到对话中“丧”已经转化出以光杆形式充当句子成分的语法机制。因此, “丧”的形容词语义从边缘位置逐渐向中心位置靠近, 经过词义的不断发展和外部环境的不断推动, 我们可以大胆推测“丧”的新兴形容词语义今后可能会成为这个词的原型范畴之一。

由于“丧”一词近年来主要在微博、微信等网络社交媒体中通过语言、文字或表情包动图等形式大量出现, 其使用群体以90后的青年群体为主, 表达出一种集体消极、颓废、自我嘲讽、自我否定的心理状态, 甚至成为当下青年层中普遍存在的焦虑心态以及面对高压生活的一种戏谑调侃的生活态度。近年来前人的研究主要以“丧文化”为中心, 分析流行词“丧”一词的语义转化, 以及由“丧文化”而引申出的变体如“小确丧”、“躺尸”、“废柴”、“佛系”等等并分析其产生的原因。

姚寒夕(2020)详细分析了“丧文化”在青年群体中传播的原因, 认为丧文化所表现出来的迷茫、颓废恰恰符合青年层的悲观心理。笔者认为丧文化“丧”是一种青年层在面对社会各方面带来的压力时采取的一种消极的排解压力的手段, 全社会都应该关注青年层的生活环境和内心思想。滕国鹏、林雪婷(2020)对“丧文化”在抖音短视频中迅速流行的原因进行分析, 并提出“丧”具有一定的积极部分, 是一种另类的缓解精神压力、认为“丧文化”的本质是青年层用来表达内心的悲伤和消极情绪的一种方式, 具有消极颓废和自我解嘲的

特点。陈淑珍(2021)认为“丧文化”中的“丧”取自“情绪低落;失意”的基本含义,又进一步外延为颓废、认命、得过且过、不思进取,与积极向上的主流价值观形成鲜明对照。

前人的研究主要集中于流行词“丧”的词义产生分析,“丧文化”流行的深层动因,“丧文化”在青年层的传播和盛行的原因,以及如何解读“丧文化”并从中透视青年的社会心态等方面。但对于“丧”这一词在语义和语用上的转化机制和动因目前还没有很多学者进行相关的深入分析和研究。特别是表示消极悲观的“沮丧”,“颓丧”等词并没有成为大势的流行语,而“丧”的光杆形式却成为颓废、消极语义的凸显手段被如此广泛的使用,其中单音节“丧”与双音节“沮丧”,“颓丧”等词的内部语义差异非常值得研究。因此,本文将从认知语言学的角度出发,运用认知语言学中的原型理论(prototypetheory)、意象图式(imageschema)、概念隐喻理论(conceptual theory of metaphor)等作为理论依据,以动词“丧”为中心对其语义演化途径进行考察分析,并尝试用意向图示法深度解释新词义产生的原因。

## 2. 形容词“丧”的原型语义范畴

原型范畴理论,亦称“典型范畴理论”,简称“原型范畴”。受英国哲学家维特根斯坦(Ludwig Wittgenstein, 1889—1951)提出的家族相似性理论<sup>3)</sup>、范畴具有模糊性观点的影响而产生的理论。认知语言学认为,与经典范畴理论不同,所有的范畴都是模糊范畴,同一范畴内的成员都具有家族相似性,但每个成员的地位是不同的,相似性大的是该范畴中典型的或中心的成员,即原型,相似性小的是非典型成员甚至边缘成员,范畴是客观事物在认知中的归类,是以原型为认知参照点进行建构的,并随着成员相似性程度的递减向外

3) Wittgenstein指出范畴各个成员之间未必有共同特征(attributes),有时是总体上的相似,有时是细节上的相似。例如“游戏”范畴中,每个游戏不一定是为了娱乐,也有可能具有竞争性、技巧性、灵活性或者是需要运气。虽然这些游戏“成员”没有一个或几个特征是所有游戏共有的,但其背后是一个复杂的各种相似点重叠交织的网络系统。



扩展,直至模糊的边界。随着外部环境的变化,范畴的开放性特征越来越明显,开始出现新成员进入,因此范畴内部结构也在变化,当新成员逐步向范畴中心位置靠近,新成员也将会成为范畴中的中心成员甚至取代原有中心成员的位置。

### 1) 动词“丧”的语义范畴

『说文解字』中对“丧”的解释为“亡也”。

『康熙字典』对“丧”的释义为“亡也”,同时也有“失位”的意义。

如『论语』中“二三子何患于丧乎。”中的“丧”便为“失去”之意。

『汉典』中对丧的详细解释条目中,“丧”,为会意字,小篆字形,上面是“哭”,下面是“亡”。表示哭已经死去的人。

(1)本义:丧失。如:

①东北丧朋。『易·坤』

②受禄无丧。『诗·大雅·皇矣』

③问丧无夫子乎。又,丧人无以为宝。『礼记·檀弓』

④非独贤者有是心也,人皆有之,贤者能勿丧耳。『孟子·告子上』

在『汉典』中“丧”的其他义项还有:

(2)死去。如:小人多欲则多求妄用,败家丧身。『训俭示康』

(3)灭亡、失败。如:六国互丧,率赂秦耶?『六国论』

(4)逃亡、流亡。如:丧人(逃亡到外国的人);丧物(耗竭财物)

(5)忘记、忘掉。如:今者吾丧我,汝知之乎?『庄子』

(6)灰心丧气。如:丧惘(怅惘失神);丧沮(灰心失望)

作为动词时“丧”为去声,此外“丧”还有阴平<sup>4)</sup>和轻声<sup>5)</sup>的用法。

4) “丧”还有轻声用法,如“哭丧丧着脸”但是由于使用频次较少,不包含在本文研究之列。

5) “丧”发阴平时,大多为与丧葬事宜相关的名词,由于本论文研究的形容词“丧”为去声,因此“丧”的阴平和轻声义项暂不列为研究重点内容。如:

①丧葬、丧事。秦不哀吾丧而伐吾同姓,秦则无礼。『左传·僖公三十三年』

『现代汉语词典(第七版)』对阴平“丧”的解释为“跟死人有关的(事情)。”如:丧事,治丧。对去声“丧”的解释为:

- (1)丢掉,失去:丧身,丧尽天良,丧权辱国。
- (2)情绪低落,失意:懊丧,颓丧。

『汉语大词典』中对“丧”的解释与『现代汉语词典』的解释相似,在此不一一例举。在这几部汉语辞书中我们可以看到,“丧”的表“失去”含义的义项出现在较早时期而且使用频率较高。

我们从语料库在线<sup>6)</sup>中的现代汉语语料库分词类词频表中,对由“丧”组成的词语进行频率检索<sup>7)</sup>,发现“丧失”一词的出现次数为380次,远远超过其他形容词性或名词性词义的出现频率。同时我们可以看到出现频率最高的前37个词语中,“丧”以动词词性出现的词语为21个<sup>8)</sup>,占总词数的56%左右。如<表1>:

<表1>汉语语料库在线中由“丧”组成词语的词频检索结果<sup>9)</sup>

序号	词 (/词类)	出现次数	频率%
01	丧失/v	380	0.0398
02	丧/v	82	0.0086
03	沮丧/a	66	0.0069
04	垂头丧气/i	40	0.0042
05	丧事/n	39	0.0041
06	丧葬/v	37	0.0039
07	懊丧/v	31	0.0032
08	丧家/n	30	0.0031

②人的尸体。丧(灵柩;殡仪队)出江上,白衣冠送者夹岸,酹而哭者百里不绝。

『明史·海瑞传』

③祸难。自经丧乱少睡眠,长夜沾湿何由彻!——唐·杜甫『茅屋为秋风所破歌』

6) 语料库在线网站<http://corpus.zhonghuayuwen.org/Resources.aspx>

7) 选取出现次数超过5次的词语进行统计,出现次数小于5次的词语暂未列入统计表中。

8) “丧葬”,“居丧”等词虽为动词词性,但“丧”在词内读音为阴平,因此排除在“丧”的动词义项之外。而“丧权辱国”等成语为动宾联合形式,因此也将此类词语中的“丧”看作动词词性。

9) <表1>中的词类标记与词类名称的对应意义:a形容词, n名词, v动词, i习用语。

09	颓丧/a	27	0,0028
10	丧气/a	26	0,0027
11	哭丧着脸/v	18	0,0019
12	婚丧/n	13	0,0014
13	居丧/v	13	0,0014
14	丧偶/v	12	0,0013
15	丧尽/v	11	0,0012
16	丧礼/n	11	0,0012
17	丧权辱国/i	11	0,0012
18	丧命/v	11	0,0012
19	丧生/v	10	0,0010
20	治丧/v	10	0,0010

〈表1〉汉语语料库在线中由“丧”组成词语的词频检索结果(续表)

21	报丧/v	9	0,0009
22	哭丧/v	8	0,0008
23	丧母/v	8	0,0008
24	丧父/v	7	0,0007
25	丧服/n	7	0,0007
26	玩物丧志/i	7	0,0007
27	办丧事/v	6	0,0006
28	懊丧/a	6	0,0006
29	丧心病狂/i	6	0,0006
30	沦丧/v	6	0,0006
31	灰心丧气/v	6	0,0006
32	出丧/v	5	0,0005
33	丧魂落魄/i	5	0,0005
34	丧钟/n	5	0,0005
35	闻风丧胆/i	5	0,0005
36	丧尽天良/i	5	0,0005
37	婚丧嫁娶/i	5	0,0005

由上分析我们可以将表示“失去”这一动词性语义理解为“丧”语义范畴中最具代表性的成员，也是我们在日常生活中经常使用的义项，因此动词词义的“丧失”可以看做是形容词“丧”的产生的原型语义。通过语料库词频检索，出现频度最多的词语除带有“丧”的动词之外，还包括由“丧”构成的形容词“沮丧

(66次) ”、“懊丧(31次)”、“颓丧(27次)”、“丧气(26次)”,在这四个出现频率较高的形容词,词内成分“丧”的音调均为去声,并且都有较为消极的感情色彩,其中前三个都是动词联合型合成词,“丧气”为动宾型合成词,其中构词语素“丧”在词语中都为动词语义,即其原型语义“失去”。从『说文解字』『康熙字典』『汉典』等古代字典词典中我们还可以看出,“丧”最早出现的义项为“亡”,经过词义的逐渐演变发展,出现了“失去”、“灭亡、衰败”、“逃亡、流亡”、“灰心丧气”的义项,可以看出在新产生的义项中,其表“失去”的原型语义在不断向外扩展,如出现了描述人心里状态的“沮丧”、“丧惘”的形容词义项。在『现代汉语词典(第七版)』中,我们可以进一步看到“丧”一词已经出现了表示“情绪低落”的义项,出现了“颓丧”、“懊丧”的形容词性词语。同时,“丧”前面的词素也都为“沮”、“惘”、“颓”、“懊”等此类表示消极悲观情绪的词素,这种近义词素相联合的成词方式,不仅可以加强词语表述意义的立体性,加深词语表达不快悲观感受的程度,而且两个词素在相互作用之下会对“丧”形容词词性的加速转化产生相应的影响。我们有理由推断,“丧”本身的词义是有从动词到形容词转化的可能的。至于“丧”一词为何会发展出形容词语义,下文我们将讨论形容词词内成分“丧”词义的产生和演化机制。

## 2) 形容词词内成分“丧”的原型语义及演变

### (1) 意象图式的定义及分类

意象图式(image schema)是近十几年来认知语言学领域内的非常重要的概念之一,是由认知语言学家Lakoff和Johnson(1987)首次提出了意象图式这个概念<sup>10)</sup>,他们将它定义为:意象图式是感知互动和运动活动中的持续再现的动态模式,这个结构给我们的经验以连贯性和结构性。许多语言学家也对此给出了自己的定义。例如Gibbs和Colston(1995)将意象图式描述为空间关

10) 根据Lakoff的分类,动觉意象图式可分为:容器图式(Container Schema)、部分—整体图式(Part—Whole Schema)、连接图式(Link Schema)、中心—边缘图式(Center—Periphery Schema)、始源—路径—目的地图式(Source—Path—Destination Schema)和其他图式(Other Schema)。

系以及空间中运动的动态模拟表征。Oakley(2004)提出“简单来说, 意象图式是为了把空间结构映射到概念结构而对感性经验进行的压缩性在描写。”李福印(2007)认为认知语言学家们赞同意象图式是基于人们的感知和体验的, 并且先于人类语言。

虽然不同学者对意象图式的定义有许多不同的表述, 但其核心理念是相同的, 即我们每时每刻都处于各种不同的活动之中, 我们观察周围的环境、走路、吃饭、睡觉、购物、读书等等, 用我们自己的身体去感受不同的事物。我们在进行各种活动时, 我们的身体始终处于和外部世界的互动和接触之中。通过意象图式我们可以理解这些日常活动, 构建其相关意义, 从而推理事物之间的关系, 把看似无关的离散的活动相互联系起来。

## (2) 意象图式与隐喻

我们总是通过旧事物来理解新事物。陌生的事物总是可以被比喻成熟悉的事物。认知语言学家乔治·雷科夫和体验主义哲学家马克·约翰逊认为, 这一理解过程中存在概念性隐喻(Conceptual metaphor)。根据他们的说法, 我们所有的想法和行动都是通过隐喻实现的。该观点从1980年的『生活的隐喻』开始, 至今在认知语言学、认知心理学、认知哲学等多个领域得到了大量实例认证, 概念性隐喻的概念在认知语言学中占据了核心地位。之前只有诗人、修辞学者等部分领域的人感兴趣的隐喻, 终于在多种领域中成为了备受关注的宠儿。

在『我们赖以生存的隐喻 (Metaphors We Live By)』<sup>11)</sup>一文中作者介绍了空间隐喻的概念。隐喻的作用过程是从源概念域向目标概念域映射的过程。人们对空间概念的认知是对客观世界认知的基础, 而对时间和其他事物的认知是建立在对空间概念认知度基础上的。作者着重研究了人们能够用听觉、视觉等感官直接感知空间的上下、远近、大小等, 所以人们运用空间概念

11) 乔治·莱考夫 马克·约翰逊著 何文忠译, 『我们赖以生存的隐喻』, 浙江: 浙江大学出版社, 2015, pp.12-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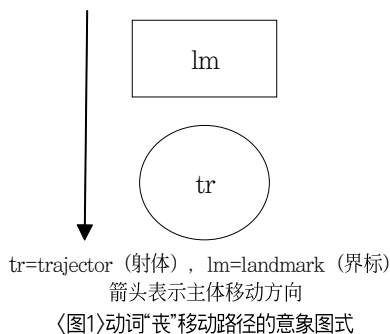
来描述时间、范围、状态、数量和社会地位等抽象概念。作者得出了空间概念所代表的抽象概念意义,并总结如〈表2〉:

〈表2〉空间概念所代表的抽象概念意义

Up向上	Down向下
高兴	悲伤
有意识的	无意识的
健康和生命	生病和死亡
可预知事件	不可预知事件
多	少
地位高	地位低
好	坏
可控制或掌握力量	不可控或受强迫
高尚	邪恶
理性	感性

雷科夫和约翰逊说:“低落的姿态往往伴随着悲伤或绝望,挺直站立的姿态伴随着积极的情绪状态。”物理经验告诉我们,在我们的概念世界中,幸福是与上而悲伤是与下联系在一起的。因此,我们的经验构成概念,概念反映在语言上。类似[上]或[下]表示方向的概念除了上述实例之外,还被用作有助于理解众多概念的根源领域。比如“年薪每年都在大幅上涨。”“考试分数比上次上升了很多。”很多人希望年薪或分数上升,因此我们用上升和下降来表达。我们就是把事物的量与高度结合在一起去体验事物的量。当然也有其他方式的经验,但是这些经验可以通过我们头脑中的量大和高度连接起来,很多事物可以通过高度这样的根源领域来表现。只要人类的身体在场所内活动,“指向(方向)”就是我们的获得经验的基本方式,利用方向便成为人类理解很多事物为基础。

因为由“丧”组成的词语含义多为“失去”即“减少”的含义,如“丧母”,“丧偶”,“丧权辱国”,“玩物丧志”,那么基于我们自身的感知和体验,本文所谈及到的动词“丧”应该是一种指向‘Down向下’的意象路径图式。如〈图1〉所示:



通过〈图1〉我们可以看出, 设体tr的移动路径是沿着箭头的指示方向朝着远离界标lm向下进行的。认知语言学家Krzyszowski (1993) 提出几乎所有的意象图式都具有一种特征, 即在表达隐喻意义时呈现出肯定或否定的意义, 称为“plus-minus”parameter, 即意象图式的正负参数<sup>12)</sup>。上文已经提到根据『我们赖以生存的隐喻』一书中, “高兴”的意象图式是向上, “悲伤”的意象图式是向下, 我们可以断定通常向上的路径通常表示积极意义, 相反, 向下的路径表示消极意义。基于以上分析, 可以得出结论, 由于“丧”的意象图式是向下的路径, 因此通常含有消极意义。这也可以解释为什么含有“丧”的习用语, 例如“闻风丧胆”、“玩物丧志”、“丧尽天良”等通常含有消极的感情色彩。

由此可知, “丧”的形容词语义是从“丧”表示“失去”的语义范畴中分离出来的, 因其带有消极、悲伤、低落等意义, 所以在成词时也多与其他带有消极语义的语素组合, 如“沮丧”、“懊丧”、“颓丧”等。这些词多出现于正规文体, 如文学报刊中, “丧”很少以光杆形式的形容词出现, 通常是与其他表示消极词义的语素联合成词出现在句子中。如:

(1) 刑罚专家并没有因为刚才的失败永久地沮丧下去, 他还有最后一个刑罚值得

12) Krzesowski指出在意象图式CENTER-PERIPHERY(中心-边缘)中, CENTER(中心)往往具有肯定意义, PERIPHERY(边缘)则具有否定意义, 在意象图式BALANCE(平衡)中, BALANCE(保持平衡)含有积极意义, IMBALANCE(失去平衡)含有消极意义。

炫耀。(余华『往事与刑罚』)

(2)现实生活令他懊丧、害怕,弄得他终日惶惶不安。(契科夫『装在套子里的人』)

(3)伟大感与渺小感,一筹莫展与欣喜若狂,颓丧与振奋,这种种的矛盾心情交织贯穿整个写作过程中。(路遥『早晨从中午开始』)

以上例句中从包含“丧”的形容词“沮丧”、“颓丧”、“懊丧”可以看出在正规文体中“丧”都是以成词语素的形式出现在双音节形容词中,无法独立成词,同时其语体色彩偏书面语,且感情色彩非常消极的语义特征。

### 3. 新兴形容词“丧”的认知域转换模型分析

Langacker在『认知语法导论』中提出大到语言系统的形成,小到一个具体语言结构的产生,都是用法固化的结果。一种用法因使用的频率过高,随着时间的推移固化为一个单位。Langacker关于语言系统的用法观体现在以下三个方面:用法事件(usage events)是所有语言单位的来源。单位产生的途径是用法的不断的固化,并最终建立认知常规(cognitiver outline)<sup>13</sup>。“丧”一词的动词语义“失去”为其核心义,形容词“沮丧”、“颓丧”、“懊丧”等词正是因为各自的构式中使用频率过高,因此逐渐成为固化的意义。

然而我们在现代汉语语料库的字词索引中对“丧”字构成的辞汇进行调查时,发现了“丧”的以下构词特点:首先,“丧”多与名词组成动宾结构词语,并表示其原型语义“失去”的含义,如“丧子”、“丧命”、“丧生”、“丧胆”等;其次“丧”多以词内成分的形式与其他词性词语相结合,而演化为形容词词性的词语,此时“丧”的语义为“情绪低落,失意”。如上文提到的“沮丧”、“丧气”、“懊丧”、“颓丧”,而且该类形容词数量也只占“丧”字所构成词语总量的少数。再次,“丧”以光杆形式出现在句子中的形式并没有出现在语料库字词索引的检索结果中。在『现代汉语词典』第六版和第七版中也均未收录“丧”单独作句子成

13) Ronald W.Langacker 著 黄蓓 译,『认知语法导论(下卷)』,北京:商务印书馆,2016, pp.378-380



分的例句，也未出现“丧”形容词性的义项。但在其他语料中我们对“丧”相关的语料进行检索和收集时，发现了“丧”以光杆形式出现的形容词谓语句。如：

- (4)一丧就是一整天。（百度语料）  
 (5)今天真是丧到了极点。（百度语料）  
 (6)出去溜达溜达也行，宿舍待久了就容易丧。（BBC对话语料库）  
 (7)我也不晓得我在跟哪个怄气就是突然丧丧的。（BBC对话语料库）  
 (8)总是在某个瞬间突然就丧了，像是积攒了几天的热情，啪的一声就碎掉了。  
 （百度语料）

语言是在不断变化发展着的，特别近年来是网络流行语的发展速度更是日新月异的，有很多词语正是首先在网络上开始流行以后，逐步扩大到人们的日常生活交流中，《咬文嚼字》每年都会发布当年的“十大流行语”<sup>14)</sup>，其中近十年间，“丧文化”逐步形成，“丧”式吐槽也不断推陈出新，如“葛优躺”、“我太难了”、“佛系”、“废材文化”等等。除此之外，在微博语料中，我们更是检索到了大量的“丧”以光杆形式充当多种成分的句子，如：

- (9)很丧的时候需要多巴胺，别问我发自拍什么意思，我就是想发。  
 (10)这突如其来的一阵丧，活着有什么意思啊！  
 (11)真是特别丧，有人怎么听不懂中肯是什么意思？  
 (12)最近加班加到哭，累到想哭，忍耐到想哭。有什么意思，我这么丧为了啥？  
 (13-16例句均来自微博博主语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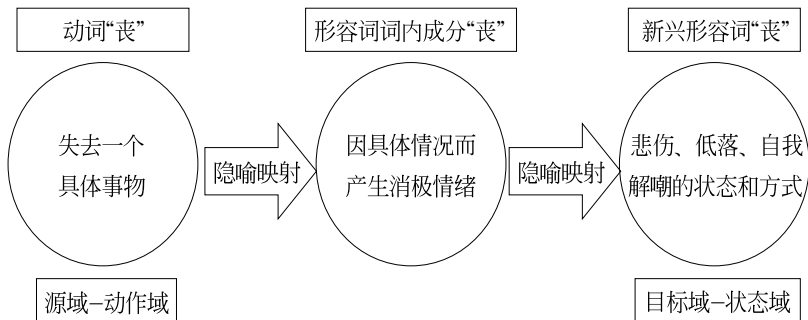
除了诸如以上的包含“丧”的句子，我们还在“丧”的相关搜索中出现了“你

14) 《咬文嚼字》近五年选出的十大流行语：

- 2017：不忘初心、砥砺奋进、共享、有温度、流量、可能...假...、油腻、尬、怼、打call  
 2018：命运共同体、锦鲤、店小二、教科书式、官宣、确认过眼神、退群、佛系、巨婴、杠精  
 2019：文明互鉴、区块链、硬核、融梗、...千万条，...第一条、柠檬精、996、我太难南了、我不要你觉得，我要我觉得、霸凌主义  
 2020：“人民至上生命至上”、逆行者、后浪、飒、神兽、直播带货、双循环、打工人、内卷、凡尔赛文学  
 2021：百年未有之大变局、小康、赶考、双减、碳达峰、碳中和、野性消费、破防、鸡娃、躺平、元宇宙

看到最丧的句子是什么”、“千万别丧”、“丧沉沉”、“心情很丧的句子”、“一个人很丧怎么办”等等可供搜索的词条。由此可见，在网路流行语中，“丧”已经转化出非常具有代表性的语义，而且“丧”的词性也更加贴近于表示心理状态的形容词，如“开心、高兴、愉快、激动、恐怖、伤心”等，它可以以光杆形式出现在句子中做谓语、定语甚至是中心语。“丧”的光杆形式已经在现代的汉语使用中，特别是网络语言的表达时经常以形容词词性出现，也就是说“丧”已经可以不再作为词内成分，而是以光杆形式作为独立的形容词使用，其不仅可以受程度副词“很”、“非常”、“容易”、“特别”、“这么”等修饰充当谓语成分（例6、11、12），同时也可以作定语修饰名词性中心语（例9），甚至出现了“丧丧的”重叠式构成的状态形容词（例7）。

将动词“丧”的原型语义、词内成分“丧”的语义与新兴形容词“丧”的语义进行比较可以发现，三者间存在的若干变化，其中最大的变化是新兴形容词“丧”的“参照物”已经从因为“失去具体的事物而情绪低落”抽象为一种“悲伤、低落甚至自我解嘲的心理状态和方式”，这一过程正体现出“丧”的语义演化机制所在，即隐喻，我们可以通过认知域转换的具体模型更加直观地描写出这一语义转换过程。如〈图2〉所示：



〈图2〉动词“丧”的原型语义、词内成分“丧”的语义与新兴形容词“丧”的认知域转换模

从上图我们可以看出,在隐喻过程中,由于参照对象由具体到抽象的转变,源域中不仅表示具体动作[+失去]的原型语义发生脱落,[+动态性]的语义特征也在隐喻过程中丢失。也就是说动词“丧”的基本义[+失去]的语义在逐渐减少。同时,在不断的隐喻映射过程中,表示因具体情况而情绪低落的[+消极]语义特征的程度也开始出现减弱的趋势,并且[+词内成分]语义特征的限制也解除,同时其书面语体色彩也从源域中消失。由于参照物由具体对象到主观状态的转变,新兴形容词“丧”除了表示[+情绪低落]之外,还增加了[+状态性]、[+口语体]、[+独立语素]的语义特征,在青年层中“丧”已经被赋予了一种区别于主流文化的亚文化意义,是一种青年层在当今社会下的一种价值取向,因此还具有[+价值观]的语义特征。

通过以上“丧”的意象图式和认知域转换模型的描写和比较,我们将动词“丧”、词内成分“丧”和新兴形容词“丧”的语义特征状况进行如下整理。

〈表3〉动词“丧”词内成分“丧”和新兴形容词“丧”的语义特征

	失去	动态性	消极	状态性	独立语素	口语体	价值观
动词“丧”	+	+	-	-	-	-	-
词内成分“丧”	-	-	+	+	-	-	-
新兴形容词“丧”	-	-	+	+	+	+	+

#### 4. 从隐喻与文化连贯性角度分析“丧文化”的盛行

Lakoff认为文化中最根本的价值观与该文化中最基本概念隐喻结构是一致的。这些文化价值与“上一下”空间隐喻是一致的,并且在我们的文化中根深蒂固。如“未来将会更美好”与“未来为上”和“好为上”一致,而“未来将更糟糕”则与我们的价值观念不符<sup>15)</sup>。我们的价值观念并不是独立存在,而必须形成一个与我们赖以生存的隐喻概念相一致的系统。并不是所有的与隐喻系统

相符的文化价值观都实际存在，但是那些确实存在并牢固确立的价值观的确与隐喻系统相连贯。扎根于我们文化中的价值观总的来说体现了万物平等的理念，但是也有不平等的事情发生。这些价值观中存在矛盾冲突，与他们联系的隐喻中也存在着矛盾冲突。为了解释价值观念中的这些矛盾冲突，我们必须发现使用这些价值观和隐喻的亚文化所赋予他们的不同优先权。比如“通货膨胀在上升”和“油价在不断上升”两个例子中，尽管通货膨胀和油价上升对普通人来说并不是好事，这些句子的表述仍然是合理的。因为“更多为上”总是具有最高优先权。然而上文中我们对“丧”一词的空间隐喻分析得知，“丧”的空间隐喻方向是“向下”的，即并不符合我们的主流“向上”的价值观，即“丧文化”是与主流价值观相冲突的。这里就有必要讨论一下“丧”这种亚文化被赋予的优先权的问题。

哪种价值观被赋予优先权是取决于人们所处的亚文化和个人的价值观念的。“丧文化”在青年大学生的日常交流中经常被使用，从而衍生出各类新潮的文字表述、丰富的表情包、网络影视剧中频频出现“丧”式台词，其生动形象的表达方式可以将当代年轻人的“小委屈”、“小悲伤”的内心状态以一种简洁明了的方式表达出来。其中“佛系文化”的出现，也是“丧文化”的一种变体，由于“丧”的消极意义仍比较明显，因此“佛系”、“躺平”便成为当代年轻人在面临升学、工作、婚姻等重压下的另一种新型生活态度。虽然“丧”并不属于主流价值观，但是年轻人在“丧”中带“乐”的自嘲过后，已然会选择继续奋斗，“丧”式话语的运用更倾向于对于生活压力的“发泄”与“解压”，尤其是对自身现实境遇不如意的一种“自嘲”或是“刺激”，其根本目的并不是宣扬自身堕落，而是充当一个“解压器”来宣泄消极情绪的一种渠道。当今青年层在社会结构中处于较为弱势的地位，并且没有什么话语权，在学业、工作和生活方面都承受着巨大的压力，因此一部分青年层逐渐远离主流价值观，被推向社会边缘，因此“丧”这种价值观念恰恰为青年层提供了一个排解压力的理由和宣泄负能量的窗口，因此，在一部分青年层出现了中“丧”的价值观优先于主流“好为上”的价值观。

15) George Lakoff Mark Johnson 著 何文中 译,『我们赖以生存的隐喻』,浙江:浙江大学出版社, pp.20-21.

Lakoff还认为某些群体虽具有有些与主流价值观相冲突的价值观,但他们仍以一种不太明显的方式保留了主流文化的其他价值。虽然在青年层中“丧”代表一种颓废消极的心理状态,但是如果运用适当,也可以释放心理压力,适度宣泄情绪,“丧”言“丧”语也可以成为高压青年寻找情感共鸣的领地。比如“洗洗睡吧”、“我太难了”、“佛系青年”等显示出一种相对温和的情绪表达方式,在释放了负面情绪之后,仍然要继续努力拼搏,因此仍然会符合主流价值观的部分,只不过青年层赋予了其最优先等级和不同界定。因此价值系统内部与主流文化的主要方位隐喻是一致的。

## 5. 结语

本文以流行语中的新兴形容词“丧”的认知语义演化机制为研究对象,从认知语言学的角度展开了一系列的考察与分析。在第一章中,通过观察和收集网络流行语语料,发现了“丧”的词义随着网络流行语的盛行开始出现转化的现象,并对前人的研究成果进行整理和分析,以确定本文以“丧”的形容词化为主要研究对象;在第二章中,运用原型理论原理,分析并确定了“丧”的原型语义为动词“丧”,其语义为“失去”,其语义特征为[+动态性]与[+失去],这也是形容词词内成分“丧”的原型语义,并且通过意象图式和隐喻理论,分析了作为形容词词内成分的语素“丧”的语义转化机制,其语义为“情绪低落”,语义特征为[+消极][+状态性];第三章中,对流行语中的新兴形容词“丧”的认知域转换模型进行了分析,并通过分析大量语料库中的相关句子,总结出“丧”已经从原有的动词性原型语义中传化出富有生命力的新兴形容词,并且被广泛使用在网络语言中,其语义为“悲伤、低落、甚至自嘲的状态”语义特征为[+消极][+口语体][+状态性][+独立语素][+价值观]。

“丧”的语义还在随外部环境的不断发展而具体化,甚至可能有名词化的可能性,如已经出现了“突然一阵丧”的表达方式,“丧文化”已经成为一种在青年层中普遍认知和接受的一种文化语体形式。因此有理由相信,随着时代的发展“丧”这一词会有更多的词义甚至词性演变的可能性。

## ◆ 参考文献

### 1. 资料

- 百度学术, <https://xueshu.baidu.com/>  
『汉典』网络版, <https://www.zdic.net/hans/%E4%B8%A7>  
『汉语大词典』知网版, <https://hd.cnki.net/kxhd/Search/Result>  
『说文解字』网络版, <https://www.cidianwang.com/shuowenjiezi/sang50.htm>  
『现代汉语词典(第七版)』,北京:商务印书馆,2016

### 2. 单行本

- 박용석, 『은유하는 마음』, 서울:박영사, 2020.  
임지룡, 『인지의미론』, 서울:탑출판사, 1997.  
George Lakoff & Mark Johnson 著, 何文中译, 『我们赖以生存的隐喻』, 浙江:浙江大学出版社, 2015.  
Langacker 著, 黄蓓译, 『认知语法导论(上卷)』, 北京:商务印书馆, 2016.  
Langacker 著, 黄蓓译, 『认知语法导论(下卷)』, 北京:商务印书馆, 2016.  
李福印, 『语义学概论』, 北京:北京大学出版社, 2006.  
黄伯荣·廖旭东, 『现代汉语 上册增订第6版』, 北京:北京高等教育出版社, 2017.  
沈家煊, 『认知与汉语语法研究』, 北京:商务印书馆, 2016.  
吴为善, 『认知语言学与汉语研究』, 上海:复旦大学出版社, 2011.  
赵艳芳, 『认知语言学概论』, 上海:上海外语教育出版社, 2001.

### 3. 论文

- 陈淑珍, 『“丧文化”解读与青年社会心态透视』, 『重庆科技学院学报』, 第2期, 2021, pp.94-95.  
黄钰涵·岳好平·吕倩, 『十大流行语的语言变异探析-以“咬文嚼字”2014-2018年十大流行语为例』, 『兰州教育学院学报』, 第四期, 2020, pp.36-38.  
李福印, 『概念隐喻理论与概念合成理论在意义构建中的优势和不足』, 『外国语言文学研究』, 第2期, 2005, pp.35-40,60,81.  
沈家煊, 『转指和转喻』, 『当代语言学』, 第一卷, 第1期, 1999, pp.5-7.  
沈家煊(1995), 『有界和无界』, 『中国语文』, 第5期, 1995, pp.369-371.  
束定芳, 『论隐喻的本质及语义特征』, 『外国语』, 1998, pp.15-16.  
滕国鹏·林雪婷, 『青年抖音使用中“丧文化”的流行和引导分析』, 『中国青年社会科学』, 第4期, 2020, pp.87-90.  
吴佳欢, 『网络流行语的流行构式及认知解读』, 『语文学刊』第7期, 2016, pp.64-65.  
吴越·李朝旭, 『中国空间隐喻研究现状与发展趋势』, 『心理学探新』, 第四卷, 2020,

pp. 302-308.

曾妮·刘景霞, 「2016年度十大流行语的认知解读」, 『读与写杂志』第8期, 2017, p.8.

#### 4. 语料库

BCC语料库

北京语言大学研究中心CCL现代汉语语料库

国家语委现代汉语语料库

논문 접수 일	2022년 11월 09일
심사 완료 일	2022년 11월 27일
게재 확정 일	2022년 12월 08일

*Abstract*

## A Study on the Mechanism of the Cognitive Semantic Evolution of the Modern Chinese Popular Word "丧"

Liu, Ping

Language is a system that evolves with the changing environment. Langacker believes that grammaticalization of words means that a usage of words is consolidated into a unit over time because it is used too often. In the past decade or so, new media software such as "Tik Tok" and "Quick Hands" has attracted a large number of young users, greatly accelerating the emergence and development of Internet buzzwords, new words and new meanings. The meaning, pragmatics and grammar of the word "丧" have also changed dramatically. The youth group has even transformed the concept of "丧" into a culture, forming the value orientation of "丧 culture". Previous researches on the popular word "丧" mainly focus on the analysis of the meaning of the word, the deep motivation of the popularity of "丧 culture" and the reasons for its popularity among young people. However, there have not been many researches on the translation mechanism and motivation of the word "丧" in terms of semantics and pragmatics. Especially, the words "沮丧" and "颓丧" have not become popular words, but the light form of "丧" has been widely used. However, the light pole form of "丧" has become a means of highlighting decadence and negativity, and has been used widely, and the internal semantic differences between monosyllabic "丧" and bisyllabic "沮丧" and "颓丧" are worth studying. Therefore, from the perspective of cognitive linguistics, this paper tries to use the theory of prototype, image schema and conceptual metaphor in cognitive linguistics as the theoretical basis. This paper focuses on the semantic evolution of the verb "丧" and tries to explain the reasons for the emergence of neologisms with the theory of Image Schema.

**Keyword** Emerging buzzwords "丧", categories of primitive words, metaphors, cultural associations, cognitive linguistics



# 从『诗经』中看祭祀活动由商至周的政治化演变

邓欣\*

## 국문요약

문명은 언어, 문자, 혈연, 인종, 종교, 문화 풍습을 포함한 여러 요소에 의해 결정되며, 그 중 일부는 강하게 관련된 요소이고 일부는 약하게 관련된 요소이며 중국 문명의 경우 종교는 상대적으로 약하다. 하상주夏商周 상고上古사회의 무문화巫文化, 제사문화는 종교의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오히려 주나라 때부터 제사가 정치화되어 국가 예교, 정치의 일부가 되었다. 시경은 중국 문학의 보물로 제사에 관한 내용도 있는데, 이 작품들은 문학적 가치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 의미도 풍부하다. 시경을 통해서 제사의 변화를 볼 수 있다. 중국에서는 예로부터 제사가 존재하였고 주나라에 이르러 제사를 정치화政治化하는 전환이 이루어졌다. 제사는 상대의 단순한 봉신奉神행위에서 정치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행사로 진화하였고 교화의 역할을 맡았다. 이러한 전환은 중국 문화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이 글은 시경 중에 제사와 관련한 내용을 담고, 다른 사료들과 문헌을 결합하여 제사의 4대 요소(제사의 대상, 제사의 물건, 제사의 절차, 제사의 기능)를 분석하여 상나라에서 주나라로 미신적 제사가 정치적 제사로 변화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문화와 정치 사이의 상호 침투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고대 중국의 정치화된 미만성瀰漫性 종교를 이해하는 것은 현대 중국의 정치 환경을 더 잘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주제어** 시경, 주송, 조선신, 자연신, 시제尸祭, 인순人殉, 인생人牲

## 〈目録〉

- |         |         |
|---------|---------|
| 1. 序论   | 4. 祭祀程序 |
| 2. 祭祀对象 | 5. 祭祀功能 |
| 3. 祭祀物品 | 6. 结论   |

\* 高丽大学中文系博士课程 (dengxin198641@gmail.com)

## 1. 序论

“国之大事，在祀与戎”，出于『左传·成公十三年』，意为“对于国家而言，大事主要是祭祀活动和军事行动”，祭祀在古代社会生活中占有重要地位。中国祭祀活动自古有之，至周代，祭祀活动完成了政治化的转变，祭祀从商代单纯的奉神行为转变为带有政治功能的活动，被赋予了伦理色彩，承担了道德教化的作用，这种性质的转变对中国文化史有着极其重要的影响。文化与政治之间的互相渗透不是一朝一夕的，了解中国自古这种政治化的弥漫性宗教，对于更好地了解现当代中国的政治环境有很大帮助。现代史中，中国是一个民主化缓慢的国家，政治发展历程比较特殊，其中的各种原因，比较重要之一是中国人对政治的概念。中国文化中政治认知的公共属性较弱，而民族的、宗室的、甚至血缘的属性较强。这与政治性的祭祀文化有很大关系。

一个文明是由几个要素决定的，包括语言、文字、血缘、种族、宗教信仰和文化风俗，其中有些是强相关的因素，有些是弱相关的因素，对中华文明而言，宗教信仰这个因素就是比较弱的。夏商周上古社会的巫文化、祭祀文化没有走上宗教的轨道，反而从周代开始祭祀活动被政治化，成为国家礼教、政治的一部分。在祭祀活动中，祭祖是一项重要内容，中国人对祖宗的信仰属于一种“弥漫性宗教”<sup>1)</sup>，这种弥漫性宗教的特点是，它不同于正式的宗教，有着单独、明确的宗教架构，相反，它以日常化、政治化的特点融入在人们的生活之中。在古代中国，虽然没有官方确认的宗教信仰，但是这种对于祖先信仰的弥漫性宗教，可以说是中国文化的核心，而祭祀文化就是其中重要的组成部分。针对这个文化特点，本文将以『诗经』为研究资料，以商周两代为历史背景，探究周代祭祀的特点，以及被政治化的过程。

---

1) 杨庆堃 论及中国弥漫性宗教的盛行时指出：“在中国，社会组织生活的基本单位存在于家庭中，祖先崇拜将宗教的所有主要特征都渗透进制度性结构中。”杨庆堃：『中国社会中的宗教』，四川人民出版社，2016年，p.230.

## 2. 祭祀对象

### 1) 祖先神

祭祀对象可大致分为两种，一为山川河谷、云雨万物，即自然神；一为故去的先人、国君，即祖先神。商代祭祀的自然神对象种类繁多，有云、风、雨、雷电、日、月、星辰等等。雨神是商代祭祀中比较重要的神灵，因为商人也是农业民族，雨水对农作物的生长尤为重要，所以甲骨文记载中可见大量祈雨祭祀。另外，商人也祭祀农神、土地山、山神、河神、四方神等自然神灵。<sup>2)</sup>而对于“人神”的祭祀，即祖先神，在商代之前就已存在，至商代已成为必不可少的祭祀活动。商人对祖先神祭祀十分重视，他们认为祖先神可以兴风化雨，可消灾亦可降祸，因此商人祭祖也是从实际利益考虑的，以祭祀作为和祖先神沟通的方式，祭祀目的是为了获得祖先的福佑。商朝人的认知中，祖先神有一个明显的特点，即经常以惩罚的方式给商王朝和商族人制造灾祸，而在性格特点上，商人认为祖先神时而行善时而作恶、性情不定、喜怒无常，这样的神格实际上与一些自然神非常接近，所以商人对与祖先神的态度是“尊而不亲”。<sup>3)</sup>在商代，对于自然神的祭祀和祖先神的祭祀频率、祭祀规模大体上是等量的，但至周代，祭祀对象的比例发生明显变化。

与商人不同，《诗经》的祭祀诗多为祭祀祖先、已故君王的诗篇，祭祀原始自然神的篇幅较少，有些篇章是祭祀祖先与自然神并行。《诗经·颂》部分为周颂、鲁颂、商颂，〈周颂·清庙之什〉主要内容为祭颂文王、武王，〈臣工之什〉包括一些助祭内容(潜、振鹭)；而〈闵予小子之什〉中除祭祀祖先神、自然神之外，还有一些篇章关于周成王的自我规诫(敬之、小毖)。<sup>4)</sup>虽然祭祀祖先、祈福农事皆有，但祭祀对象多为国君先祖，对于周人而言，文王武王即是国君也是先人，这时君主祭祀与宗亲祭祀已开始出现融合的趋势。

2) 王浩，「商代人祭对象问题探论」，《文博》，1988年6月，pp.33-35.

3) 晁福林，「论殷代神权」，《中国社会科学》第1期，1990年，p.55.

4) 聂麟泉，「诗经三颂祭祀对象研究」，《吉林广播电视大学学报》第205期，pp.147-149.

## (1) 尸祭

由商至周，祭祀对象的地位发生明显变化，这也与商人、周人对祖先神的认知有关，这里我们要提到一个概念，“尸祭”。『诗经』<sup>5)</sup>中的祭祀场景很多，比如〈召南·采芣〉中就描述了女子出嫁前的活动，其中包括采摘芣草、水藻，祭祀祖先等。“于以奠之？宗室牖下；谁其尸之？有齐季女。”这里的“尸”，不是我们今天所理解的“尸体”之“尸”，而是充当神灵的人。周代祭祖礼有“立尸像神”的习惯，即按一定规则选定某人扮成祖先接受祭祀，代表祖先受祭的人称为“尸”。“尸，主也”，有主角或中心之意，这种由活人来充当或扮演祭祀对象的祭祀形式被称之为“尸祭”，也被称为“立尸”。<sup>6)</sup>〈礼记·郊特牲〉云：“尸，神像也。”〈公羊传·宣公八年〉何休注：“祭必有尸者，节神也”，王国维从中国古代戏曲考据的角度讲过“古之祭也必有尸”。（王国维『宋元戏曲史』，东方出版社，1996年）可见“尸”这一角色在祭祀中有着特殊的意义，而“尸祭”是祭祀形式中极为重要的一种。

〈周颂·执竞〉有云：“执竞武王，无竞维烈。不显成康，上帝是皇。自彼成康，奄有四方，斤斤其明。钟鼓喤喤，磬筦将将，降福穰穰。降福简简，威仪反反。既醉既饱，福禄来反。”结尾部分描写的正是武王之尸享用祭品的情景，“既醉既饱，福禄来反”意指神灵吃饱喝足，为人们降下福祉；〈周颂·我将〉诗云：“我将我享，维羊维牛，维天其右之。仪式刑文王之典，日靖四方。伊嘏文王，既右飨之。我其夙夜，畏天之威，于时保之。”祭祖活动中是看不到祖先享用祭品的，只有在活人扮演祭祀对象的情况下，才会看到“伊嘏文王，既右飨之”这样的情景。此外，〈小雅·楚茨〉中的“神具醉止，皇尸载起”，“既醉既饱，小大稽首，神嗜饮食，使君寿考”；〈大雅·既醉〉的“既醉以酒，既饱以德，君子万年，介尔景福”、以及〈大雅·凫鹥〉的“尔酒既清，尔肴既馨，公尸燕饮，福禄来成”，也都是根据“立尸”的场景来描绘祖先神酒醉饭饱之事。这些诗歌描写都说明西周王室祭祖时有“立尸像神”的习惯，有专家认

5) 本文引用的诗经词句均出自：姜亮夫等，『先秦诗鉴赏辞典』，上海辞书出版社，1998。

6) [https://www.douban.com/note/813538404/?\\_i=7020581F4o2mMM,7025827F4o2mMM](https://www.douban.com/note/813538404/?_i=7020581F4o2mMM,7025827F4o2mMM)  
豆瓣「“尸”与“尸祭”」

为这种“公尸”(君尸)之礼是周邦特有的礼俗；也有学者认为，商代时就已存在祭祀中(特别是在祭祀祖先时)“立尸”的做法，战国以后，立尸祭祀制度才逐渐消失。<sup>7)</sup>

充当“尸”的人并不是专职的巫师，其扮演者有特定的人选，在宗庙祭祀或祭祀死去的亲人鬼神时，为尸者必须是死者之孙或孙辈。这种以“角色”出现的祭祀形式或源于古代的巫覡文化，且不局限于祭祀祖先神。实际上先秦时期，楚国在相当长的时间里保留着这种巫文化，『九歌』中湘君与湘夫人同为湘水的水神，从『九歌』的内容来看二者应为夫妻关系，〈湘君〉借以湘君的妻子湘夫人的角度描写妻对夫爱慕之情，相对应地〈湘夫人〉借以湘君的角度描写夫对妻的悱恻之爱。这种描写手法与楚地的祭祀方式有关，中国古代女性巫师称“巫”，男性巫师称“覡”，楚人祭祀时，巫覡搭配扮演情爱角色，互相唱和，娱乐于歌舞之中，经常由陪祭(即巫师)扮演主祭神的伴侣或恋人邀约主祭神，即“请神”，相信巫文化的楚人认为这样更容易使神明登临。

周代的尸祭主要源自“孝”与“亲”的观念。〈通典·礼八·立尸义〉云：“尸，神象也。祭所以有尸者，鬼神无形，因尸以节醉饱，孝子之心也。”〈仪礼·士虞礼〉：“祝迎尸。”郑玄注曰：“尸，主也。孝子之祭，不见亲之形象，心无所系，立尸而主意焉。”『白虎通义』云：“祭所以有尸者何？鬼神听之无声，视之无形。降自阼阶，仰视榱桷，俯视几筵，其器存，其人亡，虚无寂寞，思慕哀伤，无可写泄，故座尸而食之。损毁其馔，欣然若亲之饱，尸醉若神之醉矣。”

尸祭最重要的一个结果就是拉近了祭者与祖先的距离，与商代观念中的祖先形象不同，前面我们提到，商人对祖先的态度是“尊而不亲”，他们眼中的祖先威严有余而慈祥不足，所以对祖先充满尊敬的同时也充满了恐惧，这种感情与对自然神的态度别无二致，祖先神与自然神的神格趋近，总体来讲就是捉摸不定、性情无常、令人生畏。周人的立尸之祭却使祖先的神格发生了变化。首先，由活人来扮演祖先神，在心理上拉近了祭者与祭祀对象的距离，而这种具象化、平常化的人物设定从根本上改变了祖先神可怖的形象。西周时

7) 胡新生·白杨，「周代尸祭礼与中国祖先崇拜观念的转型」，『文史哲』，2022.05，p.39.

代, 祖先虽被视为鬼神, 但已不再被视为惩罚后人、为祸作祟的鬼神, 而是被看成族人的守护神, 这就使祖先神与那些没有血缘属性、道德属性的自然神灵区别开来。这种由血缘和道德感连接起来的崇敬, 就是中国对于祖宗信仰的弥漫性宗教的源头, 它实际上起到了一定的政治作用, 使政治与宗族血缘、道德感联系在一起。尸祭礼制推动了祖先神的神格提升, 促成了祖先崇拜观念的政治化转变, 而基于此观念的祭祀文化也成为后来中国祭祀文化的主流。从商至周, 自然神与祖宗神并重的局面被打破, 祖宗神成为高于自然神的存在。商朝的祖先崇拜属于恐惧、畏忌、慑服的类型, 祖先之灵绝非喜施惠、善待人, 而是苛刻、挑剔, 只有心满意足, 才肯赐福子孙, 否则, 将降以惩罚。<sup>8)</sup>周代则形成了有别于殷商的宗法制社会, 祭祀不仅是凝聚血缘的方式, 同时也是统治阶层严明宗法、维护等级制度的强有力政治手段。

## 2) 自然神

以天地、山川、百谷为为祭祀对象的祭祀诗, 在『诗经』中虽占比较小, 但也可通过一些篇章看出周人对自然神的敬仰, 如〈周颂·时迈〉:“时迈其邦, 昊天其子之, 实右序有周。薄言震之, 莫不震叠。怀柔百神, 及河乔岳, 允王维后。明昭有周, 式序在位。载戢干戈, 载橐弓矢。我求懿德, 肆于时夏, 允王保之。”诗歌的主要内容是神明佑护周王征讨四方, 周王敬祭山川百神, 歌颂先祖的同时也表达了对山川百神的敬畏。又如〈周颂·天作〉:“天作高山, 大王荒之。彼作矣, 文王康之。”颂祭祖先的同时, 又表达了对自然神的感恩。

〈周颂·载芣〉是周人在春天祈福农事的诗歌, 但其中也提到了“烝畀祖妣”, “祖妣”的意思就是祖父、祖母以上的祖先, 所以这种诗歌祭祀的对象并不是单一的, 包括了祖先神和自然神, 祭祀目的也是多重的, 包括祈福农事和保佑老人:“为酒为醴, 烝畀祖妣, 以洽百礼。有飶其香。邦家之光。有椒其馨, 胡考之宁。”

8) 胡新生·白杨, 「周代尸祭礼与中国祖先崇拜观念的转型」, 『文史哲』, 2022.05, p.41.

经过周人对祭祀活动政治化的改革，自然神灵也成为政治权力象征的一部分，从周代开始，“祭天”就逐渐演变为周天子的特权，这里，我们要提到一个词“社稷”。现代汉语中“江山社稷”意指国家，但不同于我们现在所理解的，“社稷”原指祭拜“土神”与“谷神”。古代农耕社会，土地和谷物是人们生存的根基，所以祭“土神”与“谷神”是极为重要的。“稷”代表谷物“黍稷”，“社”这个字，就是“祭土地之神”，以“土”为社，左边为祭拜之意，右边为土，即祭拜土地，象形含义如下图所示：



〈图1〉‘社’的象形注义<sup>9)</sup>

〈小雅·甫田〉第二段：“以我齐明，与我牺羊，以社以方。我田既臧，农夫之庆。琴瑟击鼓，以御田祖。以祈甘雨，以介我稷黍，以谷我士女。”这里的“社”即“土神”，“稷黍”为谷物。〈大雅·云汉〉：“祈年孔夙，方社不莫。昊天上帝，则不我虞。敬恭明神，宜无悔怒。”亦出现祭祀土神的“社”。《诗经》中出现“黍”或“黍稷”的篇章更是不胜枚举，如〈小雅·楚茨〉：“我艺黍稷。我黍与与。”这些诗词都印证了“社”与“稷”的象征意义。<sup>10)</sup>在原本仰重自然神的原始社会，随着君主的权力扩张，祭祀自然神慢慢被赞颂国君先祖替代，“土地与谷物”渐渐成为“国家”的象征意义，这也让“国家”这一概念从抽象转变为具体，人民更容易从日常生活中理解复杂的统治关系，将政治意义简单化、生活化。<sup>11)</sup>同时，这也意味着，人们对安身立命的土地的敬仰，对赖以生存的谷物的感激，转变为对国家的敬畏与歌颂，从“敬畏土神，感恩谷神”上升为“不

9) 字源查询: <http://qiuyan.chaziwang.com/etymology-7349.html>

10) 陈烁, 「“社稷”源流」, 《宁夏师范学院学报》第8期, 2018, pp.96-99.

11) 张园, 「诗经·周颂中的祭祀礼仪研究」, 《历史文化研究》第1期, 2019, p.237.

忘国家之本”。

### 3) 左祖右社

周人根据不同的祭祀对象修建不同的祭祀场所，分为祭祀祖先(内祭)和祭祀自然神(外祭)，内祭亦称“庙祭”，意为庙堂祭祀；外祭亦称“郊祀”，意为郊野祭祀。<sup>1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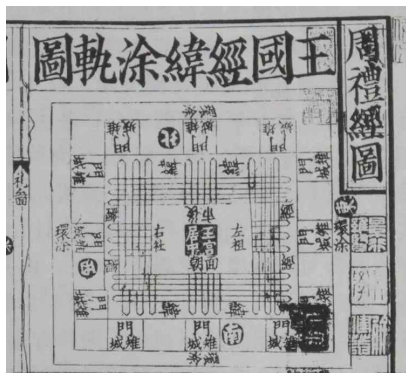
古人讲“封土为坛”；在坛的上面建筑高墙、修建屋顶即为宫；宫中整齐摆放祭品并供奉祭祀对象即为“庙”。『诗经』多为祖先祭祀，故祭祀活动多举行于庙宇，如〈鲁颂·閟宫〉：“閟宫有恤，实实权权”，“閟”通“秘”指神明，“有恤”为清静之意，意思说祭神的庙宇肃穆而又清静、布置细致、陈设讲究。〈商颂·殷武〉：“寝成孔安”，古代的宗庙分两部分，前面祭祀的地方叫做“庙”，后面放置祖先牌位的地方叫做“寝”。〈周颂·清庙〉：“於穆清庙，肃雍显相。”清庙原意为清静的宗庙，这里指代周人专祭文王的祭庙。〈周颂·有瞽〉：“有瞽有瞽，在周之庭。”庭，指宗庙的前庭，面积较大的庭院。

中国古代建筑中，祭祀自然神灵的叫做“坛”（如：北京的天坛、地坛、设计坛，还有日坛、月坛等等）。所谓“坛”，实际就是一个台，甚至没有墙壁与屋顶，十分朴素。

祭祀对象是已故之人的建筑叫做“庙”，或者“祠”（如：中国最多的祭祀庙就是祭祀孔子的“孔庙”，或者叫“文庙”，全国各地都有孔庙；又如：祭祀关公的“关帝庙”；湖南祭祀屈原的“屈子祠”；四川成都纪念诸葛亮的“武侯祠”，永州的纪念柳宗元的“柳子庙”）。除对少数历史人物祭祀之外，最常见的人物祭祀就是“祭祖”，即祭奠祖先。

12) 常玉芝, 『商代周祭制度』, 中国社会科学出版社, 1987, p.304.





〈图2〉周礼王城左祖右社布局<sup>13)</sup>

在中国古代，老百姓家家户户都要祭祖，普通人家祭祀的地方叫作“家庙”或者“祠堂”，皇帝祭祖的地方叫作“太庙”。与及自然神的“坛”不同，祭奠祖先的“祭祀庙”建筑极其讲究。中国古代皇宫的布局有三个重要因素，其一是“五门三朝”，其二是“前朝后寝”，其三是“左祖右社”。“左祖右社”是皇宫祭祀的重要体现，起源于周朝。所谓“左祖”，即左边是皇帝祭祖宗的祖庙，又称作“太庙”；所谓“右社”，即右边是祭祀天地自然神的社稷坛(这里的“左、右”是按照君王坐于正堂、坐北朝南面向的左侧和右侧)。

以明皇宫（故宫）太庙<sup>14)</sup>为例，三进殿堂，重檐庑殿顶<sup>15)</sup>，十一开间，三层的汉白玉台阶，其建筑风格雄伟亦与祭祀的政治教化作用有关。〈礼记·王制〉载：“天子七庙……诸侯五庙……大夫三庙……士一庙……庶人祭于寝”<sup>16)</sup>，

13) <https://zhuanlan.zhihu.com/p/74609075>

14) 北京故宫的太庙是和故宫同年建成的，都建于永乐18年，太庙内供奉历代先帝的排位或画像。

15) 重檐庑殿顶是古代中国宫殿建筑的一种屋顶样式，这种顶式是明清代所有殿顶中最高等级，庑殿顶又叫四阿顶，是“四出水”的五脊四坡式，又叫五脊殿。这种殿顶构成的殿宇平面呈矩形，面宽大于进深，前后两坡相交处是正脊，左右两坡有四条垂脊，分别交于正脊的一端。重檐庑殿顶，是在庑殿顶之下，又有短檐，四角各有一条短垂脊，共九脊。现存的中国古建筑中，如太和殿、武当山金顶，明十三陵长陵祔恩殿即此种殿顶。

16) 胡平生，张萌译注，《礼记》，中华书局，2017，p.153.

〈礼记·曲礼下〉中说到：“君子将营宫室，宗庙为先，厩库为次，居室为后。凡家造：祭器为先，牺赋为次，养器为后。无田禄者不设祭器；有田禄者，先为祭服。君子虽贫，不粥祭器；虽寒，不衣祭服；为宫室，不斫于丘木。”<sup>17)</sup>这反映了西周在祭祀中体现出的严格的社会等级制度，明确的宗法等级关系。

### 3. 祭祀物品

#### 1) 商的祭祀物品

祭祀活动中非常重要的部分就是祭祀物品，即“祭品”。古代以祭祀为目的而宰杀的祭品被称为“牺牲”<sup>18)</sup>，商人的牺牲种类大体可分为两类：一是物牲，二是人牲。物牲既包括牛、羊、豕、犬等，也包括鬯、琏、贝等；人牲则多为俘虏、奴隶等。商的祭祀文化中最重要的一项就是“人祭”，即将人作为祭祀物品，主要用于祭祀和殉葬仪式中，可分为“人殉”和“人牲”两种制度，人殉是让死者身边的人去陪葬，多是死者的妻妾奴婢，佣人等，主要是服侍死者的人，是供墓主“用（役使）”的，这样的人数很少。而人牲是把战俘等人杀掉祭祀神灵或先祖，数量较大。人牲是供祖先、神灵“食”的，而吃敌人是古老的传统，所以用的是俘虏、仇人。人殉埋在被葬者的墓里面，身体完整，目的是到另外一个世界服侍主人；人牲则是埋在专门的祭祀坑中，头和身体分离，防止到另外一个世界复活作乱。这两种制度都伴随早期国家发展而出现，在原始的宗教活动中进行。<sup>19)</sup>

17) 胡平生，张萌 译注，前揭，2017，p.99.

18) 牺牲是以祭祀为目的而宰杀成为祭品的牲畜，如牛、羊、猪、鸡、鸭、鱼等，谓之牲醴或牺牲酒醴。与人牲、人殉一样，兽牲与兽殉制度也起源于原始社会末期，到商代晚期进入其鼎盛时期。商代晚期的殷都地区，牲畜业发达，家畜饲养的数量很大，且统治阶级喜爱田猎，每次大规模的田猎，捕获的野兽也较多。在殷墟考古发掘中发现的兽牲与兽殉比人牲与人殉更为普遍。殷墟墓葬中殉葬的动物有牛、羊、犬、马、猪、鸡等。

19) 齐文心·王贵民，『商周文化志』，上海人民出版社，1998，pp.103-105.

商代具有众多标志性的文化特征，其中比较重要的一个就是：商人迷信、好占卜。神权是商文明的一个显著特征，与神权密切相关的祭祀活动是商代社会的重要活动。在殷墟发现了数千座祭祀坑，如：王陵区祭祀坑、小屯北宫殿宗庙区的祭祀坑、族墓地附近的祭祀坑等<sup>20)</sup>，其中多处发现商人人祭的考古证明。这里，我们简单梳理一下商的历史及其文化特征。

〈商颂·玄鸟〉中说到：“天命玄鸟，降而生商。”<sup>21)</sup>商朝中期，盘庚迁殷，即商王盘庚把商朝国都迁到了殷这个地方，这也是后来商被称作“殷”的原因，但商人自己不称“殷”，商人称自己的国都为“大邑商”，是一种尊称。“殷”是周朝开始对商的称呼，在当时“殷”是带有一定贬义的。<sup>22)</sup>商末代君主就是著名的纣王。关于纣王的个人特点，〈史记·殷本纪〉记载：“帝纣资辨捷疾，闻见甚敏；材力过人，手格猛兽；知足以距谏，言足以饰非；矜人臣以能，高天下以声，以为皆出己之下。”据司马迁描述，纣王能文能武，是一个很聪明也很勇猛的人物。但是他有才无德，做了很多昏庸无道的行为，比如九池肉林、宠爱妲姬、施炮烙之刑、挖比干之心等各种各样的恶行。关于这样的记载，实际上古人有一些不同的看法，比如〈论语·子张篇〉“子贡曰：纣之不善，不如是之甚也。是以君子恶居下流，天下之恶皆归焉。”意思是，商纣是不是像传说中那么不堪呢？恐怕也不一定吧，有德行的人要注意，不要让自己像纣王一样被人放到那样的位置上去了。纣王是否真如史书记载那般残忍，我们不得而知，但经过几千年的文学加工，商纣这个词早已演变成了一个文化符号<sup>23)</sup>，

20) 陈梦家，『殷墟卜辞综述』，中华书局，1988，pp.337-345。

21) 据说，帝喾的次妃简狄是有戎氏的女儿，与别人外出洗澡时看到一枚鸟蛋，简狄吞下去后，怀孕生下了契，契就是商的始祖。“玄鸟”是古人对燕子的称呼，因燕子通体黑色，故名“玄鸟”。以貌取名，简单朴素。当时，玄鸟、凤都是指燕子。

22) 郑振香，『甲骨文的发现与殷墟发掘世纪回眸』，『殷都学刊』，1999年2月，p.19。

23) 翻遍二十四史，我们会发现商朝之后，再没有任何一个朝代以商为国号，这是一个很有意思的现象。从远古到近代，任何一个王朝给自己起国号都是一件极为慎重的事。一般来讲，如果开国之君是为了强调本朝对于某个朝代的继承关系，往往会直接把该朝代的国号拿来使用。同为上古三朝，后世出现过李元昊建立的西夏，郭威建立的后周，还有宇文觉建立的北周，但商作为国号在殷商之后就彻底消失了，其中的原因或许与商朝在中国历史上的口碑有关。

这与纣王本身的人品道德已经没有多大关系了。

人牲与人殉，是原始社会晚期出现的社会现象，都不是商独有的，但在商朝时发展到了顶峰，至商代晚期极为流行，最多的时候一次杀几百个人牲作为祭品去陪葬或祭祀。考古研究发现，商朝祭祀时的人牲大多不是商朝人，而是周围部族，其中最多是羌人。商人有一个习惯，就喜欢猎羌，羌是西边的一个部落，在商人的观念里，羌人不能算人，是一种类似于动物的存在，所以甲骨文里面记载商人去攻打羌，也不说这是一个军事行动，而说“猎羌”，像猎杀动物一样去狩猎，他们把羌人抓来之后，就当做人牲使用。<sup>24)</sup>商朝的灭亡，与它的人祭文化也存在一定关系，因为人牲祭祀活动引起周围部族恐惧，后期周人借机联合周围部族灭商。

人殉从夏商周开始一直存在，天子死后，殉葬者多则达数百人，少也数十人，将军大夫级别的，殉葬者多则数十，少则几个。据考古发掘显示，公元前621年，秦穆公去世，殉葬者居然高达一百七十七人。<sup>25)</sup>以人为祭品这种祭祀文化，在封建社会以后逐渐减少，活人殉葬会损失国家的人口和劳动力，阻碍社会进步，许多封建统治者也逐渐意识到了这一点，而且活人殉葬也不符合儒家的伦理标准，所以秦始皇以兵马俑代替真人，汉代以后用陶俑代替，从汉武帝开始一直到元朝，这一制度被逐渐的废弃，不再广泛流行。<sup>26)</sup>排除生产力等经济因素，祭祀物品的概念转变也是“人文化”“德治”的一种体现。周代政治管理是通过“礼”与“德”来实现的，商代之后“君权”代替“神权”，祭祀物品的概念转变也进一步体现了“君主的道德化”、“王权的合法化”，是对政治管控的一种加持。

## 2) 周的祭祀物品

不同于商代，周代已形成完善的礼制祭祀，“人祭”这种有背人伦和文明的

24) 商朝时，周人扮演了一个不光彩角色，担任商朝西部首领，定期给商人缴纳俘虏用于祭祀。

25) 王晖，『商周文化比较研究』，人民出版社，2000，pp.286-309.

26) 王晖，前揭，p.287.

祭祀方式虽偶有出现，但在提倡礼法的周代已不再是主流。随着君王制的发展，王权的扩大，阶级以及礼制的概念被不断巩固完善，而祭祀也成为了制度的一部分。周人的祭祀除祈求庇佑之外，还具有一定的现实作用和社会教化功能，儒教就是以周人重“礼”为根基发展而来。祭祀物品种类繁多，肉类、酒醴、粮食、果蔬等不同祭品需配以不同器皿<sup>27)</sup>，使用规范，制度严明，这些礼数不仅体现出周人对祖先的尊重，对祭祀的虔诚，同时也体现了当时社会的阶级观念和政治教化。

以食材为例，《诗经》中的祭祀食材包括谷物、瓜果、酒、肉几类，其中酒和肉在古代祭祀中意义重大，祭祀用的酒又称“酒醴”，祭祀用的肉又称“牲肉”，下面笔者将着重对这两类祭祀食材在《诗经》中的呈现进行分析。

### (1) 祭祀牲肉

祭祀的“祭”字，从象形意义上看，就是手执肉而祭，左上部为“肉”，右上部为“手”，下面的“示”代表献拜，可见肉类在祭祀中的重要意义，“祭”字的象形含义如下图所示：



〈图3〉“祭”的象形注义<sup>28)</sup>

古代有“六畜”之分，即牛、羊、马、犬、鸡、豕，六畜在祭祀中被宰杀，称为“牲”，有祭献之意。《诗经》中牛羊为重要的祭品，〈周颂·我将〉：“我将我享，维羊维牛，维天其右之”；〈周颂·良耜〉：“杀时稯牡，有球其角”，稯是黄色的牛；〈周颂·丝衣〉：“自堂徂基，自羊徂牛”等。“太牢”为周代祭祀使用的

27) 杨飘飘，「诗经祭品种类概述」，《讨论与争鸣》第221期，2019，p.79.

28) 字源查询：<http://qiyan.chaziwang.com/etymology-3327.html>

牺牲，是六牲的最高规格，为天子祭天所用，据『礼记』所载太牢为活牛一只，“牢”是指在祭祀之前将牲畜圈养起来，有牢困之意。“太”意为大，故“大牢”或“太牢”亦作“牛”的代称。“少牢”为诸侯、卿大夫祭祀所用，为活羊一只，或士绅祭祀时的活猪一只。从西周至明代，牺牲的规格都如前所述，清代以后发生改变，“太牢”意指牛肉、羊肉、猪肉，而“少牢”意指羊肉和猪肉，且无需全牲。

另外，鱼也是『诗经』中重要的祭品，寓意多子多福的吉兆。〈周颂·潜〉就描写了周王用鱼作祭品祭献祖先：“猗与漆沮，潜有多鱼。有鱣有鲔，鲦鲿鰋鲤。以享以祀，以介景福。”鱼的种类包括鱣鱼、鲔鱼、鲦鲿，还有鰋鲤，祭品丰富，足见周人祭祖时的虔诚和恭敬。

## (2) 祭祀酒醴

粮食也是祭祀的贡品之一，周代主要粮食为“黍”，亦作“黍稷”，就是现在的“稷子、糜子”，俗称“黄米面、黄小米”。黍也可用于酿饮，是古人制酒的原材料，如〈周颂·丰年〉：“丰年多黍多稌，亦有高廩，万亿及秬。为酒为醴，烝畀祖妣。以洽百礼，降福孔皆。”；〈周颂·载芣〉：“载获济济，有实有积，万亿及秬。为酒为醴，烝畀祖妣。”由粮食谷物酿制的酒醴被用来祭祀先祖，以求神明庇佑。

『诗经』中出现的酒，通过风雅颂的比较，可以发现在『国风』只有“酒”而不见“醴”。『国风』中，酒更多是一种感情表现，如〈邶风·七月〉中的“为此春酒，以介眉寿”，寓意春天所特有的醉人感觉。但是三颂的祭祀诗中，并不突出酒在感情上的意义，祭祀中的“酒”常常与“醴”相对应，“醴”是一种甜酒，酒与醴一起被用于祭祀，让祖先和神灵所享用。『周颂』多篇出现酒醴，如〈周颂·丝衣〉：“旨酒思柔”；〈周颂·载芣〉：“为酒为醴，烝畀祖妣，不洽百礼”；〈商颂·烈祖〉：“既载清酤，赉我思成”，<sup>29)</sup>这里的“清酤”就是酒的意思；还有不少诗篇亦以“醉”示酒，如〈周颂·执竞〉：“既醉既饱，福禄来反”等。

29) 徐志春，『诗经译评(下)』，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2010，p.1338.

三颂中祭品种类繁多，用于盛放祭品的器皿也多有讲究，侧重礼仪。这种礼教观念奠定了儒教的基础，以孔子为代表的儒家文化就是发展于周人的“知礼”之上，并在之后的几千年里发挥着重要影响。

## 4. 祭祀程序

### 1) 商的祭祀程序

在祭祀活动被赋予政治意义之前，商代的很多祭祀程序呈现出简单、粗糙的原始文明祭祀特点，比如“碎物祭”和“鞠祭”。

#### (1) 碎物祭：

在商代，还没有形成繁冗、规制的祭祀礼仪，人们的祭祀观念是比较朴素的，比如将食物放在死者身旁，或供奉在坟墓前，或把死者所有的一切财产、生前的用品放在坟墓中。但是这些祭祀物通常是被毁坏的，因为古人认为只有被破坏掉的东西才能成为“鬼物”，为逝者或神灵所用，比如被打破、被火烧，或用别的方法毁坏。在古代中国，这种祭祀方式在石器时代、商代、西周甚至秦汉时期都有发现，这种祭祀方式被称之为“碎物祭”<sup>30)</sup>。考古材料表明，在世界文明早期，许多地区都出现过这种把祭品打碎埋入祭坑或坟墓的祭祀方式。在商代和西周的墓葬祭坑中，被发现的碎物祭品有：马车、青铜器、陶器、骨卜等。马车、青铜器等重物一般被拆开置入坑中，陶器、骨卜即被摔碎置入坑中。<sup>31)</sup>后来，摔碎器物为死者送葬慢慢地演变为民间习俗，至今在广大的农村地区，仍存在“摔火盆”，即死者起灵出殡之后、入土之前在家里的最后一道仪式。

30) 考古学中，碎物祭的发现较晚，因为将器物故意打碎和买入祭坑时自然损坏，两种形式难以甄别，直到考古人员发现有些破碎祭物的碎片不是集中散落在一处，而是距离较远，更符合人为打碎并分散地置于祭坑各处的行为。

31) 何靖，「商代卜辞中所见之碎物祭」，《中国文化》第11期，pp.75-79。

## (2) 鞠躬：

商代还有一种祭天仪式叫做“鞠躬”<sup>32)</sup>，这种祭祀形式也来自商人朴素的祭祀观念，为了表达祭者的恭敬与虔诚，将猪、牛、羊等动物祭品的身体弯蜷成圆形，呈现出胎生动物的最初模样来祭祀神灵。有资料显示，后来这种祭祀形式渗入到人们的普通生活中，人们以此“蜷曲”的姿态来表示对长辈、君主的尊敬，也就是现在的“鞠躬”。

商代的祭祀功能主要体现在“悦神”，以求神明和祖先的庇佑，祭祀观念朴素，祭祀程序简单、粗糙，这与周代的礼制性、政治性祭祀是完全不同的。

## 2) 周的祭祀程序

周朝实行礼治，〈周颂·丝衣〉：“自堂徂基，自羊徂牛，鼐鼎及鼐”，鼐指大鼎，又称头鼎；鼐是上部收紧的小口鼎。鼎的使用遵循等级，所谓“一言九鼎”，“九鼎”即指君主，周代天子用九鼎，依等级递减，诸侯七鼎，大夫五鼎，元士三鼎，士一鼎，普通百姓没有资格用鼎。不同的鼎，形制、尺寸、花纹，用途都不同，这也体现了周代的礼制严谨。<sup>33)</sup>周代祭祀礼仪详细、分类具体、等级严明。

周代国家典礼仪式逐渐被固化，祭祀之礼也随之变得更加隆重庄严。〈大雅·生民〉中写到祭祀的程序：“或舂或揄，或簸或蹂。释之叟叟，烝之浮浮。”“载谋载惟，取萧祭脂，去羝以馘。载燔载烈，以兴嗣岁。印盛于豆，于豆于登。”周朝大型祭祀主要由王室举行，设施相当齐全。考虑到当时的生产力水平，经济发展程度，物质资源等因素，周人在祭祀活动中所使用的器皿可

32) 人们在现实生活中，逐渐援引这种形式表示对地位崇高者、长辈等的崇敬。这种礼节在春秋时期就已出现，如〈论语·乡党〉：“入公门，鞠躬如也。”另一种说法，在日本，“鞠躬”动作是将自己的颈部伸出给对方，即将身体中最重要和致命之处展示给对方，有将自己生命交付对方把握之意。鞠躬是服从、顺从的表现。鞠躬作为寒暄礼仪诞生于日本飞鸟、奈良时代，参照引进的中国礼法，制定了适合身份的鞠躬形式。『鞠祭』『万象 ORIGIN OF EVERYTHING』2012.9, p.55.

33) 王新娟·徐小霞，「诗经·周颂中反映的祭祀文化」，『长春教育学院学报』，2014.5, p.12.



以说是种类繁多。〈小雅·楚茨〉：“执爨蹠蹠，为俎孔硕，或燔或炙”，“俎”就是古代祭祀时盛大块肉的铜制器皿；〈大雅·生民〉：“印盛于豆，于豆于登。其香始升。”〈鲁颂·閟宫〉：“笱豆大房，万舞洋洋。”这里的“豆”并非是粮食豆类，而是古代的一种器皿；〈鲁颂·閟宫〉：“牺尊将将”，牺尊是酒尊的一种，形似牺牛，“将将”是形容器具互相撞击发出的声音。〈周颂·丝衣〉：“兕觥其觶。旨酒思柔”。觶，原指用兽角制做的酒器，“兕”意为犀牛，兕觥就是犀牛角酒器。

而祭祀乐器也是种目繁杂，〈周颂·有瞽〉：“有瞽有瞽，在周之庭。设业设虞，崇牙树羽，应田县鼓，鞀磬柷圉。既备乃奏，箫管备举。喤喤厥声，肃雍和鸣，先祖是听。我客戾止，永观厥成。”在祭祀的宗庙上，排列着各种乐器，乐师合奏，声音和谐洪亮，短短几句共出现了应、田、县鼓、鞀、磬、柷、圉、箫、管九种乐器；〈有瞽〉中的“业、虞、崇牙”并非乐器，而是用于装饰乐器的饰物，不同的乐器饰物使用于不同乐器，有专门别类之分。祭祀舞蹈也有规范的程序，“大武”为周朝的大型祭祀舞蹈，秦时犹存，现已不传，作为宗庙之乐舞祭祀祖先，赞颂商周战争中的胜利及武王的英勇。“大武”非单一曲舞，而是分为众多章节，高亨在「周代大武乐考释」中的说法是：大武共分六篇诗歌，排序依次为：我将、武、赉、般、酌、桓。<sup>34)</sup>

周代祭祀程序表格整理(表1)<sup>35)</sup>

祭祀盛食物的器皿	俎、豆等
祭祀盛酒禮的器皿	爵、斗、卣、罍、兕觥、牺尊等
祭祀乐器	应、田、县鼓、鞀、磬、柷、圉、箫、管
祭祀乐器饰物	业、虞、崇牙
祭祀舞蹈	我将、武、赉、般、酌、桓

周代的祭祀制度经过不断地规范已经形成十分严格的程序化仪式，其用物之制、等级之制完整且复杂，而这一切在『诗经』中均可窥见一斑。

34) 高亨，「周代大武乐考释」，『山东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第2期，1955，pp.52-55.

35) 根据诗经内容进行整理。

## 5. 祭祀功能

### 1) 商的祭祀功能

从商到周，是神权到王权，自然神到祖先神，利益性的祈福祭祀到政治性的礼仪祭祀的转变。商代与周代的奉神观念、祭祀活动之间的差异，也是生产力发展的体现，是人与大自然在对抗中，双方势力的不断变化的结果。商朝，较夏及之前的原始社会生产力有所发展，首先，商朝形成了成熟的畜牧技术，甲骨文中出现的六畜就是马、牛、羊、犬、猪、鸡这六种动物，商人已开始大规模的养殖。在远古时代，畜牧业相当于一定的财富象征，对于一个政治集团来说，畜牧技术给商人提供了一定的经济优势。第二，商人掌握了青铜制造技术，在商人之前已存在青铜器，但是大规模的冶炼青铜器和制作复杂的青铜器技术，是在商朝完成的，商人把青铜技术应用在了祭祀和军事这两件古代最重要的大事上。第三，是商给中华文明留下的最宝贵的财富，也可以说是留下的最深刻的文化烙印，就是文字的发明，商人发明的甲骨文是中国已知最早的文字，为社会的发展奠定了重要基础。但是，对于如此重要的、具有划时代意义的发明，商人却不拿来记史记事，而是用来记录祭祀、占卜，甲骨文都是记载在甲骨上的，甲骨就是用来占卜的。<sup>36)</sup>龟甲在当时是很珍贵的资源，主要从南方运过来，是由别的部族进贡而来的，在中原地区只有商人有条件使用，由此也可知商人对祭祀、占卜的重视。

在商朝社会，虽然生产力得到了一定的发展，但相对于人的力量，人们还是更加依赖、敬畏自然的力量，生活生产活动也主要围绕占卜、祭祀展

---

36) 占卜的时候，先在龟甲上面挖一些圆形、椭圆形的凹槽，但是并不打穿，使龟壳变薄，容易裂开，这样做的目的是为了方便下一步工作就是得到“兆”，然后把处理过的龟壳放到火上去烤，龟甲上靠近凹槽的地方就会出现裂纹，这个裂纹就是所谓的“兆”。得到“兆”之后，就根据裂纹的长度、方向来预测结果，比如明天下不下雨，出征是吉是凶之类。而占卜完之后，要对这个过程进行记载，这时就要使用文字，所以，甲骨文就是刻在甲骨上的对占卜过程的完整记载，包括占卜的时间，占卜的事情，占卜的结果，以及最后是否应验。但因商人的文字很复杂，所以当时不被一般人所掌握，即使是在贵族中，也只有一些人才能掌握这样的文字。

开。商人的祭祀带有明显的原始社会的特点，他们注重悦神，以确保神明庇佑自己，是从现实角度出发的利益型行为。

## 2) 周的祭祀功能

至周代，生产力进一步发展，人的能动性增强，在这个过程中，祭祀已不仅仅是简单的悦神活动，它还承担了一定的政治功能。而祭祀中“祈福”“求庇佑”的宗教功能在政治功能的冲击下，有所减弱。《礼记·祭统》有一段文字说到祭祀的目标和意义：

贤者之祭也，必受其福。非世所谓福也。福者，备也；备者，百顺之名也。无所不顺者，谓之备。言内尽于己，而外顺于道也。忠臣以事其君，孝子以事其亲，其本一也。上则顺于鬼神，外则顺于君长，内则以孝于亲。如此之谓备。唯贤者能备，能备然后能祭。是故贤者之祭也，致其诚信与其忠敬，奉之以物，道之以礼，安之以乐，参之以时。明荐之而已矣，不求其为。此孝子之心也。祭者，所以追养继孝也。孝者，畜也。顺于道不逆于伦，是之谓畜。是故孝子之事亲也，有三道焉：生则养，没则丧，丧毕则祭。养则观其顺也，丧则观其哀也，祭则观其敬而时也。尽此三道者，孝子之行也。<sup>37)</sup>

从这段话中可以看出，周代经过“礼”的塑造，祭祀观念已经发生了变化。祭祀祖先不能变成单纯“祈求福佑”的贿赂行为和交易关系，如果为了得到某种好处才对祖先表达尊敬、祭祖行礼，就背离了祭祀的本质和初衷，这种夹杂利益的欲求是对祖先的不敬，不符合“孝”。通过这样的思想，儒家赋予了祭祀活动一种超脱利益关系的道德标准，将商代朴素的悦神行为道德化、亲情化，并以此套用在家族关系、君臣关系、政治关系之中。不同于商代的祭祀功能，周人在祭祀中所强调的不再是即时性的利益回报，而是与祭祀活动结合在一起的伦理道德。在这个基础之上，形成了儒家所说的“祭祀不祈”“自致其敬”。

“以奉神而治人，而非仅以事神”是周代祭祀的核心。<sup>38)</sup>周人在祭祀中表

37)胡平生，张萌译注，《礼记》，中华书局，2017，p.199.

38)雒三桂，「诗经祭祀诗与周代贵族政治思想」，《北京师范大学学报：社科版》，1995年03月，p.69.

现出较强的理性色彩和政治目的，这种理性色彩使周人对于祭祀有着完全不同于商人的理解。他们认为，祭祀不是为了与祖先做交易，获取眼前的利益，而是为了达到“抚国家，定百姓”的目的。（〈国语·楚语〉）。祭祖所重视的不是“祈福”的结果，而是日常生活中的社会伦理关系和等级意识、宗法意识，通过祭祖活动，这些思想与意识不断得到强化，而“祭祀不祈”这对祭祀的后人来说才是一种无形的福佑。<sup>39)</sup>就这样，周代成功完成了祭祀活动的政治性转化。

商代的祖先神更趋近与自然神，与鬼怪相近而与人类相距较远，商人眼中的祖先神缺乏道德属性，没有成为后人的道德楷模和政治典范，但正如前文所提到的，通过“尸祭”等祭祀方式，周人对祖先神的认知发生了变化，对祖先神衍生出道德感与血缘亲近感。而这种既亲切又神秘的祖先印象，最终通过道德性的跃迁成为具有政治属性的标志，祖先神开始具有高尚的道德并成为后人的榜样，血缘宗族与国家政治都与之发生连接。团结宗族、凝聚政权、确立社会基础、强调宗法制度，就是『诗经』祭祀诗最基本的出发点，而中国古代的阶级结构，天子、诸侯、卿大夫、士、庶人这种严格的金字塔式的等级结构，就在这种政治化的祭祀活动中不断得到巩固、加强。

## 6. 结论

祭祀是一种古代政治性的活动，不仅仅是一种简单的祭神，在某种意义上，它跟国家政治具有同等重要的作用，中国古代是以礼治国，“礼”很重要的一个方面就是祭祀。〈礼记·祭统〉中说“凡治人之道，莫急于礼；礼有五经，莫重于祭”，可见祭祀的重要性。祭祀是一种表达对天地自然和人文先祖的感恩和纪念，但中国古代的祭祀不是宗教，它实际上是对于后人的一种教育，承担了教化的作用，是被政治化的仪式，而这种将祭祀政治化的历史源头即始于周朝。通过『诗经』中的祭祀内容，可以看出周人对先祖的尊敬，这些诗篇所

39)王珊，「诗经中的周代祭祀及其反映出的宗法观念」，『文教资料·语言学研』2010.4. p.8

表达的不仅仅是单纯的奉神文化，还有一套相对成熟的礼仪制度；祭拜祖先的同时，侧重文化道德，强调人事秩序，起到强化政治、规划社会的作用，兼具现实功能，使祭祀成为政治文化体系的一部分。文学的价值本应在文字之上，文本之外，笔者仅凭个人拙见，以『诗经』为基础对祭祀文化进行浅析，而文学与文化的关联不应止于此，文学作品中还有更多的文化内容值得关注与探讨。

## ◆ 参考文献

### 1. 资料

- 姜亮夫等，《先秦诗鉴赏辞典》，上海辞书出版社，1998。  
沈国威，《新尔雅：附解题·索引》，上海辞书出版社，2011。  
徐志春，《诗经译评》，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2010。  
胡平生·张萌译注，《礼记》，中华书局，2017。

### 2. 单行本

- 杨庆堃，《中国社会中的宗教》，成都：四川人民出版社，2016。  
王晖，《商周文化比较研究》，人民出版社，2000。  
陈梦家，《殷墟卜辞综述》，中华书局，1988。  
齐文心·王贵民，《商周文化志》，上海人民出版社，1998。  
常玉芝，《商代周祭制度》，中国社会科学出版社，1987。

### 3. 论文

- 陈烁，「“社稷”源流」，《宁夏师范学院学报》第8期，2018，pp.93-99。  
高亨，「周代大武乐考释」，《山东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第2期，1955，pp.50-68。  
王珊，「诗经中的周代祭祀及其反映出的宗法观念」，《文教资料·语言学研究》，2010年4月，pp.5-12。  
王浩，「商代人祭对象问题探论」，《文博》，1988年6月，pp.33-37。  
胡新生·白杨，「周代尸祭礼与中国祖先崇拜观念的转型」，《文史哲》，2022年5月，pp.33-43。  
郑振香，「甲骨文的发现与殷墟发掘世纪回眸」，《殷都学刊》，1999年2月，pp.15-21。  
何晴，「商代卜辞中所见之碎物祭」，《中国文化》第11期，pp.74-84。

雒三桂, 「诗经祭祀诗与周代贵族政治思想」, 『北京师范大学学报: 社科版』, 1995年 3月, pp.55-72.  
 晁福林, 「论殷代神权」, 『中国社会科学』第1期, 1990, pp.53-59.  
 聂麟泉, 「诗经三颂祭祀对象研究」, 『吉林广播电视大学学报』 第205期, 2019, pp.147-149.  
 杨飘飘, 「诗经祭品种类概述」, 『讨论与争鸣』第221期, 2019, pp.78-80.  
 张园, 「诗经·周颂中的祭祀礼仪研究」, 『历史文化研究』第1期, 2019, pp.237-238.  
 王新娟·徐小霞, 「诗经·周颂中反映的祭祀文化」, 『长春教育学院学报』第10期, 2014年 5月, pp.12-26.  
 「鞠祭」, 『万象 ORIGIN OF EVERYTHING』, 2012.9, p.55.

**4. 网络资料**

字源查询 <http://qiuyan.chaziwang.com/etymology-7349.html>  
 字源查询 <http://qiuyan.chaziwang.com/etymology-3327.html>  
<https://zhuanlan.zhihu.com/p/74609075>  
<https://www.ehanlin.com.tw/keywordPool/wordPage.html?key=%E7%94%B2%E9%AA%A8%E6%96%87&subject=J-HI>  
[https://www.douban.com/note/813538404/?\\_i=7020581F4o2mMM,7025827F4o2mMM](https://www.douban.com/note/813538404/?_i=7020581F4o2mMM,7025827F4o2mMM) 豆瓣 「尸”与“尸祭”」

논문접수일	2022년 11월 09일
심사완료일	2022년 11월 27일
게재확정일	2022년 12월 08일

*Abstract*

---

The Political Evolution of Sacrificial Activities from Shang to Zhou from  
the View of the Shih-ching

Deng, Xin

A civilization is determined by several factors, including language, writing, blood, race, religious beliefs, and cultural customs, some of which are strongly correlated and some are weakly correlated. For Chinese civilization, religious belief is the factor is relatively weak. The witch culture and sacrificial culture in the ancient society of Xia, Shang and Zhou did not follow the track of religion. Instead, starting from the Zhou Dynasty, sacrificial activities were politicized and became part of national rituals and politics. The Shih-ching is a treasure of Chinese literature. Such works not only have extremely high literary value, but also contain rich cultural significance. From the Shih-ching we can see that, The sacrificial activities changed from the pure worship of the gods in the Shang Dynasty to the activities with political functions, which were endowed with an ethical color and assumed moral education. The change of this nature has an extremely important impact on the history of Chinese culture. This article starts from the content of sacrifice in The Shih-ching combined with other historical materials and documents, following the four most important elements in sacrifice activities, including: sacrifice objects, sacrifice things, sacrifice procedures and sacrifice functions, to analyze the process of the transformation from primitive superstitious sacrifices to political sacrifices. The interpenetration between culture and politics does not happen overnight. Understanding the pervasive political culture of China since ancient times is of great help to better understand the political environment of modern and contemporary China.

**Keyword**

Shih-ching (Book of Songs), Odes of Zhou, Ancestor God, Natural God, Shi Ji, Human sacrifice





## 博物学视野下的宋代琼花诗研究

侯美灵\*

### 국문요약

중국 고대 문학에서 활용된 여러 가지 화훼 제재 중, 경화(瓊花)는 매우 특이한 이미지로 사용되었다. 송, 원, 명, 청 시기 문인들이 시사를 비롯 여러 문체에서 즐겨 사용하였던 제재이기도 하다. 필자는 그중 송대 시인 101명의 경화시 130수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시들 안에서 송대 문인들이 중시하였던 박물(博物)의 전통이 계승되는 면모를 발견하였다. 아울러 사물에 대한 변별 의식과 특히 양주(揚州) 지역에 대한 문화적인 인식 또한 이 작품들 안에서 구현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송대 지방 문헌에 수록되어 있는 문화적 인식과 지역 명물과 명승지에 관한 기록을 통해 당시 문인들이 고도로 융합된 사고를 하였으며 그것이 그들의 창작으로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동시에 송대 문인들의 경화시에는 그때 당시 정치의 흥망성쇠, 이민족과의 전쟁 등 여러 역사적 사건에 대한 그들의 관점과 의식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방면에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다만 기존의 연구들이 다소 고증에 치우쳐 있는 경향이 있어, 본고에서는 박물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송대 경화시를 분석 및 고찰해보고자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필자는 먼저, 송대 이전 시기의 박물학 발전사 및 송대 문인들의 식물을 제재로 하는 창작이 흥성하게 된 원인과 배경에 대해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송대 문인들이 경화, 옥예화(玉蕊花), 취팔선(聚八仙)등 세 가지 꽃에 대해 각각 다르게 인식하고 제재로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송대 시가 창작에 있어서 활용된 경화의 이미지는 일련의 변화 과정이 있었다. 먼저 하양과 귀여운 꽃에서 인간 세계에 쫓겨 내려온 선녀로 변화였고, 다시 고향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바뀌었다가, 마지막에는 남송의 멸망에 따라 이민족과 맞서 싸우는 용사와 순국 충신의 이미지로 변화하였다. 이런 이미지의 변화를 통해 당시 문인들의 의식 변화를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고를 통하여 박물학 연구와 문학 연구에 있어서 ‘경화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소개할 뿐만 아니라, 송대부터 청대 심지어 근대에 이르기까지 문인들 사이에 있었던 경화, 옥예화, 취팔선과 관련된 논쟁을 해결하는데 조금이나마 실마리를 제공하였기를 기대한다. 또한 지방 문헌 분석을 통해 송대에 문화 중심지였던 양주에 대한

\* 고려대학교 중일어문학과 박사수료, 고려대학교 4단계 BK21 중일교육연구단 참여대학원생

지역적 이해를 넓히고, 아울러 경화시에 대한 다각적인 해석을 시도하는데 일조하였기를 바라는 바이다.

**주제어** 경화시, 송대, 박물학, 이미지, 양주

## 〈目象〉

1. 序论
2. 宋前博物学发展史与宋代植物写作
3. 名物与辨识：琼花与玉蕊、聚八仙之争
4. 宋诗中的琼花意象
5. 结论

## 1. 序论

大自然中感人情志的事物至多，而花则是其中最重要的一种，因人之生死、事之成败、物之盛衰、都可以纳入“花”这一短小的抒写之中。1) 宋代文人对花更是偏爱有加，他们喜爱赏花、咏花、养花、赠花，男女老少皆爱簪花，花卉审美在宋代渐染成俗。同时，在博物纪异传统的影响下，以博学相尚、“资书以为诗”的宋代文人们，将注意力集中于花的抒写。在这些花卉中，按照“以九品九命，升降次第之”排列的话，琼花位居“二品八命”之首，2)为“宋代最著名的花卉”，号称天下无双，奇贵无比。3)琼花较为传奇，据清『琼花志』云：“『郡志』谓琼花植于汉唐(据笔者考证植于唐，非汉)，两荣于宋，一揭于金，再枯于元。为琼花之始末。”4)它的出现、繁荣、凋谢与消失，关系着宋代

1) 叶嘉莹，「几首咏花的诗和一些有关诗歌的话」，『迦陵论诗丛稿』，石家庄：河北教育出版社，1997，pp. 62-63.

2) (宋)张翊撰，〈花经〉，见(清)虫天子编辑，『香艳丛书』四集卷一

3) 祁振声，「唐代名花“玉蕊”原植物考辨」，『农业考古』，第3期，1992，p. 213.

4) (清)陈梦雷编，『古今图书集成』，第16卷，台北：文星书店，1964，p. 227.

的命运，似乎有和大宋王朝共兴亡之味，因此它成为宋代诗人词客乃至以后小说家们频繁歌咏的对象，而集中歌咏的朝代则肇始于宋代。据笔者统计，宋代共有101位诗人130首琼花诗，<sup>5)</sup>20位词人的25首琼花词。其中不乏像王禹偁、宋祁、欧阳修、韩琦、鲜于侁、秦观、吕本中、杨万里、方岳、刘克庄、汪元量等知名诗人，而像苏轼、秦观、晁补之、贺铸、张先等著名词人也留下了琼花词作，上有宋徽宗赵佶，宰相韩琦、扬州地方官、下有僧人、词人、画家，创作队伍小有规模。琼花诗体现了宋人博学多识传统之秉承，名物辨识之自觉意识，承载着扬州的地方文化记忆，显现了宋代博物学的地方文献、文化记忆与名物纪胜的高度融合。目前学术界对琼花诗的研究主要分成两派，一派是考证派，从史学观点考证琼花的历史，如周武忠、贾芳芳、姜莉等学者的文章，<sup>6)</sup>或从自然科学角度考证琼花的归属，从史科学角度考证琼花及其琼花诗问题，如舒迎澜、陈雪飞、蒋少华等学者的文章。<sup>7)</sup>另一派是文学分析派，如郑玲、曹武的「试论北宋咏琼花诗」，<sup>8)</sup>对琼花与玉蕊花、聚八仙及何时出现进行了考辨；统计出北宋咏琼花诗超20首，概括出琼花诗的三种主要内容，并探讨了琼花意象和地域文学的关系；余吉生「宋代文人的琼花书写」<sup>9)</sup>

5) 笔者统计的主要依据是『全宋诗』及郭明道校注的『扬州琼花诗词』（南京：江苏古籍出版社，2001）。另外，需要说明的是，宋代诗人将琼花、玉蕊花、聚八仙混淆在一起，歌咏琼花的共76人92首，如果加上歌咏玉蕊花的16人23首，歌咏聚八仙的6人6首，宋人又将琼花称作玉绣球，歌咏玉绣球的6人9首，加在一起算的话，一共101人（中有部分诗人重复）130首诗。

6) 周武忠的「琼花史考」（『中国农史』，第4期，1987，pp. 104-108.）考证了琼花名称的由来、古琼花的栽培历史、古今琼花的所属；他的「琼花古今谈」（『中国花卉盆景』，第3期，1987，p. 44.）考证了古琼花的栽培朝代和是否为扬州独有等问题。贾芳芳、姜莉的「宋维扬名花考述」（『河北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第6期，2019，pp. 13-20.）中关于琼花的部分，考证了宋人及其以后琼花创作概况及琼花的所属问题。

7) 舒迎澜「中国古代的琼花」（『自然科学史研究』，第4期，1992，pp. 346-352.）认为琼花、八仙花、玉蕊花当属同一物种；陈雪飞「『全宋诗』所见扬州琼花五考」（『扬州教育学院学报』，第3期，2017，pp. 7-14.）考证了琼花非出现于唐代、琼花非玉蕊、聚八仙，现今扬州市花琼花为嫁接所得，琼花非亡于绍兴年间。蒋少华的「宋代琼花的人文发现」（『扬州教育学院学报』，第3期，2017，pp. 7-14.）从历史深处探寻琼花为何有种种神异，古今琼花的异同，隋炀帝为何因赏琼花而导致亡国等谜团。

8) 载于『池州学院学报』，第4期，2009，pp. 52-54.

在对琼花的身份考证、认定之后，着重分析了琼花意象——花与人的品格共通、花与城市（扬州）的生死共通。这一派涉及内容也与考证相关，对琼花的艺术分析也多浅尝辄止。本文以琼花诗为研究对象，着眼于博物学视角，并从意象入手，重点分析琼花诗的深层意蕴，以就教于方家。

## 2. 宋前博物学发展史及宋代植物写作

中国古代有“博物”观念但无“博物学”学科，而“博物”观念亦有广义和狭义之分。广义上的“博物”指通晓众物、见多识广，是“博学”的同义词，如〈汉书·楚元王传赞〉曰：“博物洽闻，通达古今。”狭义上的“博物”出自〈论语·阳货〉“多识于鸟兽草木之名”，又称“多识”，指拥有一定的动植物知识。如欧阳修〈笔说·博物说〉曰：“螽蛄是何弃物，草木虫鱼，诗家自为一学。博物尤难，然非学者本务，以其多不专意，所通者少，苟有一焉，遂以名世。当汉、晋武帝，有东方朔、张华，皆博物。”<sup>10)</sup>在欧阳修看来，所谓的博物即知晓众多草木虫鱼并达到精通的水平。博物学乃外来概念，大致对应于西方所说的“自然史(natural history)”，是在西方强大的理性科学背景下被辨识出来的一种知识传统，<sup>11)</sup>是人类在宏观尺度上与大自然打交道、求得可持续生存的一门学问和技艺，涉及对大自然的观察、描述、分类、系统感知和利用，兼顾知识、情感和价值观等多个维度。<sup>12)</sup>简言之，博物学即是研究动物、植物、矿物、生理等的学科，着眼于观察、描述、采集、命名、分类工作，而非观念演绎。有学者认为，中国传统学问的根基和精髓在于博物学，而并不是高度意识形态化的儒学，也不是如今已沦为附庸风雅的“六艺”。正是敦厚而鲜活的博物学传统，铸就了中国文化的灵魂。<sup>13)</sup>

9) 载于『扬州大学学报(人文社会科学版)』，第3期，2008，pp. 99-103.

10) 朱易安、傅璇琮等主编，『全宋笔记·第一编五』，郑州：大象出版社，2003，p. 212.

11) 吴国盛，『博物学：传统中国的科学』，『学术月刊』，第4期，2016，pp. 11-19.

12) 刘华杰，『博物学文化与编史』前言，上海：上海交通大学出版社，2014，p. 1.

13) 余欣，『中国博物学传统的重建』，『中国图书评论』，第10期，2013，p. 45.

## 1) 宋前博物学发展史

中国虽然没有“博物学”一词，但实际上博物学在中国有着悠久的传统。先秦时期《周易·系辞下》曰：“仰则观象于天，俯则观法于地，观鸟兽之文与地之宜，近取诸身，远取诸物，于是始作八卦，以通神明之德，以类万物之情。”<sup>14)</sup>这反应了先民强调亲知的博物意识。中国第一部诗歌总集《诗经》可谓是博物学的巨著，孔子曾劝其子孔鲤多学《诗经》即是基于此的考虑，他说：“小子何莫学夫诗？诗可以群，可以怨。迩之事父，远之事君，多识于鸟兽草木之名。”现存《诗经》305篇作品中，有141篇492次提到动物、144篇505次提到植物，89篇235次提到多种自然现象，<sup>15)</sup>建构了动植物指称关系的体系。中国文学史上第一部浪漫主义诗歌总集《楚辞》也可以被看作是一部大自然的百科全书，诚如刘勰所说其：“衣被词人，非一代也。故才高者苑其鸿裁，中巧者猎其艳辞，吟讽者衔其山川，童蒙者拾其香草。”<sup>16)</sup>它所创造的香草美人传统一直为后世所用。紧随其后的《山海经》可谓是中国博物学传统的基石、战国时代方术博物学之集大成者，<sup>17)</sup>开创了中国咏物文学的博物纪异的传统。<sup>18)</sup>魏晋时期是中国博物学的鼎盛时期，这一时期风气尚博好异，涌现了一大批博物学家和博物学著作，有王粲和荀氏家族、张华、雷焕、傅玄、左思、张载、郭璞、葛洪、顾恺之等，而博物学著作也涉猎经史子集多达130部。<sup>19)</sup>隋唐时期的博物学主要体现在以本草为代表的医药学方面，因为“在所有的药物中，有宝石、矿物质、草、树木产品、藤本植物和部分兽类。然而我

14) 金永译解，《周易：奠定“中正”之修的上古奇书》，重庆：重庆出版社，2015，p. 420.

15) 胡淼，《诗经的科学解读》前言，上海：上海人民出版社，2007，p. 1.

16) (南朝梁)刘勰著，王运熙，周锋译注，《文心雕龙译注》，上海：上海古籍出版社，2016，p. 40.

17) 余欣，《中国博物学传统的重建》，《中国图书评论》，第10期，2013，p. 49.

18) 路成文，《中国古代咏物传统的早期确立》，《中国社会科学》，第10期，2013，p. 140.

19) 经部著作有陆机的《毛诗草木虫鱼疏》，郭璞的《尔雅注》等5部，史部有续咸的《异物志》等11部，子部有张华的《博物志》、郭璞的《山海经注》、嵇含的《南方草木状》等22部，集部有郭璞的《楚辞注》等4部，还有像何晏的《冀州论》等88部博物地志。参考吴作奎，《古代文体研究论稿》，武汉：武汉大学出版社，2016，pp. 7-23.

们之所以称博物学为‘本草’是因为绝大多数药物来源于草类”。<sup>20)</sup>现存的大部分本草学文献都是从隋唐时期的本草著作中衍生出来的，出现了由博物学家苏敬等人奉敕撰于659年的『新修本草』、博物学家陈藏器撰于739年的『本草拾遗』、博物学家李珣写于923年的『海药本草』。『新修本草』是“在所有的文明世界中，第一部通过国家法令颁布的国家药典”，为博物学史上的一个里程碑，也是第一部插图丰富的汇编。<sup>21)</sup>

## 2) 宋代植物写作

宋代雕版印刷技术的繁荣和官私类书编撰的盛行客观上促进了博物学的发展。此外，最高统治者的认同和推崇，文治时代造就的“尚雅”和“尚博”的时代风气，共同成为药理学、以谱录为代表的植物写作于宋代大量涌现的时代背景和文化因缘。药理学方面，博物学家掌禹锡于1060年编撰出版了『嘉祐补注神农本草』，科学家苏颂于1061年出版了『本草图经』，药学家唐慎微于1082年编成了『经史证类备急本草』，寇宗奭的『本草衍义』刊行于1119年，医学家张存惠于1249年完成了『重修政和经史证类备用本草』等。

宋代社会赏花、爱花的风气之下，人们在物质层面和精神层面对花卉的强烈需求产生了深入研究花卉的动力。于是以谱录为代表的植物写作博兴，花谱的数量超过了以往任何一个朝代，是中国历史上的第一个高峰。<sup>22)</sup>研究内容涉及花卉的种植技术、产地的风土人情、鉴赏方式，研究对象既有特定花卉的单部及多部专论（如多部牡丹谱、芍药谱等），亦有囊括多种花卉的综合性论著。如欧阳修的『洛阳牡丹记』，王观的『扬州芍药谱』，范成大的『范村梅谱』、『范村菊谱』，陆游的『天彭牡丹谱』等等。据统计有涉及牡丹、菊花、芍药、兰花、梅花、海棠、玉蕊花等7大类41种花卉专著。<sup>23)</sup>在这些关于花卉的植物著作中，宋代创造出了很多的“第一”

20) 韩保升，『蜀本草』序，引自『证类本草』卷一，序例上，p. 1.

21) (英) 李约瑟，『中国科学技术史』(第六卷)，北京：科学出版社，2006，pp. 226-227.

22) 吴洋著，『宋代士民的花生活』，北京：中国社会科学出版社，2019，pp. 143-144.

23) 郭幼为，『知识社会史视域下的宋代花卉谱录』，『农业考古』，第6期，2020，p. 175.

和“唯一”，如赵时庚的《金漳兰谱》是中国也是世界上第一部兰花专著，《范村梅谱》是中国第一部梅花专著，刘蒙的《刘氏菊谱》是第一部菊谱，陈景沂的《全芳备祖》是中国当时最全的一部植物辑录，也是“世界最早的植物学辞典”（著名学者吴德铎先生之评语）。周必大的《唐昌玉蕊辨证》是中国历史上唯一一部玉蕊花专著，宋伯仁的《梅花喜神谱》是第一部专门描绘梅花种种情态的唯一的梅花木刻画谱。在这些花卉中，琼花特别引人注目。它兴起、繁盛、绝迹于宋代，为有宋一代奇花，它的物种所属引发了宋代乃至后人无休止的争论，被写进诗、词、赋、小说体裁中，还被记载于各类诗话、笔记中，并出现了诸如明代《广陵琼花志》、杨端《琼花谱》、曹璇《琼花集》，清代俞廷瑛《琼华集》、朱显祖《琼花志》等专门记述琼花的考证、遗事、诗词赋文之类的文献，数百年来不断激起具有考古学思想的中国植物学家的兴趣，也让后人乐于收集关于它的种种争论与相关记载，它在宋诗中呈现的意象塑造也耐人寻味。更令人惊奇的是，在琼花诗词的作者中，有很多为植物学家，著有植物学著作，比如孔武仲著有《芍药谱》，是宋代关于芍药的三大专著（另有王观《扬州芍药谱》、刘攽《芍药花谱》）之一；谢翱著有《楚辞芳草谱》，宋祁的《益部方物略记》记载了中国西南地区的65种动植物，代表了宋代动植物博物学的地方化、专门化特征。欧阳修的《洛阳牡丹记》为世界上现存最早的一部牡丹谱录，在博物文本体例、知识呈现方式、博物理性精神和科学态度上都堪称后世牡丹谱录的典型范本，对后世博物之书的撰述产生了深远影响，充分展现出宋代文人难能可贵的博物理性世界。<sup>24)</sup>所以笔者选取宋代琼花诗词为研究对象，试图从博物学角度对其进行分析。

### 3. 名物与辨识：琼花与玉蕊、聚八仙之争

所谓名物即为事物命名，是博物学家乐此不疲之事。孔子的“名不正，则言不顺；言不顺，则事不成”之理论开启了中国为某物命名并“正名”的悠久传统，强调名与实要相匹配。对个人的道德发展而言，这意味着要用最恰切的名称界定某人的身份；对记载这个世界的人而言，就意味着要用正确的名称称呼这个世界的物。<sup>25)</sup>宋代

24) 柯丽玉，《宋代文人的博物理性世界——以欧阳修〈洛阳牡丹记〉为中心的探讨》，《河南科技大学学报（社会科学版）》，第5期，2019，p. 15.

文人的审美趋雅避俗，苏轼“士俗不可医”与黄庭坚“士大夫处世，可以百为，唯不可俗”的告诫，可见其势。他们把博学、深思、穷理、求新、超脱视为高雅，这种“忌俗尚雅”的风气，不只于诗词、琴棋书画和茶艺等日常雅事，还将花文化融入日常生活中，种花、赏花、插花、簪花、食花、写花、咏花、绘花，甚至给花改名。在宋代诗坛，这种名物及为花改名的氛围非常浓厚。最早记录琼花的诗人王禹偁本人就属于特别喜爱名物的宋人中的一员，他曾经将世人称呼的略显士气的“锦带花”之名改为“海仙花”，并赋诗而咏之。<sup>26)</sup>苏轼“守东武，得异花于芍药品中，既名之，又赋二诗以志其事”（李之仪《姑溪题跋》），曾将白芍药花改为“玉盘盂”，<sup>27)</sup>刘克庄曾称琼花为“玉真妃，字琼姬（〈昭君怨〉其二〈琼花〉）”，王安石曾改玉蕊花名为珎花，而黄庭坚嫌其恶俗而更为“山矾”，<sup>28)</sup>薛季宣称之为“楛花”，<sup>29)</sup>林次中曾呼玉蕊花为“玉女花”，改玉蕊花为“瑶真”<sup>30)</sup>等，这些例子都说明宋人喜欢名物并为花改名是一种风

25) (美) 宇文所安 (Stephen Owen) 撰，卞东波译，「快乐，拥有，命名——对北宋文化史的反思（中）」，《古典文学知识》，第2期，2015，p. 88.

26) 王禹偁曾作《海仙花三首并序》，在序言中交代了将锦带花改为海仙花的理由。其序曰：“海仙花者，世谓之锦带。维扬人传云，初得于海州山谷间，其枝长，而花密若锦带。然予视其花未开如海棠，既开如木瓜，而繁丽袅袅过之。或一朵满头，冠不克荷。惜其不香而无子易绝，第可钩压其条，移植他所。因以《释草》、《释木》验之，皆无有也。近之好事者作《花谱》，以海棠为花中神仙，予谓此花不在海棠下，宣以仙为号，目之锦带，俚孰甚焉，又取始得之地，命曰‘海仙’。”北京大学古文献研究所，《全宋诗》第2册，卷67，p. 764，北京：北京大学出版社，1991。以下凡是提到《全宋诗》的，均是此版本，不再一一标注。

27) 参见苏轼《玉盘盂并引》诗前小序：“东武旧俗，每岁四月，大会于南禅、资福两寺，以芍药供佛。而今岁最盛。凡七千余朵，皆重跗累萼，繁丽丰硕。中有白花正圆如覆盂，其下十余叶，稍大，承之如盘，姿格绝异，独出于七千朵之上。云：‘得之于城北苏氏园中。’周宰相莒公之别业也，而其名甚俚，乃为易之。”（《全宋诗》第14册，卷797，p. 9225）

28) 事见黄庭坚的《题高节亭边山矾花》诗前小序：“江南野中有一种小白花，本高数尺，春开极香。野人谓之郑花。王荆公尝欲作传而陋其名。予谓曰：山矾野人采郑花，叶以染黄不借矾而成色，故名山矾。”曾糙的《高斋诗话》记载得更为具体：“今场花即玉蕊花也，介甫以比珎，谓当用此场字，盖珎，玉名，取其白耳。鲁直又更其名为山矾，谓可以染也。”

29) 事见周必大的《唐朝玉蕊辨证》中收入的薛季宣《楛花》诗前小序：“楛花，唐玉蕊花，介甫谓之珎花。鲁直谓之山矾。武昌山中多有之，其叶可供染事。土人用之酿酒。”

30) 事见徐积的《玉女花二首并序》（《全宋诗》，第11册，卷634，p. 7566）序言和《瑶真



尚。

辨识是古代文人博物的重要素养，而分类又是博物学的基本功。宋代博物学则将物作为认识的对象，物成为辨析和考证的对象，并借此试图厘清名称、性状。<sup>31)</sup>宋人不仅给琼花、玉蕊花改雅名，还为琼花的归类而进行不断的辨识工作——这就不得不提及琼花与玉蕊、聚八仙之争。琼花，宋人又称玉蕊花、聚八仙、玉绣球花、玉蝶球等，它到底是什么花，只能从宋人关于琼花的记载中一探究竟。琼花最早的记载当属诗人王禹偁的〈后土庙琼花二首〉。

扬州后土庙有花一株，洁白可爱，且其树大而花繁，不知实何木也，俗谓之琼花云，因赋诗以状其态。

谁移琪树下仙乡，二月轻冰八月霜。若使寿阳公主在，自当羞见落梅妆。  
春冰薄薄压枝柯，分与清香是月娥。忽似暑天深涧底，老松擎雪白婆娑。<sup>32)</sup>

该诗向我们提供了琼花的基本信息：颜色（洁白）、形态（树大花繁）、开花时期（春寒料峭时）、香味（清香）等。序中提到了一点很重要的提示，即琼花之名源自“俗谓”，“俗”可理解为一般人、百姓，说明琼花得名于民间，早已为大众熟知。由于该诗是王禹偁（954—1001）宋太宗至道二年（996）任扬州知府期间所作，那么琼花“或云自唐所植”的说法是可信的。另外，从其他诗人的描述中，我们也能获得琼花的一些信息：由“云朵垂三素，仙衣著六铢（胡宿〈后土观琼花〉）”及“九朵仙风香粉腻，一团花貌玉脂凝（欧阳修〈琼花〉）”可知琼花共有9朵白云式的花朵；由“扶踈翠盖圆，散乱真珠缀（韩琦〈琼花〉）”可知琼花的花瓣众多，像散落的一串串的珍珠，这一点和王禹偁的“树大花繁”描述一致。“白云枝叶白玉英，此花莫是琳琅精。此花爱圆不爱缺，一树花开似明月。（徐积〈琼花歌〉）”也提及了琼花的颜色及花瓣形状。除此之外，琼花还有一点奇特之处是，琼花唯扬州后土祠中存生，别处不

诗〉（《钦定古今图书集成博物汇编草木典》第297卷）之序。前者曰：“部使者林公作玉蕊二诗并序其事，同使赵公属而和之，亦以见命，因吟之为玉女焉。”后者曰：“淮南转运林公次中，所居之府有花一株，旧名玉蕊。公改曰瑶真。”

31) 温志拔，「宋代类书中的博物学世界」，《社会科学研究》，第1期，2017，p. 186.

32) 『全宋诗』，第2册，卷67，p. 765.

见，这一点从“楚地五千里，扬州独一株（胡宿〈后土观琼花〉）”，“维扬一株花，四海无同类。年年后土祠，独比琼瑶贵（韩琦〈琼花〉）”，“古祠惟一株，他种不欲接（孔武仲〈琼花画轴〉）”，“应知天下无他本，惟有扬州是尔家（贾似道〈琼花〉）”，“自是花中第一流，无双从古擅扬州（王巩〈琼花〉）”，“淮海无双树，春风花欲齐（任伯雨〈琼花〉）”等诗中可见一二。

因琼花(*viburnum*)形状上和玉蕊花(*barringtonia*)、聚八仙(*hydrangea macrophylla*)有所类似，而大多数诗人并不是植物学家，所以从王禹偁之后，关于琼花和玉蕊花、聚八仙是否为统一物种而引发了不断的争论，为此形成了琼花即玉蕊的赞成派和反对派、琼花即聚八仙的赞成派和反对派两组大的派别。关于琼花和玉蕊花，赞成派认为琼花即玉蕊花，代表人物有宋祁、宋敏求、华镇、徐积、苏轼、晁补之、刘敞等诗人。宋祁曾在『宋景文公笔记』中说：“维扬后土庙有花曰玉蕊。王禹偁爱赏之，更称曰‘琼花’。”<sup>33)</sup>宋敏求『春明退朝录』卷下：“扬州后土庙有琼花一株，或云自唐所植，即李卫公所谓玉蕊花。”华镇曰：“玉蕊花，琼花也，唐世尚多有之，今则甚鲜。惟扬州后土庙一本最盛。花如八仙而五出，有香特清。”<sup>34)</sup>徐积曰：“淮南转运林公次中，所居之府有花一株，旧名玉蕊。公改曰瑶真，即琼花之别本也。”<sup>35)</sup>苏轼曾有“后土祠中玉蕊，蓬莱殿后鞞红（〈西江月·真觉赏瑞香〉）。”对此，南宋葛立方为其辩解说：“东坡〈瑞香词〉有‘后土祠中玉蕊’之句者，非谓玉蕊花，止谓琼花如玉蕊之白尔。”<sup>36)</sup>他认为，苏轼词中把琼花称作玉蕊，是指琼花的白色如玉蕊之色。晁补之〈下水船·和季良琼花〉中说：“百紫千红翠，唯有琼花特异，便是当年，唐昌观中玉蕊。”刘敞甚至将琼花、玉蕊花、八仙花看作一物，他说：“琼花……彼人别号八仙花也。或云李卫公所赋玉蕊，即此是也。”<sup>37)</sup>琼花非玉蕊、八仙，笔者后文会详细讨论，所以该类观点很容易被推翻。宋祁之记有两误：后土庙之花是琼

33) 储玲玲整理，上海师范大学古籍整理研究所编，『全宋笔记』第1编第5册，郑州：大象出版社，2003，p. 73.

34) (宋)华镇，〈玉蕊花（并序）〉，『全宋诗』，第18册，卷1091，p. 12371.

35) 『全宋诗』，第11册，卷634，p. 7566.

36) (宋)葛立方，『韵语阳秋』，『景印文渊阁四库全书』，台北：台湾商务印书馆，1986.

37) (宋)刘敞，〈琼花（并序）〉，『全宋诗』，第8册，卷489，p. 5932.

花，非玉蕊；琼花非王禹偁改称，乃俗谓。宋敏求所说的李卫公指的是李德裕，所咏玉蕊乃〈招隐山观玉蕊树戏书即事奉寄江西沈大夫阁老〉，所写的是润州（今江苏镇江）招隐山的玉蕊花，故曹璇《琼花集》说宋祁、宋敏求二者皆“失于详考”，是有依据的。华镇所述琼花有五出花瓣也是错误。徐积描述对象为官员私宅之花，极有可能不是琼花。至于“自六经百氏古今传记，下至天文、地理、卜医、数术、浮图、老庄之说，无所不通”之刘敞，其弟刘攽乃植物学《芍药花谱》之作者，不应该将三者混为一谈。

反对派认为琼花非玉蕊说，代表人物有郑域、葛立方、郑损、张湜、周必大。郑域《玉蕊花》诗曰：“维扬后土庙琼花，安业唐昌宫玉蕊。判然二物本不同，唤作一般良未是。琼花雪白轻压枝，大率形模八仙耳。……比之玉蕊似实非，金粟冰丝那有此。”<sup>38)</sup>郑域认为：琼花为扬州后土庙所植，玉蕊花乃安业坊唐昌观所种，二者只是模样相似，似是而实非。葛立方认为琼花只存于扬州后土祠，而唐昌观、长安观、唐内苑、招隐山等处皆有玉蕊花，所以“由是论之，则玉蕊花岂一处有哉，其非琼花明也。”<sup>39)</sup>张湜曰：“今琼花后土祠及番阳洪文敏公（迈）花圃俱有之，而玉蕊，丹徒山间及雪川人家多有之，与琼花实为二物也。”<sup>40)</sup>郑损1220年知扬州，曾亲自驱车前往后土庙，确认琼花非玉蕊，他说：“琼花今日多从辩，玉蕊唐人早有诗。”并进而得出琼花亦非聚八仙之结论：“八仙仿佛多疑似，相隔仙凡只一丝。”<sup>41)</sup>周必大拜托亲旧从招隐山捎来一棵玉蕊植于窗前，待成树后将其与琼花比较，考证出玉蕊之得名原因，得出二者不同的判断，他说：“玉蕊花苞初甚微，经月渐大，暮春方八出，须如冰丝，上缀金粟，花心复有碧筒，状类胆瓶，其中别抽一英出众须上，散为十馀蕊，犹刻玉然，花名玉蕊，乃在于此，群芳所未有也。宋子京（祁）、刘原父（敞）、宋次道（敏求）博洽无比，不知何故疑为琼花。”他为此写出了中国历史上第一部也是唯一一部玉蕊花专著——《唐昌玉蕊辨证》。

关于琼花与聚八仙，赞成派持琼花即聚八仙说，如周师厚、姚宽、周密、方

38) 《全宋诗》，第51册，卷2723，p. 32026.

39) (宋)葛立方，《韵语阳秋》，《景印文渊阁四库全书》，台北：台湾商务印书馆，1986.

40) (宋)张湜，《云谷杂记》卷四，《景印文渊阁四库全书》，台北：台湾商务印书馆，1986.

41) (宋)郑损，《琼花（2首）》，《全宋诗》，第54册，卷2851，p. 33998.

回、方岳等人。周师厚说：“琼花，类八仙而香。”<sup>42)</sup>据姚宽『西溪丛语』载：“扬州琼花，今之聚八仙，但树老耳。”<sup>43)</sup>周密『齐东野语』扬州后土祠琼花，天下无二本，绝类聚八仙，色微黄而有香。”<sup>44)</sup>方回在『续古今考』中说：“近世扬州琼花，乃玉蝴蝶花，又曰聚八仙，非赤玉而曰琼，似误也。相与神其说，以为独扬州一株，非也。”<sup>45)</sup>方岳也说：“真珠碎簇玉蝴蝶，直与八仙同一腔（〈非琼花〉）。”在他看来，琼花与聚八仙一模一样。反对派持琼花非聚八仙说，代表人物有王信、王洋、傅梦得、楼钥、刘学箕、赵师圣、郑兴裔、周密、周必大、葛立方等人。赵师圣曰：“亲曾后土祠中看，不是人间聚八仙。（〈琼花〉）”刘学箕曰：“亲从后土分奇种，不是人间聚八仙（〈琼花〉）。”二人利用亲自实地考察或者分苗栽种的方法，得出琼花不是聚八仙的结论。葛立方在『韵语阳秋』中记载：“琼花，惟扬州后土祠有之，其他皆聚八仙，近似而非。”<sup>46)</sup>相比较来说，曾担任过扬州知州的郑兴裔（淳熙十五年知扬州）的考辨最为详实可信，他考证出琼花和玉蕊不同有三：“琼花大而瓣厚，其色淡黄。聚八仙小而瓣薄，其色微青，不同者一也。琼花叶柔而莹泽，聚八仙叶粗而有芒，不同者二也。琼花蕊与花平，不结子而香，聚八仙叶低于花，结子而不香，不同者三也。余尚未敢自信，尝取花朵示几辈，皆能识而别之，始乃无疑。”<sup>47)</sup>他从花貌、花色、叶子、香味比较了二花的异同，并取二花示于他人，皆能识别，可见二花差异还是挺大的。

总体来说，以宋祁为代表的琼花即玉蕊、以周师厚为代表的琼花即聚八仙的赞成派的判断，多从简单比附而来，并无多少科学性；而以周必大、郑兴裔为代表的持反对意见的人，他们实地考察或亲自观察、种植的研究，科学性自然强于前者，所以也更容易被后人认可，因此笔者也更倾向于琼花、玉蕊花、聚八仙为三种不同的植

42) (明)陶宗仪，『说郛』卷104下〈洛阳花木记〉，『景印文渊阁四库全书』，台北：台湾商务印书馆，1986。

43) (宋)张昞，『云谷杂纪』卷4，『景印文渊阁四库全书』，台北：台湾商务印书馆，1986。

44) (宋)周密，『齐东野语』卷17〈琼花〉，济南：齐鲁书社，2007。

45) (宋)方回，『续古今考』卷8，『景印文渊阁四库全书』，台北：台湾商务印书馆，1986。

46) (宋)葛立方，『韵语阳秋』，『景印文渊阁四库全书』，台北：台湾商务印书馆，1986。

47) (清)汪灏等编，『广群芳谱』卷37，上海：上海书店，1985，p. 872。

物。现多认为，唐代所指的玉蕊应是山矾科山矾属的植物白檀，琼花是忍冬科荚蒾属的植物绣球，<sup>48)</sup>如今成为扬州市花的琼花已不是宋人诗中所描绘的琼花，而是聚八仙。琼花、玉蕊花、聚八仙及现代扬州市花琼花可参考以下图片：



图(1) (南宋)韩佑《琼花真珠鸡图》中的琼花(重庆市博物馆藏)



图(2) 玉蕊花<sup>49)</sup>



图(3) 1996年四川蓬安南燕乡龙滩子村窖藏出土的南宋鎏金聚八仙花纹银盘<sup>50)</sup>

48) 祁振声，「唐代名花“玉蕊”原植物考辨」，《农业考古》，第3期，1992，pp. 211-219.

49) 图片来源：蓝草帽著，《二十四节气里的花与诗》中的插图，北京：北京联合出版公司，2019，p. 54.

50) 图片来源：<https://huaban.com/pins/1106067173>



图(4)现代画家喻继高所画的《琼花交凤》中的扬州市花琼花图 51)

可以说琼花身份的辨识与认证是一场持续于整个宋代的文人日益壮大的互动活动，他们考证、诗文、诠释三者互相推动，是宋代博物学及植物写作高度繁荣的结果。难怪李约瑟称“在整个宋代，约从1000年至1300年是植物学写作的繁荣时期”，详细讨论并肯定了宋代关于玉蕊、琼花之辨的相关植物学著作（诸如周必大的《唐昌玉蕊辨证》等），认为它们具有高度的美学价值、甚至是重要的经济学价值、学术著作。<sup>52)</sup>

#### 4. 宋诗中的琼花意象

“博物学传统的基石”《山海经》，开启了中国咏物文学的博物纪异传统。宋代的琼花诗抒写，就是对这一传统的继承，带有浓郁的多识博闻、校名述异的广义博物学色彩；而博识多闻、校名述异的目的，说到底是为了“通诗人之旨意，而得其比兴之所在”。<sup>53)</sup>感物言情、寄物陈思、托物比兴是他们常用的方法。宋代文人们使用这些方法，以文字为媒介进行歌咏、颂扬、褒奖、推崇，并与玉蕊花、聚八仙比较辩论，从多个角度对琼花进行解读，将琼花由沉没于万花丛中而一跃成为芳名远播的旷世名花。琼花作为诗歌的一种意象，也具有意象的典型特征——多义性，是指同一个意象，在同一时代，甚至于在

51) 图片来源：喻继高档案馆 <https://www.bigemowu.com/Works8521.html>

52) (英) 李约瑟，《中国科学技术史》第六卷，北京：科学出版社，2006，pp. 362-367.

53) 扬之水著，《榼柿楼集》卷一〈诗经名物新证〉，北京：人民美术出版社，2016，p. 2.

同一个作家的诗歌作品中表现出众多不同的涵义。<sup>54)</sup>这种多义性，是诗歌以它的语言和意象启示给读者的意义——宣示义，可分为双关义、情韵义、象征义、深层义、言外义等五类。<sup>55)</sup>经由宋代诗人多个角度的解读，琼花的意象也由最初的洁白可爱之花而成为多种人格的象征。我们依多义性为标准，对琼花的意象进行解读。

### 1) 滴落尘世的仙子

琼花之“琼”字，据东汉许慎《说文解字》载：“琼，渠营切，赤玉也。从玉隹声。”<sup>56)</sup>但这个注解实在是贻误后人，因《诗经》、《左传》、《楚辞》中毛亨、王逸等注家对“琼”的解释，却无一与“赤玉”有关。<sup>57)</sup>所以琼当理解为美玉，更确切地说是雪，或者像雪一样的白色，琼花可理解为雪花的比喻，宋诗中也有许多以琼花代指雪花者，如“睡起毛骨寒，窗牖琼花坠”（王禹偁《对雪》），“落尽琼花天不惜，封它梅蕊玉无香”（杨万里《观雪二首》其二）等。扬州人之所以用“琼花”来命名此植物，一方面是因为此花“洁白可爱”，像雪花一样，恰如王禹偁诗中描绘的扬州琼花是“忽似暑天深涧底，老松擎雪白婆娑”；另一方面，“琼”的本义中含有美好义，以此来形容，更可见扬州百姓对它的偏爱。美国著名汉学家薛爱华认为：“白色代表了一个无形的圣洁世界……在汉人眼中，白色同样是仙界的象征。月亮、月亮哺育而成的玉，有灵性的白化动物，最重要的，还有天外仙岛，它们的色彩都是天使一样的白色。”<sup>58)</sup>若“琼”理解为若雪而白，那么宋人赋予琼花之“仙”气的意象特征就得以迎刃而解了。南宋的姚宽在《西溪丛语》中把花分为“三十客”，其中琼花为“仙客”。<sup>59)</sup>

54) 陈植锷，《诗歌意象论》，北京：中国社会科学出版社，1990，p. 181.

55) 袁行霈，《中国诗歌艺术研究（第3版）》，北京：北京大学出版社，2009，p. 6.

56) (汉)许慎撰(宋)徐铉校定，《说文解字附音序笔画检字》，北京：中华书局，2013，p. 4.

57) 陈雪飞、曹子男，《“琼”非赤玉考》，《常州工学院学报(社科版)》，第2期，2018，p. 84.

58) (美)薛爱华著，程章灿、叶蕾蕾译，《朱雀：唐代的南方意象》，北京：三联书店，2014，pp. 517-518.

59) 曹璇，《琼花集》卷一，曾学文点校，《扬州著述象》，扬州：广陵书社，2011，p. 36.

在琼花诗词中，总是与“飞琼”联系在一起。这里的飞琼含有双关义，既可以指传说中的仙女，是西王母身边的侍女许飞琼，后泛指仙女，也可以指飘飞的白色物。周密云：“天上飞琼，比人间春别。”（《瑶花慢》）郑觉斋云：“弄玉轻盈，飞琼淡泞，袜尘步下迷楼。”（《扬州慢·琼花》）晁补之云：“似梦觉，晓出瑶台十里。犹忆飞琼标致。”（《下水船·和季良琼花》）在这些句子里，都把琼花比喻为仙子。仙子形象的塑造，一方面是受博物纪异传统的影响，另一方面也是因与玉蕊花混淆有关。玉蕊花属于奇花，它的传世伴随着一神话传说：

上都安业坊唐昌观旧有玉蕊，花甚繁，每发，若瑶林琼树。元和中，春物方盛，车马寻玩者相繼。忽一日，有女子年可十七、八，衣绣绿衣，乘马，峨髻双鬟，无簪珥之饰，容色婉约迥出于众。从以二女冠、三女仆，仆者皆髀髻黄衫，端丽无比，既下马，以白角扇障面，直造花所，异香芬馥，闻于数十步之外。观者以为出自宫掖，莫敢逼而视之。伫立良久，令小仆取花数枝而出。将乘马，回谓黄冠者曰：“曩有玉峰之约，自此可以行矣。”时观者如堵，咸觉烟霏鹤唳，景物辉煌。举辔百步，有轻风拥尘，随之而去。须臾尘灭，望之已在半天，方悟神仙之游。馀香不散者经月馀日。<sup>60)</sup>

所以曾把琼花当成玉蕊花的华镇，就于《玉蕊花》序中记录了这一传说：“玉蕊花，琼花也，唐世尚多有之，今则甚鲜。惟扬州后土庙一本最盛。花如八仙而五出，有香特清。虽干不歇，扬人往往盛以绦囊而佩之。唐长安唐昌观所植，名闻天下。每岁花时，倾都来赏。一日，有美姬拥侍者八九人，皆鲜衣艳妆，徘徊花下，忽谓侍人曰：‘当折一枝，赴玉峰斗草。’遂折花出门，跨骏乘烟而去。见者骇愕，方知其为神仙，异香满庭，弥月不散，当时诗人多赋颂者。”<sup>61)</sup>将琼花定型于滴落尘世仙子形象，得力于文坛领袖欧阳修的吟咏及推广。欧阳修《琼花》诗曰：

60) (唐) 康骞, 《剧谈录》卷下, 上海: 古典文学出版社, 1958, p. 52.

61) (宋) 华镇, 《玉蕊花并序》, 『全宋诗』, 第18册, 卷1091, p. 12371.



天家侍女号飞琼，不识何年谪广陵。九朵仙风香粉腻，一团花貌玉脂凝。  
名闻琳馆无双比，心在瑶台第几层。肯使落英沾下土，飘飘应是学飞升。<sup>62)</sup>

欧阳修于庆历八年(1048)知扬州太守，完成了无双亭、美泉亭、平山堂等名胜建筑，为扬州古城平添了景致。其中的无双亭，又名“琼花亭”，是特意为琼花而建。他曾经作过两首关于琼花的诗，第一首有感于许发运“芍药琼花应有恨，维扬新什独无名”的遗憾，而答曰：“琼花芍药世无伦，偶不题诗便怨人。曾向无双亭下醉，自知不负广陵春。”<sup>63)</sup>在欧阳修看来，在人文荟萃、风物繁华的扬州，琼花和芍药最能代表它的春天，世上众多花朵都无与伦比。于无双亭下吟诗赏花躺醉，才能不负这广陵的大好年华。实际上，欧阳修的这种躺醉，也是“借他人之酒杯，浇胸中之块垒”。欧阳修此次知扬州，也是庆历新政失败后被贬所致，所以他所描述的“谪广陵”的“天家侍女”飞琼，既是以人喻花，也是以人言己，“谪仙”飞琼何尝不是自己的化身呢。正是因为琼花为仙女所化，所以花香粉腻带仙风，花貌如玉脂般凝萃。末句说，琼花即使凋谢，她花瓣也不愿沾染尘土，象征着诗人即使新政失败，也不愿和守旧派同流合污之决心。欧阳修作为一代文坛盟主，既赋诗予以琼花之人格象征，又为琼花建亭供游人观赏。欧阳修的琼花抒写，为后人提供了范本，如王巩的《琼花》：“自是花中第一流，无双从古擅扬州。千枝叟出高张盖，九朵齐开小簇球。点点心苞珠蓓蕾，盈盈巧似玉雕镂。可应不使凡尘污，片片落英天为收。”其写法和欧阳修的诗作颇为相似。可以说，欧阳修为琼花地位的提升以及在后世人中的流传起了巨大的推动作用。自此以后，“无双”即成了扬州琼花的代名词，后人歌咏琼花，也常常会用到此词并言及无双亭之事。如“东风万木竞纷华，天下无双独此花”（刘敞《无双亭观琼花赠张圣民》）；“朵开有九人争识，号美无双天下夸”（冯京《琼花》）；“更喜风流好名字，百金一朵号无双”（吕本中《谢人送琼花白沙人谓琼花为无双花戏成两绝其一》）；“无双亭下枝，密密复稀稀（王令《琼花》）”等。

62) 郭明道校注，《扬州琼花诗词》，南京：江苏古籍出版社，2001，p. 3.

63) (宋)欧阳修，《答许发运见寄》，《全宋诗》，第6册，卷301，p. 3790.

## 2) 故土的守护者

中国古代社会是农业社会，特别看重祖籍、土地，从而形成了安土重迁的传统社会心理。王粲曾曰：“虽信美而非吾土兮，曾何足以少留（〈登楼赋〉），”〈汉书·元帝纪〉中亦有：“安土重迁，黎民之性；骨肉相附，人情所愿也。”宋代诗人们赋予琼花诗的第二个意象就带有这种安土重迁、只恋故土的古代传统，这一点和琼花的最初记载者王禹偁有关，也和琼花的“祖籍”——扬州后土祠有关。据史料记载：“『世略』所谓‘土者，乃天地初判黄土也，故谓土母焉。’庙在汾阴，宋真宗朝大中祥符5年7月23日，诰封‘后土皇地祇’，其年驾幸华阴，亲祀之。今扬州玄妙观，后土祠也。殿前琼花一株，香色柯叶绝异，非世之常品也。真宗皇帝（当为宋徽宗皇帝之误）封曰‘承天效法厚德光大后土皇地祇’。”<sup>64</sup>这里所说的“后土祠”即纪念“后土娘娘”之庙，因有了异花琼花，又被称为琼花观。其实琼花并不止扬州后土庙独有，宋代的农作物移植嫁接技术水平很高，已经被移植于洛阳。据李格非〈洛阳名园记·李氏仁丰园〉载：“洛阳今洛阳良工巧匠，批红判白，接以他木，与造化争妙，故岁岁益奇且广。桃、李、梅、杏、莲、菊、各数千种，牡丹、芍药至数百种，而又远方奇卉，如紫兰、茉莉、琼花、山花之俦，号为难植，独植之洛阳，辄与其土产无异。”<sup>65</sup>据刘敞〈琼花并序〉诗序曰：“自淮南迁东平移后土庙，琼花植于濯缨亭，此天下独一株尔。永叔为扬州作无双亭以赏之。”这里淮南、后土庙、濯缨亭（江苏苏州）等三处地方均为琼花的生长地。又如郭祥正曾有〈寿宁禅院琼花（张唐公内翰手植）〉，这里的寿宁禅院原名通济庵，为宋时道远禅师的道场。原址在湖北省应城市城北七星桥附近，距离扬州的直线距离为580公里。南宋吕本中有〈谢人送琼花，白沙人谓琼花为无双花戏成两绝〉，可知琼花被送到了白沙，而白沙一代在南宋时期，行政规划还是在河南登封境内，距离扬州更远。南宋陈杰有〈寓舍琼花一株盛开〉，那么其寓舍也断不是扬州后土

64) 萧登福, 『后土地母信仰研究』, 台北: 新文丰出版社, 2015, pp. 1-2.

65) 叶朗总主编, 『中国历代美学文库（宋辽金卷上）』, 北京: 高等教育出版社, 2003, p. 484.

庙。另外据周必大的《唐昌玉蕊辨证》载：“孙冕镇维扬，使访之，山中甚多，但岁苦樵斧野烧，故木不得大，而花不能盛，遂不为人贵。孙伤之以诗曰：‘可怜遐僻地，常化燎原灰。’”由此可知，琼花非谓扬州后土所属。琼花移于他处即死的神异之处，也屡见于宋人的记载。据周密《齐东野语》卷十七记载：“扬州后土祠琼花，天下无二本，绝类聚八仙，色微黄而有香。仁宗庆历中，尝分植禁苑，明年辄枯，遂复载还祠中，敷荣如故。淳熙中，寿皇亦尝移植南内，逾年，憔悴无花，仍送还之。”王巩的《闻见近录》记载说：“扬州后土庙有琼花一株，宋丞相构亭花侧，曰‘无双’，谓天下无别株也。仁宗庆历中，尝分植禁中，明春辄枯，遂复载还庙中，郁茂如故。”<sup>66)</sup>吴宏的《独醒杂志》载：“维扬后土庙，有花洁白而香，号为琼花。宣和间，起花石纲，因取至御苑，逾年不花，乃杖之，遣还其地，花开如故。”<sup>67)</sup>琼花只能存活于后土庙，“是殆风气土地使然，抑果有神司之耶？”在笔者看来，这些极有可能是宋人的杜撰，因为前文已说，宋代的移植嫁接技术足以使琼花成活于它地。只是在大部分宋代诗人的认知里，只有生长于后土祠中的琼花才是正宗，移植他处的琼花都不能算是真正的琼花。宋代的诗人们为此而津津乐道，从而赋予琼花故土的守护者形象。后于王禹偁而赋予琼花为扬州独有植物意象的是胡宿和韩琦，胡宿有诗曰：“楚地五千里，扬州独一株。香名从此贵，芳格洒然殊。……吴中休插柰，天上枉栽榆。神物疑长拥，灵根此未枯……”<sup>68)</sup>韩琦有诗曰：“维扬一株花，四海无同类。年年后土祠，独比琼瑶贵。……尝闻好事家，欲移京毂地。既违孤洁情，终误栽培意。……”<sup>69)</sup>胡宿诗中，琼花如果离开扬州移植到吴中、哪怕天上，都会灵根枯萎，扬州琼花独此一株的现象得到初步认定，但用来比较的对象是“楚地五千里”而已；到了韩琦诗中，就变成了“四海无同类”了，范围大至无限，<sup>70)</sup>好事之徒打算把琼花从洛阳移植到京都开

66) 王巩，《闻见近录》，《全宋笔记（第二编，第6册）》，郑州：大象出版社，2006，p. 26.

67) 吴宏，《独醒杂志》，《全宋笔记（第四编，第5册）》，郑州：大象出版社，2008，p. 10.

68) (宋) 胡宿，《后土观琼花》，《全宋诗》，第4册，卷183，p. 2111.

69) (宋) 韩琦，《琼花》，《全宋诗》，第6册，卷318，pp. 3962-3963.

封，这样不仅有违琼花的孤洁之情，也会误却花主栽培之意，意即琼花无法适合移植别地的生活，琼花的扬州唯一性得到大力彰显。此后诗人们只要一写起琼花，就屡屡对这一意象进行强调，如“百葩天下多，琼花天上稀。结根吒灵祠，地著不可移。”（鲜于侁〈扬州后土祠琼花〉）“古祠惟一株，他种不欲接。”（孔武仲〈琼花画轴〉）“爱奇造物剪琼瑰，为镇灵池特地栽。事纪扬州千古胜，名传天下万花魁。何人斫却依然在，是处移将不肯开……”（王信〈咏扬州后土祠琼花〉）“胜地足繁华，灵根最可嘉。人间无别种，后土独开花。”（释元肇〈琼花〉）“禁苑岂无新雨露，底事刚移不去，偏恋定、鹤城抔土”（王奕〈贺新郎·题扬州琼花观〉）等等，不一而足。这种描写已变成同一类象征的符号，已经不仅仅是在歌咏琼花，亦包含了宋人安土重迁的思想，琼花忠于故土之形象也得以确立。

宇文所安曾断言说：“11世纪及12世纪初，新的作品在一个相对狭小的文人圈子中流传，他们彼此熟悉。在这个圈子中，每个人都最大程度地阅读彼此的作品。我们可以发现，很多文本与其他文本彼此相关。这就产生了一个话语的共同体，引导我们用某种方法去阅读这些文本。”<sup>71)</sup>宋人关于琼花的类似模式化的共同抒写，产生了琼花话语的共同体，体现了宋代由于印刷术的发达而能“文本共享”的氛围，这也是促使宋人博学的优势条件。

### 3) 抗夷殉国之士

博物学巨著『诗经』以及自然百科全书『楚辞』开创了咏物文学比兴、以物寄托的传统，尤其是〈离骚〉以香草美人象征君臣的写法对后世咏物文学影响更大。〈离骚〉借“善鸟香草，以陪忠贞；恶禽臭物，以比谗佞”<sup>72)</sup>的模式也为宋人所秉承。琼花诗经由王禹偁的首次物象描绘后，韩琦〈琼花〉诗中用“馥

70) 余吉生，「宋代文人的琼花书写」，『扬州大学学报(人文社会科学版)』，第3期，2008，pp. 100-101.

71) (美) 宇文所安 (Stephen Owen) 撰，卞东波译，「快乐，拥有，命名——对北宋文化史的反思(下)」，『古典文学知识』，第3期，2015，p. 100.

72) (宋) 洪兴祖，『楚辞补注』中〈离骚经章句第一〉，北京：中华书局，2002，pp. 2-3.

醺不见香，芍药惭多媚”衬托琼花的清香素雅，经过与其它花种对比后，强调琼花“不从众格繁，自守幽姿粹”，将琼花进行了香草美人式的意象转移。中国人自古喜欢玉，虽无玉树，幸有琼花，“玉树琼花”二者并称，以玉比德，以花喻人。徐积的《琼花歌》里，就更进一步将琼花比附女德，一一否定了洛神、褒姒、宋玉东邻女、卓文君、弄玉等人，“若比此花俱不足，淫妖怪艳文之累”，认为这些女子均无法比拟琼花。琼花“一如妇人有贤德，不为邪色辞正色……论德乃是花之杰，论色乃是花之绝”。<sup>73)</sup>将色白无瑕之琼花比喻为贤德之妇、正色之臣，达到了外在之色与内在之德的统一。南宋末期，随着琼花的生长地——扬州经历了金、元两次侵夺而失城陷落，琼花也随之枯萎凋零，并最终随着南宋灭亡而永远消逝。这一时期的南宋人对琼花的歌咏，往往将扬州都市之荣枯、政治之盛衰、家国之兴亡等重大历史命题熔铸其中，琼花被塑造成为勇于抗夷、具有民族大义、为宋殉国的忠臣形象。其实早在歌咏琼花难离本根的特性时，就已经暗含了宋人在夷狄的巨大威胁下坚守华夏文明之根的可贵和崇高。<sup>74)</sup>从琼花历经兵火得以复荣中，引出对它作为王朝中兴之瑞应的赞叹，如宋代张昌《琼花赋序》中言：“扬州后土祠琼花，经兵火后，枯而复生，今岁尤盛。邦人喜之，以为和平之证，乃赋之。”<sup>75)</sup>可见，琼花的命运已经和扬州、大宋王朝紧紧相连。“扬州全盛吾能说，鸭脚琼花五百年。”（晁补之《寄怀八弟三首》其三）“五百年间城郭改，空留鸭脚伴琼花。”（晁补之《扬州杂咏七首》其六）琼花成了扬州兴衰的历史见证。“此树何年种，枯荣历几朝”（吕夷简《琼花》），琼花又成了大宋王朝的历史见证。后来，“绍兴辛丑，金主亮揭本而去小者，剪而除之，花顿萎悴”。<sup>76)</sup>但此时，琼花并未真正消亡，

73) 『全宋诗』，第11册，卷634，pp. 7562-7563. 此诗和《聚八仙花歌赠江淮肥遁子》部分内容重复（『全宋诗』，第64册，卷3394，p. 40391.）

74) 刘培，「夷狄行中国之事曰僭——南宋中后期辞赋的华夷之辨」，『文学遗产』，第5期，2018，p. 118.

75) (宋)曹璇，『琼花集』，曾学文点校，『扬州著述录』，扬州：广陵书社，2011，p. 47.

76) (宋)杜游《琼花记》，又见于《宝祐维扬志》及赵炎《吊琼花》题注，赵炎诗见『全宋诗』，第59册，卷3085，p. 36801.

“未几，故株之旁，复出三蘖，道士金大宁日加培护，久之，畅茂婆娑，不异昔时。及元至元十三年忽枯，其种遂绝。道士金丙以聚八仙花代之。”<sup>77)</sup>又据『洪武郡志』载：“(元世祖)至元十三年，花朽。(至元)三十三年，道士金丙瑞以聚八仙补植故地，而琼花遂绝。凡元人称琼花者皆聚八仙也。”<sup>78)</sup>由此可知，琼花亡于至元十三年(1276)，该年元军占领都城临安(今杭州)，恭帝及其母谢太后等投降，南宋实质上已经灭亡(南宋真正灭亡时间是三年后即1279年)。琼花这一史实，勾起了南宋文人的无限感慨，出现了集体悼念琼花之现象。丘静山、郑思肖、赵棠、赵炎、何梦桂、谢翱、尹廷高、刘克庄、汪元量等人纷纷作诗悼念琼花，其中前四人均有〈吊琼花〉、〈吊扬州琼花〉、〈吊维扬琼花〉等相似诗题的作品。郑思肖〈吊琼花〉，诗前序云：“扬州琼花，天下惟一本，后土夫人司之。花之盛衰，淮境丰歉系焉。南渡前经兵火，此花亦死。今遭大故，丙子岁维扬陷，丁丑岁花又死，孰谓草木无知乎？上天福正统，厌夷狄，于兹见矣。”其诗曰：“南土新飞劫火灰，琼仙恋国暗惊猜。定应摄向天宫种，不忍陷于胡地开。花死青春禽鸟哭，城埋黑气鬼神哀。一朝枯蘖变高树，传得欢声沸似雷。”<sup>79)</sup>诗中，历经战火的琼花如人一样有知，拥有恋国情结而不愿在胡地盛开，枯而复生的琼花可作为王朝短暂的中兴之瑞，引来人们欢声鼎沸而庆祝。在诗人看来，琼花的荣枯，不仅关系着扬州一带经济的收成，还和王朝共命运。琼花“以兵火不能禁，胡尘不能辱。根常移而复还，本已枯而再续”，<sup>80)</sup>其拔出流品的美质、枯而复生的坚韧正是王朝中兴和民族不屈精神的形象写照，是敢于和夷敌抗争的民族英雄。赵炎又将这种形象进行了发展，他的〈吊琼花〉诗曰：“名擅无双气色雄，忍将一死报东风。他年我若修花史，合传琼花烈女中。”<sup>81)</sup>诗人托物咏怀，将琼花荣枯之事写入诗

77) 『钦定古今图书集成博物汇编草木典』，第297卷

78) (宋)曹璇，『琼花集』卷一，曾学文点校，『扬州著述录』，扬州：广陵书社，2011, p. 36.

79) 『全宋诗』，第69册，卷3628, p. 43437.

80) (宋)张昌〈琼花赋〉，曹璇，『琼花集』卷四，曾学文点校，『扬州著述录』，扬州：广陵书社，2011, p. 47.

81) 『全宋诗』，第59册，卷3085, p. 36801.

中，琼花被寄寓了深厚的民族感情，已然成为了以身殉难、死得其所的忠臣烈女的人格代表。同时人何梦桂的〈吊维扬琼花〉、谢翱的〈琼花引〉、〈后琼花引〉，也同样是借吊琼花之死而歌颂不屈的民族气节，用意与此诗相同。诗人们吊的不仅仅是琼花，更是在吊忠臣、吊大宋，琼花植物、扬州城市、大宋的朝代三者合为一体，使得琼花的意象又添新的维度，具有时代气息和历史的沉重感。尽管这一时期的琼花抒写，也有从反面寄托亡国兴叹的，如马樗山的〈琼花〉：“三月淮南鼓战尘，无双亭下隘游人。此花不解兴亡意，也向年年哄一春。”借琼花讥讽那些不顾国之将亡只知享乐的当权者，但宋代仅有两首此旨意的诗，<sup>82)</sup>毕竟只占少数，其主流形象依然是爱国志士。元、明、清后世的琼花抒写中，琼花的亡国意象更多，比如民间流传的隋炀帝因观琼花而亡国的故事，屡被记载于《隋炀帝艳史》、《说唐全传》、《隋唐演义》等，清人孔尚任甚至说：“琼花妖孽花，扬州缘此贵。花死隋宫灭，看花真无谓。”但隋炀帝时并未有琼花的记载，而扬州是宋始有琼花，所以明代曹璇说：“或谓隋炀帝，以观花来幸江都。以余考之，皆非也。”

除此之外，琼花还是扬州地域文化的符号，如：“除却琼花与红药，扬州不是古扬州。”（杨万里〈夜过扬州二首〉其一）“春风帘幕今何在，只有琼花伴客愁。”（沈与求〈观琼花〉）“二十四桥春色里，相逢只是说琼花。”（李龙高〈扬州〉）琼花和芍药、二十四桥一起，成为扬州文化的代言形象。又有借琼花抒写流落异地的游子之乡愁，如“相见异乡心欲绝，可怜花与月应知（秦观〈次韵蔡子骏琼花〉）”等。限于篇幅，不再赘述。

## 5. 结论

在中国古代众多的花卉抒写中，琼花是一个非常特异的意象，它的降世、所属、存世与消亡都存在种种的神秘性，宋人为此而津津乐道，试图揭开其神秘面纱。在将琼花作为一个意象集中抒写的宋代，由帝王、宰相、扬州地

82)除了马樗山的这首诗，还有张璪的〈琼花〉：“此花已去不须嗟，亡国亡家总为他。父老不知前日事，逢人口口道琼花。”（见《全宋诗》，第15册，卷843，p. 9761.）

方官、词人、诗人、僧人、画家等人组成的琼花写作群体中，王禹偁、宋祁、欧阳修、韩琦、苏轼、秦观、吕本中、刘克庄、方岳、杨万里等人均有琼花诗作，据笔者统计有101位诗人的130首琼花诗歌。这些诗作体现了宋人对咏物文学中的博物纪异及中国文化博学多识传统的传承，对包括动植物在内的事物的命名、辨识、归类的自觉意识，也承载着扬州独有的地方文化记忆，表明了宋代博物学著作在地方文献、文化记忆与名物纪胜的高度融合，同时它还包含了宋代诗人们对于扬州城市的评价、有宋一代政治的盛衰和王朝兴亡、汉族与满族蒙古族的华夷对抗等重大历史命题的反思，非常值得后人进行多角度的分析和探讨。以往的研究，多从史学或者文献学、自然科学等角度对琼花的历史、所属进行考证，个别学者即使从文学角度分析琼花诗作也多囿于考证。而本文则是从博物学的视角对这130首琼花诗的解读。笔者先梳理了一下宋前博物学的发展史以及为琼花诗作的创作提供了良好的环境的宋代繁荣的植物写作概况。接着，着眼于博物学家的乐此不疲之事——名物，以及古代博物素养的基础——辨识与分类，探讨了宋人关于琼花、玉蕊花和聚八仙之辩，得出三者各异的结论。最后，笔者着重分析了博物学视野下宋人对琼花意象的多角度解读。宋代诗歌中的琼花意象，经历了一个变化的过程，由最初的王禹偁纯为状貌、客观图写逐步过度到欧阳修、王巩等人所塑造的滴落尘世的仙子，再过度到胡宿、韩琦等诗人定性为故土守护者形象，最后又随着南宋的灭亡而新增了和大宋共生死同存亡的具有民族大义的忠臣形象。对宋代琼花诗解读，不仅可以增长植物学方面的知识，亦可以了断从宋至清乃至近代的琼花、玉蕊花、聚八仙辩争之公案，丰富扬州地方文献的研究，更重要的是可以利用博物学的相关知识对文本、诗歌艺术、文学意象进行解读，这一点对古典文学专业的学生来说，永远都不过时。博物学是一门古老而又有复兴之势的学科，如果有机会，我们可以试着延续这种视野对其他意象、作品、作家等进行研究。



## ◆ 参考文献

## 1. 资料

北京大学古文献研究所,『全宋诗』(全72册),北京:北京大学出版社,1991.

(英)李约瑟,『中国科学技术史』(第六卷),北京:科学出版社,2006.

叶朗总主编,『中国历代美学文库』,北京:高等教育出版社,2003.

朱易安、傅璇琮等主编,『全宋笔记第一编五』,郑州:大象出版社,2003.

## 2. 单行本

郭明道校注,『扬州琼花诗词』,南京:江苏古籍出版社,2001.

金永译解,『周易:奠定“中正”之修的上古奇书』,重庆:重庆出版社,2015.

刘华杰,『博物学文化与编史』,上海:上海交通大学出版社,2014.

(美)薛爱华著,程章灿、叶蕾蕾译,『朱雀:唐代的南方意象』,北京:三联书店,2014.

吴洋洋著,『宋代士民的花生活』,北京:中国社会科学出版社,2019.

袁行霈,『中国诗歌艺术研究(第3版)』,北京:北京大学出版社,2009.

陈植锷,『诗歌意象论』,北京:中国社会科学出版社,1990.

曾学文点校,『扬州著述彙』,扬州:广陵书社,2011.

## 3. 论文

贾芳芳、姜莉,『宋维扬名花考述』,『河北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第6期,2019, pp.13-20.

柯丽玉,『宋代文人的博物理性世界——以欧阳修〈洛阳牡丹记〉为中心的探讨』,『河南科技大学学报(社会科学版)』,第5期,2019, pp.14-18.

祁振声,『唐代名花“玉蕊”原植物考辨』,『农业考古』,第3期,1992, pp.211-219

路成文,『中国古代咏物传统的早期确立』,『中国社会科学』,第10期,2013,

pp.140-161.

刘培,『夷狄行中国之事曰僭——南宋中后期辞赋的华夷之辨』,『文学遗产』,第5期,2018, pp.108-123.

舒迎澜,『中国古代的琼花』,『自然科学史研究』,第4期,1992, pp.346-352.

吴国盛,『博物学:传统中国的科学』,『学术月刊』,第4期,2016, pp.11-19.

(美)宇文所安(Stephen Owen)撰,卞东波译,『快乐,拥有,命名——对北宋文化史的反思(中)』,『古典文学知识』,第2期,2015, pp.88-97.

温志拔,『宋代类书中的博物学世界』,『社会科学研究』,第1期,2017, pp.181-187.

余吉生,『宋代文人的琼花书写』,『扬州大学学报(人文社会科学版)』,第3期,

2008, pp.99-103.

余欣, 「中国博物学传统的重建」, 『中国图书评论』, 第10期, 2013, pp.45-53.

周武忠, 「琼花史考」, 『中国农史』, 第4期, 1987, pp.104-108.

陈雪飞, 「『全宋诗』所见扬州琼花五考」, 『扬州教育学院学报』, 第3期, 2017, pp.37-14.

#### 4. 网络资源

网络图片连接 <https://huaban.com/pins/1106067173>

<https://www.bigemowu.com/Works8521.html>

논문접수일	2022년 10월 18일
심사완료일	2022년 11월 27일
게재확정일	2022년 12월 08일

*Abstract*

---

A study on Viburnum Poetry in Song Dynasty from  
the Perspective of Natural History

Hou, Meiling

Viburnum has a unique image among the many flowers in ancient China, which has aroused great interest in the literati of the Song, Yuan, Ming, and Qing dynasties, repeatedly mentioned in various genres. Previous studies on viburnum were mainly limited to text search. This study interprets viburnum's poems from the perspective of natural history among 130 poems about viburnum by 101 poets of the Song Dynasty. First, this study sorts out the history of natural history in the pre-Song Dynasty and the prosperity of botanical writing in the Song Dynasty. Then, this study discusses the differences between viburnum, *barringtonia*, and *hydrangea macrophylla* among the Song people and comes to the conclusion that "all these three flowers are different." Finally, this study concentrates on the analysis of the multiangle interpretation of the viburnum image by the people of the Song dynasty from the point of view of natural history. This study found that the image of viburnum in the poems of the Song Dynasties has undergone a process of change, from a white love flower to a fairy who is demoted to the world, and then to a guardian of the homeland. With the end of the Southern Song dynasty, the viburnum image became a hero who withstood minority nationality and sacrificed for the country. The study of Song Dynasty viburnum poems can not only broaden knowledge of botany, but also can clarify the dispute between viburnum, *barringtonia* and *hydrangea macrophylla* from Song to Qing Dynasty, and advance research on Yangzhou's local culture. More importantly, it is also helpful for literature students to use knowledge of natural history to interpret poetry.

**Keyword**

Viburnum Poetry, Song Dynasty, Natural history, Image, Yangzhou



## 以史为鉴、以史为镜\*

- 收录在『东文选』汉诗中的中国帝王意象研究 -

郑冬梅\*\* · 尹允镇\*\*\*

### 국문요약

자신의 사상과 정감을 보다 형상적이고 함축성 있게 표현하기 위해 고려 문인들은 한시창작에서 중국 역사 인물을 비롯하여 중국의 고사, 전고 등을 즐겨 사용하고 있다. 『동문선』에 수록된 한시들도 예외가 아니다. 고려 한시에 등장하는 중국 역사 인물은 주로 중국의 역대 제왕장상(帝王將相)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주목되는 것이 진시황(秦始皇), 수양제(隋煬帝)와 당현종(唐玄宗)이다. 고려 문인들은 이 세 제왕을 특수한 유형의 제왕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선하고 어진 정치와 “예(禮)”로 나라를 다스린 요순이나 혜안으로 인재를 적재적소에 사용하여 한나라를 세운 한고조, “정관지지(貞觀之治)”로 강대한 당나라 미래 발전의 창창한 앞날을 연 당태종(唐太宗)과는 다른, 사치와 부화의 극치, 주지육림(酒池肉林)과 방탕한 생활로 나라를 망친 제왕으로 보고 있다. 고려 문인들은 한시에서 이러한 제왕들의 역사적 교훈을 시화(詩化), 형상화하면서 고려왕실은 그들의 역사를 거울로 삼고 거기에서 피의 교훈을 섭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유학자로서의 높은 사회책임감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타산지석(他山之石)”, 즉 중국의 피의 역사를 교훈으로 삼으려는 강렬한 역사 실용주의와 공리주의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한시창작에서 고려 문인들이 제왕을 중심으로 한 중국 역사 인물을 자주 등장시킨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상기 중국의 피비린 역사를 거울로 삼으려는 의도와 함께 고려 시기에 고양하기 시작한 민족자주의식과 그에 따른 민족의 역사 의식의 강화 등을 또 그 주된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주제어** 『东文选』, 고려한시, 중국 제왕이미지, 역사교훈, 민족의식

\* 这是山东大学东北亚学院重大项目“中韩跨界交流与东亚文化共性研究”的阶段性成果。

\*\* 山东大学 朝鲜韩国系 副教授

\*\*\* 山东大学 朝鲜韩国系 教授, 通讯作者

## 〈目次〉

1. 序论
2. 阿房与天齐, 兀尽蜀山头: 秦始皇意象
3. 莫言炀帝曾亡国, 今古奢华尽败身: 隋炀帝的意象
4. 舞罢霓裳欢未足, 一朝雷雨送猪龙: 唐玄宗意象
5. 结论

## 1. 序论

为了更含蓄地表达自己的思想感情, 在诗歌创作中高丽文人经常借用中国历史人物。收录在『东文选』中的汉诗也是这样。综观高丽汉诗中出现的中国历史人物, 主要集中在中国的帝王将相, 而其中出现频率较高的有尧舜、秦始皇、汉高祖、汉武帝以及隋炀帝、唐太宗、唐玄宗等。高丽文人借用这些中国帝王形象的原因很多, 其中秦始皇、隋炀帝、唐玄宗可以分为一类, 反映出高丽文人的鲜明的以史为鉴、以史为镜的功利目的和基于发轫于高丽时期高涨的民族自主意识和历史意识而来的为我所用的历史实用主义和功利主义态度。尤其是一些咏史诗中这种倾向表现得更加明显。那么, 高丽文人借用秦始皇、隋炀帝、唐玄宗的诗歌有哪些, 他们在这些帝王以及他们的意象中吸取了哪些历史经验和教训的呢? 下面以收录在『东文选』中的有关诗歌为中心, 探讨这些问题, 相信这对进一步深入研究高丽咏史诗以及高丽汉诗和中国文化的关联研究有一定的帮助。

## 2. 阿房与天齐, 兀尽蜀山头: 秦始皇意象

秦始皇(前259—前210), 嬴姓, 赵氏, 名政, 中国历史上杰出的政治家, 是第一个完成中国大一统的政治人物, 也是中国历史上第一个称皇帝的君主。统一中国后, 他废除地方分封制, 实行中央集权; 统一全国的书文、车轨、货币和度量衡, 促进了社会的发展; 对外他北击匈奴, 南征百越, 修筑万

里长城，为统一中国的万代基业打下了坚实的基础。可以说中国延续几千年的封建社会制度是由他来完成的，所以后人称他为“千古一帝（李贽语）”，可谓高度概括了他的丰功伟绩。但到了晚年，他横征暴敛，穷奢极侈，大兴土木，大修宫陵，求仙长生不老，鱼肉百姓；在文化领域“焚书坑儒”，给后世留下了十足的“暴君”意象。高丽文人对秦始皇的理解大致也与之相仿，把他看作值得借鉴的反面人物。先看高丽著名的汉学家金富轼的〈结绮宫〉。

尧阶三尺卑，千载余其德。秦城万里长，二世失其国。  
古今青史中，可以为观式。隋皇何不思，土木竭人力。<sup>1)</sup>

众所周知，金富轼是韩国著名的历史学家，他早年开始学汉学，1096年科举及第，经安西大都护府司录和参军事，升为翰林院直翰林。他是在汉文化影响尤其是在宋文化的熏陶下生长的，是一个典型的儒家。作为正统儒家，他出于自己的政治利益一生写了不少劝讽归谏诗。在劝讽归谏诗中，他经常借古喻今，用中国历史人物或历史事件批判那些不符合社会历史逻辑的种种问题，使诗歌呈现出借古讽今的社会效果和价值。这首〈结绮宫〉就是典型的借古讽今的劝讽归谏诗，是他路过“结绮宫”时有感而发的。题目中的“结绮宫”就是奢侈好色的陈后主为宠妃张贵妃用金玉装饰的那个豪华宫殿。这首诗前两韵是铺垫，是为后一句的比兴打基础的。在这里他借用中国历史上的两位帝王“尧帝”和“始皇帝”说明治国之道在于作为君王之道和德的道理。在金富轼看来，尧帝勤俭朴素、奉行德政、心系百姓、凝聚正能量，结果政通人和、国泰民安，千代英明；而秦始皇横征暴敛、大兴土木、修筑长城和阿房宫，加上焚书坑儒，民怨沸腾，亡党亡国。不难看出金富轼写这首诗的鲜明的政治倾向性，他是针对当时高丽朝廷的迁都计划和兴建大花宫计划的。当时妙清等人用花言巧语说服仁宗迁都平壤并要大兴土木，建大花宫。金富轼带头反对这个计划，他在诗歌中告诫统治者，大兴土木，穷奢极侈，必然亡党亡国，秦始皇的万里长城、陈后主的结绮宫就是前车之鉴，<sup>2)</sup> 高丽也应该重视这个前

1) 徐居正等著，『东文选』第一册，卷四，首尔：民文库，1989，p.589.

车之鉴，以史为镜，以史为诫，不能重蹈覆辙。由于金富轼等人强烈反对，妙清等人的计划付之东流。很显然，这首诗歌鲜明地表达了反对高丽的西京迁都计划以及兴建大花宫的金富轼的立场，充分体现了兴建宫殿会威胁国家的安危的忧国忧民的儒家仁政思想和敢于劝谏归谏的一个正直儒学家的风貌。全诗以直白简洁、通俗易懂的诗语描写各代中国君王，并借用秦始皇、陈后主的惨痛的历史教训警戒劝谏高丽统治者，表现出了一个传统儒学家的强烈的社会责任感。在艺术表现风格上也表现出宋文学的传入而来的明显的说理论议和散文化乃至喜欢用典的诗歌倾向。徐居正评论这首诗歌曰：“词意严正典实，真有德者之言也。”<sup>3)</sup>这里所说的“严正典实”，指的就是诗歌没有华丽的辞藻，摆事实讲道理的富于说理的诗风。这种以规劝讽谏为主题，以平直语言形式，不重雕琢的风格，成为金富轼诗歌的一大特色。

和〈结绮宫〉一样，郑道传的〈远游歌〉也是借用秦始皇的阿芳宫警示统治者大兴土木的不当之处的作品。

置酒宾满堂，起舞歌远游。远游亦何方，九州夏九州。  
朝樵洞庭波，暮泊易水流。四顾骋遐躅，想像雍熙秋。  
翼翼唐虞都，崇崇夏殷丘。岁月曾几何，貌矣不可求。  
登车复行迈，翩翩逝宗周。峩峩灵台高，霭霭祥云浮。  
凤凰鸣高冈，关雎在河洲。绵绵千载后，绰有无疆休。  
继世何莫述，王风日以偷。祖龙呀其口，一举吞诸侯。  
阿房与天齐，兀尽蜀山头。祸在鱼狐间，一朝输项刘。  
孰非出民力，得失如熏莸。徘徊感今昔，日晏旋我輶。  
满堂宾未散，学酒相献酬。高歌未终曲，双涕为君流。<sup>4)</sup>

大家知道，郑道传是高丽后期著名的政治家，他反对高丽末期腐败的社

2) 这个结绮宫本是南朝陈后主陈叔宝的宫殿，这首诗歌中的“隋炀帝”是暗喻，暗指高丽仁宗。

3) 徐居正，『东人诗话』卷上，蔡美花、赵季主编，『韩国诗话全编校注』（一），北京：人民文学出版社，2012，p.163.

4) 徐居正等著，『东文选』第一册，卷五，首尔：民文库，1989，p.613.



会政治，为推翻高丽王朝做出了巨大的贡献。这首诗歌就是猛烈抨击高丽末期的腐败政治的。这首诗歌有个题注，曰：“时恭愍王为鲁国公主起影殿，土木大兴公托周秦得失讽之”，恭愍王为了取悦鲁国公主大兴土木，修建影殿，郑道传就是用诗歌指出它的利弊，用前车之鉴，规劝恭愍王。自古以来大兴土木就要动员百姓，诈取百姓的钱财。在诗歌中，作者列举中国尧舜到夏商周，再到秦始皇的阿房宫，用无数历史事实规劝大兴土木的不当之处，建议恭愍王以史为鉴，以史为镜，不要再修建什么华丽的宫殿之类。这一点和上述的金富轼的诗歌如出一辙，有同工异曲之妙。诗歌“九州”句沿用的是邹衍的中国“大九州说”；“洞庭湖”亦称云梦、九江和重湖，位于长江中游；“易水”则是燕国的河流，在河北西部。下面“翼翼”句中的“唐虞”是唐尧和虞舜的并称；“夏殷”是夏朝和殷商。尧舜是中国历史上的贤明君主，他们开辟了古人所说的所谓的太平盛世。在这里郑道传也是这个意思来使用，认为他们是历史上值得仿效的贤明君主。下面“灵台”是周文王筑的台子，据传有一次周文王打胜仗归来，回国后就修建了这个灵台。但这个灵台经历了千年的风吹雨打也依然亮丽如新，体现了周文王的伟大历史功绩和周王朝的崇高的历史地位。在这里郑道传是借用周文王的历史功绩反衬出奢侈的影殿，指出搜刮百姓血肉的恭愍王的不当之处。下一个“关雎”句来自《诗经·关雎》；“祖龙呀其口”中的“祖龙”指的是秦始皇。裴駰《集解引》曰：“祖，始也；龙，人君像；谓始皇也。”“祖龙”在一定的语言环境中，特指秦始皇。后一句的“阿房宫”被誉为“天下第一宫”，是秦始皇修建的新朝宫，位于陕西西安西郊，始建于秦始皇35年，和万里长城一道是秦始皇时期最典型的土木工程，在一定意义上是秦朝腐败的象征之一。杜牧的《阿房宫赋》里有句：“六王毕，四海一，蜀山兀，阿房出”，区区几句形象、简洁、明了地归纳出了秦始皇的历史功绩和教训。下一个句子中的“鱼狐”来自《史记》。据《陈涉世家》：“（陈涉）乃丹书帛曰‘陈胜王’置人所？鱼腹中。卒买鱼烹食，得鱼腹中书，固以怪之矣。又间令吴广之次所旁丛祠中，夜篝火，狐鸣呼曰：大楚兴，陈胜王。”在这里“鱼狐”指的就是陈胜和吴广；“一朝输项刘”中的“项刘”指的是楚霸王项羽和汉高祖刘邦。可见在这首诗里，郑道传借用中国历史上的众多帝王，作为铺陈，对大兴土木、鱼肉百姓的

恭愍王的不当行为进行批评。郑道传认为：恭愍王修建的影殿不是周文王的灵台，而是和秦始皇的阿房宫一样，是榨干百姓血汗换来的。从郑道传的行迹看，这是他在1357年夏天担任成均司艺时做的，足见他的敢讲真话的直率性情和高贵品格。后来这首诗歌成为他发配到全罗道流放的重要的把柄之一，对他的一生产生了很大的影响。

借用中国帝王形象的权近的作品也不少，其中〈宿登州蓬莱驿咏怀古迹〉颇引人注目，这是他的诗歌中出现中国帝王形象最多的作品之一。

荡荡陶唐乃圣神，授时宾日最勤民。信知帝德如天大，吻谷和均四海春。  
 祖龙鞭石竟无功，谁见神山不死翁。三十五年真一瞥，终教鲍臭满车中。  
 方士纷纷竞骋邪，汉皇何不鉴秦家。武陵异日生秋草，万里空祠万里沙。  
 手脚生蛆众力疲，人心天命已离隋。楼船百万终安用，萨水流尸自可悲。<sup>5)</sup>

这是权近的组诗，由一题四首构成的怀古诗，是他第一次出使中国时，途径登州蓬莱驿（今山东蓬莱）时做的。综观高丽使臣到中国南京，大部分利用这个胶东半岛的路途，因此，蓬莱、登州、莱州、文登、即墨、方丈、瀛洲、呜呼岛、沙门岛等就是他们的必经之路，高丽诗歌中经常出现这些地名，就是这个缘故。权近的这首诗也是这样，这里的登州<sup>6)</sup>就是当年胶东半岛的政治、经济、文化重镇和一个重要的交通枢纽和要道，去往南京的高丽使臣都在这里逗留。从诗题看，这是作者在蓬莱驿站做的，作为异邦人初来乍到这一传说中的地方，肯定感慨万分、激动不已。这激发了他的创作欲望，使他想起了蓬莱古迹有关的众多历史人物和故事。这是这首诗歌中中国历史人物，尤其是帝王将相非常多的原因之一。诗歌第一首从尧帝开始写，称他为“圣神”，赞扬他的仁德“如天大”。

5) 权近，〈宿登州蓬莱驿咏怀古迹〉，民族文化促进会编译，『阳村集1』，首尔：松树出版社，1997，『东文选』第22卷收录了其中第二首，题为〈蓬莱驿怀古〉。

6) 登州成为一个行政区域是唐武德4年（621年），唐高祖首次把登州设为行政区域，乾元元年（758年），登州辖蓬莱、黄县、文登、牟平等4县，治所蓬莱。宋朝改革唐朝的地方行政制度，确立了中央政府领导下的路、州、县三级政区制，登州辖蓬莱、黄县、牟平、文登等4县，治所蓬莱。

第二首中权近对秦始皇进行评说。这里“祖龙”就是秦始皇，“鞭石”则来自秦始皇“鞭石入海”的故事。相传秦始皇曾派方士徐福率三千童男童女前往东海三仙山寻找长生不老草，这一行人却一去就不复返，于是他决定在东海边修筑石桥以便亲自去仙山寻找长生不老草。秦始皇筑桥得到神人相助，这位神人用鞭子抽打行动缓慢的石头，催其入海，石头在神人的鞭打下竟留下了鲜血。<sup>7)</sup>权近借用这个故事不仅提高了诗歌的艺术形象性，而且用浓重的笔墨形象地批判了秦始皇的苛政和虐待黎民百姓的行为，同时借用故事含蓄地讽刺了秦始皇求仙长生不老草的愚昧和无知。诗的后两句记录的是秦始皇死后的悲剧。据『史记·秦始皇本纪』，秦始皇死于东巡途中，然而李斯与赵高隐瞒这个消息，又假造诏书命扶苏自尽，帮助胡亥继位。由于暑天高温，秦始皇的尸体开始腐烂发臭，为了掩盖气味，他们将许多鲍鱼装在车上，迷惑了众人的耳目。权近在这里用这一系列历史史实批判了秦始皇的暴政，认为秦始皇因暴政最终得到了报应，罪有应得。

第三首中出现的帝王为汉武帝刘彻，他也曾受方士的蛊惑，到登州祭祀求仙，寻找仙山。因此，这首诗中权近慨叹汉武帝不能以史为鉴，重蹈秦始皇的覆辙的行为。第四首诗中出现的帝王则是隋炀帝杨广。隋炀帝生活骄奢淫逸，每次出游都大造离宫，在各地大修宫殿园囿，后又修大运河，滥用民力，劳役不断，最终引起民愤，导致了隋末农民起义。诗歌如实地反映了备受劳役之苦的百姓“手脚生蛆”精疲力竭的惨状，又揭露了隋炀帝因此失去民心的历史事实。权近在这部组诗中对帝尧、秦始皇、汉武帝、隋炀帝的史实分别进行了回顾，赞美帝尧等圣贤们的贤明与仁政，在强烈的对比和反差中凸显秦始皇、汉武帝、隋炀帝的苛政与暴政，以此警醒后人要以史为鉴，重视前车之鉴。

除此之外，在《桃源歌》中陈灌借用秦始皇的“焚书坑儒”事件，批判他的无知和残暴<sup>8)</sup>；在《吴德仁生日》中，崔灌也用“焚书坑儒”批评“秦政”<sup>9)</sup>；在《有

7) 『三齐略』：有神人驱石，去不速，神人鞭之，皆流血，今石桥犹赤色。

8) 徐居正等著，『东文选』第一册，卷六，首尔：民文库，1989，p.621.

9) 徐居正等著，『东文选』第一册，卷四，首尔：民文库，1989，p.596.

感》中，李穡也用“焚书坑儒”批评李斯的叛逆行为<sup>10)</sup>；在《沙门岛怀古》中，李崇仁也借用秦始皇有关“鞭石入海”的故事，<sup>11)</sup>回顾曾经发生在蓬莱的各种故事，抒发云游这一历史遗迹的各种感受。这一切足以说明高丽文人心目中的秦始皇的分量，也足以说明他们借用秦始皇形象的各种目的。

### 3. 莫言炀帝曾亡国，今古奢华尽败身：隋炀帝的意象

隋炀帝杨广(569—618)，隋朝第二代皇帝。在位期间，滥用民力，大兴土木，修建离宫和大运河以供享乐；还频繁发动战争，西征吐谷浑、三征高句丽。隋炀帝给韩国文人的意象就是“莫言炀帝曾亡国，今古奢华尽败身”，以及“运河”、“隋堤”、“柳色”、“龙舸”、“锦帆”和腐败、奢侈。看崔致远的一首怀古诗《汴河怀古》。

游子停车试问津，隋堤寂寞没遗尘。人心自属升平主，柳色全非大业春。  
 浊浪不留龙舸迹，暮霞空认锦帆新。莫言炀帝曾亡国，今古奢华尽败身。<sup>12)</sup>

大家知道，崔致远在中国参加宾贡科考试，科举及第后876年开始在中国宣州溧水任县尉，期间还曾多次经过盱眙县<sup>13)</sup>。这首《汴河怀古》虽然不是收录在『东文选』里的，但它是在“汴河”这历史的现场有感而发的。作品首联写沉没在岁月里的隋堤，句中的游子就是作家自己；“问津”用的是『论语』里的语典；颔联写随着岁月的流逝而来隋堤的情况，它面目全非，已经完全失去了昔日的风采，句中的柳色指的是当年种植在隋堤上的柳树，它作为铺陈，暗指运河和隋炀帝的奢侈；大业是605—618年隋炀帝使用的年号；颈联写沉积在浊浪中的隋炀帝的龙船；尾联引出诗歌主题，述说古今奢华必亡的历史真谛。很显然，这是崔致远在历史的现场，以怀古的形式，用当年隋炀帝的奢侈，警醒

10) 徐居正等著，『东文选』第一册，卷四，首尔：民文库，1989，pp.607—608.

11) 徐居正等著，『东文选』第二册，卷二十二，首尔：民文库，1989，p.726.

12) 최치원저, 김진영 안영훈역 『고운최치원시집』 제3부,首尔:민속원 1997.

13) 崔致远有七言律诗《秋日再经盱眙县寄李长官》，这说明他去过几次盱眙县。

统治者的作品。隋堤两岸柳树依旧，但是换了人间。在作品中，崔致远利用“隋堤”、“柳色”、“龙舸”、“锦帆”等诗语，描绘当年隋炀帝的奢华出游，而到尾联点明主题。在崔致远看来，统治者的腐败奢侈就是亡国之兆，隋炀帝就是典型的。问题是这不只是隋炀帝一个人的事情，它具有普遍性，无论是谁只要腐化堕落那就亡党亡国。这是“奢华必亡”的沉痛的历史教训，统治者应该牢记这个教训，以史为鉴、以史为镜，不要重蹈隋炀帝的覆辙。

李仁老在〈半月城〉中也借用隋堤和柳树等隋炀帝的相关意象，说明奢华必亡的道理。

孤城微弯像半月，荆棘半掩猩?穴。鹄岭青松气郁葱，鸡林黄叶秋萧瑟。  
自从太阿倒柄后，中原鹿死何人手。江女空传玉树花，春风几拂金堤柳。<sup>14)</sup>

大家知道，李仁老是竹林高会的代表人物，作为新兴士大夫阶层知识子的代表他对等级森严的高丽门阀制度非常反感，经常在作品中对这种不合理的社会制度进行批评。这部作品第一韵交代半月城的形状，算是铺垫；第二韵写高丽替代新罗的历史必然性，其中“鹄岭”为开城的一个岭，一般指开城，“鸡林”指庆州。据新罗末期流行一个谶言，曰“鹄岭青松，鸡林黄叶”，这“鹄岭青松”指的是将要出现的新王朝高丽，“鸡林黄叶”指的是即将被高丽代替的旧王朝新罗，<sup>15)</sup>可见这是借用诗歌创作中常见的比喻手法，揭示历史演变和发展过程和新旧时代的更迭过程的。其后四句借用的是中国史，强调奢华必亡的历史教训。其中“太阿”句是比喻句，它是古代宝剑，这里讲的是倒着拿那个太阿剑，由此比喻把柄授与人，自己反而面临危险或深受其害。据『汉书·梅福传』：“至秦则不然，张诽谤之罔，以为汉毆除，倒持泰阿，授楚其柄”。这里的“泰阿”就是“太阿”，历史典故“太阿倒持”比喻受人权柄，自受其害。后面“中原”句则来自成语“鹿死谁手”。韩国民族文化促进会编的古典国译丛书『东文选』第一册七言古诗部分在解释这一句的时候，认为它和秦赵高的“指鹿为

14) 徐居正等著，『东文选』第一册，卷六，首尔：民文库，1989，p.617.

15) 张师勋，〈鸡林谣〉，『国乐大事典』，首尔：世光音乐出版社，1984，p.102.

马”有关，<sup>16)</sup>其实，这是一种误解，它实际上来自成语“鹿死谁手”，也和“中原逐鹿”（也称“逐鹿中原”、“群雄逐鹿”）有关系。在这里，“鹿”指帝位。南朝宋·裴骃的《史记集解》写道：“张晏曰：‘以鹿喻帝位也。’”由此可见，这句话的意思就是秦灭后各路英豪在中原争夺帝位，由于群雄角逐，最终“鹿死谁手”，帝位（政权）落到谁的手里，难于预料。这则成语出自《晋书·石勒载记》，曰：“朕若逢高皇，当北面而事之，与韩彭竞鞭而争先耳。脱遇光武，当并驱于中原，未知鹿死谁手。”<sup>17)</sup>这是十六国后赵的开国皇帝石勒在自比历代君主时说的话，意思就是如果他生活在刘邦年代，会成为他的部下；如果碰到的是光武帝刘秀，那么不知“鹿死谁手”，不知谁来坐这个帝位。显然，石勒还是非常自知之明。“逐鹿中原”、“群雄逐鹿”这则成语则也和蒯通的“秦失其鹿，天下共逐之”有关。据《史记》，刘邦平息陈豨乱之后回都城，看见韩信已经死了。他问吕后，韩信死前说了什么，吕后回答，“信言恨不用蒯通计”。刘邦怀疑蒯通和韩信的关系，缉拿蒯通，追问是不是教唆韩信反叛的时候，能说会道的辩士蒯通说了这句话，他认为：秦朝灭亡后，中原群雄逐鹿，谁也都有争夺帝位，掌握帝位的可能性。李仁老在这里借用的就是这些成语的意思，形象地表达了刀把掌握在别人手里之后，不知会出现什么样的结局的深深忧虑，可谓是体现了一个正直的儒学家对时局的深深忧虑和国家未来的极大关切。再后一句“玉树花”就是宫体诗《玉树后庭花》，是南朝陈王国昏庸皇帝陈后主所作的亡国之歌。按道理讲，陈国的灭亡不一定就和这支歌有关，但在某种意义上这支歌反映了陈国的腐败糜烂的政治和陈后主的腐化堕落的生活，它的流行过程实际上就是陈国的灭亡过程。据传陈国灭亡的时候，陈后主在宫中正与爱姬妾孔贵嫔、张丽华等人一起戏耍取乐。后来唐代诗人杜牧写这件事，留下了“商女不知亡国恨，隔江犹唱后庭花”的千古绝唱。最后一句，隋炀帝的时候，他在汴河边盖了一个行宫，河堤上栽了很多柳树，并奢华无比，淫乱至极，后

16) 见韩国民族文化促进会的古典国译丛书《东文选》第一册，韩国民族文化促进会的古典国译丛书《东文选》，首尔：民文库，1967，p.199.

17) 房玄龄等著，《晋书》卷一百五《载记第四》，许嘉璐主编，《二十四史全译》，《晋书》第四册，上海：汉语大词典出版社，2004，p.2360.

来隋朝灭亡，河堤里只留下一排排柳树，在春风里轻轻摇曳。故人已去不重返，空留柳树在岸边。这里的意境和崔致远的『汴河怀古』的意境相差无几，有异曲同工之妙。李仁老看来，无论是陈后主，还是隋炀帝，只要奢华淫乱，就要受到历史的惩罚。可见，在这里李仁老借用陈后主和隋炀帝的骄奢淫逸的生活，强调“奢华必亡”的历史教训。

任奎的〈过延福亭〉是取材于韩国史的为数不多的高丽咏史诗之一，也是借用隋炀帝和唐玄宗的形象讽喻国内统治者的作品，以史为鉴、以史为镜的功利目的非常明显。

谁劝君臣入酒乡，不知祸自在萧墙。酣歌不阙琼楼上，醒血交流辇道傍。  
炀帝汴河秋冷落，明皇蜀道雨凄凉。当时此恨无人识，满目溪山泪数行。<sup>18)</sup>

任奎（1119—1187），高丽仁宗、毅宗时期的文臣，官至平章事。诗题中的“延福亭”是高丽毅宗在开城东大门外修建的一个亭子。他不仅建了这个亭子，还筑坝建湖，整日在那里过花天酒地的糜烂生活。结果发生“武臣之乱”，高丽社会大伤元气，开始走下坡路。在诗歌中，任奎借用隋炀帝和唐玄宗的形象，对毅宗的这种不当行为进行规劝和批判。首联中的“萧墙”来自成语“萧墙之内”，出自『论语·季氏』，意为一切祸根来自内部；颔联描写“武臣之乱”带来的血雨腥风；颈联借用隋炀帝和唐玄宗的前车之鉴，警示统治者；尾联作者发出自己对这些历史和现实情形的无尽感慨。在任奎看来，一个王朝，包括一个时代，其兴亡盛衰主要在“萧墙之内”，在于内部，尤其是君王的贤明与否和国家的千秋万代有着密切的关系。“酣歌不阙琼楼上”的时候，正是“醒血交流辇道傍”时刻，这两者是有因果关系和必然联系性的一个问题的两个侧面。历史上的陈后主、隋炀帝，包括唐玄宗已经证明了这一点；“郑仲夫之乱”也证明了这一点。“汴河秋冷落”，“蜀道雨凄凉”句，感情饱满，言简意赅，形象地概括和展现了隋炀帝和唐玄宗历史悲剧的必然性。显然，这是对后来人的一种警示，他告诫人们要以史为鉴、以史为镜，吸取这些惨痛的教训。

18) 徐居正等著，『东文选』第二册，卷十二，首尔：民文库，1989，p.577.

李谷의 〈唐太宗六骏图〉是作者用来赞美唐太宗的丰功伟绩的，但在这里作者也用运河隐喻隋炀帝的腐朽生活，强调唐太宗起义的正当性。

汴河锦纆人方厌，秦王顺天提宝叙，风行电迈扫膻腥，所向金汤随手陷，  
周衰千载一贞观，功业赫然超两汉，当时所乘有六骏，挥戈恢恢有余刃，  
写真刻石手自赞，片石屹与凌烟峻，昭陵秋草夕阳边，行人指点多怆然，  
君不见辙迹纷纷王道缺，八骏曾到昆仑巅，又不见拔山力尽骓不逝，  
乌江烟月汉家天，功成自古在知己，岂在蹄高并锐耳。<sup>19)</sup>

这首诗歌充满着对唐太宗的仰慕之情。诗歌开头就写“汴河”，这个“汴河”也叫“新汴河”，指古代京杭大运河中段。隋炀帝时，河南淮北民众开掘了这个大运河。由于运河主干在汴水一段，自隋代以后习惯上称为汴河。“锦纆”指的是锦制纆绳。据传隋炀帝从汴河坐船去游玩时，经常用锦纆拉船，整个行程奢华无比，从而民不聊生，民怨四起。在这里作者借用隋炀帝的腐化反衬凸显唐太宗起义的正当性。下面的“秦王”实际上就是唐太宗，指他顺民意，举义旗。下面“君不见”句讲的是周穆王；再下面就是项羽，“骓”是项羽平时骑的乌骓马。“乌江”讲的是乌江边自刎的项羽的事。『史记·项羽本纪』记载，当时项羽带领八百人马冲出重围，来到乌江边，这时乌江亭长劝项羽赶快渡江，以图东山再起、报仇雪恨，可是项羽却笑着说：“天之亡我，我何渡为！且籍与江东子弟八千人渡江而西，今无一人还，纵江东父兄怜而王我，我何面目见之！”<sup>20)</sup>于是拔剑自刎而死。作品的第一句“汴河”句已经鲜明地表现出作者对隋炀帝的看法。在作者看来，隋炀帝的奢华已经引起了民众的愤懑，从而唐太宗的举义造反得到了正当性。

晋阳公子结好客，风云壮怀满八极，  
赫然一起挥天戈，隋堤杨柳无颜色。<sup>21)</sup>

19) 徐居正等著，『东文选』第一册，卷七，首尔：民文库，1989，p.636.

20) 司马迁，『史记』(1)，许嘉璐主编，『二十四史全译』，上海：汉语大词典出版社，2004，p.118.



这是李穡七言古体诗『贞观吟榆林关作』的前几韵，诗题中的“榆林关”位于河北张家口，也叫“榆关”，隋开皇三年（583）置，隋末废，唐贞观十三年（639）复置。这首诗歌和李穡的〈燕山歌〉、〈天宝歌过蓟门有感而作〉等一道，写河北燕赵地方的组诗，是集中反映李穡的“文治”、“德治”、“文德”思想的诗歌。在这里作者利用唐太宗的贞观之治，阐述得道多助失道寡助的历史必然性。第一韵中的“晋阳公子”是唐太宗，“晋阳”是地名，指山西太原县，唐以后改名为晋。唐高祖李渊就是晋阳公，那么李世民就是晋阳公子了。“天戈”指的是古代帝王的军队或武器。韩愈〈石鼓歌〉里有“宣王愤起挥天戈”的句子，在这里也是作为同样的意思来使用。“杨柳”指的是隋炀帝完成运河后在运河边植的柳树。“柳树无颜色”句暗示隋朝已经灭亡，是借用隋堤杨柳等意象意隐隋炀帝悲剧性结局的作品。

除此之外，崔匡裕的〈细雨〉、<sup>22)</sup> 赵浚的〈江都夜泊〉<sup>23)</sup>、〈安州怀古〉<sup>24)</sup>等诗歌中也出现隋炀帝，但都是和上面的诗歌一样具有豪华奢侈、游山玩水有关的负面意象，足见高丽文人心目中的隋炀帝的总体意象。

#### 4. 舞罢霓裳欢未足，一朝雷雨送猪龙：唐玄宗意象

收录在『东文选』的诗歌中，和唐玄宗有关的诗歌非常多，其中不仅有直接描写唐玄宗的，而且还有借用唐玄宗有关意象，表现作者心境的诗歌。其中常见的有霓裳羽衣曲、沉香亭、梨园、马嵬、渔阳等。

金富轼的〈闻教坊妓唱布谷歌有感〉是借用霓裳羽衣曲抒发现实忧虑的一部作品。

佳人犹唱旧歌词，布谷飞来桤树稀。

21) 徐居正等著，『东文选』第一册，卷八，首尔：民文库，1989，p.648.

22) 徐居正等著，『东文选』第二册，卷二十二，首尔：民文库，1989，p.567.

23) 徐居正等著，『东文选』第二册，卷二十二，首尔：民文库，1989，p.640.

24) 徐居正等著，『东文选』第二册，卷二十二，首尔：民文库，1989，p.728.

还似霓裳羽衣曲，开元遗老泪沾衣。<sup>25)</sup>

诗歌是金富轼闻教坊艺妓唱〈布谷歌〉之后所做的感怀之作，可谓感情深沉含蓄，诚恳真挚，与杜牧的〈泊秦淮〉有雷同之处。当年杜牧夜泊秦淮，在船上听歌女唱〈玉树后庭花〉后感慨万分，发出了“商女不知亡国恨，隔江犹唱后庭花”的千古绝唱。其实杜牧这是借题发挥，是借“玉树后庭花”讥讽晚唐腐败政治的；金富轼也是借用，但与原来的创作意图大相径庭，借用这支歌曲提醒统治者，要以史为鉴，以史为镜，告诫统治者此曲将要成为亡国之曲。

诗题中的“教坊”是高丽时期开设的“艺妓学校”；“布谷歌”据传是高丽睿宗所做。『高丽乐志』曰：“布谷，鸟之善鸣者也，睿宗欲闻已过及时政得失，广开言路，犹恐群下不言，做此歌，讽喻之也。”由此可见，这“不谷歌”是睿宗执意要改变当时不敢真言的朝廷现状而做的。睿宗认为：朝廷内没有真言势必导致政治的腐败和社会的混乱。“教坊”女子哪知个中的奥秘？把此歌当作娱乐品演唱尽情享受。看到这种现象金富轼很有感触，用这首诗歌警示统治者长此下去它将变成一个亡国之曲。很显然，诗歌体现了一个正统儒家金富轼对现实的清醒认识和对国家前途命运的深切关怀。诗歌起句的“佳人”很类似『夜泊秦淮』中的“商女”，都指卖唱卖艺的女子；承句“犹唱旧歌词”似乎“犹唱后庭花”演化而来，有同工异曲之趣；转句“霓裳羽衣曲”则是传说中唐玄宗去月宫得到的那个曲子；开元则是唐玄宗的年号，就是公元713年到741年，前后长达29年的“开元盛世”。就是说唐玄宗在位44年，前29年就是开元盛世。这一期间他任人唯贤，大治天下，开辟了一个政治稳定、经济繁荣、文化昌盛、国富民强的“开元盛世”。但后来不务正业，不理朝政，迷恋于“霓裳羽衣曲”和酒色，终于与755年导致了“安史之乱”。对此白居易写道：“渔阳鼙鼓动起来，惊破霓裳羽衣曲。九重城阙烟尘生，千乘万骑西南行。”中华文明和“开元盛世”经过这历时前后八年的“安史之乱”，遭到了前所未有的破坏，整个中华文明由此开放转向了保守，整个大唐帝国由盛唐开始走下坡路。其中和唐玄宗有直

25) 徐居正等著，『东文选』第二册，卷十九，首尔：民文库，1989，p.674.

接关系的“霓裳羽衣曲”起到了推波助澜的作用。

据《异闻录》、《唐逸史》、《杨太真外传》等记载，这“霓裳羽衣曲”是唐玄宗梦中所见。有一次，他做梦去天宫，在那里听到了仙乐奏曲，看到了身着霓裳羽衣的仙子的舞蹈，其歌声玄妙优美，其舞蹈婀娜多姿。李隆基醒来，对梦中的情景记忆犹新，记得清清楚楚。他很想把那个乐曲全部记录下来，但不管怎样就是谱不全它。他不停地想，就连白天上朝的时候，也揣着玉笛，一边听奏本，一边偷偷按笛孔，追忆那个曲谱。有一天，他来到三乡驿，远远地眺望女儿山，只见山峦起伏，烟雾缭绕。顿时他产生了许多美丽的遐想，把梦中听到的仙乐全部想起来了，立即在谱子上记录下来，创作了一部适合在宫廷演奏的大曲。他令乐工演奏《霓裳羽衣曲》，令贵妃设计舞蹈，为了让他们有个好的排练场，还特地建立一个梨园。贵妃与宫女们日夜赶排，终于练好了大型歌舞《霓裳羽衣舞》，每逢重大的庆典就演出。细腻优美的《霓裳羽衣曲》，仙乐奏起，贵妃就领着宫女们载歌载舞，一个个婀娜多姿，宛如仙女下凡。

问题是这个悠扬动听的歌曲和婀娜多姿的舞姿成为唐玄宗开始不务正业，重要的国政于不顾，迷恋于恋情和酒色的一个转折点。对于此《长恨歌》写道：“骊宫高处入青云，仙乐风飘处处闻。缓歌漫舞凝丝竹，尽日君王看不足”。同时杨氏家族鸡犬升天，为所欲为，享尽荣华富贵。他们的所作所为，早就引起了人们的不满，其结果直接招致“安史之乱”。白天不理朝政，偷偷按玉笛也好，建立梨园令杨玉环领着梨园弟子赶排“霓裳羽衣舞”也罢，已经大有亡国之音的色彩了。李仁老《过渔阳》中的“舞罢霓裳欢未足”的句子足以说明这个曲子给唐玄宗的朝政带来的严重后果，直接导致了“一朝雷雨送猪龙”的结局。正如白居易所说：“春宵苦短日高起，从此君王不早朝。承欢侍宴无闲暇，春从春游夜专夜。”在这种情况下，不出变故才怪。可以说，“安史之乱”是唐玄宗自找的，是腐败糜烂生活的必然结果。高丽诗人也是这个角度理解和解释这一历史事件的，因此，可以说充满以史为鉴、以史为镜，从中吸取历史教训的历史功利主义的意味。

金富轼的《灯夕》也是借用唐玄宗的糜烂生活，警醒统治者引以为戒的作品。

城阙深严更漏长，灯山火树粲交光。绮罗缥缈春风细，金碧鲜明晓月凉。  
华盖正高天北极，玉炉相对殿中央。君王恭默疏声色，弟子休夸百宝妆。<sup>26)</sup>

这是一首宫体诗。在作品中，作家大量用典，显示出鲜明的宋文学的影响。诗中的弟子就指当年玄宗训练的乐工舞女。据传唐玄宗曾选“坐部伎”三百人，整日排练歌舞，随时应诏表演，号称“皇帝梨园弟子”。在这里暗喻高丽宫廷的那些宫女。诗的前半部用“漏钟的声音”、“灯山”、“绮罗”、“金碧鲜明”、“晓月”等绘声绘色地描述一片祥和的燃灯会的奢华，淋漓尽致地描绘和铺垫出君臣夜间行乐图。很显然，光这些已经充满了对皇室的奢华风气进行讽刺的意蕴。然而诗人的目光并不局限于此。在诗的后半部，作者把笔锋骤然一转，用“北极星”的位置象征君主的威严，将摆放中央的“玉炉”的位置用来象征臣子的地位。这首诗歌里整体没有直接的人物描写，是通过渲染气氛和场景的描述来彰显宫殿的庄严的皇家气氛的。前面一直在铺垫，只为最后点出“疏声色”的主题服务。这种主题与形式的完美结合在这首诗歌表现得非常得体。亦可从儒学的角度看出金富弼理想中的帝王形象以及国泰民安、和平世界的追求以及作为儒家政治家的使命感。很明显，所有这些金富弼是借用唐玄宗的史实加以表现的。

与唐玄宗有密切关系的文化符号还有一个渔阳。渔阳是“安史之乱”的策源地，高丽文人赴京途径要经这个地方。李仁老的绝句『过渔阳』就是在这个历史的现场写的。诗歌采用咏史诗的一个较为典型的“过某某地方”的形式，在这历史的现场抒发了自己对唐玄宗和对那些历史事件的各种感受。其目的依然是以史为鉴，以史为镜、警示统治者。

槿花低映碧山峰，卯酒初酣白玉容。  
舞罢霓裳欢未足，一朝雷雨送猪龙。<sup>27)</sup>

李仁老1182年以贺正使行书状出使金朝，这首诗就是当时他路过渔阳时

26) 徐居正等著，『东文选』第二册，卷十二，首尔：民文库，1989，p.572.

27) 徐居正等著，『东文选』第二册，卷二十，首尔：民文库，1989，p.686.

做的。诗歌整体描写唐玄宗沉溺于贵妃的姿色和霓裳羽衣舞，不理朝政，导致“安史之乱”的历史事实。诗题中的“渔阳”是安禄山的老窝；起句的“槿花”是木槿花，用木槿花和碧山峰相互映衬进行铺垫；承句的“卯”指清晨5点到7点，描写通宵达旦沉浸在酒色之中的玄宗和贵妃；诗句中的“碧”和下面的“白”相对，可谓追求工整的对仗；转句的“霓裳”就是“霓裳羽衣曲”，在说通宵的欢乐方兴未艾，隐喻花天酒地的糜烂生活；结句就讲通宵欢乐不理朝政的恶果。这里的“猪龙”就是安禄山。据『杨太真外传』，有一次，唐玄宗和安禄山喝酒，安禄山醉卧沉睡时“化为一猪而龙首”，左右惊慌失措，立刻转告了唐玄宗。唐玄宗看后，曰：“此猪龙，无能为”，放了他一把，但意想不到的是“开元盛世”最终还是断送在这个“猪龙”之手。在作者看来，唐玄宗的花天酒地的糜烂生活导致了这出悲剧，作为君王应该以史为鉴、以史为镜，警戒这种糜烂生活。

李穡在〈燕山歌〉中对唐玄宗的奢华行为进行批判的同时，提出了自己崇尚的德治主义思想。

燕山之阳云如堆，龙飞凤舞源由来，长城中断居庸开，春风秋月轩辕台，  
昭王一去亦已矣，黄金千载空尘埃，天旋地转光岳合，土圭日影明堂开，  
四方漕唐蓄山海，万国玉帛驰风雷，吾闻在德不在险，传世百万何疑哉，  
秦皇唐明共一辙，不足骊山为祸胎，临风独立意苍莽，日暮车马净喧豕。<sup>28)</sup>

燕山位于中国华北地区；“居庸关”位于北京（从前河北）昌平县，它地势险要，历来就是兵家必争之地；“轩辕台”是建在轩辕丘上的一个台，据传这是黄帝建都之地；“昭王”就是春秋战国时期的燕昭王（公元前335—公元前279），在位期间，他为了广泛招贤纳士，修“黄金台”，台上放很多金子招揽贤者。“光岳合”中的“光”指日、月、星；“岳”为“山岳”，指“五岳”。“土圭”为古代玉器。很显然，这里所用的都是和燕国有关的历史、传说。另外，后面的“吾闻在德不在险”句出自『史记·孙子吴起列传』：有一次，魏武侯浮西河而下，顾而谓吴起曰：“美哉乎！山河之固，此魏国之宝也！”吴起对曰：“在德不在

28) 徐居正等著，『东文选』第一册，卷八，首尔：民文库，1989，p.648.

险。”然后他举出历史上的好多例子，说明治国之道在于德不在险的道理。这是这首诗歌的核心内容，是集中体现李穡的治国方略的地方。后一句的内容也体现作家的这种思想，用历史上的许多反面教训，警示统治者，德治才是治国之本。“秦皇唐明共一辙”讲的就是和秦始皇一样，唐玄宗也迷恋于花天酒地的生活。他为了杨贵妃，怠慢朝政，宠信奸臣李林甫、杨国忠，加上重用安禄山，结果导致了延续八年之久的“安史之乱”，巨大而强大的大唐帝国由此开始走下坡路。在李穡看来，秦始皇也好，唐玄宗也罢，都不具备君王的根本之道，尤其是唐玄宗不以史为镜，重蹈秦始皇的覆辙，丧失大唐盛世，实在令人痛惜。

天宝盛时何昌丰，天宝乱时何朦胧，沉香亭中春色浓，渔阳鼙鼓声凿整，  
马嵬山下飞尘红，天子剑佩鸣琤琮，三风十愆在省躬，宴安鸩毒须慎终，  
明皇一念常笃恭，此胡安敢行狂凶，乃知人事非天穷，  
君不见吴王宫西施半酣歌吹蒙，越兵蒙自渡江无风。(29)

这是李穡的『天宝歌过蓟门有感而作』，也是借用唐玄宗的形象讥讽现实政治的作品。作品中的“沉香亭”位于长安，是当年唐玄宗和杨贵妃赏花游玩的亭子；“鼙鼓声冬冬”意喻安禄山的叛军攻城；“马嵬山”就是“马嵬坡”。当年唐玄宗就在这里含泪逼贵妃自尽。下面“三风”指的是耽误政事的三个风，即巫风、淫风、乱风；“十愆”也是君主耽误政事的十个行为，分别为舞、歌、货、色、游、吠、侮（圣言）、逆（忠直）、远（耆德）、比（顽童）。可见这“十愆”中，一和二是巫风；三到六是淫风；七到十是乱风。<sup>30)</sup>下面“此胡”是指安禄山；“君不见”句子讲当年越王因战败赴吴国做人质，同时进贡大量珍贵财富和美女取悦夫差的事。夫差宠爱越王进贡的西施，特地为她兴建了规模宏大的离宫。宫内富丽堂皇，铜勾玉槛，饰以珠玉，在这里夫差和西施度过了花天酒地的糜烂生活。唐朝诗人刘禹锡有诗云：“艳倾吴国尽，笑入楚王家。”这些

29) 徐居正等著，『东文选』第一册，卷八，首尔：民文库，1989，p.648.

30) 这里更为具体的内容参见『书经』的有关部分。

内容中不难看出李穡写这部诗歌的真正目的。

除此之外，崔承祐的〈镜湖〉、<sup>31)</sup> 郑知常的〈西都〉、<sup>32)</sup> 李仁老的〈白芍药〉、<sup>33)</sup> 白文宝〈洪武四年驾行长湍拜献主上殿下〉<sup>34)</sup>、李百顺的〈过渔阳次李眉叟韵〉、<sup>35)</sup> 崔恒的〈戒二子〉<sup>36)</sup>等作品中也有和唐玄宗有关的内容和各种有关意象。这说明唐玄宗也是韩国文人常用的中国帝王形象之一。

## 5. 结论

以上我们对高丽汉诗中的秦始皇、隋炀帝、唐玄宗这几个中国帝王的意象进行了简要的分析。经过分析发现：在诗歌创作中，高丽文人经常借用中国历史上的帝王意象表现自己的思想感情，同时他们还警示统治者，以史为鉴、以史为镜，要勤政爱民；奢侈腐败，必然亡国的惨痛教训。其实，这些诗歌是借用中国历史的高丽诗歌中的极少的一部分。高丽汉诗中出现的中国历史人物包括帝王将相远比这个多，如果加上高丽汉诗借用的中国历史事件包括历史典故更是不知其数了。这说明高丽文人非常重视历史，爱用历史题材。那么，这里的问题是为什么高丽文人如此爱用历史题材，重视历史的问题。

其实，这和民族意识的高涨而来的历史重要性的高丽文人的认识有密切关系。

众所周知，在韩国历史上高丽是一个非常特殊的时期。它的特殊性在于两个方面：第一、这是中国文化以宋文化为中心大量流入韩国的历史时期，换言之是外国文化的影响越来越强烈的时期；又是在外国文化的影响下民族自主主体意识非常高涨的时期。外国文化的影响和民族自主主体意识的崛起，

31) 徐居正等著，『东文选』第二册，卷二十二，首尔：民文库，1989，p.560.

32) 徐居正等著，『东文选』第二册，卷二十二，首尔：民文库，1989，p.677.

33) 徐居正等著，『东文选』第二册，卷二十二，首尔：民文库，1989，p.686.

34) 徐居正等著，『东文选』第一册，卷七，首尔：民文库，1989，p.639.

35) 徐居正等著，『东文选』第二册，卷二十二，首尔：民文库，1989，p.679.

36) 徐居正等著，『东文选』第二册，卷二十二，首尔：民文库，1989，p.662.

这两个似乎水火不相容的现象构成了高丽社会的特殊性。在高丽社会这也许就是一个问题的两个侧面，换言之，中国文化的大量流入和它的深刻影响，影响了高丽人的民族自主意识；“我是谁”，“我从何而来”等民族自主主体意识的空前提高，又反过来促使中国文化的大量流入。在强烈的中国文化面前，高丽文人开始意识到了历史和传统对一个民族的发展和崛起所起到的重大作用。他们在中国文化的强烈影响下，开始认真思考我是谁，我从何而来的问题，也深感认真整理自己历史的必要性。于是，他们从各个方面开始着手探讨和解决这个问题。其中最为典型的就是着手整理自己的历史，以正自己的民族史，以树自己的历史传统的事业。民族的历史就是在这种自己历史的整理中得到其正统性的；民族的传统也是在这里得到一种确立。高丽时期出现的两部史书『三国史记』和『三国遗事』包括李承休的『帝王韵记』并非偶然的，它就是这种日益高涨的民族自主意识的产物。李奎报的民族史诗『东明王篇』也是这种意识的产物。高丽歌谣为首，“恨”为中心的民族传统也是在这种日益高涨的历史意识和民族意识中产生和发展起来的。

高丽汉诗也是这样。高丽文人认识到，中国史虽是中国的，但他山之石可以攻玉，它可以给韩国提供许多经验和教训，其中也不少韩国人值得学习和参考、借鉴的东西。尤其是历史上的那些贤君和暴君，用他们的历史给后人提供了宝贵的历史经验和教训。上述诗歌中描绘的那些暴君，他们的穷凶极恶和奢华腐败给国家和民族带来了不可挽回的巨大灾难，这种历史教训值得借鉴的。中国历史上的第一个统一王朝，就亡在阿房宫和“焚书坑儒”为中心的秦始皇的暴政；结束南北朝群雄混战的四分五裂的历史建立统一王朝的隋朝，也不过两代就灭亡，其原因也是大兴土木，开凿运河，尽情地奢侈和享乐；在中国历史上最强、最伟大的王朝唐也从曾开辟开元盛世的唐玄宗的糜烂生活和“霓裳羽衣曲”中开始走下坡路。高丽文人通过『史记』等中国史书非常熟悉这些历史，认为高丽人包括帝王在中国的这种血的历史中，学习治国方略。这是高丽文人争先恐后描写这些帝王的重要原因之一。当然，这里还有高丽时期开始实施的科举，宋文化的大量流入，汉文化的重视等原因，但以中国历史为鉴、以中国历史为镜依然是高丽汉诗中大量出现中国帝王包括在内



的各种中国历史人物意象的真正原因。

## ◆ 参考文献

### 1. 资料

徐居正等著,『东文选』,首尔:民文库,1989.

### 2. 单行本

房玄龄等著,『晋书』卷一百五『载记第四』,许嘉璐主编,『二十四史全译』,『晋书』第四册,上海:汉语大词典出版社,2004.

金宗瑞,『高丽史节要』,首尔:亚细亚文化社,1972.

金宗瑞郑麟趾,『高丽史』,首尔:亚细亚文化社,1983.

孔子等著,骆宾译注,『四书五经』,北京:中国文联出版社,2016.

李慧淳,『高丽前期汉文学史』,首尔:梨花女子大学出版社,2004.

刘强,『高丽汉诗文学史论』,厦门:厦门大学出版社,2008.

闵丙秀,『韩国汉诗史』,首尔:太学社,1996.

权近,〈宿登州蓬莱驿咏怀古迹〉,民族文化促进会编译,『阳村集1』,首尔:松树出版社,1997.

司马迁著,『史记』,许嘉璐主编,『二十四史全译』,上海:汉语大词典出版社,2004.

张师勋,〈鸡林谣〉,『国乐大事典』,首尔:世光音乐出版社,1984.

논문접수일	2022년 10월 12일
심사완료일	2022년 11월 25일
게재확정일	2022년 12월 08일

*Abstract*

Taking History as a Mirror  
- Study of Images of Chinese Emperors in Chinese Poems Included in  
Selected Oriental Literature -

Zheng, Dongmei · Yin, Yunzhen

In order to express their thoughts and feelings more implicitly, Chinese poems in Koryo often borrow from Chinese historical figures, as do the Chinese poems included in Selected Oriental Literature. An overview of the Chinese historical figures that appear in China-themed poems in Koryo focuses on Chinese emperors and generals, among which the more notable ones are Shi Huang of Qin, Yang Emperor of Sui, and Xuan Zong of Tang. To the Koryo literati, these three men are unlike Yao and Shun, who were well-known for their benevolence and virtue, Liu Bang, who appointed officials according to their abilities, and Taizong of Tang, who started the prosperous reign of Zhenguan. The three monarchs represent an entirely different type of rulers who lost their empires in corrupt and lavish style of life. The Koryo literati believed that these were worthy lessons to be learned from history and the Koryo dynasty should learn from the downfall of these emperors. Therefore, they often borrowed the images of these Chinese emperors to warn the Koryo rulers, showing a high sense of social responsibility of upright Confucians and reflecting a strong utilitarianism towards history. There are many reasons for the Koryo literati's preference for Chinese historical figures. The most important of these are the rise of national autonomy that began in the Goryeo period and the historical consciousness that came with the awakening of the national sense and cultural self-awareness.

**Keyword** Chinese poems in Goryeo, Chinese emperors, learning from history, national consciousness, historical awareness

## 한중인문학회 회칙

###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한중인문학회(한문표기 : 中韓人文學會, 이하 “학회”라 함)’라 한다.

제2조(목적) 학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국내 한국학의 진흥 및 그 성과의 해외 소개
2. 재외 한국학 연구자들과의 교류를 통한 해외 한국학의 활성화
3. 동아시아, 특히 중국과의 학술문화사상적 교류 및 관계 탐구
4. 기타 한국학의 국제적 위상 및 정체성 제고를 위한 제반 활동

제3조(사업) 학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연구발표회 개최
2. 학회지 『한중인문학연구』 간행
3. 한중인문학 관련 도서 간행
4. 국내외 학술단체와의 학술교류

제4조(연구 윤리)

1. 학회의 제반 활동은 학술연구에 관한 윤리 및 진실성 확보를 바탕으로 한다.
2. 회원들의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별도의 <윤리 규정>을 제정, 시행한다.

## 제2장 회원

제5조(자격) 학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국내외 한중인문학 관련 언어, 문학, 역사, 철학, 문화, 언어교육 분야 등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2. 기타 한중문화 교류에 관여하는 전문가 및 기관

제6조(가입) 학회의 가입은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인준한다.

제7조(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학회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제8조(의무) 회원은 회칙 및 결의사항을 이행하고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징계)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회장이 이사회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 제3장 임원

제10조(조직) 학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약간명(전공별, 지역별)
3. 분과이사 약간명
4. 감사 2인

제11조(선출)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과 분과이사 및 간사는 회장이 지명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2조(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며 사무 전반을 총괄한다.
2. 행정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학회의 사업을 기획·조정한다.
3. 분과이사는 학회의 주요 업무와 의결사항을 집행한다.
4. 감사는 학회의 재무사항 일체를 감사하며 매년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3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 제4장 회 의

### 제14조(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연1회 개최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 ① 사업 계획의 심의
  - ② 예산 및 결산의 심의
  - ③ 임원 선출 및 인준
  - ④ 회칙 개정
  - ⑤ 기타 중요사항
3. 임시총회는 학회 운영상 특별히 의결이 필요할 때 회원 3분의 1 이상이나 이사회에의 요청으로 회장이 소집한다.

### 제15조(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전공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① 총회 의결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 ②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예비심의에 관한 사항
  - ③ 업무 집행 및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 ④ 기타 중요사항

### 제16조(편집위원회)

1.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와 기타 출판물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
2. 편집위원회는 1인의 편집위원장과 1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3. 편집위원회의 제반 사항은 <편집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 제17조(연구윤리위원회)

1. 연구윤리위원회는 학회의 제반 활동 및 회원의 연구 활동을 대상으로 하여 학술 연구 윤리 규범을 홍보하고 <윤리 규정>의 준수 여부를 관리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정한다.
3. 연구윤리위원회의 제반 사항은 <윤리 규정>을 따른다.

제18조(의결) 회의안건은 출석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 제5장 재 정

제19조(재정내역) 학회의 재정은 회원의 기금, 입회비, 연회비,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20조(회계연도)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제21조(예산결산) 예산 및 결산은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 제6장 기 타

제22조(내규) 이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규로 정한다.

## 부 칙

- 이 회칙은 199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회칙은 2002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 이 회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회칙은 200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회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회칙은 2014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한중인문학연구』編輯委員會 規定

###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학술지 『한중인문학연구』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발행) 본 위원회가 발행하는 학술지 『한중인문학연구』는 다음 지침에 따라 발행된다.

1. 연4회 발간하되, 3월 30일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에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학술지 게재 심사 대상은 투고된 학술대회 발표문과 수시로 접수한 논문으로 한다.

제3조(연구 윤리)

1. 본 위원회의 활동은 학술연구자로서의 도덕적 의무와 사회적 책무 이행에 바탕을 둔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의 활동은 본 학회의 〈윤리 규정〉에 의한 제반 규약을 준수한다.
2. 이와 관련한 사안은 연구윤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처리한다.

### 제2장 구성

제4조(구성) 편집위원회는 1인의 편집위원장과 1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1. 편집위원은 이사회에서 추천, 회장이 위촉한다.
2.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편집위원회에서 선출하며, 회장이 위촉한다.



제5조(인원) 편집위원은 아래의 분야에 따라 위촉한다.

1. 한국 인문학 : 문학, 어학, 고전, 역사, 문화, 교육 등 6개 분야
2. 한중 비교학 및 중국학 : 중국 문학, 중국 어학, 중국 사상, 비교 문학 등 4개 분야
3. 위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자로서 연구업적과 활동 지역을 고려하여 선정, 임명한다.

제6조(편집위원 선정 기준) 편집위원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대학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학술연구 실적이 뛰어난 자
2. 중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한 인문학 분야를 전공으로 하는 자

제7조(임기)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자문위원) 편집활동의 제고를 위해 약간의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제3장 심사

제9조(투고 자격) 투고자는 원칙적으로 본 학회 회원이면서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하며, 투고된 모든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가 결정된다.

제10조(논문의 범위) 논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 등에 발표되지 않은 새로운 원고로 한정한다.(기취득한 학위논문을 요약 및 발췌한 내용이나 이미 발표된 논문과의 접근 방식에서 확연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은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1. 한국학의 내적 특성을 심화시키거나 외연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내용
2.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인문학 분야 및 한국학의 정체성 탐구와 관련 있는 내용

제11조(심사위원)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전공분야에 연구업적이 있는 자로 논문 한 편 당 3인을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다.

제12조(심사 기준) 심사위원은 위촉받은 논문을 평가항목에 근거하여 심사하여 판정 소견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항목 \ 점수	5	4	3	2	1
논문의 창의성					
방법의 적절성					
논리의 타당성					
체제의 적합성					
학문적 기여도					
총점					

## 제4장 심사 절차 및 심사 규정

제13조(접수) 논문 투고는 온라인 투고시스템(<http://submission.kochih.kr/Login>)을 통해 수시로 받는다.

제14조(예심)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세부 분야별로 분류하여 예심을 한다.

제15조(심사 의뢰) 편집위원장은 예심을 거친 논문을 해당분야의 심사위원 3인에게 ‘심사의뢰서’와 함께 보내 심사를 요청한다.

제16조(심사 절차) 심사위원은 심사의뢰서에 근거하여 위촉받은 논문을 심사하고 심사 평가란에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가운데 택일하여 기록한 후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1.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원고 투고자와 심사위원은 서로 이름을 알지 못하도록 한다.
2.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서 직접 심사하고 그 결과를 입력할 수 있다.

제17조(심사 규정) 편집위원회는 수합된 심사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최종평가를

통해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1. 각 심사위원의 평가 결과에서 3인 이상이 게재에 동의할 경우 반드시 게재한다.
2. 최종평가에서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한 경우,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수정해야 할 사항을 명기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1주일 이내에 수정 보완하여 수정확인서와 함께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4. 편집위원회는 수정·권고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된 논문에 한하여 논문의 게재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
5. 최종평가에서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의뢰한다.
6. 논문 수정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게재를 다음 호로 미룰 수 있다.
7. 심사결과 2인 이상 ‘게재 불가’ 판정이 있을 경우 무조건 반려한다. 단 1인 이하의 심사위원이 ‘게재 불가’ 판정을 한 경우는, 이 판정은 ‘수정 후 게재’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8. 심사 결과 ‘게재 불가’의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제시하여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편집위원회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른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 ① 투고자는 ‘게재 불가’의 판정을 통보 받은 후 7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 내용을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②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접수되면 편집위원회에서는 그 타당성과 구체성 여부를 1차 검토한 후 이의 제기가 이유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때 심사위원을 전원 교체하여 ‘게재 가’와 ‘게재 불가’의 한 가지 중에서 판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는 다수의 판정 결과를 참조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판정한다.
  - ③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는 한 차례에 한한다.
  - ④ 재심사에 들어갈 경우 이의 신청자는 재심 논문 심사비 등을 포함하여

내규에 따른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재심은 심사비 납부 이후에 진행된다.

9. 투고자에게는 논문의 게재여부와 구체적인 심사 내용을 명시한 ‘논문심사 결과서’를 보낸다.
10. ‘수정 후 게재’ 논문의 경우 만약 심사자의 의견에 대한 수정보완이나 구체적 의견 제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게재를 제한한다.
11. 발행 면수 제한 때문에 논문 편수를 더 줄여야 하는 경우에는 심사기준표에 따라 최하위 논문을 다음 호에 게재할 수 있다.
12. 외국어 논문을 학회지에 일정 비율 수록하도록 한다. 수록 비율은 편집회의에서 결정한다.
13. (재투고 금지) 재투고는 1회에 한하며, 이전의 심사결과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받아 반려된 논문과 동일한 내용으로 재투고할 수 없다. 재투고된 논문은 1차 심사절차와 동일하게 심사를 진행한다.

## 제5장 투고 규정

제18조(투고) 투고는 홈페이지의 논문투고 메뉴를 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투고시 학회에서 요구하는 ‘논문투고신청서’ 양식과 논문표절 방지를 위한 <KCI 문헌 유사도 검사 결과서>를 첨부해야 한다. 단 공동저자인 경우 저자와 관련된 정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모든 저자가 ‘논문투고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19조(접수 마감) 접수 마감은 1월 30일, 4월 30일, 7월 30일, 10월 30일로 한다.

제20조(원고 작성) 논문 작성 요령은 제26조의 논문 작성 양식을 따른다.

제21조(투고 제한) 단독 저자 및 공동 저자의 투고 시, 연속 2회 투고 및 게재불가를 원칙으로 한다. 단 편집위원회가 특별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또한 표절 등 연구 윤리 위반으로 판정된 논문을 재투고할 수 없

다.

제22조(원고의 제출) 논문의 내용 상 그래프나 표 등이 오류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1 부를 출력하여 그 부분을 붉은색으로 표기, 겹표지와 논문을 첩하여 아래의 학회사무실로 제출하고 인수증을 받는다. 우편 제출 시 논문 겹표지에 ‘『한중인문학연구』 제 00호 투고 논문’이라 쓰고 보내는 사람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e-mail 주소를 쓴다.

#### 학회사무실 주소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관악캠퍼스 1동 314호  
한중인문학회 김유중  
E-mail : kochih@hanmail.net

제23조(심사비) 논문 투고자는 논문 투고 시에 소정의 심사비를 학회 통장으로 입금해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심사서 접수 후 심사위원들에게 소정의 심사비를 지급한다.

제24조(게재료) 심사 후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된 논문은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게재료는 일반 논문과 연구비 수혜 논문으로 구분하여 납부하며, 금액은 편집위원회의 내규로 정한다.

제25조(영문초록) 편집위원회는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 학술논문 영문교정 전문기관에 영문 초록 교정을 의뢰한다. 영문 초록 교정에 드는 비용은 논문 저자가 부담하여, 게재료에 반영한다. 단 저자가 별도 교정을 원할 경우, 저자는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서 영문 초록 교정을 받았음을 증빙할 수 있는 ‘영문 초록 교정 확인증’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26조(연구 윤리) 연구 윤리를 심의 감독할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회장이 임명한 1인이 위원장을 맡도록 한다.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은 별도로 제정하

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27조(이해상충 및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 부정행위 방지) 논문 투고자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이나 가족의 사적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이해상충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논문 투고자는 투고 논문과 관련하여 이해상충 관련 보고를 요구받았을 때, 즉시 학회 측에 이해상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 게재 후라도 이해상충 관련 연구부정이 확정되면 연구윤리위원회의 징계 절차에 따라야 한다.
2.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의 이해상충 및 특수관계인 공동저자가 의심되는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연구윤리위원회는 즉시 이에 대한 심사 및 판정에 돌입한다.

제28조(논문 작성 양식) 논문 작성 요령은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1. 논문은 “한글(2010 이상)”으로 작성할 것을 기본으로 한다.
2. 원고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기준 120매(편집 후 총면수 24쪽 이내) 내외로 하고, 150매 이상(편집면수 30쪽 이상)은 투고를 제한한다.(출판 편집 후 24쪽을 초과할 경우에는 1쪽 당 2만원의 추가 조판비를 부담한다.)
3. 논문의 체계는 제목, 성명, 국문개요, 국문 주제어, 목차, 본문, 참고문헌, 영문제목, 영문 성명, 영문초록, 영문 주제어의 순으로 한다.
4.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저자의 소속 및 직위 등은 논문 첫 페이지에 각주로 표시하고, 공동 저자가 있을 경우 주저자(또는 제1저자)와 교신저자(또는 제2저자) 등을 빠짐없이 구분하여 정확하게 표기한다.

대상		표시할 사항
대학 소속	대학 소속 교수 및 강사	성명/대학명/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의전담교수, 겸임교수, 초빙교수, 강사 등
	대학 및 대학원 소속 학생	성명/대학명/학부과정, 석사과정, 석사수료, 박사과정, 박사과정수료
	대학 소속 박사 후 연구원	성명/대학명/박사 후 연구원
초중등 학교 소속	유초중등학교 소속 교사	성명/학교명/교사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	성명/학교명/학년
연구기관	연구원	성명/기관명/직위
기타	소속/직위가 없는 성인	성명/전)소속명/종별 학위, 전)직위, (또는) 성명/연구자
	소속/직위가 없는 미성년자	성명/최종소속명/학생, 졸업, 재학연도

- 모든 논문은 국문개요와 영문초록을 첨부하고 국문 주제어와 영문 주제어를 각각 5개 이상 표기한다.
- 편집용지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용지 종류	용지 여백		용지 방향
사용자 정의 폭 : 153mm 길이 : 225mm	위쪽	19,0mm	좁게
	아래쪽	27,0mm	
	왼쪽	22,0mm	
	오른쪽	22,0mm	
	머리말	13,0mm	
	꼬리말	0	
	제본	0	

- 논문에서 사용되는 기호는 다음에 의거한다.
  - 본문의 항목구분은 1, 1), (1) ①의 순서로 한다.
  - 표 및 그림은 <표1> 제목, <그림1> 제목의 순서로 한다. 중국어논문은

〈表1〉 제목, 〈圖1〉 제목의 순서로 한다.

③ 〈 〉 작품, 『 』 작품집, 「 」 논문, 『 』 신문 · 잡지 · 저서,  
 ‘ ’ 강조 및 간접인용, “ ” 직접 인용으로 한다.

8. 논문의 스타일 모양은 다음과 같다.

① 한국어논문일 경우

스타일 이름	글자모양				문단모양				
	크기	장평	자간	글꼴	왼쪽 여백	오른 여백	들여 쓰기	줄 간격	정렬 방식
바탕글	10	90	-6	휴먼명조	0	0	10	170	양쪽
국문요약	8.5	95	-9	휴먼명조	0	0	10	160	
논문제목	14.5	95	-9	신명태명조	0	0	0	160	중앙
1	12	90	-6	신명태명조	10	0	0	170	양쪽
1)	10.6	90	-7	신명중고딕	10	0	0	170	양쪽
(1)	10	95	-8	신명중명조	10	0	0	150	양쪽
①	10	95	-9	휴먼명조	10	0	0	170	양쪽
인용문	9	95	-9	휴먼명조	10	0	10	150	양쪽
각주	8.6	95	-9	휴먼명조	0	0	내어쓰기 14	138	양쪽
참고문헌	8.9	95	-9	휴먼명조	0	0	내어쓰기 30	145	양쪽
영문초록	9	90	-7	신명신명조	10	0	0	150	양쪽
표제목	8.5	95	-7	중고딕	0	0	0	170	중앙
머리말(홀수) (논문 제목 기입)	8.7	90	-5	신명신명조	0	0	0	170	오른
머리말(짝수) (학회지명, 호수 기입)	8.7	90	-5	신명신명조	0	0	0	170	양쪽

\* 이상 여기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모두 기본값으로 둔다.

② 중국어논문일 경우

스타일 이름	글자모양				문단모양				
	크기	장평	자간	글꼴	왼쪽 여백	오른 여백	들여 쓰기	줄 간격	정렬 방식
논문제목	14.5	95	-9	신명조 간자	0	0	0	160	중앙
국문요약	8.5	95	-9	휴먼명조	0	0	10	160	
바탕글	10	90	-6	신명조 간자	0	0	10	170	양쪽



1	12	90	-6	신명조 간자	20	0	0	250	양쪽
1)	10.6	90	-7	신명조 간자	10	0	0	210	양쪽
(1)	10	95	-8	신명조 간자	10	0	0	200	양쪽
①	10	95	-9	신명조 간자	10	0	0	170	양쪽
인용문	9	95	-9	신명조 간자	10	0	10	150	양쪽
각주	8.6	95	-9	신명조 간자	0	0	내어쓰기 14	138	양쪽
참고문헌	8.9	95	-9	신명조 간자	0	0	내어쓰기 30	145	양쪽
영문초록	9	90	-7	신명조 간자	10	0	0	150	양쪽
표제목	8.5	95	-7	신명조 간자	0	0	0	170	중앙
머리말(홀수) (논문 제목 기입)	8.7	90	-5	신명조 간자	0	0	0	170	오른
머리말(짝수) (학회지명, 호수 기입)	8.7	90	-5	신명조 간자	0	0	0	170	양쪽

\* 이상 여기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모두 기본값으로 둔다.

※ 중국어 투고 논문은 간체자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글자 모양은 신명조 간자를 사용한다.(다만, 번째 자 사용 지역에서 투고하는 경우나 중국의 고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번체자를 사용할 수 있다.)

9. 논문에서 사용되는 주는 각주로 작성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수정 2016. 01. 13)

① 저자, 「논문명」, 『저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쪽수.  
(인용쪽수는 p 또는 pp로 표기한다.)

② 영문 각주일 때 논문은 “ ”로, 저서는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10. 참고문헌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 ① 참고문헌은 단행본과 논문으로 나누어 완전한 서지정보를 표기한다.
- ② 학술지에 실려 있는 논문일 경우에는 해당 논문의 게재 면수(해당 논문의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를 반드시 표기한다.
- ③ 국내문헌을 먼저 표기하고 다음에 일본어, 중국어, 기타 동양권 문헌 다음에 영어, 불어, 스페인어, 기타 서양권 문헌의 순서로 배열한다.
- ④ 국내문헌은 저자의姓을 가나다 순서로, 동양권 문헌은 저자 독음을 가나다순으로, 그리고 서양권 문헌은 저자姓의 알파벳 순서로 배열한다.

- ⑤ 외국 논문의 경우 자국 언어의 문헌을 국내문헌으로 간주한다.

## 제6장 논문의 학회 이용권

제29조(학회의 저작권) 학술지 『한중인문학연구』에 게재된 논문은 저작권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학회의 이용권을 자동 허락한다.

제30조(논문의 이용)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학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게시된 논문은 회원에 한하여 무료 온라인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1조(논문 공개) 한국연구재단(KCI) 홈페이지에 탑재된 학술지의 모든 논문은 원문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2조(상업 이용 금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상업적 이용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며, 예외적인 경우가 발생하면 저자와 학회 간에 별도 협약을 맺는다.

## 부 칙

제33조(내규)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통례를 따른다.

제34조(개정) 본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2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4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6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7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8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9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1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2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 한중인문학회 윤리 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학회 제반 활동의 윤리 및 진실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기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약) 본 학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윤리 규정 준수를 서약해야 한다. 본 윤리 규정의 발효 시 기존 회원은 본 윤리 규정 준수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의무) 본 학회의 모든 구성원은 연구자로서의 규범을 준수하고, 학술 연구를 통하여 학문과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며 연구자로서 지켜야 할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1. 회원은 학술 연구 수행 및 연구 논문 발표 시 본 윤리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학회의 윤리 조사가 있을 때에는 협조해야 한다.
2. 회장은 회원의 연구 수행과 주관사업 진행 시 준수해야 할 연구 윤리 규범을 알리기 위해 홍보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 인력, 체계를 지원해야 한다.

제4조(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본회 회원의 규범 준수와 성실 의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제5조(대상과 범위) 이 규정은 본 학회의 회원 및 본 학회가 주관하는 사업 및 사업관련자에 적용된다.

제6조(윤리규정 위반의 보고)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 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 회원에게 윤리 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 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7조(규정의 수정) 윤리 규정의 수정 절차는 학회의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 규정이 수정될 경우, 수정 전의 규정에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2장 일반적 윤리

제8조(사회책 책임)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가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자각하고 전문가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제9조(학문의 자유) 연구자는 사상, 종교, 나이, 성별 및 사회적 계층과 문화가 다른 집단의 학문적 업적에 대하여 편견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

제10조(전문가로서의 자세) 연구자는 자신의 학술적인 능력과 전문성을 유지 혹은 향상시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11조(연구의 진실성) 연구자들은 모든 연구 활동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며 타인의 연구 활동을 존중한다. 연구자들은 오직 학문적 근거에 의하여 판단하고 의견을 제시하며, 본인의 전문적 영역을 넘어서는 판단을 삼간다.

## 제3장 연구 관련 윤리

제12조(저자의 의무)

### 1. 표절 금지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타인의 연구결과 출처를 명시함과 더불어 여러 차례 참조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이 된다.

### 2. 출판 업적

- ①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 ②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반면, 연구나 저술(번역)에 기여했음에도 공동저자(역자)나 공동연구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연구나 저술(번역)에 대한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사회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시한다.

3. 연구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인용 및 참고 표시

- ① 공개된 학술 자료(인터넷 및 SNS 등등 게시 자료 포함)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 ②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후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디까지가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디서부터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이나 주장이나 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논문의 수정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

능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회)에게 알려야 한다.

#### 6. 공동저자 연구 부정행위 금지

저자는 논문의 이해상충 및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관련 연구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논문 게재 후라도 연구 부정이 의심되는 경우 ‘편집위원회 규정’ 제27조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가 소집된다.

#### 제13조(편집위원의 의무)

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2.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3.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 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의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4.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 제14조(심사위원의 의무)

1.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책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2.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

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3.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4.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 제4장 연구윤리위원회

### 제15조(구성과 임기)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회원 중 회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 제16조(임무와 권한)

1. 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다.
2. 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며, 이때 적절한 제재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7조(심사 절차) 위원회의 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1. 위원회의 심사 개시는 위원회, 또는 회장의 심사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심사 요청이 접수되면 위원장은 즉시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2. 위원회는 제기된 안건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자체 내의 심사 또는 외부 심사위원의 참여 여부 등 해당 안건의 심사 절차를 결정하되, 심사의 진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원은 심사에서 제외한다.
3. 위원회는 연구자의 연구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필요시 해당 연구자, 제보자, 문제가 제기된 논문의 심사위원 등을 면담 조사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의 처리를 결정하며, 해당 연구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그 결과에 대한 본인의 소명 기회 부여를 검토한다.
5. 본인의 소명은 심사위원회의 비공개 회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에게 심사 경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소명을 위한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에 참석하도록 통보한다.
6. 심사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의 소명 이후 심사위원회 결정의 번복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번복 여부의 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이루어진다.
7. 심사위원은 해당 회원의 신분이나 진행 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8조(심사 결과의 보고) 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즉시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심사의 위촉 내용
2. 심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3. 심사위원의 명단 및 심사 절차
4. 심사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5. 심사 대상 회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제19조(징계) 위원회는 심사 및 면담 조사를 종료한 후 징계의 종류를 결정한다.

징계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제명
2. 논문의 저작권 취소 및 인용 금지
3. 학회에서의 공개 사과
4. 회원으로서의 자격 정지

제20조(후속 조치) 이사회는 심사위원회의 보고서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회장은 이사회회의 결정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즉시 시행한다.
2. 심사결과가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할 경우, 이사회는 심사위원회에 재심, 또는 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사회회의 요구는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한 서류로서만 이루어진다.

## 부칙

제21조(내규)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22조(시행) 본 규정은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4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7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1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 彙報

2022. 11.11. 한중인문학연구 77집 1차 편집위원회 및 윤리위원회 개최  
 2022. 11.15. 한중인문학연구 77집 2차 편집위원회 및 윤리위원회 개최  
 2022. 11.29. 한중인문학연구 77집 3차 편집위원회 및 윤리위원회 개최  
 2022. 12.07. 한중인문학연구 77집 4차 편집위원회 및 윤리위원회 개최  
 2022. 12.23. 한중인문학연구 77집 5차 편집위원회 개최  
 2022. 12.30. 한중인문학연구 77집 발간

## 2022年度 事業計劃

- 1) 한중인문학연구 74집 투고 마감(2022년 02월 10일)
- 2) 한중인문학연구 74집 발행(2022년 03월 30일)
- 3) 한중인문학연구 75집 투고 마감(2022년 05월 10일)
- 4) 한중인문학연구 75집 발행(2022년 06월 30일)
- 5) 제 49회 한중인문학회 국제학술대회(2022년 07월 02일, 온라인(비대면))  
 - 주제: 연변조선족자치주 건립 70년 조선족의 유산과 과제
- 6) 한중인문학연구 76집 투고 마감(2022년 08월 10일)
- 7) 한중인문학연구 76집 발행(2022년 09월 30일)
- 8) 한중인문학연구 77집 투고 마감(2022년 11월 10일)
- 9) 제 50회 한중인문학회 국제학술대회(2022년 12월 17일, 경희대학교)  
 - 주제: 한중수교 30주년의 회고와 전망
- 10) 한중인문학연구 77집 발행(2022년 12월 30일)

## 〈알림〉

### 1. 『한중인문학연구』 중간 안내

2014년부터 학회지 발간을 4회로 증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투고 마감일 : 01월 30일, 04월 30일, 07월 30일, 10월 30일
- 발행일 : 03월 30일, 06월 30일, 09월 30일, 12월 30일

### 2. 『한중인문학연구』 78집 원고 모집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실 회원은 원고 마감 기한을 지켜 학회로 원고를 보내주시시오. 원고 분량은 편집면 기준 30쪽 이내로 제한합니다. 기타 사항은 학회 홈페이지 투고 규정 및 연구윤리 규정을 잘 참고하시어 투고하시기 바랍니다.(학회의 논문 작성 양식에 맞추어 작성한 논문만 투고하실 수 있습니다.)

- 논문 투고 : 온라인 투고시스템(<http://submission.kochih.kr/Login>)
- 투고 마감 : 2023년 1월 30일
- 발행 예정 : 2023년 3월 30일

### 3. 심사료 및 게재료 기준 안내

76집부터 심사료 및 게재료 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학술대회 발표 논문 및 외국학자 논문도 동일 적용)

- 심사료 : 7만원(재투고 논문일 경우에도 동일 적용)  
단, 이의제기로 인한 재심사 논문의 경우에는 재심 신청과 동시에 별도의 심사료 7만원과 회의비 4만원(합계 11만원)을 추가 부담한다.
- 게재료 : 기본 10만원(편집면 24쪽 이내)  
추가분량 편집면 1쪽당 2만원씩 추가(편집면 최대 30쪽까지 가능)  
연구비 수혜논문의 경우 교내지원 20만원, 교외지원 30만원 추가  
단, 두 곳 이상의 지원을 받는 연구비 수혜논문은 항목별로 금액을 다음과 같이 추가 납부한다.(게재료는 연구비 지원이 높은 곳

을 기준으로 청구비는 가장 높은 금액 100%와 나머지는 각각 50%를 합하여 계산한다.)

- 편집면 24쪽 이내 게재료의 예:

교외지원(100%)+교내지원(50%)=40만원

교외지원(100%)+교외지원(50%)+교내지원(50%)=55만원

#### 4. 회비 납부 안내

학회 가입비, 연회비 및 심사료는 다음과 같으며, 논문 심사는 연회비 및 심사료의 납부를 확인한 후에 진행됩니다.

가입비 : 30,000원

연회비 : 30,000원

투고 논문 심사료 : 70,000원

학술지 해외 배송료 : 20,000원 (중국의 경우, 기타 해외지역은 별도문의)

학회통장 : 신한은행 100-029-987203 한중인문학회

\* 연회비를 장기미납하신 회원의 경우 아래의 가, 나, 다 방식 중 선택하여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국내, 국외 회원 동일하게 적용)

가. 1년 연회비 3만원과 재입회비 3만원, 총 6만원 납부

나. 3년 연회비 9만원 납부

다. 5년내 연회비를 납부실적 있을 경우 재입회비 면제, 연회비 3만원 납부

\* 회원 주소록을 정비하오니 소속, 연락처, 주소 등이 변경된 회원께서는 학회 메일로 직접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5. 학회 홈페이지 회원 가입 안내

한중인문학회 신규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중인문학회 도메인 주소 : <http://kochih.kr/>

신규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ID 생성 시 영문 또는 숫자만 허용합니다. 이에 기존 가입자 중 특수기호나 스페이스가 들어간 ID는 교체를 권장해드립니다.

## 6. 학회지 PDF 발송

2018 가을 학회 총회 의결에 따라 제62집부터 기관 회원 등을 제외한 모든 회원님께 PDF 파일로 된 학회지를 발송합니다.

## 한중인문학회 제13기 임원진 및 위원진

(2022.1.1~2023.12.31)

명 예 회 장 :	김상대(아주대명예) 최병우(강릉원주대명예) 임경순(한국외대)	한계전(서울대명예) 박윤우(서경대) 유성선(강원대)	송현호(아주대명예) 한용수(동국대)
고 문 :	김공환(아주대명예) 김현숙(이화여대명예) 박경현(경찰대명예) 박인기(경인교대명예) 송하춘(고려대명예) 윤석달(항공대명예) 전인영(이화여대명예) 최유찬(연세대명예)	김종철(서울대명예) 류종렬(부산외대명예) 박순애(호남대) 박일룡(홍익대명예) 우한용(서울대명예) 윤여탁(서울대명예) 정병현(숙명여대명예) 최학출(울산대명예)	김호웅(연변대명예) 민현식(서울대명예) 박옥걸(아주대명예) 서준섭(강원대명예) 유인순(강원대명예) 이정숙(한성대명예) 조창환(아주대명예)
회 장 :	김유중(서울대)		
전공 부회장 :	이지영(어학:서강대) 김 호(역사:서울대) 민병곤(교육:서울대)	구재진(문학:세명대) 임치균(사상:한중연) 이은희(여성:한성대)	김원중(고전:단국대) 임대근(문화:한국외대) 이해영(중국어:중국해양대)
지역 부회장 :	이병찬(서울:덕성여대) 윤의섭(충청:대전대) 송현정(제주:제주대)	이태숙(경기:단국대) 김성진(경상:대구대)	김풍기(강원:강원대) 김혜영(전라:조선대)
행정 부회장 :	정래필(영남대)		
분 과 이 사 :	<u>[총무]</u> 광명숙(아주대) 박진(국민대)	<u>김형규(아주대)</u> 정진석(강원대) 최미숙(상명대) 황영미(숙명여대)	임대근(한국외대) 조명숙(경희대) 윤선자(전남대) 남연(북경대)
	<u>[기획]</u> 김정우(이화여대) 박진호(서울대)	<u>최미숙(상명대)</u> 황영미(숙명여대)	이영남(경희대) 김은성(이화여대)
	<u>[연구]</u> 김진규(가천대) 송윤미(강원대)	<u>김근호(전남대)</u> 이미옥(서울대)	김원중(단국대) 김명숙(중앙민족대)
	<u>[편집]</u> 최호영(안동대) 조현일(원광대)	<u>우신영(인천대)</u> 신정수(한중연)	송재연(서원대) 최유학(중앙민족대)
	<u>[국제]</u> 진공(국민대) 신영덕(인하국립대)	<u>이영남(광서사범대)</u> 박춘란(사천외대)	지수용(화중사범대) 윤경애(대림민족대)
	<u>[섭외]</u> 조원일(전남대) 이정란(한중연)	<u>김환기(동국대)</u> 홍순애(동덕여대)	박강(부산외대) 유전진(운남사범대)
	<u>[홍보]</u> 박성일(한국체대) 최재선(산업대)	<u>김상일(동국대)</u> 선저이쿠마르(코리아헤럴드)	김현주(한국외대) 이영호(제주대)
	<u>[교육]</u> 류수열(한양대) 김호정(서울대)	<u>권순희(이화여대)</u> 한창훈(전북대)	김미순(한국외대) 전영근(광동외대)
			민재원(전북대) 여호규(한국외대) 김은성(이화여대) 이명아(국민대) 엄홍화(회해공대) 천춘화(숭실대) 김영주(대전대)

[정보] <u>송지언(홍익대)</u>	강남욱(경인교대)	이승준(항공대)	이희정(경북대)
장은영(조선대)	최인자(가톨릭대)	노금숙(호남사대)	
[출판] <u>조하연(아주대)</u>	황혜진(건국대)	오영미(교통대)	권유리아(부산외대)
정혜영(대구대)	유정은(강원대)	김경선(북경외대)	

감 사(2) : 류순태(서울시립대), 차희정(명지대)

간 사(3) : 행정학술-전세진(서울대), 편집정보-신문봉(서울대) 백지운(경희대)

\* 밑줄은 실무담당 상임이사입니다.

### 〈편집위원회〉

편집자문위원 : 권용욱(남서울대 명예)	김석희(인하대 명예)	류종렬(부산외대 명예)
민현식(서울대 명예)	박인기(경인교대 명예)	서준섭(강원대 명예)
손희하(전남대 명예)	윤여탁(서울대 명예)	윤정룡(한남대 명예)
이영춘(한중문화연구소)	전인영(이화여대 명예)	정병현(숙명여대 명예)
최유찬(연세대 명예)	우한용(서울대 명예)	김호웅(연변대 석좌)
심정창(북경대 명예)	윤윤진(길림대)	김기석(상해외대)
허세립(길림대 주해)	김종철(서울대 명예)	김하림(조선대)
박인용(홍익대)	정호웅(홍익대)	유문선(한신대)
이후일(선문대)	공종구(균산대)	박경수(부산외대)
차성만(서경대)	문철영(단국대)	박현규(경북대 명예)

편집위원장 : 이선이(경희대)

편집위원(13) : 이정란(어학(한), 수도권:한국학중앙연구원)	김원중(문학(중), 수도권:단국대)
이명아(어학(중), 수도권:국민대)	오영미(문화, 충청:한국교통대)
송현정(언어교육(한), 제주:제주대)	김 호(역사, 수도권:서울대)
박성일(언어교육(한·중), 수도권:한국체대)	유정은(철학, 강원:강원대)
민재원(문학교육, 전라:전북대)	신경수(한국학, 수도권:한국학중앙연구원)
최호영(현대문학(한), 경상:안동대)	이혜영(중국학, 해외:중국해양대)
김풍기(고전문학(한), 강원:강원대)	

###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 : 유성선(강원대)

위원(14) : <u>김유중(서울대)</u>	<u>이선이(경희대)</u>	<u>정래필(영남대)</u>	<u>곽명숙(아주대)</u>
<u>김형규(아주대)</u>	<u>최호영(안동대)</u>	<u>김진규(가천대)</u>	김정우(이화여대)
박성일(한국체대)	서혁(이화여대)	이은희(한성대)	임치균(한국학중앙연구원)
전공(국민대)	조원일(전남대)		

\*밑줄 당원직: 학회장, 편집위원장, 행정부회장, 총무이사, 연구이사, 편집이사



한중인문학연구 제77집

2022年 12月 27日 印刷

2022年 12月 30日 刊行

發行人 : 김 유 중

事務室 :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관악캠퍼스 1동 314호

한중인문학회 김유중

T. 02-880-6050 F. 02-878-1246

<http://kochih.kr/>

E-mail : [kochih@hanmail.net](mailto:kochih@hanmail.net)

製作處 : 한유북스 E-mail : [hanyubooks@naver.com](mailto:hanyubooks@naver.com)

값 15,000원